발 간 등 록 번 호
52-6260000-000301-10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부산구술문화총서 11

중부산 문화권 설화(Ⅲ)

동구·서구·영도구·중구 편

박경수·황경숙 편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20

일 러 두 기

1. 구성과 체제

(1) 이 책은 부산구술문화총서의 일환으로 간행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를 동부산 문화권·서부산 문화권·중부산 문화권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설화 자료와 민요 자료를 집대성한 것이다.

(2) 이 책은 부산구술문화총서 제11권『중부산 문화권 설화(Ⅲ)』로 중부산 문화권에서도 중·남부에 위치한 동구·서구·영도구·중구의 설화 자료를 모아서 엮은 것이다.

(3)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었다. Ⅰ. 현장조사 설화, Ⅱ. 기존 현장조사 설화, Ⅲ. 문헌 소재 설화로 편성하고, 각 장의 설화를 조사지역(구, 동, 조사장소), 조사일, 제보자의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단, 문헌 소재 설화는 조사지역(구별) 다음에 설화 제목과 내용을 고려하여 문헌 소재의 발간 시기 순으로 정리하였다.

(4) Ⅰ부는 이 책의 집필자들이 중심이 되어 부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현장 조사한 설화 자료를 수록한 것으로, 각 설화마다 제목, 구술자(이름·성별·출생년도), 구술 일자, 구술 장소, 본문 순으로 정리하였다.

(5) Ⅱ부는 부산광역시 외에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현장 조사를 했거나 개인적으로 현장 조사를 하여 출판된 설화 자료를 모아서 엮은 것이다. 각 자료의 끝에 출처를 밝혀 두었다.

(6) Ⅲ부는 기존에 발행된 문헌 수록 설화로서 현장조사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자료를 엮은 것이다. 동일한 설화의 경우 먼저 출판된 자료를 저본으로 수록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설화라도 세부적인 표현에서 차이가 있으면 별도의 자료로 보았다. 각 설화의 출처는 자료 끝에 밝혀 각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게 했으며, 기본적으로 동일한 설화이되 미세한 표현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각주에서 이를 밝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7) 이 책의 끝에 구술 자료의 제목, 구술자(제보자)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색인을 붙여 자료를 쉽게 활용하도록 하였다.

2. 표기 원칙

(1) 모든 자료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다.

① 현장조사 설화의 경우, 지역 방언을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방언에 대한 표준어나 뜻풀이는 소괄호 (　) 안에 넣어 표기하였다. 뜻풀이가 길거나 별도의 주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로 처리하였다.

② 한자, 외국어, 숫자 등을 별도로 밝히는 경우에도 소괄호 (　) 안에 넣어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 책 이름은 겹낫표『 』, 작품명은 낫표「 」, 설화에서 혼잣말은 홑따옴표‘ ’, 대화는 겹따옴표“ ”로 표시하였다.

(3) Ⅰ부 현장조사 설화의 경우, 조사자와 청중의 개입 부분과 제보자의 구술 특징이나 구술 시 행위 등은 대괄호[ ]에 넣어서 제보자의 구술 내용과 구분되도록 했다.

(4) Ⅱ부 기존 현장조사 설화의 경우, 원전 표기 원칙을 그대로 준수하되, 단락별 들여쓰기만 별도로 했다.

(5) Ⅲ부 문헌 소재 설화의 경우, 원전의 표기를 가능한 충실하게 따르되, 현행 한글맞춤법에 어긋난 어휘 표현만 수정하였다.

각권별편제

제1권 동부산 문화권 설화(Ⅰ) - 기장군 편 - [2012년 발간]

제2권 동부산 문화권 설화(Ⅱ) - 남구·수영구·해운대구 편 - [2013년 발간]

제3권 동부산 문화권 민요(Ⅰ) -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편 - [2014년 발간]

제4권 동부산 문화권 민요(Ⅱ) -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편 - [2015년 발간]

제5권 서부산 문화권 설화(Ⅰ) - 강서구 편 - [2016년 발간]

제6권 서부산 문화권 설화(Ⅱ) - 북구·사상구·사하구 편 - [2017년 발간]

제7권 서부산 문화권 민요(Ⅰ) - 강서구 편 - [2017년 발간]

제8권 서부산 문화권 민요(Ⅱ) - 북구·사상구·사하구 편 - [2018년 발간]

제9권 중부산 문화권 설화(Ⅰ) - 금정구·동래구 편 - [2018년 발간]

제10권 중부산 문화권 설화(Ⅱ) - 연제구·부산진구 편 - [2019년 발간]

제11권 중부산 문화권 설화(Ⅲ) - 동구·서구·영도구·중구 편 - [2020년 발간]

제12권 중부산 문화권 민요(Ⅰ) - 금정구·동래구 편 - [2021년 발간 예정]

제13권 중부산 문화권 민요(Ⅱ) - 연제구·부산진구 편 - [2021년 발간 예정]

제14권 중부산 문화권 민요(Ⅱ) - 동구·서구·영도구·중구 편 - [2022년 발간 예정]

제15권 부산광역시 설화·민요 보유편 - [2022년 발간 예정]

목 차

일러두기 ····· i

Ⅰ. 현장조사 설화 ····· 1

1. 동구 설화 ····· 3
2. 서구 설화 ····· 202
3. 영도구 설화 ····· 393
4. 중구 설화 ····· 612

Ⅱ. 기존 현장조사 설화 ····· 711

- 박경수의 현장조사 설화 ····· 713

Ⅲ. 문헌 소재 설화 ····· 747

1. 동구 설화 ····· 749
2. 서구 설화 ····· 755
3. 영도구 설화 ····· 757
4. 중구 설화 ····· 767

※ 참고문헌 ····· 770

※ 제보자 색인 ····· 771

※ 설화 제목 색인 ····· 776

Ⅰ. 현장조사 설화

1. 동구 설화
2. 서구 설화
3. 영도구 설화
4. 중구 설화

1. 동구 설화

[동구 설화 1]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송여(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널박경로당]

아들 몬(못) 찾아오까 봐, 집 몬 찾아갈까 봐, 업혀가면서 나무를 똑똑 끊어,
"니가 혹시나 집을 몬 찾아가까 봐 내가 이래 표시를 해놨이(해놓았으니), 나무 긁힌 데로 가라."
인자 그래가 다시 부모를 모셔 가더랍니더. 왜냐 하면은 그만큼 갖다 버릴라고 가는데도 자석(자식) 생각을 하이꺼네, 그 아마 그렇지만 어찌 버리겠습니꺼. 그런 옛말이.

[동구 설화 2]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김송여(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널박경로당]

옛날에는, 이 우리 요새는 이런 비니루 깐 장판이지만은, 장판이지만은, 옛날에 삽자리('돗자리'의 방언) 장판. [조사자: 그래, 삽자리.]
거 인자 시어머니가 인자 메느리가 매일 지렁이로 가지고 반찬을 해주는데 참 맛이 있더랍니더. '그래, 이기 무엇인고?' 싶어가지고, 자리 밑에다 하나썩 하나썩 옇어놨는가 봐요. 할머니가. 눈에 안 보니이니까.
그랬더만 나중에 눈을 뜨고 그걸 보이 그기(그것이) 지렁이더랍니다. 그러이께네 그런 전설인가, 그런 말이 들어보니까 있습니다. [청중: 지렁이가 약 된다 이 말이다.] [조사자: 그래 그 어무이가 어데 눈을 떴는가?] 그래 눈을 뜨가 인자, 그러이께네 몇 년 됐겠지요, 자리 밑에 자기가 옇어놨어.

[동구 설화 3]

높임말만 쓰는 며느리

김송여(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널박경로당]

"시집을 가몬 무조건 쪼그만 아이, 주우(중우. 즉 바지) 벗은 시동상(시동생)도 높이라."라는 걸 부야에가[1] 갔이니까(갔으니까).

시집을 가니까 개가 그래 뛰더랍니다. 시아부지잔테(시아버지에게),

"아부님, 개씨가 등구지(도롱이)[2]를 덮어 씌고 뛰시네예."

쿤다 하는. [일동 웃음]

[동구 설화 4]

도깨비가 되는 빗자루

김송여(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널박경로당]

그거는 저- 장 부녀들이, 부녀들이 멘스(월경)가 있을 때 모지랑 빗자루로 깔고 앉아가지고 그기 멘스가 묻히몬 그기 토깨비(도깨비)가 된대.

그러면 밤에, 밤에 이리이리 토깨비가 나서몬, 토깨비가, 사람이 밑으로 내리다 봐야 되지 치다보몬 그기 토깨비가 더 커진다네. 어, 커지는데 난게(나중에) 쎄리(매우 세게) 싸우고 묶어놓고 난주(나중에) 와서 내일, 거 담날(다음날) 아침에 본게, 빗자리 몽댕이로 묶어놨더라 안 캅디꺼.

[동구 설화 5]

도깨비와 싸운 사람

1)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으나, "부탁해서"라는 뜻으로 말한 듯함.
2) 짚으로 만든 비옷.

김송여(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널박경로당]

우리 오라바이(오라버니)가 전데(전에) 면에 댕길 때, 전데 이 가방을 들고 인자 나오몬, 앞에서 뭐이 나서더랍니더. 자꾸 치다본께(쳐다보니까) 키가 크는 것 같고, 싸움 해감서, 싸움 해가면서러 와갖고, 인자 우리 동네꺼정 왔는데, 왜 우리 사장 올키가 거 있었어.

"행수(형수), 행수. 내 언자(이제) 온다. 언자 온다."

쌈시러(하면서), 나가본께 그 질로 가고 없더래. 울매나(얼마나) 싸웠는지 가방 끈이 다 떨어졌더래. 그기 토깨비가 그기 나섰어.

[청중: 옛날에 그런 기 있었어.] 옛날에 그래, 그런께 이제 아들을(아이들이) 불 땔 때,

"빗자루 그거는 깔고 앉지 마라."

고, 옛날에 어른들 다 그래 쌌대.

[동구 설화 6]

도깨비에게 홀렸다 살아난 딸

정정옥(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널박경로당]

우리 사촌언니는 시골에 사는데, 전부 또 이래 [일부 청취 불능] 구영(구멍) 뚫어가지고 초랑불(초롱불) 내가지고, 고기다(그곳에다) 초랑불 내가지고 놔놓으몬 밖이 밝아가, 그거 가지고 희미한데 설거지하고 이랬다 아이가.

근데 그날 밥을 무우면서, 비가 장대같이 오는데, 우리 큰엄마가,

"야야, 니 가서 저기 물 한 그릇 떠온나."

이랬더니, 물 뜨러 나가가 생전 안 오더래. 생전 안 아가지고(와가지고) 암만 기다리도 불러도, 우리 언니 이름이 옥분이라, '옥분아! 옥분아!' 불렀는데 대답도 없고 이래가지고, 인자 그 질(길)로 나서 온 동네 사람이 초랑불 들고 산을 헤맸는 기라. 산에 찾아도 아무리 찾아도 없더란다. 그래 날씨가 오인께(어두우니까) 비 안에 미루나무, 옛날에 왜 그 도로가에 있는 미루나무라 했다 아입니꺼. 미루나무 알지요? [조사자: 예.] 뽀뿌라나무라 하지만 미루나무, 미루나무. [청중: 그거는 일본말이지.] 음.

미루나무가 길에 이래 하나 있었는데, 아침에 보이께네 거어 미루나무 새에다 딱 찡가(끼워) 놨더란다. 우리 언니를. 근데 반은 죽었더래요. 밤새도록 그 비를 맞고 있었어몬. 그래가

지고 방에 데러 들와가지고, 찾다 찾다 없어가지고, 비 안에 뭐하러 우리 큰아부지가 가이 있더래.

그래, 방에 데려다 놓고 막 물을 낋이(끓여) 먹이고 덮여 씌우고, 그때만 해도 병원이 어디 있는교. 병원이. 바늘로 따고 이래가지고 정신이 돌아왔는데, 막 한 삼일 동안 억수로 아프더란다. 그래 깼는데,

"야이 왜 니 어데 갔더노?"

이래이꺼노, 물을 뜨러 갔는데 키가 커다란 사람이 어데 덜렁 안고 가더래. 그기 바로 도깨비라. 커다란 사람이 오디 덜렁 안고 가는데 마 소리도 못 지르겠더란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래 시집도 못 가고 삼년만 살고 죽는다, 시집도 못 간다고, 지금까지 살아있다.

[동구 설화 7]

쌀 나오는 구멍이 있던 석굴암 암자

김송여(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널박경로당]

석굴암. 우리 갈 직에, 요새는 길이 딱가가지고 그래 댕기지만, 아흔아홉 고갭니더.

그 그자 올라가가이 가몬 인자 부처님이 돌, 못에 부처님이 모셔놨는데, 그 절에 쪼맨한 암자가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이야기가 잠시 중단됨]

그런데 인자 설명하는 사람이 하는데, 물이 안 나오고, 쌀이 그 스님 잡술 쌀만 나온다요. 그라는데, 그래 인제, '더 크게 떫으면은(뚫으면) 저 쌀이 더 마이(많이) 안 나오겠나.' 그래 욕심을 부려가 그래 떫었더마는(뚫었더니만) 물이 나오, 물이 나오더랍니더.

그래 그 전설인가, 그거 저 우리 여행 갔을 때 그 가이드가, 요새 우리말로 가이드.

[동구 설화 8]

박제상과 망부석

김송여(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널박경로당]

[앞의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구술함] 그 또 올라가는데, 그거 저거 방이(바위가) 또 큰 기 있어예. 그 망부석이라고.

그런데 그 남편이 일본 그거로 갔는갑대. 귀양 겉이 갔는갑대. 그랬는데, 그 저저 베실(벼슬)이 제상이라 하던데, [조사자: 제상이. 아, 박제상이.] 예. 그랬는데, 그 부인이 남편 기다리다가 그 망부석이 됐답니더.

그랜 거 그런 전설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없애고 없더라고 지금 간게. [조사자: 음, 그 유명한 전설이다.] 예. 그러께네 그런 거를 보존을 해놔야 되는데, 그기 그기 문화 아입니꺼. 보존을 해놔야 되는데, 다 길 낸다고 다 없앴더라고.

[동구 설화 9]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김송여(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널박경로당]

그때 설명하는데 그렇대요.

저 철을 모아가지고 그 에밀레종을 만들라 하는데, 저 댕기면서 그 쇠를 거다(거두어) 와야 되는 기라. 그렇는데 그래, 어떤 부인이 하나 있다가,

"나야 아무거도 줄 거도 없고, 우리 봉덕이나 주면 주까? 줄 거 없다."

이랬는 기라. 그래 쇠를 아무리 고아가 해도 그거 종소리가 안 나는 기라. 그 봉덕이를 참 그거 쇠 고으는 데 옇었답니더.

그래서 그 전설이 그 종을 치몬 에밀레, 에밀렐레 그래 길게 소리가 났는데, 그기 일본놈이 가(가져) 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동구 설화 10]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박수화(여,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범곡부녀경로당]

[윤희수의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우리 쪼금 다르네. 와 그렇노 카모, 어- 칠십 살 무몬(먹으면) 고래장(고려장)을 다 했는데, 왜냐하면 칠십 살에 돼가지고 고려장을 할라 카이께네, 그 참 거 자손이 억수로, 저 저게 뭐꼬 말하자면 장관, 요즘 같으몬 장관을 했어.

그래 했는데, 저 중국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인자 한국을 괴롭힐라고 질문을 내놨는 기라. 허, 그래가,

"그 답변을 아무라도 내면 어, 저 베슬(벼슬)을 올려준다."

그랬는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 있으이커네, 그래 참 거 이 대감님이 항상 수심에 잠기가 있어요. 어머니가 칠십이 넘었는데 안자,

"왜 너는 그래 만날 수심에 잠기가 있느냐?"

이란께네,

"그런 게 아이라 나라에서, 중국에서 사신이 왔는데, 이러이러한 질문을 내놨는데 아무도 답변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걱정이 된다."

카더래. 그래 어머니가 딱 얘기를 하더랍니다.

"거, 니가 가가지고 딱 사신이 오거들랑, 거 질문하러 들어가거들랑, 문지방에다가 딱 다리를 하나 올리라 하거든예. 올리놓고 사신보고 내가 들어가겠습니까? 나오겠습니까? 이래 묻거든, 그 대답을 해주면 내가 그 답변을 해드리겠다."

이라이께네, 아! 그래가지고 어 사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들어오겠다 카몬 나갈 끼고 나가겠다 카면 들어올 끼고' 이래. [웃음] 그래가지고,

"아이고 여게도 대인이 있으이께네 도저히 안 된다."

카매 가더라. 그래서 그거래 마, 상감님이 너무나 황송해서 거 인자 대감을 불렀어.

"거, 어째서 당신은 그 저 그리 알았느냐?"

이러이께네,

"우리 노모가 그래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 가거들랑, 내가 딱 가리키 줄게, 문지방에 발을 딱 한 발을 올리놔놓고, '내가 들어가겠습니까? 나가겠습니까?' 이래 하고, 어머니 질문했는 걸 내가 답변을 하되, 이 답변부터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무면을 했답니다. [청중 박수]

[동구 설화 11]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박수화(여,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범곡부녀경로당]

[차순덕의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그런데 나머지 한 가지만 얘기하께.

그래가지고 아- 이거 밑에 놔두는, 지렁이 한 마리썩 놔두는 그거로 갖다가,

"뭘 멕였는데 내가 이거로 뭈다(먹었다) 야야."

카맨서러, 아들한테 빌어.[3)]

"아고, 엄마. 이거 지렁이 아인교!"

이라이까네, 어머이가,

"뭐?"

카매 눈을 빠짝 떴다. [청중 웃으며 박수] 그래 이래저래 좋은 일이 생기더래.

[동구 설화 12]

공부만 하던 선비의 반성

박수화(여,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범곡부녀경로당]

언자 거 남자는 선빈데, 옛날에 선비는 절대 일을 안 했어. 그래가지고 그것 참 나락을 널어놨는데, 아무도 거들 사람도 없고, 인자 여자는 또 밭에 일하러 가고 난 뒤에 비가 왔으이께네, '누가 걷겠노?' 남자는 안 걷으이까네.

너무너무 애가 터져서 딴 데 살러 가겠다고 막 일어싸이꺼네, 어- 그리고 내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난중에 딱 보이꺼네, 살러가고 난 뒤에 아 인자 딱 남자가 깨달았어. '너무 자기가 이래가는 공부만이 이기 전부가 아니다. 아만 알아도 저 곡식을 못 먹게 되몬 굶어 죽게 되이꺼네 아무리 학자몬 뭐하노? 어, 곡식이 있어야 이 맹(명. 즉 목숨)을 잇아가 나샀는데.' 싶어가 자기가 공부는 언자 쪼끔 덜하고 그거를 좀 돌봤다 하대.

[동구 설화 13]

3) '보여'라고 말해야 하는데 잘못 말한 것으로 보임.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안현수(여,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범곡부녀경로당]

[윤희수와 박수화의 고려장 이야기를 듣고난 후에] 우리는 또 옛날에 이렇기 얘기 하데.

인자 칠십 살에 고래장(고려장)을 해라 카는데, 그래 인자 참 업고 지고 가기는 갔는데 인자, 아버지 엄마를 버릴 수 없어. 구디기(구덩이) 딱 인자 파놓고 속가지(솔가지)를 이래 짝- 빵- 나무로 비가(베어서) 해놓고,

"그 딱 앉아있어라."

카이, 참 인자 밥을, 해나 너무 마이 올라갔으이 길을 잊아뿌. 가면서 솔잎을 딱 딱 포시(표시)로 해놨대예. [조사자: 엄마가?] 아니, 아들이. 아들이 인자 그 업어다 모시놓고 내려오면서, 내러오매 포시를 해놨는 기라. 저 올라갈라고 안자, 그래 딱 포시를 해놓고 밥을 이래 내도록 갖다 드맀어.

아침 저녁으로 밥을 갖다 주고, 이래가지고 할매가 그래 그 밥을 자시고 언자 마, 건강이 쪼끔 채리가 났는데, 도저히 안 되가 한 일주일 돼가지고,

"엄마, 도저히 내 이래, 내가 마 매 맞아서 죽었으면 죽었지 이건 아니예. 아인께네 마 가입시더."

다부(도로) 짊어지고 내러왔대요. 그런 또 속담이 있더라고.

[동구 설화 14]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윤희수(여,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범곡부녀경로당]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인자 갖다 묻으러 저 뭐 고래장 하러 갔잖아예. 가가지고 그지(거의 다) 해놓고 지게를 가지고 돌아올라 카니까, 그 손자가,

"그거를 가지고 가자."

하는 거라예. 지게를. [청중: 지게를 내삐리이, 지게로 내삐리고 갈라 카이.] 아부지가 그래 내삐리고 갈라 카이까네, 뽀사버리고 갈라 카이까네, 그 손자가 그 지게를 그냥 가지고 가자

카이, 저거 아버지가,

"왜 그러냐?"

카이,

"아부지도 그 하면 내가 엄마를, 아부지를 지고 와야 될 것 아니냐."

카이카네, 저거 아버지가 그 엄마를 도로 지고. [조사자: 도로 짊어지고.]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들었다.

[동구 설화 15]

저승 갔다 살아난 사람

차순덕(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범곡부녀경로당]

옛날에는 죽으만 귀신이 친정식구로 가, 여자는. 친정식구로 찾아간다 카데.

그랬는데 우리 이웃사람이 그때 마이(많이) 아파갖고 살살 댕기는데, 그래 꿈을 꾸이꺼네, 자기가 인자 꿈인지 아인지 모르고 안자, 어데꺼정 가이꺼네 저거 어머니도 있고 전부 저거 식구들이 거 꽉 친정식구가 있더란다. 가이께네 엄마가,

"니가 여 뭐 하러 오노? 빨리 가라고."

막 머라카더라(나무라더라) 카네. 그래 인자 온다고 오이께네, 진짜 외나무다리 타고 오는 기라. 오다가 보이 깨갖고, 그리 지가 자다가 눈을 뜨인께네 그렇대. 몸이 아프인께네 그런 꿈을 꿨는 모양이라.

[동구 설화 16]

시어머니가 미워 지렁이국을 준 며느리

차순덕(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범곡부녀경로당]

고거는 예, 어띻기(어떻게) 시어마이(시어머니)한테 미느리(며느리)가 불혼지(불효인지)예,

불혼데, 시어마이를 어떻게 구박을 하고 이래나이 몬(못) 얻어먹고, 하도 인자 아들은 장사를 나가고, 장사를 나가고 엄마가 혼차(혼자) 이래 사는데, 그래 마 엄마가 신랑 나가뿌고 나면 시어마이로 구박을, 밥을 옳게 안 주는 기라. [청중: 아이구 딱하다.]

그래가지고 신랑이 인자 뭐 어머이 놔놓고 왔다고 올라 카이 걱정이 안 됩니까? 걱정 돼가 인자 장사를 갔다가 떡 오갖고 마누라보고,

"아무 데 장에 가이께네 엄마로 모도 살찌아가 나오몬 돈을 마이(많이) 준다 카던데, 상금을. 살을 찌아가 나오몬 상금을 많이 준다 컨다. 우리도 어머이한테 좀 잘해 봐라."

했는 기라. 그래 해줄 거는 없고 이러이께네, 지렁이로 파가지고 그거로 고와갖고 잡수만이 할매가, 자기 어머이가 눈이 어둡다 안 캅디꺼? 눈이 멀었다 안 컵디꺼? 그래가지고 이거는 자리 밑에 옛날에 샅자리(돗자리) 아입니꺼? 밑에 요다가(여기다기) 한 바리 무을 때만 옇어놘 기라. 그런데 그라고 장사를 갔다 오이, 엄마가 통통하이 살이 올라가 있거던.

"아이고이, 우리 어머이를 봉양을 얼매나 잘해서 이리 어머이 얼굴이 좋느냐?"

고 물으이께네, 그래 인자,

"요 자리 밑에 요 들어보라."

카더라. 그래 아들보고 들어보이 지렁이더란다. 지렁이를 그래.

지렁이 그기 그래 보약 된다 안 캅니꺼? 예, 그래가지고 갖다 인자,

"어머이는 요마이 살이 쪘으니 갖다 팔만 돈을 마이 받을 끼께네, 가야 되겠다."

카고,

"어무이로 모시고 가야 되겠다."

이라이께, 미느리가, 저저저 마누라,

"절대 안 된다."

카거든. 자기가 몸이 괜찮은게네 아도 봐주고 일도 거들어주고 이러이께네 일거양득이라. 내가 뭐 저저 뭐꼬 오만 것 다 거들어주고 아 봐주고 이라이께네,

"어머이 없으몬 안 되겠다고."

카매 절대 못 데리고 가도록 하더란다.

[동구 설화 17]

도둑을 개과천선하게 한 가난한 선비

차순덕(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범곡부녀경로당]

옛날에 어느 선비가 맨날 너무 몬(못) 사는 기라. 글만 읽고 일도 안 하고 이러이께네, 너무너무 몬 살고 이래 사는데, 한 날 도둑놈이 인자 도둑질을 하러 들어오는데, 부엌에 가갖고 솥을 떼가 갈라고, 부엌에 인자 솥을 떼러 갈려고 부엌에 몰래 딱 이래 들어가 있으이께네, 바아서(방에서) 선비가 도포자루를 질- 끌고 밖에 나오더만은 , 앞에 이래 나락이 누러이 이래가 있는데, 인자 마이 누러몬 안 되겠지. 쫌 물 들었을 때, 글(그럴) 때 터지몬 하얀 물 나올 그 정도 됐어요. 그래 나오디, 나락을 하나 뽑고는,

"아이고, 하늘 무섭아라."

이라거든. 또 두 이삭 뽑아가지고는,

"하늘 무서워."

세 이삭을 인자 뽑음서,

"하늘 무섭아라."

카이, 이 도둑이놈이 부엌에서 가마히(가만히) 들으이, '나는 넘의 거 아무 겁 없이 훔치가 묵고 이렇는데, 넘의 나락 그거로 저 한 잎 하이 뿌이, 세 이삭 뽑을 때마정 하늘 무섭어라 하는데. 나는 이래 살아가 되는 기 아닌갑다.' 싶어서 그때 깨달았어예.

그래 인자 이 선비는 인자 그 도둑은 부엌에서 인자 그거를 생각하고 있고, 인자 선비가 그 나락을 가가디만은(가져가더니만) 입에다 훑어가 옇어 꼭꼭 씹어가지고, 전부 기진해가 눕었는 기라, 식구대로. 그러이 입에, 기진해가 전부 다 눕우가 있는데, 몬 묵어서.

그래 나락 그거로 꼭꼭 씹으이, 흰 물이 나는 그거를 입에다 또도똑 딱 요래 돌아가매 해준께, 식구대로 다 일나더란다. 굶어서 죽어, 그래가 있었어예. 기진해가 있었어예.

그래가 도둑이 방에 돌오가지고(들어와가지고) 고마 선비한테 절을 하매,

"저는 도둑놈입니더. 도둑질하러 솥 떼러 왔는데, 그래 선비님이 그 나락 한 이삭 뜯으면서, 넘의 거로 뜯으이께네 아이고, 하늘 무섭아라 카고, 세 이삭을 뜯어 할 적마다 하늘 무섭아라 카고 이랬는데, 나는 넘의 거로 겁 없이 이래 다 훔쳐갖고, 부자라 인제, 훔치갖고 사이(사니), 내가 인제 지금부터 개과천선 해가지고 앞으로 옳은 사람으로 살 낀께네 영대로(명령대로) 날로(나를), 동생을 그래 삼아도라."

카는 기라. 그래 그때부터 이 선비가 고마 마, 그거 도둑이 다 믹이 살맀는 기라. 그래가 부자가 돼뿠어. [청중 이야기에 감탄하며 박수]

[동구 설화 18]

노름하는 아들 버릇 고친 어머니

차순덕(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범곡부녀경로당]

이래 인자 엄마를 모시고 그 부부간 하고, 요래 인자 신혼부부라. 이래 사는데, 이 남자가 노름을 하는 기라. 노름에 미쳤부갖고 마 집에 있는 재산을 다 갖다 내삐리뿠어예. 다 갖다 내비리고 [청중: 옛날에 마이 그랬다.] 야. 그런데 거 마 아무리 그거해도 마누라도 옆에 머 잤는가 안 잤는가 그것도 모르는데, 우째 하 마, 마누라가 임신을 했어예.

그래 임신을 해갖고 인자 애기를 하나 딱 낳아가 있는데, 이 남자가 다 갖다 내삐리고나이 집빽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라. 이간(衣冠) 관망(冠網)을 해가지고[4] 두루마기를 입고 그 노름방에 따더라. 그 잘 하던데 그 사람들 다 거하제. 그래가 영감만 해가 노름방 떡 들어가가지고 노름을 하는 기라. 그래가 마 참 그거 해가지고 마, [웃으면서] 옷도 좀 이상하이 남자들이 좀 아래를 이리 올려갖고, 그래가 정신이 빠질 정도로, 빠질 정도로 해가지고, [일동 웃음] 그래가지고 인자 막 그래하이께네, 자기 재산을 그런 거 다 찾았는 기라. 재산을. 다 찾아갖고 인자 집에 오가고는(와서는) 아들보고,

"그래, 니가 앞으로 이런 거 하몬 절대로 난 니 엄마로 안 한다."

이랬대. 그래 됐는데, 집에 오인께네, 애기가 하나 딱 있는데, 돌 한다고 그라거든. 돌 한다고 집안 문중들 다 모이가지고 마 이래샀는, 좋다고 그래샀는데, 이 아들 이거는 지 아 아이라고, 지 노름하러 댕긴다고 아(아이) 맨들 여력, 의사가 없는 기라. [일동 웃음]

그래가지고 인자 심두릉하이(심드렁하게) 해가지고 마 손님이 오도 그래가 있어. 그래가 엄마가 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기라. 그래,

"오늘 우리 저 손자 돌인데, 이 경사스럽운 날에 내가 이야기를 한 개 해야 되겠다."

카매, 그래 그 자기가 지내온 이야기로 해가지고, 그래,

"손자가 난 줄도 모르고 저래 바람이 들어가 저랬다고. 인자는 뭐 개과천선 한다 커이꺼네, 응 인자 마 두고 본다."

쿠고, 그래 그라이께네요 아들이 그때 가마(가만히) 처다 봐. '저기 내 아들이 맞는가?' 싶어갖고, [일동 웃음] 그래 웃고 고마 화목하게 돼뿌고, 엄마가 참 보통사람이 아이라예.

[동구 설화 19]

죽을 삼십만 그릇 먹어야 할 팔자의 머슴

4) 의관(衣冠) 관망(冠網)을 해가지고. 즉, 의관정제(衣冠整齊)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남장을 했다는 말이다.

차순덕(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범곡부녀경로당]

사주팔자가 죽을 삼십만 그륵(그릇)을 묵고 살아야 된다 캐. 힘이 안 피고[5] 핑상(평생) 그래 산다 이기라. [조사자를 보고] 다 해야 되까예? [조사자1: 어어 그거.] [조사자2: 한 번만 하지 말고 해주이소.]

옛날에 어느 머슴이 넘(남)의 집에 가서 언자 머슴질로 했는 기라. 머슴질을 해가지고 그거를 했는 기라. 마이 저 한 십 년을 요고로 인자 저 저, 십 년 있다가 인자 세금 받게 하고 그 집에서 장개(장가)도 들이주고, 십 년 받다가 세금 갖고도 장개도 들이준다 캤거던.

그래나이 만날 그래 인자 일만 죽자 사자, 옛날에는 머슴방이 있다 하대. 모이가 노는데. 새끼도 꼬이고, 이래가 머슴방에 가서 만날 놀고 새끼도 꼬아고. 만날 그래 쌌다가, 하루는 인자 쉬는 날이 있는데, 에이고, 오늘은 주인한테,

"돈을 쪼깨이(조금) 빌리조라(빌려달라)."

캐갖고, 장을 갔는 겨. 오일장 아입니꺼. 오일, 칠일장 아이가. 그래 장을 떡 가지고 가서, 그래 인자 온- 데 둘러보고 인자 구경하고 술도 한 잔 사묵고 인자 이래 했는데, 집에 올라고 보이께네, 어데 사주보는 사람이 떡 있더란다. '아이고 내 팔자가 이래가 평상 이래가 살긴가?' 싶어서, 그래 인자 돈을 쪼깨이 놔놓고, 남은 거로 놓고,

"그래 내가 마 내 팔자가 만날 이렇는가 사주 함(한 번) 봐 도라."

커이께, 그 사람이 휘-떡 치다보디만은 돈을 도로 주더랍니다.

"당신은 볼 것도 없고, 평상 내 죽을 삼십만 그륵 묵고 살 팔자라."

카더란다. 죽을. [청중: 평상(평생) 무도 못다 묵겠네.] 그래갖고 마 집에 오서 마 생각하이께네, '얼매나 답답고, 이거 내가 이래가 살아 마 마 죽어가(죽을까).' 싶어서 물에다 빠짔뿌는 기라. 죽을라고 빠진께네, 또 사람이 지내가다 껀지줘서(건져주어서) 또 몬(못) 죽었는 기라. 그래가지고 마 인자 껀지갖고 또 사는데, 그래 뭐 하다가 또 다리를 다쳐가 또 일로 몬해예.

그래 머슴방 열 있는데 밥이라도 얻어먹고 그 마 이래가 사이께네, 하루는 스님이, 지 머슴 그 주인집에 스님이 오더만은, 그래 저 암만 목탁 뚜디리도 주인이 안 나가는 기라.

암만 뚜디리, 이 사람은 머슴질로 했지만은 치도(쳐다) 볼라 카이 답답거든. 마 주든가 안 주든가 얼굴이라고 함 배아(보여) 줄 긴데, 암만 목탁을 뚜디리도 안 나가고 있으이, 머슴이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마,

"저, 그거 하이소. 어르신 마 내 십 년 세금 그거 줄 거로 갖다가 그 이 스님한테 보시를 해뿌이소."

5) 형편이 펴지지 않고. 즉, 형편이 좋아지거나 나아지지 않고.

이커거든. 그래 마 주인이 십 년 인자 살 머슴 세금을 갖다가 줬는 기라. 떡 주우갖고 이 스님이 마 아주 쪼깬은 암자에 요래 사다가 절을 갖다 쫌 그 돈을 가(가지고) 넓힜어예. 넓히가 크기 이래 인자 하다가, 인자 그래 저래 수 년이 흘렀지. 흘러가지고 있다가 그래 인자, '이 동네 함 가보자. 내한테 보시한 사람 덕으로 내가 이거 절도 짓고, 신도들도 오고 이러는데, 내가 마 함 찾아 가봐야 되겠다.' 싶어 가이께, 뭐 다리를 다치가 아무것도 몬하고 있거든. 아이고, '그 은혜로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내가 봉양을 해야 되겠다.'고 절에 업고 갔어요.

떡 갖다 낳고 보이 이놈은 만날 밥 해믹이야 되고, 마 오만 것 다 치아주야(치워주어야) 되고 마, 하다가 하다가 마 수십 년을 하다가 보이, '내 이래가 안 되겠다, 내도.' 절도 내비리부고 스님이 도망을 가뿠어. [일동 웃음] 도망을 가가지고 및(몇) 년을 있다가 집에 떡 오이 그 사람이 흔적도 없더란다. 죽었는가.

흔적이 없어서, 그래 아무도, 고을 원님이 오늘 여게 이 절에 여게 함 오보러 온다 커는데, 막 그래 그 이야기를 그래 신도들한테 해놔노이, 동네사람이 가서 전부 청소하고 마 이랬는데, [말을 바꾸어] 아, 사람이 인자 중이 갈 때, 도치(도끼)로가 마마 그거 뭐 중 그거, 그거 어깨 있는 데다가 마 꼽어뿌는 기라. 꼽아났고 가뿠어.

갔다가 얼매나 있다가 오가 그거 치아면서(치우면서), 그래 인자 자기 치아이께네 그걸 빼야 안 됩니꺼? 인자 빼고 인자 부처님도 지배를 해놔야 안 되나. 도치를 아무리 빼도 안 되고, 아무리 장골이 해도 안 되더랍니더. 안 되가지고, 그래 저 어째 고을 원님이 떡- 인자 절에 인자 오가지고, 그래 보디만은, 그래 인자 모도 이야기 할 거 아입니꺼?

"도치가 그래 부처님한테 꼽힌 게 안 빠진다."

고 이러이께,

"그것 도치가 와 그래 안 빠지는고?"

그래가지고 그래 인제 세월이 마이 흘러나이 그렇지. 그 그 원님이 가가지고 도치로 빼인 께로 쑥 빠지뿌거든. 그래 빠지뿠는데, 그래 인자 저 어느 스님이 그라더랍니더.

"여, 여 인자 참 고을 원님이 이 사람이 벌써 죽어갖고 세상 태이나가지고 그 사람이 원이 됐다."

카더란다. 그 사람이에. 그래 인자 자기가 복은 없어도 그거 보시를 하고 절을 짓고 해나노인께네, 그래갖고예 죽어갖고 아주 부잣집에 태이나가지고 그래 원님이 됐어.

그런께네 보시 마이 하고 착한 일, 선한 일 마이 하라 카는 그기라예. [청중들이 이야기에 감탄하며 박수]

[동구 설화 20]

감 사달라는 철없는 어린 신랑

공창해(남,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호천경로당]

아이 신랑이, 저 감 장사,

“감 사소.”

이러쿤께네, 감 사자고 왼께네, 신랑은 아직 나는 어리고, 저 말할 겉 같으몬 마누라한테 감 사달라고 조아대는(졸라대는) 기라.

그러인까 마누래는 결국 참 돈도 없고 하다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가,

“아이고 답답 감 장수야 외지 말고 감 팔아라.”

하는 기라. 안 외웠으몬 신랑이 몰랐다 이기라.

[동구 설화 21]

신랑을 바꿔치기해서 정승 딸과 혼인한 시골 진사 아들

공창해(남,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호천경로당]

옛날에 서울 김정승이 하도 참말로 좋은 예쁜 딸이 있은 기라. 그래 예쁜 딸은 서울 장안에서는 저- 년에 신랑감이 없는 기라. 그래가 참 안자 중매장이를 시키갖고 안자,

“시골에 가서는 신랑감이 없나 알아봐라.”

이래 돼 있거든. 그래가 참 시골에 이래 어느 지낸께네,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쪽- 아주 초롱(초롱한) 소리가 멋지게 나 쌌거든. ‘야 한 분(번) 드가 보자. 여 가몬 거시기 되겠다.’ 싶어서, 그래가이고 안자 들어간께네. 참말로 마 방이 훤한 기라. 어띠기(어떻게나) 인물이 잘 나고 초롱소리가 좋든지. 그 사람이 바로 누구할 것 같으몬, 시골 이진사 아들이라.

이진사 아들인데, 그래가이고 안자, 보고 안자 올라가가이고 김정승한테,

“그래 뭐 어느 동네에 간께네, 하다 글 읽는 소리 나, 초롱소리가 좋아서 드가 본께네, 참 그런 사람 있더라.”

이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안자 그 그래가이고 혼사가 얼추(거의) 된 기라. 혼사가 돼가이고 안자 장가를 안자 가는데, 그래 참 안자 말을 타고 안자, 뭐 진사 거시기라도 말로 타고 안자, 아들도 말 타고. 고서 타고 좀 뭐 그 혼사잽이(‘상객’을 말함)도 딸코(따르고) 안자 말을 타고 안자 올라가는데, 충청도쭘 올라간께네, 아이 무슨 난데없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 기

라. 나타나디마는도 지금 혼사하러 가는 짐(집)은 파명(破命)이 됐뿐 기라.[6] 혼사가 그 안 돼, 안 되는 기라. 그래, 그걸 파괴로 했부는 기라.

안자 우째서 그랬나 할 것 같으면은, 그 당시에 서울 장안에 박정승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있긴 있었는데, 이 박정승 아들은 좀 못났어. 못나도 부득이 마 시골 이진사 아들이 마이 나쁘다고 이래 거석을 집어 옇어가이고, 이래가이고 마 안자 박정승 아들하고 안자 할 수 없이 안자 결혼하게 된 기라. 그래 됐는데 안자, 그래가이고 안자 이 참 시골 이진사 아들이, 저거 아부지는,

"니러(내려)가라."

카는 기라.

"아버님, 니러가이소."

지 혼차 갈라 카는 기라. 그래도 마부 하나 딱 데리고 그래 서울로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그러고 나이 메칠 지내가이고 안자 올라간게네 안자, 잔칫날이 떡 대있거든. 대있는데, 참 박정승 아들하고 김정승 딸하고 안자 예를 안자 지내는 기라.

예를 지내고 안자 거석하는데, 이기 안자 가만히 본께 안자, 저쪼서도(저쪽에서도) 시골 이진사 아들이 안자 왔다 카는데 안자, 아주 인물이 훤하이 좋은 사람이 떡 그래 와논께 안자, 할 수 없이 안자 어느 방을 하나 거석을 줘놘 기라. 조갖고(주어가지고) 그래 안자 떡 있는데, 그래 안자 그 이진사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뭣이라 카는 기 아이라,

"한창 예 지나고 할 때에 말로 갖다가 우째 됐든간에 끌러놔뿌라."

이래 쿠는 기라. 말로 끌어놓고, 말로 소리하라 카는 기라. 그래이가 안자 참 이거는, 마부 이거는 안자 시키는 대로 한창 예 지내는 판에다 고마 말로 끌어논께네 마, 말이 막 쎄리 온 전신에 뭐, 김정승 그 아주 부잿집(부잣집)에 너르고 하지만은도, 마 이거 돌아댕긴께 안자, 와서 안자 참 이진사 아들한테,

"말이 이래 끌러놓은께 천상 잡아매야 되겄다."

이런께,

"그래."

이럼성, 그거는 정말 뭐 때매 그라나 할 것 같으몬, 지 인물에 구경을 시키는 기라 안자. '내가 이런 사램이다' 하는 것을 구경을 시키가 아주 참 본게, 참 모도(모두) 다 인물이 아주 잘났거든. 참 너무너무 잘난 기라. 잘나고 마, 모두 하는 얘기가,

"저런 사우(사위)를 봤으몬 얼매나 좋겠노."

이러 정도 된 기라. 그래가이고 안자 혼사는 벌써 그래도 저 뭐 세력이 정승인께네, 아 뭐 생전에 진사하고 정승하고 택이 있는가. 그래 혼사가 돼가이고, 밤에 안자 떡 안자 어느 별장에 인제 가서 안자 신랑 각시가 안자 그래 안자 첫날밤을 지내러 갔는데, 이래 안자 이 사람

6) 결혼하겠다는 약속이 파기가 되었다는 말임. 즉 파혼이 되었다는 뜻임.

이 안자 그래 따라 건네간 기라. 따라갔어. 따라가이고 안자,

"니가 장개 왔니? 내가 장개 왔니?"

서로 마마 씨라대이(다투어대니),

"니가 뭐 말로 거석해가이고 전부 다 그석해가이고 날로 갖다 혼사된 걸로 이리 된 거 아이가."

이래 싸워싼 기라. 그날 참마로 우째 됐는가 하니, 저거 처녀 김정승의 동생이 아주 마 잘나고 술꾼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식장에 참석을 안 하고 무슨 볼일이 있어가 간 기라. 그래 떡- 왔거든. 왔는데 안자, 그래 저거 형수한테 안자,

"그래 형수, 사우 머 어떻던교?"

해싼게,

"하이구 말도 마소. 오늘 막 이런 일이 있었다."

이래 쌌거던. 그래가이고,

"그람 행수 생각에 어떤 사람이 좋던교?"

이래 된 기라. 그랜게 하는 이야기가,

"하이고, 법이 고석대서 그렇지. 나야 시골 이진사 아들이 얼매나 낫지. 백번은 낫지."

이리 된 기라.

"그래요, 그럼 술 한 잔 주소."

술 한 잔 떡 묵고 안자 별장 건너간 기라. 딱 드다보고는 시골 이진사 아들하고 박정승 딸하고는 벌써 완전히 판단, 포(표)가 나가 있는 기라. 모가지를 갖다가, 박정승 아들 모가지를 뽈끈 근잡고,

"요놈, 시골 이진사 아들 놈, 몬땐(못된) 놈 말이지, 어데 요 와서 이런 행동 하나."

함서 모가지를 뽈끈 끌고 나오거든. 나온께네,

"아이고 저는 시골 이진사 아들이 아니라 박정승 아들입니더."

쌌거든.

"내가 이놈아, 비미(어련히) 보고 내가 잡아가는 줄 아나."

캄성 볼끈 잡아가이고 마 쭉- 끄고(끌고) 나완 기라. [청중: 박정승 아들로 갖다가.] 시골 이진사 그거는 뻔히 암성 그래, 안자 시골 이진사 아들 이놈 못 됐구로 요런 행사를 한다고 말이지 그럼성 안자 박정승 아들로 끄고 나오거던. 그래고 참 인제 시골 이진사 아들하고 박정승, [말을 바꾸어] 거 김정승 딸하고는 고마 그 하룻밤을 자고, 이 사람은 그래 안자 그마 마 밤새도록 안자 이래 서울 장안을 끄고 술은 취했고 마 끄고 댕기매 새복(새벽)에사 마 와가이고,

"아이고 삼번씨."

이래갖고 마 막 절로 함성,

"죽을 죄를 지깄다."

쌌거든.

"그럼 와?"

이러쿤께,

"아이고, 하다 저저 별장에서 무슨 소리가 나싸서 그래 건네 가봤더니만도 이 둘이 서로 싸워 쌌길래, 시골 이진사 아들 저놈 몬땠다고 끄고 나왔더만도, 날이 새고 본께 박정승 아들인 기라."

이래 됐거던. 그때는 벌써 다 같은 정승이라도 그기 벌써 김정승 카몬 박정승이 사램이 모지래는 기라. 정승이라도 같은 정승이 아이라. 그거는 '하 이거 안자는(이제는) 틀맀다.' 싶어 할 수 없이 그대로 가고, 시골 이진사 아들하고 그래 참 김정승 딸하고 잘 사더랍니더.

[동구 설화 22]

친정아버지 묏자리를 뺏어 시아버지 묏자리로 쓴 딸

공창해(남,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호천경로당]

[조사자가 시집간 딸이 시아버지를 위해 친정에서 잡아놓은 아버지 묘 터에 몰래 물을 부어 차지한다는 이야기를 유도하자 제보자가 다음 이야기를 구술함]

그 이야기가 뭐 다른 데도 아이고, 여 우리가 알기로는 합천 그 대병[7] 커는 데서 현풍, 대병 커는 데서 그런 일이 있었다 카는 기라. 과연 참 그 시방 거 가면은 병목[8] 거 송씨네들이, 병목 커는 데 송씨네들이 그 당시에 한 삼 백호가 살았다 카는 기라. 삼백 호가 살았는데, 원, 본래 안자 곽씨가 들오기는 먼첨(먼저) 들왔는데, 안자 곽씨네들은 안자 딸네고, 안자 그 저 곽씨네들은 딸네고, 병목 송가가 안자 메느리가 돼가이고, 송가 거석에서 안자 결론적으로 그기 참 시아바씨(시아버지)가 죽었는데, 시아바시가, [갑자기 올바른 이야기 순서가 생각났는지] 아 참 그래 된 기 아이다. 그 곽씨네들 거석이 해서 안자 자기 친정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바씨(아버지)가 죽었는데, 안자 그 자리를 갖다 좋은 자리를 갖다가 안자 잡아난(잡아놓은) 자리가 있는 기라.

있는데, 그 참 딸이 그 용심이 지기고 안자 저 욕심이 생기가이고 밤새도록 거기다 물로

7)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8)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병목리.

여다 부우뿐 기라. 물로 갖다 여다 분께 고마 지룩하이(질퍽하게) 이리 됐거든.

이래 됐는데, 그래가이고 그 모도(모두) 그래 그 이튿날 아침에 그래 갔다 오디만도(오더니만),

"거기에 말이지 그래 질이 지룩하이 이래서 그 뫼를 그래 씨겠냐?"

이러 쿤께, 딸이라 카는 기 나서가 하는 소리가 뭣이라 카는 기 아이라,

"하이고 우찌 우리 아부지를 갖다가 물 났는 데 그런 데다 시겠느냐."

마, 이래가이고 고마 그 마, 막 이래 더구턴도(더군다나) 또 큰딸이라. 그래 막 쎄리 마 야단을 직이댕이까(부리니까), 아이 동생들은 막,

"거 울 아부지를 물 나는 데 그런 데다 우찌 뫼를 씰기냐고."

이래가이고 안자 그 모(묘)를 갖다 안 썼어요. 모를 안 썼는데, 그라고 나서는 우짜나 할 것 같으몬, 저거 시아바지 뫼를 갖다가 거게다 갖다가 거다 이장을 시기뿐 기라. 시기(시켜) 놓은께네 병목 송가들은 굉장히 마 자석들이 잘 되고 이래 거석이 되는데, 곽씨네들은 잘 안 되는 기라. 그래가이고 곽씨네들이 그걸 결코 알고, 그걸 결코 알고 안자,

"응, 그 그래 하는 법이 어있노?"

이래가이고 안자 그 우에다 대빵 해뿌린 기라. 곽씨네들이. 우에다, 그 우에다 또 덮은 기라. 요런 나쁜 짓을 해가있고 말이 그석했다고. 그래 다부 쓰논께네, 어찌 됐노 할 것 같으몬, 송씨네들은 그냥 그래도 잘되가이고 잘 살고, 곽씨네들은 풍자가 마이(많이) 나온다 카는 기라. 우에다 대빵을 해놓은께네. 풍자가.

그런 전설이 있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모르지마는도 그런 이야기도 있어.

[동구 설화 23]

구르다가 멈춘 자리가 명당

공창해(남,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호천경로당]

넘의 집을 살았는데, 결론적으로 안자 자기 산도 없고 뭐 행편(형편)없이 돼가 있었어요. 그래가이고 안자 자기 아바시(아버지)는 죽어논게 어짤 수도 없고 안자 밤새도룩 새끼를 까는(꼬는) 기라. 밤새도록 새끼를 까가이고, 그 참 이야기 참 그래 된 기 아이다. 그런 기 아이고, 이 참 이야기, 그 이야기도 재미가 나는데.

그래가이고 안자 그 아, [생각난 듯이] 날로 안자 받으러 안자 갔는데, 날로 안 받고, 오데

머 가몬 묘한 풍수가 있는데, 거 일관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날 받으러 간께네, 안자 아-주 몬(못) 살아요. 몬 살아. 그런께 거기서 날로 안 받고 왔는 거라. [조사자: 아, 저래 지관이 저래 못 사는데 우째?] 하몬. 그래가이고 안자 하는 이야기가, 와서 안자 저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와 거 좋은 일관이 그래 있는데, 우째 그래 날로 안 받고 그래 왔노?"

한께,

"아이, 지가 그래 뭐 잘 알 밲이야(밖에야) 사는 기 그이 산 오두막집에 그래 사는데 형팬 없더라."

이래 됐거던. 그래가이고 안자 우짤 수 없이 고마 뭐, 뭐 시장 보러 가기 전에 밤새도록 새끼를 꼬아가이고, 저거 아버지로 돌돌하이 인자 새끼를 꼬아가이고 이래 주우(죽) 감아가이고 안자 지게를 떡 지고 저 산 먼당이(꼭대기) 올라가서,

"아이고 아부지 누울 자리 가서 누우소."

커면서, 산 먼다이 올라가서 휘떡 벗어나뿠거든. 벗어난게 두굴덩 두굴덩 두굴덩 구불러가더만 척 여분 길에다가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가서 척 이래 걸치거든.

그래 걸쳐 놨는데 거게서 안자, 그래 마 그 자리 고마 시신 고마 이래 묻어놘 기라. 그래 놨는데 우찌 된 긴고 [조사자: 그 후손들이.] 마 아들도 막 잘나고 마막 부자가 되는 기라.

안자 그라고 집도 안자 그럴 듯하게 지(지어) 놓고 안자 이래 있는데, 어느 모 참 한 날 안자 저 그 중이 떡 안자 이리 오거든. 그라이 참 대접을 잘하고 안자 그래가이고 안자 거석해가이고 안자 그대로 갸는(그는. 그 중은) 안자 하루 쉬아가이고 안자 그 저거 아부지 묏자리 떡 보러 갔는 기라. 보러 간게네, 거 안자 참 중이 보디만은도,

"거 참, 그럴 리가 이해하지. 이럴 리가 이해하지. 한국, 참 그럴 리는 없는데."

이러 쿠는 기라. 그래.

"와 그래 쿠시냐?"

고 이러 쿤께,

"이 자리에 마 여분 이름만 마 눕기만 누었으몬 큰 부자가 되겄는데, 거진 뫼를 그래 씌는 법이 있어야지."

이러 쿠거든. 그래 과연 참 뭐, 여분 뒤에라 그래 떡 써놨는데 뭐. 그러이께 뭐라 할 것 같으몬 중이 하는 게,

"그러면 그렇지."

그럼성, 거가 서리 깐치설(까치설)이라. 깐치에 같으몬 이래 여분디를 물고 댕기거든. 깐치설인데, 그 거친 그래, 그석해가이고 부자가 된 거여. 됐다 카는 기라. 그래 운이 있어야 되지. [조사자: 까치복을 받았네.]

[동구 설화 24]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이종옥(여, 1928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호천부녀경로당]

지게를 인자, [조사자: 옛날에 우째 고래장은?] 아부지가 할배 버리러 가는데, 아들이 따라가가지고 그래, 아부지 지겔(지게를) 내빼두라(내버리라) 카이께네,

"아부지요, 가져가야 나도 아버지 갖다 묻죠."

카이, 그래 없어졌다요. [웃음]

[조사자: 아부지는 놔두고 가고.] 아버지 놔두고, 그래 지게는 놔두고 가더라. 그래 아들이 따라와가지고, [청중: 지게를 두고 갈라 카는데.]

"가져갑시더. 나도 아버지 갖다 내빼야지."

그래, 그래가지고 없어졌다. [청중: 어찌 자식이 아바이를 지고 가겠습니꺼. 그래노이께네 지게를 지고, 아바이는 안 지고 갔다 그 이야기 아입니꺼.]

[동구 설화 25]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이종옥(여, 1928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호천부녀경로당]

눈이 어두운데, 아들은 뭐 군에 갔다가 어디 갔다 오이께네, 하도 맛있어가지고 건데기(건더기)를 여 자리 밑에 옇어놨는 거라. 자리 밑에라. 그리,

"어머이 얼굴이 참 좋네."

카이,

"몰라. 메느리가 그래 맛있는 거 해드려서."

자리 밑에 있듯이, 굼벵이를 삶아가지고 그래 건데기를 건져 놨대. 그래가지고 그래 그 카더라 할매들이. 그래,

"엄마, 뭐든 몰랐나? 건데기 건져 놨다."

카이, 보이 굼벵이더라요. [조사자: 아, 굼벵이. 굼벵이. 지렁이가 아이고 굼벵이?] 아, 지렁이라 카더라. [조사자: 아, 지랭이다. 지랭이.] 예, 예. 지렁이라 카더라. 굼벵이 그것도 좋다요. [조사자: 굼벵이도 좋고. 오, 지렁이.]

[동구 설화 26]

개똥을 씻어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이종옥(여, 1928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호천부녀경로당]

보리쌀 개가 마이(많이) 먹었는데, 먹을 건 없어가지고, 메느리가 보리쌀을 그 가져와 다 씻거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숟가락 떠먹고 어머이 드렸다 그 카데.

그 전에 할매들이 그러 카데. [조사자: 그냥 주면은 자기가 벌 받을까 싶어가지고.] 벌 받을까 싶어 밥을 해가지고 내가 한 숟가락 먹어 어머이 드렸다 카데.

그래 할매들이 얘기 그래 하더라, 옛날에. [청중: 얼나마 살기 힘들었노.] [조사자: 그렇지. 그렇지요.] 그래 그 소리 할매들이 얘기하데.

[동구 설화 27]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이종옥(여, 1928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호천부녀경로당]

똥을 못 뀌가지고, 방구로 못 뀌가 그래 노랗다 카더라. 그래,

"와 그랗노?"

카이,

"방구로 못 뀐다."

"뀌라."

카이,

"말 그거 짖는 거 가가(같아서) 못 뀐다."
카이, 그래 몰라. 할매가 그래 얘기 하데.
[조사자: 그래서 끼라 카이.] 그래,
"아부이는 기둥을 붙잡고, 어머이는 솥뚜깽이를 붙잡으라."
카더래. 그래 낸저에는(나중에는) [웃으며] 뒤에 가이,
"고만. 고만."
카더라 카데.

[동구 설화 28]

도깨비에게 홀렸던 사람

이종옥(여, 1928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호천부녀경로당]

우리도 빗자리 여자들 깔고 앉아 경도(월경) 묻으몬 토캐비가 된다 캐.

우리 오촌은 가다가 붙잡혀 까시(가시) 구렁텡이(구렁텅이) 드갔어요. 그래, 아칙(아침)에 나오이, 나와가 그래. 우리 오촌도 붙잡혀 갔어, 한 번. [조사자: 도깨비인테?] 예. 그래 아칙에 왔더래.

그래 뭐 붙잡고 왔다 캐 그래. [조사자: 그래 다음 날 가보이 뭐?] 왔더라고 집에요. [조사자: 아, 다행히. 에에, 예. 도깨비인테 홀리가지고.] 몰라. 그래가 뭘 붙잡아 갔다. 그래 있다가. [청중: 뭐로 해도 여도 도깨비한테 홀낐나 캐쌌는다 아입니꺼. 농담으로.] 그래가지고 안 들어와서 그래 아칙에 오는데 뭐 가자 캐. 붙잡혀 가이 아칙에 오이 까시덤불이더라 안 카나. [조사자: 까시덤불로 덱고 다니던갑네.] 예. 그래가지고 도깨빈 줄 알았지.

[동구 설화 29]

저승 갔다 살아난 사람

이종옥(여, 1928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호천부녀경로당]

그때 인자 강아지 따라가이, 외나무다리가 할매가 따라가가지고 물에 푹 빠지이께 거 깼다 카더라.

[조사자: 어떤 그런 할매가 있었는가?] 몰라. 그 할매가 얘기 하는데, 외나무다리 강아지를 따라가 따라가이께, 요고만 따라오라 카데. 가고 풍덩 빠진께, 그래 깼다 하데. [조사자: 아, 죽었는데, 저승에 가이.]

[동구 설화 30]

여자 음부가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이종옥(여, 1928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호천부녀경로당]

그래 인자 호랭이도 아줌매 따라다니다, 내이 떡이 또 부치이 잡아물라 카이께네, 경도(월경) 있는 걸 덮어 씌이께네, 호랭이가 내보다 더 무섭다고 달려 빼더라 안 카나. [웃음]

[동구 설화 31]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이종옥(여, 1928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호천부녀경로당]

호랭이가 어~헝 울께네, 암만 기치도,

"호랭이 저 마당 왔다."

캐도 자꾸 운께네, 그래 아를 꽂감(곶감)을 하나 갖다 줬다 캐.

"아, 내보다 더 무서운 사람 있네."

카매 갔부더라. [웃음]

[동구 설화 32]

두꺼비의 보은으로 부자 된 사람

이종옥(여, 1928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호천부녀경로당]

부뚜막에 뜯어 주고, 그래가 벼락부자가 되더래요. [조사자: 뚜꺼비, 뚜꺼비를?] 밥을 줬더만. [조사자: 뚜꺼비를 잘해줬더마는?] 예. 그 소리 그래.

[조사자: 뚜꺼비가 갖다 준, 어데 돈을 갖다 줬는가?] 갖다 주도 잘 되이 그렇지. 밥을 자꾸 줘 놓인께 그래 부자가 되더라요. [조사자: 아, 동물을 도와주이카네 그 집이 자동적으로 잘 되더라.] 잘 되더라. 그래 벼락부자가 되더라. [청중: 인간도 짐승보다 못한 기 천지요.]

[동구 설화 33]

무덤에 고수레 잘해서 부자 된 사람

이종옥(여, 1928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호천부녀경로당]

거제에 있는 사람이 한 명 얘기 하는 거라.

[조사자: 거제, 어 어떤 이야기?] 저 밭이 있는데, 밭 앞에 매(뫼)가 있더라. 그래 점섬(점심) 마 마, 밥을 한 숟가락 떼고 술을 부어놓고 하이케, 그래 부자가 되더라요.

거제에 있는 사람이 그기 벼락부자가 되이께네, 그 이우제서(이웃에서) 밤에 와서, 밤에 와서 벌초를 하더래요. 그래 할매가 그거 밤인데 부르는데,

"아이고 너무 고맙다."

카마, 내가 할매들아, 그 할매가 그리 하이, 얘기를 너무 고맙다 카더라요.

그래 그 집이 하도 잘 되이께네, 이웃 사람이 와가지고 밤에 벌초를 하고 가더라요. 그래, 남의 복을 뺏나? 그래도 그 오몬 점섬 가지몬 갖다 주고 술도 한 잔 부어주고 이라는데, 저게 밤에 와가 벌초를 하몬 되네요? 안 되지. [조사자: 안 되지.]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다 하대.

[조사자: 그러니까 벌초, 그러니까 이기 산에 와가 안자 어떤 무덤에.] 어어 그 집 밭 갓에, [조사자: 갓에 있는.] 뫼가 묵은 뫼가 있는데, 거 인자 점섬을 갖다 먹으몬 미리 고시레('고수레'의 방언) 카고, 촌에 이래 가몬 고시레가 흔해요. 그래가 술도 한 잔 주고 하이께네, 그래

할매가 너무 고맙다 카더라요. [조사자: 아, 그 무덤 주인이 할매였네.] 안자 거제 가, 우리 딸이 거제 가 한 오년 살았어.

[동구 설화 34]

제삿밥을 못 먹은 혼령(1)

이종옥(여, 1928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호천부녀경로당]

그거는 멀커리(머리카락)를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자 할매들은 뭐 이래 가이 얘기 하더라. 그래,

"오늘 잘 잡숫고 왔어요?"

카이,

"그 안에 구렁이 삶아 놓고, 아를 떠밀어뿌고 왔다."

그래. 뭐 손자가 죽었더라 이라더라.

[동구 설화 35]

제삿밥을 못 먹은 혼령(2)

이종옥(여, 1928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범일1동 호천부녀경로당]

소금 팔러 가다가 뫼 옆에 누우자고 나이께네, 그래 그 여관이,

"제삿밥을 오늘 잘 얻어 잡솼소?"

카이,

"잘 먹기는 뭐 잘 얻어, 구리이(구렁이) 삶아 놨더라."

카더라. 그래 어이서 아를 떠밀었다 카데.

거 소리 그래 하더라. 그 소리라. [조사자: 그래 소금장사가 안자 다음날 가이카네 어쩌노?] 거 가서 보이, 동네 가서 얘기했지 뭐.

"이 동네 누가 엊저녁 제사 지냈노?"
카이께네, 그래 모두 동네가,
"저 집에 제사 지냈다."
갈치(가르쳐) 죘지 뭐. 그래. [조사자: 그라이카네 아가 안자.] 딨지(데였지). 그래노이 그래 또 그래가 또 채리 놓고 제사 안 지냈겠어? 잘못했다 그러지. 그랬겠지.

[동구 설화 36]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정완동(남,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범일2동 범이경로당]

부모를 거 인자 모시놓고 마음도 되기(매우) 아픈데, 역으로 그 부모는 자식이 길 못 찾아 가지고 집에 못 가까 싶어서, 안자 그 어더(어디) 곡식을 뿌린, 참 있고. [조사자를 보고] 아까 뭐 교수님 말대로, 나무를 뿌았다는 기라. 이기 인자 부모 자식 간에 그 정이라는 이기, 이기 막 인류에 끊을 수 없는 정이야.

그런께 우리가 그런 도덕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요즘은 너무 이용만 얻는 거라. 참 안타까운 기라. 예. 그 고래장(고려장) 그라몬 뭐 석 달이몬 석 달, 한 달이 한 달 무울(먹을) 것만 딱 놔놓고 오몬 자식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교? 예에. 그라몬 그 양식 떨어지몬 그래 영영 자 돌아가실 건데. 그런 일이야 효도 사상에.

[동구 설화 37]

명당자리 정묘사 터

최시호(남,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범일2동 범이경로당]

고거는예 어데서 그 얘기가 나왔냐면, 정묘사, [조사자: 아! 정묘사 이야기.] 동래 정씨. 저희 조모님이 동래 정씨거든예. 할매들. 하도 묘터가 좋아서 세상에 땅을 김이 무럭무럭 나이

계란을 옇이(넣으니), 계란을 익을 정도 너무 좋은 거라. 욕심이 낸다 해.

'여다 우리 친정 식구를 여게 모시야 되지, 시댁을 모시몬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옛날에 보릿짚 안 있십니까? 보릿짚에 금실이 빠짝빠짝 난다 이기야. 그래 한 나무에다가 한 인형을 맨들어가, 금실을 이래 저 보릿짚 맨들어가 그걸로 대신 놔(놓아) 묻어놓고 왔는데, 그래 그 다음에 대처 그 저 동래 정씨 집안에서 이 묘를 떡 파이께, '세상 그 어째서 이런 일이 있나?' 나주(나중에) 파고 보이께, 그 거기 집에 메느리가 욕심을 부렸다는 기라. 그러니까 이 보릿짚 저기 금빛이 나거든.

그래서 정묘사가 아주 그런 유래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조사자: 아, 그래 인자 귀한 사람 묻을라고.] 예, 예예. 그래 정묘사 그 터가, 앤 아까 말했듯, 그 옆에 비끼, 좀 비끼가 했는데, 정묘사 그 터가 참 유래가 있고 이런데. 예.

[동구 설화 38]

호식 당한 어머니와 호식 피한 오누이[해와 달이 된 오누이]

김옥련(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범일2동 범이부녀경로당]

두 남매 놔두고, 엄마가 떡상사 하러 나갔는데, 그래 떡을 팔고 늦게 오니까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그래 호랑이가 아이 저기,

"떡 하나 주몬 안 자아묵지. 안자 떡 하나 주몬."

이래가 떡을 다 줬는데도(줬는데도) 결국 엄마는 호랑이가 자아묵고(잡아먹고). 다시 두 남매 한테 와가지고, 그래,

"너 엄마 왔다."

이라니까,

"엄마 왔으면은 손을 한문(한 번) 내밀어봐라."

이라더라. 그래 문에다가 손을 내미니까,

"아, 이거 엄마 손이 아닌데. 엄마 손이 아닌데."

이래가지고, 가 저기 엄마 손이 아닌데 이래가지고, 두 남매가,

"아, 아니다. 보니까 엄마는 아닌 것 같다."

이래갖고 부엌을 나가가지고 그 우물 있는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래 호랑이가 자아물라 하니까, 그 나무에 올라가이까 인자, 우물 안에 이래 보면은 비치잖아요. 달빛에. 애들이.

애들이 비치니까, 호랑이가 자아물라고 이래 보이까는 아들이 나무에 거 있으니까, 그래가 호랑이 밑에 보고 자꾸 아들 자아물라고 이래 하는데, 그날 막 애들 둘이서러 그래,

"하나님! 그래 어떻게 하든지 우리 두 남매를 살려달라."

고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가 두 남매가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호랑이도 인자 그렇다 보니까 그 나무에, 우물 있는 나무에 올라가갖고 자기도 기도를 하더구만. 그래,

"하느님! 나를 그래 살릴라몬 동아줄을 내라줄라."

이라니까, 그 하늘에서 동아줄을 내루면서 썩은 동아줄을 내라조가(내려주어서), 호랑이가 탁 올라가다가 널쪄가(떨어져서) 죽은, 그런 전설이 있다 아입니까.

[동구 설화 39]

여우 며느리

김옥련(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범일2동 범이부녀경로당]

옛날에 어느 산골에, 모자(母子)가 살았는 거라. 모자가 살았는데, 저기 아들은 너무 엄마한테 효성이 지극하고.

인자 그래갖고 산에 나무하러 엄마 병 간호한다고 약초를 캐고 다녔는데, 그래 산골에서 어떤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 그 아가씨를 덱고(데리고) 집에 와가지고, 그래 데리고 사는데, 너무너무 부모한테도 잘하고 지한테도 잘하는데, 그기 여우라.

그래가 밤마(밤만) 되면은 밖에 나가가, 여우가 밖에 나가가 뭐 땅도 파고 막 이렇게 벌거이 뭐 파묵고(파먹고) 그래 하고, 그래 그래가 저녁에는 인자 집에 와가지고 인자 신랑한테도 잘 하고.

그래 했는데, 결국 나중에 그 여우가 얘수(여수. '여우'의 방언)라 하노 뭐라 하노? [조사자: 백야수. 백야시.] 백야수가 되어가지고 그래가 총각이 알아가지고, 그래가 그걸 쫓아내고.

그런 전설도, 옛날이야기 쫌(좀) 들었어.

[동구 설화 40]

느린 충청도 말

김옥련(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범일2동 범이부녀경로당]

충청도 사람들이 산골에 가가주고, 그래,
"저기 아부지 돌 굴러 내려갑니다."
커몬, 아버지는 버시러(벌써) 돌에 맞아 죽었다. [웃음] 예. 그런 이야깁니더. [조사자: 충청도 사람이 말이 느려서.] 예. 말이 느리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

[동구 설화 41]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월숙(여, 1944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범일2동 범이부녀경로당]

만날 집에서 할무이(할머니)가, 저저저 저거 아들로 나가(낳아가) 결혼해가 사는데, 아들로 낳는데, 지게 그거를 안 내삐고 나놓고 저거 할무이를 업고 산을 올라가 고래장(고려장)을 하거든. 칠십 고래장을 하니까.
아들이 가마- 크면서 그거로 봤다 말입니다. 지도 성장해가 컸으니까. 저거 아부지(아버지)가 칠십이 됐어. 그래 그 지게를 뿌아뿔라(부숴버릴라) 카니까,
"아부지, 그 지게 뿌아지 마이소. 아부지 차례가 돼서 아버지로 업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아부지가 반성을 하더랍니다. '부모를 고래장을 하는 게 아이구나.' 아부지 차례니까 그 지게를 못 뿌아구로 하더랍니다.
"아부지로 올라, 이 내가 지고 올라가야 된다고. 나도 내 새끼, 자기 자석(자식)이 놓으면은 나를 지고 가이."
그래가 그 지게 그때 뿌아삐더랍니더. 그러고 고래장이 없어졌답니더.
내 그 소리는 들었어.

[동구 설화 42]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김월숙(여, 1944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범일2동 범이부녀경로당]

옛날에 너무 몬 사니까. 만날 쌀도가지(쌀독)로 긁어도 쌀이 안 나오니까, 시어머니로 굶기 놓을 수 없으니까, 살도 비갖고(베어가지고) 시어머이로 해줬다고 옛날에 안 있습니까. [조사자: 그렇지. 그렇지.]

들에 가몬 지렁이가 많으니까, 그 지렁이 해가 매매 씻거가(씻어서) 달달 뽁아가(볶아서) 폭- 고아고(고아서) 한 공기썩 한 공기썩 백일로 믹이고(먹이고) 나니까, 그 시어머이가 눈을 뜨더랍니더.

그래 호자(효자) 메느리(며느리)라. 호부(효부)가 됐답니다. 오새(요새) 지렁이 파다가 남 줐다 큰일난다. [일동 웃음]

[동구 설화 43]

너무 독하게 살아 소로 태어난 사람

김월숙(여, 1944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범일2동 범이부녀경로당]

부모가 너-무너무 똑 몬(못) 살아서 하는 기, 부잣집에 머슴을 가가지고 얼마나 얼마나 독하게 살았든지. 그 사람은 죽어서 괜찮다, 한 사람은 저 집주인이 자석(자식)을 낳아논께, 그 자석이 너무너무 안 되거든. 사람이 거 양반이 집이다 이래가지고.

그래 엄마, 저저 이 저저 아마 대감 집은 되든가 봐. 그 자석이 저 공부를 하러 절에 들어갔는 거야. 절에 가 삼년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 주지 스님 한단 말이,

"배냇골에 가면은 오늘 모심기를 하는데, 소가 한 마리 탁 엎어지 죽을 기다. 그 소를 동네에서 잡아먹거들랑, 그 소를 니가 사가지고 땅에다 묻고 오너라."

이랬답니다. 그래갖고, 참 얼마나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이 스님이 저거 아부지 땜에 기도를 해가, 너무 부모가 독하기, 동네서 독하게 살아오고 이래논께네, 그래 참 간다고 가가 삼년 기도를 하고 마치고 내려가 스님, 주지스님 말대로 가이께네, 아이 모심기를 하는데 사람이 욱덕욱덕 해쌌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소가 한 마리 막 논을 갈다가 마 서리를 하다가 턱 자빠졌는 기라. 동네에서 그 소를 놔주겠어요. [조사자: 그렇지.] 잡아무야지. 잡아물라 하이께, 그 스님 한단 말이,

"이 소는 잡지 마이소. 내가 사겠다."
고.
"와 그라냐?"
물으니까, 동네 인자 말깨나 하는 사람들이 와가,
"와 그라냐?"
물으이까,
"그래 어거, 이거는 우리 부모니까, 부모니까 해탈로 시기야(시켜야) 된다."
하면서, 그래 자기가 사갖고 묻어주고 나이께, 그 동네가 그리 조용하더랍니다.
옛날에 그런 말도 절에 가이께 해쌌더라고. 그래 사람은 누구든지 독하게 살면은 안 된다고, 할매들이 그래쌌더라고.

[동구 설화 44]

쌀 나오는 바위가 있던 팔공산 암자

김월숙(여, 1944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범일2동 범이부녀경로당]

그기 바위가 거 있대. 팔공산 넘어서 암자가 있는데, 우리 옛날에 기도하러 대닐(다닐) 때 있대. 바위가 거짓말도 아이고 집채만 한데, 구멍이 뻐꿈뻐꿈, 그기 전설이라 하대. 다- 대강은 모르겠고예. 바위가 이래 이래 구멍이 뻐꿈뻐꿈 났는데, 자고 나몬 물 나오는데, 물 딱 한 끼 무울(먹을) 것만 나오고.
동네 그 호자(효자)가 하나 있는데, 그거로 받아서 엄마 밥을 해주고, 또 가서 쌀이 아침에 나오몬 또 한 끼, 두 끼도 안 돼. 그랬는데 이기 가만 보이까, 몬 배아가 무식해노이께네 마이 나오까 싶어 바위를 마 끍었다 하대. 끍어니까 물도 바위, [말을 바꾸어] 쌀도 안 나오고 딱 그기 맥히.
그래 바위가 이런 기 있어요. 저 팔공산 뒤로 가면은 큰 바위가, 집채 같은 바위가 있더라고. 그거 그때 막 그런 이야길 해쌌더라고. 우리 그땐 젊을 때고. 그래 가이께네, 그래가 그런 바위가 있어예.
지금도 있을 거기만은(것이지만은). 무슨 암자 밑에 있더라고. [청중: 큰 바위 있다 아이가.] 큰 바윈데, 똑 거짓말 겉이 망치로 가 탁 뚜디리갖고 요마침 파이고, 또 막 뚜디리가 요마침치 파이고, 이래 굼덕 굼덕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파이가 있대.

그래 그거는 나이 많은 노보살이 그런 이야길 하더라. 그때 그 젊어논께노 하이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머 되도 안한 소리 하노꼬. [조사자 웃음] [조사자: 이야기지 인자.] 그래가지고 [조사자: 욕심을 너무 마이 부리몬 안 된다.] 욕심을, 욕심을 사람이 너무 마이 부리몬 안 된다고, 그래 이야길 하더라고. 그 주는 마쿰(만큼) 우리가 받아무야 돼.

[동구 설화 45]

도깨비로 변하는 빗자루

김월숙(여, 1944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범일2동 범이부녀경로당]

도깨비 거기, 우리가 빗자리 마이 안 씰었는가배. 사람 손에 이리 쥔 빗자리 씰다가 몽댕이로 히떡 내삐몬 그기 도깨비라. 그기 불이 퍼떡퍼떡 퍼떡퍼떡 그러거든. 그기 마 사람 따라서 댕기거든, 도깨비가. 그 도깨비 있었어예.

그래 가보면은 빗자리 몽댕이라. 사람 손에서 아마 그기 나오는 겉에요. 그래가 어지 불이 퍼떡퍼떡퍼떡. 우리 옛날에 왜 동사 공부하러 댕기몬 호롱불 밑에, 저서 불이 퍼떡. '이상하다.' 또 가몬, 또 저리 불이 퍼떡퍼떡.

[동구 설화 46]

흙을 던지는 여우

김월숙(여, 1944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범일2동 범이부녀경로당]

거 가보면은 들 복판 촌에는 집이 저 있고 요 있고 마 안 그랬습니까. 우리 집은 옛날에 제일 구석이 돼노이께네, 새미(샘, 우물) 가(가에) 거 들어가몬 흙을 탁탁 떤지는(던지는) 야시(여우)도 있었어예.

[조사자: 어- 그래. 야시, 여우가 흙 떤지던가배.] 흙을 떤지대, 앞에. 우리는 거 외사촌 올케가 참 장난이 심해갖고, 그 때 열네 살인가 뭈다. 장난이 심해가, 아이고 흙을 떤지는데, 안 떤짔다 하대. 거 여우가 그란다대.

[동구 설화47]

무서운 보리밭 문둥이

김월숙(여, 1944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범일2동 범이부녀경로당]

야시도 있었고. 옛날에 문디가 아 간 내묵는다 소리 안 들어봤나 그쟈? 보리밭에서. 간을 내묵는가, 안 내묵는가 그것까지는 몰라도.

우리 고향에 지금도 가몬 그 당염 모티라 쿠는데, 돌아가 돌아가 돌아서 이 산물이가 다섯 개가 있어요. 우리 어 언자, 배를 타야, 숩기(쉽게) 말하자몬 나무를 치러 가는 기라. 보리밥을 한거(많이) 해가지고 언니하고 내하고 소쿠리다 담아갖고, 나리(나루) 가(가에) 배 둘았다고(들어왔다고) 출렁출렁 출렁. 그때는 전기가 있나 뭐가 있나 가는데, 배가 안 둘았는 기라. 울 아부지가 안 둘았는 기라.

그래갖고 그 도시락을 갖고 오는데, 캄캄한 밤인데, 하여튼 처마는 요만침 까만 미명베(무명베) 치마를 입고 하얀 저고리 입고 수건을, 얼수건을 딱 옛날 사람들은 수건 고리 친다. 여자가 하나 앞에서 가는데, 내가 우리 언니를 보고, 그러이 언니하고 내하고 연년 사이니까 열다섯 살, 열여섯.

"언니야, 저 아지매가 가는데 눈고(누구인가) 우리 따라가 보자."

하이께, 따라가 가이께 그게 문디(문둥이)더라 말이다. 침, 완전히 침을 흘리는데 히떡 돌아보는데, 눈도 돌아가고 마. 그 때는 마 도시락이고 뭐고 내삐고. 얼-마나 나 참 그때 십겁 뭈는, 무서워 십겁했는데.

그 동네서 우리 집을 지금도 갈라 쿠몬 한길에서 한참 가는데, 우리 오촌(오촌)이, 오춘 당숙이 밤만 되몬 우리 집으로 오는 기라. 우리 할무이가 키아놓인께네(키워놓으니까). 큰어매 주무시는가 오모,

"아 행수(형수), 아들이 어데 갔소?"

하이께,

"아이고, 나리 가 갔는데 아직 안 오네요."

이러쿠께네, 우리 오춘(오촌)이 막 내 이름이 '지에코 카네꼬'거든.

"지에코야 카네꼬야."

쿠면서, 그래 불러 내라. 내 그래 한분(한 번) 십겁 뭈다. 그래 침은 그만치 무섭는 기라. 보리밭에서 그리 하는 거 그거는 몰라도, [조사자: 그렇지 옛날에고.] 몰라도, 마 눈도 비틀어지고 손도 틀어지고 마 따라오는데 마 참 자글자글 넘어가겠더라야. [조사자: (웃으며) 그렇지,

옛날에.] 그런 [조사자: 옛날 어렸을 때.] 그래 보리밭에서 그리 간을 내먹우몬(내먹으면) 낫는다 하대예. 낫아갖고 아를 그래 보리밭에다 엎어놨더라 하대.

[동구 설화 48]

정성을 드려야 하는 제사[뱀으로 보이는 머리카락]

김월숙(여, 1944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범일2동 범이부녀경로당]

참 옛날에는 무서웠어. 무서웠어. 지금은 시대가 배뀌고(바뀌고).

우리 옛날에 고모가 그라대. 시집을 갔는데, 아가 마 정기(경기, 驚氣)로 해갖고 깜빡 넘어가고 아가 금방 죽어삤어. 죽어삤는데, 그 집이 제사라. 할배 제사라.

시아부지 제산데, 그래가 마 아는 죽어삐지, 거 제사가 눈에 드나. 어디 묵거리가 있었어, 숩기(쉽게) 말하자몬 인자, 촌에 와 옛날에 마 한의(韓醫)가 있었다. 성님(형님)인테 거 물으니까,

"빨리 너거 집 배미(뱀) 잡아내라."

이래대.

"배암을 잡아내라."

그래 뱀이가 어딨노? 꼬사리(고사리)를 디비니까(뒤집으니까), 꼬사리에 착, 머리카락이 창창 감기 있더란다. 그거 풀고 나이께 아가 살아나더란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고모가. 저거 동네에서 그랬단다. 거 그만친(그만큼) 그래 인제 정신 씨라(써라) 하는 이야기라. 그기 쉽기 말하몬. 제사를 모시몬.

[동구 설화 49]

삼년 재판을 받아야 극락 가는 저승[삼년상을 하는 이유]

김월숙(여, 1944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범일2동 범이부녀경로당]

그래 사람은 죽으몬 혼이 두 개가 되거든. 하나는 구천에서 헤매고 하나는 산에서 헤맨단 말입니더.

죽으몬 금방 우리 부모가, 마 마음이 극락, 극락 못 가거든. 왜? 재판해야 돼. 삼년 재판하거든. [조사자: (웃으며) 재판을, 삼년을 재판?] 예. 삼년을 재판해야지, 구천에서 우리 자석들 한테 헤매고 댕기는 기라. 삼년 재판을 받아야 그기 극락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갈 것 아입니꺼. 그거 마음이 아입니꺼. 그래 삼년상이라. [조사자: 삼년상이라.] 그래 삼년상을.

[동구 설화 50]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제한된 복

김월숙(여, 1944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범일2동 범이부녀경로당]

아니, 저저 오데고(어디고) 거? 무신 철강이가. [조사자: 동국제강.] 동국제강. 거게 부장님이, 이건 실집니더(실제입니다).

거기 부장님이 부장 돼가 회장님 따라 휙- 돌리다가 탁 넘어졌는 거야. 넘어져가 침례병원여(여기) 있을 때, 침례병원 있을 때, 촌에서 와가지고 초상 안 친다고, 삼일이 넘었는데 초상 안 친다고 굿이 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여자가 안고 초상 못 친다고, 못 친다고 그래가 일주일 안고, 병원에 있으몬 난주는(나중에는) 산소호흡기 떼라고 눈을 번떡 떴는 기라.

그래,

"볼펜 주라."

하더라. 볼펜 빨리 요거 떼주라 하더라. 떼주니까라 자기가 한단 말이,

"저승을 가니, 길이 삼 갈래 길인데, 탁 어느 스님이 법복을 입고 가사가 참 너리다(넓다) 아입니까, 그지요? 가사를 착 펴가 복판에 앉았는데, 요 길도 있고, 요 길도 있고, 요 길도 있는데, 터벅터벅 간다."

카이께네,

"자네는 어데 가는데 그래 가는고?"

이래 카이께네,

"그래 하이튼 어디로 간다."

쿠이께네, 그래,

"이 길로 갈래? 그 길로 못 가네. 요쪽 길로 가라."

하더라. 그래 간다고 가이께네, 시-퍼런 물이 마 부글부글 끓어쌌더라 카네. 그래 쌌다 거기를 건닐라(건널라) 카께네, '건니도 빠져도 죽겄고, 안 건니몬 뒤따라 오는 몽디가 있으니까 죽겠고' 마, 어째 마 펄떡 건니면서 깼다 하더랍니더.

그래 깼는데, 그 질(길)로 일나가 양산 통도사서 오백만원 부조로 했는 거라. 내나 그 소리 하더라. 하정이 아버지다, 이름이. 그래 했는데, 그기 그까지 복이라, 쉽기 말하자면. 그거까지 복인데 그 질로 해갖고 마 죽었다고 진시장 사람들이 야단을 치고 이래 쌌는데, 일나가(일어나서) 돈을 마이 빌리가 마 노름에 빠지가 있더라.

노름에 빠져갖고 영- 엉망지 돼가 사위는 하나 의사 사위 봐놓고 죽었다. 그 살림 삘딩(빌딩) 두 개 다 날리고, 다- 망해묵고 그래 죽었습니다. 그 연산, 그 저저 대연동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복이 오는 한계가 있다. 그때 그 사람 죽어야 자식들하고 사는 거는 편키(편안하게) 사는 거라. 숩기(쉽게) 말하자몬. 그기 인자 복이 넘쳐삣는 기라. 그 후로 노름하더라고. 하정이 아버지라고 그 사람.

[동구 설화 51]

개로 환생한 어머니를 세상구경 시킨 아들

김태옥(여, 1949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범일2동 범이부녀경로당]

[조사자는 어머니가 일만 하다가 죽어서 개로 환생했는데, 아들이 그 개를 데리고 전국을 돌며 구경을 시켰다는 이야기를 하며, 그 이야기를 아는지 유도하자 제보자가 다음 이야기를 구술함]

개를 업고 뭐,
"어머니, 여기는 또랑(도랑)입니다. 조심하세요. 잘 붙잡으세요."
카고, 건널 때마다.
"어머니, 여기는 무신 산이 아름답지요."
카고, 그래가 개를,
"어머니, 어뎁니다."
카고 뭐,
"밥 잡수신다."

카고, 어데 또랑에,

"지금 또랑 건넙니다. 조심하세요, 빠집니다."

카고 이자,

"어머니, 꽃이 핀다. 참 아름답지요?"

카고 개를 들고 온 조선 팔도 다 댕깄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예, 이전에.

[동구 설화 52]

진주 자린고비

김태옥(여, 1949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범일2동 범이부녀경로당]

[조사자: 어머니, 진주에 자린고비라꼬. 자린고비 이야기 혹시 아는교?] [청중: 고기 달아가 매나 놓고, 밥 한 번 떠묵고 그거 한 번 쳐다보고. 그기 자린고비. 생선을 매달아가 놓고.] {조사자: 그래 또 이야기를 어데 가이 할무이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손을 씻어가지고, 새미(샘)에 씻거면은 만 사람이 다 온 동네 다 갈라묵을 거 아이가. 고기 사가지고 자기 혼자 먹지 말고, 고기 이고 왔이몬 그거를 주물럭 주물럭하이 만지고 안 사고 보내며, 새미에 씻거만 만 사람이 별미라는 거 다 같이 갈라무울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지.

[동구 설화 53]

조상의 환생을 점치는 제삿날 멥쌀밥

김태옥(여, 1949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범일2동 범이부녀경로당]

그러이 제삿밥은 하고 나면예, 그 와 한 이틀인가 이런 놔둔다고. [청중: 우리는 할매가 이라대.] 놔두는 원인은 잘못 됐나 잘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혹시 머리카락이 있나 이거 보기 위해서. 만약에 머리카락이 있다면 그 제사 헛제사 다시 지내야 된다. 그래 와 우리 멥밥, 이 멥밥 해가 우에 얹어놓는다 아입니까. 요즘은 뭐 그날 다 무뿌지만은, 옛날에는 이래 쫌 얹어나. 하루 이틀 얹어놨다 담에 먹는데, 그걸 확인하기,

"그걸 와 저래 얹어놓노?"
이랬거든. 멥밥을 얹어 놔. 그걸 얹어놔야 돼. 그거를 딱 담아가주 선반 우에다가 문종이를 딱- 덮어갖고 놔놓으몬, 그 제삿밥 할 때 딱 꺼내보몬 손을 짚은 때가 있고, 뱀이 지내간 것 겉이 하는 때가 있고, 이기 딱 돼가 있다. [조사자: 그래 혼령이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또 새 발자국이 있고, 그 우리 눈에 봤으니까.

그래 그 밥을 그 멥쌀로 짔거던. 이거는 이래 탁 까불라갖고 모반, 우리 촌에는 와 나무 모반이 있잖아. 거다가 멥밥 할 거 딱 해갖고 문종이 탁 덮어놔. 고따가(거기에다가). 뭐 온(오늘) 저녁 제사 겉으몬 인자 아침부터 그래 정성을 쓰고 머리를 깜았고. 오새(요새) 사람들 그래 하나? 머리 깜아 빗고 옷 갈아입고 하몬, 거 저녁에 인자 밥 할라고 보면, 그게(그곳에) 손 짚은 것도 있고, 새 발자국도 있고. 또 뭐라. 하모. 거 마 희한하이 있다. 그 우리는 하기는 하는데, [청중: 여사로(예사로) 그냥 해갖고.] 오새는 멥쌀로 떠놓고 안 하고 그냥 막 퍼갖고 한다 아이가. 촌에서는 할 때도 있다.

[동구 설화 54]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이옥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범일2동 범이부녀경로당]

이래 해도 안 달래고 저리 해도 안 그쳐요, 애기가. 안 그쳐서, 아무리 해도 안 그쳐요.

"호랭이 온다."
캐도 안 그쳐. 그래 아가, 인제 엄마가 가만히 생각했다가,

"아이고, 꽂감(곶감) 주께. 꽂감 주께."

그러이까, 애가 그 꽂감 소리에, 그래서 호랑이보다 꽂감이 더 무섭다고, 애는 알아서 딱 그치더라고.

[청중: "꽂감 주께." 카이 뚝 그치니까, 바깥에 있던 호랑이가 '아이고, 꽂감이 내보다가 더 무섭는가?' 싶어서 도망을 갔대.] 그런 생각은 나.

[동구 설화 55]

어머니 죽은 후에야 철드는 청개구리

이옥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범일2동 범이부녀경로당]

청개구리가 엄마 말을 하도 안 들어서, 엄마가 나중에는 뭐 하도 엄마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반대로 인제 저- 엄마가,

"내 죽거든 산에다 갖다 묻지 말고 냇가에 갖다 묻어라."

이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거 그때 엄마 말 듣고 냇가에 갖다 묻더라고 그라면서, 그 청개구리 말도 있었잖아요.

[조사자: 그래서 만날 개굴개굴 개굴.] 예. 그래서 개굴개굴 개굴. [조사자: 옛날이야기다. 거 하도 아들 반대로 하이까네.] 반대로 하니까, 인자 바로 자기는 인자 엄마 말을 죽어서야 들은 거야. 죽어서.

아, 그러고 우리 엄마가 고게다, '내가 죽어서 말 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냇가에 묻었으니까, 그게 개골개골 개골 그래가지고 냇가에서. [조사자: 맞다. 그게 그 이야기가.] [청중: 철이 없고 죽을 때 되가이까 인자 철들었네.]

[동구 설화 56]

느린 충청도 말

이옥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범일2동 범이부녀경로당]

아가씨하고 총각하고 연애를 했는데, 어찌 진짜 저기 했는데, 이 아가씨가 인자 자기 애인이 인제 저 군대를 가게 됐어. 근데 군대를 가는데, 역전에 인자 별 나온 거라. 그래가 인자 이 저기가, 아가씨가,

"안녕히 다녀오세유-."

하는 적에 벌써 군대 갔다 왔대요. [일동 웃음] [조사자: 충청도 사투리 느리다고.]

[동구 설화 57]

현몽해서 유언대로 하지 않아 생긴 화(禍)를 푼 고인

이옥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범일2동 범이부녀경로당]

우리 아부지(아버지)가요 항상 저 뭐,

“오일장, 오일장을 하라.”

그랬거든. 항상 그러고 돌아가셨어. 근데 우리가 삼일장을 했어요. 삼일장을 허고 하는데, 그 날 와서 우리 오빠하고 우리 엄마하고 주무시는데 보니까,

“아이구, 내가 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묘에 가서 그걸 파보니까, 우리 아부지가 물에 둥-둥 떠 있더래요. 그래서 다시 파가지고 오일장을 했어요. 다시 파가지고 다른 데다가 해가지고 그래 지냈어.

우리 아부지가 그랬어요. 우리 실제 그랬어요. 우리는 실제 그래가지고.

[동구 설화 58]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백종교(여,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범일2동 자성대경로당]

옛날에는 칠십 되모는 고래장(고려장)을 하니까, 아들이 인제 어마이(어머니)를 업고 인제 그 고래장 그 묘 터 저저 파놨는데, 그 짊어지고 인제 산길로 산길로 가는데, 엄마는 뒤에 저 그 지게 업히가주 가면서, 아들이 갔다가 길을 못 찾으까봐 갈 때마다 나무로 한나썩(하나씩) 꺾어가지고 딱딱 났는(놓았는) 기라,

인자 길로 가면서. 그래야 아들이 그 어마이 갖다 내삐리뿌고(내버려버리고) 돌아올 때 길 잃어뿌몬 어예노? [조사자: 그렇지.] 그래서 아들이 길 잃어뿌리지 말고 찾아가라고 낭글(나무를) 꺾어놓으꺼네 고 길이 딱- 바로 집으로 가는 기라. 그래가지고 그래 옛날에는 갔는데, 그 말이 옛날에 그래서 저 아바이, 저 엄마로 업어다가 갖다 내삐고.

그래 저거 아들이 왔는데, 그 뒤에는 그래더마는, 그래 저 그 손자가 인제 그 아부지를 보고, 그래 저 지도,

“나도 아부지가 칠십 되면은 나도 아부지로 업어다 갖다 내삐리야 되는데, 지게가 있어야 된다.”

고, 이래가지고 인제 그래 그 아들 말을 들으니까, ‘아이고, 지도 쫌 있이몬 자식이 지도 인

제 저다 갖다 내삐리뿔 기다' 싶어서, 그 인제 그런 소리로 듣고, 그래 차차로 그 저 칠세복 고래장이 없어졌다 하대.

[동구 설화 59]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백종교(여,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범일2동 자성대경로당]

아들이 과거 보러 가고, 먹을 거는 없고 흉년에, 아무것도 없고 이러이끼네 인제 메느리(며느리)가. 옛날에 땅을 파면은, 이 도랑을 이래 파면은 띠가, 이 지렁이가 띠를 매는 거는 몬(못) 먹거든. 몬 먹고 띠로 안 매고 나온 거는 먹는 기라.

그래 인제 고걸 잡아가지고 저 딱 말라가지고, 그거 참 잡아가지고, 그래 인제 마 먹을 거 없으니까 인제 메느리가, 저 신랑은 과거 보러 가고 없고, 그래 그걸 저 삶아가지고 인제 주니까, 그래 메물국시(메밀국수)라 카고 죘는(주었는) 기라. 메물, 메물을 가지고, 메물 가지고 국시로 해놓으몬 새카맣고, 그기 인제 짠득짠득하이 이러이께네, 그러께네 시어마이가,

"이게 뭐고?"

카이께네,

"메물국시."

라고, 이래가지고 주니까, 시어마시가,

"하이고, 참 맛있다. 너무너무 그래 메물국시가 맛이 좋다."

이러 카이꺼네, 그래 그래가 인제 그걸 장-(계속) 잡아다가 이래 주고. 할마이가 살이가 막 보하이 마 도로 마 이 아들이 갔, 떠가갔다가 오이께네, 엄마가 너무 살이 지고 좋거든, 얼굴이. 좋으니까,

"엄마, 어째서 이래 얼굴도 좋고 좋습니까?"

카이까,

"야야, 참 메느리가 참 효부다. 그래가지고 그래 메물국수를 해조가지고(해줘가지고) 그래 내가 이래 만날 먹으이께네 이렇게 좋다."

이러카이께,

"그래 그기 뭣인데 그래 글노?"

카이께, 그래,

"내가 야야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개썩 껀저가지고 자리 밑에다 옇어놨는 기라. 한 개썩 껀저가 자리 밑에 옇어놘 거, 이거 이게 메물국시다."
이러 카고 주니까, 아들이 보니까 지렁이거든.
"엄마, 이거 지렁이다."
카이께네, 그래 어마이가,
"아이고, 야야! 그기 뭔 소리고."
꼬 번쩍거려가 그래 눈이 떴다. [조사자: 눈이 버쩍 떠졌다.] 예, 떴다 그 말이라.

[동구 설화 60]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백종교(여,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범일2동 자성대경로당]

시집가면 무조건 뭣이든지 참아야 되니까, 여자가. 그래서 귀머거리 삼년, 눈 어두어 삼년, 뭐 버버리(벙어리) 삼년, 그 구년을 살고 나이 꽃겉은 내 얼굴이 애꽃이 되었다고. 참외가, 참외꽃이 노랗다 아입니까. 그래 참외꽃이 됐다. 그런 그기 전설이 있잖아요.
그러께네 인자 시아버지가 그래,
"니가 그래 왜 글노?"
카이께네, 그래,
"방구로 몬(못) 끼가(뀌어서) 그렇다."
이러 카이,
"그럼 니 방구로 하문(한 번) 끼 봐라."
이러 카이, 그래,
"그러몬 아버님, 저 문고리 가가 잡고 계시소." [청중 웃음]
문고리 가가 잡고 있어야 시아바이가 안 날아가제. 지가 방구 끼뿌몬. [조사자: 하도 참아가지고.] 예. 하도 참아. 그런 그기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
[청중: 방구로 끼노이께네 뭐고 들랑날랑 들랑날랑 그니까, "고만 고만 고만."] [조사자: 할머니, 그건 무슨 이야긴데?] 그 인제 방구를. [조사자: 고만 아아. 고만 끼라고, 집 날라간다고.] 야. 방구로 뀌니까, 마마 전부 다 냄비뚜껑, 솥뚜껑 와장창 와장창 카이,
"이제 고만 고만 고만."

[조사자: 고만 뀌라.] [청중: 방구를 끼나이께 시아버지는 지붕 우에 가서 머리 잡고 가마이 있고. 거기까지 날아가서.] [일동 웃음]

[동구 설화 61]

저승 갔다 살아난 사람

백종교(여,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범일2동 자성대경로당]

그런 말은 있었어요. 삼일장을 하니까, 그래 저거 삼일만에 깨나가이(깨어나니),
"그래 어옜더노?"
카이, 그래,
"강아지 따라가는데, 강아지가 그 도랑을 건네는데 고만 어디 가뿌고(가버리고) 없어가지고, 그래 그걸 못 건네고 잠 깨뿐께네, 그래 살아나버렸다고."
그러카대. 그런, 그런 전설이 있었어.

[동구 설화 62]

쌀 나오는 구멍이 있던 청도 운문사의 암자

백종교(여,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범일2동 자성대경로당]

그기 저 청도 운문사 나반존자 가몬, 아주 그게 올라가기 힘들거든. 거는 아주 참 고시 공부하는 사람, 아주 그런 사람 그 불공드리러 가는 덴데, 거기 지 평생에 그 세 분(번)만 가몬 좋다 카는데, 참 그기 힘들어요. 그거 올라가기가. 엉간하몬(어지간하면) 못 올라가. 그래 가면은 거기 아-주 산이 높은, 오래 올라가몬, 내가 그 두 분을 가 봤는데, 세 번 못 갔어. [조사자: 못 갔어.] 야. 두 분 갈 때 마 반 올라가다가 죽겠어 못 가고. 야, 이래가 무슨 헬리콥터를 불러가지고 타고 내러가든가 뭐 해야 되지, 오도가도 못 하겠다 카고. 그래 근-그이 올라가기는 올라갔어요.

그 두 분 올라갔는데, 거기는 아주 그 산 우에 바위가, 바윗돌이 있는데 고 희한하이 집이 고거 그 이래 바윗돌 우에다가 이래하가지고 집을 져놨대요. 집을 지어가지고 스님이 인제 맨날 혼자 그 인자 이래 참 여 내려왔다가 올라가시가지고 인제 법당에 촛불 캐놓고 이래 하는데,

사람이 하나 오면은 쌀이 하나 모가치(몫이) 나오고, 둘이 오면은 두 모가치빽에 안 나와, 쌀이. 그 바위틈에서. 그래서 그 도사가 인제 아, '내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도사 지팡이 안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더 떫어가지고 쌀이 좀 마이(많이) 나오거로 해야 되겠다,' 싶어가 그래 팍 쑤셔뿐께네, 쌀이 안 나오고 마 물이 나오뿌는 기라.

그래가 샘물이 나왔는데, 지금도 가면은 그 바위 안에, 요래 안에 우물, 그 물이 찰랑찰랑 찰랑하이 물이 한거(많이) 고이 있어요. 그래가 그 산꼭두배기에 물이 있어. 거 그 물로 묵고 그래 인자 나반존자가 하도 유명해가지고 그래 마이 거 돼서, 스님, 요새는 막 전부 신도들이 많애가지고 그래 그 마 참 기도빨도 있고.

[동구 설화 63]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백종교(여,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범일2동 자성대경로당]

경주 불국사 에밀레종. 그거는 참 우리 어릴 때 버어(벌써) 들었지. [조사자: 들었는교?] 예. [조사자: 뭐 애를 넣어가지고 뭐 이래 뭐 종을 만들다는.] 예. 애를 옇어가지고. 그래 뭐 말이, 그 아를 거 옇어가지 뚜드러가지 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에밀레종이라 그러더만.

[동구 설화 64]

여인으로 변하는 논고동[우렁각시]

백종교(여,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범일2동 자성대경로당]

논고동을 갖다가 문뜨막(부뚜막) 안에다 옇어놨지. 문뜨막에 옇어놔야, 그 고동은 물을 무

야(먹어야) 살거든. 문뜨막 안에 옇어놓으께네 그래 그 고동이 고기 인제 딸아, 여자가 돼가 지고 나와가지고, 그래 밥을 이상하게 지어놓고는 없고 없고 이래가, 그래 이 남자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 그 숨어가지고 봤는갑더만은.

보니까 그래 단지, 문뜨막 안에서 색시가 나오가지고 밥을 해놓고 가고 이래 싸서, 그래 그걸 고마 붙들었는갑더마는, 색시를. 색시를 붙들으이께네, 그 무슨 그기 시(時)가(때가) 돼야 되는데, 그 그 시를 몬(못) 넴기고 붙들리가지고, 그래가주고 색시가 고마 연에 고동이 돼가 가뿠다. [조사자: 갔부고. 아하.]

똑 나무꾼 얘기 비슷하게 그래 돼뿠다.

[동구 설화 65]

선녀와 나무꾼

백종교(여,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범일2동 자성대경로당]

우리가 어릴 때 들어노이.

나무꾼하고 선녀하고 얘기는, 이 나무꾼이 남의 집에 머슴을 사는데 만날 나무를 하러 가. 장개(장가)도 못 가고 가가지고 나무만 하러 가고 이랬는데.

그래, 그래 갔는데, 이 저게 [조사자: 사슴이.] 사슴이 나와가지고, 사슴이 나와서, 저 선녀들이 저 가, 그 산에 물에 내러와서 목욕을 하는데, 목욕을 하는데 그 저거 사슴이 그 저 선녀들 옷을, 선녀 옷을 벗어난 걸 해덮어씨고 도망을 갔부런갑더마는. 그 사슴이.

그래가지고 그 나무꾼이 그 사슴을 붙들어가지고 인자 옷을 뺏어가지고 인제 선녀를 줬는데, 그래 선녀가, 그 선녀가 인제 못 올라가게 돼뿠는 기라. 다른 선녀는 올라갔부고 지 혼차서 인제 마 올라갔부고 나이께네, 그 못 올라가 떨어져가주, 그래 선녀가 이 나무꾼하고 같이 살자, 인제 사는데, 그래 인제 선녀가 하는 말이,

"애기 셋 놓을 딴에, 아이 서이 놓을 딴에 절대로 말하지 마라. 어디 가서 이렇다 카는 이야길 하지 마라."

이러 카고 인제 살았는갑더만. 사는데, 그래 아를 둘이를 놓고, 서이로 낳아야 되는데, 서이 놓기 전에 이 나무꾼이 하도 인제 마을에서,

"어째 세상에 저래 예쁜 색시를 얻어가 저래 잘 사노?"

막 이래싸면서 그 비결을 갈쳐 달라고 막 이래 쌌지. 마 그래 싸이께네, 그래 나무꾼이 인

제 그 서이 놓을 때까지 아무 말로 갈쳐주지 말라 했는데, 그 말을 했부렀는 기라.

"내 나무하러 가서 인제 이래이래 만내가 이랬다."

그 이야기 했부이께네, 그래 그 선녀가 아 둘이로 겨드랑 밑에 끼고 하늘로 올라갔분 기라. 아 서이를, 서이만 되면은, 둘이 끼고 입에 물고 못 올라가거든. 못 올라가는데, 그 날개가 인제 선녀 날개가 이래 달아가지고 이 나무꾼 그거 저 마누라 대이 진 기, 겨드랑 밑에 양 겨드랑 밑에다 아로 끼고 고마 올라갔분 거라. 그래가지고 나무꾼이 그 마 그 선녀를 떨어자뿠다(떨어뜨려버렸다) 하대.

그래 이애기가. 그래 마 내 이애기 잘 몰라요. 그 이애기 비슷하이. [조사자: 그래 어머이 잘하시네.]

[동구 설화 66]

문둥병이 든 신랑과 혼인해서 문둥병을 고친 신부

백종교(여,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범일2동 자성대경로당]

이거는 참 어려운 그건데, 다 맞을란가 틀릴란가 모르겠다.

근데 그기 옛날에는 한분(한 번) 시집을 가면은 일부종사(一夫從事)를 해야 되지 두 분은 못 가거든. 근데 옛날에는 신랑을 보지도 안 하고, 고마 이 양쪽에 사돈들이 [조사자: 중매를 해가지고.] 이 중매를 해가 이 부잣집이 아주 참 덕망도 좋고 이런 집에서 인제 저 신랑이 병이 들었는 기라.

문디병(문둥병)이 들어가 있는데, 장개(장가)를 보낼라 커이, 참 색시가 없고, 저 어째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이 인제 신랑은 문디가 된 거를 저- 인제 아주 돌섬에다가, 섬에다 갖다 딱 갖다 인제 집을 한 채 지어가지고 거다 옇어놓고, 인제 일꾼들이 종들이 많으니까 인제 배를 떡 타고 가가지고 인제 밥을 해가 갖다 주고 이래 하는데, 그래 중매쟁이가 인제 말을 해가, 옛날에 동호인이라 하는 기 요즘은 없지만은. 동호인이라 하는 기 요새는 없지마는, 옛날에는 동호인이라 허몬 신부집에서 하룻밤 자야 되는데, 자고 신행(新行)을 가야 되는데, 동호인이라 허는 거는 지날이 그 예식장에서 참 마당에서 혼례를 올리고 바로 신랑 집으로 덱고(데리고) 가거든. 거기 동, 고기 동호인이라. 그 색시 집에 안 가고. 그래 바로 가니까, 그래 인제 중매쟁이가 그래 인제,

"참 신랑이 좋다."

이러께네, 가짜 신랑으로 인제 부잣집이 되노이, 가짜 신랑으로 세우니까, 그리이 하룻밤을

못 재운다 아이요. 그래 못 재우고, 그날 인제 형님하고 그 신랑은 갔부고, 여자 색시는 인제 신랑이 문디인 줄도 모르고 시집을 가는 기라. 그래 가니까, 신랑 집이 워낙 부자고 하니까 뭐 식모도 있고 뭐 종들이 버글버글한데, 그래 색시가 가가지고 가마이 마 밥 해주는 밥만 묵고 방에 들앉아 있고, 이래 신랑 구경을 못 하는 기라. 그래서 인제 그 하인, 밥 갖다 주는 하인보고,

"그래 이 집이 서방님은, 새 서방님은 어디 가시고 안 계시나."

카이, 그래 잘 안 갈차(가르쳐) 주는 기라. 그래서 옛날 시집갈 때 저 무슨 돈이고 거, 저 저 죽으면 효잣돈이지만은, 시집갈 때 주는 돈은 그거는 무슨 돈이더라. 그 돈을 마이(많이) 가져가는 이유가, 그래 가져가가지고 급할 때 쓰는 기라. 그래 인제 그 돈을 인제 이거 식모, 그래 인자 저 그 밥 하는 사람보고 한 꺼자이(끄집어내) 주고,

"그 서방님 어디 계신지 좀 가리켜 달라."

이러 카이, 그래 인제,

"하, 그 서방님이 저저 섬에 그래 가 계시는데 그래 못 만낸다. 못 간다. 거는 가몬 죽어가, 사램이 드가는 걸, 낯선 사램이 드가몬 마 칵칵 짖어쌌고 배로 타고 드가가지고 기우(거위)를 밥을 주고, 인자 신랑 밥을 주고 이래 나오는데, 못 간다."

이러 카이께네,

"그래 알았다."

이래 카이, 그래 색시가 지가 지 밥 주는 거를 만날 모으는 기라. 기우 그거 줄라고. 쪼맨썩(조금씩) 쪼맨썩 뭉쳐가지고 이래 모다놓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시집갈 때 명주(明紬)가, 생명주가 사람이 죽으며는 사우(사위) 옷을 생명주로 했거든 옛날에는. 죽은 사람이, 우리가 죽으면 내나 몸이 썩는다 아이요. 썩어도 참 옛날 효자들은 그 부모가 썩기 전에 이 물이, 진물이 몸에 나오는 그기 생명주로 감아놓으면은 짝짝 빨아먹어. 그 나쁜 인자 곪은 물이. 그이께 명주가 다 빨아먹고 인제 이래가주 탁 말라. 그래, 그래가주 그걸 인제 생명주로 가지고 사우 옷을 하는데, 인제 이 시집갈 때 부잣집이 인제 돼노이께네, 명주를 인제 마 멫 필로 인제 이래가주 명주 멫(몇) 필, 명 멫 필, 베 몇 필 카고. 전부 물목(物目)에다 적어가지고, 옛날에는 이 다 가주고, 색시 집에 다 가주가지 안 하고, 이 문종이로 요만, 요만하게 저거 이래 오래가지고(오려가지고) [조사자: 품목만 적어가.] 품목만 이거 똑 우리 요새 거 뭐 휴지, 그거 말이 모냥으로 따라라 말아가지고 거다 인제 품목만 적거든. 명주 멫 필, 무명 뭐 멫 필, 저고리 수무(스물) 족, 치마 얼마 얼마 이래가 딱 적어가지고, 인제 똘똘 말아가지고 신부 집이 보내면은,

"아- 참 물목을 마이 받았다. 옷을 마이 받았다."

이러 카고 했거든. 그런데 인제 그래 명주를 가주가노이께네, 그래 신부가 그 명주 한 필로 가지고, 인자 밥 지 먹으라고 주는 밥 내 모다가지고 싸고, 그래가주 또 돈 한 꾸러미 가지고, 배 이 저거 배 사공보고 좀 주고,

"내 그 좀 데려다 달라."

이래가 그래 신부가 그 인자 그 배를 타고 거 드갔어, 섬에. 들어가니까 흘집(흙집)을 지어 가지고 그래 인제 이래 탁 옇어놓고, 거는 남자 혼자만 들앉안 기라. 신랑 혼자 들앉아 있는데 떡 가보이께네, 요래 봉창(封窓)[9] 궁(구멍) 안 있습니까. 봉창 궁. 옛날에 우리 저거 시골에서 집 짓는 거 보몬, 집 짓는데 저 뭐 전깃불 겉은 기 이런 기 없기 때문에 호랑(호롱) 얹어놓는, 호롱불 얹어놓는 그기 뚜껍다 아이요. 뚜껍으몬 니모(네모) 반듯하이 이래가지고, 여게는 인자 문종이로 바르고, 밲에는(밖에는) 문종이로 바르고, 아예 안에는 호랑불(호롱불) 요래 얹어놓고 이랬는 거, 고런 거 딱 있다 아입니까. 그래논께 그도 인제 그래 해가지고 밥 딱 밥그릇 하나 디갈(들어갈) 만치 문이 있는 거라.

그 문디 그거 인제 에- 공기가 마이 안 드가고, 이래가 그래 딱 그래가 문이 요래 있는데, 고다 밥을 옇어주고 이랬는데. 그래 가가 보고는 그래 인제 지가 밥, 그래 기우가 막하이께(막으니까), 그래 저어쌌는 거로 지는데 밥 뭉탱이로 탁탁 떤저주이께 그거 먹는다고 기우가 안 달라들고 마 거했는 기라.

그거 밥을 그래 주고, 그래 신랑인테 가 찾아가가지고, 그래 참 보이 기가 찰 노릇이 아이요. 그래서 지가 그 저 옛날 청주, 청주 그걸 뜯는 거, 그 청주 한 병하고 딱 가지 드가가주, 그래 인제 지 살을 인제 전부 다, 여어 허벅지 살 이걸 전부 다 포랬는(포를 떴는) 기라.

이래 뺏기내니까 소고기 모냥으로 이 전부 다 삣어가지고 그걸 인제 불에다 꿉어(구워). 꿉으면은 그 사람 살코기가 간간하이 그래 맛있다 카대. 간간하이 간이 맛있다 카대. 그래가 삣어가지고 인제 그거로 인제 술안주로. 그래 인제 명주로 가지 가가 지가 인제 여 전부 그 했는 거 한 필썩 마 감아가지고, 명주로 탁 감으면은 이기 살이 피가 안 나고 짝-짝 몸에 붙는 기라. 몸에, 몸에 붙어뿌니까. 그래 막 그래가 감아가지고는 색시를 인제, 색시가 신랑 고기로 꿉어가지고 술하고 인제 딜러주면서(들여주면서) 그래,

"이거는 참 맛있는 고기라고."

이러 카이 갖다 주이, 거 뭐 신랑이 거 들앉아가 아무것도 뭐 고기라고 안 먹다가 얼마나 맛있겠어. 그래 그걸 실컷 먹고 술 그거 다 먹고, 거 막 술이 취했는 기라.

그래 그래놓고 이 여자는 인제 거 이제 그 밥 들이주는 그 봉창을 전부 다 막아뿌맀어. 공기 못 디가거로(들어가도록). 싹 막아뿌고 그래 집에 와가지고 한 삼일 있는데, 얼쭈(얼추) 하룻밤 자고는 '우예 되는고?' 싶어가, 그래도 그 뒷날이 가니까, 카- 마 벌거지가(벌레가) 마, 마마 방에 마 버글버글하이 그기 나와있는 그기 구더리(구더기) 모냥으로. 그기 [조사자: 그러께 빠지나왔네.] 예. 문디병이 그거 벌거지가 구더리 빗짐(비슷한) 모양 그렇대요. 벌거지가 몸에 막 있는 기. 그래가지고 그 몸을 막 빨아먹으니까.

그런께네 요새 뭐 선생님은 그 달애라 카는 거, 그 무명, 무명 옷 맨드는 달애, 목화. 목화

9) 문종이로 창을 바른 문.

모르시지? [조사자: 목화는 알아예.] 목화 그기 [조사자: 하얀 솜겉은.] 예. 처음에 열었을 때 똥그리이하게 여게 요래 꽃 몽아리 맨드는 거 있거든. [조사자: 그렇지요.] 고거를 까묵으면 참 맛있었다고. 우리 어릴 때 배가 고파가지고 밭에 목화 심어 놨은 데 가가지고 고거 따묵다가 할매인테 들키가지고 맞고 이랬다고.

"그걸 목화 그거 피거로(피도록) 놔두지. 어, 요년들이 가가지고 다 따묵고 목화밭을 조져 놨다 아이가."

그래가 따묵고 했는데, 그 목화 그 꽃에 벌거지가 하얀 기 구더리모양 생긴 게 조디는 뺄갛다고(빨갛다고). 조디는요 빨가, 뺄가예. 그래가이고 똑 목화 벌거지라. 그런 게 몸에 막 그기 다 기(기어) 나와가지고 온 방에 구더기가 한거라. 그래 인제 그걸 씰어내고 그래 저거 신부가 참 인제 어른들인데, 그 지가 그랬다 카는 이얘길 하고,

"그래 가가지고 그 아들을 인제는 사람이 됐으니까 덱고(데리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신부가 참 그 신랑을 사람을 바로 맨들고, 그 열녀라. [조사자: 그랬네. 지 살을 떼어가 줐으이카네.] 지 살을 뗐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 살이, 살고기로 먹으몬 문디병 곤친다' 그런 절이, 전설이 안 있소. [조사자: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클 적에는 '보리밭에 문디 온다.' '보리밭에 문디 잡혀간다.' 카고 그랬거든. 그래 보리밭에 고 문디 아(아이) 잡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 말이 그기라. 그래가지고 그때 옛날에는 뭐 약이 있나? 뭐 있노? 그래 사람 '문디병 걸리몬 사람 잡아먹어야 지가 낫는다.' 카는 그기라요. 그래가지고 인제 신부가 신랑을 다시 맨들어가지고 그래 참 잘 살고. 잘 살고.

[동구 설화 67]

영험이 있는 이월 영동할매

윤복남(여, 1930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범일5동 수남부녀경로당]

이월, 이월 저 할매. 이월 할매. 딸 덕고(데리고) 나오몬 [조사자: 아, 이월 영동할매.] 처매가(치마가) 팔랑팔랑하이 건조가 안 되고,[10] 메느리(며느리) 덕고 오모 비 오고. 얼룽(얼룩)지라고 그 노래 있다 아이가. [조사자: 아 그거, 고 이월에.] 아이구, 나 노래를 몬(못) 부른다. 노래 다 까묵고 없다.

10) '건조가 되고'라고 해야 하는데 잘못 말함.

[조사자: 거 방금 아까 이월에 뭐라고? 이월에 그 할매가?] 이월달에, 이월달. [조사자: 이월달에 무슨.] 할만네. 할매 바람 올리는 거 안 있나. [조사자: 바람. 바람 할매가?] 그러께 비 오고 딸로 덕고 내러오몬 치매가 팔랑팔랑하이 비가 안 오고, 또 인자 메느리 덕고 오몬 비 단치매 얼룽지라고 비가 오고. 그러는 기 안 있는교? 와 이월 할만네 한다고, 저 나락 늘어놔 몬 새가 무이 또르르 구부러지더라요. 얼매나 영검(영험)이 있었다 옛날에는. 그래 요새는. [조사자: 이월에 영동할매네 그래.] 영동할매 맞아. [조사자: 아, 영동할매.] 또 부리단지가 정지(부엌) 있고, 얼굴 부어갖고 그래 인자 나락을 늘어놔몬 새가 까무. 뽀르르르르 구불어진다 캐. 그래.

[동구 설화 68]

함안 문칠네 복

윤복남(여, 1930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범일5동 수남부녀경로당]

[조사자: 어머이 함안 읍내 문칠네 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 [조사자: 문칠네 복.] 문칠네? [조사자: 응. 문칠네 복이라는 말이.]

문칠네 하면 쌀 서되만 담구몬(담그면) 바람 분다 안 하던교? 바람이 부는 기라. 문칠네가. 문칠네 복이라 안 하요? 문칠네 복.

[조사자: 거 와 그래 그 복이 없는 사람보고 문칠레 복이라 하는고?] 떡 장사를 하는데 쌀로 서되를 해가 담구몬 바람이 불고, 두되만 하몬 괜안코(괜찮고) 그렇더래요. 문칠네 복. 문출네가. [웃음] 문출네 복이다 안 카던교? 문출네 복.

[동구 설화 69]

두 번 먹으면 짜다는 자린고비

윤복남(여, 1930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범일5동 수남부녀경로당]

옛날에 자린, 자린꼽재기가 있었는데, 자린꼽재기가. 천장에다가 국 굴비로, 고기로 딱 한

바리(마리) 달아놓고 밥 무움시러(먹으면서) 하루만 치러보고(쳐다보고) 또 밥도 묵고, 또 하루만 치러보고 두 번채는 밥 떠묵고 이렇는데,

"아이고 두 번 무몬(먹으면) 짭다. 고만! 고만 무우라. 한 분만 무우라."

[일동 웃음] 자린꼽재기가. [조사자: 자린꼽재기가?] 그런 말도 있다예. 자린꼽재기가. 어띠기 꼽재기든지 꼽재기든지, 고기도 하나 빨리 안 사묵고, 그 천자아다(천장에다) 딱 달아놓고, 그래,

"두 분 무몬 짭다. 한 분만 무우라."

[웃음] [조사자: 그래 참 우스개 이야기 아인교 그지요.] [청중: 이야기 말은 거짓말이다.] 어? [청중: 이야기 말은 거짓말.] 말짱 거짓말, 말짱 거짓말이지 그래. [조사자: 맞아. 그래. 이야기는 거짓말이고 노래는 참말이고 그런 말이 있지요.] [청중: 노래는 참말이고, 이야기는 거짓말.] 아주 옛날에 없다고 마 그런 기 있었겠지. 자린꼽재기가 너무 돈을 안 씨는(쓰는) 기라 고마.

[동구 설화 70]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이종학(여,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수정1동 고관부녀경로당]

지게 지고 산에 가가 인자, [조사자: 아버지가.] 아버지가 인자 엄마를 지게에 지고 가가 산에 가가 딱 내라놓고 그래놓고, 그 지게를 다부(다시) 인자 놔두고 내려오는데, 아들이 지게를 다부지고 오더라 대. 그래가,

"지게를 와 지고 오느냐?"

카이까네,

"나도 요 갖다 놨다 다음에 아버지 또 그 하면은 내가 또 아버지 져다 놓을라고 그래 지게 지고 온다."

하더란다. 그니까네 자식 보는데 부모가 그래 하니까 인자 또 그 자식도 본따가(본받아) 또 그렇게 하고.

[동구 설화 71]

구렁이로 환생하여 쌀독을 지키는 시어머니

이종학(여,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수정1동 고관부녀경로당]

저는 안 봤는데요. 기장에 거게 송정에 그 뫼띵이가(묏등), 다 구녕(구멍)이 팍팍팍팍 떨버지고(뚫어지고) 마 그렇더라네. 그런데 그 집에 도장에 드가면은 쌀로, 만날 그 할매가 쌀로 내주고 했다데. 며느리가. 쌀로 내주고 고방 열쇠 주고 이래가 내주고, 내주고 하는데.

그래 그 시아마시 죽고 나니까네, 진짜로 도장에 그 쌀 내러 가니까네, 그 뱀이가 틀어져 가 있어. 있더래. [조사자: 시엄마가 그지예.]

그래 와가 그래 있더라 하데. 독하게 하면 그러는가. 그래가 그 뫼띵에 가보니까 전신에 구멍이 뚤버져 있더란다. 그래 거서 저 뭣고 그거 했다. 제하고 굿하고 그랬는 갑대.

[동구 설화 72]

비 오는 날 나타나는 도깨비

이종학(여,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수정1동 고관부녀경로당]

촌에 가면 밤에 장에 갔다가, 촌장에 갔다가 늦게 온다 아이요? 늦게 오다 보면 도깨비가, 비 오는 날, 이런 날에 돼게 많이 나온다 하더만. 근데 정신을 잃어뿌면은 도깨비 그 눈에 헛비서 그러는 갑더라.

그때는 인자 정신 채리가(정신 차려서) 자기 오줌 누갖고 눈도 씻고 그래가 정신을 채리면 괜찮다 캐.

[동구 설화 73]

도깨비가 되는 빗자루

이종학(여,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수정1동 고관부녀경로당]

빗자리가 여자들 생리하면 그 깔고 앉아가, 촌에는 그런 거 잘 깔고 앉거든. 그러니 그거 묻으면 그런다 카더만은. 그게 진짠지, 가짠지 그거는 우리 모르겠더라.

[동구 설화 74]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이종학(여,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수정1동 고관부녀경로당]

[조사자: 첨에 시집간 며느리죠? 할머니.]
얼굴이 노래놓이. 그 기둥 그 잡고 있으니까네, 방구를 그렇게 많이 끼 대. 기둥이 넘어갈 정도로 끼더라 안 합디까.

[동구 설화 75]

약을 구해 아버지를 살린 바리데기

이종학(여,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수정1동 고관부녀경로당]

그거 보면은, 영화 이거 그거 보면은 하대. 내나 그거 할 때 보면, 연극할 때, 저저 요새 드라마할 때 보면 딸이 어던(어떤) 나라에 가갖고, 거 가갔고 아(애) 서인가 놓을 때까지 거서 몬 오고, 거 나중에는,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째갖고 왔대.
왔을 때 그때 저거 아버지 죽어갖고 아무도 못 살리고 그 누워가 있는 거, 그 약 믹이갖고 살렸다대. 우리 그 드라마 하대. 보이.[조사자: 옛날에 그 무당들 굿하면 바리데기, 바리데기 공주라고.]
그런 드라마도 하더라고. 근데 그 어디어디 가가 그거로 그 꽃을 인자 가와야 되는데, 그 꽃을 있기는 있는데 그거를 몬 가와가지고, 결국 몬 나와가 몬 오고 해가, 아(아이를) 서인가 놓고 난 뒤에 그걸 갖고 왔다. 그때까지 저거 아버지 그래 누우가 초상도 안 치고 딸래들만

그래 둘러서가 앉아가 그래 모두 있더라. 그때 그 약 믹이가(먹여서) 살아놨다대. 드라마 하더라.

[동구 설화 76]

타고난 복

이종학(여,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수정1동 고관부녀경로당]

그래 손님 안 오니까, 몬 사니까 인자 안 오지. [조사자: 그럼 어떻게 하면 손님이 안 오는데요?] 모르지. 그것도 인자 몬 사니까 인자 안 오고. 잘 사는 집에 손님 마이(많이) 간다 아이요.

옛날에 그 집에 가보니까 하도 하도 그 집에 보이, 아무나 봐도 잘 살 그게 아인데도 그렇게 잘 살더라 하대. 그래가 스님이 가만 보니께네, 개가 한 바리 있는데 개 그기 그렇게 복딩이더라네. 그런데 개 그거로 잡아갖고 그거로 삶아가 묵으면 간인가? 뭐 허판가? 그게 동동 뜬다 하대. 그걸 자기가 물라고(먹으려고),

"고아라고. 한 마리 잡아라."

시켰는데, 그거를 잡아가 고우는데 그 냄이(냄새)가, 메느리가 보이 얼마나 냄이가 구시게(구수하게) 나고 맛있게 나는데. 그 솥뚜껑 열고 보니 그게 둥둥 뜨께네, 며느리가 고마 무뿠더라 하대. 그러니께 내나 그게 그 집 복이야. [조사자: 그니까, 지 복은 못 뺏어 간다 그지예?.] 그러니까 그걸로 자기가 물라고 고아라 캤는데, 며느리가 먼저 무삤어. 그러니께 그 집 복은 또 그 사람 복이라. 그러니께 뭐 할 수 없는 기라.

[동구 설화 77]

귀신이 보이는 질경이기름 불

이종학(여,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수정1동 고관부녀경로당]

보고짚어갖고(보고싶어서), 죽었는데, 그래 그 빼뿌쟁이[11]를 지름을 짜잦고 고거로 갖고 인

자 불로 딱- 캐갖고(켜서) 진짜로 보니까, 신랑이 나타나더라대. 그걸 보고 나서는 겁을 내갖고 다시는 안 하더라 하더만은. 귀신이 그래 나타나. [조사자: 진짜로.] 그래 캤다 하더라. 옛날에는.

[동구 설화 78]

선녀와 나무꾼

이종학(여,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수정1동 고관부녀경로당]

나무꾼. 선녀들 내려와서 목욕하는데, 그 산에 정월 보름날인가? 나무하러 보냈는데, 나무하러 가가지고 선녀 옷을 그 뚱칬다(훔쳤다) 안 하던가요. 뚱치가 그 옷을, 그 선녀가 한 애이가 못 올라갔다 아이가? 그라면 아(애) 서인가 너인가(셋인가 넷인가) 놓을 때까지 말하지 마라 했는데, 서이 놓고나서(셋 낳고) 그 옷을 줬다대.

그래 주이까네 마 한, 둘. 하나 업고 양쪽에 하나 들고 그래가 올라가뿠더라 하대. 너이(넷) 같으면 하나 몬 뎃고 갈낀데 그제? 놔두고 못 갈 낀데. 그래가 몬 참아가.

[동구 설화 79]

묘를 파는 여우

이종학(여,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수정1동 고관부녀경로당]

옛날에는 뭐 저 산에 가면은 공동묘지가 멀리 있었다대. 그래가 옛날에는 산길로 마이 밤에 다니셨다고 하데요. 밤에 댕기면 자꾸 뭣이 '삭삭삭' 갉는 소리가 나고, 갉는 소리가 나고.

그래 밤에 가다가 가만 보니까네, 야시(여우)가 화해갖고 인자 그 구더기를 파가지고, 그 사람 두골을 깎아가 또 한 번 써보고, 깎아가 써보고 그러더라 카대. 그 야시가 오래 되면 또 그래 화한다 카더만.

옛날에 공동묘지가 먼데 있었다 아이가. 공동묘지 산길로 옛날에 할배들 많이 댕깄다 아입

11) '질경이'의 방언.

니꺼. 그 댕기다가 보는 수도 있어. 짜다라.[12)]

[동구 설화 80]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이종학(여,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수정1동 고관부녀경로당]

어루면서,
"줄 꺼 없다고. 내는 뭐 우리 봉덕이나 줄까?"
이래놓니, 그 시님이 뭐 에밀레종을 갖다가 자꾸 만들어도 소리가 안 나고, 소리가 안 나고 그렇더라 하대. 그래가 인제 그 시님이 난중에 보이, 아! 어데 가니까 어느 보살이 그래,
"저거 아를 줄까?"
하면서.
"봉덕이를 줄까."
이래 캤다 하더라고. 그래 그 아로 뎃고 와서 해갖고 에밀레 종을 만들었다 안 합디까? 그러니까,
"에밀레, 에밀레."
한다 하대.

[동구 설화 81]

시어머니가 미워 지렁이국을 준 며느리

이종학(여,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수정1동 고관부녀경로당]

외국 가고 없었는데, 시어마씨가 방에 맨날 들어 앉아있으니까 미워가지고 시어마씨를 맨날 지랭이(지렁이) 잡아다 국 낋이가 줬다대. 그러니께네 맛있다고 한 바리(한 마리) 이래가 자리 밑에 넣어놓고, 또 다음에 낋이주몬 또 한 바리 잡아 밑에 옇놓고, 그래갖고 인자 그 할

12) '그다지'의 방언. 이야기 속에서는 '자주' '많이'라는 의미.

매가 살이 쪄가 뽀-얗더라 하대. 아들이 어디 갔다 오니. 그래,

"어머니 뭐를 잡숫고 이래 살이 쪘느냐?"

이래 카이, 그래. 무엇인고, 인제 아들 오니까 그 자리를 들씨가(들추어) 비주니까네(보여주니), 지랭이 말라 난 거, 그 지랭이 그것도 살 찌는 갑대. 보신이 되는 모양이지. 그래 그거 먹고.

"어머니, 지렁이입니다."

카이, 깜짝 놀래더라 카더만은.

[동구 설화 82]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박서분(여,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수정1동 아르미나노인정]

피가 아이고, 갱피(강피)라 쿠대. 갱피 훑는 거. [청중: 갱피가 뭔데?] 논에 피. 그걸 가지고 연맹(연명)을 해가 먹고사는 기라요. 얼마나 가난했으몬(가난했으면) 논에 피 같은 거, 그런 거 뽑아 묵고 사는데, 그래갖고 이 여자가 '어데 좀 좋은데 피 안 묵고 살랑가' 싶어서 갔어.

가서 어데 사는데, 그 집 뭐 신랑인가? 시아버진가? 오데 갔다 말을 타고 옴시로(오면서) 본께네, 메느리가 거서 피를 뽑아쌌거든. 그래 그 말이 그리 났는 갑대.

"간 데 쪽쪽 뭐 갱피 훑네." [웃음]

[조사자: 여자 팔자가 안 바뀐다데예.] 뭣이야 쿤다고. 그래 그런 말이 있더라고,

[동구 설화 83]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박서분(여,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수정1동 아르미나노인정]

[청중: 옛날에는 칠십 무우면(칠십 되면) 고래장 시켰다 아이가.]. 그런께네 저 아들하고 손자하고 같이 인자, 그거 인자 자기 엄마를 지게다 지고 인자 고래장하러 가는 기라. 산에 가

니까 가가지고 그거를 해놔놓고 저 지게로 갖다가 탁 그 버리고 오거든. 그러니께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 왜 지게를 버립니까?"

하니까.

"와? 지게 인제 버려야지."

쿤께네,

"뒤에 아부지도 이 나이 정도 되면, 고래장을 하면 그 지게가 필요하다."

고, 아들이 그래 쿠니카(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놀래갖고 마 [웃음] 엄마를 다부(다시) 덱고(데리고) 왔다 쿠더나? 그런 이야기도 있대.

[동구 설화 84]

도깨비에게 홀린 사람

박서분(여,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수정1동 아르미나노인정]

우리 저 진주 살 때, 큰집 이우지에(이웃에), 쪼끔 나(나이) 많은 사람이 하랭이(화랭이)를 했어. 참 이 옛날에는 하랭이도, 그것도 큰 하랭이야. [조사자: 하랭이가 뭔데요?] [청중: 굿하는 거.] 그래가지고 인자 굿을 하는데, 이 사람은 굿을 하고 나몬 절대로 거서 자고는 안 오는 기라. 우쨌던가 아무리 밤쭝이라도, 새북(새벽)이라도 집으로 오지. 산을 넘고 등을 넘고, 샛길의 길이 요새같이 좋는교? 딱 요런 산길에, 삐랄이(비탈이) 얼마나 더럽은데.

그래 그리 인제 참 술로 한 잔 먹고 넘어오는데, 아이고! 아들도 둘이나 되고, 딸도 둘이가 너이가?(넷인가?) 너이고 할맘 있고 이런데. 뭐꼬? 그 집에 가서 일로 마치고 인자 술로 한 잔 먹고 산을 넘어오는 기라. 넘어오는데, 이 영감탱이가 평상 집에 오서 자지, 그서 자고 오는 법은 없는 기라. 없으이께네 그 아지매가 우리 시어머니카마(시어머니보다) 세 살을 작게 먹는다.

자고 나도 안 오거든. 영감님이 안 온께네 일하는 집을 알아가지고 동네로 산을 넘어서 갔는데, 밤에 갔다 쿠거든. 밤에 갔다 카는데, 갔는데 이놈의 영감님이 집에 안 들어온께네 찾으러 나설 밲에 없는 기라. 그 오는 도중에 그 생이집[13]도 있고, 공동묘지라, 공동묘지 그 산을, 길이 요런 데다가 넘어오고 가고 한단 말이야.

하는데, 그래갖고 그 온 전신에 마 찾기 시작하는 기라. 찾은께네 그 날 저녁 때에, 오후

13) 상여를 보관하는 집을 말함.

늦겐가 뭐? 그 안날 찾았다 쿠더나? 어데 가서 시상 찾았나. 생이집에 그 갔다란다. 생이집에 끌고 갔어. 헛것이가(허깨비가) 그기. 그기 생이집(상여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생이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생이가 그 얼굴을 찌이뿌지(찍어버리지), 얼굴이 찌뿐지(찍혔는지) 얄궂고, 사람이 살아있긴 하는데 영 고만 형편이 없는 기라. 마 끌고 댕김씨로(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그랬는고. [청중: 그래 끌고 댕기고 그랬단다. 하모.] 끌고 댕심씨로 그랬던 기 얼굴 괴상토(괴상하지도) 안 하고, 그래가 찾았어. 찾아가지고 집으로 덱고 온 기라.

그 영감을 아들하고 동네사람하고 가가이고, 가가이고 데불다 놨는데. 사흘 만에 죽더란다. 안 되더라. [청중: 죽는 단다. 그 도깨비한테.] 한 번 홀끼면 싹- 이걸(사람의 혼을 말함) 뺏기기 때문에 안 된다 쿠네.

[청중: 그걸 알고 도깨비한테 알고 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는 사람을 뺨을 갖다가 딱- 띠아재끼면(때리면), 고게 인자 깨우는 기제. 그라면 그 사람이 살아나. 그 당하고 온 사람들은 안 살아나! 다 가마이 본께로.] 그런께로 사람을 눕히놓고 어찌해도 결국은 며칠 만에 죽었다. [청중: 뺨을 때릴 낀데.]

[동구 설화 85]

애장터에서 생기는 도깨비불

박서분(여,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수정1동 아르미나노인정]

우리 진주 살 적에, 우리 시갓집에 오면 날이 꾸무리하고 내가 마루청에 서서 저 건나에(건너에) 산이 있는데, 그 쪼께 애장터가 있고 그래. 아들(아이들) 죽으면 그 갖다 묻는다 아이가.

불이 하나 벌-거이 마이 바가치띠이 만한(바가지 크기 정도를 말함) 기 한 개 온다. 턱 선다. 딱 서면, 그게 쪼개져가지고 '착 착 착 착' 길을 놓마(길을 놓으면) 이러면 마 '졸 졸 졸 졸' 그리 가다가, 또 한참 갔다가 가마이(가만히) 철다보고(쳐다보고) 있으면 또 탁- 와가지고 탁 붙어삐고. [청중: 그게 뭐꼬?] 그게 도깨비불이라 쿠대요. [청중: 아, 도깨비가 도깨비불이다. 맞다.]

내가 내 눈으로 단디[14] 봤거든. 그런데 그게 생이집도 있고, 쪼깬 그 아들 죽으면 그 묻는다 아이가. [청중: 도깨비가 마 있긴 있어. 도깨비가. 하모.] 그게 도깨비불.

14) '단디'는 '단단히'의 방언.

[동구 설화 86]

떨어져 살아도 아이는 생긴다

박서분(여,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수정1동 아르미나노인정]

집에 간께네, 남자가 딴 데 쪼께(조금) 떨어져가 살고, 고부 끼리 인자 사는 기라. 사는데 베를 짜는 기라. 며느리가 베틀을 채려놓고. 남자가 참 넘의 집에 살았는가? 쪼께 멀리 떨어지구로 살았는데, 난데없이 아들이 온 기라. 그래 오나께네 엄마가,

"아이고. 야야, 니가 어째 오노?"

쿤께,

"내가 저저 마 쪼께 오고 싶어서 왔소."

이러쿰시로, 베 짜는데 고마 드가거든. 가만 있응께 아들도 오도 안 하고, 베 짜는 소리도 안 나는 기라. 그래가 시어마이가 '아하, 저 놈이 마누래 생각이 나서 왔구나.'

그래가 그래 가고 나면 고마 아가 또 하나 생기고 그렇더라고. 아가 생길라 쿠면 오데서도 찾아온다 그러더라고.

[동구 설화 87]

귀신이 보이는 질경이기름 불

박서분(여,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수정1동 아르미나노인정]

빼뿌쟁이[15] 그 훑어가지고 기름 짜갖고 불로 짜면. [청중1: 기름맨치(기름처럼) 짜가지고.] [청중2: 제삿날 그란다 카대.] [조사자: 그라면 어떻게 되는데요?] 제삿날 그거로 켠다 하대. 그라면 뭐 온다 쿠대. 귀신이.

[동구 설화 88]

15) '질경이'의 방언.

개로 환생한 어머니를 세상구경 시킨 아들

원야자(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수정1동 아르미나노인정]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개가, 엄마가 생-전가야(생전에) 오데 댕기지를 안 했는 거라. 관광도 안 댕기고, 놀러도 안 댕기고 이래 놔놓이까네, 그래 엄마가 죽었어. 죽었는데, 죽어서 개가 됐던가봐. 개가 돼갖고 아들이 보이께네, 막- 개가 그 아들만 보면 막- 좋다고 이라거든.

그래 인자 개를 묶아놔놓이께네, 개가 맘대로 댕기지를 못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인자 그 개를 풀어줬다지 아마. 아들이 풀어주이께네, 팔도강산 돌아 댕기는 기라 지 혼자서,

[청중: 업고 댕겼어.] 그래. [청중: 업고 댕기고 온 구경을 다 시켰어.] 어마이가 그 어데 업고 댕깄나? 아들이 업고 댕겼지. [청중: 아들이 업고 댕겨야지. 오마이하고 개를 하나 뎃고.] 그래 댕기면서, 아들이 엄마를 업고 댕기면서 개로. 인제 하도 돌아댕기사놓이께네,

"왜 뭐 따민에(뭣 때문에) 이래 팔도강산을 돌아댕길라 하냐?"

카이까네,

"항-."

말로 못 하고. 아들 등에 업고서는,

"항항항-."

자꾸,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거든. 그래 본께네, 난중에 죽는데 보이께네, 엄마 환상이 나타나더라 안 카요.

[동구 설화 89]

아버지를 개보다 못한 대접을 한 아들의 반성

원야자(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수정1동 아르미나노인정]

이것도 실질이다. 인자 부잣집인데 할마니, 영감이 나이가 들어가 할마이도 죽고 자기 혼자 사는데, 골방에 이래 딱- 옇놨는 기라. 이 영감은 마 밥만 주는 거 먹고 마 그대로 살고 있는데, 고기도 안 주고 마 밥만 한 숟갈 주는 거 이래 먹고 있는데, 그래 인자 사장이 일 갔다 오면은 개가 '웡 웡' 짖거든. 그라이까네 사장님이 와,

"니 인자 내 온 걸 아나?"

하면서, 막 개를 좋다 하고 난리를 지기거든. 이 마누라를 불러갖고,

"개 고기 가온나."

이라거든. 그래 개로 갖다가 고기를 갖다주면서 개를 주는 기라. 그럼 개가 좋다고 막 묵잖아. 무이까네(먹으니) 아부지가 가만히 뒤에서 쳐다보니께네, '이놈우 나는 개카만(개보다) 못 하다. 나는 니를 낳아갖고 이래 성공을 시켰는데, 나는 개카만 못하네.' 싶어갖고, 아버지는 그걸 평생을 보고 몇 년을 살다 보니께네 한심하거든. 죽지도 않고 이라이까네.

그래 한날은 막 부애가 나서 이 영감이 마 개집에 들어앉아있는 기라. [조사자: 개카만 못하다고.] 어. 개집에 들어앉아있는 기라. 그래 인자 개는 바깥에 나와갖고 사장이 들어오니,

"응응응응응."

하고 막- 이라거던.

"니 와 여(여기) 나와가 있노? 와 여 있노? 개 밥 주라."

하고, 마누라 오게끔 마누라 부르니께, 마누라 고기를 가오거든. 그라니께,

"고기 무우면서 니 방에 드가라."

하니까네,

"응응응응."

이라거든. 그래가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딱 앉아있거든.

"아버지가 와 여 앉아가 있어요?"

하이까네,

"내가 니를 낳아준 아버진데, 니 너거 아버지한테 고기 한 번 사줘봤나? 내가 개카만 못하잖아. 그러니께 나도 니 오면 고기 얻어묵을라고 개집에 들어 앉아 있다."

그러거든. [청중: 들어오면 아바이는 뒷전이고, 오면 개부터 인사를 먼저 하거든 아들이. 나와가지고 있나? 잘 있나? 하고 열어보고. 개한테 들다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래갖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 인자 아버지가 안 나오거든.

"그라면 내 아버지 매일매일 고기 사다가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좀 나와라고."

빌거든. 이틀을 들어앉아있는 기라. 영감이 아무것도 안 묵고. 그라이께네,

"나는 여기서 죽지. 난 안 나간다."

이래 됐는 기라.

"그라면 아버지, 소원대로 해줄 테니까네 말로 해보라."

그라거든. 그라이까네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 내인테(나한테) 돈 좀 도가(달라). 나는 돈 좀 주면 그걸 갖고 팔도강산 댕기면서 맛있는 거 다 사묵고 죽을란다."

이래 됐는 기라. 그라면서러 그 돈을 갖다가 십 억을 달라 하는 기라 이 영감이. 그래,

"그 십억이나 뭐 할라꼬?"

"내 사는 동안에 묵다가 묵다가 못 묵으면 없는 놈 주고 갈란다."

이래 됐는 기라. 그라니께네,

"그라이면(그렇지 않으면), 절대 요안에서 죽고 말지. 안 나간다."

이래 됐는 기라. 그래 이 아버지가 아들이 기가 찰 거 아이가? 그래도 사장이니께네 십 억은 되겠지. 그래가 십 억을 갖다가 그 개집 앞에다 놨는 기라, 놔니께네 그거를 탁 들고 나가 갖고 옷을 따시게(따뜻하게) 입고 그 질로(길로) 나가갖고 할아버지가 소식이 없더래요. [조사자: 지금까지.] 예. 묵을 거 사묵고 팔도강산 댕기다가 돈 남은 거 언 놈(어느 놈) 주고 갔겠지 뭐.

[동구 설화 90]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원야자(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수정1동 아르미나노인정]

옛날에 나라에서러 무슨 수수께끼가 있었는데, 그 말을 풀어라 하이께네, 나라 백성들이 하나도 그걸 못 푸는 기라. 그래서 인자 그 백성이 저거 엄마 칠십 고래장을 시킬라고 갖다놨는데,

"엄마, 나라에서러 이런 일이 있어갖고 수수께끼를 풀어라 하는데, 이 수수께끼가 무슨 수수께끼입니까?"

이래 물었어. 물으니께네 엄마가 그 답을 해줬는 기라. 그 답은 나는 모르겠다만은. 그 답을 해줘갖고, 나라에 와갖고, 인자 탁 임금님인테 그 얘기를 했어.

"임금님, 임금님. 내 그 수수께끼를 풀 수는 있는데, 내 소원을 하나 들어달라."

하는 기라. 그래서 인자,

"무슨 소원을 들어주꼬? 그래.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봐라."

이래 됐는 기라.

"우리 어머니가 칠십이 되어서 고래장을 시켜놨는데, 자식 된 도리로서 부모를 그래 갖다 놓고나니께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하면서,

"이 칠십 묵은 고래장을, 이거 없앨 수 없느냐?"

이래 됐는 기라.

"그걸 없앨 수 있으면은 내가 답을 해주겠다."
이래 됐어.
"그래. 니 답을 들어보고 내가 고래장 없애게 할께. 칠십 고래장 없애게 할께."
이래 됐는 기라. 그래 인자,
"어머니인데 나도 몰라갖고 어머니인데 가서 물으니까네, 그 어머니가 그 답을 해주더라."
하면서,
"이 답이 맞습니까?"
하이께네, 임금님이 탁- 무릎을 치면서,
"그래. 칠십 고래장 없다." [웃음]
이래 됐단다. 그래서 칠십 고래장이 없단다.

[동구 설화 91]

형수가 차린 제사에 가는 아버지 혼령

원야자(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수정1동 아르미나노인정]

그는 잘 사는 기라. 그래가 제사로 이래 지내이께네, 제사 지내봐야 돈이 없으께네 마이는 못 한다 아이가. 그라이께네 인자 시동생이 돼갖고, 옛날에는 뭐 제사를 지내면은 돈을 이래 주고받고 하지는 않았거든. 그냥 마 지내 가고 그랬는데, 그래 인자,
"내가 그라면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내가 지낼테니까 형수는 제사를 지내지 마소."
이러더란다.
그래서 마 말도 몬 하고 마 있었대. 있었는데 너무너무 섭섭해서 제사를 안 지낼 수가 없어갖고 영감만 보내고 자기는 마 닭을 한 바리 잡아갖고, 부뚜막 삶아갖고 탁 놔놨대. 놔놘께네 남자가, 시동생이 제사 지내면서러 잠이 살폭 들었던 모양이야. 잠이 살폭 들었는데, 아버지가 말을 타고 지내가면서,
"야야, 니가 제사 지낸다꼬? 나는 뭐 닭 한 마리 묵고 지금 따시게 먹고 간다."
아들 보고,
"간다. 니가 그라면 몬 쓴다. 니가 잘 살면 형수로 갖다가 보태갖고 제사로 지내던가 하지. 니 밥, 제사 안 먹는다."
하면서러, 마 말을 탁- 치면서 마 달리는 기라. 그래가 퍼떡 깨이께네 꿈이거든.
그라이께네 지 형수한테 쫓아왔어.

"형수 와 안 오요?"

이라이까네, 부뚜막 가보니께네 닭을 한 마리 딱 삶아 올리놨거든. 그래 그거를 보고서는 깨닫고서는 형수인제(형수한테) 밭떼기를 띠주더란다. 띠주갖고 그 밭떼기를 갖고 그 형수가 묵고 살더라 안 카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동구 설화 92]

구렁이로 환생하여 쌀독을 지키는 시어머니

유을순(여,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수정1동 아르미나노인정]

며느리 쌀로 갖다가 쌀대독(쌀을 담는 독을 말함)에 쪼맨썩(조금씩) 떠가지고 밥을 해주이께, 맨날 쪼께썩 떠다 주고, 그래 한 번은 쌀독 안에 들어갔다 앉아있더란다. 뱀이가 쌀 떠주고. 그거 몬 잊어서, 쌀로 몬 잊어서. [조사자: 그래갖고 며느리가 쌀로 뜰라면 쪼개만, 쪼깨만.] 그래 그 카면서. 안 돼. 하모.

[동구 설화 93]

대바지 마을의 유래

유을순(여,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수정1동 아르미나노인정]

둘이가 가다가, 길거리 걸어가다가 그기 저거 누나를 보고 그랬는데. [조사자: 물건이 서갖고.] [청중: 누나야, 강변 가자 하는 노래도 있다 아이가?] 그래 그거 하는데, 누나가 건딜라고 그서 탁 했거든. 그래논께 건딜라고 한께, 누나가 참 '안 된다.'카고 그래놓으니까네. 보면 마 이래.

그란데 나중에 고마 '세상, 내가 이기 누나한테 이런 기, 그기 나오면 되나?' 돌로 갖고 그 연장[남근을 말함]을 다 찌뿌가, 찌서 죽어뿠는 기라. 남자가. 동생이. 그러니께네 누나가 한다 캐,

"대나 보지 응? 대나 보지. 왜 죽었노? 한 번 대나 볼 것 아이가?"

그 카더래. 그기 이제 대바지라고 카는 이름이 있어. 대바지라 카는 데가, 동네가. 그 대바지라고 하는 데가.

"대나 보지."

카면서, 그랬다고 그 카면서.

[동구 설화 94]

도깨비와 싸워 이긴 사람

유을순(여,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수정1동 아르미나노인정]

어둡을 때 오면, 누가 이래 술이 취해가지고 오는데, 마 딱 붙잡아가지고, 손목하고 딱 붙들고 그 하거든. '아이고,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나중에는 되게 뚜드려 팼다 해. 지도 뚜드려 패고, 서로 싸움을 하고마 했대. 지가 이겼어.

그래가지고 나무에다가 착- 앙창 묶어놨어. 싹- 사람을 갖다가. 인자 그 자기는. 자기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묶고나이 그 이튿날 가이 빗자리더란다. 빗자리에 고게 여자가 앉아가지고 멘스 같은 기 묻으놔놓으면은 마 고기(그것이) 인자 그기 그래 된단다 우짜면. 그런 소리도 있었어. 하모.

[동구 설화 95]

딸을 탐한 아버지

유을순(여,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수정1동 아르미나노인정]

아바이하고 딸하고 사는데도, 저거 옛날에는 그래 쌌는데, 아바이가 딸로 건딜라 카거든. 어찌 각중에 건들라 카고 하이까네, 딸이 뭐라 카는 게 아니라,

"아버지, 밖에 나가가지고 마당에 서가지고 개 소리 세 번, 소 소리 세 번 하고 들어오라."

카더란다. 딱- 나가서 그걸 생각해보니,

"아하, 내가 이기 그기구나. 안 되구나."

그래. 그 남자, 영감쟁이 정신 채렸는 갑대. '개도 소 아닌 다음에사 그런 짓 못한다.' 이기라. 그기 인자 딸이 딱 그래 했는 기라.

[동구 설화 96]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유을순(여,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수정1동 아르미나노인정]

아니 스님이 왔는데, 인자 깔쌈하다.(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의미) 내 그기. 그기 인자 아들을 자랑하며, 업고 아를 자랑을 하면 안 되는 기라. 업고 나오면서.

"뭐나 줄 꺼 없다."

하면서,

"우리 애기 덱고(데리고) 가지. 우리 애기 주까? 애기 주까?"

그걸 탁 듣고,

"아가 들어가야 종이 된다."

카는 기라. 그래가 아를 옇어가지고 종을 만들랐어. 그러니 끝에 가서 종 울림, 울림에 끝에가 저 어마이라고 그기.

"에밀레."

하면서, 그 어마이 이름이 나오더라 말이다. [청중: 그래서 그 에밀레종을 만드니께네 그렇기 종이 "땅. 땅" 울리면서 좋더래요.] 끝에 가면서,

"에밀레."

어미 이름이 진작에 '에밀레'라. 에밀레종이라 카는 거는.

[동구 설화 97]

집지킴이 구렁이

유을순(여,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수정1동 아르미나노인정]

그 시골, 그 구석으로 부엌에 가면 천장 있는 데로 죽- 나왔다가 들었가다 들어간다 하대. 그거 잡으면 인자 집구석이 안 되는 기라. 없애뿌고 나면.

[동구 설화 98]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유을순(여,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수정1동 아르미나노인정]

그래 애가 너무 패악을 지기고 울어싸니까네, 아무리 달개도(달래도) 안 끈치는(그치는) 기라. 그래가지고 오만 거, 과자 준다 캐도 안 돼, 나중에 뭐도 뭐도, 호랑이 왔다 캐도 안 돼, 뭘 아무 거를 다 준다 해도 안 돼가 나중에,

"꽂감(곶감) 줄께."

하이, 딱 끊기뿌는(그치는) 기라. [청중 웃음]

"아, 내보다 무섭은 게 있다."

그래, 호랑이 간다 하는 기라. 달라뻬더라대(달아나더라 하대.) 지보다 무섭다고 인자.

[동구 설화 99]

곶감을 무서워한 아이

이규택(남,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수정2동 망양경로당]

애들이 꽂감(곶감)이라 쿠면 되게 놀래거든. 무섭기 여기고 겁을 내는 기라. 그라면 아들이(아이들이) 되게 마이 울면,

"저거 꽂감 가오이라(가지고 와라). 꽂감 가오이라"

마 이래쌌는 기라. 그래싸면 인자 아들이 울다가도 딱 끈치삐리는(그치는) 기라. 그래 꽂감이 호랭이카마 더 무섭어(무서워) 아들한테는. 그때는.

[동구 설화 100]

도깨비가 되는 빗자루

미상(여, 19??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4동 남성경로당]

옛날에 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여자 멘스가 빗자리에 묻으면, 저저 그게 도깨비 된다는 소리가 있었어.

[동구 설화 101]

개똥을 씻어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서순분(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4동 남성경로당]

옛날에 하도 몬 살아서 넘의 상모로 인자 숨구러(심으러) 가는데, 상모로 숨구로 가는데, 그래 인자 개가 넘의 보리쌀로 먹고 토해내놨거든. 그걸 인자 다리이(다른 사람) 몰래 실어가지고 막 씻어가 밥을 해가 시어머니 줄라 하이까네, 너-무 양심에 가책이 들어가가 지가 먼저 한 번 떠묵고 그래 시어마이 줬다 안 카더나.

[동구 설화 102]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서순분(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4동 남성경로당]

그기 저게 쟁핀데, 이 남자만 아인게 아니라, 마당 비가 뭣이 떠내려가도 건지는 사람이 아이고. 선비래가. 이 여자가 천날 만날[16] 쟁피를 훑어다가 낋이묵고 사는데, 그래 살다가 이

16) '천날 만날'은 '언제나'의 방언.

여자가 딴 데 갔는 갑더만은. 남자는 과거를 해가 말로 타가 떡- 타고 오이까네, 이 여자가 쟁피를 훑고 있거든. 그래,

"아이고, 이 부인아. 어데 가도 쟁피를 훑나?"

카며, 남자가 그래 말 타고 오다가 떡- 내려가지고,

"어데 가도 쟁피를 훑나?"

칸다 카대. 그 카더라. 그래 가도 그 소용 없다 이기라.

[동구 설화 103]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서순분(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4동 남성경로당]

그거는 옛날에 인자 참 아들이 엄마가 인자 오래 사이까네, 인자 아들이 엄마가 오래 사이까네, 지게로 인자 엄마를 지가지고 저- 골짜기에 갖다 인자 내삐리이께네, 손자가 따라갔는갑대. 따라가가 그 지게를 내삐리뿌고 오이, 가져 가이까네,

"아버지, 지게 그거 가져 가자."

카더란다. 내삐리오니까네(내버리고 오니까). 그래,

"왜?"

카이까네,

"아버지도 인제 내중(나중에) 늙으면 갖다 내삐리야 된다."

카더란다. 그 카대.

[동구 설화 104]

방귀 냄새를 다르게 말하는 본처와 첩

서순분(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4동 남성경로당]

싱겁은(싱거운) 소리 한 번 할란다. 옛날에 참 이래 첩을 얻어가 큰엄마씨하고 사는데, 영

감이 방구를 퉁- 끼이까네, 그래 첩으는,
"아이고, 단내 난다."
카이, 저 큰어마이는 무슨 냄새 나냐 하이,
"똥내(똥냄새), 똥꿀래 난다."
이 캤거든. 그래 첩을 쫓가내더라 카대.
그런 소리 우리 할머니들 하는 거 들었지 뭐.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동구 설화 105]

뱀을 상하게 하면 사람이 상한다

서순분(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4동 남성경로당]

가창 거게(남창 그곳에) 참- 물이 그 무우만(먹으면), 그 물이 참 사람한테 좋다고, 물 무우러 갔는데, 그거 그것도 정신을 며칠 딜라가(드려) 가는데, '정신을 안 드리고 가면 그거 뱀이가 나타난다.' 카는 그런 소리는 우리 들어봤는데,

한 집에는 아들 서이 놓고 사는데, 참 사는데, 나락, 모 심가놨는데, 논두렁 뒤로 가이까네, 뱀이가 딱 나타나는 걸로 갖다가 눈깔이로 하나 빼뿠는 갑대. 그래, 그 집에 자식 서이를 낳이, 서이 다 눈이 어둡어지뿌대. 대구 가창에.

[동구 설화 106]

단칸방에서 몰래 나누는 사랑(1)

서순분(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4동 남성경로당]

저 아들이 둘인데, 그래 한 바앙(방) 만날 자식들하고 자이께네, 참 영감 할마이 잠도 못 자고. 인자 아들 하나는, 큰아들으는 군불 때라 하고, 작은아들은 산에 뭐 빌러가라 하고 이랬는데, 그래 참 작은아들이 오다가, 보이까네, 군불로 때서 저거 아버지 저거 엄마는 엄마 우에 올라가 누웠거든. 그러이까네,

"아이고 형님아, 불 고만 때라. 어머니 아버지 지금 뜨겁어가지고 그렇다."
카는, 그 소리는 들어봤다.

[동구 설화 107]

귀신이 보이는 질경이기름 불

서순분(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4동 남성경로당]

빼뿌쟁이[17]로, 남편이, 젊은 여자가 참 시집을 와가 남편이 죽고 나이까네, 그 빼뿌쟁이 그 씨로 졸졸 훑어가지고 지름을 짰어. 지름을(기름을) 짜가 참 자기 남편 제삿날 저녁에 딱- 불로 써놓이까네, 남편이 오더라 카대. 조상이, 죽은 조상이. 그래 응감하고 가더라 하대. 그 소리는 들었어.

[동구 설화 108]

단칸방에서 몰래 나누는 사랑(2)

서순분(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4동 남성경로당]

내우간에 잘라고 하는데, 시어마이가 만날 쟡에(곁에) 자니까네, 이놈의 자식 마, 삼베 마 홑이불로 풀로 뻣-뻣-하게 했는 갑대.
그래가 같이 자는데, 그래 뭐 참 내우간에 마 자면서 그러니 마 뿌직거리까네, 할마이 모가지 떨어지거든.
"야들아, 좀 고만해라. 목이 떨어진다."
칸다 카더마. 그 카더만.

[동구 설화 109]

17) '질경이'의 방언.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서순분(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4동 남성경로당]

에밀레종을 맨들어 놔놓으니까네, 이놈우 암만(아무리) 뚜디리도 그 소리가 안 나거든, 그래가지고 그래 뚜드리니까네 종이,

"에밀레, 에밀레."

안 울리더이(안 울리더니) '에밀레, 에밀레.' 하이,

"아이고 우리 봉덕이 줄께."

하니까네, 그 봉덕이를 갖다가 종 맨드는데 옇었다 안 카더나? 그래가 그 종이 울린다 안 카더나? 그 소리는 내 들어봤다.

[동구 설화 110]

시신 다리를 삶아 주어 남편 살린 부인

서순분(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4동 남성경로당]

옛날에 폐병이 들었던가 우쨌던가, 참 시집을 가놔놓니, 시집을 부잣집에 가놔놓니 참 아닌게 아이라 메느리, 남자가 폐병이 들었다 하더나? 이래가지고 그래 남자를 살릴라꼬 여자가 온-. 그러니께네 산에 가 여 참 뭣고? 미를(묘를) 파가 그 뭐로? 파가 다리 하나로 가져오이까네, 막- 저거 살라꼬 내뺄 동안 따라오니까네, 그래 그가 다리가 아이고 삼이더라 카대. 삼. [조사자: 아, 산삼.] 응. 그래가지고 남편을 달리(다려서) 멕여(먹여) 살렸다 하대.

[동구 설화 111]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서순분(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4동 남성경로당]

애가 하도 울어쌌어, 그래 저게,
“꽂감 줄게.”
아! 호랑이는 뭐라 카더노? 아이 모르겠다. [조사자: 호랑이 온다 울지 마라 했던가?]
“호랑이 온다. 울지마라.”
이 카더라. 울어싸이카네,
“아, 꽂감 줄께. 울지마라.”
캤다 카나? 그러니 안 운다 카대. 모린다(모른다). 우린 그런 거 모린다.

[동구 설화 112]

문어와 깔따구

이순희(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4동 수정4동경로당]

문어가, 문어가 얼마나 덩치가 크노? [조사자: 사람 같다데요.] 응. 문어가 이만한데, 깔때기(깔따구)가 쪼깨맣다 아이가? 이만한 게 문어 우에 올라가가지고 문어가,
“이 새끼 요거, 이 쪼깨난 게 왜 내 머리 위에 올라와서 이라노?”
흔드니께,
“이 새끼 이거는, 내는 그래도 적어도 빼가 있는 집안인데, 문어 니는 빼도 없는 집안인데 어데 달랑거리노?”
그런 인자 우습은 사례.

[동구 설화 113]

호환을 면한 효부

이순희(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4동 수정4동경로당]

옛날에 산길로만 건너 댕겼거든. 산길로 건너 댕기는데, 이런 쪼그마한 오막집에 호랑이가, 호랑이가 오면은,

"애를 자아묵을래(잡아먹을래)? 아가야로(아기를). 아가야를 자아묵을래?"

아! 시어머이 부모하고 처음부터 산길로 갔는데,

"우리 어머니는, 시어머이는 호랑이가 물지 말고, 우리 집에 가몬 우리 애가 있으니까나 우리 애로 덱고(데리고) 가라."

고, 그래 빌더라 안 하나. 그 호랑이한테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에 저 산속 오두막집에 가면, 우리 애가 집에 있는데 우리 애로 물고 가지. 우리 시어머니는 물고 가지 마라."

고 빌더라 안 하나. 그러께네 애도 살리고 시어머이도 살리고, 애도 살리고 다 살맀단다. 그러니께 부모한테 호도를(효도를) 하니까, 그만치 호랑이가 그걸 받아가 전부 다 살맀다. 그런 이야기.[웃음]

[동구 설화 114]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이영자(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4동 외솔부녀경로당]

중간에 인제 이 고려장이 왜 없어졌냐하면, 한 집에 인자 엄마를 업고 갔는 기라. 지게로 업고 탁 올라가는데 이 손자가 따라 간 기라. 따라가갖고는 인자 그래께네 이 아바이가 묻어 놔놓고는 인제 온단 말이지. 가면은 지고 간 지게는 안 갖고 와. 버리고 와. 그 자리다가.

그러께네 이 사람도 버렸단 말이지. 버리고 오이까네, 아들이 따라오다가,

"왜 아버지, 저 왜 지게로 버리고 갑니까? 갖고 갑시다."

하이께네,

"필요 없다."

이래.

"왜 필요 없습니까? 아버지도 칠십이 되면은 고려장하면 내가 지고 가야되는데, 왜 필요 없느냐?"

[청중: 그래서 저 엄마 다시 뎃고 갔다 안 하더나.] 그래갖고 그게 고려장이 없어지고 새로 이래갖고.

[동구 설화 115]

비좁은 방을 드나드는 아버지

이영자(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4동 외솔부녀경로당]

젊은 인자 부부인데 뱃속에 들은 아들이, 쌍딩이(쌍동이) 두 개가 들었어. 쌍딩이. 쌍딩이 아들이 두 개가 들었는데, 그래 인자 이 아들이 안 그래도 집에 혼차(혼자) 있으면 좀 늘리고(넓고) 좋을 낀데. 그래갖고는 인자 그러이께네 참 베잡아(비좁아) 죽겠는데, 베잡아 죽겠는데 이놈의 꺼 아버지가 자꾸 찾아 들어오거든. 베잡아 죽겠단 말이지.

한 번은 인자 이놈이 들어오면은 우유 한 컵 팍- 줘삐고(주고는) 나가삐고, 들어오면은 우유 한 컵 팍 주고 나가고 미치겠거든. 이게 인자 큰 놈이, 큰기 '하-참, 환장을 하겠다. 환장을 하겠네. 안 그래도 베잡아 죽겠는데 우유까지 둘어씨면 우짜란 말이고?' 동생을 보고 물었어.

"아야, 니는 아버지 봤나?"

"봤지."

"아버지 어째 생겼데?"

"좇-같이 생겼대." [조사자 웃음]

[동구 설화 116]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이영자(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4동 외솔부녀경로당]

탁 치면은 마지막에 가서 '에밀레~' 이라는 기라. 그게 우리는 안 들어봤는데 옛날에 그 전설에 이야기가 그렇더라고. 그라면 '탕' 치면은 '둥-' 하면서러 끝나면서 '에밀레' 이렇게 소리를 하더란다. [청중: 애를 옇었기 때민에. 안 그러면 소리가 안 난다 해. 애로 옇어서.]

그런데 그 절을 인자 하나 수속이 된 기라. 이분이, 시님이(스님이). 그래 해갖고 종도 만들어야 되고, 종도 다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네 이놈의 종을 해갖고 만들어 봐도 안 되고, 소리는 나는데 시원찮는 기라.

그러이께네 지금처럼 안 그렇고, 옛날에는 시님들이 시주가 어디 있노? 시주를 해갖고는 인자 뭐를 조금이라도 이러고, 먹는 것도 자기가 이래 시주 해가 묵고 그러잖아? 그러니께네,

인제 하다하다 안 돼이 이제 동냥 가가, 종 만들 거라고 시주를 하고 댕기는 기라. 시주를.

그래가 시주를 하러 댕기는데, 어떤 한 집에 가이께네, 좀 젊은 여잔데, 주고 싶은 건 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는 기라. 동냥 오이까. 그러니께네 애기를 갖다가 인자 보시를 하는 기라. 자기 애기를. [청중: 스님이 인제 요구를 했는 갑다.]

그래 인자 보시를 하는 기라. 그래이께네 인자 스님이 그 애기를 받아와갖고는 그 뭐꼬? 종 만드는데 그 애기를. 그래이께네 그 종이 에밀레종이라 캐. 엄마가 팔아뭈다 이거지. 그러니께네 엄마 이 소리를,

"에밀레, 에밀레"

에미, 에미.

[동구 설화 117]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심판하는 저승사자

이영자(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4동 외솔부녀경로당]

옛날에 저승사자가, 인자 저승사자가 아이고. 인자 뭐이고? 인제 죽었어. 죽으면 저승 가면 전부 다 이래 앉아갖고는 인자 줄 세와놓고(줄 세워놓고),

"자네는 뭐하고 왔느냐?"

다 돼 있다 해. 기록이 다 돼 있다 해.

"뭐하고 왔느냐?"

묻는단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기거든. 그래서 통과, 통과, 지옥에 보낼라 캐면 지옥에 보내고. 꽃방석에 보내면 꽃방석에 보내고, 좋은 데 보내고. 좋은 데 보내고 이래 하는데 그래 인자 어떤 남자가 인자 탁 하나 오더란다.

"자네는, 뭐 하고 평생을 살다 왔느냐?"

이라이께네,

"나는, 자기는 밥 먹고, 일도 안 하고 놀고, 뭐 여자들만 보고."

그러니께네, [청중: 아까 저 권사님 이야기하듯이 여쪽에 불이 났는데 뭘로 껐냐? 하더란다.] 그래갖고 인자,

"여자만, 여자만 보고 댕겼다."

하더라. 그래가,

"몇 명이나 봤느냐?"

하니까네,

"세이지를(세지를) 몬(못) 한다."

고, 이러는 기라. 마이 봤다고 이라이까네,

"하. 당신은 좋은 일 마이 했다." [청중: 좋은 일 많이 했다 그래.]

"좋은 데로 가라."

뒤에 차례 여자가 가만히 서가 '그거 많이 했다 쿠면 좋은 데 가라 하는 가배' 싶어가 지도 거짓말을 했빈 기라.

"자네는 뭐 하고 왔나?"

"아, 저도 똑같이 그랬심다."

그러이까네,

"니는 독시[독사] 지옥으로 가라. 죄 마-이 짓다."

[청중: 불구덩이로 가라 하던 가배.] [조사자: 와예?] 그러니까네 남자는 인자 남의 여자를 봐도 돈을 주고 보기 때문에 괜찮고, 여자는 돈을 받고 그러께네 죄라.

[동구 설화 118]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이영자(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4동 외솔부녀경로당]

옛날에는 못 묵고 살았잖아. 못 묵고 살고 가난하게 살고 이라이까네, 그래 인자 하나 있는 아들이 며느리하고 서이서 살다가 아들이 일본으로 갔는 기라. 옛날에 일본에 많이 갔잖아. 그래갖고 가갖고 있는데, 그래 인자 뭣이 돈 버는 사람도 없이 시어마이로 모실라하니 며느리 얼마나 고되노? 그래 품팔이 쪼깨서 해갖고 묵고살고 하는데, 고기를 좀 해 줘야 돼. 고기로 돈이 있어야 고기를 해주지. 밥도 몬 해주는데.

그래 생각다가 생각다가 뭐 해서러 인자 참 지렁이를, 비가 오면 손가락만한 게 나온다하대. 그래도 그기 무서운지 모르고 그래 호부로(효도를) 했는 기라. [청중: 장판 밑에다 말렸다 하더만은.]

잡아다가 그걸로 인자 삶아 줬어. 삶으이 물이 뽀-하게 나오더란다. 할매가 그걸로 인자눈이 일단 멀었잖아? 나이 무께네(먹으니) 눈이 멀어놔놓이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묵고. 너무 맛 있거던. 그거로 인자 몇 달을 먹고 몇 년을 뭈어.

그래 인자 묵고나서러, 처음엔 안 했는데 인자 '이게 뭣인고?' 할매가 뿌허게 뭐 살이 쪄갖

고 참 좋거든. 그러니께네 '하, 우리 아들 오면 우리 며느리가 저래 효부짓을 한다고 아들에게 이야기로 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삿자리 이래 엮어가, 밑에다 딱 던져갖고 지렁이는 안 묵고 딱딱 한 댓바리(서너 마리) 옇어놘 기라.

그러자마자 세월이 가갖고 왔어. 왔는데, 그래가 엄마가 봉두각시 같거든. 그래 놔놓이께네.

"아 엄마, 세상에 돈 벌이는 사람도 없는데, 뭐를 이래갖고, 자네가 해줘갖고 이래 엄마가 살이 쪘냐?"

고,

"고맙다."

고, 이러니까네, 그래갖고 이래가지고 보여준께네 그래 바-짝 말라가 지렁이라더라 캐. 그라이께네,

"엄마, 이거 지렁이다. 지렁이. 저 거싱이."

옛날에는 거싱이라 캤다.

"거싱이다."

칸께, 놀래가 눈을 퍼뜩 떠뿠다 하더라. 그래가 놀래가 눈을 떴는 기라.

[동구 설화 119]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조순희(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4동 외솔부녀경로당]

스님이 절에서 인자 종을 만들랐는데, 종이 암만 뚜드리도 소리가 안 나는 기라. 그래가 인자 이 스님이 그래 저게 종을 뚜드리는데 '그 애로 하나 옇어야만 소리가 난다.' 했다대. 그러니께네 그 애를 참 부담 없이 줬는 기야. 주이께네 소리가 '탱-' 나더라 하대. 그런 그것도 있더라. 그래가 에밀레. 에밀레 그 뜻이 그기 에밀레라.

[동구 설화 120]

여자 음부를 보고 도망간 호랑이

최화자(여, 1943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4동 외솔부녀경로당]

호랑이가, 산에 갔는데 메느리가, 메느리보고 밥을 해오라더란다 시어마이가. 그래 밥을 해가 이고 가는데, 시어머니인테. 시어머니가 며느리 밥 해오라더라고.

올라가는데 호랑이가,

"웅-."

하고 나오더란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어디 나만(나이 많은) 사람한테 들은 모앵이지(모양이지). 그래가 물까 싶어서 겁이 나가, 요마이(요만큼) 바지를 벗어가 이래 앉아있으이께네 도망갔더란다. 나 그것도 이야기 들었다. 욕이다 안 된다. 내가.

[동구 설화 121]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이쾌희(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5동 수동부녀경로당]

고래장(고려장)을, 고래장을 시키고 와가지고 아들이 지게로 아들이 내비렸다(내버렸다) 카더나? 누가 내비리니까네,

"와 내비리노?"

카이꺼네, 아 놔놓으이꺼네, 딱 치아(치워)놓으니,

"와 놔놨노?"

카이꺼네, 뒤에 인자, [조사자: 손자가?] 손자가,

"죽으몬 또 나도 고래장해야 안 되나."

카민서는 그리 놔놘, 그래가 없어졌답니다. [조사자: 아아 그 이야기. 응. 그 이야기네.] 예예, 자석이 그리 하이꺼네, 아부지 죽으몬, 인자 할아버지로 갖다 묻고 와가 지게로 놔놓으이, 그래가지고,

"와 놔놨노?"

카이까,

"아부지도 죽으몬, 또 아부지도 칠십 되몬 고래장 해야지. 아부지 져다 묻어야지."

이래가, 그래가 그기 자석 대대로 니러온다고 그게 없어졌다 이래 말을 들었어요. [조사자:

아, 그래요. 그래요.] 지게 놔놓는 머리(까닭에) 그랬다 그 말이라 하더라.

[동구 설화 122]

높임말만 쓰는 며느리

이쾌희(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5동 수동부녀경로당]

그기 인자 높이라 카이까네, 그 여자가 쪼끔(조금) 모지랬지(모자랐지). 말하자면 한 칠푼쭘 됐는 모냥(모양)이라. 그래 소 보고도 개씨라 카고,[18] 어른한테 하듯이 똑같이 해. [조사자: 똑같이 말을 높있는 기라?] 예. [조사자: 무조건 가면 말 높이라 해서?] 그러이 시집 가몬 높이라 이래.

그러이께네 여자가 인자 쪼끔 모지랜 사람이지. 안 그러면 그런 짓 안 했지. [조사자: 그러니까 송시(송아지)씨가, 송시씨가 개씨로 보고 지시씨고(짖으시고) 뭐.] [웃음] 그란다 카대. 그기 인자 옛날 니러오는(내려오는) 말은 쪼끔 모지랬다 이러더마. [조사자: 아 좀 모자라네.] 모자라니까네 인자 짐승을 보고 어른한테 하듯이 하는 기라. 그리 됐다 이러더만.

[동구 설화 123]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이쾌희(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5동 수동부녀경로당]

지렁이로 인자, 옛날에는 몬(못) 산다 아입니꺼. 몬 사이꺼네, 그 눈이 어둡우이까네(어두우니까), 뭐를 주도(줘도) 모르기는 모르는 기라. 모르기는 모르는데, 지렁이를 잡아다가 오새(요사이)같이 농약을 안 치니 무도(먹어도) 괜찮지예. 그거로 늘- 삶아 믹있다 하네.

삶아 믹있는데, 이 할매가 뭐로 주는지 내가 눈이 어둡우이까네, 인자 한 그릇 묵고 하나로 장판 밑에 옇고, 또 다음에 오면 또 한 그릇 묵고, 맛은 있는데 뭣인지 모르는 기라. [조

18) "소 보고도 소씨라 카고"라고 해야 할 것을 잘못 말함.

사자: 모르니까.] 그래 인자 누구 오몬 내가 비주면 이게 뭣인주 알라고 그래 비줐다. 그럼 자리 밑에를 마 딱 한 그릇 무몬 지랭이 한 마리 옇어놓고. 옇어놨는데.

그래 그 할매가 눈을 떴다 안 합니까. 눈을. [조사자: 아, 그걸 먹고?] 그거로 묵고 보신이 돼가지고 눈이 떠졌다 하대예. [청중: 영양가가 많다 하대.] 영양가가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농약을 안 치이 지렁이가 보약이지에. 그래가지고,

"내가 눈을 떴는데, 이거를 먹고 눈을 떴다."

카매, 이래 저 장판 밑에 들시가(들어서) 비이니까네, 지렁이가 전-부 한 마리썩 말라가 한 마리 한 마리 말라 있는데, 수도 없이 들었더라 안 합니까?

그래가 그 메느리가 상을 받았다 하더마는. [조사자: 아, 효부상을?] 예. [조사자: 아, 잘해 가지고? 시어무이인테 잘해가.] 그때는 잘하고 몬하고, 아무것도 없으이, 눈이 어둡운 할매로 굶굴 수는 없고, 내- 지렁이를 잡아가 꼬아가(고아서) 믹있는 기라. [청중: 보약이다.] [조사자: 보약이다. 그래.] 그런 얘기 들었어요.

[동구 설화 124]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이쾌희(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5동 수동부녀경로당]

남자는 인자 암행어사 될라고, 될라고 만날 공부만 하는 기라예. 공부만 하니 무울(먹을) 기 없으니까네, 와 저 또랑가에 하천가에 가면 피, 나락 나락논에 피가 올라오몬 나락이 안 된다 아입니까. 뽑아 내비리야 되거든.

그기 [조사자: 갱피라 그라대.] 말하자몬 그기 인자 지섬이라. 우리를 사투리는 지섬이라 카거든. [조사자: 지심.] 풀, 풀로. [조사자: 맞아, 맞아.] 풀이 나이꺼네, 그기 인자 지절로 자연으로 올라와가 가을 되마 그기 이래 저 뭐 산에 억새풀 겉이 이래 쫑아리가 올라, 그 열매가 열어. 열매가 여는데, 좁쌀같이 잔잔한 기 열매가 열어요. 그게 흘러가 맹년(명년)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라거든. 그기 일년촌데.

그래가 안자 그걸 훑어다가 말라가지고, 말라가 그거로 인자 찌어야 껍데기 뺏기가 죽이라도 낋이묵는데(끓여먹는데), 남자가 암행어사 공부한다고 죽자고 책만 들다보이, 소내기가 와가 그 죽도록 훑어다가 마당 널어났는데 다 떠내러가뿠는 기라. 소내기(소나기)가 와가. 소내기가 다 떠내리가뿌고 나이꺼네, 얼매나 밉고 갔부겠습니까?

가뿠어. 그 여자 팔자가 없으이까네 그렇지. 갔는데, 시집가가 또 아무것도 무울 기 없는

기라. 또 갱피로 또 훑고 있는 기라. 그래 그 사람이 인자 암행어사가 됐는 기라. 돼가 인자 떡 말로 타고 이래 가고 보이, 자기 부인이 훑고 있거든. 그래,

"훑던 갱피 다시 훑네."

카매, 그래 그 암행어사가 노래를 부르며 갔답니더. 그러이 그 여자 팔잔 기라. [조사자: 팔자가 그거밖에 안 된다.] 야. 만날 넘우(남의) 뒷바라지만 하는 기라. [조사자: 그래 좀 저 마누라 옛날 그래도 정이 있었을 텐데 좀 같이 살자 안 하나?] 도와줐다 말은 없어예. 그래 노래로 부르기로,

"부인아, 부인아. 그 갱피 다시 훑네."

카미, 노래 부르고 갔다 하더라고. 암행어사가 노래를 부르고 가더랍니더. 그라이꺼네 자기 사주팔자가 고생해라 카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자기 팔자다 카고 살아야 되는 기라.

[동구 설화 125]

삼천갑자 동방삭이 붙잡힌 까닭

이쾌희(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5동 수동부녀경로당]

동방석(동방삭, 東方朔)[19]은, 동방석은 삼천년을 살아도 나는 이런 소리 처음 들었다 카는데, 그거 저 홍콩에 가이 있대요. 신발 가(가지고) 들고 막 뛰가대. 뛰가는데, 그거 인자 잡으러 오이까네, 동방석 잡아라고 나라마중 붙이놨다 하대. 여 퍼떡 이 나라 갔다가 저 나라 갔다가 하이까네. 그래가지고 동방석이가 가만 삼천년을 살아도 이런 소리는 처음 듣는 기라. 뭐 대동강이라 카든가 무슨 강이더라. 인자 오래 돼노이 모르겠어.

무슨 강에서로 숯을 오새(요새)로 치몬 참숯 그기겠지. 질단한(기다란) 숯을 이래 놔놨고 자-꾸 씻더란다. 그래가 삼천갑자 동방석이 한다는 말이,

"그 숯을 와 씻거요?"

카이,

"희도록 씻는다."

19) 동방삭(東方朔: B.C.154?~B.C.93?). 성은 장(張)씨, 자는 만천(曼倩). 중국 산동성 출신으로 한나라 때 문인으로 활동. 한의 무제는 동방삭의 폭넓은 지식에 탄복하기도 함. 선제 때에는 관직을 버리로 어디론가 사라졌다 함. 해학과 변설에 뛰어났다 함. 삼천갑자(三千甲子)를 살고 죽었다는 설화가 문헌에 전해져 내려옴.

카더란다. [웃음] 그러이까네, 삼천갑자가 한다는 말이,

"나는 삼천년을 살아도, 삼천년을 살아도 숯 희다 소리 처음 들었네."

[청중: 음, 맞어.] 그래가 그. [조사자: 붙잡힜네.] 그것만 잡힜다나. 그래 홍콩에서 막 뛰가다가 잡힜다. [웃음] 신발 들고 막 뛰가다가 그런 그림 있대. 홍콩에 가이. 그래가 동방석을 잡았다요. 삼천년을 잡을라 캐도 못 잡았는데. [조사자: 못 잡았는데.] 이 나라 갔다가 저 나라 갔다가 퍼뜩퍼뜩퍼뜩 댕긴께네, 동방석이 누군지 몰랐는 기라. 잡아야 되는데. [조사자: 잡아야 되는데.]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아.

그래 숯을, [웃음] 그래 아주무이라 캤는가, 할매라 캤는가 모르겠다. 그거는 그래.

"와 그리 씻거요?"

이카이까네

"희도록 씻는다."

카더란다.

"내가 삼천년을 살아도 나는 숯 희다 소리 처음 들었네."

이카이, [웃음] 그래가 삼천년 살안 구로 잡아뿠는 기라. [조사자: 아아, 잡히, 지가 탄로가 났다.] 예. 마 잡혔어. 그래 그 사람이 마, 그 숯 씻는 사람이 인자 수단을 부맀는 기라. 삼천갑자 잡을라고. 잡을라고 인제 이래 하고, 그래가 마 탁 잡았다 안 합니까. 그래 신발 들고 막 뛰가는 기 있대. 그림 있대. 홍콩에 가이까네. [일동 웃으면서 박수]

[동구 설화 126]

개로 환생한 어머니를 세상구경 시킨 아들

이쾌희(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5동 수동부녀경로당]

할매가 만-날 여행도 안 가고. 여행 가몬 우리 고생이 얼마나 되는교? 여행을 안 가는 기라. 만날 살림만 살고. 살림을 못 잊어가. 그러니 죽어노이 개가 돼가지고 돌왔는(들어왔는) 기라. 개가 저거 엄만 기라.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저거 엄마라.

그래가지고 이거로 아들이 지고 전국을 다 돌아댕깄는(돌아다녔는) 기라. 다 돌아댕기이 그래도 전국을 댕기도 기냥 지기가 지고 아들이 지고 댕깄어.

댕깄는데, 잠이 오더라 카네. 아들이. 엄마를 정자나무 밑이라 카든가 딱 지게를 엄마를 전대로 안차놓고(앉혀놓고) 자기가 잠을 살-꼼 잤는데, 깨보이 마 엄마가 없더라. 구경을 다해

놓으이꺼네.

전국을 댕기이 [조사자: 소원을 다 풀었다.] 자기가 인자 개가 됐는데, 여행을 안 가고 여행을 안 가고, 여행을 안 가고, 살림만 죽도록 살아노이까네 죄로 지있는 기라. 그래 전-국을 댕 구경을 다해놓으니 죄를 다 사했는 기라. 자기 업장(業障)[20]을 다 풀었는 기라. 그러이거네 마 없더란다. 아들이 자고 나니 개가 없는 기라. 그래 됐다 카더라.

[청중: 아들은 어데 갔부고 없던강?] [조사자: 아들은 소원 풀어준 거지.] 아들이, 아들이 그 엄마로, 인자 개가 죽었으니 혼이 개가 되가 왔는 기라. 개가 돼가 와가지고 만날 살림만 살고 안 댕기다가 죽어노이꺼네, 개가 되가 아들 집에 왔는 기라.

개가 하는 짓이 딱 저거 엄만 기라. 그러이 이기 우리 엄마다 카맨서는 지고 댕겼다 카더마는. 전국을 우리나라로 외국에 [청중: 아, 개로 지고 전국을 댕깄다.] 지게에다가. 옛날에는 뭐 있나. 차가 있나 뭐 구루마가 있나. 지게빽에 없으이까네. 지게로 엄마를 개로 딱 편안하이 해가 지고 전 우리나라, 그때는 외국은 안 갔다 아이가. 우리나라 전국을 돌았다 카더만. 전국을 딱 돌다가 디기(매우) 피곤하더라 카네. 피곤하니까 '내가 한숨 자고 가야 되겠다,' 싶어 앉아가 쉬다 보니 자뿠다네. 한숨 자고 일나보이 마 개가 없더란다.

그러이 그거 인자 부모가 인자 업장이 다 소멸이 됐겠지. 그기 업(業)[21]인 기라에. 여행도 가야 돼. 여행도 안 가몬 그기 업이, 업을 몬(못) 면한다 안 합니까?. 여행 가몬 얼매나 힘듭니까?

[동구 설화 127]

여우가 되어 집안을 망하게 한 딸

이쾌희(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5동 수동부녀경로당]

딸로 못 낳아가지고, 우리는 그리 들었어. 딸로 못 낳아가지고, 딸이 놓고 짚아(싶어), 아들은 멪이 놔놨는데, 딸이 놓고 짚어가 앵두나무 밑에다가 만-날 씰고(쓸고) 닦고 물로 떠놓고 빌었다 커더마는. 딸 하나 낳아 돌라고. 앵두나무 밑에 아죽마다(아침마다) 물 떠다 놓고,

"딸 하나 점지해 주세요. 점지해 주세요."

내 절하고, 앵두나무 밑에 가 빌었다 카더마는. 그래 뭐 딸로 낳아 놓으이까네, 오빠 한

20) 삼장(三障)의 하나. 말, 동작 또는 마음으로 지은 악업에 의한 장애를 이른다.
21) 불교에서 말하는 심신의 활동과 일상생활. 불교에서 중생이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선악의 소행을 말하며, 혹은 전생의 소행으로 말미암아 현세에 받는 응보(應報)를 가리킨다.

때, 오빠, 오빠. [조사자: 오빠 한 때, 말 한 때.] 말 한 때. 그래가 오빠, 오빠 한 분(번) 자아묵고(잡아먹고), 말 한 분 자아묵고, 식구들 다 자아묵더라 안 합디꺼.

그 딸로 난(낳은) 게. [조사자: 딸을 낳았는데 여우가 돼가.] 여우가 돼가지고. 그런께는 오빠 하문(한 번), 한 때 묵고 또 말 하문 한 때 묵고, 그래 식구로 다 자아묵더라 카대.

그러이꺼네, '딸 놓을라고는 공 들이지 마라,' 옛날에. 옛날에 우리 클 직(적)에 그랬어. 딸은 생기몬 놓고, 딸로 놓을라고는 공 들이지 말라 이랬어. [조사자: 요새는 딸 놓으면은 좋은 소리 듣는대.] 딸 놓으몬 좋아요, 요새는. [조사자: 요새는 그렇지. 꺼꿀로(거꾸로) 됐어. 옛날에는.] 옛날에는 남자가 권리가 있지. 여자 권리 없거든.

[동구 설화 128]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이쾌희(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5동 수동부녀경로당]

에밀레종은 뭐 이랬다 카더마는. 종을 모둘라 카몬 돈이 없다 아이가. 돈이 없는데 인자 스님들이 인자 [조사자: 탁발.] 탁발하러 댕기는데, 탁발하러 가몬 못 주몬 마 잔주꼬 못 준다. 뭐 돈이 없다고 죄송합니다 하고 보내몬 될 긴데, 그래가 인자 마지막에 한단 말이, 아를 안고 흔들민서는,

"아아, 내 아무것도 줄 기 없고, 줄라 카몬 우리 봉덕이나 주몬 주까, 줄 기 없다."

이캐노이, 그런데 종을 뭐뭐뭐 멫(몇) 년을 그 탁발해가지고 종을 맨들어 소리가 안 나더라 안 합니까. 에밀레종 저기. 그러이께네 에밀레종이 이름이 나가 있어요.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박사들이 나와야 해도, 쇠로 녹하가 맨들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멫 번을 해도 안 돼가, 그리이 그 인자 말하자몬 연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꺼? '이 무슨 이유가 있다.' 이리 돼가, 그래 인자 스님들 보고,

"탁발하러 댕길 때 무슨 말 들은 기 없나?"

이랬다 카더마는.

"그래 어떤 어머니가 아를 안고 이리 어루면서는, 나는 줄 기 없다. 줄 기라고는 없다. 줄라 카몬 우리 봉덕이나 주몬 주까."

그래 캐노이께네, 그기 인자 엄마 때민에 자기가 쇳물에 드갔다 아입니꺼. 그 종 맨들 적에 종을 멫 분 녹하가 맨들어도 소리가 안 나. 그럼 마지막에는 안자 그 쇳물로 그 종을 쇠

로 녹하가지고, 그 탁발 핸 돈을 가지고 샀는데, 다 해도 맨들어도 소리가 안 나고. 그래가 그걸로 하이커네, 에밀레종이 그래가 에밀레~. 에미 때민에. [조사자: 에미 때문에.] 에미 때미레(때문에) 자기가 쇳물에 드가 죽어삤는 기라. 그 아로 그래 찾아,

"그 어디서 그랬노?"

카니까, 탁발한 스님이,

"어느 집에, 어느 집에서 아로 그래 우리 봉덕이는 주몬 주까. 딴 거는 줄 기 없다."

캐나이 그래 그 종을 가 해노이, 에미, 에미 때민에 그렇다고 에밀레, 내- 에밀레 카고. 그 종이 그 뜻이 그렇다 카더라고.

그러이 말은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하란 말이다. [조사자: 그래. 입이 방정이지. 잘못하면.] 예예, 그래가 그 스님들이 탁발을 해가 그렇게 고생, 종을 멫 분을 녹하가 맨들고 맨들었다 안 합니까.

그래 인자 어떤 뭐 박사가 뭐 그거 발견했다 카더만. 그래가 그 탁발할 때 무슨 이유가 있다 이래 됐다 카대. 그래가 에밀레종이, 그래가 에밀레종이 그기 역사에 남아있다 아닙니까. [조사자: 어머니 이야기 참 잘한신다 그지에.] [웃음] 듣기는 그리 들었어예. [청중: 엄마가 죄가 많겠다.] 그러이께네, 아로 쇳물에다 옇었는데.

[동구 설화 129]

아직도 굴러 간다[끝없는 이야기]

이쾌희(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5동 수동부녀경로당]

수박을 지고 가가 산 만댕이(꼭대기) 가가이고 구부러뿠다 하더마는. 구부러뿌이까네, 아이(아직도) 구불러 간다. 아이 구불어 간다. [조사자: 아직도 구불러 간다?] 응.

내- 구불러 간다 카는 기라. [웃음] [조사자: 아가 물으몬, 그래 어째 됐는데 이라면?] 아이 간다. 아이 구불러 간다. [조사자: 그래 또 그래서 어째 됐는데 이라고.] [웃음] 아이 구불러 가고 있다. [웃음] 그랬다 카대. 그랬다 카대요.

[동구 설화 130]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이기옥(여, 1927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5동 수오부녀경로당]

저저 아들 메느리, 아들이 서울 과게로(과거를) 보러 가는데, 몇(몇)- 번을 봐도 과게가(과거가) 안 되는 기라예. 그 인자 그 마누래(마누라) 복이라. 마누래 복이 없어 그런 기라. 그러가 인제 이래 참 과게로 하러 가면 떨어졌부고, 떨어졌부고 이래노이, 이 사람이 인자 마누래 되는 사람이 어데 재혼을 해가 갔는 모양이지. 딴 데로.

그래 가가지고 가이, 안자 그라고, 그라고 과게를 해가 오이 인자 베슬(벼슬)로 했는 기라예. 장원급제를 했어. 해가 온꼬네(오니까) 저- 인자 이 과게를 해가지고 들어온꼬네(들어오니까), 어데 너른 들판에 그 마누래, 자기 마누래가 쟁피(강피)로 훑고 있거든.

"아이고 부인, 부인. 이 부인아 훑던 쟁피 다시 훑나."

그러 카더랍니다. 그래 인자 그 마누래 복이 없어가 그리 됐는 기라. 마누래 복이 없어가 중, 마누래 딴 데 가고나이, 거 인자 신랑은 장원급제해가 오고. 자기는 또 가도 또 그 훑던, 훑는 쟁피를 다시 훑어가 묵기가 됐으니 마누라 복이 없어 그런 기라. [박수]

[동구 설화 131]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주순이(여, 1933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5동 수오부녀경로당]

[청중1: 할머니가 건디기를 껀져가 자리 밑에 옇는 기라. 그래 바짝 말라도 지렁이는 포(표)가 난다 아이요.] 그렇지. 그래 눈은 안 보이는데 어짜노? [청중1: 그러이까네 아들로 비있다(보였다) 안 카나.] [청중2: 인제 이걸로 해놨고, 아들이 온카네 딴 사람도 비이주고 이라이 카네, 아! 거 지렁이.] 인자 알아들었습니까? 그걸 맛있게 묵고, 맛있게 뭈는데, 전체 어느 긴고 몰라가지고, 한 마리 건지가지고 이불 밑에 딱 있으니께 바짝 말라가지고 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아들이 왔어.

"아들아 아들아, 이게 뭣인고 니가 좀 봐도오."

카이께네,

"아! 엄마, 그거 지렁이에요."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할매가 자기 먹었던 기 지렁인 줄 알았대. [조사자: 그래가 깜짝 놀

라가 눈 떴는 모양이라.] 예. [일동 웃음]

[동구 설화 132]

방귀 참아서 황달이 든 어머니

권연출(여,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5동 수정부녀경로당]

내나 큰아들이 어느 남학교 저 고등학교 선생님이거든.

"엄마여 새 사람 오시걸랑."

이 할매는 너-무 시집와가 사흘만에 영감이 온 부산천지 업고 댕기더란다 뭐를. [웃음] 고만 그 골병이 들어가, 말이라고 나오는 기 십 원짜리, 그걸로 해가 속을 푸는 거라요. 영감님한테 골병이 들어가. 들어가. 그라고 방구도 잘 끼. 그래 아들이,

"엄마여 새 사람 보걸랑 그 십 원짜리하고 방구하고 쫌 참으몬 안 될까요?"

카길레, 그래가 또 그 십 원짜리 쓰면서,

"됐다. 참으게."

그래 그러고는 인자 결혼식 시기가주(시켜가지고) 인자 신행(新行)을 해가, 할매는 삼층에 살고 아들은 이층에 사는데, 아들 메느리. 한 달이 지나이까네, 엄마가 노랑탱탱하이 고만 황달처럼 오대요. 그래가 하루는 안 돼가 '이래다가는 엄마 돌아가 죽이겠다.' 싶어가 한 번은 살짝 인자 안식구랑 놔두고 엄마한테 올라가가,

"엄마 얼굴이 와 그래 노래무리하이 그거 뭐꼬, 그래 되는교? 힘도 하나도 없고."

하니까, 그래 십 원짜리 쓰면서,

"야 이놈아 니가 새 사람 오걸랑 십 원짜리도 쓰지 말고 방구도 끼지 마라 했다 아이가."

"내 그거 몬 하이까네 이런 기 오지."

카이, [조사자 웃음] [청중: 방구도 못 끼게 해서?] 예, '이래 되면은 엄마 죽이겠다.' 싶어가,

"마 했부소."

카더란다. 그래 또 십 원짜리 쓰면서,

"오야 됐다. 이놈아." [일동 웃음]

그길로 고만 내놓고 아래우로 다 내놓으이카네 노랑병이 곤치지더래요. [조사자: (웃으며) 아이구 재밌네.]

[동구 설화 133]

쌀 나오는 구멍

권연출(여,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5동 수정부녀경로당]

딱 마 손님이 마이(많이) 오든 적게 오든 먹을 만큼 맨날 고래 나오는데, 그기 욕심이 많으몬 식물(食物, 먹을 것) 감한다고(줄인다고).

그거를 구멍을 늘카뿌맀어(넓게 해버렸어). 마이 나오라고. 그랬더만은 먹을 만큼도 안 나오고 물만 나온다 하대. [조사자: 물만 나오더라? 그게 어디 암자, 암자 그런 거네.] 예.

[동구 설화 134]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권연출(여, 1936년생), 임두순(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5동 수정부녀경로당]

[권연출 구술] 애기가 하도 울어싸가 밤에 그래 애기를 달래는데, 꼿감(곶감) 주몬 뭐어? [조사자: 호랑이 온다.] 호랑이 온다 해도 안 그치고, 뭐가 해도 안 그치는데, 하다 하다 안 돼가,

"꼿감 주께."

카이께네, 뚝 그치더랍니다. 호랑이도 놀래가 달라가버리더래(달아나버리더래). [웃음] [조사자: 아, 지보다 안자 꼿감이 무서운가 싶어서.] 무섭운가 싶어서. 예.

[임두순 구술] 그래가 그 호랑이가 지 잡으러 오는가 싶어가 소 마구에 들어갔어. 소 마구에 들어갔는데, 이 소가 또 똥을 쌌는데, 해필 호랑이잩에(호랑이에게) 맞아뿠는 기라. 그러니 이 저저저, '내보다 더 무섭운 기 있는구나.' 카고 도망갔다. 호랑이가 도망갔다. [조사자: 똥이 지 꽂감인 줄 알고?] [웃음] 똥이 널찐게 꽂감인 줄 알고 안자, '내보다 더 무섭운 기 왔다.' 이래갖고 도망갔다 안 카던가배.

[동구 설화 135]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권영출(여, 1944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5동 수정부녀경로당]

옛날에. [조사자: 어데 어머이를 지고 갔는가?] 예? [조사자: 누구를?] 아니지에.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져다가 이제 동굴에다가 넣었는 기라요. 이자 고래장(고려장)을 할라고. [조사자: 고래장 한다고?] 예, 넣었는데, 그 고래장을 이제 한다고 지게로 지고 왔을 거 아입니까? 그러이까네, 아버지가 그 지게를 놔놨고 가이까,

"아버지 이거 제가 지고 가야 됩니다. 아버지도 또 갖다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를 업고 왔다 안 합니까? 지게에 지고 [조사자: 도로?] 예, 업고 왔다는 게. [조사자: 그때부텀 고래장이 없어졌다?] 예, 예. 예. 그때서부터 고래장이 없어졌답니다. 그래가. [청중1; 아아, 그 말이구나.] 예. [조사자: 그래. 그래. 그래. 유명한 이야기라 그게.] 예, 그래서 그 지게를 지고 오는 나불에 그 아버지가, '아! 나도 저래 되겠구나.' 싶어서 그 인자 아버지를 대(도로) 모시고 오고, 그때서부텀 고래장을 안 했다 합니다.

[청중1: 근데 그 아버지 버리러 가는 그 아버지가 왜 아들은 덱고(데리고) 갔노?] [웃으며] 모르지. 그건 옛날이야기니깐. [청중1: 식을 헐라고.] [청중2: 아들 덱고 갔겄나? 아들은 보고 따라갔겠지.] 따라갔겠지 뭐. [웃음]

그러니까네 옛날에 토굴로 이래 해놨답니다. 그래 해놓고 쌀 얼마, 뭐 얼마 요렇게 넣어갖고 놔놨다 하대. 우리 옛날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청중3: 저 얘기 겉은 나도 누인테(누구에게) 들은 함문 들은 기억이 있다.] [조사자: 기억이 있지예.]

우리 할머니가 옛날이야기를 하이, 토굴로 요렇게 해놓고 그다(그곳에다) 쌀하고 물하고 이렇게 인자 옛날 오강(요강)하고, 이렇게 갖다 넣어준다는. 넣어놓고 고거 떨어지면 죽는 기라. 이 사람이. 그런데 가만 생각, [웃으며] 아들이 그 가자 카이, 자기도 그럴 판이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왔다 안 해. 그때서부터 없어졌답니다.

[동구 설화 136]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권영출(여, 1944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5동 수정부녀경로당]

[조사자: 옛날에 시어머니가 어데 봉산가?] 시어머니가 봉산데, 이 인자 아들은 인자 어더로(어디로) 나가고 없었던가 봐요. 둘이가 사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기 없으니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이 이야기로.

그래 이거로 어떡헐 수가 없으니까, 인자 뭐 촌에 뭐 있어야지. 그래 왜 촌에 가면 이렇게 밭을 파면 지렁이가 많이 나와요. 그거로 갖다 삶았대. 삶아가지고 그 할매를 내- 드렸답니다. 먹으라고. 드리니까 살이 보호하이 찌더라네.

근데 이 할매가 눈이 어덥어니까(어두우니까) 그걸 한 개썩 자리 밑에다 요렇게 넣어났답니다. 넣어낳다가 아들이 오이,

"야야, 내가 이거를 너거 마누라가 해줘서 먹고 이리 살이 쪘다."

보이 지랭이더랍니다. [웃음] 그래서 아들이,

"아 이 지랭이도 그래서 약이구나."

옛날 우리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잘해 주더라고. 우리 할머니가.

[동구 설화 137]

할머니가 등이 굽어진 이유

권영출(여, 1944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5동 수정부녀경로당]

"야야 할매가 와 등이 굽은 줄 아나?"

"응? 이 저기 하도 이래 나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쪼만(조그만) 짝대기를 들고 다니다보니까 이래 등이 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대. 그러면 우리는 다는 모르고, 그 어렸을 때 들었으니까 그 소리만 들었어요. 그래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다.

[동구 설화 138]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권영출(여, 1944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5동 수정부녀경로당]

그거는예 그것도 우리 할머니한테 들은 소린데, 이 선비가 글만 보는 기라. 이 엄마는 가서 피를 뽑아오는 기라. 피라 합니다. 나락 사이에 피를 뽑아오거든. 그래 피로 뽑아서 인제 말라갖고 그거를 찌어서(찧어서) 먹고 이라는데, 그때 인제 보리를 갖다가 이렇게 널어놨던 모양이라. 보리를 늘어놨는데, 비는 장대겉이 오는데, 이거로 걷어야 되는데 선비가 그걸 안 걷는 기라. [청중: 안 걷지 그래.] 안 걷고 있으니까, 이 엄마가 피를 뽑다가 와가지고,

"나는 이래가 도저히 못 살겠다. 당신하고. 마 가라. 가라."

남편을 쫓가보냈어. 근데 인제 남편은 가서 어디 가서 선비가 되니까, 그래 글을 해갖고 벼슬을 했어요. 이 사람은 벼슬했는데, 이 여자는 딴 데 시집을 갔는데도 또 피를 뽑고 있더랍니다. 그 남편이 보이까네.

그러니 '한 곳을 파라. 사람은 한 길을 파야지. 두 길을 파면 안 된다.' 이거라. 옛날 어른들이. 우리 할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사람은 항시 한 길을 파야 되지, 두 길을 파면 안 된다. [청중1: 그 여자에 복은 그거뿐이다.] 그렇지. [청중2: 남자는 선비니까 딱 가서 딱 올라가 앉았는데.] 그렇지. [청중2: 뭐 피 안 뽑을라고 좋은 데 시집가도 또 피 뽑는.] 그렇지. [청중2: 지 팔자다 이거야.] 그렇지. [조사자: 그래. 그래.] [박수]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한 골을 파라. 한 골을. 두 길을 가지 말라. 여자는 딴 데로 가지 말라는 뜻인가 봐. 그때는 그래. [청중: 어차피 그 집밖에. 무엇이 그 집에서.] [웃음] [조사자: 어머니 잘하시네. 그래 회장님 해석이 맞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복이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복이 그거빾에 안 되니까, 피를 뽑다 그 선비가 가면서 돈을 좀 주고 가더랍니다. 그 신랑이지. 그러니까, [청중1: 옛날 신랑.] 그렇지 옛날 신랑이. 그러니까 가도 그만, 그 그냥 그대로 거 있었으몬 자기는 그 신랑한테 좋았을 거 아닙니꺼? [청중: 그래 지 복은 할 수 없는 기라.] 그래 복을 찬다 안 합니까. 그래 여자는 가지 마라.

[동구 설화 139]

여자 팔자는 버드나무 팔자

권영출(여, 1944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5동 수정부녀경로당]

근데 옛날에 우리 할머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대예. [조사자: 어떤 이야긴고?] 참 사람은, 여자는 되배, 우리 되배기 팔자라 하더라고. [조사자: 되배기 팔자?] 예. 되를 이렇게 되는 팔

자라 하대.

왜 그러냐 하니까, 사람이 이래 버드나무가 있잖아요. 강물이 팍- 떠내려간, 버드나무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몬 떠내려갈 거 아입니까? 떠내려가다가 숲이 좋은- 데 앉으면은 층(척)- 늘어진답니다. 그 숲이. 그런데 어데 자갈밭에 가서 요래 앉으몬 노랑탱탱하다 이거라요. 그러니 여자 팔자는 버드나무 팔자다 이라더랍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구요. [조사자: 아하, 여자 팔자는 버드나무 팔자다.] 예. 좋은 데 가면은, [조사자: 좋은 데 가면 인자 팔자가 피어지고.] 예. 또 물에 둥둥 떠내려가다가도 좋은 데 이렇게 걸리면은, 예? 숲 좋은 데 이래 걸리면은, 숲이 탁- 이리 펴지는데, 자갈밭 이런 데 가서 패면(펴면) 노랑탱탱하다는 거라예. [웃음] [청중: 그게 노랑탱탱한 데 버드나무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버드나무.] 그러니까 여자 팔자가 좋은 데 걸리면은, 시집을 잘 가면은.

그래 여자는 시집을 두 번은 가는 거랍니다. 우리가 부모한테서 한 번 태어나고, 예? 시집을 가서 신랑한테서 한 번 태어난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줍디다. 나는 그거는 모르지에. 뭐 옛날 뜻을. 어려서.

[동구 설화 140]

개로 환생한 어머니를 세상구경 시킨 아들

권영출(여, 1944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5동 수정부녀경로당]

개를예, 자기 엄마는 매-일 일만 핸 거라. 이 아줌마가. 일만 하고 남의 집에 가서도 일을 해주고, 자식한테도 일을 해주고, 딸도 집에 가서도 일을 해줬는데, 마 그래그래 하다가 일만 하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저승을 가니까,

"뭐를 했나?"

"구경을 아-무것도 안 했다."

하더랍니다. 안 했다 카니까 하는 소리가,

"그러면 니는 개로 태어나서."

저게 이 살아서 인자 우리 땅에 내려왔겠지에? 그래서 왔는데, 그 집 아들네 집에를, [말을 바꾸어] 아니 아들 집이 아니, 어느 동굴 같은 데를 이래 가 있으니까, 그래 그 아들이 자꾸

꿈에 개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개를 인자 데리고 와서 그걸 하니까, 그래 그 엄마가 개를 그걸 했답니다. [조사자: 환생해가지고?] 예.

메느리가 인자 이렇게 고기를 제삿날이라고 고기를 다 이렇게 해놨는데, 마 이 개가 가서 먹어뻐렀는 기라. 개를 마 대기 뚜드리(두들겨) 패뻐렸어. [웃으며] 그래가지고 내중에 보니까, 그게 어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개를 업고 온- 세상 구경을 다 시켰답니다. [조사자: 그 이야기구나.] 예.

난 자세히는 다는 모르지마는, 옛날에 어른들한테 들은 소립니다. [조사자: 그래 들은 이야기다.] [청중: 아들이 그 개를 어떻게 굴에 있는 줄 알고 데리러 가?] 아니 개. [조사자: 꿈에 현몽을.] 자꾸 나타나더랍니다. 꿈에. [조사자: 꿈에 현몽을 한 거지.] 꿈에 자꾸 선몽을 해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 자기 집에 와서 덱고 와서 인자 길렀는 기라. 길렀는데, 그런데 자꾸 또 선몽을 하더랍니다.

그래 내중에(나중에) 그 자기 엄만 줄 알고, 온, [말을 바꾸어] 지게를 지고 이 금수강산을 다 돌았답니다. 옛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구 설화 141]

가난해도 행복한 까닭

권영출(여, 1944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5동 수정부녀경로당]

옆집에는 부잣집인데에, 자기 집에는 영감, 할마이뿐이고, 대궐 같은 집에. 옆집에는 없이 사는데 아가 마 꼬물꼬물 꼬물꼬물하는 기라. 그래서 이 이 저 부잣집에서,

"아를 하나 주몬, 내가 재산을 좀 주겠다. 그러니 아를 주라."

이라니까 한다는 소리,

"못 준다."

하더랍니다. 그래 그 집에만 가면 내- 마 저녁이 되몬, 아 하나 목에 올라가서로 손뼉 치고 노래 부르고 놀고, 하나는 춤추고 놀고, 전부 식구가 이래 노는데, 이 집에는 웃음이 없는 기라. 부잣집에는 웃음이 없고, 이 없는 집에는 저녁이 되몬 마 꽃노래가 막 계속 나오고 그래 좋은 기라.

그래 그 부잣집에서 내- 가서 담 넘어로 이래- 쳐다본다 안 합니까. 그렇게. [조사자: 부럽다. 자식이 많은 기 오히려.] 예. 돈은 많지만 아무것도 없는 기라. 안자 그 집에 돈을 줄 테

니까, 자식을 줄라 카이 안 주더라네. 그래 우리 할매가 그런 소리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래서 들은 소리라예.

[동구 설화 142]

은혜 갚은 개구리

권영출(여, 1944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5동 수정부녀경로당]

선비가 하도 집에서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마누라가 내쫓거니까, 가다가 보이까네, 올챙이가 오골오골 많이 있더랍니다. 근데 물이 다 없어지더래요. 물이 없어지니까, '아유 이거 놔놓으면 다 죽겄다.' 싶어가지고, 그거로 요렇게 해서로 물인 가에, 인자 물 있는 데다 갖다가 좄대요.

갖다 놨는데,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 보이까 아무 먹을 게 없으니까 마 자기도 얻어먹고 다녀도 선비가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마누라를 찾아왔어. 오는데, '내가 그때 그 올챙이가 어떻게 됐나?' 싶어서 이렇게 디다 보니까, 크게 깨구리(개구리)가 돼 있더랍니더.

크게 깨구리가 돼 있는데, 깨구리가 한다는 소리, 뭐를 마 자꾸 이리 줄라고 이러 커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냄비가 요만한 게 희한한 기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 그걸 가져와서 마누라를 주면서,

"아이구, 여보 밥좀 해주몬 안 되겠나?"

이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아이구, 이거 다 이런 냄비를 갖고 와서 무슨 밥을 하느냐?"

고 하면서 뭐라 캤대요. 뭐라 카면서 하도 없어서 쌀 한 내끼를 넣고 밥을 했답니다. 밥을 하니까, 밥을 넣으니까 한 솥이 되더래. 그기.

그 옛날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조사자: 두꺼비가 은혜를 갚았네. 그 개구리가.] 개구리가 은혜를 그리 갚더란다. [조사자: 그래 사람은 잘해 줘도 앙물을 하고, 짐승은 은혜를 갚는다.] 옛날 어른들이 그 말이라.

[동구 설화 143]

청개구리의 뒤늦은 후회[청개구리가 우는 까닭]

권영출(여, 1944년생) 구술
2020년 1월 17일 채록
[수정5동 수정부녀경로당]

개구리가 하-도 말을 안 듣더랍니다.

“야야 내가 저 가서 저거 가(가져) 오너라.”

하몬, 이거 가 오고. 이거 가오라 하면 저거 가오고, 일을 시키면 딱 반대로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야야, 나는 계곡에다 묻어주라.”

꼬랑(도랑) 가에다 묻어줄라 했는 모양이라. 그러이까네, 이기 인자 꼬랑 가에다 묻어주니까, 비는 많이 오니까 저거 엄마가 떠내려갈 거 아니요. 그래서 내 깨구리(개구리)가 운다 이러더라고. [조사자: 음, 깨굴깨굴하고.] 예.

그래 어른들이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 [조사자: 어머니 죽을 때 돼서 제대로 말을 들었네.] 예. [웃음] 죽을 때 돼서 말 들었는데, 꼬랑에 갖다 묻으니까 떠내려 갈, 시체가 떠내려 간 거. [청중: 그거 인자 꺼꾸로 하다가.]

[동구 설화 144]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하선(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좌천동 능풍장부녀경로당]

[조사자: 그래 뭐 그 저 어머이가 너무 간단해가지고, 간단하이 이야기 하셔가지고. 어무이, 옛날에 어데, 누구를 지고 갔는고? 아버지를 지고 갔는가?] 아부지를 지고 갔지. [조사자: 어데 누가?] 인자 지고 가는 사람. [조사자: 지고 가는 사람이.] 아부지가 지고 가고, 아들이 또 따라가고, 언자 손자가 따라갔지. 따라가니까, 그래 인자 갖다 내삐리고 인자 아부지를 거기서로 내라놓고 지게도 내삐리고 가는 거로, 그래 저거 아들이,

“아부지, 지게는 와 안 가지고 가요?”

커이께,

“지게도 마 내삐리뿌라.”

이래 카이께,

“갖다 놔야 나도 아부지 낸주(나중에) 갖다 버리제.”

이렇게 하고 지게로 가져왔다 카대. [조사자: 그때부턴 안자.] 그때부텀. 거기 인자 [조사자: 고려장이 없어지고.] 고래장이 인자 작아졌다 카대. 없어졌다 카대.

[동구 설화 145]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김하선(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좌천동 능풍장부녀경로당]

돈도 없고, 남자는 돈 벌러 간다고 어데 나가서 오지도 안 하고 이러이, 시어마이(시어머니) 해 줄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만날 이래 개굴창(시궁창)[22] 같은 데 가서 파가지고, 지렁이를 파가지고 요리를 해가 드맀어.

그러이 그게 어찌기 맛있는지, 그거를 메느리(며느리) 안 볼 적에, 봉사라도 고거를 짤- 훑어뿌고 가마이 인제 걸레가 닦아뿌고. 자리 밑에다 딱 옇어가 말랐어. 말라놨, 말라놨다가 아들이 그럭저럭 인자 오래 멫(몇) 년 되어가 왔거든. 와노이, 엄마는 얼굴이가 참 좋리 부허이마 생기가 괜찮앴어. 자기 없을 동안에 얼매나 뭐로 해 자싰는고. 참 생기가 괜찮고 이러이께,

"엄마는 우째서 이렇기, 생기가 이렇기 좋노?"

이러 하이께,

"아이고, 야야."

내비민서러(내보이면서),

"이거를 뭣인공 만날 어마이가 이런 거 해조가(해주어서) 묵고, 그래서 나가 보신이 되었는갑다."

[청중: 그 할미가 또 장님이더라만. 봉사라더만.] 봉사가 그래. [청중: 봉사대.] 그래가지고 그거 이야기가 났어예.

지렁이가 안자 그 사는 기, 좋은 줄 그래 알았다고예. [청중: 그래, 아들 그거 이야기를 헌께, 깜짝 놀래가 할매가 흐엉! 하다 눈을 떴다 허대.] 거기 응, 맞아.

"엄마, 그 지렁이요!"

카이께로,

22) '개굴창'은 개울의 방언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썩은 물이 흐르는 작은 개울로 '시궁창'과 같은 뜻으로 쓰임.

"어익!"
캄시로 눈을 떴어. [일동 웃음] [조사자: 심봉사 눈 뜨듯이.] 예.

[동구 설화 146]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부인을 고친 남편

김하선(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좌천동 능풍장부녀경로당]

그리고 또 어느 집에는 메느리(며느리)하고, 고부찌리(고부끼리) 차마 자꾸 밉다 카고 시어마이(시어머니)도 밉다 카고 이래서러, 빰(밤)을 인자 한 마린가 두 마린가 갖다가 정지(부엌)에 신랑이 갖다 주면서는,

"이거로 엄마로 한 때 세 개썩 마 꿉어가지고 엄마 드리라. 이거 잡수면 살 찐다. 살 찌아가지고 자아(장에) 갖다 팔아묵자."

[조사자: 아아, 엄마 귀찮다 카이께네.] 귀찮다 카이. 그래가 참 정성스리 참 그래 해가 디맀디마는(드렸더니만), 고마 이래 그것도 보신이 돼가지고, [청중: 살찌지.] 고마 일도 해주고 청(대청마루)도 치아주고 마리(마루), 방도 닦아주고 막 이래, 막 마당도 씰어주고(쓸어주고) 마 이래 하이 쫌 수울타(쉽다) 아입니까. 암만 캐도. 수울이께로(쉬우니까),

"여보야, 여보야. 그거 어머이 갖다 팔지 말자. 같이 살거로 놔두라. 이래 해주께로 얼마나 좋으노."

카맨서는, 아도 업어주고, 마 이래 마당도 씰어주고, 고마 청도 닦아주고 마 이래 하이께로 참 쫌 수울타 아입니까. 밥 해묵고 거 다 할라 카몬 거 힘든다 아입니까, 촌에는. 해놔도 포(표)도 없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런 수도 있어예.

[동구 설화 147]

방귀 탓에 소박 맞히려던 며느리를 다시 데려온 시아버지

김하선(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좌천동 능풍장부녀경로당]

우리 어릴 적에도 들으이께, 그래 저,

"빵구(방귀)로 몬(못) 뀌서 그렇다."

하이,

"빵구를 뀌라."

캐노이,

"그러면 아부지, 지둥(기둥)을 붙들이, 붙들이이소."

카이께로, 마 여서(여기서) 뀌이꺼로(뀌니까) 이쪽으로 집이 히떡 넘어가고, 저쭈서 뀌이꺼로 이쪽으로 히떡 넘어가고, 마 이렇더라 하대.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곤 안 되겠다, 너거 집에 가자."

카맨서는 덱고(데리고) 가는데, 가다가 목이 말라 죽겠는데, 배나무가 이래 담 밖으로 나와가이고 열어가 이래 달리가 있는데, 빵구로 한 분(번) 푹- 뀌이께 배가 한 개 턱 늘쩌가지고(떨어져가지고) 시아바이, 목 마른 시아바이를 죴는(주었는) 기라. 아이 그것도 이케,

"배나무 그것도 괜찮다고. 마 가지마라고. 집에 다부(도로) 가자."

카매 덱고 가야 되겠다 카매.

[동구 설화 148]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김하선(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좌천동 능풍장부녀경로당]

그거는 옛날에 하도 선비 집에 시집 와나노이 아무 것도 없어가지고, 참 나락논(나락, 즉 벼를 심은 논)에 가서 갱패(강피)를 그거를 훑어가지고 덕석에다 한거(가득) 널어놓고, 또 인자 훑으러 가미(가면서), 그래,

"아이고, 보소 보소. 비 오거들랑 이거 좀 채덮어가(치덮어서) 끄집어 들라소."

캐나노이, 오이께로 다 떠내려가가지고 수챗구녕에 한거 모이가 있더란다. 안 처덮어가지고. 그래가 마 부애(부아)가 나서 가뿠어.

갔부고, 그 선비는 인자 과게로(과거를) 해가지고 니러오고(내려오고), 이 마누라는 또 시집을 가도 또 그런 데 가가지고 복이 없으이께. 또 훑는 기라. 논에 댕기미(다니며) 훑으이께로, 그래 기가 차이께로, 그 선비가 인자 과게로 해가 내러오다가 쳐다보미,

"저기 있는 저 이모는 훑던 쟁피(강피)를 다시 훑네."

그카이께로 고마 쳐다보고 따라올라 카는 기라.

“따라가서 내가 불 심부름이라도 하고 내가 따라가꾸마.”

거 카이께레, 개우(결국) 몬 따라오라 카대. 몬 따라오라 캐나노이께,

“그래 피앙감사(평양감사)를 니가 매앙(마냥) 하리.”

‘매앙매앙 매앙매앙매앙’ 그거 매미가 매미가, 죽어서 넋이가 매미가 돼가 그래 매앙매앙 칸답니다. [청중들이 이야기에 감탄하며 박수]

[동구 설화 149]

아이를 너무 웃기면 밤에 운다

김하선(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좌천동 능풍장부녀경로당]

[청중: 아보고 막 좋다꼬 아를 막 웃긴다 아입니까. 가슴을 이리 주물러갖고. 그 뒤에는 그리 몬(못) 하구로 하대. 그래 예쁜 아들 보고 웃기지 몬 하구로 한다.]

마이(많이) 몬 웃기라 안 캅니까. [청중: 몬 웃기라 캅니더.] 아들 애릴 적에 마이 웃기 놓으모 밤에 자다가도 웁니다. 자다가고 앵~ 울 때가 있어예. 그거 땜에 아들 마이 웃기지 마라 칸다.

우리 집에 지금 쌍딩이(쌍둥이)가 세살 짜리 쌍디가 두 개가 있는데, 저거 아바이가 막 만날 웃기고 해싸서러 내가,

“아이고, 아 좀 엉가이(어지간히) 웃기라. 자다가 운다.”

내가 만날 그러 카고 머라칸다(나무란다) 아입니까.

[동구 설화 150]

도깨비불

김하선(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좌천동 능풍장부녀경로당]

도깨비불이예, 저 우리는 멀리 이래 집이 있는데, 저 멀리 이래 갱분(강변)이 이래 있어가지고, 물 니러가는 큰 냇물이 있어가 그 둑에 마 버들나무가 막 이래 쭉- 서가 있어예. 커가지고.

버들나무 쭉 서가 있는데, 거 이래 구름 낀 날은 쳐다보만 이런 도깨비불이 이래가지고 박치기를 턱 해가지고, 두굴두굴두굴 구불러가고 이리 주루루루 갔다가 저리 주루루루 갔다가 이라대예. 그 도깨비불이. 비예(보여예). 눈에 봤어예.

[동구 설화 151]

도깨비가 되는 빗자루

김하선(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좌천동 능풍장부녀경로당]

여자들이, 그기 맨스(월경) 있는 여자들이 그 몽당빗자리 그런 거를 깔고 앉고, 이래이래 했는 거는 도깨비가 됐다 카대. 그렇다고 그 여자들 그 빗자루를 몬(못) 깔고 앉으라 하거든예.

우리들 클 적에는 그거 몬 깔고 앉구로 해예. 그라고 촌에는 뭐 어데 마당에 어데나 앉을라 카만 뭐로 깔고 앉아야 안고 이라이께, 땅이 저 흘(흙)이께 그래 마 그런 걸 수분드리(쉽게) 장(자주) 깔고 앉거든예.

[동구 설화 152]

도깨비에 홀린 사람 오래 못 산다

김하선(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좌천동 능풍장부녀경로당]

우리 있는 데는, 우리 친정 있는 데는, 우리 장에 왔다 있는 아저씨들이 술로 한 잔 묵고 이 그렁(개울)을 건너가야 저거 동네, 고 동네가 있어예. 거 가는 그집 그 동네 사람은 흔이 그래 도깨비하고 씨름을 마이(많이) 했다 캐.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래 술 묵고 흐엉하고 가다가 마, 그래가 도깨비한테 지만 고마 안 되는 기라. 고마 도깨

비한테 앵기놓으만,[23] 물에 가 마 까시(가시)라 카민서러 옷 니루라(내려라) 카고, 까시한테 가만 물이라 카고 옷 걷으라 카고 이라거든예. 그래가지고 저거 시긴대로 하고 돌아댕기다 보몬 마 온 전신에 끎히가지고(긁혀가지고), 술이 취해가 있을 직에는 마 그카고 끌리댕기는 기라요. 도깨비한테.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거 도깨비한테 지만 고마 그 해 몬 살아예. 죽어예. [조사자: 오래 못 살고.] 혼이 빠져뿌가 죽어예. 그랗더라고예.

[동구 설화 153]

환생 전 부모가 차린 제삿밥을 먹으러 가는 동래부사

김하선(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좌천동 능풍장부녀경로당]

옛날에 동래부사가, 동래부사가 그래 저 일 년에 한 분썩(번씩)은 어떤 할매, 영감 할마이 사는 집에 가서 밥을 묵는 기라. 꿈에 만날. 일 년에 매일 한 분썩 가서 안자 꿈에 제삿밥을 얻어무러 간다. 갔는 기라, 그 집에. 그래가 마 만날 그래 그 집에 가서 한 상 받아가 묵고 오고, 묵고 오고 고랬어.

한문(한 번)은, '내일 요를 내가 하문 와 봐야 되겠다. 요 그짜 다음에는 꿈을 꾸만 내가 얻어무만 고거 내 하문 찾아 가봐야 되겠다.' 카미, 그러 카고 찾아가이께, 영감 할맘이 그래 아들로 하나 몬(못) 낳아서 몬 낳아서 카다가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동래부사로 해, [말을 바꾸어] 저 안 했어. 그 사람 동래부사 그때는 안 하고, 딴 데 나가 태이(태어)나가지고 동래부사가 됐는 기라.

이 집에서 죽고, 다른 데 태이나가지고 동래부사가 됐는데, 그래 전 엄마 집에 와서 만날 밥을 얻어뭈는 기라. 그래가 찾아와보이께로,

"이 집에는 그래 우리 영감 할맘 둘이, 두 분뿐입니까?"

카이,

"아이고, 아들 하나 키우다가 마 죽어뿌고, 그래가지고 마 둘이 있고."

그래.

"제사는 누굴 제사를 지냈냐?"

카이,

23) 귀찮게 들러붙으면.

"아들 밥을 떠 놓논다."
카더란다. 그래 자기가 만날 와서 뭈는 기라. 전 어마이한테. 밥을 와서 얻어묵고 그 카고 가고 가고 그란데, 그래 참 찾아오이께로 그 부모가 그래가 있어가지고 그 동래부사가 그 분도 잘 모시다가 돌아가시고 했다 캐. 옛날에 동래부사가.

[동구 설화 154]

여자 음부 보고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김하선(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좌천동 능풍장부녀경로당]

산골짝 우에 밭 안 있습니까. 골짝 밭에 이래 매고 있으이께로 호랑이 한 마리 니러오이께로 마 여자가 마 감당을 몬(못) 해가, 빌어물(빌어먹을) 거 마 처매(치마)로, 옛날에는 이래 여자 옷 꼬장준가(고쟁의가), 꼬장주 터져가 있거든. 만날 꺼내끼로(끈으로) 이래 매가지고 이래 이래 살았거든예. 옛날 사람들은, 끄내기로. 만날 꺼내끼 이거 매고 풀고 하이께, 그거 하이께 맨날 이래 요래요래 싸이구로 요래 옷이 돼가 있어, 뒤에. [조사자: 뒤에 그렇지.]

꼬장주가 요래 싸이구로 돼가 있는데, 그래 인제 휘시만 궁디가 나오는 기라. 그래 마 이래가 그런 옷을 입고 이런데 고마 이 빌어물거 마 옷을 주우로 벗어뿌고 엎드리가지고 마 꺼꿀로 막 이래 거가 있어 내리다보고 있고, 다리 새로 얼굴 옇어가 들이다보고 있고, 뒤에서 보만 입이 둘이다 말이 안 맞습니까. [조사자: 아, 글네.] 그래나이,

"아이구, 다른 짐승은 입이 치째지가 있는데, 가리(가로) 째진 것도 있고 치째진 것도 있고 저렇다."

하매, 무섭다 하매 도망가더라 안 캅니까. [조사자: 호랑이가?] 예.

[동구 설화 155]

개로 환생한 어머니를 세상구경 시킨 아들

김하선(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좌천동 능풍장부녀경로당]

그래 저 합천 해인사 절에를 안 가봤어, 그 혼령이. 합천 해인사로 그래 가보자 캐가지고 그래 지게다 담아가지고 그래 거 가서 내라가지고 그래 온 데 덱고(데리고) 댕기면서로 구경을 시켰다.

개로 저 몬(못) 들오라 카거든예. [조사자: 아, 그래 처음부터 어무이, 그래 어떻게?] 이제 만날 그래그래 개로 그래 키아가지고 뭣이나 그래 했디마는.

[조사자: 아니 어무이가.] 어머이(어머니)가 그래 죽어 개로, 집에서 크, 개로 키았는데, 고마 그때 어머이가 죽었는데, 그 개가 새끼에 어머이가 태이났는 기라. 그 개 새끼에. 태어났는데, 그래 어디 물으이께로, 자꾸 그 새끼가 별나게 그래 자꾸 메느리한테 더 영 막 그래 아는 체를 하고 자꾸 이라는 기라. 그래가지고 어데서 어디 뭐 보는 사람이 이래 지나가다가 왔는데 보더만은,

"그래 당신 시어마이가 저게 개에 태어났다. 저 개 단디 해라. 단디 모시라."

이러 캄시러 그랬는데, 그래 그거를 자에(장에) 갖다 팔로 갈라 카이께로 마 그 개가 그렇게 울더라 카는 기라. 안 갈라고. 그래 우는 거를 저거 마누래가,

"거 놔두라고. 그 갤랑 놔두고 다른 것만 가가 덱고 가라."

카면서로 그래가 보내고, 그 개로 키아가지고, 그래 그래 합천, 참 만날 일만 한다고 합천 해인사도 몬 가보고, 어데도 기경(구경)하러 영 안 갔는 기라.

그래 어데 인자 기경하러 세 군데로 어데 갖다 빚어(보였어). 비고 나이께 자고 나이께로 개 껍디기만 쏠랑 벗어놓고 개가 없더랍니다. 어더로(어디로) 인자 좋은 더(데)로 갔어예. [조사자: 아, 좋은 데로 안자 소원을 풀었다고 안자.] 좋은 데로 갔는가비라. 개 껍디기만 쏠랑 벗어놓고 갔다 이래 쌌대.

[동구 설화 156]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김하선(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좌천동 능풍장부녀경로당]

옛날에는 중들이 삭발로 했거든. 댕기면서로(다니면서). 집집마장 댕기면서 삭발로 해다가 묵고 살았지. 요새 맨더러(처럼) 돈 갖다주고 이런 기 절대로 없었거든요. 농사 지으몬 쌀 한 가마니썩 가 가서 인자 불공하고 오고 뭐 그랬지. 그래났는데, 이제 삭발로 온, 전신에 삭발로 하러 댕기는데, 한 집에는 가이께로 그래,

"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 저기나 줄라 카몬 주까, 마 없다."
이카매 안 주더랍니다. 그라고 온 데 가 와서 인자 종을 맨들어가 뚜디리보이 안 돼, 종소리가 안 나. 그래 헐(할) 수 없이 그 집에 가서 딸, 아를 받아와가 옇어가 맨들었다 안 캅니까.
그래가지고 인자 그래 에미(어미)가 말 한 마디에 그래 됐는 기라서. [조사자: 자기 죽었다고.] 그래 만날 에밀레 에밀레, [조사자: 에밀렐레 에밀레.] 그런 뜻이다. [조사자: 아아, 에밀레종이 됐구나.] 에밀레종이 됐어요.

[동구 설화 157]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양자(여,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좌천동 좌사모범경로당]

아들이 지게를 지고 그 고래장(고려장)한다고 보냈는데, 그 아들이 지게를 안 버리고,
"왜 안 버리는주?"
하모,
"아부지(아버지)도 할매를 버렸으이카네, 나도 이 지게를 아부지로 고래장 가야 안 되겠나."
그 이야기 있어요. [조사자: 그래가지고 없어졌네, 고려장이.] 예. 아부지도 할아버지를 고래장한다고 모시고 났는데 지게를 버리고 나이,
"나도 이 지게로 버리몬 안 되고, 아부지 늙으몬 역시 내가 지고. 그적에 써야 된다."
고, 안 버린다고. 그 유세는 뉴스로 있어요. 그 말은 예. 옛날 전설이.

[동구 설화 158]

방귀를 참았다 얼굴이 노랗게 된 며느리

김양자(여,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좌천동 좌사모범경로당]

하도 얼굴이 노라가지고(노래가지고. 노래져서), 시아부지가,

"야야, 니 얼굴이 와 이렇노?"

"까스가 못, 채이가지고, 방구로(방귀를) 몬 뀌가 얼굴이 노래가지고 …….."

"그래, 마음 놓고 방구를 뀌라."

뀌가지고 얼굴이 회복 됐다 안 합디꺼. 그 이야기 들은 것 같애요. [조사자: 아, 그래 뀌라 해이, 이제는 안자 뀌도 된다 하고.] 예에.

[동구 설화 159]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김양자(여,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좌천동 좌사모범경로당]

하도 아 울어가지고, 울음을 그칠애야 아 돼가. 아무한테 그치 오고,

"꼿감(곶감) 주께."

해가 그칬단 이야긴 들어도, 호랭이도 안 무섭고, 꼿감 해가 그칬다 이야기는 들었어요. [조사자: 그러이께네 호랑이 온다 해도 울고.] 예, 그치질 안 해가지고,

"꼿감 주께."

하니까네, 호랭이, 꼿감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갑다.

[동구 설화 160]

진주 자린고비

김양자(여, 1941년생), 유경순(여, 1932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좌천동 좌사모범경로당]

[김양자 구술] 하도 여문[24] 사람이라고도 그거 굴비 하나 해놓고. 그거 하문(한 번) 쳐다보고 밥 묵고(먹고), 그래 그 이야기 아입디꺼? 여문 사람이. 그거는 간단해, 그거는예.

자린고비가 [조사자: 자린고비가 한 분 쳐다보고 또 한 분 쳐다보이까네.] 예, [조사자: 야

24) 단단한. 빈틈이 없는.

야, 너무 마이 무우몬 짭다.] 짭다. 한 분만 묵고 한 분만 쳐다봐라 카대. 이야기 있어. 그런 전설이 있어요, 굴비가. 진주 자린고비라 안 합니까.

[유경순 구술] 그걸 치다보고 밥을 무운꺼네(먹으니까) 밥이 너무 맛있거든. 밥이 축이 난다 아입니꺼.

"굴비 저거로 밥 도둑놈이다, 띠(떼어) 내비리라."

카대. 내비리뿐다. [조사자: (웃으며) 굴비를 걸어놨는데.] 걸어놨는데, 그거만 치다봐도 밥맛이 있거든예. 그래놔노이 밥을 자꾸 마이 묵는다고, 옛날에 쌀도 귀하고 귀하다 아입니까. 그래 물 만치 묵야 되고, 마이 무운까네, 그거로 마, 밥 도둑놈이라 띠 내뿌라 칸다 이카더라. [조사자: 진주 자린고비라.] 예, 진주 자리꼽재이.

[동구 설화 161]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유경순(여, 1932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좌천동 좌사모범경로당]

처음에 인자 메느리(며느리)가 그거 시아마시(시어머니)가 아파가지고 눈을 못 보이꺼네, 지렁이로, 지렁이도 마 큰 거 그런 거 있다 아입니까. 그거로 캐가지고, 이래 꿉꿉한 데 가몬 짜다라 있다 아입니꺼. 그거로 고아가지고 내 물로 드맀더마는, 그거를 자시고 껀디기(건더기)는 만날 옛날, 옛날에 샅자리(돗자리) 있다 아입니까, 그 밑에다 그거하고.

눈을 뜨고 보이 전신 소복하이 지렁이 거하이, 그래 눈이 떨어졌다 이 말이라. [조사자: 아, 그거를 먹고 인자.] 예. [조사자: 좋아져가지고.] 예, 예. 그기 보신이라예. [청중: 그것도 전설이다.]

[동구 설화 162]

배가 고프다고 하는 시집간 딸의 거짓말

정쾌필(여,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좌천동 좌사모범경로당]

옛날에 그 소리는 들었다. 딸로 시집을 보내나이께네, 하도,

"배가 고파요. 몬(못) 살겠다."

고, 친정 와가지고 친정 안자 모아가지,

"배가 고파 몬 살겠다."

그래.

"하루 벤소(변소) 멫(몇) 번 가노?"

이래 카께네,

"벤소를 멫 번 간다."

이래 카이께네,

"야 이년아, 이라면은 니 배고픈 거 아이다."

카매 다부(도로) 시가로 후리쳐 보내뿐다 카대. 시가 훌지차(쫓아) 보내뿐다 카대예.

그 소리는 들었어예.

[동구 설화 163]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옥년(여, 1944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좌천동 좌이경로당]

부모는 자석(자식)을 생각하는 거라. 그래가지고는 인자 이 부모를 업고 인자 고래장(고려장)을 하러 가는데, 업고 간께네, 인자 이 난데(나중에) 갖다 넣고 올 덕(적)에 질(길)로 찾아 오야 되겄다 아입니꺼. 그런께네 나무를 꺾어갖고 해놓고, 꺾어가 질로 인자 만들어난께, 그 사람이, [조사자: 엄마가, 엄마가 안자 고렇게 한다고.] 부모는 인자 자석 찾아가라꼬 안자 그래 하는 기라. 그런께네 엄마가 부모 그기.

그래갖고 하께네, 해놓고 저저 그 사람 찾아, 집으로 찾아가라고 인자 나무, 나무로 꺾어갖고 길로 만들어놨다 하대. 찾아가라고 집으로. 나 고 소리는 들었지, 나 몰라예. [조사자: 고래장하러 가도 안자 참 부모는 자식을.] 부모는 자석을 생각한다 이 말이지. [조사자: 그렇지. 그렇지.]

[동구 설화 164]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정년(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좌천동 좌이경로당]

옛날 말은 이렇대예. 저거 엄마로 지게로 짊어지고 산에 가서 인자 파묻어 놓고 온께네, 지게를 내삐리고 온께, 손자가 따라가서,

"아버지, 와 지게는 내비리고(내버리고) 옵니까. 지게로 가 가야지요."

쿠더라.

"지게를 가 가야 다음에 엄마도 돌아가시몬 아버지도 거 담아가 짊어지고 오지요. 지게 가 갑시다."

그 말이 있대요. 우리도 모르는데, 그 얘기는 들었어예. [조사자: 그래 엄마 이얘기는 쪼끔 다르네.] 그래 그 시절이 지나가고 난께, '아, 이래가지고 안 되것다.' 싶어서 이거 없어졌답니다. 고래장이 그래 없어졌다 하대.

[동구 설화 165]

벙어리로 오해 받은 며느리

김정년(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좌천동 좌이경로당]

옛날에 시집살이를 가는데, 친정엄마가 몽돌 요 반질반질하이 요만한 걸 농속에(장롱 속에) 딱 옇어줐는 기라. 옇어주면서로,

"니가 요 몽돌이 말로 하거든 니도 말로 하지. 몽돌 말 안 하거던 시집가서 말로 하지 마라."

이래 됐는 기라. 그란께네 인자 시집가도 막- 말로 안 하거든. 그래 인자 시집에는,

"제법 버부리(벙어리)라고. 저 버부리를 메늘(며느리) 봐서 인자 큰일이라."

고 전신에 쑥덕쑥덕 난린(난리인) 기라. 그래 신랑을 보고 버부리더라 한께, 신랑은,

"버부리 아이라."

쿠거든. 신랑한테는 저녁으로 잠서러(자면서) 얘길 안 합니꺼. 버부리가 아이라 쿠거든. '이상

하다, 버부리는 아인데 왜 말로 안 하노?' 이제 물었어.

"그래, 니가 신랑하고는 말로 하면서로 와 말로 안 하노?"

쿤께, 그래 몽돌을 내줌서,

"우리 엄마가 요걸 말로 하몬 하고, 요거 말 안 하거든 하지 마라 쿤께."

몽돌이 말을 합니꺼, 오데? 그래 내노이, 그래 어른들이 그래,

"하이고 마 착하다."

고예 막 이라더랍니더.

그 얘기는 나는 우리 할부이한테 마이(많이) 들었어. 우리 할무이가 만날 그 얘기 하대.

[동구 설화 166]

높임말만 쓰는 며느리

김정년(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좌천동 좌이경로당]

새댁이 시집을 갔는데,

"니는 시집을 가도 아도."

옛날에는 그랬어예. 아 보고도 예, 어른보고도 예 하거든예. 그래 시집을 떡 가갖고, 시어머이(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메느리(며느리)로 보고,

"야야, 저기 뭐이고?"

쿤께네,

"어머이, 소씨가 보시고 지시네요(짖으시네요)."

쿤께네, 인자 소는 개로 보고 짖는 긴데,[25] 소씨가 개씨로, [말을 바꾸어] 소씨로 보고 지시네요 쿤께, 얼매나 개한테도 말로 존중을 합니까. 그런께 거서 마,

"아이고 마 잘한다."

고 메느리를 칭찬하더랍니더. 그런 말도 있대예. '소씨가 개씨를 보시고 지시네요.' 쿤께, 시어마이가 마 메느리 잘 봤다고. [청중: 개가 안자 소를 보고 짖는다.] 그런께 짐승보고도 말로 그리 우대하더랍니더.

25) "개가 소로 보고 짖는 긴데"라고 해야 할 말을 잘못 말함.

[동구 설화 167]

조상의 환생을 점치는 제삿밥

김정년(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좌천동 좌이경로당]

옛날에는 미신을 많이 지신다 아입니까. 지사(제사) 때 되면은 마당에 줄도 걷고 집에 문도 다 열고, 지사를 지내몬 대문도 열고 이라거든예. 그라고 지사로 지내몬 참 정신들이 한다 아입니거, 옛날에는.

요새는 이거 지사 지내는 정신 안 들이예. 정신 들이 하몬, 밥을 딱 해가지고 제삿쌀 펄라고 솥뚜방(솥뚜껑)을 딱 열몬, 구리이(구렁이) 된 사람은 구리이매로 밥이 돼가 있어요. 진짜로 돼가 있습니더. 예 있고, 짐승 된 사람 짐승 발자국 요리 돼가 있습니더. 밥에. 딱 돼가 있어예. 그거는 나는 그걸 직접 봤어예.

[동구 설화 168]

개똥을 씻어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김정년(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좌천동 좌이경로당]

[조사자: 그런께 무울(먹을) 기 없는데, 개가 똥을 누놘 데 보리쌀을 묵고 이래 누놘데, 그걸 씻어가지고 뭐 이래 주고 하는.] 응, 그래 메느리가 억수로 효자더랍니더.

[조사자: 그기 무슨 이야긴교?] 그것도 인제는 시어매는 눈을 몬(못) 뜨는데, 그런갑대. 나는 모르기는 몰라도, 눈을 몬 뜨고 있은께네, 메느리가 무울 거는 없고, 시어매는 봉산데 뭘 해주도 해줘야 되고, 무울 거는 없인께, 그거로 해난 걸 씻어갖고 해줬는 갑더마는. [조사자: 개가, 개가 똥 누고 간 걸로.] 예. 그랬는갑대. 그런께 그 말이 난 기라.

[동구 설화 169]

정성 들여 제사해서 부자 된 집

김정년(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좌천동 좌이경로당]

그래 또 옛날에 그런, 우리 할무이(할머니)가 얘기하는데, 그런 게 있대. 너-무 몬(못) 사는데 지사(제사)가 다가오는 기라예. 메느리가 인자 걱정이 태산 같는 거라. 지사는 다가오는데 보리쌀이고 뭐 쌀이고 아무것도 없이니까네.

그래 할 수 없어갖고 이우지에 가가지고 보리쌀로 한 대 꾸웄답니더(꿨답니다). 한 대로 꾸어가 한 대 밥을 해가 반찬도 없고 하이, 된장을 그래 인자 한 그릇 놓고 보리밥 한 그륵(그릇) 해가 놓고 마 정신 들이 했는 기라. 그리하고 난께 난주(나중) 뒤에는 마 억수로 자손도 잘 되고 마, 억수로 부재(부자)로 살더랍니더.

그러니까네 조상을 샘기라(섬기라). 조상을 샘기야(섬겨야) 복을 받는다. 옛날에 그런 말. 요새는 뭐 어데 그렇게 합니꺼? 안 하지.

[동구 설화 170]

저승 갔다 살아 난 사람

김정년(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좌천동 좌이경로당]

그래 너무 오래 되가 돌아가싰다고 마 팽풍(평풍)을 쳐놓고 이란께네, 팽풍이 마 꾸불럭꾸불럭 하더라. 그런께네 인자 사흘만에 그거 못을 이리 곽에 박지, 죽었다고 금방 안 박거든, 옛날에는.

그래 떡 덮어논께 곽이 떨석떨석 자꾸 하더라 안 합니꺼. 그래 상주가,

"와 저란고?"

들어본께, 살아갖고 다 묶어놔논께네 나오지는 몬 하고, 그란께네 인자, 그런께네 살아갖고 억수로 오래 살더랍니더. 그 사람이.

그래 마 저승 간께네 뭐 불이 뻘겋고 물이 있고 뭐 있고, 뭐 구러이(구렁이)도 있고 마, 그런 얘기 다 하더랍니더. 나는 다리로 건너간께, 다리로 몬 건니오라 캐서 이래 살았다 커고. 그런 얘기 있었다 아입니꺼.

[동구 설화 171]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김정년(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좌천동 좌이경로당]

나는 듣기로는 이리 들었어예.

인제 옛날에는 중이 동냥하러 마이 이래 댕깄다 아입니꺼. 옛날에 동냥하러 중이 마이 댕깄거든예. 옛날에는. [청중: 탁발을 해가.] 그래갖고 여자가 아로 떡- 보듬고 젖을 믹이는데 중이 동냥하러 왔어. 그래가,

"아이구, 보살님. 동냥 좀 주이소."

이란께네, 너무 그 집에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인자 거 여자, 그런께 '여자들은 입을 조심하라. 항상 말로 조심하라.' 쿠는 기 고서(거기서).

"아이고, 시님(스님). 아무것도 없는데 아(아이) 이기나 덱고(데리고) 가소."

이리 됐뿐 기라. 그런께 아 그거로 덱고 가가지고 가매솥에 옇어가 낋이갖고 종을 맹글었다 하대예. 종을 맹글어 종만 뚜디리몬(두드리면), [종소리가 울리는 듯이] 엄마~ 엄마~ 하는 기라. 종만 뚜디리몬. 그래 그 큰, 무슨 절이라 하. 큰 절에 시님이,

"그래 왜 저런 뚜디리몬 엄마~ 엄마~ 소리가 나오노?"

저런 종을 뚜드리몬 엄마 소리가 나오면 안 되거든예.

"그래가 그랬다."

캐논께네,

"그라몬 언제든지 여자는 말로 조심해라. 입을 조심해라."

그래서 인자 말. [조사자: 엄마 때문에 자기가 죽었다고?] 예. 엄마 때문에 아로 그리 됐으이, 말 한 마디 잘 몬 해가. 그런께 뜻이 그렇대. '항상 말은 그렇기 때민에 조심해야 된다.' 이 뜻이라예.

[동구 설화 172]

호식 당한 어머니와 호식 면한 오누이[해와 달이 된 오누이]

김정년(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좌천동 좌이경로당]

아들은 여럿이고 인자 묵고 살 건 엄꼬(없고). 이리 엄마가 그 장사하러 갔어. 그래 아무도 문 열어주지 마라. 옛날에는 와 그 문에다가 창호지를 붙이놓는다. 시골에는 다.

"문구녕 요래 뚫어가 디다봐도 아무도 열어주지 마라."

안자 엄마가 그래 놓고 갔어. 그래갖고 엄마 기달라도 밤중까지도 안 오고 이래갖고 문을 톡 두드려.

"누고?"

칸께,

"내가 너거 엄마다."

이라거든.

"울 엄마 말소리가 아인데요."

인자 그라는 기라.

"그라몬 문구녕에다 손을 옇어 보세요."

한께네, 그 호랭이가 이제 문구녕에 손을 뚫버 문구녕에 손을 쑥 옇었어. 쑤신께 털이가 막 부슬부슬 있거든. 그런께,

"이거 우리 엄마 손 아인께 아이라."

쿰서 문을 안 열어죘어. 안 열어주고 있은께네.

엄마는 인자 아들(아이들) 생각해서 오다가, 떡인가 묵인가 한 반티 이고 오다가, 호랭이, 그 호랭이를 또 만냈어. 그래가,

"그거 떡 좀 주몬 내 안 잡아묵지."

이라는 기라. 그 할매가 한 봉지 죘어. 또 한 모랭이 돌아온께 내나 그기 또,

"떡 주몬 안 자아묵지."

캐. 또 줬어. 이제 다 돌아와가 다 주가 다 빈 기 없어요. 그래가지고 인제,

"큰일났다. 우짜겄노."

컨께,

"다 주고 없다."

이러 쿤께, 마 그 호랭이가 이제 이 사람을 잡아무웄는갑대예. 그래가 아들이 인제 찾아나서가 뭐 우쨌다 하도록, 그 뒤에 내 오래 돼서 몰라. 그 그런 얘기는 나 들었어요. [조사자: 아아. 그래 결국.] 호랭이가 아(아이), 사람 거 한다 하는 거, 그 얘기고. [조사자: 아들은 살고 엄마는 결국 잡아묵히뿠구나.] 예.

[동구 설화 173]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남복두이(여, 1931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좌천동 좌이경로당]

갱피(강피)로 훑어서 널어놨는데, 비가 떠내려가도 안 봐서 [청중: 갱피가 뭔대예?] 또 갔는데, 또 거도 [조사자: 있어예]. 인자 몬 살아서 갱피를 [청중: 아, 갱피라고.] 들에서 훑었어예. 그러다가 본 남편이 과게로(과거를) 하고 내러오다가 봤어예. 그런께,

"갱피 훑는 저 마누래는 무슨 복이 저리 많아서 오나가나 갱피 훑는공"

하께네, 나와갖고 소 물로 낋이조도(끓여주어도) 따라가고, 말 물로 끓이줘도 따라간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예,

[동구 설화 174]

익모초를 많이 먹어 오해 받은 며느리

남복두이(여, 1931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좌천동 좌이경로당]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대예. 배껕(바깥) 시어른하고 호부(호불, 혼자) 또 메느리하고 두 분이 살았는데, 메느리가 애기로 가짔어예. 그런께 이 뭐 애기를 낳는데, 이 무명을(누명을)[26] 벗을 길이 없었어예.

그런께 가마솥에 물로 펄펄 낋이갖고 아를 탁 집어옇어갖고 한께, 아무것도 빼(뼈)도 없고 속잎파리만 동동 뜨더랍니다. 이 저 메느리가 인자 몸이 안 좋고 이래 혼차 사다보이 인자 육모초(익모초, 益母草)로 마이(많이) 뜯어무우께, 몸이 뿔었는데(불었는데), 그래 그기 아가 돼갖고 헌께, 그래 무명을 벗었어예.

[조사자: 아, 원래 아를 안 가짔는데, 아 육모초를 무가 이래.] [청중: 육모초를 마이 무께네 배가 불러가 살이 쪘는데, 어른들이 아 뱄다 캐갖고 그랬다 안 합니까. 그러께네 애민때는(억울함은) 벗었네.]

26) 제보자는 '누명'을 '무명'이라고 말함.

[동구 설화 175]

주인 살리고 죽은 개[의구총(義狗塚) 전설]

남복두이(여, 1931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좌천동 좌이경로당]

저는 사천에서 태어났는데, 거어 직접 그기 있어예. [청중: 거 앉아 있는 할매는 구십 네 살[27]인데예. 얼마나 정정하다고] [조사자: 아이구야.] 거서 살았는데, 거는 직접 그 저 제가 봤어예. 소자문(효자문)이라고 이래 딱 뚜께(뚜껑) 덮은 꽃집을 하나 지이다낳어예(지어놓았어예).

삼천포 진주 반 사에(사이에) 짔는데, 거 내 우째서 그기 있었는가 하몬, 옛날에 할아부지가 개로 참 좋아해가지고 어데 가시몬 개를 항상 따라가고 따라가고 이랬는데. 어데 산을 갔다 오시다가 술을 좀, 약주를 마이(많이) 자시고 번덕(언덕)에 저 천둑(냇가 둑)이 안 있습니까? 거서 누우서 인자 담배를 피우고 이러다 담뱃불을 할배가, 이 두루, 옛날 두루막(두루마기) 마이 입었다 아입니꺼. 그 두루막에 불이 붙어가 인자 죽을 판인데, 개가 물에 펑덩 들어가 할배한테 뚜구루 구르고. 그래가 할배는 살고 개는 죽고. 그래가 소자문을 지이가 지금 있어예.

[조사자: 아, 그 개는, 개무덤이 있네.] 예, 개는 죽고. 그 개 소자문이라예. 우리 직접 거거 살았거든예. [조사자: 아, 그러시구나. 아, 그 거기 삼천포 쪽에.] 삼천포 반, 진주 반. [조사자: 반, 고 쪽에.] 그거 인자. [조사자: 그거 개무덤이 안자 고 딱 이래 각을 이래, 누각을 세아가지고 이래 해놨네 그지요?] 사천군. [조사자: 주인 살리고 지는 죽고.]

[동구 설화 176]

쌀 나오는 굴이 있던 청도 사리암

탁경숙(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좌천동 좌이경로당]

사리암에에 쌀이 나오는데, 그 인자 무울 만큼 딱 나오는데.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민간인

27) 청중들은 제보자의 나이를 94살이라고 했다. 그런데 제보자는 1931년생(90세)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했다. 실제 나이가 주민등록상의 나이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거 쌀 많이 나오라고 굴을 파삣어요. 쌀 많이 나오라고. 스님 무울 만큼만 그 사리암 이래 굴이 있어요. 가면 우리가 거서 절을 하고 하는데, 그기 인자 쌀이 나오고, 쌀이 나오는데, 인자 민간인이 올라와갖고,

"요오 쌀이 나온단다."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다 가난했잖아요. 쌀이, 쌀이 나온단다 이래갖고, 쌀이 쪼끔썩 나오니까 마 감질이 나니까 이래 팠어. 파니까 그 담에 물이 나오더랍니다.

[조사자: 그 사리암이 어디 있는 절입니까?] 저 청도. 청도 가면은 운문사에, 운문사에서 쪼금 한 오리나 하여튼 올라가면은 그 꼭대기에 사리암이라는 절이 있는데, 암자가 있는데, 거기 신도들이 여러 수천 명 오는데, 그 돈을 벌이가 운문사에 인자, 같은 계열이니까 그 운문사하고 같이 인자 이래. [청중: 운문사도 벌이 믹이 살리지.] 운문사가 큰 절이지, 알고 보면은. [조사자: 큰 절이 인자 오히려 그 사리암이 먹이 살리네.] 그 운문사를 안 가고 다- 사리암으로 올라간다. 그마큼 거 나반존자님이 계시는데, 그만큼 그 사리암에 다 성불로 받는 거라예. 거 가면 성불을 받게 돼가 있어예.

[동구 설화 177]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탁경숙(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좌천동 좌이경로당]

에밀레종은 인자 그게 종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인자 우리가 학교 고, 에 저 종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인자 맑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거 끓는 쇠물에다가 애기를 넣었다 아입니까.

애기를 넣어갖고 [청중: 그거는 처음에 그리 하는 게 아이다.] 종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인자 울리니까, 에밀레~ 엄마~ 엄마~ 부르는 소리가 에밀레~ 에밀레~ 이래 부르대. 그런 유래가 있대예.

[동구 설화 178]

딸을 범하려 했던 아버지[옥녀바위의 유래]

탁경숙(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좌천동 좌이경로당]

사랑도. [조사자: 사랑도.] 사랑도 그 옥녀바위에. [조사자: 아, 옥녀바위. 사랑도가 어디 있는교? 저게.] 삼천포에서예 한 시간을 배를 타고 가몬, 그 바위가. 그 사랑도 아랫섬 웃섬도 있고, 고서 쪼끔 더 가몬 욕지도. 욕지, 고구마 나는 욕지도 있고.

그 옥녀바위 유래는예, 그 옥녀바위는 왜 옥녀바위라 하노 하면은예, 안자 그 아버지하고 딸하고 살았어예. 아버지하고 딸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너-무 딸을 사랑하는 거라예. 딸을 사랑해서 그 아버지가 어 딸을 범할라 하는 거라. [조사자: 아이구.] 그라니까 이 딸이 하는 말이,

"그리 아버지가 나를 거하면은 거 옥녀바위, 거 바위에 내가 저 가가 있을 테니까, 벙거지를, 비가 오는데 벙거지를 씨고(쓰고) 올라오세요."

이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래 그 말을, 딸 말로 듣고 그래 올라오더랍니다. [조사자: 아이구 참.] 그런께 그 옥녀라는 애가 바위에서 떨어져 죽었어예. 그래서 그 바위가 옥녀바위라 하는 기라.

[동구 설화 179]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탁경숙(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좌천동 좌이경로당]

호랑이가 꽂감을 무서워한다 안 하더나. 애가 많이 울어싸니까 호랑이가 뭐 이기 집, 집 앞에 요래 들어본께 애가 내(계속) 울어싸니까,

"꽂감(곶감) 주께. 울지 마라."

칸꺼네, 호랑이가 '꽂감이 지보다 더 무섭는가' 싶어서 아가 안 울더라 안 합니까. [조사자: 고 이야기네 그지예.] 그렇지. [청중1: 아가 안 우니까, 호랑이가 꽂감도, 꽂감이 얼마나 무섭긴데, [청중2: 그래 꽂감이 지보다.] [청중1: 그래 호랑이가 갔다 안 합니까.]

[동구 설화 180]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곶감

이석영(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좌천동 학원경로당]

꽂감(곶감)을 내났는데, 아를 줬는데, 그기 인자 저기 돼가지고, 뭔 인자 애기가 울몬,

"꽂감 주까, 꽂감 주까."

호랭이 온단 말을, 호랭이 온다 말을 먼저 안 하고,

"꽂감 주께, 꽂감 주께."

그기 말이 됐고. 그렀는갑더라. [조사자: 그래, 호랑이가 꽂감이 무섭아서, 뭐.] 예. 무섭아서 그 인자 그래 했는데 전에는. 호랭이 온다 카니까, 고마 호랭이가 무섭아서 꽂감을 줬는데, 아가 그칬거든예. 긍기 다음에는 인자 고마, '꽂감 주모 애가 그친다' 그런 뜻이 돼삣는 기라. 그런 말이 있대요. 모르겠습니다.

[동구 설화 181]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이석영(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좌천동 학원경로당]

저거 아들이 어디라 하까, 외국이라 하까, 인자 돈 벌러 갔는 기라. 근데 애들이, 아들이 억수로 오래 있었는 기라. 그래 인자 시어마시가 안자 무를(무엇을) 못 보는 기라.

그런께네 인자 뭐 맛있는 거 있는데, 마이(많이). 요새 겉으몬 마이 있는데, 지렁이 그거로 인자 잡아가지고 인자 그 옇어낳다가, 또 그거로 해드리고, 그거로 해드리고. 억-수로 살이 쪘거덩.

그 아들이 오니까 엄마가 너무 살이 쪘는 기라.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로 그렇기 잘해 미고(먹이고) 거닸다고(거두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기 마 억수로 마 동네 뭐꼬 효부상도 타고 이래쌌대예.

그런 얘기가 있…. 아이, 오래 돼논께 다 모르겄는데. 그런 뜻이 있대예. 있었습니다.

[조사자: 그래 자리 밑, 그래가지고 국을 끓이줘서 나중에 아들 비이준다고 자리 밑에 뭐 이래.] 아, 비이줬는데(보여주었는데), 비이주니까 그기 나오니까 인자 [생각이 나서] 아, 아들

도 좋게 생각했어. 아, 그것도 사람이 묵고 인자 이렇게 살이 찐 거 본께 나쁜 게 아인갑다. 아들이 그리 좋기 생각했대.

모르겠습니더. 오래 돼논께. [웃음

[동구 설화 182]

꼬부랑 이야기

이석영(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좌천동 학원경로당]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재를 올라가다가, 꼬부랑 인자 짝대기로 가지고 꼬부랑 개가 있으니까, 때리니까 개가 뭐, 꼬부랑 깽깽 꼬부랑 깽깽. [일동 웃음]

[조사자: 그런 이야기 있다 그지예.] 그런 이야기 해도 모르겄네요.

[동구 설화 183]

언제나 자식 걱정인 어머니

이석영(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좌천동 학원경로당]

이게 우리 집에 한 이야긴데, 내만 한 이야깁니더.

그래 인자 그 손녀딸이 인자 그 작은아들 딸인데, 손녀 딸만 둘이라. 그래 참 똑똑해, 아가. 그래 만날,

"호랭이 담배 풋는 이야기 말이고 얘기 해라."

이라대. 그래서 내가 인자 얘기 들은 얘기, 그것도 들은 얘기지.

그래 어떤 집에 저게 할머니 집인데, 아들만 둘이래. 둘인데, 그래 하나는, 하나 아들은 소금장수고 하고, 하나 아들은 저 우산장수를 했는데, 비가 오면은 우산장사가 잘 팔리서, 인자 아들이 큰아들이 잘 팔리서 좋고, 소금이 녹아도 그렇고 인자, 비가 안 오면은 소금이 인자 잘 팔리가 좋고. 그래 얘기를 하는데 아가,

"잠깐만, 엄마 하지 마라. 할무니 하지 마라."
그래.
"왜?"
이라니까, 저 인자 우리 아들만 둘이거든요. 저거 아부지하고, 인자 큰아부지하고 작은 아들 딸인데.
"하지 마. 하지 마."
그래.
"와! 니 하라 안 했나."
이라니까,
"그거는 슬프다." [일동 웃음]
아이구, 참 똑똑해, 아가. 쪼깬(조그만)해도.

[동구 설화 184]

신호를 몰래 해서 나누는 사랑

이석영(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좌천동 학원경로당]

둘이서 맞차서 다락에 올라갈 때,
"내가 먼저 올라가거들랑 고마 삐약삐약 하면서 인자 너거가 올라온나."
인자 이렇게 신호로 그래 맞찼다고, 그런 말이 있대예.

[동구 설화 185]

쌀 나오는 구멍

이순이(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16일 채록
[좌천동 학원경로당]

쌀이, 안자 저저 그 뭐꼬, 저저 대구 팔공산 같은 데 요새 그런 말이 있었다. 옛날 말이 아

이고, 그건 요즘 말이라.

그래 가면은 인자 쌀을 우리가 갖다 거게 보시를 할라고 갖다 놓으면은 안자 저거 하는데, 거 가몬 안 사가(사서) 가도 거게 인자 받치몬 쌀이 나온대 해갖고, 그래 나오는 쌀을 받아가 또 가(가져) 가고, 가 가고.

거서는 절에서는 거서 붓겠지 거어. 어에서 붓는 데가 있겠지요? 그 쌀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고게 산에서. 그래 그 하몬 그거로 받아가이고 또 인자 그 법당에 갖다놓고, 안자 줄 내리오고, 내리오고 이란다 하대.

그런 말은 있대. 그거는 옛날 말이 아이라예.

[동구 설화 186]

귀신이 보이는 질경이기름 불

남성연(여,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1동 초강경로당]

신랑이 왔는데 여자를 뎃고 오더란다. 그라고나이 지 서방을, [조사자: 귀신이?] 예. 귀신이. 그 빼뿌쟁이[28] 씨를, 빼뿌쟁이 그거로 갖다가 지름을 짜가지고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새퍼런 여자를 뎃고 오더라 칸다. 그 뒤로 지사(제사)를 안 지냈다 카더라.

[동구 설화 187]

도깨비가 되는 빗자루

전경묘(여,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1동 초강경로당]

옛날에는 빗자루가 여자 궁뎅이 몬 깔구 앉구로(깔고 앉게) 해. 뭣이라도 있으면, 맨스겉은 거 있으면, 묻으만(묻으면) 고 내삐리면 토깨비(도깨비) 된다고. [청중: 그거 묻으면 토채비 난다고 그랬다.]

28) '빼뿌쟁이'는 '질경이'의 방언.

[동구 설화 188]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전경묘(여,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1동 초강경로당]

옛날에 할머니가 카는데, 그 부모를 고려장 시키러 가는데 아들이 효자인 기라예. 효자라 놔서 어마이를, 그때 마 법이 하매 고려장하는 식이 돼서 할 수 없어서, 안 하고는 안 되고, 엄마를 갖다가 지게로 갖다가 내삐릴라 카이, 할 수 없어 엄마를 지게로 지파가지고, 아들이 그 지고 가는데, 어마이가 하는 말이, 수양버들나무 이래 척-척- 늘어져가지고 있거든. 그래 수영버들나무 이퍼리를(잎을) 훑어가지고, 자꾸 아들 가는데 마당 다 흔칬대(흩였대). 다 흔치가 내라놓고,

"야 야, 니 갈 때 길을 잃어뿌리가(잃어버려서) 모릴까(모를까) 싶어서."

아들보고서는 수양버들나무 이퍼리를 축- 훑어가지고,

"고대로 그냥 따라가라."

고, 이래 쌌대. 또 그 소리는 들었어.

[동구 설화 189]

도깨비로 변하는 빗자루

표말손(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1동 초강경로당]

옛날 할매들 말이다. 할매들 저 잔치한다고 술 한 잔 묵고, 이리 마 술을 더더미 취해가 오이까네, 그 새-파란 새댁이가 하나 마 나서더라 카네. 나서가지고 마 할매를 갖다가 그 막고(막고) 있는 기라. 그 막고 몬 가구로 하고 이랬는데,

"아이 요년이 말이지 나를 어데 가라고 하노?"

하면서, 나무에다가, 나무에다가 마 자기 마 뭐로 갖고 끌러갖고 챙챙 짜매난 기라. 나무에다가 짜매논께네, 그 안날 아측에 날이 새고 술이 깨서 가보이까네, 간께네 빗자루 몽댕이로 챙챙 짜매놨더라 카네.

마, 빗자리, 와 깔고 앉아갖고, 옛날에 와 불 땔 때 빗자리 그거 깔고 앉아가지고 여자들

뭐 나올 때 있지. 묻은 기라.

그래 그기 헛다리 돼가 간 기라. 그래가지고 뭉치 마-이(많이) 짜매 놨더란다.

[동구 설화 190]

버섯 먹고 소도둑으로 오해 받은 사람

표말손(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1동 초강경로당]

그래 요즘은 버섯이 안 있나. 그런 거로 갖다가 하- 해가 마 묵으니까 맛있거든. 그러니께,

"아따. 그 소고기 맛이다. 소고기 맛이다."

이래 쌌거든.

"와- 소고기 맛이다."

어른들이 '소고기 맛이다.' 쌌는데(했는데), 해필 이웃집에서 소를 잊어삐린 기야. 이웃집에 소를 한 바리 잊어삐리논께네, 그 아(아이가),

"우리는 엊저녁 소고기 무우소(먹었소). 소고기 무우소."

이래 쌌거든. 나가서,

"소고기 무우소."

이래 싼께네, 그래 인자 소고기를 갖다가, 소 잡아 묵었다 캐가지고 재판이 나갖고, 인자 옛날에 배로 따봐야 되는 기라. 배로. 복장을 따봐야 그게 나올 거 아이가? 그기. 그래 배를 딴께네 버섯이 소도록하이(수없이 많이) 나오더란다. 버섯. 그래 아들(아이들) 듣는데,

"소고기, 우리 소고기 맛이다. 소고기 맛이다."

이래 쌌거든. 맛있다고 이래 싼께네. 어우! 버섯을 갖다가 묵고, '소고기 맛이다.' '우리는 어제 소고기', 이우제(이웃에) 나가서 자기들이,

"우리 어제 소고기 무웄소, 소고기 무웄소 ."

한께네, 딱 그러니까네, 누명을 씨울라고 그랬는데, 재판을 하니까, 딱 버섯이 소도록이 나와가지고, 저 사람이 인자, 요즘 겉으면은 그 징역을 살릴 낀데, 그전에는 죽는 기라. 살다가.

그런 것도 옛날에 있고. 옛날에 이야기를 만날 모이면은 그런 거 저런 거 이야기로 하는데.

[동구 설화 191]

죽음을 알리는 혼불과 까마귀 소리

표말손(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1동 초강경로당]

사람이 죽을라 쿠면은, 내가 들에서, 시골에 살 때 인자 물 겉은 거 이런 거 댄 사람 대가. 안날 인자 논 가갖고 물 댄다고 있으께네, 둥-그란 기 마을에서 하나 나오더만은, 와 문의 연 봤제? 문의 연, 그거 문고리 연 이래 있는 거. 그런 기 확- 머리 위로 올라가는데, 앞에 훤한 기라. 훤한데 저-쪽으로 가대. 갔는데 '거 참 희한하네' 새고(하고), 집에 가서 어른들한테 인자 그래,

"이래 이래가 아무도 없는 데서 이래 나가갖고 그리 가더라."

캤더만은, 삼일 된께네 남자가 죽더라고. 남자가. 동-그란 거는 여자 불이고, 그 뭐꼬? 문고리매이로(문고리처럼) 있는 거는 남자 불이라 하대. 그래 죽어가 오데로 가더라 하이, 초상을 치러 새이(상여)가 나가는데 그리 가더라고 보이까네. [조사자: 그게 혼불인가 봐예?] 그래. 옛날에는 그런 게 있어. 그런 걸 '불이 나간다'고 하거든. 불이. 그래 사람이 죽으면 불이 나간다 하거든.

요새는 까마귀가 울어싸면 죽더라. 까마귀가 마 '까-옥, 까-옥, 까-옥.'함서 힘이 없이 울면은 자살한 사람이 죽고. 젊은 사람이 죽고. 그래가 또 순하게 우는 거 안 있나? 울면은 그런 기 없고. 요즘도 그래,

한해 우리 동네에는 까마구가 '까옥, 까옥' 하는 게 아이고 '깎깍깍깍' 카고 '깎깎깎깎' 하고 해쌌대(하더래). 그래.

"저 까마구 와 저 지랄하노?"

했더만은, 저 청지 할매하고 마 저 영희 아부지하고 한날에 죽었다 아이가. 또 그와 아줌마, 우에(위에) 여름에 또 죽었다 아이요. 그래 까마구 그래(그렇게) 울더라, 지금도 까마구가 울어싸이 또 죽더라. 그게 영물이다. 지금도.

[동구 설화 192]

환생을 점치는 제삿날 쌀

표말손(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1동 초강경로당]

담아놓거든. 담아놓으면은, 그게 이제 제사 마치면은 딱 발이 따 따 따 따 있고, 인자 무슨 뱀이, 구렁이가 되면 길쭈마이(길쭉하게) 이리 있고, 부자가 될 사람들은 쌀이 도톰하이 돼가

있고. 옛날에 그래 했어. 지금은 그거 없다. 지금은 그런 거 없다.

[동구 설화 193]

제삿날에 가는 귀신을 태워준 택시기사

표말손(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1동 초강경로당]

아무 데 거 가서
"요 내라주라."
쿠더라네. 내라준께네,
"차비를 주라."
하거든. 이란까네,
"저 저게 죠 집에 내가 가는데, 죠 집에 저게 내가 가는데, 그기 우리집인데 가서 돈을 받아 오꾸마."
카네.
"돈을 받아 오꾸마."
캐가지고 그 들어갔는데, 생전 노오도(나오지도) 안 하거든. 노오도 안 한께네, 택시가 인자 기사가 가본 기라. 간께네 지사(제사)로 모셨더라 쿠네. 그 집에 딸이 젊을 때 죽었는데, 인자 처녀 때 죽었는데, 그래 지사를 모셨더라 쿠대. 모시고 그래.
"이만 저만 한 이리 이리 요만치(이렇게) 생긴 사람이 그리 이만 그라더라."
쿤께네. 그걸 마 기사를 갖다가 그래 돈을 더 주고 말이지 이래싸이, 돈을 안 받아갔다 카더라.
그래갖고 그게 확실히 귀신이 있더라요. 옛날에는. 그래 도로 차비를 주고. 지사를 지내더라 안 카나. 지냈더라 안 카나.

[동구 설화 194]

귀신이 보이는 질경이기름 불

표말손(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1동 초강경로당]

빼뿌쟁이 씨도 그런 기라. 기름을 짜가지고, 항상 신랑이 보고 짚어서, 하도 신랑이 보고 짚으니께네, 빼뿌쟁이 씨로 짜가지고, 이래가지고 인자 접시에다가 딱 심지로 요리 모이가 이리 해가지고, 제사지낼 때, 12시 제사 지낼 때 딱 놔놓고 보니까네, 큰- 구렁이 한 마리 마 들어오더라 카대.

구렁이가 한 마리 들어오디 여서 마 다 이래 맡아보더라 카대. 다 인자 고마 음슥(음식) 핸데 거게 쎄로(혀로) 가지고 전신에(전부) 다 맡아보고, 한 번씩 다 맡아보고, 이래갖고 실- 나가더라 카대. 그래가지고 나서는 마 저 놀래가지고, 절대로 그래 암만 보고 짚어도 그렇게 안 한다 안 하나. 그 옛날에 그래 했단다. 그라고 나서는 그래 안 한단다 하대.

빼뿌쟁이 씨도 되고, 해바라기 씨도 되고. 그것도 얘기가 아니고 동네 사람 할매 하나가 좀 그제 나이가 좀 들었더라. 그랬더라 쿠면서. 하도 원이 돼서, 아들 젊을 때 키운다고 욕보고 원이 돼서 한 번 해보니까네, 그 구렁이가 와가지고 전신에 쎄로(혀로) 다 짐을(김을) 맡아보는 기라. 요새도 제사 지낸다 아이요? 지내면은 안 하는 기 아이고, 짐만 맡아보고 가는 기라.

[동구 설화 195]

죽어 구렁이가 되어 쌀독을 지키는 시어머니

표말손(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1동 초강경로당]

하도 며느리 배로 골리니까네(배를 고프게 했다는 의미), 쌀 채독이 있는데, 며느리가 인자 쌀 푸러 가거든, 쌀 푸러 가면은 시어마이가 작게 해라고, 작기(작게), 작기 푸라고,

"작기, 작기, 작기, 작기 푸라."

쌌거든. 이라이까네 많이 퍼가서 몬 해묵는 기라. 이런데 시어마이가 죽었는데, 죽고 난 뒤에 쌀 푸러 간까네 쌀 독 안에서,

"작기, 작기, 작기."

이래 쌌거든. 본께네 구렁이가 한 마리 들어앉았다 쿠네. 그래 마 어찌 썽이 나던지 마 그 배깔로(배를) 마 팍- 쑤시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살아서, 살아서도 배를 그렇게 골리더만은 내 죽고 나서도 그런다."

쿠면서, 마 그래가지고 불에 사라삐더란다(불에 태워버리더란다). 그란께 다시금 없더라. 불에 사라가 끝이가 돼삐는 기라.

살아서 그만큼 시접 살았으면(시집을 살았으면) 됐지, 또 그래 마 '작게, 작게' 들어. 옛날에는 배를 엄청 골린 기야. 며느리로.[청중: 옛날엔 그랬어. 독한 사람은 그랬어.] 그래,

'작기, 작기, 작기.'

구렁이 돼가,

"작기, 작기."

쿤다 안 하나.

[동구 설화 196]

집지킴이 구렁이가 나가 망한 허심청

표말손(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1동 초강경로당]

저기 어디고, 저 어데고? 저 뭐꼬? 동래, 동래 거 허심청이가? [조사자: 예. 허심청.] 그 옛날에 그 인자 한참 얼마나 잘 했노. 그 뒤에 큰- 구렁이가 한 바리(마리) 나가더라 쿠네. 그 나가고 난 뒤 망했는 기라. 그 지끼미라(지킴이) 카대. 허심청이. [조사자: 나가면 안 되지예.]

그 큰- 구렁이가 나가더라 카대. 그래 그기 고마. 그라고나서 허심청이 안 되고, 고마 그냥 망했다더라 하대. 엄청시리 큰 기 나가더라 카더라. 그 지끼미 말이 맞아.

[동구 설화 197]

용심 많은 이월 영동할매

표말손(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1동 초강경로당]

바람이 불면은 딸 덱고(데리고) 오고, 비 오면은 메느리 덱고 오거든. 하도 시어미가 그기 용심이 많아가지고. 딸은 비단치마 팔랑팔랑하라고 바람이 불고, 그라면 그기는 날이 가물다. 안 좋아. 메느리 덱고 올 때는 비가 오거든. 그라먼 그기 풍년이가 되는 기라.

[동구 설화 198]

집지킴이가 나갈 때

김순이(여,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1동 초강노인분회]

찌끼미가(지킴이) 있어요. 집찌기미. 그기 집이 불이 난다 하던가 뭐 하몬 그 찌끼미가 나간다 카네. 그거 나가는 걸 봤으면 되는데, 안 본 사람은 그냥 있을 거 아이요(아니요).

그래 인제 불이 나던가, 뭐 하면 쥐도(쥐도), 쥐도 막 그냥 싹- 다 나가뿐다 카대. [조사자: 지킴이는 지켜준다데예.] 예.

[동구 설화 199]

도깨비가 되는 빗자루

김순이(여,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1동 초강노인분회]

도깨비한테 홀키가지고(홀려서) 댕기다가, 힘 좋은 사람이 도깨비를 잡아 직있는데, 직이고 나니까네 그기 빗자리 몽딩이라. 그래서 여자들은 그 촌에서 불 땔 때, 그거 뭣고? [청중: 생리.] 자리 같은 거 앉는다 아입니까? 빗자리 같은 거, 그런 거 앉지 마랍니다. 멘스가(생리가) 묻어가 그렇다 하니까.

[동구 설화 200]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안태임(여, 1930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1동 초강노인분회]

옛날에 애기가 하도 울어서, 뭐 뭐,

"떡 주께."

해도 안 끈치고 내- 울었어 울어서 어마이(엄마)가 저기 뭐고?

"꽂감 주께."

하이까네, 애가 그치더래요. 울음을. 그래서 인자 밖에 호랭이가 와가있어서(와있어서) 그래 호랭이가 '아, 꽂감이라 하는 놈의 짐승이 내보다 더 무습은(무서운) 갑다.' 싶어가지고 그래 그 후에는 호랭이가 안 나타나더래요.

[동구 설화 201]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안태임(여, 1930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1동 초강노인분회]

옛날에 참 가난했어. 너무 가난한데, 인자 남편이 과거 볼라고 인자 저 한양에 인제 가고 없는데, 그 시어머니가 눈이 어둡아가지고 잘 안 보였어. 그래 뭐로 부모 봉양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제 지렁이 좋다는 소리를 들었든가 봐. 그래서 그 인자 메느리가 그 남편은 과거보러 가고 없고, 뭐 시어머니 해드릴 게 없어가지고, 그래 지렁이를 잡아다가 깨-끗이 씻거가지고 단지에다가 폭- 달이가지고(고와서) 그래 그 국물을 이래 드리니까네, 눈 어둡은 할매가 그게 뭣인지 모르이까네 그래,

"야, 이게 무엇이 이래 맛있노? 맛있노?"

카더란다. 그래 지렁이를 인자 그렇게 많이 잡숫고. 이제 아들이 과거를 해가지고 올 때가 되이까네(되니까), 할매가 마 살이 쪄가지고 마, 얼굴이 뿌-하니 살이 쪄가 마 이래 좋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인제 그래,

"우리 어머니로 무엇을 봉양해가지고 어머니가 이래 좋아졌냐?"

고 물으니까네, 그래 그 메느리가, 아! 그 아들이 그 껀디기가 하나썩 들었든가봐 국물에. 그래 할매가 그거를 먹으면서 '이게 무엇인데 맛있는고?' 싶어가지고 껀데기를 하나썩, 눈은 어둡어가 안 보이고 자리 밑에다 옇어놨더래요. 그래 옇어놨다가 아들이 와서 보이,

"뭘 잡샀는데(드셨길래) 이래 좋느냐?"

칸까네, 그래 자리 밑에 가가(가서) 그걸 꺼내서 아들한테 보이더래요. 그래 아들이 그걸 보고 인자(이제) 마누라를 불러가,

"이게 어째 된 일이냐?"

고 물으니까네, 그 마누라가 자기가 죽을 죄를 짔다면서 남편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아무것도 어머니로 봉양할 끼 없어서 그래 그 지렁이를 잡아다가 그거로 그렇게 끓여서 그렇게 드맀다."
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청중: 그게 보신(보약)인갑다.]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네 자기를 죽이달라."
고 그라더래요. 그런데 죽일 죄가 아이고 너무너무 호부(효부)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나라에 올려가지고 호부상을(효부상을) 받도록 그래 했대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

[동구 설화 202]

개똥을 씻어 먹은 사람

안태임(여, 1930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1동 초강노인분회]

옛날에 우리 저 범일동 살았는데, 거기 인제 양말 짜고, 장갑 짜고 하는 공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옛날에 일본에서 나와가, 귀향동포로 나와가지고 그래 살았는데, 너무 너무 먹을 기 없어가지고, 진짜로 개가 보리쌀을 어데 널어놨던 걸 먹었는가 어쨌는고 마 그걸 수북이 막 똥을 싸놨더래. 삭도(삭지도) 안 하고. 그거를 씻거가지고(씻어서), 씻거가지고 진짜로 그걸 끓여서 먹었대요. 실제로.

[동구 설화 203]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안태임(여, 1930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1동 초강노인분회]

옛날에 그 종을 모으는데, 그 종을 모을라 카이까네, 쇠를 많이 모아야 하잖아. 그래가 온 갖 데 온 데) 댕기면서(다니면서) 쇠를 모아가지고 그 에밀레종을 만들었는데, 그 종을 만들어놔도 종을 쳐도 소리가 안 나더래요. 소리가 안 나서 인제.
그게 내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 선후가 바뀐다. [조사자: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자 그 스님이 그 쇠를 모으러 다녀가지고, 인자 다닐 때, 그 인자 돌라고(달

라고), 뭐 돌라꼬,

"종을 모으는데, 돈을 주던지, 밥을 주던지, 뭐로 주던지 자기 성의대로 달라."

고, 그 집에 시주를 하러 가니까네(가니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아무것도 줄 끼 없다"

고, 가난해가지고, 그래 딸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봉덕이라고 지었던가봐. 그래,

"우리 봉덕이를 주까?"

이랬대요. 그런데 그 스님이 갔어. 그 집에는 아무 시주를 못 받고. 가가(가서) 천지를 모아가지고(모아서) 종을 만들었는데, 종이 소리가 안 나는 기라. 암만 쳐도 소리가 안 나서, 그래 이 종이 소리나 안 나서, 인자 마. 옛날에 마 무당들 뎃고 안 그랬겠어요? 스님들 있으니까네. 스님도 뭐 경을 하고. 그래 인자 어느 도사가,

"어는(어느) 집에 그 봉덕이라 카는 그 애를 갖다가 그 종 속에 넣고, 종을 다시 뿌사가지고 쇳물로 끓여서 종을 만들 때 그 봉덕이를 종 속에 옇어야 종이 소리가 난다."

카더란다. 그래서 그 봉덕이를, 와서 인자 덱고(데리고) 갔다대.

그래가이고 부모가 딸을 그리 줄 때 마음씨가 착해서 그렇지만, 종이 아무리 만들어도 소리가 안 나니까네, 봉덕이를 인자 덱고 가서 인제 종 쇳물 끓이는데 넣어가지고 종이 소리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엄마 때민에(때문에) 지가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에밀레, 에밀레."

했대요. [웃음]

[동구 설화 204]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안태임(여, 1930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1동 초강노인분회]

만-날 공부만 하고 비가 와도 그 갱피를 훑어다가 마당에 널어놨는데, 아무리 비가 와서 갱피떡석(강피를 늘어놓은 덕석)이 떠내려가도 그걸 안 걷고 앉아가 공부만 했는 기라. 그래 이 여자가 방아품을, 그래 옛날에 방아 찧는 데를 방아품이라고 있어. 방아 찧어주면 뭐 싸래기도 얻고, 뭐 댕기(딩겨)도 얻고 묵는데. 그런 걸 얻어다가 통쌀만 갈리가지고 남편을 밥을 해줬대요. 통쌀만 갈리가(갈아서) 남편을 밥 해주고, 자기는 뭐 등기(딩겨)같은 거, 싸리같은 거, 그런 거 죽을 낋이가 먹고.

그래 했는데, 갱피 훑으러 갔는데, 마당에 널어놓고 갔는데 소나기가 왔어. 너무 소나기가

마이 와가지고(와서) 그 갱피떡석이 떠내려가삤는 기라. 그래도 남편은 공부만 하니라고 갱피떡석이 떠내려가는 지를 몰랐어. 그래가지고 갔다가 오이까네 떠내려가고 없는 기라. 소내기가 마이 와가지고. 얼마나 기가 차겠어? 그래가 '이래가 몬 사는 기다.' 싶어가지고 말키[29] 내삐려뿌고(내버리고), 남편도 내삐리고(내버리고), 갱피도 내삐리뿌고(내버리고), 여자가 마 갔어.

가가(가서) 다른데 남자를(남자한테) 시집을 갔는 기라. 가니까 그런데 거기도 역시 또 가난해가지고 또 갱변(강변)에서 갱피를 훑어야 되는 기라. 그래가 갱피를 훑고 사는데, 이 남자는 살-살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를 했어. 과거급제를 해가지고, 그래가 마 옛날에 마 큰 풍경(풍악)을 울리고 이래가 삼현육각 마 잽히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인자 갱변(강변)을 지나서 가는 길이던가 봐, 그래 갱변을 지나다 보이까네 그 마누라가 그 갱변에서 갱피를 훑고 있었는 기라. [조사자: 아직까지.] 그래가 너무 너무 기가 찼어. 그서 인제 쉬어갔던가 어쨌던가 함서 그 남자가,

"갱피 훑는 저 마누라는 간 데 쪽쪽 갱피로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했는데 그 여자가 들었던가 어땠던가, 보이까 자기 남편이었어. 그러니까네(그러니까) 자기를 좀 데려가 달려고,

"소 물을 끓이는 종을 삼아도 좋고, 말 물 끓이는 종을 삼아도 좋으니까네 날 좀 데려고 가자."

하니까네,

"한 번 버린 사람은, 물을 땅에다가 쏟아서 그 물을 그릇에 담을 수가 있으면 자기가 데려가겠다."

했는 기라. 그 물을 담을 수 있나? 땅에다 쏟은 물을. 그래 안 데리고 갔는 기라. 그래 그 여자가 그 갱변에서 죽었대요. 그렇게.

그래서 뭐 옛날에 말이 있는데, 그 갱피에 보면 빨간 점이 있어. 피, 피, '빨간 빨간 그 점이 그 갱피 훑는 그 마누라가 죽어서 갱피에 피가 묻었다, 고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동구 설화 205]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안태임(여, 1930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1동 초강노인분회]

29) '말키'는 '모두' '싹다'를 의미하는 방언.

그래 인자 옛날에는 칠십 되면 고래장을 하는데, 인자 자기 부모를 인자 고래장을 할려고 고래장터에 할매를 지고 갔나봐. 가이까네 그 어린 아들이 따라오더래요. 그래 아무리 몬 따라오구로 해도 기어이 따라오더래요. 따라와서 인제, 그 인자 고래장터에 갔다가, 엄마를 인자 고래장터에 갖다가 놓고, 지게하고 다 버리고 인자 그렇게 오이까네, 그 아들이,

"아버지, 저 지게를 왜 버리냐?"

고,

"가져가자."

하더래요.

"저 지게는 안 가져가는 기라."

캄서 그라이까네,

"저 지게를 가져가야 아버지도 그래 저 할매만치 나이 많으면 내가 지고 갈 것 아니냐?"

고, 그 카더래요.

[동구 설화 206]

죽어서 개로 환생한 어머니를 세상구경 시킨 아들

안태임(여, 1930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1동 초강노인분회]

그런 이야기도 있어. 옛날에 엄마를 내 집만 보라 카고(보라 하고), 그래 집만 보고, 또 마젊을 때는 내 일한다고 이라다가, 나이 많아가 내- 집만 보고 하다가 세상구경을 한 번도 몬 했는 기라. 그래가(그래서) 그 엄마가 나이 많아가 죽었어. 죽어서 개가 됐다 안 카나. 개가 돼가지고 자기 아들 집에 와서 인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안 카대? 나도 그런 이야기 얼핏 조금은 들었어. 집을 지키고 있는데, 그래 인자 그 아들이 인자 이래 사는데,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 그래 보고는 그래,

"저 개가 당신 엄마다."

꼬,

"당신 엄마가 너-무 평생을 가난하게 살면서 일만 하고, 또 뭐 내(늘)- 아들 집 지켜주고 그라다가 죽어서 개가 돼가지고, 지금도 인제 개가 돼가 와서 당신 집을 지킨다."

그라더라 카대. 그래가 인자 그 아들이,

"그라면 어째야 되겠노?"

카이까네,

"엄마를 지금이라도 온 데 댕기면서(다니면서) 구경을 시켜라."

카더라 하대. 그래가지고 인자 나무학구로(나무상자)를 짜가지고, 개로 목만 딱 내놓구로 하고, 나무학구로 짜가 짊어지고, 개를 그 안에 옇가(넣어서) 짊어지고, 그래가 온-데를 댕기면서 인자 구경을 시켰다 하네. 구경을 시키고, 그래 어데 어데 가서 구경을 시키고, 잠시 내라놓고 뭐 어디 볼일을 보고 오이까네 개가 없더라 안 카나. 개가 마 환승(환생)을 해가 가뿠다 안 카나.

[동구 설화 207]

손님을 못 오게 해서 망한 집안

안태임(여, 1930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1동 초강노인분회]

손님을 끊으면 집이 망한대요. 손님을 끊으면 집이 망한다 안 카나.

하도 옛날에는 좀 살만 하면 가객도 많이 오제(오고), 뭐 손님도 많이 오제. 그라니까네 마 그 치닥거리 할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 손님 안 오도록 어디 가서 점을 했는가? 뭐 물었는가? 어쨌는가?

"어찌 하면 손님이 안 오겠느냐고?"

물으니까네 누가 뭐로 방책을 갤차줬던가(가르쳐줬던가) 봐요. 그래 그 방책 해가지고 그 손님이 끊어졌다 안 카나. 끊어지니까, 삼 년을 손님이 안 오니까네 그 집이 망하더라 안 카나. 그래가지고. [조사자: 손님이 너무 안 와도 안 돼 그지예?] 집은 우짜든지 사람이 마이(많이) 와야 돼.

[동구 설화 208]

상사병으로 죽어 뱀이 된 총각[상사뱀 이야기]

안태임(여, 1930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1동 초강노인분회]

어느 한 마을에 무슨 처녀 총각이 같이 살았던가? 어쨌던가? 옛날에는 뭐 교제하고는 그런

거 몬 했잖아. 그러니까네 그 사람을 내- 사모하다가 병이 나서 인제 죽었는가봐. 죽어가지고 인제, 그 남자가 인제 죽어가지고 여자한테 인자 그기 뱀이 돼가 가가지고, 그 여자한테 가가 몸을 칭칭 감고, 그래 탁- 이래 턱을 받치고 붙어가지고, 붙어가지고 오만 굿을 해도 안 되고, 오만 그거로 해도 안 돼서 어데 스님한테 물었다 하던가, 무당한테 물었던가 하이카네,

"그 총각이 그래 너무 좋아하다가 상사병이 걸리가 죽어서 그렇다."

고, 상사나무가, 옛날에 뭐 상사나무가 있었는가, 상사바위가 있었었는가?

"거기다 갖다가 그렇게 뭐 이 처녀로 죽이야 된다."

칸다 카대. 그래가 뭐 그 바위에 갖다가 죽있다 카대. 그런 이야기도 있어.

[동구 설화 209]

자기 새끼 예뻐하는 줄 아는 호랑이

안태임(여, 1930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1동 초강노인분회]

옛날에 우리 언니한테 들었는데, 언니 또래의 그 애들이 산에 인자 나물로 뜯으러, 산나물을 뜯으러 갔는데, 진짜 호랑이 새끼가 나와가지고, 너무 이쁘더래. 그래가지고 마 이쁘다고, 막 이쁘다고 막 쓰담고 여럿이 마 딜다보고 쓰담고 마,

"아이고, 우리 집에 가(가지고) 가서 키우자."

이래 쌌고, 이래 싸이까네, 어미 호랭이(호랭이)가 저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는.

"어흥-."

카면서, 소리를 내더라 안 카나. 그래가 이 호랭이 새끼고 뭐고 내삐려두고(내버려두고) 가는데, 인자 어느 친구가,

"아, 그 호랭이 새끼는 놔뚜면 안 된다고. 호랭이 새끼를 직이자,"

이랬는가 봐. 그래 인제 직이는 몬 하고 도망을 갔는데, 그 호랑이가 밤에 그 애들이 나물 바구니고 뭣이고 다 내삐리고 갔는데, 그 나물바구니를 전부 다 집에다 갖다놨더라 안 카나. 갖다놨는데, '직이뿌자.'하는 그 애는 나물바구니를 전부 뜯어가지고 그래가 갖다 놨더라 카대. 그거는 우리 언니한테 들었어. 직접.

[동구 설화 210]

여우가 되어 집안을 망하게 한 딸

안태임(여, 1930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1동 초강노인분회]

여자 입이, 이 입이 참 부정스럽은 거라. 그래서 입을 항상 조심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인제 옛날에 여자가 아들을 다섯을 낳아놓고, 그래 너무 인제 그게 마 좋아가지고 딸을 하나 갖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하, 매구 겉은 딸이라도 하나 낳았으면, 또 뭐 겉은 딸이라도 하나 낳았으면."

내- 그렇게 입방정을 떨었는 기야. 그래 진짜 딸이 하나 생겼어. 막내이 딸로 하나 낳았어. 낳아놓으니까네 이 딸이 마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마 굉장히 마 그랬대요. 그래가 인자 딸로 키우는데, 그 딸이 한참 컸는데, 나도 다 잊아뿌리가지고 모르겠다.

그래가 컸는데, 저게 성장을 했는데, 처녀가 되도록 컸겠지. 아들 다섯은 다 뭐 그놈이 장가도 가고 어른이 안 됐겠나? 그런데 인자 처음에 인자 짐승이 하룻밤 자고 나면 짐승이 한 마리 죽어가 있고, 또 하룻밤 자고 나면 짐승이 한 마리 죽어가 있고. 그래서 '이 짐승이 우째서 이래 죽었는고?' 싶어갖고, 그걸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인자 오래비 중에서 인자 장가 안 간 사람이 있었던가. 인자 옛날에 소를 키우면 소막 위에, 소막 우에 인자 이렇게 더금이라 카거든. 이층같이 올리가 그다 뭐 연장도 다 올리놓고 뭐 뭐 다 올려놓는 더금이 있었거든.

그 더금에 올라가서 밤에 지켰는 기라. '누가 와서 이렇게 소를 죽이고, 짐승을 죽이고, 이래 했는고, 뭣이 와서 그래하는고?' 싶어가지고 그 망을 봤는 기라. 망을 보니까네, 그 밤중 되니까네 동생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짐승을 그렇게 간을, 손을 확- 해가지고 창시를(창자를) 그래 빼가 묵고(빼 먹고), 그 짐승을 죽이더라 안 카나.

그래가지고 인제 엄마 아버지로 불러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어.

"동생은 인제 키우면 안 되겠다."

고,

"그래 우째 해야 되겠느냐?"

고, 이야기를 하니까네,

"아이고, 이 못된 놈이 그 여동생 하나 있는 거를 갖다가 그렇게 죽일라고 그렇게 한다."

고, 마 아들을 엄청 야단을 치고, 그래 마 아들을 쫓아냈다. 쫓아냈대요. 그래 아들은 쫓기나가가 저 다른 데 가가 살았는가? 사는데, 그 딸이 매구가 돼가지고, 마 온 동네 짐승을 다 잡아묵고, 동네 나중에 사람도 잡아묵고, 동네가 완전 망해가지고, 그 엄마 아부지도 다 잡아무놓이 쑥대밭이 완전히 됐다 하대.

이 오래비도 아주 먼 데 가서 살았나 봐. 그래가 인제 한 번은 궁금해서 인자 '우리 동네가 어찌 됐는고?' 싶어가지고, 말로 타고 온다고, 그 동네 찾아온다고 온께네, 길 가에 오는데 도사를 만나가지고, 도사가 그래,

"당신이 오데(어디) 가느냐?"

묻더란다. 그래,

"이만 저만 그래가 우리 부모들이 어떤가 싶어서 궁금해서 간다."

하니까네,

"당신이 거 가면 죽는다."

고, 몬 가구로 하더란다.

"그렇지만은 부모가 어찌됐는고 궁금해서 한 번 가봐야 안 되겠냐?"

그러니까네, 무슨 뭐 다섯 가지 뭐 주더래요. 줘서 이거를 가가서 처음에는 뭐 어떤 거를 떤지고, 뭐 어떤 거를 떤지고, 뭐 어떤 거를 떤지고, 다 갈챠줬나봐(가르쳐줬나봐).

그래가 가이까네, 이 동네는 다- 망하고 자기 집에는 고대로 있대요. 가니까 동생이 커가지고 머리가 어디까지 내려오고, 그리 커가 마. 아이고 가니까네 오빠가 왔다꼬, 막- 좋다꼬, 오래비 왔다고 좋다고, 그래 쌌더라 카대.

"엄마, 아버지는 다 오네 갔냐?"

물어보이카네,

"엄마 아버지 다 죽어서 저 뒷동산에 묻어놨다."

고, 그라더란다.

"그라면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가보고 오께."

아 그래. 오빠 갔다가 꼭 오라고, 오면 내가 저 뒷밭에. 옛날에 정구지로 경상도 말로 소풀이라고 그랬다. 소 풀로 밭에 심어놨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걸 비가(베어) 나물로 해서, 내가 밥을 해놓을 낀께네(것이니까) 오빠가 꼭 갔다가 오라. 캤다네. 그래가 이 오빠가 가기 전에 그 사람이 시켰겠지.

"방 세 구석에다 똥을 누우놓고 그리 가면, 그 동생이 오빠를 부르면 대답을 할 끼라고 그래 해놓고 가라."

카더라네. 그래가지고,

"아부지 엄마 뫼에 갔다 오꾸마."

카고, 오빠가 멀리 도망을 가는 거지 인자. 갔다가 말로 타고 도망을 가는데, 이 동생이 인자 오빠를 부르니까네, 그 똥이 대답을 핸 기라. 똥이 대답을 했대. 그래 세 번을 불렀는데, 세 번을 대답했는데, 나중에 소리가 없으니께 문을 열고보이 오빠가 가고 없거든. 그래가 매구니까 날라 안 갔겠나? 그래가 마 오빠를 잡으러, 마- 천지로 잡으러 가는 기라.

"오래비(오빠) 한 때, 말 한 때. 두 때거리 생겼는데, 오빠가 갔다."

고,

"오래비 한 때, 말 한 때."

함서, 마 따라가니까네. 그래가 그 도사가 뭐 시킨 대로 뭐를 떤지니까네 까시밭이 되고, 또 뭐를 떤지니까네 [조사자: 불이 되고] 불이 되고, 뭐를 떤지니까네 또 뭐 강이 되는 거라.

다 떤찠는데 강이 되니까네 몬 따라오더라 안 카나. 그래가 강 건너 쳐다보고 쳐다보고,

"오라버니 한 때, 말 한 때. 두 땟거리 생겼는데 갔다."

고, 마 오래비를 보고 그래 욕하고 그라더란다.

[동구 설화 211]

우애 좋은 형제

안태임(여, 1930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1동 초강노인분회]

형제가 살았는데, 인제 형제 중에서 인제 큰형이 쫌 몬 살았던가 봐. 동생이 좀 더 잘 살고. 이러니까네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동생이 얼마나 마음이 착한지, 형님은 조상도 모시고, 부모는 다 돌아가셨던가 봐. 조상도 모시고 그러면 식량도 많이 들고 할 텐데, 형님이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인제 밤에 나가가지고, 가을에 인자 옛날에 볏단을 뭉쳐서 인제 마르라꼬(말리려고) 논가에 세워놓잖아.

그럼 그 벳단(볏단)을 행님 논에 갖다가 놓는 거야. 밤에 몰래. 형님은 또 동생은 인자 결혼해가지고 지 살림에 뭣이 부족할 낀데 싶어가지고, 형님은 몰래 나가서 볏단을 또 동생 논에다 갖다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자 그런 게 다 인제 소문이 나고 이래가지고. 그래 우애 좋은 형제야 그렇게. 그래서 큰 상을 받고 그렇게 잘 살았단다.

[동구 설화 212]

제삿날 가는 귀신을 태워준 택시기사

안태임(여, 1930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1동 초강노인분회]

운전을 하고 갔는데, 차를 태와 돌라(태워 달라) 캐서 차를 태워줬는데, 어느 집에 어느 데 내라달라 캐서 내라줬는데, 차비를 안 주는 기라. 차비를 안 줘서 아무리 기다려도 차비를 안 가져와서, 문을 뚜드리고 인자.

"이 집에 딸이라고 들어갔는데, 내가 어데서 태와 왔는데 차비를 안 준다."

카이까네, 그 부모가 차비를 주더라 카대.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인자 자기 딸이 죽었는데

그 날이 제삿날이라 하더라 카대.

[동구 설화 213]

도깨비와 친구 되어 부자 된 사람

안태임(여, 1930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1동 초강노인분회]

토깨비도(도깨비) 옛날에 많이 놨잖아. 우리 어렸을 때부터 토깨비가 있었어. 저 건너 마을에 저 보면 도깨비불이 막 빤-짝- 하디 오그라졌다 그래 하거든. 그래 그 토깨비들이, 인자 어느 집에서 토깨비를 사귔는 기야.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지. 인자 토깨비를 사귈라 카면 뭐, 저런 밭에, 그 겨울에 있는 밭에 그거로 안 하잖아. 그래 빈 밭에다가 죽을 한 -동이 낋이다가(끓여서) 빈 밭에 그기 갖다 놓으면, 밤에 토깨비 와갖고(와서) 온 데 퍼먹고 그라면은 고기도 엄청 큰 거로 잡아가 갖다 주고, 뭐 오만 거로 다 갖다 준대.

그래 인자 갖다 주다 갖다 주다 갖다 줄 끼 없으면, 산에 시체를 파다가(파서) 마 갖다 준다대. 그럼 그걸 떼야 될 것 아이가? 그래 인자 토깨비가 오만 걸 갖다 줘가 부자가 됐어. 부자가 됐는데, 그래 인자 토깨비를 떼야 되는데, 인자 그 사람한테 또 물었는가 봐.

"토깨비를 뗄라카면 어떻게 떼야 합니꺼?"

"토깨비를 떼면 집이 망한다."

카더란다. 그래도 그걸 우짜겠노? 죽은 시체도 갖다 주고 그라이 어짤 끼고? 떼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토깨비를 뗐는가봐. 인자 말 피를 제일 무섭어한다대.

"피를 갖다가 온 데 묻혀놓으면 도깨비가 떨어진다."

카대, 그래가 피를 갖다가 온 데다 뿌리가지고 토깨비 뗐는데, 떼고나이까네 토깨비가 밤에, 그 지가 자빠져가지고 인자 부자가 됐는 그 인자 논 뿌시기, 밭 뿌시기 가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마 말뚝을 마 친대. 말뚝을 '으쌰 으싸' 하면서. 논 겉으면 논 네 구식에(구석에) 다 말뚝을 치고, 밭에는 밭에 네 구식에 말뚝을 치고. 그래가지고 빼간다 이거라. '으싸 으싸'하며 다 빼가고.

그래 그리 하고 나면, 그 밭이고 논이고 그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기라. 곡석을(곡식을) 아무리 심어도 안 되고. 그래가 다 망한다 카대.

[동구 설화 214]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안태임(여, 1930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1동 초강노인분회]

옛날에 장에 갔다가, 산을 막 넘어서 지름길로 옛날에 차가 없으니깐에로 그렇게 다녔잖아. 예전에 그래 장에 갔다오면, 그 토깨비 만나면, 이놈의 도깨비가 마 내- 씨름만 한다 카대. 씨름을 해가지고 그래 사람이 기운이 빠지면 끌고댕기다 어데 구석 같은데, 물덩이 같은 데가가 쳐박아버리고.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고, 살아난 사람도 있고 이런데. 살아난 사람도 마 오래 몬 살고 그렇다 카대.

[동구 설화 215]

봉사, 벙어리, 귀머거리로 살아야 하는 시집살이

안태임(여, 1930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1동 초강노인분회]

시집보낼라 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인자 엄마가 그 하면은,
"버버리(벙어리) 삼 년, 귀먹어 삼 년, 무슨 삼 년. 육 년만 그렇게 살고 나면은, [조사자: 봉사 삼 년.] 그래. 봉사 삼 년, 버버리(벙어리) 삼 년, 귀먹어 삼 년. 육 년만 살고 나면은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으니께네, 그 동안은 그렇게 살아라."
시키더라 안 카나. 그래. 그니까네 젤 말로 조심해야 하고. 봐도 몬 본 체, 들어도 몬 들은 체 그렇게 살아라 안 하나.

[동구 설화 216]

여자가 함부로 말 하면 안 되는 이유

유충희(여, 1928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1동 초강노인분회]

옛날에 이래 사는데, 식구들하고 다 사는데, 자기가 운명하면서,
"너거 엄마는 뭐가 무슨 소리 할 테이까네."
아들 보고,
"저 배껕(바깥)에 나가가, 나가 있어라."
카이까, 이 여자가 무슨 소리하는가 싶어서 막 귀를 쫑그리가 들었어. 그래 남자가,
"내 죽거든, 요 샘에다가 이 머리를 띠다가(베어서) 갖다 옇어라."
이래 그러더란다. 그래갖고 그 소리를 세상 듣고는, 이 사람이 인자 말이지 하늘에 말로 타고 등천을 할 낀데, 여자가 마 전부 그 갤차주(가르쳐줘).
"머리 비갖고(베어서) 사람들, 동네사람 물 먹는데 갖다 옇었다."
카네. 물을 퍼부은께네, 말로 타고 딱 한 쪽 발 마저 디디가 올라갈 낀데.
여자가 말을 함부도록(함부로) 하는 기 아이요. 할 말만 해야지. 입을 갖고 죄로 짓는다 아이요.

[동구 설화 217]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박정순(여, 1951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2동 새마을경로당]

그 애기가 울고 있는데, 호랭이가 온대도 애가 울고 있는 기라. 그러니까 인자,
"꽂감을 준다."
하니까, 뚝 그칬는 거야. 그런께 그만치(그만큼) 꽂감이 맛있는 모양이지. [일동 웃음]

[동구 설화 218]

아들 부부가 합방하는 것을 싫어하는 시어머니

박춘자(여,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2동 새마을경로당]

그 사람이 자기네 메느리를 들였는데, 자기 메느리를 새벽에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서 만날 그래 저 엿을 보고(엿보고), 이 자기 아들하고 메느리 하고 한방에서 자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래갖고 옛날에는 앞에다가 시골에는 막 풍채를 치는 기라. 발을 쳐서. 그래놓으면은 메느리는 모르잖아요? 날 새는 걸. 요즘에는 시계도 있고 별게 다 있지만, 옛날에는 시계가 없거든. 그러면 그걸 탁 둘러 쳐놓면은 캄캄하니까 인자 날 새는지 모르고 자는 기라. 그래서 시집살이를 시켰어.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언젠가 돌아가시게 됐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자리에서 바로 구렁이가 되더라요. 바로. 그래 그런 소리 다 있어.

[동구 설화 219]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박춘자(여,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2동 새마을경로당]

옛날에 애기가 '응애' 우는데, 아가가 만날 울려도 안 듣거든? 그래
"호랭이 온다."
그래도 우는 거야. 그래서,
"아가야. 꽂감 주마."
그란께 울음을 그쳤어. 그러니까 호랭이, 호랭이가 하는 소리가,
"아, 꽂감이 나보담 더 무서운 거구나."
그라고 호랭이가 도망 가버렸어.

[동구 설화 220]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이은자(여, 1949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2동 새마을경로당]

그 아버지가 할머니를, 할머니를 지게다 지고 인자 그 산에다 버리러 가는데, 자기 아들을

덱고(데리고) 갔어. 고 놈의 아들을 덱고 갔는데, 인제 그 높은 산에다 버리면서 밥 쪼매, 쪼끔 인자 막고, 그거 먹고, 떨어지면 죽어라고 쪼매 음식을 놓고 오는데, 지게를 안 갖고 오니까 아들이 허는 말이,

"아버지, 저 지게를 갖고 갑시다."

그러는 걸.

"지게를 뭐 하러 갖고 가노?"

그런께,

"나도 커가지고 아버지를 지게다가 지가, 여다 버리갖고 버리고 와야 될 것 아니냐?"

고, 그래갖고 그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그 할머니를, 어머니를 모시고, 지게다 모시고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동구 설화 221]

고부간의 은밀한 비밀

이은자(여, 1949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2동 새마을경로당]

시어머니도 과부, 메느리(며느리)도 과부. 그러는데 인자 강을 건너서 가야만 제사상을 보는데, 사공이 하내 하나씩뿐인 거라, 젊은 사공인데, 딱 한 사람뿐이 모시니까는, 사공이 가만히 시어머니 보고 메느리 본께, 젊은 놈부터 먼저 실어다 날래야(날라야) 겠거든. 그래갖고 메느리부터 탁- 싣고 가고, 중간에서 인자 메느리하고 눈이 맞아갖고 해삤는데,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시어머니가 저 쪽에서,

"아이고 야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 강을 건너 놓고 사공이 생각한께, 입을 막아야 했거든. 시어머니 입을 막아야 되니까. 대충 시어머니 태워 놓고 중간에 가서 또 시어머니까지 또 따먹었어. [웃음] 그래갖고 딱 그 시장에 들어가는데 메느리가 와 뭐라 했냐면, 시어머니더러,

"아이야, 니만 알고 내만 알고, 하늘이 알고 땅만 알자."

[동구 설화 222]

날짐승을 잡아먹어 망한 집안

이은자(여, 1949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2동 새마을경로당]

우리 집에, 자기 집에 딸라 들어오는(따라 들어오는) 짐승은 죽이면 절대 안 돼. 꿩이라든가, 새라든가 모든 날짐승이 왜 집안으로 들어온 적이 있거든.

옛날에는 부엌, 정지라고 있어. 정지를 일케(이렇게) 탁- 앉으면은 꿩이 들어와갖고는 그 나무를, 이렇게 나무에다 딱 머리를 숨기고, 어디서 도망 왔는데, 그 탁- 처박았는데, 꿩이나 새는 머리부터 처박는 기라. 몸띵이(몸뚱이)는 여기 놔두고 몸띵이는 비기나(보이거나) 말거나. [웃음]

그걸 잡아갖고 좋다 해갖고, 그걸 끓여먹었는 기라.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 집이 우환이 들기 시작했잖아. 차근차근 마 아파가지고 마 사람이 전-부 죽어 나가는 기야.

[동구 설화 223]

단칸방에서 몰래 나누는 사랑

이은자(여, 1949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2동 새마을경로당]

애들이 많으면 인자 거시기 한께. 문 앞에는 마누라가 자고, 저쪽 안 구석에는 남자가 자고, 어떻게 인자 할 수가 없으니까, 내나 신호를 인자 그때 보내니까는 남자가 허- 이렇게 가는데, 인자 온데 이마빡에다 쭈욱- 끄실고 갔는 기라. 끄실고 가갖고는 인자,

"에이, 갈라면 좀 좋게나 하고 가지. 와 표식을 내고 갑니까? 아버지는."

이래 했다 안 하나. [청중 웃음]

[동구 설화 224]

도깨비가 되는 빗자루

이은자(여, 1949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2동 새마을경로당]

그런 일이 있었어.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 도깨비를 왼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싸울 때 이래 묶어놓고 아침에 가면은, 뭐냐면? 주로 그 수수 빗자루 있잖아. 고건데.

그 여자들 그 옛날에 아궁이 따뜻하게 했다 아이가. 그거 깔고, 앉을 거 없으면 그 빗자루 깔고 앉아서 때웠거든. 그러면 여자들 멘스가 있잖아? 멘스가 묻으면 그게 도깨비로 변한다 해 못 깔고 앉게 했어.

[동구 설화 225]

구렁이보다 더 독한 두꺼비 독

이은자(여, 1949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2동 새마을경로당]

두꺼비하고 구렁이하고 싸움을 하면은 똑같아. 왜 그렇냐면은 두꺼비가 그 구렁이를 갖다가 약을 올리는 거야. 그런데 선뜻 잡아먹을 수가 없어. 두꺼비 독이 너무 쎄가지고. [조사자: 독이 세다대예.] 예. 그런데 이놈의 것이 '날름, 날름, 날름.' 약을 올리면은 어쩔 수 없이 구렁이가 그 두꺼비를 잡아먹으면 그 자리에서 구렁이가 죽는 거야.

죽어가지고는 싹- 뼈가 녹아나면서 그기서 두꺼비 새끼들이 자란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

[동구 설화 226]

따귀 맞은 아들

이은자(여, 1949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2동 새마을경로당]

인자 애들 재워놓고 한다고, 어 어 신바람 나게 하고 있는데, 애가 딱 일어나서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아비가 따귀를 때린께,

"야 이놈아. 나같이 자는 척-하고 있으면 안 맞을 텐데, 뭐 할라고 일어나서 쳐다 봤노?"

[조사자: 누워서도 잘 보인다고.] 응. [웃음]

[동구 설화 227]

선녀와 나무꾼

이은자(여, 1949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2동 새마을경로당]

그거는 인자 선녀가 내려와갖고 목욕을 하는데 인제 선녀들이 혼자 와서 목욕을 한 게 아니라 여럿-이 와서 연못에 와서 하는데 나무꾼이 보니까는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살짝이 한 벌을 감췄어. 옷을 한 벌을 딱 감춰갖고, 감췄는데, 인제 시간이 딱 자정이 되니까 올라가는데, 한 선녀가 옷이 없어서 못 올라갔는 거야.

그래갖고 울고 있는데, 나무꾼이 모른 척- 하고 자기 집으로 델고 가갖고 살았어. 사는데 그 날에 스님이 얘기를 해주기를, 그 나무꾼한테,

"애 셋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옷 훔쳤단 말을 하지 마라. 맹세를 하라. 맹심을(명심을) 하고 있어라."

그랬는데 애를 하나 낳고 둘 낳고 하니까는, 세월이 흐르니까는, 인자는 '뭐 내 사람이지. 안 도망가겠지.' 하고는 선녀한테 그런 얘기를, 자기가 너무 반해서 그러다보니까는 그렇다면서 옷을 갖다가 보이니까, 선녀가 눈이 뒤집어진거야. 그래갖고는 그 선녀가 옷을 입고 양쪽 팔에다 아를 안고 하늘로 올라갔는 기라. 그래갖고 그 남자는 그 땅에서 울고.

그래가 그 스님 말을 들었으면, 셋이면은 양쪽 팔이 하나가 남으니까는 못 올라간다 이 말이라. 근데 이기 중간에 가서 그 언약을 깨가지고는 마누라를 잊어버린 거야. [웃음] 그게 이야기가 그렇게 되더라고.

[동구 설화 228]

신식보다 옛날식대로

이은자(여, 1949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2동 새마을경로당]

농이 이렇게 있고, 하러 드가니까 농이 여기 있는데, 하도 남의 집에는 신식으로 인제 한다는 소리를 남자가 듣고는,

"야, 우리도 오늘 지녁에는(저녁에는) 신식으로 한 번 해보자."

그래갖고는 여자를 갖다가 농에다 인자 세워 놨어. 농에다가 딱 세워놔갖고는 남자가,

"하나, 둘, 셋."

해갖고는, 달려가갖고 착- 하니까네, 이놈의 그 삼층장 그런 것이 '와장창창' 무너지이. 아들 자석들이 일어나갖고,

"아부지, 옛날 그 식대로 좀 하이소." [일동 웃음]

[동구 설화 229]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이은자(여, 1949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2동 새마을경로당]

스님이 시주를 하러 다니는데, 넘의 집에 가서 저저 시주를 좀 하라니까는, 시주할 게 없어 아를 까불리면서,

"시주할 끼 없는데, 우리 아를 시주하까? 뭐하까?"

이라면서, 여자가 인자 입방정을 떨었는 기라. 그래갖고 인자 가갖고 애기니까 시주를 못 받아갖고 가가지고 종을 만드는데, 종이 소리가 안 나는 거라. 전국에서 다 걷은 그 시주로 만드는데 종이 안 울어.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애를 시주를 안 받아 왔는 기라.

그래갖고 그 집에 가서 그 아를 갖다가 데리다가, 그 아를 녹이가지고 종을 만들었는데 그 때부터 종을 치니까,

"에밀레-."

하면서러. 그 종이 그때부터 종이 울어가지고. 그 엄마를 원망하는 게, 우는 게,

"에밀레."

엄마를, 자기 엄마를 원망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어.

[동구 설화 230]

영도에서 나오면 망하는 이유

이은자(여, 1949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2동 새마을경로당]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은 영도 들어가면 못 나오는 이유가, 옛날 이야기가 뭐냐면은, 영도에서 돈을 벌면은, 그게 지금 봉래산인데 고갈산이란 말이야. 고갈산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이사를 가면 그 돈을 싹- 회수를 해뿐대. 그래갖고 쫄딱 망해갖고 다시 못 들어가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라.

[동구 설화 231]

여자 음부를 문 게를 떼어준 사또

이은자(여, 1949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2동 새마을경로당]

어찌 됐냐면은, 인자 여자가 강을 건너야만이 자기 집을 가는데, 보따리 이고, 인자 이고 이렇게 가는데 오줌이 너-무 마려우니까, 오줌이 마려우니까는 한 손으로 이캐(이렇게) 해뿌고, 옷을 까뒤비갖고 오줌을 '철철철' 싸는데, 이놈의 게가 뜨거운 것이 뭣이 인자 기암을 하니까는[30] 딱 집게로, 발로 물어뿌맀어. [웃음] 그래가 여자가 아파갖고, 막 여자가 아파갖고 막 엉거주춤해갖고,

"어-, 사람 살리라."

하는데, 저 지나가는 스님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스님이 쪼금쪼끔 가갖고는 보니까 그 모양이니까는, 스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이렇게 해갖고, 이래 해갖고는 하나는 그래갖고 뚫어놓니까는 집게가 하나가 이 스님 조동아리를(입술을) 딱 물어버린다. [조사자: 양쪽에.] 그래가 하나는 거기 물고, 하나는 조동아리 물고 있고. 그래가 인자 기가 막혀갖고.

그 사또가 인자 행차하고 있는데, 사또가 인자 오는데 그 광경을 보니까 사또가 기가 막혀가,

"여봐라. 저 가서 어떤 일인가를, 왜 스님은 여자, 빨가벗은 여자를 저렇게 바라보고 있노? 한 번 가서 봐라."

사또가 그래놓이 나졸이 가서 보니까네 참 그럴 풍경을, 웃기지도 않은 풍경이니까는 와갖고,

"사또님, 이래 이래가지고 끼가 하나는 스님 조둥이를 물고 하나는 그를 물고 있습디다."

그래,

30) '기함'의 한자어는 '氣陷'으로 갑작스레 놀래 소리를 지르면서 넋을 잃는다는 의미.

"그래?"

그래갖고는 사또가 인자 나졸 없이 들어와갖고는, 그다 대고, 나팔을 갖다가 거따(거기다) 대고 팍- 불어놓니까, 끼가 놀래갖고 톡 떨어져나가갖고는 해결이 되았어. 그러니까 그 사또가,

"아이고, 사또 생활 삼십 년만에 씹나팔 불기는 처음이구나."

하더란다. [일동 웃음]

[동구 설화 232]

신도가 끊겨 망한 절

이은자(여, 1949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2동 새마을경로당]

이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 거 같은데, 그거는 오래됐어. 그게 우예 됐냐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이 장안사가 아주 유명했대요. 유명했는데, 신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 공양주가 일이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러 어느 지나다 오가는 스님이, 스님한테 물었는 기라.

"내가 이 집에 신도가 떨어지게 할라면, 신도가 떨어지게 할라면 어떤 방법을 써야 신도가 떨어지겠냐고?"

"도저히 몸이 고달파서 못 살겠다."

하니까,

"그럼 내 하는 대로, 내 시키는 대로 할라요?"

그러니까는, 인자,

"시키는 대로 다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는 스님이 뭐라 하냐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공양간에다 오줌을 싸고, 오줌을 싸고. 머리를 감아갖고 그러께네 그것을 부엌에다가, [조사자: 물을?] 어. 물을. 날마다 한 백일 정도를 그렇게 계속 안 닦고 하면은 인제 손님이 없을 꺼라."

그랬어. 그래가 그 말을 명심하고 내 그대로 하니까 손님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야. 신도가. 신도가 점점점점 떨어져갖고는, 신도가 막- 떨어져나가니까 지도 나가야 될 거 아니가. 손님이 없는데 공감주가 뭔 필요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절도 망하고, 지도 몸담을 데가 없어갖고 그 절을 떠났다는 옛날 전설이 있

었거든. [조사자: 그게 장안사구나.] 그게 장안사야. 그 장안사가 그렇게 유명했다는 거야 옛날에. 그래갖고 그 나쁜 공양주를 만나가지고. [조사자: 절이 망했다?] 어. 망했어.

[동구 설화 233]

집지킴이 구렁이

이은자(여, 1949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2동 새마을경로당]

초가집이 있을 때는 진짜로 인자 초가 거시기를(초가지붕을 말함) 일 년에 한번 씩 연말에 한 번 인다 아이가. 그러면은 걷어내면은 그렇게 구렁이가 또아리를 빽- 틀고 있는 기라. [청중: 지금도 있다.] 어.

그라고 그거 인자 내려오면은 밥을 한 상씩 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밥을 한 상씩 딱- 해가지 이렇게 놓았었어. 문간에다가. 그러면 또 그거 이고 나면, 구렁이가 또 올라갔어.

그걸 지킴이라고 우리는 그랬어. [조사자: 그거 죽이면 안 되죠?] 큰일 나. 망조 들지.

[동구 설화 234]

부부간의 이상한 대화

이은자(여, 1949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2동 새마을경로당]

그것도 그거지만은, 메느리 오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쪽방이라. 저 옛날 집은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옛날에 선풍기도 없는 시절인데,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열고 인자 하는데, 하고는 싶고, 부부간에 합은 하고 싶고, 하고 있는데, 여자가 이렇게 누워서 보니까 남자가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거든.

근데 얘기 중이었나 봐. 그러니까네,

"누군가? 누군가?"

이 여자가 그러니께, 남자가 좋은 줄 알고,

"피었습니다."

여자가,
"누군가?"
하면, 남자는,
"피었습니다."
"누군가?"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일동 웃음] [조사자: 아, 세상에.]
그래가지고 인자는 남자는 안 보이니까. 여자는 보이니까 그냥,
"누군가?"
하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웃음]

[동구 설화 235]

받침을 빼고 쓴 편지

이은자(여, 1949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2동 새마을경로당]

받침을 다 빼먹고, 인자 편지가 왔는데, 그래 옛날 어머니들은 글을 모르는 엄마들이 많으니까, 우체국 아저씨더러 좀 읽어 달라 하니까는,
"어머니 보지도 쌔카맣고, 형수님 보지도 쌔카맣고."
어, 그게 '본지가 오래됐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는,
"아저씨요. 잠깐 가만 있어 보이소. 야가 지 날 때 나 보지는 봤지만은, 지 형수 보지는 언제 봤제?" [일동 웃음]
그런다 커대.

[동구 설화 236]

혀 짧은 사람의 보리타작 소리

이은자(여, 1949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2동 새마을경로당]

인자 보리를, 보리타작을 하는데, 인자 저거 형수네 것도 하고, 지 것도 하는데,
"에고, 어머니, 어머니 보지도 내 좇이 가야 되고, 행수님 보지도 내 좇이 가야 되고."
[일동 웃음] 그래 그게 뭐냐면? '내 손이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형님의 보지도 내 좇이 가야 되고."
그기 나오는 기라. 인제 혀가 짧아놓니까네. [조사자: 형수님도 내 좇만 바라고.] [일동 웃음]

[동구 설화 237]

봉사와 벙어리 부부의 대화법

장일애(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2동 새마을경로당]

"어데 불났노?"
카이까네, 여 등넘에 불 났다며 등을 쓱쓱 카이,
"아. 등넘에."
그러다,
"얼마나 탔노?"
카이까네, 남자 꼬치를 잡은께,
"기둥만 남았구나." [일동 웃음]
안 카더나? 나도 그런 얘기 들었어.

[동구 설화 238]

고양이로 범인 잡는 양밥

곽효이(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2동 우국부녀경로당]

뭘 잊어뿌맀는데,
"이 임자를 찾아주라."

카고, 이렇게 해갖고 그 물로 낋이면(끓이면), 기름인가 물인가 낋이가 고양이를 그 안에다 확 집어넣으면 뜨겁잖아? 그래 팍- 뛰어갖고 그 사람 가서 붙어갖고 그 사람 막 까레빈다(할퀸다) 하대. 그 카대. 그래서 범인을 잡는다꼬. 그 말이 있더라.

[동구 설화 239]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금돌(여, 1929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2동 우국부녀경로당]

아들이 칠십에 고래장(고려장), 칠십에 고래장 한다 안 하더나? 산으로 어마이를 인자 내삐리고, 구덕을(구덩이) 파고, 내삐리고 갔는데, 엄마가 지게에 타고 가면서,

"야 야, 올라갈 적에 옆에다가 나뭇가지를 끈꺼놓던가(끊어놓던가), 뭐로 붙이던가 표 해놔라."

그라더라꼬. 그래, 그 가믄서 엄마 시긴대로(시킨대로) 인자 요 나무에다가 표를 해놨어.

"그래, 엄마 왜 그라요?"

이라이까네,

"니 나중에 혼차 내려올라카믄 길을 잊어삘까봐. 길을 잊어묵을까봐. 포(표)해놔야 그 포한 걸 보고 따라 내려오제."

그라더라 쿠대. 그 이야기만 하지 그 다음은 몰라.

[동구 설화 240]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김금돌(여, 1929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2동 우국부녀경로당]

마당에다가 곡슥을(곡식을) 항거[31] 늘어놓고 쟁피(갱피)를 훑으러 갔어. 쟁피라 쿠는 거는 나락밭에 피는 [조사자: 피.] 피라 하대. [청중: 피. 피.] 쟁피라꼬. [청중: 못 먹는 피, 쟁피씨

31) '항거'는 많다 라는 의미. 주로 경북에서 많이 쓰는 말.

가, 쟁피씨가 지금은 뭐 보약이라고 그래 좋아하지.] 그거를 훑어다가 양재기[32]로 하는 기라. 양재기를 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쟁피 아주매라꼬. 뭣이 만날 그거 적노?[33]

"저 아주매, 쟁피 아주매가?"

이라거든. 거제도에서 내 들었다꼬. 그래 그런께네 집에다 나락을 항거 늘어놓고, 비가 와도 쟁피를 항거 훑어가 오니까, 바앙서(방에서) 서방이 앉아 공부하면서, 그 나락. 저 덕석이 다 떠내려가도 안 덮어올리더라고 안 합디까. 공부한다꼬. [청중: 옛날에 선비들.]

[동구 설화 241]

도깨비가 되는 빗자루

김금돌(여, 1929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2동 우국부녀경로당]

도깨비불이라고 해서 종마다 솔끼가(종들이 홀려서). 하루 저녁에 그 근처에 죽는다 하고, 뭐를 표시로 해놨더라 카네. 표시 해놓고 아침 자고 인자 나가본께, 쓰던 빗자리 몽대이[34] 그기라 카대.

[동구 설화 242]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김춘자(여,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2동 우국부녀경로당]

할매들이 그랬는데 떡 항거시[35] 해가 이고 가는데, 고부[36] 고부 산 넘어 가이께네, 한 고부 가이께네,

32) '양재기'는 '양푼' '큰그릇'을 의미하는 경상도 방언. 이야기 속에서 "양재기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음.
33) 이 말은 조사자가 기록하는 것을 말함.
34) '몽데이'는 '다리몽둥이'의 방언.
35) '항거시'는 '많이'의 경상도 방언.
36) '고부'는 높은 언덕이라는 의미.

"할매, 할매. 떡 하나 줘야 할매를 안 잡아 묵지."

해가. 떡 한 덩거리 줘뿌고나이, 또 한 고부 가니, 또 하고 그럭저럭 하다가, 그 떡고리[37]가 다- 비아지고, 늦가는 그 갈라 해도 가지도 몬 하더라 하대. 무섭은 짐승이 나와싸가지고.

[동구 설화 243]

도깨비가 되는 빗자루

지복심(여, 1931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2동 우국부녀경로당]

옛날에 밤늦게 댕기고 오는데, 뭣이 나서서 늘 앞에서 가로막아 싸니까, '그거 뭔가?' 잡고 한-참 싸웠대. 그기 몽둥이였다대. 반대로 끌려서 나무에다 칭-칭- 묶어놓고는 집에 왔어. 뒷날 아침에는,

"저가(저것이) 죽었을 꺼이다. 뭐인가 가보자."

캐. 빗자루.

[동구 설화 244]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최명자(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2동 우국부녀경로당]

그래, 그 지게를 이고 갔는데, 그 지게를 버릴라 카이,

"가가자(가져가자)

카더란다. 나도 죽으만 또 어마이맨치로 갖다 버리라꼬,

"지게로 가가자."

카더란다.

37) '떡고리'는 떡을 담아 두는 상자를 말함.

[동구 설화 245]

도깨비와 친구 되어 부자 된 사람

최명자(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2동 우국부녀경로당]

옛날에 하도 여자가 몬 살아가 토채비(도깨비) 영감을 얻었어. 그래 토채비 영감을 얻어놓이 마 억수로 잘 사는 기라에. 그래 인자 마 잘 사이까네 이 할마이가 배가 불러, 마 배가 불렀다. 인자는 마 못 살다가 잘 사니께네.

마 여자가 꾀로 부렸어. 인자 토째비에 몬 들어오라꼬. 토채비는 말 피가 젤 겁을 낸다 카네. 토채비 어데 가뿐(가버린) 녘에 마, 골목에다가 마 피로, 말 피로 이리 저래 꽉- 이래 흘이놨거든. 흘이나이 말이 들오다가, 아니 토채비가 돌어오다가(들어오다가) 놀래가 마 나가뿠어. '에이, 용이 난 여자가. 내가 그만치 대해주고 했더만. 인자 내하고 안 살라고 요라는 갑다' 싶어서, 밤새-도록 앞뒤로 논 좋은 데다가, 밤새도록 마 자갈로 갖다가 태산겉이 옇어뿠는 기라. 그래 그기. [청중: 도깨비가?] 어. 토채비가.

[동구 설화 246]

감을 따는 며느리의 방귀 힘

최명자(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2동 우국부녀경로당]

저 높은데 감을 몬 따가지고요.

"하, 저놈의 감을 따야될 낀데. 우예 된 기고."

메느리가 마, 방구를 쌔리[38] 끼뿌이, 감이 주루룩- 흐르더라 안 카나. [조사자: 그 방구가 복방구다 그지예?] 예. 예. 그래가 메느리를 쫓가보내뿔라 캤는데,

"아이고, 우리 메느리 싶고(며느리 삼고) 싶다."

카면서. [웃음] 감이 지질로(저절로) 떨어져뿌이께네. 방구를 끼놔이께네.

38) '사정없이'의 방언.

[동구 설화 247]

귀신이 보이는 질경이기름 불

최명자(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2동 우국부녀경로당]

빼뿌쟁이[39]. 그래 그거로 지름을 짜가지고 접시다 딱 담아놓고, 그래 심지를 해가 불로 딱 해놓으면, 구신이 그 나타난다 카대.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래 쌌대.

[동구 설화 248]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황봉심(여, 1951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2동 우국부녀경로당]

예전에 말하기를 에밀레, 에밀레종을 만드는데 아무리 만들어갖고 뚜드려도 종이 소리가 안 나거든. 소리가 안 나니까, 어느 도사가 하는 말이, 이를테면 인자 그 곡식을 이래 댕기면서 뭐 천 집인지, 만 집인지, 그거는 몰라도. 몇 백 집을 얻어갖고, 그거 갖고 팔아갖고, 고놈을 갖고 요래갖고 에밀레종을 만들어라 이랬는데.

아니, 어느 한 집에 가니까 어마이가 애기를 보듬고 요러고 있거든. 그러이께 시중을 하러 갔다 아입니꺼. 가니까 가서,

"시주를 하라."

니까,

"우리 아(애)나 갖고 덱고 가면(데리고 가면) 덱고 갈까, 아무것도 줄 끼 없어."

이래삐래 놓은 거 아입니까. 그래 그 질로 인자 시주를 해갖고 와가지고 절에서 종을 만들어갖고 아무리 해도 그기 소리가 안 나는 거라.

소리가 안 나서 인자 그래 결국은 어데 인자 알아보는 결과에 그기 부정이 타뿐 거라. 부정이 타가지고, 그 애를 잡아다가 이를테면 인자. '그 애를 에밀레종에다가 같이 옇어갖고 하면은 소리가 난다.' 이래갖고, 그 애를, 그 마을에 가갖고 그 애를 인자 어떻게 흥정을 했는가는 몰라.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내가, 덱고 와가지고 그 애를 불에다 넣어갖고, 삶아갖고 그

39) '질경이'의 방언.

애를 종이를(종을) 맨들어놔놓이, 그래서 에밀레 종이 그래 나왔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

[조사자: 엄마 때문에.] 어. 엄마 때문에. [청중: 입을 조심하라 그 말이다.] 입을 조심하라고. 그래서 에밀레종이 그래서 에밀레종이란다.

[동구 설화 249]

호식을 면한 오누이[해와 달이 된 오누이]

황봉심(여, 1951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2동 우국부녀경로당]

애들 둘이 덱고(데리고) 홀어무니가 묵고살 게 없어갖고 떡을 해갖고 떡을 팔고, 맨날 인자 산으로 산꼽으로(산골짜리로) 이래 댕기는데, 한 번은 떡을 해갖고 받아가지고 떡을 팔러 가니까 호랑이가 나타난 거야.

"그래. 당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인까, 한 뭉탱이 줬어. 또 쪼께 오다 보니까, 또 하나 이러케 자꾸 떡을 갈라주고 나니까, 다 갈라주뿌리고 나니까 없잖아요. 떡이 없잖아요. 그래이까 오다가 결국엔 이 어마이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어뿠어.

그래 이 호랑이가 애들 있는데 집을 찾아가가지고 그거 버선 있죠? 버선. 버선을 인자, 애들 문을 뚜드리니까 ,저거 엄마가 교육을 어떻게 시킸는지,

"우리 엄마가 아니면은 문을 열어주지 마라."

이랬는 기라. 그런께 목소리가 애들이 저거 엄마 목소리가 아인께(아니니),

"우리 엄마 아이다."

고, 문을 안 열어줬는 거야. 그러니께,

"우리 엄마는 버선발로 이래 신고 댕기고 이랬지. 발을 보니까네 우리 엄마가 아니다."

칸께, 호랑이가 인자 어른들 버선 요래 신고 이래가 문을 열었는 기라. 문을 여니까, 그래 인자 이래 보이까, 대문 옆으로 보이까 버선발로 있거든. 긍께,

"우리 엄마 음성이 아니다."

칸께, 또 자꾸 이래저래 변성을 하다 보니까 엄마 음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엄마 음성이. 긍께 우리 엄만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호랑이거든. 그니께 야들이 방을, 방으로 탁- 뛰들어 가가지고 숨다 보니까 영락없이 죽게 생겼어. 그래갖고 인자 빌었는 기라 야들이. 어! 그 뭐라 카더나? 뭐 동화에 나오는 그거 맨키로,

"저를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줄라 카거든 은 동아를(동앗줄을) 내주고, 안 그라면 썩은 동아를, 줄로 내리주소."

하니까는, 이 동앗줄이 이게 내려왔는 기라. 그래갖고 야들이 동앗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걸 보고 호랭이가 또 그 식으로 똑같이 했는 기라. 그런데 이 하늘에서 썩은 동앗줄로 내려보냈는 갑대. 그래갖고 올라가다 떨어죽었다는 그 전설이라.

[동구 설화 250]

선녀와 나무꾼

황봉심(여, 1951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2동 우국부녀경로당]

선녀가 그거 일종의 인자 보름에 한 번씩, 한 달에 옛날에 선녀탕에 내려와서 선녀들이 목욕을 싹- 하는데, 어느 나무꾼이 혼자 살았는 거라. 혼자 살다보니까 인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어여쁜 선녀들이 선녀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께 탁- 옆에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봤어. 봤는데, 그러기 전에 어느 스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느 선녀탕으로 가면 어느 선녀가 목욕을 할 꺼다. 그러면 니가 거기서 니 맘에 드는 옷을 한 벌 감챠라(감춰라). 감추면 그 선녀가 하늘로 못 올라가고 니 짝지가 되는데, 아를 서이(셋이) 날 때꺼지만 그 옷을 주지 말고 있어라."

이랬는데, 진짜 그 스님의 말을 듣고 막 거기서 용을 보니까, 진짜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하거든. 근께 그 스님 가르쳐주는 대로 옷을 한 벌 가르켜서 감췄는 기라. 그래 인자 목욕을 하고 선녀들이 다 하늘로 올라갔는데 하나만 못 올라갔잖아요.

긍께네 이 나무꾼하고 선녀, 이 나무꾼이 그 선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부부가 돼가 자식을 둘이를 놓았어(낳았어). 둘이를 놓았는데, 이기(이게) 일종에 인자 옛날에 보면은, 나무꾼이 가만히 생각하이, '자식을 둘이나 낳고 살았는데 [청중: 말해도 된다.] 인자 말해도 된다. 인자 설만들(설마) 자식이 둘이나 돼서 가겄나.' 이래갖고 나무꾼이 그 선녀한테다 얘기를 했는 기라.

"내가 미안하다. 사실 이렇게 이렇게 돼서 내가 나무꾼을, 이렇게 해갖고 당신하고 부부가 돼 살라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자슥을 둘이 낳는데, 설마 거(거기) 가지는 않을 끼고. 내가 미안하다."

카면서 하이까네, 그래 그때서 통곡을 하면서러,

"그래서 내가 하늘로 못 올라갔다."

하면서러, 그래 아를 옆구리에다 양쪽에, 서이 같으면 못 데리고 올라갔어라. 양쪽에 옆구리에다 딱- 차고 선녀복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뿠다. [청중: 스님이 그래 하기 전에 애기 서이 낳도록 말해주지 말라 캤는데, 둘이만 놓고 말해주이께네, 아(애) 한 손에 하나씩 품고 날라 올라갔답니다.]

[동구 설화 251]

한밤중에 화장실에서 자기 배필 보는 법

황봉심(여, 1951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2동 우국부녀경로당]

우리 때 이래 크면서 지지금(제각기) 배필을 볼라 카면, 화장실에, 밤 열두 시가 되면 칼을 떡 걸어 물고 화장실에 앉아서면 본다. 무섭어서 안 본다. [조사자: 아,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예?]

자기 배필을 볼라 카면, 옛날에는 재래식 화장실 아이가? 촌에서 이래 칼을 이래 걸어 물고, [청중: 아이고, 무시라!] 이래갖고 밤 열두 시, 딱 열두 시, 정각 열두 시가 딱 돼갖고 가서 똥을 누고 앉았으면, 자기 배필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데, 그러기는, 얘기를 이래 할 때는, '아, 저녁에 가서 인자 그래 해봐야 되겄다.' 하는데, 아측에 밤 열두 시가 되몬 무섭긴 무서워서. [청중: 촌에 밴소(변소) 무섭다 아이가 그쟈.]

[동구 설화 252]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황봉심(여, 1951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2동 우국부녀경로당]

옛날에 우리 촌에서 살 때, 요래 앞집에가 이래 네모가 이리 빤듯하게 이래 살고, 우리는 뒷집에 이래 사는데, 전라남도 여수꺼지 장사를 하고 오고, 장사를 하고 가고 이랬는데, 한 번은 이 아저씨가 안 오는 기라. 밤새도록. 새벽에 날이 새도 안 오는 기라. 그래 인자 '박성이 어제 여수장에 갔는데 안 왔다.' 이래 됐는데, 장에 나갔다가 이래 술을 한 잔 묵고 장에

갔다 오는데, 어떤 사람이. [청중: 이쁜 여자가?] 아니. 남자가 딱 나타나갖고, 그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씨름을 하자."

카더라 칸다. 근데 도깨비에서 씨름을 오른손으로 하자 카면, 왼손으로 반대로 잡으몬 이 성한 사람이 이기는데, 이쪽으로 하면, 하자 카는 대로 하면 진다 카대. 그래 이 남자가 오다가 그 남자하고, 도깨비하고 씨름을 했는데,

"씨름에서 니가 졌으니까 나를 따라온나."

카더라네. 그래 밤에 따라갔는데, 어느 산골로 산골로 마, 야시장이 있는 데로 온- 천지로, 밤새도록 이 남자가 도깨비를 따라서 헤맸는 기라. 그런께네 이래 이래 산골짜기 이래 가시쟁이 이런데 마 부러지고 째지고,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따라 댕기다가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내가 니를 버리고 가고 자아도(가고 싶어도), 너거 집 땜에, 너거 집 땜에 산다. 니를 못 데리고 가겠다."

이러더라네. 그러니께 가서 엎으러(엎뎌) 있는데, 아침에 날이 어느 정도 쌔니까(밝으니까), 까시가 이렇게 글치지갖고(걸쳐져) 있는 기라. 그래 인자 그 우곡 동네 사는 주민이 내려가다가 그걸 발견해갖고 집으로 인자 물어서 데리고 왔는데, 그 집이, 네모가 이래 빤듯한 기라. 네모가, 네모가 빤듯해놓으니께, 그 집이 네모가 빤듯하니까 도깨비 그거 마 맘대로 몬하는 갑대 그거. 그래갖고 그 남자가 살아나왔어.

[동구 설화 253]

담뱃대를 치면 도망가는 도깨비

황봉심(여, 1951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2동 우국부녀경로당]

담배장사를 댕겼거든요. 젊었을 때. 그래 요래 긴 담배 있잖아요. 그래 긴 담배 그걸 들었는데, 오다가 인자 여수서 장에서 보고 인자, 새벽에 이놈의 도깨비들이 엄청 마이 나왔는 갑대. 그라면 우리 엄마 인자, 그래서 담배를 배운 거예요. 담배를 들고. 그 '탁, 탁' 뚜드리고 이라면, 도깨비가 안 달라 들었다 카더라고요.

[동구 설화 254]

도깨비불

황봉심(여, 1951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2동 우국부녀경로당]

우리 촌에서 어렸을 때, 도깨비 구신(귀신)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는데, 마 우리 앞산에서 이래 보면 뒷산에 시프루무리한(새파란) 게 마 '펄럭. 펄럭. 펄럭.' 댕기는데. [청중: 도깨비.] 올라도 가고, 내려도 가고 이래 했는데, 그 집은 그래 했는데, 아무렇지 않고 잘 살더라고. [청중: 그라면 다행이다.]

[동구 설화 255]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황봉심(여, 1951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2동 우국부녀경로당]

시집을 가가지고, 인자 삼 년을 조심을 하고 이랬는데, 어른 앞에 방구를 못 끼잖아요. 방구를 못 끼이, 이 여자가 시집을 가가지고, 가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얼굴이 노-래이(노랗게) 마 노랑물 치자가 들어갖고 이러이께 시부모들이 물었어.

"니가 왜 시집 올 때는 얼굴이 뽀얗이 좋았는데, 왜 그래 와가지고 상(얼굴)이 그래 노래지노? 왜 그렇노?"

그래지니까, 그래 메느리가 하는 말이,

"내가 이유가 있습니더."

이라더라네.

"그래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는데. 니 하고 잡은 대로(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하고, 잡은 대로 했는데,

"절대 말을 안 할 테니까."

"그라몬 어머니 아버지. 저 절대 숭(흉) 안 볼 낍니꺼?"

이러께네,

"숭을 안 본다."

고. 하라 카이까. 그래서,

"숭 안 본다고 그냥 하라."

카니까,

그면 "어머니 아버지. 저 멀리 가서 있으라."

카더라네.

“방에도 있지 말고, 저 바깥에 멀리 가서 있으라.”

그래 지둥(기둥) 문을 요롷게, 요렇게 해갖고, 옛날에 첨에 일자집에 지둥이 있잖아요. 지둥 문을 요래 딱 잡고서 방구를 뀌는데, 마 그냥 집이 그냥 ‘흔들. 흔들. 흔들.’ 하더란다. 호박은 ‘덜렁. 덜렁. 덜렁.’ 해.

[청중: 할매는 부엌문을 잡고 있고, 영감으는 기둥을 안고 있는데, 얼매나 방구 바람이 씻는지(센지), 할매가 요리 한 번 뛰고, 요리 한 번 뛰고, 요래 한 번 뛰고 이랬다 안 카나. 그리 뛰더라 쿠대.] 그래 뀌고 나니까, 여자가 얼굴이, 싹- 지 얼굴이 돌아오더라 카대.

[동구 설화 256]

꿩 노래 덕분에 시댁으로 되돌아온 며느리

황봉심(여, 1951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2동 우국부녀경로당]

어느 메느리가 시집을 가는데, 친정엄마가 시집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말 있잖아,

“장님 삼 년, 귀머거리 삼 년, 벙어리 삼 년. 그래갖고 시집을 살아라.”

이래놓이, 이 여자가 다른 거하고 음식 전부 다 잘하는데 삼 년을, 몇 년을 말을 안 하는 거야. 들어도 들은 척 만 척, 본 척 만 척 이러니까, 시누들하고 시어머니하고 모두 인자 밉비이는 기라.

그래 ‘요걸 친정으로 다시 돌려보내자.’라는 식으로 가마를 태워갖고, 도저히 안 되니까 가마를 태워갖고, 인자 친정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꿩이 길거리에서 ‘꿩. 꿩. 꿩. 꿩.' 우니까, 이 며느리가 가마 속에 앉아갖고 노래를 하는 거라.

“저기 있는 저 꿩 잡아서, 저 꿩 잡아 앵그라드는(앵그락지는)[40] 저 눈깔을 시어마이 드리시고, 짝 짝 울고 있는 저 목퉁이는 시도령님 드리시고, 또 뭐, 요래 요래 쫓는 입은 시도령님 드리시고.”

이런 식으로 노래를 희한케 하거든. 그래갖고,

“이리 저리 덮는 날개는 서방님을 드리시고, 또 뭐 양쭉의(양쪽의) 방댕이 이거는 시아버지 드리시고”

카면서, 노래를 처량하게 하니까, 이 가마꾼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 못 한다는 메느리가 말로 기가 차게 잘 하거든. 그래가 가마를 다부(다시) 돌려갖고 집으로 온 기라. 인자,

40) ‘앵그락지다’는 ‘야무지다’의 방언.

"노래를 이래 잘 하더라."

카면서. 그러이께 시어머니, 시아버지 하고 전부 다 미워서 돌려보내더만 가마꾼이 다부 덱고(데리고) 오거든. 다부 덱고 오니까,

"왜 어찌 다부 덱고 오노?"

"이래 이래 노래를 하더라."

하니까, 그러자 저러자 삼 년, 구 년이 되니까 여남은 째가[41] 돼서,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그래갖고 이 대환영을 받고 살았다.

[동구 설화 257]

재채기하다 망신 당한 며느리

황봉심(여, 1951년생) 구술
2020년 1월 13일 채록
[초량2동 우국부녀경로당]

옛날 촌에서, 저 옛날에는 옷이 귀했잖아. 속 빤츠도 몬 입고, 몸빼로 입고 고무줄로 이래가 입고, 촌에 가서 항아리를 사갖고 여갖고(머리에 이고) 달랑, 달랑, 달랑 이고 오는데, 재치기가 '폭' 나거든. 재채기를 한께, 이 단지를 이고 재치기를 이래 '폭' 하니까, 고무줄이 틱 트짔뿐 기야. 고무줄이 터져갖고, 터지니까 이 바지가 쑥- 내려갔부잖아요. 옷, 속옷을 안 입었으니까 다 망해가. 그래가 이기,

"어짜꼬!"

하면서, 꽉 잡으니까 이 단지가 와장창 다 깨지는 기야.

[동구 설화 258]

단칸방에서 몰래 나누는 사랑

박진숙(여, 1933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3동 초삼부녀경로당]

41) 순서가 열 번째가 조금 넘는 차례.

남자는 저쪽에서 자고, 여자는 안쪽에서 자고. 그 사이에도 이제 낮에 인제 저녁 때 되면은 남자가 있다가 요번에는 나한테 오라고 그랬다나.

그러면 여자가 인제 아이들 다 자는 줄 알고 남자한테 가면은 남자는 기다리느라고, 또 안 오니깐 여자 저기를 이러커니까는 그 집에 큰아들이 뭐라고 그라냐면은,

"하나는 뒤로 도시오." [웃음]

그래 그런 소리가 많아. 그러니까 한 방에서 그렇게 내나 자식들을 데리고서는 그러고 사니까는, 그런 일이 수도 많아. 내나[42]. 그래.

[동구 설화 259]

길을 안내해 준 호랑이

박진숙(여, 1933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3동 초삼부녀경로당]

칠석날만 되면은 아들이 낳으면 죽고, 아들이 낳으면 죽고. 이러니까는 칠석날만 되면은 음식을 해가지고서는 새벽 세 시에 간다네. 그러니까는 한- 한 해도 안 빠지고 갔는데, 가는데 호랭이가 이러고서는 앉았더만은, 껌껌하니까 산에 가니까 넘어질까 싶어서 인도를 하더라네. 그 칠성당에 가는데 그러더라고. 호랭이가, 커다란 호랭이가 나와가지고서는 그랬다 그러더라고.

[동구 설화 260]

누이를 마음에 품다 죽은 남동생[달래고개 전설]

이점이(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3동 초삼부녀경로당]

누나하고 가는데, 비가 너무 마이(많이) 오니까네, 동생은 앞에 가다가 이래 주춤하이 처지고, 누나는 이래 앞에 가니까네, 동생이 고마 성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그 누나가 너무 이뻤

42) '내나'는 '역시'의 경남 방언.

는 기라. 간 길에(가는 길에) '누나를 한 번 안아봤으면.' 하는 기라. 누나가,

"내 안지 말고, 돌로 안아라."

누나가,

"돌로 안아라."

이래갖고 돌로 안았는 기라. 안다고 보니까네 돌로 여(남근을 말함) 찧었는 기라. 그래서 그기 전설이 나왔잖아.

[동구 설화 261]

집지킴이 구렁이

이점이(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3동 초삼부녀경로당]

구렁이가 나와갖고, 자기 집에 재산이 갈라 쿠면은 담에다 누워. 큰 이런 게. [조사자: 구렁이가.] 누워갖고 머리는 저 동쪽으로 보고 해갖고 붐어. 눕어가 있으면, 거 가서 할매들이 빈다 아이가. 잘못했다고. 어쨌든지 숨어도라고. 들어가서 사람 눈에 보이지 마라고. 인간 눈에 띄지 마라고. 내- 비빘다 아이가.[43] 비비고나면 어데 갔는가 가고 없어. 그래 그거를 건드리면은 그 집이 다 망해.

[동구 설화 262]

강피 훑어 남편 뒷바라지한 부인

이점이(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3동 초삼부녀경로당]

피 훑어갖고, 피 그거로 갖다가 훑어갖고 만날 그래 그걸 밥을 해가 묵고 죽을 낋이가 묵었는데. 남편은 인자 과거하러 갔는 거라. 옛날에는 과거하러 갔잖아. 지금은 서울이나 그런데 가서 공부해가지고 하는 기 그거고. 옛날에는 모두 집에서 못 사니까 과거하러 가면 저 서울이나 대전이나 그런데 가잖아.

43) 손을 비비면서 기원하는 비손을 한다는 의미.

가가 있으니까네, 여자는 묵고 살 끼 없어갖고, 저 김해 들판에 참- 그기 피가 많애갖고, 피 그거를 홅어갖고, [청중: 피, 피.] 피 그거로 홅어갖고 찧어갖고 죽을 쑤 묵고 했는데, 남편이 공양을 너무 잘 해가, 남편이 그리 잘 됐단다.

잘 되고, 남편은 눈고(누군가) 하면, 그 피 홅으러 가면 비가 와서 하나도 못 홅은 기라. 남편은, 너무 공양을 하는 사람은 피로, 날이 좋아서 피로 홅어오는데, 신랑은 공양을 안 하고 지만 내 묵고 산다. 그 가면 비가 와서 하나도 몬 홅고 오더란다. 그게 옛날에 전설의 고향, 그기 이야기다 아이가.

신랑이 말로 타고 가는데,

"갱피 홅는 저 아낙네. 그거만 홅나? 와 갱피만 홅노? 낼로 한 번 쳐다보지."

그러 컨께네, 안 쳐다보고 그냥 홅어싸니까네,

"아낙네야, 그거를 보지 말고, 날 한 번 쳐다보라."

그래 하더라.

[동구 설화 263]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이점이(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3동 초삼부녀경로당]

"호랭이가 밖에 있다."

쿤께네, 무섭다고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울거든. 운께네,

"꽂감(곶감) 주까?"

컨께네, 덜컥 아가 끈치거든. 그래서 '호랑이보다 꽂감이 더 무섭다.' 그래 말이 나왔다 아이가. 그거밲에 모른다 나.

[동구 설화 264]

자기 새끼 귀여워하는 줄 아는 호랑이

이점이(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3동 초삼부녀경로당]

옛날에 산에 나물로 캐러 갔다 아이가. 옛날에는 묵고 살 끼 없어가 산에 가 나물로 많이 뜯었잖아. 나물을 뜯는데 바우 밑에 고양이, 호랭이 새끼 두 마리를 낳놨어. [청중: 호랭이 새끼가 두 마리나 낳아?] 두 마리 낳놨어. 하도 너무 예뻐서러 요래 따둑거리(쓰다듬고) 산께네.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싼께네, 우에 고양이(호랑이를 잘못 말함)가 바우 위에서

"어흥."

우는데, 얼마나 무섭었겠어? 소쿠리랑 다 집어 내삐리고 왔는 기라. 와가 집에 와서 있으니까네, 밤에 나물 소쿠리를 집에다 갖다놨는 기라. 자기 자석 좋다 했다고. 새끼 좋아했다고. 그래 그기 옛날에 전설이더란다.

[동구 설화 265]

길을 안내해 준 호랑이

이점이(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3동 초삼부녀경로당]

옛날에는 큰 산을 넘어서러 이 동네 있다가 저 동네 시집을, 이 동네에 왔으면 저 동네 친정을 갈라 쿠면 등을 넘어서 갔잖아. [청중: 그래, 산등을 넘어서.] 등을 넘어서 가면은 호랑이가, 너무 엄마한테, 시부모한테 메느리가 잘해가지고. 밤에 인자 큰일이 나갖고 그 친정을 갔는데, 불로 앞에서 켜 주더란다.

[동구 설화 266]

단칸방에 몰래 나누는 사랑

정수자(여, 1933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3동 초삼부녀경로당]

옛날에는 부부간에 아들하고 자는데, 남자가 자꾸 생각이 나이, 그러니께네 의논을 했다 하든가? 내가 하는 거는 의논을 해가지고. [조사자: 의논을 해가지고.]

"내가 꼬끼오 하거들랑"

그래 한다 카는 약속이 돼 있는 기라. 그래 아들은 뭐 저짜(저쪽에) 다 들눕어 있는데(드러누워 있는데),
"꼬끼오."
하니깐, 아들이 말키[44] 다 나와가,
"삐약. 삐약. 삐약. 삐약." [웃음]
[조사자: 그래 결국 못했지요?] 응.

[동구 설화 267]

도깨비에게 홀린 사람

정수자(여, 1933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3동 초삼부녀경로당]

그 놀러를 갔다가 설악산. 어데 있노? 여게 그 할 때 놀러를 가가지고, 어떤 할배가 떡 내려오다 또랑가서 안경을 빼어놓고 세수를 했어. 세수를 하다 보이, 그때 봄이나 됐겠다. 차를 탈라고 보이께 안경이 없어논께네,
"아. 내 안경."
하면서, 찾으러 올라간다고 갔는 기라. 몬 가게 캐,
"가지 마라. 가면 지금 문을 안 된다. 가지 마라."
했는데 갔어. 하도 사람이 안 와가지고 찾아봐도 없더래. 그래가지고 집에 모두 연락을 해가 찾으이께네, 허깨비다(허깨비에게), 허깨비다 온 천지 다 뜯기가지고 죽었더래. 그런 거도 있었어.

[동구 설화 268]

도깨비가 되는 빗자루

정수자(여, 1933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3동 초삼부녀경로당]

44) '말키'는 '말끔'의 방언.

빗자루 몽댕이 그거는 와그렇냐 하면은, 맨스 있을 적에 '맨스 있을 적에 빗자루 깔고 앉으면 빗자루가 도깨비가 된다.' 이런 말은 들었지.

[동구 설화 269]

죽고 싶다 말은 모두 거짓말

정수자(여, 1933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3동 초삼부녀경로당]

시어마씨가 하도 죽을라 캐쌌으러,
"참말로 어머니 죽을랍니까?"
"응, 그래 죽을란다. 내 죽어야 된다."
했어. 복지로(복어를) 사다가, 복지 알로 인자 그거로, 복지로 사다가, 인자 복지 알로 먹으면 옛날에 죽는다고 캤거든. 촌에도 뭐 그 까치 같은 거 자아 무이(주워 먹으니).
그래 인자 메느리가 복지로 국을 낋였어. 복지로 국을 낋이가지고,
"어머이요."
죽을라 하니깐,
"어머니요,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하니깐, 그래놓고 며느리가 나오이까네, 시어마씨 안 죽을라꼬 요강에다 딱- 부어놨더란다. [일동 웃음] 죽는다는 말이 말캉 거짓말이라.

[동구 설화 270]

미꾸라지로 도둑을 잡는 양밥

정수자(여, 1933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3동 초삼부녀경로당]

촌에 베 짤 적에 베를 짜서 놔난 거를 그거 끊어가 도둑놈이 와서. 끊어가니까 동네 보면 서로 인자,
"내 베 짜 놓은 거 내놔라. 내놔라. 안 내놓으면 양밥 한다. 양밥 한다."

이래가, 그래가 왜 그러냐면은, 그래 미꾸래지를 잡아다가 비이가지고 조왕 뒤에, 조왕 있는 데다가 꼽아. 꼽으면은 그놈 돼가지고 갖다 놔. 그 도둑놈 잡는다고 그 소리 했는 기라.

[동구 설화 271]

호랑이에게 공 드리는 집

정수자(여, 1933년생) 구술
2020년 1월 14일 채록
[초량3동 초삼부녀경로당]

우리는 저 안방에서 잤는데, 눈이 항-거[45] 와가 있어. 근데 호랑이 자죽[46]은(발자국은) 딱 한 자죽이요. 딛이는데 딛이고 딛이거든요. 그 희한하요 그 자죽이.

우리는 어릴 때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가 기침하고 아침에 일나가지고,

"엊저녁에 좋은 사람이 왔다 갔다."

이라거든. 우리 보고. 우리들은 뭣인지 몰랐는데, 호랑이가 와서러 새벽에 꼬랑지로(꼬리로) 물에 적샤가지고 딱- 친다 하네요. 탁 치면, 우리 아버지가 '아! 왔구나.' 명심한대.

그때는 자죽 보면, 호랑이가 자죽이 탁 탁 탁. 이래가 있어. [조사자: 왜 왔는데요?] 그 댕긴다 촌에는. 그래 우리 엄마는 공이 너무 심하이까네. 우리 엄마는 만날 담벼락에 물 떠놓고 만날 공들이고.

그안하면(그렇게 안 하면) 대밭 어데 있는데, 그런데 가면 만날 댕기고. 옛날에 절에 간다고 가면, 촌에는 밤에 간다고 아이요? 절에 자고 오기 땜에서(때문에). 가면 호랑이가 불을 딱- 비치 준다 안 카나. 비치 준대. 그마이(그만큼) 정신 드린다.

그러이 우리 오빠 부대 가가지고 딴 사람은 죽어도 안 죽고. 얼마나 공을 들이면. 그때 가면 다 죽는대.

[동구 설화 272]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관수(남,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45) '항거'는 '많이'의 방언.
46) '자죽'은 '자국'의 방언.

[초량6동 정화경로당]

고래장(고려장)이, 이조시대 때, 옛날에 나이가 먹으면, 참 지금같이 이렇게 의사가 별로 없고 그렇거든. 근데 밥을 마 큰 거시기다 해놓고 자기 아버지랑 손자랑 따라갔어. 밥을 지고 굴속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그게 일주일간 먹을 양식을 밥을 대고, 촛불을 키놓고 그렇게. 인제 그거 했는데, 저거 아버지가 인제 이렇게 해놓고 문 닫아가 내려오니까, 저거 아들이, 손자가 지게를 지고 오거든.

"너 왜 그러냐느냐?"

"아버지도 늙으면, 할머니겉이 밥을 하고 촛불하고 이렇게 일주일간 먹을 걸 내가 갖다 놔."

그래서 그 아들이,

"그렇게 안 된다."

해서, 그때부터 없어졌다는 그런 전설이.

[동구 설화 273]

구천동의 유래

김관수(남,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정화경로당]

거기는, 예를 들어 여자들이 옛날에 시집가더라. 시집이라면 지금은 결혼이라 이거여. 말이 지금은 존칭이 돼서 그래.

시집갈 때는 쌀 서 말을 못 묵고 갔는가배. 그기는 구가하고, 예를 들어 구가, 예를 들어 구씨. 천가하고. 구가하고 천가하고 마이 살았다는 거여. 그래가지고 동녘 동(東)자를 붙여서 구천동이라 그런 전설이 있어요.

[동구 설화 274]

혈을 못 끊은 계룡산

연무웅(남,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정화경로당]

계룡산이라고 있어요. 계룡산. 계룡산을 못 끊었답니다. [조사자: 왜 못 끊었어요?] 왜 못 끊었냐 하게 되면, 이놈의 말을 타고 오다가 거기를 끊으러 갈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소를 거꾸로 타고 가더라는 게요. 그래 이놈의 거꾸로 타고 가는 것을 말로다가 아무리 가서 잡을라고, 잡을라고 그래도 못 잡겠다 그라는 거여. 그래가지고,

"와. 여기서는 무슨 위인이 있는 게로구나. 끊었다가는 우리가 죽겠다. 데리고 가자."

끊었다 그래놓고 데리고 가자. 그래서 우리나라 다 끊었는데 거기만 못 끊었다는 게야. [청자: 계룡산 산맥.] 계룡산만 못 끊었다는 거야. 그랬고.

[동구 설화 275]

영도가 안 보이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연무웅(남,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정화경로당]

영도에서, 영도에서 이사를 오거나, 고갈산을 보이는 데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망한다는 게요. 그래서 안 보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요. 안 보이는 쪽으로. 그래가지고 영도에서 이사를 오게 되면, 안 되면 저 사상 쪽으로 가든가, 그 아니면 동래 저쪽으로 가든가, 반송으로 이사를 가든가. 그래야 돼요 그기. [조사자: 지금도 그렇다 하대요.] 지금도 그래요.

거기도 우리 친구가 하나 나왔는데 어디로 갔냐 하면은 저 팔송리로 갔어요. 팔송리로. [웃음] 고갈산 안 볼키는(안 보이는) 데로.

[동구 설화 276]

달래나 보지[달래강 전설]

연무웅(남,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정화경로당]

이해를 하세요. 어디냐 그러면 충주입니다. 충주 달래강. [조사자: 달래강.] 왜 달래강이라

고 짓었냐 하게 되면 '달래나 보지, 달래나 보지' 그래서 그 달래강을.

여동생인데, 인제 오빠가 여동생을 시집에다 인자 보내줄려고 바리바리 어깨에다 짊어지고 가는데, 해필 이놈의 비가 냅다 쏟아지더라는 겨. 그냥 비가 쏟아지니까 처녀가 옛날에 비단으로 전부 감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살이 다 보이더라는 겨. 그냥 인자 이놈의 거기 중요한 거가 자꾸 일어나가지고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여동생한테 이걸 할라거든.

달래강 그 옆에 바우(바위)가 있어요. 거기서 그걸 하고 돌에다 찍어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여동생이 와가지고다가,

"아이고, 달래나 보지. 달래나 보지."

그래가지고 달래강 유래가 생겼다는 겁니다.

[동구 설화 277]

구르다가 멈춘 자리가 명당

연무웅(남,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정화경로당]

강원도 지방에 어떤 가난한 집에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놈의 지관을 모실라니 돈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인자 아버지 널에다가 해가지고 지게를 짊어지고 인자 올라갔단 말이야. 올라가가지고,

"아버지요, 내 지관이 돈 없어서 못 모시니까, 냅다 이걸, 냅다 이걸 둥굴릴테니까 아버지 좋은 자리 가서 있거든 거기서 세워놓으라."

그라거든. 그래 냅다 둥구르니까 떼굴, 떼굴, 떼굴, 떼굴 가더니 한참 있다 서거든.

"야, 요기가 좋은 자리인가비다."

그래갖고 거기다 파묻어 가지고다가 그기서 삼정승이 나오더란 겨. 그 나중에 인제 묫자리 가서 대보니까, 지관들이 가니까, 묫자리 젤 최고로 잘 들었대는 겨. 좌청룡 우백호가 거기 들어있더라는 겨.

[동구 설화 278]

왕이 될 사람을 알아본 무학대사

연무웅(남,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정화경로당]

무학, 무학대사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전번에 이성계가 꿈을 꿨어요. 꿈을 꾸니까, 대들보에서 서까래가 이렇게 늘어진 걸 인제 꿈을 꿨단 말이여. '이상하다.' 무학대사한테 가서, "꿈 얘기를 인제 풀이 좀 해달라." 하니까, 한참 손으로 꾸물꾸물하더니 번쩍 일어나서 절을 넙죽 하거든. 그래,

"왜 그러냐? 왜 절을 하냐?"

하니까,

"당신이 왕 될 사람이라."

그러더래. 그거 왜 그러냐면? 대들보가 이게 인자 신하고, 서까래가, 요게 서까래가 뭉쳐 있으니까 그게 왕, 왕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 될 사람이다.' 이거지.

[동구 설화 279]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연무웅(남,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정화경로당]

얘기하게 되면, 대동강을 팔아먹은 것이, 어떤 사람을 모아놓고다가, 사람을 모집을 해가지고 인제 이게 짠 거야. 대동강 하나 물 퍼가게 되면 돈 얼마 내고, 또 얼마, 돈을 파면 또 얼마 내고.

거기 그 고을에서 욕심 많은 늙은이가 하나 살았있어. 에라이, 저건 물이 뭐 무한정이거든. 그거 팔면,

"그거 나한테 팔 수 있냐?"

고 그러니까,

"아, 돈만 많이 주면 판다."

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다가 샀더니, 그 이튿날 물 사러 온 사람이 어딨어. 전부 짜고. [웃음] 봉이 김선달이가 대동강 물까정 팔아먹었다는 게 그거라. [웃음]

[동구 설화 280]

산소 옆에 자면 좋은 이유

연무웅(남,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정화경로당]

뭐냐 하게 되면, 옛날에 과거를 보러 떡- 갔다가 과거를 다 보고 내려왔는데, 낙방을 하고 내려왔어, 낙방을 하고 내려왔는데, 요 고개를 넘으니까 해가 넘어가더래잖아. 그래 그놈의 민간촌을 찾을라니까 민간촌이 보여야지 뭐여. 그래 안 보여가지고다가 쌍문이가 있더라는 겨. 쌍문(쌍 무덤)이 가물테서(부근에서) 자니까 바람도 피해주고 굉장히 좋더라는 겨.

그래 거기서 어떻게 몇 리를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고단해요. 아마 그 여름, 아마 가을 쯤 아마 그 중반에 내려섰는게벼 그때 당시. 그래 한참 실컷 자다 보니까, 꿈에 그 두 짝 노인이, 한 짝 노인은 마누라고, 한 짝 노인은 영감인데,

"영감, 우리 저 제사 음식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아이 이 사람아, 자네나 갔다 오게. 손님 와 자는데 어떻게 나 빈 집을 털어놓고 가나. 자네가 갔다 오게."

그러면서,

"그럼 내가 갔다 온다."

고, 그래가 인제 갔다 왔어. 갔다 왔는데 인제 꿈에 깨고서 보니까 새벽이더래. 새벽이더래는 겨. 그래갖고 덜덜 떨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비석도 세우고, 아주 잘 사는 집 같더래는 겨. 그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큰 대문만 찾은 거야. 무조건 큰 부잣집만. 그래 찾아보니까,

"요게 어제 저녁에 제사 안 지냈냐?"

고 그랬더니,

"아 제사 지낸 거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요 위에 산소, 산소가 요 위에 어디에 쌍문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있다."

고,

"내가 거기서 자니까."

사실 얘기를 거기서 쭉- 하면서,

"영감은 나 때문에 제사를 못 무러 오고, 어머님은 모시러 여기 왔더라."

그러니까,

"아 그러시냐고, 아 들어오라고."

그래가 한 상 잘 차려 줘가지고다 먹고다 갔다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디가, 저 날 저문데 잘 거면 산소 옆에다 자게 되면 굉장히 좋답니다. [조사자: 무서울 거 같은데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는.] 예. 예. 거기가 좋대요.

[동구 설화 281]

자식 죽여 부모 살린 효자[산삼동자]

연무웅(남,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정화경로당]

명심보감에 보게 되게 되면, 그런 게 나와요. 그게 나왔는데, 뭐냐면은, 명심보감을 보게 되면은 인제 아버지가 병에 들게 되었는데, 아버지를 살릴라고 하다 보니까,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 이거, 밥을 갖다 만날 가서 뺏어 먹거든. '야. 이놈의 새끼 죽일 수밖에 없다.' 고.

그래 이놈을 죽일라고, 이놈을 짊어지고다가 산골로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파묻을라고 거기서 파보니까, 막 구더기를 파니까, 뭐가 이거만 한 뭐가 나오더래요. 그래 보니까 동삼, 삼이라는 겨. 삼. 그래서 이 하늘에서 애를 죽이지 말라고 그라는 게비다. 이 삼을 가지고다가 그 아버지한테 가서 맥이니까(먹이니까), 아주 건강하고 아주 잘 있거든. 그래서 효자문 그 세웠다 그라대.

[동구 설화 282]

동래 정씨의 정묘 이야기

연무웅(남,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정화경로당]

정묘산 산소는, 그 사람이 수령 마법꾼인데, 마, 말 키우는 사람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거기서 하게 되게 되면, 그기서 하게 되면 역적이 안 나오게 되면 큰 인물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저 철로가 그 정묘전 앞을 뚫고 들어가는데 삼정승이 나와가지고서는 걸로다가(그곳에다) 못 뚫어다가 이 부전역으로 해서 뚫어 올라갔잖아.

[동구 설화 283]

삼천갑자 동방삭이 붙잡힌 까닭

연무웅(남,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정화경로당]

저승에서 그, 그게 뭐야, 장부가 아마 겹쳐가지고다가, 그걸 못 넘겨가지고 그 사람이 삼천갑자를 살았다고 그러잖아. 그 사람이.

나중에 인제 그걸 펴보니까 어! 이 사람이 삼천 년이나 살았거든. 그래가,

"빨리 가서 잡아오라."

고. 그래가지고 염라대왕이 사자를 시켜가지고 가서 잡아왔다 그렇다는 거라. 그래서 그 사람이 삼천갑자를 살았다. 이런 말이지. [웃음]

[동구 설화 284]

정이품 소나무와 수양대군

연무웅(남,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정화경로당]

궁녀가 아니라, 첩의. 왕의 첩의 그 쥐들이 새겼다는 거지. 그걸 꽃잎에다가. 그걸 새기고다가. 옛날에 저기 수양대군이라고 아십니까? 단종 삼촌(삼촌). 그 사람이 왕이 됐잖습니까. 왕이 돼가지고다가 단종 어머니가 이놈의 자식이 죽였잖아요. 그 단종을. [조사자: 유배 보내고.] 강릉에 가서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다가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엄마가 꿈에 나타나고 그래 수양대군을 얼굴을 팍 긁었데는 겨. 그냥. 그러니까 이놈의 문디 마냥 막- 부스럼이 나고, 몸뚱이에 부스럼이 나가지고, 얼루다가(어디로) 수양을 갔냐 하게되면? 속리산라고, 속리산이라고 아세요? 속리산에 가게 되면 연송이라고 알아요? [조사자: 몰라요. 속리산은 아는데.] 아이고, 그거 역사에 나올 텐데.

송리산은 솔입니다. 소나무. 소나무를 갈래가니까 왕이 가니까, 이놈이 얼마나 높습니까. [조사자: 정이품 소나무.] 어. 정이품 소나무. 그래,

"저 가쟁이[47]를 치라."

니까, 이놈의 가쟁이가 번쩍 들리더라는 겨. 그래 글로 지나갔다는 거 아니요. 그래 정이품 벼슬을 줬다는 거 아니요.

[동구 설화 285]

고려장 가도 자식 걱정하는 부모

연무웅(남,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정화경로당]

고래장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이제 뭐 사람이 하나가 지게를 지고다가 저 아버지를 지게에다 짊어지고다가 인제 가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 저기 길 잃어버릴께배 가면서 나무를 똑똑 끊어가면서 갔다는 거여. 갔다가 거다가 고래장을 하는데, 거가서 며칠 먹을 양식만 거다가 뒀답니다. 두고 물 하고. 그래갖고 또 못 나오게 파묻어놓는 거야. 그래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가면서,

"너 여기 두메산골꺼징 왔으니 길 모를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나뭇가지를 똑똑 끊어놓고 왔으니까 그걸 찾아서 집에 가라."

그라더래. 그래 그 와보니까 두메산골인데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보니까, 나뭇가지를 그래 똑똑 꺾어놨더래. 글로(그기로) 찾아가니까 집에 대번에 오더라는 겨.

[동구 설화 286]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연무웅(남,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정화경로당]

고래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게 되면, 인제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저 왜, '뱀이, 왜 암놈, 숫놈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것이 나라에서 그걸 시험 문제를 냈는데, 암놈하고, 두 놈이 있는데, 어떤 게 암놈이고, 어떤 게 숫놈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을 못하지. 그러니까 나라의 왕이 어떤 한 신하보고다가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꿈에, 그 왕 꿈에,

47) '가쟁이'는 '가지'의 방언.

"너, 세 가지 문제를 낼 테니까, 왕 재목이 되나 왕 재목이 안 되나 시험 문제를 내줄 테니까, 니가 그걸 풀어야지 니가 왕이 되지. 그걸 못 풀게 되면 왕이 안 된다."

그래 첫 번째 꿈이 뱀을 얘기하는 겨. 거기서 암놈, 숫놈을 구별해 오라. 그래가지고 저 왕이, 왕 꿈에 시험문제를 냈으니까, 신하보고 말을, 명령을 내릴 수밖에 더 있나. 그래 신하들 보니까,

"저 사람이 잘 한다."

고,

"저 사람보고 시켜라."

고. 그래갖고 저 신하가 또 바보가 아니고다가(아니고) 너무나 사람이 순종하고 저기 했었는가벼. 그래. 그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예라이, 이왕 죽을 거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인사나 하고 죽는다.'고. 그래 어머니한테 절을 넙적 하면서,

"어머니 인제 내가 없어도 편히 살다 가시라."

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고 그러니까,

"왕이 시험문제를 내는데 뱀이 두 쌍인데, 어떤 게 암놈이고, 어떤 게 숫놈이고 구별하라고, 그래오라고 해서 내가 여기 왔다고. 어머니 인제 이별하러 왔다."

고 그러니까,

"그 간단한 걸 모르느냐?"

고 그라거든.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

고 그러니까,

"암놈은 꼬랑이가 요렇게 하늘로 치켜 올라가고, 숫놈은 그냥 쭉- 쭉- 하고 말이여. [조사자: 교미할 때] 어.

"그대로다가 있는 게 그게 숫놈이고, 꾸부러진 게 암놈이다. 그래 구별하면 된다."

그러더라. 그래 왕한테 그러니까 그 꿈에 나타나서 풀었느냐? 그러니까,

"풀었다."

고,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렇게 한 문제를 맞추고. 또 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풀어오라 이기요.

"어떤 산골에 들어가면 옹달샘이 있는데. 거기 새가 두 마리가 있다. 두 마리가 있는데 어떤 게 새끼고, 어떤 게 에민가를 구별해가 오라."

이기라. 그라니까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어. 그래 어머니한테 가서 또 뭐라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랑은 사람보다 더 하답니다. 새든 뭐든 가네. 새끼 사랑은. 그래서,

"이 곡식을 줘보게 되면 꼭 새끼를 먼저 먹일라고 하- 정신없이 먹인답니다. 그게 에미고,

받아먹는 게 새끼다.”

그래 인제 가가지고 왕한테 그러카고서 꿈을 이렇게 하니까,

“아, 맞다.”

그 인제 그렇게 하고. 또 한 문제는,

“까마귀가 나무에서 죽- 나란히 이렇게 앉았는데, ‘어떤 게 선대주고, 어떤 게 선대주며, 어떤 게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왔느냐? 그걸 구별해 오라.”

이기여. 그거를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다가 어머니한테 와서 또 얘기를 하니까, 까마귀라는 놈은 굉장히 영물이랍니다. 엄청 영물이랍니다. 그거. 이 가지에, 나뭇가지에 앉더래도 아무나캐나(아무렇게나) 앉는 게 아니요. 먼저 조상, 큰할아버지가 먼저 앉고, 고 다음에 아버지가 앉고, 손자가 앉고 이렇게, 이렇게 앉는답니다. 이렇게 하고다가 까마귀가 죽게 돼, 뭐 어머니가 못 먹게 되면 새끼가 물어다가 어미를 먹인답니다. 그래 앉는, 앉는 것도 그렇게 앉는 답니다. 그래 인제 거(그기에) 가서, 꿈에 가서 신하가 얘기를 해주니까,

“세 개 다 맞힌 넌 왕 제목이다.”

그래놓고다가, 옛날에 고래장이란 게 그래서 없어졌다는 거요. 왜 고래장이 없어졌는냐? 늙은이가 아이게(아니게) 되면, 그 경험이 없어서 모르거든. 그러니까 ‘늙은이를 살려,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만약에 그 늙은이를 죽였돼게(죽였다 하게) 되면은 왕이, 그 나라가 그 망했을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고래장도 없어지고 그렇다. 다 그렇게 했답니다.

[동구 설화 287]

왕십리의 유래

연무웅(남,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정화경로당]

그래 뭐 어디여? 그놈의 데가. 서울의 그 왕십리라고 아세요? 왕십리. [청중: 서울인데. 왕십리가.] [조사자: 동네 이름은. 예.] 왜 왕십리라고 지었는지 아세요? [조사자: 왕복 십린가?] 그게 아니고 무학대사라고 아시죠? 이성계 책자(책사를 말함). 이성계가 하고 정도전하고 이 산자를 왕 터를 구하러 가니까, 어떤 사람이 소를 거꿀로(거꾸로) 타고 가면서,

“고기서 십리를 들어가면 되는데, 십리를 들어가면 되는데.”

그라고 인제 가더래는 겨. 그래 그 사람을 불러 쫓아가서,

“왕 터를 구할라고 하는데 어디서 십리를 더 갑니까?”

"여기서 십리를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왕 터가 있다."
고.
"가보라."
고 그러거든. 그래 인자 거기를 가보니까 참 왕 터가 있거든. 그래놓고서 거길 왕십리라고. 거기 왕십리에서 이름을 물었다고 왕십리라고.

[동구 설화 288]

부인 때문에 등천 못한 남편

연무웅(남,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정화경로당]

한 사람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를 한 겨.
"나 죽거든 내 모가지를 짤라가지고다가 우리 동네 우물에다가 잡아쳐넣어라."
그러거든. 그래 인제,
"니 어머니는 나가라고. 니 어머니는 나가고 니들만 있으라고."
그래서 이놈의 마누라가 나가면서 얼마나 궁금하길래 거다 문짝에다 들었어. 이걸.
"나 죽거든, 거기다가 저 물에다 저기 하라고."
그래놓고다가(그러고서는) 거기다 놨는데, 인제 석 달 열흘만 되게 되면, 하늘로 등천을 해 올라갈 건데, 이놈의 여자가 인자 자식하고 트러블이 생겼네. 트러블이 생겨가지고다가,
"야. 이놈의 새끼야. 니 아버지를 모가지를 짤라고다가 동네 우물에다가 넣는 게 어딨냐?"
고 말이야. 그래 동네 사람들한테 전부 얘기를 했네. 그래놓고서 물을 품기 시작하는 거야 인제. 그러니까 그 머리가 나오더래는 겨. 그때는 뭐 환상(환생) 할라고, 말로 탈라고 막 그래는 것이 사그려지더라는(사라지더라는) 겨.
그래서 여자한테는, 이렇게 한다고 서운타고 생각하지 마시오. [웃음] [조사자: 입이 보살인가.] 입은 너무나 야박하니까.

[동구 설화 289]

다른 몸에 혼이 들어가 다시 살아난 사람

연무웅(남,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정화경로당]

진천에, 진천에 하나 저 진천 사람이 있는데, 용인 사람이 있는데 용인하고 진천하고 바로 경계선이야. 바로 여기가. 욜로(여기로) 넘어가면 용인이고, 욜로 넘어가면 진천군이고. 근데 그 용인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 죽어가지고다가 인자 저승에 갔는데, 그 저 저승 판관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 책자를 이렇게 열어보더니,

"너는 올 때가 안적(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데려가라."

그래 데려가가지고다가 용인에 집에 들어갔더니 자기 신체가 없더라는 겨. 벌써 장사 지내고. 그래가지고 인제 어떻게 해.

그래 인자 삼시 사방에 사자가, 인자 삼시 사방을 돌다보니까, 진천에 한 사람이 죽어있더래잖아. 그래서 혼이 걸로(거기로) 들어갔어. 걸로 들어가서 살아났어. 나니까, 이 사람이 우리 집이 아니거덩. 근데 이거 우리 집이 아니니까 우리 집 찾으러 간다고 용인으로 간다고 번쩍 일어나거든. 근데 신체는 자기 이짝 집이 신체거든. 그러니까 아들딸들이,

"아이고, 아버지. 무슨 말이냐고?"

"지금 왜 용인으로 가느냐고?"

"용인 우리 아버지가 저 살아있는데. 전신 살아나 깨어났는데."

그래가지고 재판을 벌려졌어. 그 전에 옛날에 인제 가서 재판을 벌렸는데,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살을 찍에는(살 때에는) 이짝에 신체 있는 집에 가서 살구, 죽을 찍에는 용인으로 가서 제사를 올리고 살아라.'

그렇게 판결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 전설에도 나왔을 텐데 왜 그게. 그게 그렇게 됐대요, 그래가지고다가 그 전설이 지금. 내 고향이 충북입니다. 충북 괴산군인데, 괴산군하고 진천군하고 경계선에 이렇게 물려 있어요. [청중: 그거 전설의 고향에서 나왔어.]

[동구 설화 290]

꿈에 죽은 친구를 본 사람

연무웅(남,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정화경로당]

그건 뭐냐고 하게 되면, 옛날에 인제 저 논에 모를 심어가지고 인제 물꼴[48]을 대니까, 그래 인제 물꼴 대고도 한참 꿈을 꾸는 건지 비몽사몽간에, 비몽사몽간에 친구가, 죽은 친구가

나타나더래는 겨. 그래서,

"이 사람아, 물꼴 보고 있나?

그러니까, 떡 쳐다보니까 죽은 친구거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 사람아. 자네 죽었는데 어쩐 일인가?"

"내가 죽었으니까 왔지. 이 사람아."

그러니까,

"왜 그러는데."

"우리 집에 낼 아침에 한 번 가보게. 한참 잘 먹고, 제사 음식 잘 먹고 가니까, 한 번 우리 집에 한 번 가보게."

그러더랴. 그래 설마 그럴라고, 그래가 아침에 거기로 갔어. 대번(대번에) 가니까 그 아들래미가,

"아이고, 어르신 왔냐?"

고, 인사를 하거든. 그래서,

"자네, 어제 저녁에 내 친구 제산 거 같은데."

"아, 맞다."

고, 들어오시라고 그러면서 절을 넙죽 하더라는 겨. 그래,

"왜 절을 넙죽 하냐?"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개고기를 많이 먹었잖습니까. 그래서 개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개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냈다."

고,

"그래서 동네사람한테 남 부끄러워가지고 얘기를 못 하니까, 하도 잘 먹었다고 그러길래 친구 아저씨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라."

고, 그라면서 그 개, 개 푹 끓는 거를 한 그릇 갖다 주더래. 그래 잘 먹고 갔다는 그런 전설도 있어요.

[동구 설화 291]

제삿날 가는 귀신을 태워준 택시기사

연무웅(남,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정화경로당]

48) '물꼴'은 '물꼬리'의 줄임말로 물이 흘러가는 줄기의 가장 끝부분을 말함.

택시를, 공동묘지 거기를 택시를 몰고가니까, 어떤 처녀가, 처녀가 그 뭐야? 흰 옷을 입고 다가, 흰옷을 입고다가 그래놓고다가 택시를 인제 세우더래는 겨. 그래 택시를 타니까, 아 이 놈의 빠꾸로 하다보니까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뒤돌아보면 사람이 탔고, 빠꾸로, 요기로 아마 거울엔 귀신이 안 보이는게봐. 아마. 그래 '이상하다.' 어디까지 가서 세워놓고다가,

"내가 돈을 안 가져 왔으니까, 내가 안에 들어가서 돈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놓고,

"여기 계세요. 잠깐만 기다리라."

고. 그래 안에 들어가 아버지가 생전 나와야 할 말이지. 그래가지고 대문을 톡톡 두드리니까 주인이 나오더래는 겨.

"여기에 하얀 소복을 입고다가 하나 처녀가 안 들어갔냐?"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왔다."

고. 그러니까,

"아니, 요기 들어다가고다 택시비를 준다 그러길래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생겼냐?"

고. 그래,

"이래 소복을 입고 얼굴이 좀 미인이고, 그런 사람이 들어갔다."

고 그러니까, 뭐 무릎을 탁 치면서,

"우리 딸 오늘 저녁에 제사라고. 어디서 태웠냐?"

고 하니까,

"공동묘지 그 근처에서 태와가지고 왔다."

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바로 거기서 살았, 묻어놨다고."

고, 그러더라 이기여. 그래가지고 택시비 많이 받고 거기서 제사 음식도 잘 먹고 그러고 왔다는 겨. [웃음]

[동구 설화 292]

홀어미를 위해 다리를 놓아준 세 남매

연무웅(남,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정화경로당]

옛날에 삼 남매를 내놓고다가, 그게 아마 그 젊은 시절에 아마 홀로가 됐는게벼. 이 여자가. 그래 강 건너, 바로 강 건너에서 남자가, 홀애비가 하나 살았었는데, 그 홀애비하고 눈이 맞았어. 눈이 맞아가지고, 저녁 으슥한 밤만 되게 되면 그 영감 찾으러 거길 가는 거야. 그래,

"우리 엄마가 밤쭝만 되면 어딜 가거던. 그럼 우리 한 번 따라가 보자."

고. 그래 따라가 보니까 강 건너 그 홀애비 집에 들어가거든. 야, 그래놓고서는 새벽녘에 들어오면 치마가 다 젖고, 뭐 그리 다 젖어가 들어와.

"야, 우리가 다리를 놓아주자."

고, 그래가지고 그 저 삼 형제들이 전부 나서가지고 다리를 놔줬어, 그냥 그래니까 바로 안 젖고다가 거길 건너갔다 건너오고 그랬더래.

[조사자: 효자다. 그죠?] 그래 그런 전설이 있어요.

[동구 설화 293]

지킴이 뱀이 보여 망한 집안

김덕란(여,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행복을나누는경로당(사랑방)]

친정에 보면, 울타리에 뱀이가 딱 걸치가 있고, 우리 친정 울타리에. 이래가 있고. 어짜면 뒤에 모팅이에(모퉁이에), 모팅이에 또 나와가 한 마리가 있고, 똘똘 말려가 있고, 우리 집이 망했다 아이가.

그게 찌거미가 눈에 보이면 집이 망해. 오빠가 군대가 죽고, 언니가 치아놓이 죽고, 큰 소가, 친정에는 재산이거든 소가. 옛날에 소 한 마리가 재산이라. 소도 한 마리 죽고, 친정이 쫄딱 망했다.

[동구 설화 294]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김막달(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행복을나누는경로당(사랑방)]

그분은 뭐 남편하고 젊어서 살다가 너무 못 살아서러, 이 머리를 깎고 중을 해가지고 인자 동냥을 다녔어. 관리인 그 사람하고. 동냥을 다니다가 그 마을을 가니까는,

'그때 그 사람이 아직까지 쟁피(강피) 훑는다.' 그 노래는 있어요. 이바구는.

[동구 설화 295]

뱀으로 환생해서 집을 찾아온 시어머니

김막달(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행복을나누는경로당(사랑방)]

뭐 그런 이야기는 내 들어봤는데, 할매가 죽어서 참 금방맨쿠로(금방처럼) 뱀이가 되었어. 그래 아침으로 똑 집에 출근을 하는 기라. 집에. 옛날에 그런 말을 하대. 출근을 하는데, 난 주는(나중에는) 뭐 그래갖고 거서 메느리하고 아들이 못 살아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 하더라고.

[동구 설화 296]

원수 갚으러 온 구렁이를 죽여 주인을 살린 개

이복이(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행복을나누는경로당(사랑방)]

그걸 믹이갖고(먹여서), 개로 큰 걸로 믹있는데, 믹이니까. 그거를 팔라하니까, 장날에 팔라고 그 하면은 어디로 가뿌고 없고, 없고 그러더라네 . [청중: 개가?] 개가. 그래 저녁 되면 들오고. 또 아침 되면 또 가뿌고 없고. 그래서 인자 개 뒤따라 가만 가이께네, 저 산에 큰- 방구가(바위가) 있는데, 그 들봐다보고,

"서사웅, 서사웅."

개가 말을 하더래. 오래돼노이.

"서사웅, 서사웅."

하니까, 거기서 큰 구렁이가 내다보니,

"너거 집에 내 원수를 좀 갚아 돌라,"

하더라 하대. 들어오면 집 절단 다 내뿐다 아이가? 사람 다 직이는데. 그래갖고,

“너거 집에 동백기름 있나?”

이래 인자 묻는 기라.

“동백기름 없다.”

하이까네,

“동백기름 없으면은, 내가 저녁에 가서 니 원수를 갚아 줄꾸마.”

이랬는데, 그래 이 말을 듣고 개 몰리(몰래) 싹- 와가지고 동백기름을 마 문틈에 싹- 다 발랐어. 방마다 싹- 다 발라가 놓고 있으니, 부엌 문틈에도 바르고. 옛날에 부엌은 밖에 이래 있었잖아.

그래 바르고 인자 바앙(방) 가만히 있으니께, 큰 구렁이가 오더래요. 와갖고 인자 부엌을 거치가 방으로 들어오는데, 그 발라놓이 그 몸에 다 붙을 거 아닌가배. 그래가 마 뱀이가 사람을 못 직이고. 못 직이고 인자 뱀이가 죽으면서,

“니 때문에 내 죽는다.”

하면서, 개를 마 물어 직이삐더라대. 그 자리서. 물어 직이삐고 같이 마 죽어뿠는 기라. 그런 것도 있었어.

[동구 설화 297]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이복이(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행복을나누는경로당(사랑방)]

[조사자: 지게 뭐.] 지게 지고, 인자 아들이 엄마를 칠십 됐는데, 덱고(데리고) 인제 지고 가니까, 그 아들이, 아들이 그 손자를 그거 아이가 예? 손자가 할무니를 갖다가 아버지하고 막 지고 가는데, 지고 가니까, 할매를 지키가 간다 아이가. 가니까 인자 아버지, 할머니. 그래가 아들이 따라가면서,

“아부지, 어데 가느냐?”

하이까네,

“할머니 저 갖다놓으러 간다.”

카이, 그래가 인자 산에 갖다가 딱 그거로 만들어갖고 딱 그 안에 옇놓고 돌아서이까, 지게를 내삐리고 돌아섰는데, 아들이 다부 지게를, 다부 그 지게를 손자가 지고 오는 기라.

“야. 그거 버리지. 와 지고 오노?”

카니,

“아버지도 늙으면, 저다 여 같이 내삐리야 되이까네.”

[웃음] 같이 내삐릴라고. 그 손자가 인자 [청중: 맞다. 뭐.] 아들로, 아로 지게로 지고 왔어. 지고 와놓이까네, 그라고나서 고려장이 없어졌다요.

[동구 설화 298]

도깨비가 되는 빗자루

이복이(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행복을나누는경로당(사랑방)]

할매들은 마 부엌에 불 때면서 빗자루 깔고 앉는다 아이가. 그 생리가 있으면 우째 그 묻는 수가 있어. 모르고 버리면 그게 토깨비 되는 기라.

그게 토깨비, 사람 술 먹고 이래 가면 그게 토깨비 되고, 사람 해치고. [조사자: 홀리면 오래 못 산다던데.] 응. 홀리가 물에 드가라면 물에 드가야 되고 그렇다. [조사자: 옛날에 그렇게 당한 사람들 좀 있었지예?] 있었지.

[동구 설화 299]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수숫대가 빨간 이유]

이복이(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행복을나누는경로당(사랑방)]

넘의(남의) 집에 피를 이래 매는데, 피를 매러가고 아 둘이가 집에 있고, 피를 매고 상을 받아와야 양석을(양식을) 팔아먹는데, 그래 피를 매고 인제 그거 하니까, 호랑이 가만 보이 피를 매고 손에 풀이 묻어 있잖아. 그래 꺼꺼럽고 이러는데, 저녁에 저거 엄마가 들어와 있는데, 그러고로 그 있다가, 저거 엄마가 집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호랑이가 와가지고, 저거 엄마 오기 전에 호랭이가 먼처(먼저) 와가 구멍을 뚫어 손을, 발로 이래 넣으면서,

“엄마다.”

하더라네. 그래 손 만치보고(만져보고),

"엄마 아니라."
하이카네,
"풀을 만져서 그렇다."
고, 엄마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인자 그거를 풀 만치고 해갖고 그 아들로 호석을(호식을) 해가 갈라 하는데, 그래서 이 아들이 어째해갖고 인자 동앗줄을 타고 올라가뿠어.

저거 엄마가 먼첨(먼저) 올라가고 그 담에 올라갔는데, 이 호랑이가 따라 올라갈라 카이 도저히 올라갈 수 없어. 안 잡아먹는다고 동앗줄을 내려돌라 하니께네, 동앗줄을 자꾸 내라달라 하니께네, 딱 내라주면서 중간쯤 오면서 쑤싯대 위에 널쨔뿠어. 그 피가, 이제 널찌가 묻어갖고 그래가 피가 됐다 하대. 쑤싯대 다 빨갛다 하대.

[동구 설화 300]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이복이(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행복을나누는경로당(사랑방)]

"와 저저 그 얼굴이 와 그래 노라노(노랗냐)?"
카이까는, 방구로. 시어마씨가, 시아바씨가,
"와 그래 노라노?"
카이,
"방구를 몬 껴서 그렇다."
커더라.
"그러면 방구 끼뿌라."
하이까, 상감집인데,
"아버지는 저쪽 모서리 잡으라."
하더라나. 저 쪽 모서리 잡으니, 이쪽에서 방구를 끼니 집이 넘어간다 아이가. 또,
"저짝 모서리 잡아라."
하고. 집이 넘어갔어. 방구를 얼마나 몬 끼갖고. 방구 끼갖고.

[동구 설화 301]

머리 깎아 시어머니 생일 잔치를 한 며느리

이복이(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행복을나누는경로당(사랑방)]

너무 몬 살아갖고, 몬 살아가 해줄 꺼는 없고, 그래 이런 말하면, 나라에 마 옛날에는 그 임금이 아니고 뭐고? 댕기는 사람 안 있나? [조사자: 암행어사.] 암행어사. 그래가 인자 돌아 댕기니까. 그래갖고 그 집에 들봐다보이 마 지줌이가[49]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야단이라.

그래서 드가보니까,

"왜 이러냐?"

고, 드가 말을 하니까, 그래가 인자 시오마씨 생일인데 해줄 게 없어서 머리를 깎아가 팔아가 밥을 해갖고 장을 봐가 드리고. 그래 식구대로 앉아가 춤추고 노래하고 마 그래하더래요. 뭐 그런 메누리도(며느리도) 있었어. 옛날에는.

[동구 설화 302]

시어머니를 홀대했던 아들 부부

이복이(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행복을나누는경로당(사랑방)]

시어마씨를 저 뒷방에, 골방에 놔놓고, 밥도 옳게 안 주고 불도 안 옇어주고. 그러니까 할매가 틀어질 거 아닌가배. 틀어졌는데 아를 놔놓면 서너 살 먹으면 죽어뿌고, 낳노면 서너 살 먹으면 죽어뿌고, 자꾸 죽으니까. 그래 스님이 인자 이래 시주하러 오이까네, 그 사람들이,

"스님, 시주는 얼마든지 줄 끼께네, 우짜면 아를 키우겠느냐? 놔놓으면 죽는다."

카더란다. 그래가,

"그래 하지 말고. 쌀로 아홉 번을 씻어가지고, 그래 밥을 해가지고, 새 그릇 담아가 이고, 점도록(종일) 댕기면, 둘이서 옷을 싹 갈아입고 목욕재계하고 댕기면, 신 꺼꿀로(거꾸로) 신은 사람을 보고는 그 앞에서 절을 하라."

이래 됐는 기라. 그래서 [청중: 신 끊고?] 신 꺼꾸리(거꾸로). [청중: 아 신을.] 그래가 아무리 댕겨도, 어둡도록 댕겨도. 밥을 한 상 잘 해놓고 가라 하네. 그 스님이.

그래가 밥을 천사대리비라 한 상 채리놓고, 반찬 오만 거 다 하고 이래해갖고 채리놓고 이래가지고, 밥을 항거(가득) 담고 이래 가고, 점도록(저물도록) 있어도, 어둡어도 그 할매 마

49) '지줌'은 자기 혹은 자기할일을 뜻하는 방언으로 이야기 속에서는 제각기 잔치 흥을 돋우기 위해 역할을 다한다는 의미.

맞아 죽을라 해도 배는 고프지, 그 밥을 다 무우뿠는(먹어버렸는) 기라. 할매가. 묵고는 집이 어둡어갖고 집에 사람 소리가 나니, 할매가 놀래가지고 나온다고 나온 기 신을 꺼꾸로 신고 나왔어.

그래 신을 꺼꾸로 신어가 나오니까, 고마 그 할매한테 엎드려가 절하고, 바앙(방) 불로 옇어갖고,

"방 뜨시나?"

하고, 들어가 보고, 밥을 그리 잘해 주더래요. 잘해주니 죽을 요랑하고 하고 묵는 거라 자꾸. 그래 묵고 그러니까네, 그래가 아 놓으니까네, 그 할매가 또 풀어질 거 아인가배. 자석하고 원수가 됐는데도. 그래가 풀어지갖고 그거 하니까, 그 아를 놓니 잘 크더래요. 그런 전설도 있어. 옛날에 그런 전설도 있었어.

[동구 설화 303]

쌀이 나오는 구멍이 있던 운문사 사리암

이복이(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행복을나누는경로당(사랑방)]

옛날에 그래 했는데, 손님 하나 오면은, 그 운문사 절 안에 그 사리암, 카- 골짜기에 있거든. 그 절에, 옛날에, 처음에 뒤에 그 물 나오는데 드가봤어. 봤는데, 물만 요래 나오대.

그래가 인자 그 있는데 가이까네, 그게 이제 스님이, 사리암 절은, 거는 사람 하나 오면 하나 물(먹을) 쌀 고서 나오고, 둘이 오면 둘이 물(먹을) 쌀이 나오는데, 그 스님이 고마 뚫어뿠어. 뚫어갖고 쌀이 하나도 안 나오고 물만 이렇게 나오더라고.

[동구 설화 304]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이복이(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행복을나누는경로당(사랑방)]

몇 년 만에 아들 하나 낳는데, 그래갖고 인자 백일 지냈다 하더나 뭐 그렇는데. 그 스님이

시주를 오니까,

"아무것도 줄 꺼는 없고."

그래 아를 안고 어루면서,

"줄 꺼, 아무것도 줄 끼 없으니까 우리 봉덕이를 줄까?"

이래 흔드이께네, 그 에밀레종 그거는 인자 아가 드가야만 종이 되이께네, 그래갖고 고마 그 아이를 돌라 해가 덱고(데리고) 가가지고, 에밀레종이 그 쇳물 끓는 데 옇어갖고 종을 만들었어. 그래 맨날,

"에밀레, 에밀레~."

칸다 안 카나. 엄마 때매(때문에) 죽었다고. 그런데 아로 갖다가 이거 줄까? 저거 줄까? 하는 소리는 안 해야 해. 누가 오더라 캐도. [청중: 그렇지. 그런 말은 안 해야 되지.]

[동구 설화 305]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이복이(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행복을나누는경로당(사랑방)]

배 타러 먼 데 갔는데, 몇 년 만에 오는데 할매가 봉사라. 봉사가 인자 있는데 메누리가 집에 있으면서 해줄 건 없고, 그래갖고 인자 지렁이 그거로, 그거는 땅 파면 나오잖아. 그걸 삶아갖고 할머니를 내- 드렸어. 너무 맛있는 기라. 눈은 어둡고. 그래서 아들 오면 줄라고 자루(자리) 밑에다 몇 마리 딱 옇놨어. 그거를. [청중: 비줄꺼라고.] 비줄끼라고.

그래가 얼마, 얼마나 있다가 할매가 오니까 아들이 오니까 할매가 살이 찌가 얼굴이 뽀야이 해가 있거든. [청중: 알고 보면 그게 보약이라.] [청중 웃음] 그래갖고 아들이, 아들이 오니까 엄마가,

"야 야. 이거 함 비줄라꼬(보여주려고) 놔놨다. 너무 맛이 있어서."

그라고 자리 밑에(자리 밑을) 들씨고(들춰) 내니까는 지렁이라. 아들이 놀래가지고, [웃음]

"엄마. 지렁이."

지렁이라 하니까,

"아니다. 그게 그렇게 맛이 있더라. 맛이 있다."

카면서. 그래가 메누리 해줄 건 없고, 시어머니 봉양을 그렇게 잘 하더라요.

[동구 설화 306]

아이로 환생해서 복수하러 온 지렁이

이복이(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행복을나누는경로당(사랑방)]

서너 살 무면(먹으면) 죽고, 죽었는데, 그래갖고 인자 남자가 나무를 해가 와가 마당에 탁 보이께네, 보이께네 땅이 파여가 지렁이가 푹 올라왔는 기라. 그거를 죽이삤어. 죽이삤는데, 그기 원수가 돼가 아로 태어났는 기라. 아로 태어나가 좀 크만 죽고, 좀 크만 죽고 이러는데. 그래가 옛날에 도사가 이래 와 물으니까, 저거꺼정(저거끼리) 앉아갖고, 둘이서 앉아가 아들이,

"저 우리 원수 갚을 때 다 돼간다. 원수 갚자."

하고, 막 그래 쌌는데, 그래 듣고 인자 그 도사한테 물으니까,

"그 아를 갖다가 시루에다가 찌라."

카더라 카네. 찌니까 지렁이더래. 지렁이. 아가(아이가) 아니고. 지렁이를 그래 찌고나니까, 아를 키운다 하더라. 그게 복수 할라고 와갖고 아로 태어났어.

[동구 설화 307]

길을 안내해 준 호랑이

이복이(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행복을나누는경로당(사랑방)]

저게 산에 가도, 지 새끼만 좋아하면은 내려다보고 웃고 있다 안 하나. [조사자: 그러고 뭐 호랭이 새끼 '아이 이쁘다.' 하니까 바구니 다 갖다놨다대예.]

그라고 호랑이는 사람 해치지는 안 해. 지 눈에 개가 돼 보이야 해치지. 사람, 돼지는 절대 안 해쳐.

옛날에 친정 동생 사람 하나 그 저녁에 돼지 한 마리 사갖고 재를, 재를 넘어야, 우리 산길이 있거든. 재를 넘어야 되는데, 재을 넘어 이래 이고 재만디[50] 올라서니까 커-다란 호랭이가 옆에 따라오더래요.

50)'재만디'는 '잿마루'의 방언.

불로 비챠가 마 억수로 따라오는데, 우리 당이 되게 길거든. 당나무가. 당이 긴데, 그놈의 팔월달인데, 당 질로(길로) 마 이래 논을 끼쳐갖고(거쳐서) 끝까지 따라오더라 카이. 따라와. 당 안에 딱 들어서니까 갔부더래.

그래 그날 저녁에 우리가 그 집에서 놀았는데, 시장 갔다오는데 돼지를 한 마리 이고 오는데 사람이 물에 빠진 거 같애. 그래 거서 십리 넘게 따라왔으니께 그기. 한 이십 리 따라왔으니까. 그래도 해치지는 안 해. 그냥 따라오지.

[동구 설화 308]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이복이(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행복을나누는경로당(사랑방)]

그냥 울거던. 울으니까,

"꼿감 주꾸마."

카이, 그래 마 안 울더라란다. 호랑이가 호석해 갈라고 문 앞에 와가 있는데, 내놓면, 아(애) 운다고 내놓면 덱고(데리고) 갈라 했는데, 호랑이가 가-만 들으니께네, 호랑이 온다 해도, 풍선 준다 해도 그냥 울고, 자꾸 울거던. 우니까 고마,

"그럼 꼿감 주꾸마."

카이까, 아가 딱 그치거든. 호랑이가, '꼿감보다, 내보다 꼿감이 더 무섭다.' 하면서 도망갔부더래요. [일동 웃음]

[동구 설화 309]

상객 가서 실수한 이야기

한종수(여,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15일 채록
[초량6동 행복을나누는경로당(사랑방)]

상각(상객) 가가, 가니까 저게 인제 첫날 지녁에(저녁에) 그 자게 됐다 아이가. 상각 가면 잤다 아이가 가몬(가면).

그래 자는데, 인자 참 많이 먹고 그래해갖고 막 똥을 싸고 해갖고, 인자 그 똥을 싸고 그란께네, 옷이 이제 없잖아? 그 배릿이니까(버렸으니까). 그래 온 천지 돌아댕기면서 본께, 여자들 속곳, 가로 터더진(타진) 속곳 그기 있더라 안 쿠나. 늘어놘 기.

그놈을 가와갖고(가져와) 입고 인자 그 안날 절 받는다고 가니께네, 밑에서 개가 마 불알로 물었다고. [웃음] 그런께네 똥 그거 빨아물 꺼라고 개들이 서로 뜯어 묵고. [일동 웃음] 아이고! 우습다.

2. 서구 설화

[서구 설화 1]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김애신(여,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남부민1동 남일경로당]

시골이 된께 논에 가서 이렇게 피를 뽑은디(뽑는데) 비가 '철철철' 온께로, 막 집에 뭐 널어 논 것이 아버지가 막 그거를 걷어딜이면(걷어드리면) 하지만은, 아버지가 그거를 넘어갔다 넘어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한께로,

"아이고, 비는 오고 저기 우리 집에 훌캐[51] 떡석(덕석) 떠내려간다."

한께로, 우리 엄마로 보고,

"종피 훑는 저 마누래 가는 곳마지(곳마다) 종피만 훑으고."

그란 얘기 한다고. 우리도 그때 알라갖고(아기라서), 엄마가 인제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얘기 들었다고.

[서구 설화 2]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영자(여,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남부민1동 남일경로당]

옛날에 인자 저게 우리 습관이 칠십 살만 먹으면 인자 고래장을 했는 거라. 고래장을 했는데 아주 어떤 효자 아들이 있었는 거라. 인자 엄마가 칠십이 됐어. 그런데 천상[52] 엄마를 고래장을 시키야 되는데, 그래 안 하이까네 관가에서 잡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되겠는 거라. 엄마를 고래장을 시킬라 하니까.

그래 그 방에 방 구들을 뜯었어. 자기 자는 방에다 방 구들을 뜯어내놓고 엄마를 거다 숨

51) '홀캐'는 '벼훑이'의 경상도 방언.
52) '천상'은 '천생'의 방언.

킸는 기라. 숨킸어. 그래 덮어나놓고 밤에 몰래 엄마를 밥을 주고 이래가 숨카는 기라. 들통나면 가마이 잡혀가는 거라.

그랬는데, 중국서 사신이 오기를 어떻게 왔냐 하면은 '재 새끼 백 발을 꼴 수만 있으면. 재, 탄 재 있제? 무슨 소원이라도 들어준다'. 이래 그런 광고가 났는 거라. 옛날에. 전설 이야기로, 나만(나이 많은)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래 하니까 아무리 새끼도, 재 새끼 백 발을 꼴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인자 이 효자 가만히 들으니까,

"옳다. 내가 이거를 해갖고 우리 엄마를 살리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자기가 새끼 백 발을 꼬았어. 꼬아서 나놓고 고대로 나놓고 불을 질러서 소르르 타니까 재 새끼 백 발이 됐는 기라. 그래서 인자 걸(그거를) 중국 사신한테 갖다 바쳤어. 갖다 바치니까,

"어째서 이런 신기한 일이 있노? 우째서 꼬았노? 그래, 우리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준다,"

하니까,

"사실은 저가 우리 어머니를 고래장을 못 시키서, 이렇기 이렇기 숨기가 살아있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새끼 백발을 갖다주고. 그래서 인자 중국서 무르팍을 치면서,

"역시나 니가 그렇구나."

함서, 그때 그 사람이 그래서 고래장을 면을 했단다.

[서구 설화 3]

받침은 빼고 쓴 편지

김경자(여,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남부민1동 남일경로당]

옛날에 아들이 인제 군인을 갔는데, 군에 군인을 갔는데, 군에 가갖고서는, 옛날에는 글을 하나도 못 배웠잖아. 그래 못 배워갖고서는 가서 편지를 했는 거라. 집으로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썼냐 하면 '엄마 본 지도 오래 됐는데 엄마 보지도 오래 됐고, 형수 본 지도 오래 됐는데 그것도 인제 형수 보지도 오래 됐고.' 그라 카면서 편지를 쭉- 썼어. 써갖고 나니까 엄마가 글을 몰라서는 그 동네 통장한테로 가지고 갔는 거라. 부장한테로 가져 가갖고서는,

"우리 아들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이게 뭐라고 써 있더냐?"

고, 이러 카니까, 읽어보디만은,

"엄마 보지도 까맣고, 형수 보지도 까맣고."

그러 카니까네, 엄마가 보더만은,

“아이고, 그놈의 자석이, 나를 날 적에,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보지는 봤지만은, 저거 형수 보지는 언제 봤지.”

그래, 그게 끝이여. [일동 웃음]

[서구 설화 4]

‘달래나 보지강’의 유래

김영자(여,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남부민1동 남일경로당]

아, 저 남매가 있었는데 인자 저게 이래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인자 동생이 인자 못 건너가겠는 기라. 오빠가 동생을 업고 가니까, 형제간이라도 한참 청춘남녀가 되니까, 그 동생을 업고 가니까 오빠가 뭐 성기가 서고 이래 마 너무 기분이 이상한 거라. 그래가 마 이상한 마음을 딱 품었는 거라. 업고 가는데 마. 동생을 업고 그 징검다리 건너니까. 그래놓으니까 그 오빠가 동생을 건니나놓고(건너놓고) 자기 그 성기를 돌로가 찧어가 죽었어. 그러니까 그 동생이 원통해서,

“오빠야, 오빠야. 달래나 보지.”

그래, 달래나 보지강이라. 그기 그래,

“달래나 보지, 달라 소리나 해보지.”

그래가 죽었나? 그래서 강 이름이 달래나 보지강이다.

[서구 설화 5]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김영자(여,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남부민1동 남일경로당]

옛날에는 저게 시집가서 이 방귀를 뀌면 그기 우사스럽다고 몬 뀌라 하니까, 인자 안 돼서 가지밭에 가서 가지를 하나 따 묵고, 가지를 하나 가와가지고 탁- 엉디(엉덩이)를 틀어막았는

기라. 틀어막고.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께, 방구를 '퐁-' 뀐께, 가지가 퍽- 날라갖고 소두방[53] 뚜껑을 딱- 때리뿌서 식구들이 놀랬단다. [일동 웃음]

[서구 설화 6]

뱀으로 환생한 어머니를 세상구경 시킨 아들

김영자(여,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남부민1동 남일경로당]

너무 일만 하고, 구경도 안 하고 죽으면 옛날에는 그 뱀이 된다 안 하나? 뱀이.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너무 일만 지독히 하고, 놀고 그런 걸 생전 모르는 기라. 그래서 죽었어. 뱀이가 됐어. 그래 인자 아들이 탁 보니까. 엄마가 죽었는데 뱀이가 됐어. 그래서 아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 엄마는 너무 일만 하고 세상 구경을 몬 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촌에는 짚으로 가지고 요 둥구리[54] 그거를 했어. 그 둥구리 안에다 뱀을 해서 지게에다 짊어지고 온- 데를 다 다니면서 구경을 시킸는데, 팔도를 구경을 다 시키고 끝에 돼서 그렇게 했어.

그래 둥구리 해서 담아가지고 온 팔도로 구경을 다 시키고 나이까, 인자 마 어떤 데 잔치를 해서 아들이 그 지게를 받치놓고 구경 갔다오니까, 그 뱀이 허물을 싹- 벗어놓고 하늘에 날라가삐고 없더래. 그래 너무 일만 지독하게 하고 살면 안 된대.

[서구 설화 7]

꿩알로 아버지 제사 지낸 혀 짧은 딸

김영자(여,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남부민1동 남일경로당]

저게 친정아버지가 죽었는 거라. 그래서 인자 친정아버지 제사 모시러 친정 갈라고 이래

53) '소두방'은 '소댕'의 방언.
54) '둥구리'는 '둥우리'의 경상도 방언.

하니까, 보리타작을 해야 되는 거라. 보리타작을 하는데 꽁알이(꿩알이) 나왔는 거라. 그래 그 꽁알을 줏어가가지고 아버지 제사 때 가갖고,

"아버지, 아버지. 곤드그래[55] 보지밥이 당한 소리냐?

고.

"이 오늘 저게 가져와서, 이 공알[56] 잡쇼. 공알 잡쇼." [일동 웃음]

이라더란다.

[서구 설화 8]

혀가 짧아 우습게 된 말(1)

김영자(여,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남부민1동 남일경로당]

저게 형수도 혼차고, 인자 또 누구 혼차고 이랬는데, 옛날에는 도리깨로 하는 기, 이래가 타작을 했거든. 타작을 인제 줄줄 다듬어논께 앞에서도 그 앞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요기 한 번."

하면,

"앵헤야,"

또 때리고, 그런 앞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날 날씨가 꾸정하이 비가 올라하는 기라. 그런께 인자 시동생이 앞에서 인자 그 도리깨를 치면서,

"요기 한 번 치고, 또 얼씨구, 여기도 한 번 치고."

이런께,

"청쭈씨(형수씨의 혀 짧은 소리), 청쭈씨도 내 좃만 빠이시고."

'내 손만 바랜다' 이 말이라. 이런 게.

"청쭈치도 내 좃만 빠이시고. 제쭈치도 내 좃만 빠이시고."

그래, 식구들이 자기 손만 바랜다. 이거라. '내 좃만 빠이시고.'

"청쭈씨, 저게 굴 무져가 오니까, 바지기 밑에다 가서 뽄지고 안 있지요?"

카더라. 쪼글시고(쪼그려 앉아) 안 있으이. [웃음]

55) '곤드그래'는 '곤드라지다'에서 파생된 말로 '몹시 피곤하다.'는 의미.
56) '공알'은 여자 음부의 음핵을 말함.

[서구 설화 9]

혀가 짧아 우습게 된 말(2)

김영자(여,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남부민1동 남일경로당]

그 혀짤배기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라면, 우리 동네 시골에 외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동안이라 했다고. 그 사람은 아주 낮은 사람이라. 그라고 우리겉은 사람을 보고도,

"아이고, 애씨, 애씨."

하면서. 우리는 말을 탁 탁 놔(놓아) 해도. [조사자: 누가예?] 그 사람이 말하자면 옛날 상놈 집이라. 그 사람은 그 동네 살면서 항상 하류 취급도 못 받는 기라. 젊은 사람한테도 '예' '아씨' '예' 이래 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그래 대접을 받고. 동네에 옛날에 구장이거든. 요새 인자 통장이, 구장이,

"오늘은 보리 수매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러 오늘은 보리 수매한다."

고.

옛날에는 촌에 하-얀 너른 마당을 백구마당이라 캤다. 백구마당. 너거 백구마당 모르제? 하-얀, 마 그것도 없이 땅이 하-얀 마당 거서 '앵'하고 타작하고 그러는 게 백구마당이라. 그라고 인자 동네 청년들이 축구 차기도 하고, 거기서 인자 보리, 쌀, 보리 나락 수매도 하면은 거서 저우질하면서. 구장 인자 반장 수매 하고. 백구마당이라.

백구마당 거서러, 그것도 이야기도 약간 잊어뿠다. [조사자: 오늘 보리 수매하는 날입니다.] 그래 백구마당에, 백구마당에 인자 오늘 보리 수매할라고 이라이 동안이를 보고,

"오늘은 구장이, 그 인자 먼 데, 제일 높은 데 이래 올라가서 오늘은 외라."

그래하니까,

"동민 여러분, 오늘은 보지 수매하니까, [웃음] 껍쩍보지는 가마이 드가고 알보지는 포대다 담아가 그래 오세요. 바지기 지고 그래 나오세요."

그래 외더란다. 그래서 '껍쩍보지'하고 '알보지'하고 그래. [일동 웃음]

[서구 설화 10]

손님을 못 오게 해서 망한 집

김영자(여,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남부민1동 남일경로당]

손님 몬 오게 하는 그거는, 하도-하도- 손님 마이(많이) 오싸니까, 그래 이제 스님한테 이야기했다.

"너무 일이 몸서리나고 지치서, 몸이 괴로워서 안 되겠다. 어쩌면 좋겠냐?"

한께,

"내- 아침밥 묵고나면 머리를 감으라."

하더래. 머리를 감으면, 삼 년만 머리 감으면 손님 딱 떨어진대서. 진짜 삼 년을 머리 감으이 손님 딱 떨어지이 그 집 싹- 망했더래.

그런께 요즘 사람들은 워낙 밤에도 감고. 옛날에는 촌에 그런 데는 밤에 머리 감고 하면 얼매나 뭐라 칸다고. 아침밥 묵고 머리 감으면 그랬어. 그래, '아침 일찍이 밥 먹고, 밥 딱 먹고 머리를 감으면 집이 망한다.' 그런 전설도 있더라.

[서구 설화 11]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김영자(여,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남부민1동 남일경로당]

에밀레종 그건 왜 그렇냐 하면은, 옛날에는 이 인자 촌에서, 인자 절에서 귀해가지고 뭐 인제 곡식 조끔이나 가져가고 이렇게 안 했거든. 요즘처럼 마 한 달에 몇 번 절에 가고 이래 안 하고. 정월달에 가고, 사월 초파일에 가고, 동지 때 가고, 요래만 갔는 거라.

인자 그래 가면서 갔는데, 한 번은 집에 있으니까, 스님이 인자 목탁을 치면서 그래 시주 얻으러 왔는 거라. 왔는데, 그래서 인자 어떤 철부지 엄마가 애기를 해서 업고 있다가 그래,

"아이고 보살님. 시주 왔습니다."

한께,

"시주 줄 건 없다. 아나, 우리 애기나 주면 주까. 아무 줄 것도 없다."

이래 했는 거라. 이래 했는데, 그래 해도 인자 그래서 시주를 얻어가서 해가 종을 만들어이 아무래도 안 돼. 종소리가 안 나는 거라.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라.

그래서 인자 그 스님 꿈에 해몽을 하기를, '그 애기가 들어야먄 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자 와가지고 인자 그 엄마한테,

"당신이 그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종이, 이기 안 된다."

하니까,

"그 애기를 달라."

하니까, 지가 하기를,

"아나, 애기나 주까. 줄 꺼 없다."

했기 때문에 그 애기를 줬는 기라. 그래서 그 종을 만들 때 그 애기를 가가서(가져가서) 종을 만들어놓으니까, 그래 그 엄마가 말 잘몬한 실수를, 그 원한으로 해가지고 종을 친께, 그래,

"에밀레, 에밀레."

그래 울리면서, 그래 울더란다. 그래 이야기 하더라.

[서구 설화 12]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남임순(여,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남부민1동 남일경로당]

애기가 울어싸니까, 울어싸니까 아무리 해도,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고 그러니까 방에서. 밖에서 호랭이가 인자 앉아서 이렇게 인자 있는데, 지 듣는 데 있는데, 방 안에서 이래 해도 울고 저래 해도 울고, 내- 울어. 이제 애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꽂감 주까?"

하께. 꽂감 준다께 떨거덕 그쳐뿌네. 그께 호랭이가 '어이구야, 나보다 더 무서운 짐승이 있는가보다.' 하고, 호랭이가 그냥 도망가뿌더라네. 꽂감 준다는 소리 듣고 애기가 인자 좋다고 딱 끄치뿌렸는데, 모르고 인자 저 호랑이가 밖에서 듣고는 '아이고,' 지가, '나보다 더 무서운 짐승이 있는갑다.' 도망가뿌렸어. 도망가니까, 생각에, 그것이 전설이 되어갖고 애기가 울든지 뭐든지, 재앙을 보든지 하면은,

"꽂감 주까?"

하면, 떡 그치는 거야. 아무리 해도 울어쌌는데,

"꽂감 주까?"

하면, 맛있거든 꽂감이. 그러니까 울음을 덜컥 끈치뿌는(그치는) 기라.

[서구 설화 13]

도깨비에게 홀린 사람

남임순(여,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남부민1동 남일경로당]

옛날에는 시골에서 술 한 잔 묵고 늦가 늦가, 인자 장에서 술 묵고 가다가 인자 산으로 어디로 넘어서 가는데 도깨비란 놈이 나와도 몰라. 말하자면 술이 취해갖고. 근께 인자 이 인자 도깨비가 마 이 사람을 끌고 마 온 사방을 마 다 다니는 기라. 마 가시로 있는 데로 어데로 마, 그렇게 끌고 다녀. 그래갖고 실컷 끌고 다니다가, 새벽녘에 닭이 '깩깩' 우니까, 저- 뭣고? 저 어데 나무에다가 도깨비가 이 사람을 꽉 뭉까갖고(묶어서) 가뿔고(가버리고) 없어. 아침 돼서 보니까이. 그래갖고는 자기가 아침에 눈을 떠갖고 보니까이 저 나무하고 빗지락[57] 몽댕이하고 묶아져갖고 있더래.

그러니까이 빗지락 몽댕이가 우리 사람 손에서 신이 붙는 기라. 말하자면, 자꾸 쓰니까. 자꾸 닳아질 때까지 많이 쓴다아이가. 근께 요게이(요것이) 신이 붙으니까, 요놈의 신이 나와갖고 도깨비가 되어갖고 다녔어. 옛날에 그런 전설이 있어.

[조사자: 빗자루 피 묻으면 또 도깨비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인자 빗지락이, 저 우리가 빗지락하다가, 촌에서도 빗지락 쓰다가 요 손이 다치가지고 피가 묻으면은 도깨비, 도깨비 된다. 빗자락이 도깨비 된다. 피 묻히지 마라 하고.

[서구 설화 14]

자기 새끼 예뻐하는 줄 하는 호랑이

남임순(여,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남부민1동 남일경로당]

호랑이가 인자, 나물을 인자. 딸아이들이 나물을 캐러 갔는데, 인자 나물을 캐러 가니까 요 바위 밑에가 고양이 새끼가 있는 기라. 나무 밑에 고양이 새끼가 있어서,

"아이고, 이리 고양이 새끼가 있다. 너무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따둑거리면서,

"아이고, 나도 이거 한 마리 갖고 가서 키울까?"

또 한 사람이 또 와갖고.

"갖고 가서 키울까?"

57) '빗지락'은 '빗자루'의 전라도 방언.

그래갖고 마 뜨덤고(더듬고) 막 요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 바위 우에서 지 새끼 좋다고 요렇게 따둑끼린 께 좋아갖고, 저 바위 끄트리서(끝에서),

"웡."

하더란다. 그래갖고, 놀래갖고 마 바구니조차 뭣조차 다 내삐리고 집으로 갔는데, 뒷날 아침에 그 집이, 나물 캐러가는 그 바구니하고 칼하고 다 물어다가 대문 앞에 놔놨더래. 지 새끼 이쁘다고 따독끼리고 해서 좋게 해주니까, 그래 놔놓고 아침에 나온께로 물어다가 갖다놓고.

[서구 설화 15]

귀신이 보이는 질경이기름 불

남임순(여,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남부민1동 남일경로당]

옛날 속담에 빼뿌쟁이[58] 갖고, 하도 저거 신랑이 죽었는데 꿈에도 안 비이고(보이고), 제사 때도 안 비이고, 생전에 안 비이니까 꿈에라도 비이면 좋것다. 그래갖고 누가 옆에서,

"빼뿌쟁이 씨를 받아갖고 기름을 짜갖고 저 촛불을 키라. 제사 지낼 때. 그러면 귀신이 비인다."

그러니까 뭐꼬? 저. 제사상을 채리놓고, 빼뿌쟁이 인자 그거 기름을 짜갖고 인자 거다가 촛불 등불 맨키로(처럼) 켰어. 등불 맨키로 키니까 그거서(그곳에서) 앉아갖고, 요 인자 그늘에 인자 걸음 잡아와갖고, 계속 온 사방에 꺼 다 집어먹더래. 보니까. 그래서 아, 그래갖고 그거를 보고는, 그 뒤에는 잘 모르겠다. 그랬다고 그런 전설이 있더라고.

[서구 설화 16]

정성을 드려야 하는 제사

남임순(여,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남부민1동 남일경로당]

58) '빼뿌쟁이'는 '질경이'의 방언,

[조사자: 할머니, 그것도 있대요. 제사 때 머리카락 들어가면.] 제사 때는 머리카락 들어가면 귀신이 응감을 못해. 왜? 머리카락이 뱀으로 보이는 거라. 그런께로 억-수로 우리가 제사 때 정성으로 제사 지낸다 아이가.

그라이까 인제 머리카락 들어갈까 싶어서 밥이고 뭣이고 나물이고 그러께 허는데, 정성껏 한다고 해도 머리카락이 또 들어가는 기라. 그러면은 인자 그거 죽은 사람이 와갖고 묵을라고 보면, 마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뱀이라고잉. 응감을 안 하고 가뿌려. [조사자: 아, 안 먹고.] 안 먹고 가뿌려. 그런 전설이 있어.

[서구 설화 17]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남임순(여,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남부민1동 남일경로당]

스님이, 스님이 인자 동냥을 왔어. 옛날에.

"똑딱, 똑딱."

하이, 동냥 달라고 밖에서 그러니까 애기가 울어싸니까,

뭐꼬? "우리 집에는 동냥 줄 꺼이(것이) 없어. 동냥 줄 꺼 있으면 요 애기나 주까. 줄 꺼이 없소."

그리 됐는 기라.

"그러면 애기를 주소."

이래 됐는 기라. 막상 이제 준다고 자기가 말로 내뱉었는데. 달라하니까 안 줄 수가 없는 기라잉. [청중: 아니, 에밀레종을 만드는니까 종이 소리가 안 났다.] 그래가지고 인자,

"그러면 애기를 주소."

인자 스님이 그랬는 거라. 그러니까 그냥 옛날 전설이니까 그런 얘기가 있지. 그래가이고 애기를,

"동냥 줄 거 없으면 애기를 주소."

이래 됐는 기라. 그래서 애기를 스님을 줬어. 준께 덱고(데리고) 갔는데, 스님이 인자 절에 종을 만드는데 아무리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해갖고 뚜드려도잉 에밀레 종소리가 안 나는 기라. 그래갖고는 그 애기를, 인자 그 애기를 어매가 준 것을 덱고 가갖고 에밀레종 만드는데 옇었는 기라. 그러니까 '탕' 뚜드린께, 말하자면 어매 원망하는 것이제. 애기가잉.

"어밀레~, 어밀레~, 어밀레~."

그렇게. 인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뜻이지. 옛날에.

[서구 설화 18]

저승 갔다 살아난 사람

박은순(여, 1932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남성경로당]

그때는 내 오십대거든. 오십덴디. 저 건너 남산이라는 쿠는 저게 살다가가 공동 화장실을 갔어. 화장실을 갔는디, 갔다오다가 마 탁 넘어졌는가봐. 그래 가매이(가만히) 누워있은께 방바닥이 찹은(차가운) 기라.

'우리 방바닥이 와 이리 찹노?' 싶은디 디다본께 타이르 바닥이라. 이이구 눈을 떠본께 화장실이라. 공동 화장실에 누워서 그마, 내가 뒤로 나자빠져 가지고 마 자물씼어[59]. 그래가이고, 그래가이고 인자 아무리 눈을 뜰라 해도 눈이 안 떨어져. 화장실에 불이 있었거든. 전깃불이 밝고 그리 불이 있었는디, 눈이 안 떨어지이. 그래 한-참 또 누웠다가 방바닥이 찹는 기라. '아니고 방바닥이 와이리(왜이렇게) 찹노?' 싶어가 한 번 더 더듬어 보고 그래 눈을 뜬 께 불이 보여. 앞이 보이는 기라. 그래 일어나이 화장실이라.

그래가 내가 저승을 가다가 와삤어. [청중: 예. 저승에서 안 받아주지, 안 그랬으면 갈 낀데.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가거든.] 저 하얀 할매가 하양 소복을 입고 흰 고무신 신고 그래가지고 내로 보고,

"니 내 따라 갈래? 쌀을 얻어가지고 절에 시주하구로 내 따라 갈래?"

하는 기라. 그래,

"예."

하면서, 따라갔어. 내도 아래 우로 흰 소복을 입고 흰 고무신 신고 갔는디, 이리 한 길로 졸졸졸 할매가 가는 기라. 그래 가서, 내가 할매를 따라 졸졸 간께 할매가 밭 언덕으로 딱 올라서는 기라. 그래서 내도 따라서 밭 언덕에 올라섰다. [청중: 밭 위에. 밭도랑에.] 이리 밭인데 언덕으로 졸졸 할매 가는 기라. 할매 따라 내도 갈라고. 할매는 졸졸 가는 데 내는 올라가서 발을 내딛은께 밭이 푹-, 밭 언덕이 첨벙하는 기라. 바닥이 무너지는 기라. 그래갖고 내가 깨어났어. 밭도랑이 안 무너짔으면 그 할매 따라서 갔제. 그런데 저승을 가다가 내는 왔어. [청중: 그래 행님 오래 사잖아.] 그래 얼매나 고생을 했다고.

59) '자물씨다'는 '까무러지다'의 전라도 방언.

[서구 설화 19]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곶감

박은순(여, 1932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남성경로당]

사람들이 아가 하도 울어싼께네 그리,
"아이고, 호랭이 온다."
해도, 자꾸 아가 울거든. 그런께,
"꽂감 줄께"
그런께 아가 안 울거든. '아이고 꽂감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은 갑다'. 그리 했다 안 하던가.

[서구 설화 20]

구렁이로 환생한 어머니를 세상구경 시킨 아들

김흥순(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남성경로당]

옛날에 어떤 집에 할매가 사다가 세상을 떴어. 뜨고 나니까 그래가 옛날에는 일 년도 뭐, 삼년상도 내고, 일 년 초고도(초상을 말함) 내고 이래 냈거든. 빈소로. 그래할 적에 그래가 아들이 밥을 해다가 만날을(매일) 상석를 드리. 그거는 옛날에는, 정말이다. [청중: 삼 년 동안 한다.] 응. 삼 년 동안 하고. 그래 놔놓고 그래가 하고. 십오 일만쿰썩(십오일마다) 또 상석 드리고, 억수로 옛날에 그래 쌌어.

그런데 그래가 마, 아들이 정성을 지극하게 그래 산소를 가가가(가서) 내 들받아 보고(드려다 보고) 이래놓이. 구래이가(구렁이가), 구래이가 이래 따배기를 쳐가 빈소 채려놓은 데 있었어. [청중: 그 죽은 혼이다.] 응.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꿈에 자이까네,

"날로 델꼬 저- 장터로 가자."
하더란다.

"세상사람 다 보고 죽구로(죽게)."

그랬단다. 그 할매가 살 적에 어디 안 나갔어. 그래놓이 [청중: 한이 됐구나.] 응. 그래 가지고는 그래가 인자 요런, 옛날에는 저기 짚으로 가 핸 거 요런 기 있어. 그래 거다 딱 담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전신에 덱고 댕겼단다. 시장 바닥. 그래 [청중: 효자네.] 응. 아들이 덱고(데리고) 나오니,

"아이고, 내가 니가 구경을 시켜주니 내가 새로 살었는 거 같다."

커고, [청중: 꿈에도 선몽을 한다.] 응. [조사자: 그래가 우째 됐는데예?] 그래가지고 인자 왔어. 왔는데 집에 오이까네, 아들이 그래 인자 그 빈소에 갖다가 고 갖다놨거든. 놨더니 자고나이 없더란다. 가뿌고, 어디 가버리고. [청중: 죽은 혼이다. 그쟈?] 응. 어데 가뿐공(가버렸는가) 없어. 그랬다데. [청중: 효자다. 자기가 그래도 원래 구랭이 죽기 전에. 세상구경 몬 하면 구랭이 된다 했거든.] 구랭이 된다고.

[서구 설화 21]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김흥순(여, 1938년생), 이중선(여,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남성경로당]

[김흥순]

옛날에 메느리 억수로 몬 살았어. 그 집에 몬 살고 이런데, 메느리, 시어머니가 눈이 어둡아. 그러니 그 이 구렁이로 파다가. [청중: 지렁이.] '지렁이로 파다가 저 국 묵으면 눈이 떨어진다.' 이래가 며느리 내 지렁이 파다가 내 국을 낋이, 그기 뽀야이 그렇더란다. 고아 놓으니, 그래가 그래 주니,

"아이고 야, 야. 무슨 고기가 이리 맛있노? 이래 맛있는 고기는 내가 살아도 몬 묵어봤다."

이라더란다.

"아이고 어머니, 그거 구렁이 아인교?"

카이, 눈을 팔딱 뜨더란다.

[이중선]

이래 쌌더라. 아들이 외국 가삐고 없는데, 하다 맛나서 아들 오면 믹일(먹일) 거라고 한 마리해서 자리 밑에 옇어놓고 옇어놓고 그랬다 카대. 그래갖고 인자 그리 했는데, 인자 아들이 와논께네,

"야야, 이 고기가 그리 맛있더라. 함(한 번) 치라보라(쳐다봐라)."

한께,

"아이고 엄마, 그기 거싱이요!"

고마 눈을 퍼뜩 뜨더란다. [청중: 그 말이 맞다.]

그랬단다.

그리 하다 맛나서, '우찌 이래 맛나나?' 싶어서 묵다가 한 마리 옇어놓고, 옇어놓고 그랬더만, 아들 온께,

"야야, 요 이 고기가 그리 맛나더라. 함 치라봐라."

한께,

"아이고 엄마, 거싱기요!"

하더란다. 눈을 퍼떡 뜨삐더란다.

[서구 설화 22]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이중선(여,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남성경로당]

맨날 뭐 신랭이(신랑이), 신랭이 인자 과게를(과거를) 할라 쿤께. 이 남자가 맨날 뭐 뭐 갱피만 훑고 그랬다 안 하더나. 비도 오고 하는데도, 갱피로 훑어다가 덕석에다가 늘어놨는데, 그래갖고 얼매나 각시도 애도 터지겠네노?

그것도 쪼께, 과거할 끼라고 공부만 하고. 그 덕석이나 쪼깨, 비가 올라쿠면 치다주면(치워주면) 될 낀데 치도 안 하고 떠내려가도록 놔둔께. 아이고 그래갖고 마 여자가 안 살았는데, 그래 논께 남자가 과거를 해갖고, 그 여자가 갱피를 훑더란다. 과거 해가 내려온께네,

"아이고, 저 여자는 간데 쪽쪽 갱피만 훑는다."

고, 그런 말이 있었다.

[서구 설화 23]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박은순(여, 1932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남성경로당]

저거 아버지가 아들을 덱고(데리고) 저거 할매를 짊어지고 갔다 안 하던 가배. 그래서 묻고, 고려장 해놓고 그 지게를 놔뚜고 올라 카는데,

“아버지, 이 지게를 지고 가야 내도 아버지로 나중 고래장하러 지고 올 꺼 아입니까?”

그런다고 아들이.

[서구 설화 24]

처녀로 변한 산삼

김흥순(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남성경로당]

저제, 옛날에 어떤 집에 저게 남자가 혼차 사는데 자꾸 아가씨가 한 사람이 자꾸 와. 이 삼이라고. 삼이 그래 저거 해가 왔더란다. 그래가 남자가 인자 ‘저 와 자꾸 우리 집에 오는고?’ 하고 보이, 그래 와가 밥도 해주고 가고, 빨래도 해주고 가고 이래. 그 아가씨가.

그래가 ‘저기 우리 집에 살라고 그라는가?’ 여기이, 해놓고는 자꾸 간대.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실로 마이 감아가 와 놔두잖아. 바늘 끼이가(바늘에 끼워서).

밤에 고거를 그래가 치맛자락에다가 확 요래 요래가 억수로 안 빠지도록 해가 그래놓고, 그래가지고 인자 저거 했어. 따라갔어. 날이 새가. 날이 새가 인자 그거로 실 따라 가이, 삼이 큰- 게 하나 있더란다. [조사자: 삼.] 응. 그기 여자가 삼이라. [청중: 인삼이 둔갑했다.] 응. 그래. 그래 삼이 둔갑해가 사람이 되가. 그래 세상 실 따라가 찾았단다. 옛날에 할매들이 그라대.

[서구 설화 25]

도깨비로 변하는 빗자루

김흥순(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남성경로당]

옛날에 우리 사라호 태풍 때, 모리면(모르면) 참말로 홀래겠어(홀리겠어). 응. 그런데 사라 태풍 때 떡- 저게 인자 전부 살림이 다 떠내려가 뿌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저녁 먹을라고

들라 놓고 파도가 들어와버렸거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인자 파도가 다 가져가뿌고 사람은 있을 데가 없어. 비는 많이 오고 그래 인자 옛날에 보리로 많이 해가 인자 보릿대를 마이 쟁이 놓은 데, 거를 들어 가가 이래 있었어.

있다가 날이 쿰쿰하니 새이는데, 요새로 치면 한 다섯 시나 돼. 그런데 가니까네 다 파도가 다 가가뿌고(가져가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돼지하고 소하고 그래 떡 문까지가(묶어져서) 있어.

그래가지골랑 그래 내가 인자 그쪽에 인자 딴 거 도랑 건너가지고 집이 하나 있었어. 거 우리가 인자 우선에 메칠 있는데, 밤에야, 우리 선이야, 파-란 불이 바다에서로 '동동동동' 떠들어오다니만은, 물 가와가 착 걸리. 그래 내가 내려 가보지는 몬 하고. 제법 거리가 여서 예지만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하고 막- 눈 이렇게 봐났다가 날이 새가 내려가 보이까, 수시빗자리더라요. 그것도 불 난단다.

[청중: 수수빗자루 그가 도깨비난다.] 응. 도깨비나. 빗자리더라. [청중: 파란불이?] 파란불이. 파-란불이 그래가 마 [청중: 실지로 봤네.] 응. 꺼지지도 안 하고. 내가 그때 스물 두 살인가 요래 무울(먹을) 때라.

[서구 설화 26]

죽어서도 제 아이 돌본 여자

이순선(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남성경로당]

저 그거, 어떤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사고로 죽었어. 죽어서 인자 초상 다 치고, 초상도 묻었다 아니가. 옛날에는 다 묻는다 아이가. 묻었는데, 그 공동묘지 거게서 쫌, 조금 가까운 가게 거기 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 집도 별로 엄고(없고) 인자 가게가 하나 있는데, 밤으로 꼭 여자가, 저녁으로 여자가 돈, 웨와스 같은 걸, 돈 주고 웨와스 같은 걸 사가 가. 그래서 아침에 보면 돈이 아이고 나뭇잎이고 그렇다 캐. 그랬어. 몇 번을 그래서 인제 이 주인이 뒤를 밟았는 갑대. 뒤를 밟았더만은, 어느 묘에 인제, 그래가 거기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거 저기 시아버지랑 있고 그래서,

"우리 며느리 묘다."

하면서, 그래 사고로 죽었는데, 그래가 그런 일이 있었다. 이래 하이께, 나중에 파보이, 파봤으면 이래가 팠어. 팠더이만은 거기서 애기가 거 까자(과자) 사가 간 껍데기랑 다 있고 애기가 살아있더래요. [청중: 그 구신이 갖다 줬다 그쟈.] 저거 엄마는 죽어가 있고 애기는 크고

있고. 이렇더라 캐. 그런 이야기 옛날에 하더라. [청중: 그거는 진짜 전설이다.]

[서구 설화 27]

봉사와 벙어리 부부의 대화법

박은순(여, 1932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남성경로당]

봉사 영감이 인자 할멈이 인자,
"불 났다."
쿤께, 그 집에 갔다 와갖고,
"누 집이 불났는고?"
한께,
"저 안고랑 인자 누 집이 불 났다."
쿠면서, 영감 사태를 스칬어. 그래,
"아, 안고랑 아무개 집에 불이 났구나." [일동 웃음]
그런 말이 있어.

[서구 설화 28]

상사바위 전설

이중선(여,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남성경로당]

하도 좋아가, 좋아논께네 하모, 그 꼬랑댕이가(꼬리를) 그 딸아 여 사태 여 꼽히가고 쎄로(혀로) 여 모가지 여가다 내불래(뱀이 혀를 내는 모양을 말함) 한다 안 하나.

그래갖고 할 수가 없어서 어데 뭐 [청중: 상사바우.] 상사바우라도 가서, [청중: 풀러 갔다가.] 그 풀러갔다가 그따다가 미트러 삔다(밀어버린다) 안 하더나? 하도 안 떨어져서, 미트니 둘이 죽어 삐지. [청중: 풀다가 풀다가 못 풀면은 그래 밑으리삔다 하대. 그래 상사바우라 했어.] 그래 상사바우 전에 있었다. 그거 밲에(그것밖에) 모른다.

[서구 설화 29]

달래고개 이야기

이순선(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남성경로당]

그 남매가, 그 남매가 저, 저거 오빠가 저거 동생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어데 뭐, 어데 고개서 그랬는가? 꼬치를 뭐 찍었는가, 찍었던가 이랬더니만은. 난중에 그 동생이,
"달래나 보지."
이래가 달래고개 됐다.
[청중: 어데 간다고?] [조사자: 누가예?] 동생하고, 여동생하고 오빠하고 갔는데, 비가 마이 왔는데, 비가 온께 옷이 젖어논께 그기 다 보인다 아이가? 그래 인자 저 오빠가 뒤에 가면서로, 동생이 앞에 가면서로 그기 딱 치매가 홀게(홑치마를 말함) 논께네, 비를 맞아 논께네 다 보이니까네, 그리 그리 한다고. 그기 일어놔놓이께네, 할 수 없으께네 오데 비루빡에다가 찍어. 오빠 그 말하면 그 한다는 그런 말이 있다. [조사자: 그래가 남자는, 오빠는 죽고?] [청중: 그기 뭐 돌로가 찍어삐맀는데 살것나?]

[서구 설화 30]

미꾸라지로 도둑 잡는 양밥

김흥순(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남성경로당]

일할 때, 이제 그 할매 팔십, 설 쉬면 팔십 서이거든. 그런데 그 할매가 [청중: 구십 서이.] 그래. 구십 서이 용띠거든. 그런데 그 할매가 반지로 서랍에다 옇어놓으이 없더란다. 그래 없어가, 자기가 짐작이 가는 게 있었는가 봐. 그 할매가 라면을 두 봉다리 사가 왔어. 삶아 먹자 해가 주인 할매가 삶았어. 삶아가 먹고 이랬는데. 그 할매 말이 그래,
"라면 삶으러 내가 나간 녁에(나간 때에) 그렇지 싶어."
이래. 서랍 요런 게 있는데, 서랍이 조만한 서랍이더라. 고다 반지를 옇놨는데 그래가 가뿐 뒤에 보니까 없더래. 라면 먹고 간 뒤에 없어가. 그래가 며칠 됐어. 그래가 그 할매가, 내가, 인자 딴 사람 듣는 데도 그라고, 그 사람 듣는 데도 그랬어.

"내가 미꾸라지를 사와 내가 양밥을 해야 되겠다고. 반지가 없는데."
이라이까네, 절에 가니까, 그래가 딴 사람들은,
"해라. 해라."
커고, 난리고. 그 할매는 암(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래. 그래가 며칠 있다가 그 할매가 시장 미꾸라지를 사러 갔어. 사가,
"미꾸라지 날 세 마리만 줄라."
카이,
"할매로 세 마리로 우야는교?"
하더란다.
"묵을라고 그런 게 아니고 뭔 일이 있어가 그런다. 필요 있어가 그란다."
카이, 미꾸라지 파는 사람이 미꾸라지 세 마리 봉다리 넣어주더란다. 넣어 주는 거로 가져와가 집에 놔두고 있으니, 그 할매가 또 왔더라네. 그 와가지골랑, 그래,
"내가 미꾸라지로 양밥 할라고 세 마리 샀다 놨다."
고,
"반지를 누가 가갔는지 가간 사람 포가(표가) 날 거라고, 내 양밥 하면."
이랬는가 봐. [청중: 포가(표시가) 나지.]
오메, 양밥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반지를 갖다가, 그 할매가 이래 일로(여기로) 자대. 자는데 고 딱 비개(베개) 옆에 갔다 놨더란다. 그래가 반지를 찾았어. 반지를 찾고 그 할매는 일절 안 온단다. 그래 [청중: 부끄러워서 몬 오지.] 미꾸라지로 바늘로가 눈을 떼가 요래 해놓으면 그 사람도 눈이 멀어져뿐대.

[서구 설화 31]

남의 집 제삿밥을 훔친 사람

김흥순(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남성경로당]

옛날에 울릉도 어떤 집에. 저게 옆바앙(옆방)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그 인자 큰방집 주인이 인자 영감은 죽고 없고 할머씨만 아들네들만 덱고 사는데, 아들 바글바글 끓고 이래가 묵을 것도 없고 이래. 아, 넘의 제사 지냈는 거로 멧밥을 마 훔쳤어. [청중1: 밥 해놘 거를?] 응. 밥 해가 제사 지내고 난 뒤에 놔둤는 거로. 그거 할라고 계획적으로 봤는가 봐.

그래가지골랑 옛날에는 뭐 집도 동그라이 구멍이 뚫어졌고 안 그러나? 그래놓으니 그래가지골랑 맷밥이 도둑이라고 마. 그 집에 자고나이 멧밥이 없어. 아이고, 그래가 큰방집애가 가간 줄 알고. 그 할마씨가 좀 그런 게 있었는가 봐. 아, 아이고 마, 그 마 동네가 마 이런 사람도 많이 사는 동넨데 마 난리가 났어. 도둑놈이라고,

"남의 멧밥 도둑해 갔다."

고. 우사를 대우사를 하고. [청중1: 얼매나 못 살았으면 그랬겠노?] [청중2: 얼매나 배가 고팠으면.] 그래 배가 고파가, 그래가 세상 넘의 것을 훔치가, 멥밥을 훔치다 아들하고 먹고 그랬어. [청중1: 배가 고파가.] 배가 고파가. [청중1: 그 죄도 아이다.]

[서구 설화 32]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이순선(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남성경로당]

스님이 어데 가가 인자,

"시주 하라."

키니까,

"할 게 없다."

했다 아이가. 그래 인자 자기 여사로,

"그냥 우리 아 가가소"

이래 했던가? 그래가 주니까, 가서 인자 그기 또 종을 만드는데 사람을 하나 거기 삶는 쇳물에 같이 넣어야 거기 종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가, 그 아를 넣어가지고 삶아가지고 인자 쇳물 녹하가(녹여) 종을 만드이, 그기 엄마 때문에 그렇다고.

"에밀레, 에밀레."

그래 종 운다네.

[서구 설화 33]

옥수수 대가 빨간 이유

김순자(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천우경로당]

인자 호랭이가 나타났다 아이가. 호랭이가 나타나니까, 호랭이가 하는 말이,

"저, 떡 주면 안 잡아묵-지."

그래갖고 이 엄마가 떡을 줬네. 근데 떡을 또, 저만큼 가면 또 나타났는 거라. 호랭이가. 그래갖고 인자,

"오지 마."

칸께, 떡 다 준께,

"꽂감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랭이가 요 엄마한테 자꾸 그래. 그래갖고 쫓기다가 쫓기다가 하는 것이 인자, 또 어디만큼 간께. 또 팔 다리 다 주라 그러는 거라. 그쟈? [청중: 팔 다리로?] 응. 그럼. 그래갖고 인자 요 엄마가 허는 말이,

"어떻게 가꼬?"

그러니까, 호랑이가,

"또굴또굴 둥굴러서 가라."

그러는 거라. 옛날. 가다가 요 엄마가 인자 다 뺏겨버리고 없은께, 인자 나무로 올라가 버렸어. 나무를 타고. 긍께(그러니) 호랭이가 쳐다보고, 나무에 사람이 있은께 쳐다보고,

"조리로 뜨까? 바가지 뜨까?"

그런 이야기 들었을 걸? 그쟈? 있었지 지쟈? 그래,

"조리로 뜨까? 바가지를 뜨까?"

그러니께, 인자 막 웃겨서 깔깔 웃어버렸어. [청중: 엄마가?] 응. 웃어버리니께, 호랭이가 그걸 알고 도끼로 갖고 나무를 쾅쾅 찍고 올라오는 거라. 이제 잡아먹는다고 올라온께, 나무에 올라 앉아가지고 호랭이가 인자 무섭지.

"나를 살리라면 새 줄을 내려주고 나를 죽이려면 헌 줄을 내려주시오."

그런께, 새 줄을 내려갖고 올라가고, 호랭이는 썩은 줄을 타고 내려가다가, 가시밭에 그래 옥수수밭에 떨어져서 죽어서 옥수수가 뻘-겋다고 그러더만. 대가 호랭이가 떨어져 죽어갖고 빨갛대. 대가. 그런 말이 있었잖아. 그래.

[서구 설화 34]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순자(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 2동 천우경로당]

고래장은 인자 부모가 나이가 많으면 인자 갖다 저- 산 중에, 그 영화 봤지만. 인자 칠십 몇 살 묵으면, 옛날에 갖다 버리는가봐. 부모를. 그래갖고 나이가 차니까 아들이 지고 갔어. 저 고려장에 이 엄마를. 굴을 파놨대. 판 데다가 거기다 그릇하고 밥하고 딱 지고 갔거든. 옇어놓더라고. 굴을 파갖고 인자, 그서 부모를 모시고 가는데, 인자 놓두고 오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뭐라 하더라?

"그 지게 담에 아버지도 나이 묵으면."

아들이,

"할매처럼 젓다(저기다) 갖다 놓은다."

고. 그러더라대. 아버지도 같이. 그래놓은께, 아버지가 인자 놀래갖고 그런 게 없어졌다 하더라고.

[서구 설화 35]

아기장수 이야기

김순자(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 2동 천우경로당]

옛날에 아를 낳아놓으니까 아가 밑에 겨트랑이(겨드랑이) 털이 달렸더라대. 날개, 날개. 아들을 낳았는데, 날개가 달렸는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보고,

"절대로 내가 여거(여기) 날개 달렸다고 말을 하지 마라."

하더란다. [청중: 아가?] 응. 나라에 크게 될 아라. 그 아가. 갸가(그 아이가). 인자 말하자면 어. 옛날에 크게 될 안디(아이인데) 엄마보고 절대로 나 여거, 그때는 그런 자식들을 다 죽여버렸대. 나라에서 그렇게 난 애들을 다 죽여버렸대.

그래놓으니께 그 아가 태어날 때부터 막 큰 그게 될 애기더라. 막 그러니께 엄마더러,

"아무한테도 이 말을 하지 마라."

하더란다. 내가 이걸 달렸다고. 그래서 인자 요 엄마가 안 했는데, 어떤 순간에 말이 들어가 알았던가 봐. 그래갖고 나라에서 나와갖고 이 애기를 죽이라고 인제 나왔는 거라. 나와가지고. 이미 야는 인자 그 소리를 듣고 인자 땅 밑으로 어데로 들어 갔었다대. 그 아가 들어갔

는디 막 나라에서 큰-돌을, 큰 돌을 막 들어냈대. 그 아를 잡아죽일라고. 거기 있다고. 드러내는데 돌 밑에 사람이 콱- 찼더란다. 정치할 꺼라고.

근데 그 애기를 놔뒀으면 나라에 정치가 크게 될 애긴데, 그걸 알고 옛날에는 그런 자식들을 못 놔둔대. 다 죽여야 된대. 그래갖고 그 애기가 죽어 엄마한테 절대로 그런 말을 못 허게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안 돼갖고, 인자 엄마가, 그 아가 땅 밑에 굴속에 들어가 뿌렸나 갑대. [청중: 거서 역적모의 했다.] 그렇지.

그래갖고 인자 그 돌을 꺼내니까, 그 속에 백성들이 나올 꺼라고 이빠이(가득) 차갖고 있더라네. 그래갖고 그 아가 부모를 그리 원망하더란다. 뭐 무슨 말이 또 있었어. 거 엄마한테 원망하는 게. 결국 그 아도 죽었고, 못 허고, 아무것도 못 허고 결국 그 아도 죽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인자 몰수가 돼버리고 그랬는 갑더라.

[서구 설화 36]

아들로 태어나 원수를 갚는 뱀

김순자(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천우경로당]

인자 그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 낳았는데 아들을 둘 낳았다더마. 최진사집 아이고. 아들 둘 낳았는데 아들 둘이가 너무 훌륭하게 잘 크더라네. 둘이가. 아들 둘이가 잘 컸는데, 뱀하고 무슨 원수가 있었던 갑대.

뱀이 사람으로 둔갑을 해갖고, 사람을 둔갑을 해갖고 가가(그 아이가) 그리 컸는 거라. 아들 둘이가. 커가지고 결국은 그 뱀이, 사람이 뱀으로 변해가지고 그 집을, 부모들을 다 해꼬지를 하더라네. 그래갖고 다 죽어버렸대. [조사자: 전생의 업인 갑다.] 전생의 업이지. 근께 그 아들 둘이가 너무너무 잘 크고 좋았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가더만 인자 변해버렸갖고 집안에 부모를 다 해꼬지를 하더라네.

[서구 설화 37]

제삿날 가는 귀신을 태워준 택시기사

김순자(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 2동 천우경로당]

인자 어느 기사가 저 간다고 가니까, 어느 여자가 그 택시를 탁- 타더라네, 여자가 그래 타면서 어디를 가자고 그러더래. 그래 가갖고 어느 큰 집으로 들어가더라네, 대문을 열고 들어가더만 통- 나오지를 안 하더라네. 그 여자가 그 집으로 들어가더니만.

그래서 인자 그 기사자 그 집으로 들어가니까, 그날 그 여자의 제사라. 제사가 돼가지고, 그래 인자 기사가 말을 했지.

"나가 어떤 사람을 덱고(데리고) 왔는데 들어가더만 안 나온다."

한께,

"우리 딸이다."

그러더란다. 그래갖고 그 기사가 대접 받고, 인자 돈 받고 그러고 왔다 하더라고. 그러니께 이제 혼이 있다는 뜻이지. 그런 이야기 들었어.

[서구 설화 38]

바리데기 이야기

김순자(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천우경로당]

일곱 째로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 딸을 인자 딸 취급을 안 하고 버렸다. 그쟈? 그래갖고 아버지가 아프게 됐어. 아버지가 아파갖고 그 공주가 아버지를 살리라고 저- 산중에 가갖고 약을 캐러 갔는 거라. 그 아버지 약 거 한다고. 그래갖고 약은 모르겄다. 그 약을 캐갖고 아버지를 델이(달여) 먹여놓고 아버지가 살았다 아이가.

[서구 설화 39]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김순자(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천우경로당]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항상 누-래갖고 있어. 얼굴이 확 피고 그래서 시아버지가,
"와 그리, 그리 누렇노?"
그런께,
"방구를 몬 껴서 누랗다."
그러거든.
"그래, 아고 그럼 뀌라."
그러니까,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버님."
옛날에 기둥 안 있나? 문지동(문기둥). 그걸 잡던가, 뭘 잡고 있어야지 안 날아가지. 자기 방구 뀌면 사람이 날아간대. 엄청시리 방구가 커갖고. 그래갖고 방구를 대체 뀌니까 그냥 마 시아버지가 날아갈라 그러이,
"기둥을 잡고."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 [웃음] 그런 말을 듣고 마이 웃었다.

[서구 설화 40]

도깨비가 되는 빗자루

윤진연(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천우경로당]

촌에 있을 찍에는(적에는) 도깨비가 나와가 마 불로 키가 온 데 댕기고 그러는데, 마 그 이튿날 아침에 빗자루라 더래. 피 묻은 빗자락 자루나 피 묻은 거를, 뭐를 길에서 내삐리비면 그게 도깨비로 변한대요. 그런다 하대.

[서구 설화 41]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지분님(여,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천우경로당]

에밀레종은 옛날에 저런 큰- 저수지 뚝을(둑을) 맨든다 아이가. 저수지 둑을 맨드는데, 그게 자꾸 터지고 터지고 이래. 그런께 그래 이제 어디서 본께네, '그 애기를 하나 종을 만들 때, 애기를 하나 그래 희생을 시켜야 그 종이 완성이 된다.' 그랬어. 그래 그 아로 주게 됐지. 그래 인제 종이 그케(그렇게) 종도 잘 되고, 또 뚝도 안 허물어지고 잘 되고 그랬다는 이야기는 들었어.

[서구 설화 42]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지분님(여,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 2동 천우경로당]

고려장을 시키러 저거 엄마를 업고 그래서 가서 고려장을 시키고 인자 지게를 지고 오는데, 저거 아들이, 저거 아가,

"아버지, 그 지게를 왜 또 지고 가요?"

이랬어. 그러니까,

"또 너거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또 지고 와야 할 거 아이가?"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그 고려장이 시대가 없어졌다. 그런 말이 있어.

[서구 설화 43]

도깨비에게 홀린 사람

지분님(여,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천우경로당]

구포자앙(구포장)에 갔다 오면서, 구포자앙에 장사하고 오면서 새끼들 무울라고(먹으려고) 있제, 우리 아버지는 바앙(방) 누워가 있제, 그 이튿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래 구포자앙 갔다 오면서. 저리 둘러오면, 거는 그때는 아스팔트 안 돼가 있고, 마 돌이 불퉁불퉁하고 돌아오고. 철까치로 가면 빨리 오거든. [조사자: 어데로 오면는예?]

구포, 구포 철까치(철길), 열차 댕기는 데 걸로 오면 그가 화면동이 지금 몽땅 보태가 화명

동인데. 옛날에는 군역 군역 이름이 다 틀려. 그때만 해도 대청이, 용당, 수정 이리 딱 돼가, 중간 중간에 돼가 있거든. 그래가 그 철까치에 오면 그 산이 우뚝한 게 있어. 새 새이(사이사이) 두 개가 있었어. 마이도 안 크고 그 논이 쪼끔 쪼끔한데, 그 논에 있는데, 장사하고 온께 토채비가 물고 막 끌고 가더래. 우리 엄마가 끌고 가. 고무신 한 짹이 신고 한 짹이 벗고 그래 헐떡거리고 왔더라고.

그 뒷날 신 찾으러 가대. 그렇더만은 마 혼이 나가버렸어. 혼이 나가가 마 그래가 울고 가는데 팍- 뻘구더기 가는 데, 누가 기침 콜록, 담배를 퓼던가 봐. 그때 살- 놓더래요. 놓아서 그래가 한 쪽 신 신고, 벗고 왔더래. 그래 그래가 오래 못 살았어.

검은 고무신 신을 때라 옛날에 다. 신이 있아놓이 우리 아버지가.

"여보 여보, 딸아이 신 떨어졌다 물 샌다 하나 사주라."

카이께네,

"내주(나중에) 부산 가서, 부산 가가지고 베짜는 공장 그때는 있었다 아이가 옛날에. 베짜는 공장 들어가가주고 돈 벌이가 사주꾸마."

그때부터 마음이 영 가뿠어. 그래가 얼매 몬 살아다가 돌아가싰어.

[서구 설화 44]

여자 음부를 문 가재를 떼어준 스님

지분님(여,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천우경로당]

논에 일을 하는데 밥을 이고 가. 밥을 해가지고. 밥을 해서 이고 가는데. 오줌이 너무 매렵는 거라. 그 인채로 어떻게 옷을 내려갖고 오줌을 싸. 밑에서 고마 너무 뜨거운께 밑에서 가재가 나와갖고 꼭 이래 날가지를(음부를 말함) 물어 버렸는 거라. 물어가지고 안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중이 또 용하게 지나갔어.

"아이고, 스님, 스님. 나는 이 뭣이 이래 물어가지고 도저히 못 일어나겄다."

고 했어. 아, 스님이 이리 들여다보니까 기가 안 차거든. 응. 여자도 없는 스님이 그거를 들여다보기가 참 민망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본께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더란다.

그래서 마, 나발을 거기가 되가지고 막 불었는 거라. 그게 마 떨어져나갔어. 그런께 그 어떤 이야기는 그런. [조사자: 스님이 중 생활 몇 년 만에 뭔 나발 불기는 처음이다.] 그래,

"중 생활 삼십 년 만에 씹나발 불기는 처음이다." [일동 웃음]

[서구 설화 45]

호랑이를 물리친 할머니

지분님(여,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천우경로당]

뭐를 이고 산 너머를 가. 가는 데 호랭이가 큰 호랑이가 나온 거야. 너무 무서워서 이 할매가 너무 무서워서 어쩔 도리가 없어. 근데 자기가 맨스가 있었어. 맨스가 있어갖고, 옛날에는 마 중우[60]도 마 뻣뻣허게 무명 중우 그거를 입고. 피가 벌거이 묻은 거라.

마 이거 치마 이거를, 뻣뻣한 치마 이거를 딱 덮어 썼어. 쓴께 호랑이는 자기보다 더 몸집이 더 큰 거를 보면 안 달라든다대. 그런단 소리를 듣고 그 할머니가 그 뻣뻣한 치마 그놈을 입고 엄버거지 쓰고 있었어. 호랑이가 그냥 갔다대. 안 죽이고.

[서구 설화 46]

지킴이가 눈에 보이면 안 되는 이유

지분님(여,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천우경로당]

찌꺼미라는(지킴이라는) 게 구렁이. 구렁인데 그 구렁이가 그 집에 아무리 저거 해도 구렁이가 나와서 내비치면 그 집은 망해. 그 왜 그라면, 내가 여 칠보사에, 저 위에 칠보사 절에 다니는데 초파일날 저 위에가 절이 많이 있었거든. 신도들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면서, 그러자 이제 이쪽에 나 다니는 그 칠보사 절이라는 절에 시끄러웠어. 좀 뭐, 중이 마누라 안 얻어 산다 하더라도. 천태종은 얻어갖고 살고 조계종은 얻어갖고 안 살거든. 그거는 천태종이다.

그러니까네 마누라 얻어가 사는데, 쌈이 너무 너무 심하고, 긍께 인자 스님하고 저거를 살 때 칠 억인가를 주고 샀는데, 그 절을 샀는데, 그놈을 인자 마누라가 뭐 서울에다 아파트를 몇 채를 사가고 세를 내놔논께, 고놈 팔아봐야 남는 거 전세 내주고 남는 거 갖고 왔으니 큰 돈은 안 갖고 왔는데,

"야, 아파트 세 채 값을 내놔라고."

싸움이 났어. 인자 한참 야단이고. 이놈을 처리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도 댕기기는

60) '중우'는 '바지'의 방언.

댕기고 그러는데, 저 우에서 다른 절에 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이 그 우에, 그 우에 질에(길에), 질 가까이에 큰- 구렁이가 나와서 있다고.

"아이고, 이상하다."

고, 모두 그러더라 하는 기라. 그래서 나도 지금 팔십 둘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래 칠보사 절이 아무래도 망할란갑다.' 그랬어. 그랬더니 진짜로 망하고 말더라.

이 집에 사는, 사는데 다 찌끼미가 다 지키고 있대. 땅 밑에서도 지키고 있을 수 있고. 지붕 꼭바리(꼭대기) 지킬 수 있고 그랬는데, 그기 옛날에 시골에 부잣집에서도 나와서 저런 담이나 어디나 그렇게 있는 거를 누가 눈에 보면은 그 집이 망하더란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 할매들이.

[서구 설화 47]

아이로 태어나 원수를 갚는 뱀

지분님(여,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천우경로당]

뱀이, 큰 구렁이가 하나 왔어. 저 옛날에는 그릇 얹는 선반이 있었대. 거 가(그곳에) 구렁이가 있으니까, 그래 가만히 뒀으면 됐을 낀데, 그거를 갔다가 불 때는 불 작대기 있제? 부지깽이. 부지깽이 그걸 불이 땡겨는데, 그놈을 갖고 와서 콕 지져버렸는가 봐.

콕 지져버리논께 그 구렁이가 어떻게 해서 방에를 들어왔는지 그 딸아한테 와가지고 꼬랭이를 자궁에다 넣고 그렇게 했대. [청중: 애를 놨다.] 그래가지고 애기를 낳았다 카대. [조사자: 애기를 낳았다고예?] 응. [청중: 난 게 뱀이라.] 낳은 것이, 그것이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뱀의 원적이라. 그 뱀 이래 생겼다.

[서구 설화 48]

묘를 이전해서 망한 집안

지분님(여,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천우경로당]

묫을(묘를) 명당자리에 써놨다가, 명당자리를 써놨다가 그 이장을 안 했으면 잘 살 껀데, 그 이장을 하고 짚는 거라. 그래 이장을 하는데, 아래 저 산은 놓고 밑에 인자 음식을 해서 올려보내고 여자들은 모두 모다갖고. 그 묘 봉을 헐른 거 겉은데, 하얀 연기 같은 게 확- 날라 가더란다.

그 묘를 옮기고 나서 그 집안이 망했다. 그 다른 집안, 다른 집안도 아니고 장씨네 집안이라. 인동 장씨. 근데 그 우리 외갓집 동네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

[서구 설화 49]

좀드리 쌀

지분님(여,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천우경로당]

자기만큼 먹고 살아야지. 너무 욕심을 마이 부리면 안 좋잖아. 옛날에는 밥, 쌀 내면 항상 이래 한 주먹 딱 집어서 여 '좀드리'라고 받아. 옛날에 옛날에 우리 클 때는 그거를 부엌에서 밥 쌀을 똑같이 내. 똑같이 내. 더 내는 게 아니고. 똑같이 내가지고 거기서 한 주먹 따 내 집어서 넣는 자리가 있어.

이거를 인자 그릇을 하나 놔놓고, 요래 통을 놔놓고, 인자 통을 놔놓고 꼭 밥을 먹을 만치 양식을 내갖고서도 딱 한 주먹 집어넣고, 딱 한 주먹 집어넣고. 그거는 엄마들이 우리를 보고 팔아가지고, 어 그거는 좀드리 받은 쌀이라고. 한 숟가락썩 들면. [조사자: 좀드리?] 고거 한 주먹 넣어서 포도(표도) 없이 식구가 작게 먹기나 배가 고프나 이런 것이 없이 그래, 이 쪼금씩 받는 것 보고는 좀드리라고 그랬어 그때.

[서구 설화 50]

부모 합방이 뭔지 모르는 딸

지분님(여,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천우경로당]

아그들이 여섯이나 돼. 딸이 너인가 되고 아들이 둘이고. 이놈으가 한 방을 썼는 아그들이

자고. 한 방에 아그들이 다 합석에서 잘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셋째 딸하고 한 방에서 이래 잠을 자는데, 아이고 그 딸아가 자는 줄 알고 영감 할마이가 그거로 했는 거라. 할라고 이래 일을 시작했는데, 아요, 영감이 올라가서 한참 일을 하는데 딸아가 그래 빨딱 일어나더만.

"아버지, 엄마를 왜 그래? 아버지, 엄마를 왜 그래?"

그 딸이 시집 가고는 뒤로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보것더란다. 지도 가서 그런 저거를 하면, '우리 엄마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내가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헐까봐. 부끄럽다 캐.

[서구 설화 51]

혀가 짧아 우습게 된 말

지분님(여,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천우경로당]

"오늘 보지 수맵니다. 오늘 터락도 있으면 안 되고, 껍데거리도 있으면 안 되고." [웃음]

그 이야기는, 그리 허고 웃는데,

"자리도 헌 자리는 안 되고 새 자리만 되고, 보지 수매를 하는 날입니다."

그런다고. 마이크로 대고 한다고. 우리 그런 이야기하고 웃는다.

[서구 설화 52]

콩쥐와 팥쥐

지분님(여,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천우경로당]

콩쥐 팥쥐 딸아 하나 있는데, 시집 가가지고 지가 딸을 하나 낳아가지고, 그 언제 물을 먹는데, 물을 먹다 저 딸하고 어디를 가면서, 그 먼저 난(낳은) 엄마의 딸 보고는,

"물로 갖다 붓어라."

하면서, 단지 저 밑꺼저기를(밑독을) 깨가면서,

"갖다 붓어라."

하니, 하루 종일 갔다 붓으니 물이 차나? 그래가지고 뭐, 그 딸을 어쨌다고 하더래.

[서구 설화 53]

구렁이로 환생하는 이유

지분님(여,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천우경로당]

죄를 마이(많이) 지면 죽어서 구렁이나 되어라. 그 말이 그말이야. 옛날에는 죄를 많이 지면 구렁이가 되고, 요 동네도 남포탕 친정집에 [조사자: 남포탕?] 남포탕. 요 건네(건너). 그 집 친정에도 그런 기가 업이 나왔는 거라. 뒷간에 가 살금살금 사리고 몇날 며칠을 있는 기라. 그런께 밥을 해놓고 떡을 해놓고 빌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갖다가 없앴어.

사람 사서 없앴는데, 그 집안이 거지, 미친 사람, 전부 다 아들이고 딸이고 미쳐버렸네. 죄 짓고는, 죄 짓고는 못 살아. 지금도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 캐도 아이고, 나는 어제 그것도 안 오고 창문에 그렇게 허고 못 살것더라.

[서구 설화 54]

손님을 못 오게 해서 망한 집

최분자(여,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천우경로당]

메느리가 하도 손님이 와서 언성시럽어서[61] 저기 스님이 왔는데,

"아이고, 스님요, 스님요. 손님이 너무 와사서 귀찮아 죽겠어예. 좀 방법을 갈챠(가르쳐) 주이소."

그 스님이,

"그러면 저기, 매일 머리를 감는."

옛날에 머리가 기다란 이마이(이만큼) 오는데,

"머리를 깜거들랑 부석(부엌) 앞에 서서, 부석 앞에 앉아서 쓱쓱 빗어라."

머리 감을 때마다 마장. 아 부석에 앉아가 맨날 머리를 빗고 나니까 집이 고마 쫄딱 망해뿌더란다. [청중: 망하면 손님이 안 오는 기라. 사람이 오면은 사람답게 산다는 집이라요.] 쫄

61) '엉성시리'는 '지굿지굿이'의 방언.

딱 망해뿌니까. 고래 양밥을 했지. 양밥을 해놓이 쫄딱 망해뿌이 손님이 하나도 안 오더란다.

[서구 설화 55]

달래고개 이야기

최분자(여,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천우경로당]

남매가 고개를 넘었어. 어데 길을 갔어. 길을 가이까네 가다가 쉈어. 인자 억수로 고개가, 옛날에는 높고 안 그러나? 차도 없고 한께. 그래 쉬어가지고 저기 그래 누나가, 누나고 남동생이고 이렇는데, 남동생이 누나를 흑심을 품었어. 그래 놔놓으니까네 그래 돌아서 앉아가지고 남동생이 지 꼬치로 돌맹이로 가지고 '콩 콩' 뚜디리(두드려) 뿌샀어. 뚜디리 뿠아놓으니까네 고마 그래 죽어뿌더라 하대. 죽고나니까 인자 누나가,

"아이고, 이 말이나 한 번 해보지. 물으나 보지. 물어나 보지."

인자, [청중: 그래 있어. 돌에가.] 그 달래가 노래 아이가.

[서구 설화 56]

호랑이보다 무서운 곶감

최분자(여,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천우경로당]

꽂감을, 아가 저녁알로(저녁으로), 저녁에 잠서(자면서) 저 아가 울어쌌어. 그래.

"우지 마라. 우지 마라."

하이까네. 저기 자꾸 울어쌌어.

"호랭이가 온데이, 호랭이 온데이, 집떤지(집어던져) 주고, 호랑이한테 줘버린다."

하니까, 그래도 아가 자꾸 울어쌌거든. 울어싸이까네,

"아이, 그러면 꽂감 줄게. 우지 마라."

이카이 까네, 꽂감 얻어 물라고 안 운다 그러대. 그 소리 들었어. [웃음]

[서구 설화 57]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최분자(여,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천우경로당]

아들은 돈 벌러 가뿌고, 저게 시어머이캉 메느리캉 사는데 억수로 가난했어. 몬 살아. 몬 살아서 묵을 게 없어서 할매가 빼빼하게 이래 말랐어. 말라비틀어지는 기라. 그래 아들도 돈 벌러 가고 안 오제 이래 해놓으니께, 며느리가 효부라. 효부가 '아이고, 이 시어머니 이리 빼짝 말라놓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거싱이(지렁이)로 팠어. [웃음]

파가지고 거싱이로 폭- 고아 믹있어(먹였어). 믹있더니 할매가 요래 오동통하이 살이 찌거든. 그래 할매가 맛있기도 맛있고 이래가지고,

"하이고, 내가 살도 찌고 맛있고. 뭣이긴 데 우리 메느리 이리 해 주노?"

하니까, 그걸 한 마리 잡아갖고 자리 밑에다 쟁여넣었어. 쟁여넣고 있으이 그런고로 아들이 왔어.

아들이 오니까네, 저게 그게 거싱이 그기 불어서, 삶았을 때는 불어서 커다라이 이래도 말라놓으니까네 또 빼쩍 말라 거싱이거든. 아들이 오이까네,

"아이고, 야야. 내가 너거, 니 돈 벌러가뿌고, 그때 니 댁이 이걸이래 해주니까 내가 참 맛있게 잘 뭈다. 내가 몸도 보신을 하고 이렇다."

카면서,

"이기 뭣인고 함 봐아."

자리를 들치이까네(들추니), 아들이 보이까네 거싱이거든.

"아이고, 어머니." [웃음]

[청중: 근데 그 할머니가 본체(본래) 봉사야. 봉산데 그래 만날 앉아있는데, 봉사가, 인자 봉사로 그래 앉아있는데, 니 말에나따나 그래 거싱이를 잡아서 믹있는데, 아들이 와서 그놈 뵈이니께 놀래서, 깜짝 놀래서 그 바람에 눈이 떴어.]

[서구 설화 58]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최분자(여,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남부민2동 천우경로당]

신랑이 거시기더라 카대. 저게 선배라(선비라) 카대. 선밴데 맨날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옛날에 뭐, [청중: 공부만 해.] 공부한다고 그래 앉아 있으니까 마누라가 묵고 살 길이 없었어. 어마이하고 식구들 있고, 묵고 살 길이 없어서 '아이고 이 고마 마 이 선비만 바라고 있다가 고상만(고생만) 하겠다.' 싶어서 도망을 가버렸어.

도망 가뿌나이까네, 신랑이 과거 보러 갔어. 과거 보러 간께네, 과거를 본께네 시험에 붙었어. 지금은 뭐 취직 붙듯이. 옛날 과거 시험에 붙어갖고 참 검사 그기 돼갖고. 그게 뭐꼬? [청중: 암행어사] 어. 암행어사. 암행어사가 말로 타고 막 머리 뭐, 뭐. 이거 꽂고 안 그렇던가배? 꽂고 꺼떡꺼떡 오이까네, 자기 마누래, 도망간 마누래가 내나 논에서 쟁피 훑는다 하대. 피.

"아이고, 저 건니 저 논에 저 아낙네는 안즉까지(아직까지) 갱피 훑네."

카면서러, 그 신랑이 내려오면서러, 말 타고 내려오면서러 그런 말이 하더란다. [청중: 저거 마누라다.] 응. 마누래.

[서구 설화 59]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현덕(남,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동대신1동 동일경로당]

저거 아버지가, 아들이 지게를 저거 할아버지 있는 데다 갖다 묻어 놓고, 아들이 지게를, 그 지게를 다부(도로) 지고 오니까,

"지게 거(거기) 버리라."

쿠께네, 저거 아배가 버리라 쿠께네,

"버리몬 안 된다."

조건이 버리몬 안 된다.

"왜 안 되노?"

쿠께네, 그리 버리지. 내가 이래 예상으로 이래 얘기로 하는데, 왜 안 되노 쿠께네,

"나도 뒤에 아버지가 칠십이 되면은, 이 지게로 가주 아버지를 지고 가야 된다."

고 쿤께네, 그래가지고 저거 아버지가 다시 서가지고,

"다부 가자."

카맨서, 그래 저거 할아버지로 [조사자: 도로 모시고 왔네.] 도로 모시고 옸다는(왔다는), 이런 진실인가, 진실인가 낭설인가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구 설화 60]

과부를 놀리는 까마귀 소리

김현덕(남,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동대신1동 동일경로당]

옛날에 그 대청마루에서 참 젊어서 혼자 된 과부가, 그 따듬, 여 옷 [조사자: 다듬이다, 다듬이.] 이래 이래 앉았다가, 까마구란 놈이 저 앞 줄에 와서,

"[까마귀 소리로] 과-부 과-부."

이래 쌌거든. [조사자: 과부. 과부.] 응. 과-부 과-부 이래 쌌거든. 이것 때문에 인자 마 작대기로 집어 잡아 떤지뿠는(던져버렸던) 기라. 떤지이까, 까마구가 가면서,

"십이십이 십이십이." [일동 웃음]

[조사자: 아, 까마귀가. 깍깍 하는 게 그게 '과부 과부' 소리로 들리네.] 그래 들리든지 그랬겠지.

[서구 설화 61]

구르가다 멈춘 자리가 명당

김현덕(남,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동대신1동 동일경로당]

옛날에 자기 부모가 아주 중병을 앓고 있는데, 인자 옛날에는 전부 약국이고 병원같은 기 잘 없었다 아입니까. 시골 같은 데 그래, 그 인자 약국에 이래 떡 가니까, 상주가 떡 돼가 있거든. 상주가 떡 돼가. 그래 가마히 생각커이까네, '지금 약사가 저래가지고 상준데, 저기 무슨 울 아부지 약을, 울 아부지로 낫알라고?' 하고 왔분다 이기라.

그래가, 그래그래 오다가 저거 아부지 죽었어. 죽고 인자, 풍수지리인테 가가지고 인자 그 뫼터를 보고 인자, 기일로, 그 날짜로 택할라고 인자 이래 떡 가보니까, 아주 수숫대 움막에

말이지, 참 기이도(기어서도) 가고 기이(기어서) 나가는데, 이런 사람 오예 있거든.

"저 사람이 명당, 명당자리다 알 거 같으몬, 왜 저래 살겠느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에라이, 이놈의 자석, 나는 내 맘대로 한다."

하면서 저거 아부지로 갖다가, 시체로 인자 지게로 짊어지고 저 높은 산만대이(산꼭대기) 올라가서 마,

"아버지 복대로 가소."

카매 떨어뿠는(떨어뜨려버린) 기라. 그래가 두굴두굴 굴러가다 마 어데 한 군데 떡 서거든. 그 자리 떡 묻어 놨어. 묻어 놨는데, 그기 참 옛날 말로 말이지, 삼정승 육판서라 카는 이런 자리라. 아주 명당이라.

말하자면 그기 복이라. 복이다 이기 지(자기) 복. 복에, 지 복이 있으몬, 인자 저거 아부지 그런 명당자리를 찾아간다 카는 그기라. 그런 얘기지.

[서구 설화 62]

여우에게 홀렸던 사람

이성도(남,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동대신1동 동일경로당]

내가 일곱 살 때, 우리 둘레에 쪼만한(조그만)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을, 이 산을 넘어가야 우리 큰집에 갑니다. 큰아버지 제산데, 우리 동네 여서 큰아부지 여 사는데, 산에 갑니다.

고 산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안자 술을, 약주를 참 좋아하거든요. 한 잔 자시고 퍼뜩 퍼뜩 나를 업고 가는 기라. 가는데, '이 새끼가' 그 사람하고 욕을 하고 막 난리, '이놈의 새끼' 이래 싸매, 이놈 좀 내리라. 돌을 갖다 던지고 야단이라. 그런 기 '이상하다. 내나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뒤에 따라오는 기라. 아부지 뒤에 따라 와가지고 인자, 아버지는 자식을 업었으니 자식을 살리야 될 거 아이가. 그래가 인제 뭐 뚝 구불러뿠는 기라. 참 홀맀어. 그기 호속인가[62] 야신가(여우인가) 모르는 기라.

야시도 그게 잘 야시가. 여우가. 여우가 큰 산골에 있는데, 자갈로 고 마치 돌질로 하는데, 그때는 나를 두개를 줬는데, 산길을 갖다 밤에 갈 때는 이 돌이 안 있어요. 돌. 돌을 딱 두개 쥐고, 딱 쥐고 퍼떡 가든가. 산을 넘어갈 때 여우가 와서 어글거리면, 이 돌을 가지고 따-

62) 호속(虎屬)인가, 즉 "호랑이 종류인가"의 뜻으로 말한 듯하다.

악 때리뿌렸데요. 여우가 그 돌을 맞고, 그 인이 백이가지고 그 돌에. 그 자리에 갔대. 이 사람이 피해가 달아났데. 그래 어떤 낭설인가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나는 아부지잔테 들었어요.

[서구 설화 63]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이성도(남,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동대신1동 동일경로당]

아가 하도 울어싸서, 저거 엄마가,
"야 이놈, 호랑이 온다."
그래도 울거든요.
"이놈 자석, 꽂감(곶감) 주까?"
하이, 탁 그치뿌더래. 그래 호랭이(호랑이)가 밖에서 탁 듣고 있다가, '아, 내보다 더가 뭐 꽂감이.' [웃으며] 그래 도망가뿐다. 그래 도망가뿠지.

[서구 설화 64]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김말숙(여,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동대신1동 장수경로당]

옛날에 눈 멀은 엄마에 아들 하나가 있었어. 이 아들이 옛날에는, 뭣을 짊어지고 저 먼데로 돈 벌이로 하러 가야 돼. 근데 이 메느리(며느리)가 그 엄마를 억수로 구박을 했는 기라. 그러니께는 자기 마누라한테,

"아, 이 지렁이를 잡아갖고 할매를, [말을 바꾸어] 뭐 엄마를 인자 시어머니를 어쩔기나 마 죽일라 이러이께네, 그래 하지 마고 넘의(남의) 눈도 있는데, 그래 하지 말고 지렁이를 잡아갖고 폭- 고아 드리면은, 잘 됐다 내중에(나중에) 살-살 그래가 가니까는, 이웃 사람 듣는

데 죽었다 소리는 하지 마고, 그걸로 자꾸 해드리라."

이래가지고, 이 마누래가 곧이 듣고 내- 지렁이로 드맀는 기라. 참 석 달, 넉 달 있다가 집에 돌아오도 할매가 부-하거든. 어, 지렁이가 그거, 지렁이가 그거 인자 보약이라. 지렁이 그게 보약이 돼갖고 마 몸이 너무 좋고 글는(그렇는) 기라.

"하이고, 어무이가 어찌 이래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냐?"

이러니게는,

"야야 너거 마누래가 나를 갖다 이래, 이래 ○가이고 보약만, 보약만 매 세 끼마다 주더라."

그래가이고,

"어머니잔테 그랬나."

카면서 마, 이거 죘더만, 어이구 싶어서 마 그 시어머무이가 눈을 뜨더라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서구 설화 65]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김말숙(여,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동대신1동 장수경로당]

"꽂감(곶감) 있다. 꽂감 가온다."

카매, 호랑이가,

"아이고, 꽂감이 내카마(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는 갑다."

카면서 도망간다 카더나. [조사자: 그래. 그래.]

[서구 설화 66]

도깨비로 변하는 빗자루

김삼순(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동대신1동 장수경로당]

그 저녁에 토깨비(도깨비)를 만내갖고 마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그래 씨름을 하고 그래 그 뭐라 끈을 가(가지고) 똘-똘 뭉치놓고, 그래 집에 왔는데, 안날(다음 날) 아침에 가본께네, 빗자리 몽댕이(빗자루 몽둥이)더라 카대.

[서구 설화 67]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김삼순(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동대신1동 장수경로당]

그 메느리가 너무 무울(먹을) 건 없는데, 너무 뭐 해드릴 게 없어 놔노이까, 그 메느리가 호부(효부)가 돼가 보인께네, 그거를 잡아다가 그렇기 깨끗하이 씻거갖고(씻어갖고), 그래 시어마이 해줐다 말은 들었어요.

[서구 설화 68]

쌀이 나오는 바위

김삼순(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동대신1동 장수경로당]

스님이 그래 이바구를 하대요.

그래 이 물, 저저 쌀이 손님이 하나 오몬 하나 모가치(몫) 나오고, 둘이 오몬 둘이 모가치 나오고, 이리 마 이래 나오닌 기라예. 촐촐촐촐 나오몬 그거 손님 대접을 하고, 또 또 나오몬, 또 쑤시놓으몬 또 손님 대접을 하고 이래 쌌는데.

욕심이 나갖고 고마 저 무슨 꼬쟁이(꼬챙이)로 갖고 마이(많이) 나오라고 푹푹 쑤시놓은께 그 질로 물이 촐촐촐. 그래 그 질로 물 거기 마 추바리(뚝배기. 즉, 그릇) 추바리, 지금도 물 나온다고 전설이 있어요.

[서구 설화 69]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미상(여)[63]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동대신1동 장수경로당]

옛날에 뭐뭐 고래장(고려장), 너무 오래 사니까, 그 집 아들이 그거 저 옛날에는 다 무울기 없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인께네 고래장을 하는데, 지게 지고 가가주고, 지게 지고 가면서, 그래도 인자 그 손자가 따라가면서, 지게 지고 가는데 손자가 따라가면서 가가지고, 버리고 올 때, 그 지게를 거서 버리고 오는 이유는, 손자가 하는 말이,

"저 아버지, 아버지. 와 지게를 버리고 갑니까?"

카니까,

"그 지게를 버리고 가야지. 지게를 놔두고 도로 가지고 못 간다."

손자가 하는 말이,

"아버지, 그러면은 제가 지고 가서 다음에 아버지도 여어 지고 오야 안 되겠습니까?"

카니까, 그라고 나서 그 지게를 지고 어머니를 도로 집에 모시고 왔답니더. 그 이후로는 이게 인자 고래장이 없다 마 이런 얘기가 있습디다.

[서구 설화 70]

호랑이와 오남매[해와 달이 된 오누이]

미상(여, 19??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동대신1동 장수경로당]

엄마가 그래 자아(장에), [말을 바꾸어] 새끼를 오남매를, 자식을 오남매를 낳고, 인자 그 오남매 키울라 카몬 오죽 했겠습니까, 옛날에. 그래갖고, 인자 여자가 벌이가지고 인자 양식 대야 된다고. 엄마가 아침에 인자 일을 하러 하러 엄마가 나갔답니다. 그래 나가면서러,

"야들아, 내가 오늘 어디 아무 데 아무 데 갔다가, 너거 먹을 거 사가 오꾸마. 이래가 갔는데, 만약에 엄마가 늦게 오도 너거가 밖에 나오지 말고. 아, 거게서 밖에 나오지 말고. 만약에."

63) 제보자가 성명과 나이를 밝히기를 거절하여 부득이 '미상'으로 기록한다.

옛날에는 머 짐승들이 그래갖고 애들 그거 머 인자 그거 해치할라고(해치려고) 밖에서 무슨 인자 사람 소리, 엄마 소리, 사람 소리를 낸다 안 합디까? 그래 인자 내면서러,

"야들아, 너거 떡 한 개 주몬 안 잡아묵지."

"그래 떡은 엄마가 사가 올 거요."

그란께네, 그 호랑이가,

"그러면은 떡, 떡 해가 오도록 바래, 달은 없고, 그러면은 너거하고 내(나와) 같이 놀자."

카면서, 그래도 그 엄마들 인자 당부에 이 애들 문을 안 열어줐는 거라. 하나가 있다가 바른말로 해삤어.

"엄마가 어데 어데 어째갖고 인자 올 낀께네, 그래갖고 있으몬 된다고."

바른말로 해나난께네, 그 애를 먼저 인자 그 물, 참 호랑이가 문에 뚫고 들어왔어예. 들어온께네, 그 뒬로(뒤에) 하나 인자, 그래가 엄마는 늦어가지고 옛날에는 전기불이 어댔습니까(어디 있습니까)? 호롱불 그 꺼삐몬(꺼버리면) 아들 껌껌하다 아입니까. 호랑이가 터갖고 아 하나 그래갖고, 인자 그 인자 집이 산길인 기라. 뽀시락 뽀시락 소리가 난께네, 저 저,

"야야, 뭐 어데서 무슨 소리가 나노?"

카매, 인자 호랑이가 하는 말이,

"아- 내 밤 뽀사(부셔서) 묵는다."

애(아이) 소리 하면서,

"내 밤 뿌사 묵는다."

옛날에는 왜 사람이 죽어 가서 목수가 되몬, 호랑이 걸로 그게 변한다 안 합디까. 어. 그래갖고,

"아이고, 내 저저 밤, 형아 내 배가 고파서 밤 뽀사 묵는다."

그래갖고,

"밤이 어데 있어서 묵노?"

"아이고, 어데 어데 흘러갖고(떨어져서) 내가 묵는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그래 그래 그러구로 마 아(아이) 둘을 해치고 삼남매가 남았더랍니다. 엄마가 오니까. 그래 그런구로 인자, 그 옛날에는 호랑이가 한문(한 번) 오몬 자꾸 온다 하대예. 그래갖고 거 마 엄마가 또 그 애 서이를 덕고(데리고) 뭐 피신도 하고 이랬다는, 뭐 얘기는 들었습니다. 내 저녁마다, 나는 입담이 없어가 다- 빠자뭈다(빼먹었다).

[서구 설화 71]

저승 갔다 살아난 사람

전삼순(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동대신1동 장수경로당]

우리 부근에 여어(여기에) 살았는데요. 할아버지가 편찮으셨시예(편찮으셨어요). 편찮고 한데, 자기 심장에 인자 심장 기계로 옇다 쿠네요. 옛날에는 여 마 일년이 되도, 그렇기 기한이 되몬 고 날 딱 기계로 바까야(바꾸어야) 된답니다. 새로 옇어야 되는데, '아이고 마 하루 새(사이에) 어떠까이?' 언자 그래 하자, 몸이 아파가 입원해가 있는데, 자기 아저씨 하는, 아저씨가, [말을 바꾸어] 자기 엄마, 시엄마 얼굴도 모르고 참 시집을 왔는데,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모른 칙(척)을 했답니다. 제사 지내, 모시러 와가지고. 할마이는 병원에 있고, 응급실에 있는데.

"우리 할마이 살리도라고. 어째도록 조상이 있다 쿠도 엄마 살리도라고."

딱 이러께네, 그리 하자 이 할마이가 인자, 자기 마누래가 그 응급실에 있으면서, 저 꿈인가 생신가 모르겠고, 자기 마 이래가 눈 깜고 있는데, 꿈에 싸악 시어마이라 쿠면서 흰옷을 싸악 입고 오더랍니다.

그래 흰 강아지로 딱- 안고, 이기 바다 물 겉으몬, 그랑 물 겉으몬 복판에 세 개 딱 다루(다리)가 나이가(놓아져) 있더랍니다. 복판을 와가 시어마이 강아지로 물에 탁 떤지께 살아나더랍니다. 그래,

"아유 친구야이 나는 갈 줄을 여깄더마는, 참 이 신이 없단 소리를 못 하겄다. 우리 시어마이 얼굴도 모르고 하는데, 내 얼마나 죽을라고 그께, 내가 눈 떠보게 아들네들이 울었쌌고, 그래 울어싸는데, 우리 영감이 하는 말이, 어이, 엄마 제사할 때 니를 살리도고(살려 달라) ○○시 했더만 엄마가 왔있던(왔었던) 갑다."

이래 말로 하더랍니다. 예, 그런 것도 있는가 봐. 자기가 그라대. 예, 자기 그라대.

"이이구, 구신(귀신)이 있는 갑더라. 그래 갑장아."

이래 캄서, 그래 어째 하든가 인자, 그래 하자 자기 심장 그거로 하루 새 또 살아났는데, 또 심장 할 거 할배가 또 아픈 기라. 할배가 아파가지고 인자 할라 쿤께네, 하루 새 내가 할배 살리놓고 내가, 하루 새 어떠까 심장이야, 어떠까이 이깄더마는(여겼더니만). 심장 하는 그 날 딱 하는 날 딱 해야, 그 시간에 해야 된답니다. 안 해 나이께, 자기가 그 영감 앞에 가삤어.

[서구 설화 72]

호랑이를 겨우 피한 사람

전삼순(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동대신1동 장수경로당]

머라 칼(할) 기고, 이래 올라간께, 중간에 올라간께 호랑이가 딱- 질(길) 복판에 앉아가 있는 기라.

[조사자: 우리 어무이, 처음부터 언자 어데? 어무이 친정이 어덴교?] 의령입니다. [조사자: 의령.] 의령 거서 중곡(정곡), 웅독(용덕)[64]이라고 그 사이에 있이예. 우린 시골에 살았거든예.

어릴 때 심바람(심부름)을 시킸는데, 안 가모 꾸중을 들을 끼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래 인제 간다. 곧 잩에 이래도 장군 지게 이거로, 딱 노라이 호랑이가 앉아있는 기라예. 호랑이가 앉아 있어서 내 혼차서 참 무섭아 올라가도 몬(못)하겄고, 집에 가몬 꾸중 듣겠고, 이래 쌌는데, 어떤 할아버지 갓을 쓰고 할아버지 올라오시는 기라. '하이고 인자 잘 됐다. 인자 큰집에 가몬 되겠다. 따라 올라가몬 되겠다.' 중간에 그 할아버지 뒤따라 간께 그 호랑이가 가고 없대예. 그래가 넘어가가 심바람, 심바람을 했습니다.

[서구 설화 73]

시어머니 미워서 지렁이국을 준 며느리

신용희(여, 1933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동대신1동 제일경로당]

메느리(며느리)가 아들 가만 본까네, 너무 어무이(어머니), 저거 어무이한테 너무 푸대접을 하니까네,

"그라모 엄마 빨리 죽고로(죽도록) 수채에 지렁이로 잡아가지고 그래 고아가 믹이라(먹여라)."

캐가, [청중: 그기 약 아이가. 약이지.] [웃으며] 지렁이, 지렁이를 잡아갖고 그래 고아 믹이께 어무이가 마 몸이 건강해갖고 고마 일도 거들어 주고, 마 건강하이께네 고만 시어마시(시어머니)를 좋다 하더랍니다. [웃음]

[서구 설화 74]

64) 의령군 정곡면과 용덕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빈대 때문에 망한 절[빈대 절터 이야기]

윤명옥(여, 1929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동대신1동 제일경로당]

진주에는 큰 수루(戍樓) 집[65]이, 수루 집이 있어. 수루 집 앞이 있는데, 고서 내러오몬 거 절이 하나 있었어. 빈대가 끓어가 절이 망해삤는 기라. 그래 빈대 절터라 그런다. [조사자: 그래 다시 들시몬(들추면) 빈대가 나온다.] 예. 빈대 절터라 쿠요.

[서구 설화 75]

어미 소와 새끼를 구별하는 법

윤명옥(여, 1929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동대신1동 제일경로당]

그래 밥을 안 죘는데(주었는데), 난중에 인자 밥을 주이까네, 에미(어미) 소가 똑같이 어떤 게 에민지 새낀지 모르는데, 밥을 안 줐더마는 메칠(며칠) 굶가(굶겨) 놨다가 주이까네, 에미 소가 새끼 소를 머이(먼저) 무라고(먹으라고) 카더란다. 그래 그기 인자 새끼 소라 그래 알았다 카대.

[서구 설화 76]

쌀이 나오는 바위

윤명옥(여, 1929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동대신1동 제일경로당]

쌀이 마이(많이)도 안 나오고 촐촐촐, 어 쫄쫄쫄 나오는데, 고만 그거 가만 놔둤이몬(놓아두었으면) 될 긴데, 마이 나오라고 꼬쟁이(꼬챙이)로 쑤시갖고 구멍을 뚤버뿐(뚫어버린) 기라.

65) 진주 촉성루(蜀城樓)를 말함.

하모. 쌀 마이 나오라고. 쑤시뿌이고 나아까(나니까) 쌀은 고마 안 나오고 물만 촐촐 나오더라요.

[서구 설화 77]

강피 훑는 가난한 며느리

이두녀(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동대신1동 제일경로당]

갱피로, 메느리를 인자 시집을 왔는데, 시어마이가 하는 말이, 저 강을 건너감서,
"아이구, 아이구! 배가 고파 죽겄다."
캐나이까, 저 저 본께네 건너본께나 갱피로 훑어쌌거든.

[노래로 부르며]
저 건네 갱피 훑는 저저, 저 양반아
[청중1: 갱피가 뭐꼬?] [청중2: 쟁피라고 있어.] 쟁피 있다. 쟁피라 쿠더만. 갱피라 쿠더나? [조사자: 갱피.] 아하, 하는데, [청중2: 보리 비슷하이.]
"너도 배가 고파 훑으이, 어쩌다가 얼마나 고파서 저 쟁피로 저리 훑고 있냐?"
그러 쿠더라요.

[서구 설화 78]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이두녀(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동대신1동 제일경로당]

옛날 옛날에예, 저 칠십이 넘으면은 고래장(고려장)을 하거든예. 그래 저 할아버지 때부터 고래장을 찾아 했는 기라. 그래 인자 할아버지를 지난 지게 들어다가 고래장을 했거든요.
하께나 인자 지가 할 때, 아들이 고래장을 하게 됐는 기라. 돼께네, 할아버지를 고래장 하

러 옴서는 지게로 갖다가, 다지(다시) 할배 지고 간 지게로, 그래 저 아들은,

"놓두고 가자."

쿠고, 저 손자는,

"가 가자."

쿠는 기라.

"와 가 가자 쿠노?"

"이 지게로 아부지가 져다가 할아버지로 고래장 했으니까나, 아부지도 이 지게 져다가 고래장을 할라요. 그렇게 하는 그라요."

그라인께나 하는 말이,

"아이구 안 되겠다. 그라몬 저 아부지를 파가 가자."

그래 다시 파가 지고 오셨다요. [조사자: 아, 그때부터 없어졌는가?] 예. 그때부터 그기 없어예.

[서구 설화 79]

고려장 가면서도 자식 걱정하는 부모

이두녀(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동대신1동 제일경로당]

고래장을 지고 올라가는데, 어무이(어머니) 업히가지고도 까시(가시) 넝쿨로 꼭꼭 뿔라서 이래 재끼더랍니더.

"손 아픈데 와 그라노?"

"니 내러오면 질(길) 못찾을까 싶어, 이렇게 요 길로 내러오라고 요래 한다."

카더랍니다.

[서구 설화 80]

상사병으로 죽어 구렁이가 된 총각[상사바위 전설]

이두녀(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동대신1동 제일경로당]

저 어름(근처 경계) 산[66] 바우(바위) 제일 높은 데 있지요? 상사바우 있고 거가. 그 저 저 그 바우가 있어요.

근데 바우 있는데, 처자 총각이 또옥 마 둘이서 지금 겉으몬 연애를 하모 갤혼(결혼) 시키 줄 낀데, 부모가 옛날에 얼마나 양반에 가정이 돼가 결혼을 안 시키 주는 기라. 안 시키 주고 이라이께네 아까, 이라다 본께노 고마 마 마 총각이 고만 뱅(병)이 나 죽어삤어.

죽고난께네 이 처자가 시집을 갈 수가 없거든. 맨날 마 그 처자, 총각이 눈에 뜨이싸서 뱅 났는 거라. 그래서 인자 하다 돼서 마 아바이가 그래가,

"니가 어떻게 하몬 되까?"

놀라 온께, 처자 누웄는(누워있는) 방에 크다- 큰 먹구리이(먹구렁이)가 아주 새름새름 처녀 있는 방에 거 누웄더라예. 누우께나까 아바이가 바지 작대기 그거 지게 받치는. 못으로 푹- 쑤시갖고 저 갖다 들판에 갖다나삤거든(갖다놓아 버렸거든).

갖다나삐고 돌아왔는데, 되돌아오께네 다부(도로) 또 그 또 누우가 있는 기라. [청중: 무시라.] 또 누우 있으게네 얼마나 무섭우(무서울) 기요. [조사자: 그렇지요.] 그라께나 처자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하고 어데 가 물어봤던가 봐. 물으께네 하는 말이,

"그 딸을 직이라(죽여라)."

쿠더라요. 죽어뿌야 갈 끼라고.

"어데 가 죽으까?"

하까,

"그 상사바우 올라가서 그 구리이가 상사가 돼가 그라거든요. 그 상사바우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미틀어갖고(밀어가지고) 니가 죽으면은, 니가 저 상사를 풀 끼고, 살면은 이자 그 상사를 풀어 싼다,"

쿠대. 그래 거 그기 상사바우요. 진주 어름. [조사자: 뱀이 안 나타나는 갑네.] 가시나 죽어삤는데 어예 나타나, 저거가 죽어삤는데. 그래 그 상사바우라 캐요 그거. 진주 어름 가몬 상사바우 있어.

[서구 설화 81]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66) 진주 근처에 있는 와룡산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행정구역상 진주와 가까운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과 사남면, 용현면, 남양동, 벌용동 등에 걸쳐 있는 산으로, 높이는 801.4m이다. 이 와룡산에 '상사바위 전설'이 전하고 있다.

이두녀(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동대신1동 제일경로당]

옛날에 종을, 종이 소리가 안 났어. 그란께나까 종이, 시님(스님)이,
"와 이 종이 소리가 안 나까냐고?"
이 그거로 대사한테 물으께나까,
"영리한 딸을 삶아가지고 그 종을 만들 때 옇어가지고 종을 만들면 소리가 잘 난다."
카두라요. 그래가 가지고 종이 소리가 나는 기라. 그래가 에밀레종이라 쿤답니다.

[서구 설화 82]

제삿밥을 못 먹은 혼령

이두녀(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동대신1동 제일경로당]

내가 불자(佛子)요. 여러 수대로 내러오는 불자요. 그거는 왜 그렇냐 하면은, 저- 아들은 믿는 자고, 신랑은. 아, 신랑는 불자고, 마누래는 에수(예수)쟁이라. 결혼을 했거든, 결혼을 했는데 인자, 저거가 인자 저거 아배 제사라고 딱 제사를 채리놓고 저 지(紙)에로 써 붙이놓고, 지축(紙祝)[67]을 이래가 딱 엎더이 있으께나까, 메느리가 에수쟁이가 돼논께네까 멥쌀로 앉히, 메로 안자 쌀로 찧어오면은, 멥쌀을 요만한 담은 소쿠리다가 멥쌀만 담아 얹는 솔(소쿠리)이 따로 있어요. 고거나마 찌고(찧고) 왔어.

근데 그 멥쌀로 떠서 담아 얹이놨는데(얹어놓았는데), 거따(거기에다) 인자 씻거(씻어) 밥을 안침서는(안치면서는) 에수 믿는 사람들이 예사거든요. 지는 씻는다고 씻겄는데 멀끄대이(머리카락)가 거 들어갔던가베. 밥에.

그래 인자 밥을 떠서 인자, 멥쌀을 떠서 밥을 딱 채리놨는데, 오까마까[68] 인자 시아바시가 인자 응감(應感)하러 올 거 아이요. 열두 시 넘어 주렵아서 제사 모시러 오만 한 시 되구로 제사를 모시거든요. 제사 모시러 오까마까 밥을 떠놓고 제사를 모시러 올라고 오까마까, 밥을 먹을라 오까마까, 저 저 밥이께네 배앰이가(뱀이) 거 밥그릇에 옆새이로 머끄대이 거기 배앰이라.

67) 지방(紙榜) 또는 지방과 축문을 함께 말한 것으로 보임.
68) "그러자마자"의 뜻이지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 즉 간투사임.

뱀이 들어가 있는데, 그 밥을 무까마까 싶어 망설이고 있으께네, 에수 믿는 사람이 배가 고프든가 봐. 배가 고프께나까 인자 허접하게 오든가베. 오까마까 불자 준비논께나 아들이 떡어 인자 제삿밥을 떠다께네, 처다보까마까 되돌아보고 그 밥을 몬(못) 묵고 돌아가더라요. [조사자: 아, 혼령은 그래 돌아가고.] 음. 그렇더라. 그런 말은 내가 들었어요.

[서구 설화 83]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이두녀(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동대신1동 제일경로당]

부모가 죽었는데, 우리가 부모가 따라갔으며는 첫 문제는 부모를 인자 소럼(소렴, 小斂)[69]을 해요. 소럼이라 쿠로 보는데, 인자 발로 요리 넘기고 손을 요리 요래 인자 소럼이라 하거든. 제일 첫 분째(번째) 죽으면은 코 막고, 입 막고, 귀 막고, 또 뭐 다 막는데, 소럼을 이리 해요.

소럼을 해가지고 인자 각(곽. 즉 관)에다가, 초각에다가 딱 옇어놓고, 그 때문에 부모가 세상을 뜨며는, 저- 이틀 밤 안에는 그 각을, 천막을 못 치라 쿠거든. 하모. 각 문을 못 닫으라 쿠거든. 소럼을 해갖고 죽었다고 인자 딱 각에다가 옇어가지고, 딱 각 문을 이래 놨는데, 양쪽 못까지 쳤어. 제는 삼일이 돼야 나간다 아니요. 그지요?

인자 오늘 낮에 나갈 낀데, 누웄이내까 이 각이 뚝 뚝 뚝 뚝 소리가 나더라요. 그래,

"와 이리 각이 뚝 뚝 소리 나노?"

아들이 둘이서,

"엄마 각에서 소리가 난다."

고래. 하나 아들이 하는 말이,

"죽어서 염을 해다 놨는데 무슨 소리가 나?"

그래가지고 뚝 뚝 하는 기라. 그라몬 허퍼삼아(혹시나 해서) 그 각을 작은아들이 하나,

"따까리(뚜껑) 떼뻐리라(떼어버리라)."

캤는 기라. 떼보니께 안 죽고 살아났더라요. [청중: 그런 수가 있더래.] 그런 수 있길레 그러지예.

69) 소렴(小斂). 운명한 다음 날, 시신에 수의를 갈아입히고 이불로 쌈.

[서구 설화 84]

초하루에 태어나면 팔자 센 여자

이두녀(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동대신1동 제일경로당]

사주팔자를 타고 난 사람은예, 아무리 지 사주 안 나쁘다고 곤칠(고칠) 끼라고, 이 사람을 만나 사주 안 하는데, 요 사람 만나 하거든요. 좋은 사람 비끼(비켜서) 가삐고(가버리고), 또 이런 사람 만냈는 기라. 또 안자 또 옮기거든요. 또 가몬 복은 저 멀리 가삐고 그래 또 만내는 기라. 다섯 군데를 가도 사주 나쁜 사람은 안 되는 기라.

안 되고, 초하릿날 난 과부는 한 평생을 살아도 남편을 안 얻어야 돼. [청중1: 어째 아노 그런 걸.] [청중2: 초하릿날 났다고.] [청중1: 아아, 초하룻날 났다고.] 초하룻날 난 사람은 [청중2: 팔자가 시단 말.] 팔자가 세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고 여자고, 남자는 그래도 잘하몬 상팔자를 지니는데, 여자는 초하루 난 사람은 절대 신도(?)이[70] 안 가야 돼. 갔다 카만 남자 다 죽는 기라. [조사자: 갔다 카몬. 그런 일이 있었는교?] 그런 얘기는 전설에 나옸지에.

[서구 설화 85]

보리 흉년에 먹는 죽

이두녀(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동대신1동 제일경로당]

옛날에 숭년(흉년)이 들여가지고 도저히 고 마마 배가 고파 죽겄는 기라. 보리가 피가 한 허물에 비도 거따 비비가 묵고 그랬거든. 그리 했는데, 그래기라 날이 가물께네 비가 안 온다 말이요. 비 안 와서 씻거가지고(씻어가지고) 인자 보리 그것도 씻거갖고 꾸중물(구정물)을 또 붓고, 꾸중물을 또 붓고 안 붓소? 부으면은 꾸중물 밑에 꾸중물이 앉히 있제. 앉힌 거로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 물을 따라뻐리고, 따라 삐고 새로 씻거가 밑에 그 밥풀이 세 등거리 있는 거 보고, 물 그거 한 통을 갖다가 소로 다 퍼뭈는(퍼먹은) 기라.

소 안 묵거든. 그래 무야(먹어야) 그거로 무울 긴데, 소금을 하나끔 넣어가지고 막 물이 간

70) '시집을'의 뜻으로 말한 듯함.

간 안 한가베. 그 소가 뻘떡 뻘떡 묵지요. 그라몬 그 찌꺼기를 인자 물 따라묵고 나몬, 그 찌꺼기 가와서 씻거갖고 죽을 낋이갖고 그래 자석(자식)을 믹이더라요. [조사자: 아아, 예살에 무울 기 없어가.] 예. 그런 소리 들었어예.

[서구 설화 86]

중국에서 평지에 묘를 쓰는 까닭

이태숙(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동대신1동 제일경로당]

그 산소예. 인자 우리는 깊이 파가지고 그 묘를 묻는데, 중국 사람은 이래 평지다가 이 묘를 크게 해가지고 그양(그냥) 거다고 이래, 이래 모래를 씌우니까, 바람이 불면은, 머 중국은 바람이 마이(많이) 불거든. 그래 이 튀나오더라고(튀어나오더라고). 어, 그 묘를. 튀나온 데 거 또깨비(도깨비)가 있다고 이래 쌌고, 중국에서.

[서구 설화 87]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이태숙(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동대신1동 제일경로당]

아들이 어데 간 기 아이고, 아들이 먼저 갔는 갑데예. [조사자: 갔는데, 어머니는 눈을.] 응. 눈을 못 뜨고. [조사자: 그래 메느리가 어째? 그래 무울 기 없어가지고 지렁이를 파가지고.] 예 예, 지렁이를 파가 그래 드리이까네,

"하이구! 이래 맛있는 걸 어데서 났노? 이래 맛있는 게 있나?"

지렁이 그게 고기니까 맛있거든. 그래가 막 그래 잘 자시고 칭찬을 하더라 안 합니까.

[서구 설화 88]

도깨비가 되는 빗자루

공길심(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대신2동 동이부녀경로당]

쌔가 빠지게 싸우고 나니까, 귀신 있나 보러 가니까, 몽당 빗자리가 혼자 남아 있더라는 걸 들었다.

[서구 설화 89]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공길심(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대신2동 동이부녀경로당]

어떤 할머니가 떡을 한 바, [말을 바꾸어] 옛날에 함지라고 있고, 산골을 넘어가니까 호랑이가 나와서,

"할머니, 그 떡 한개만 주몬 안 잡아먹을게."

하고, 또 떡 한 개 주니까, 또,

"한 개 더 주몬 안 잡아먹지."

팔 다리를 다 줘서 호랑이가 다 먹었다는 얘기는 들어봤다.

[서구 설화 90]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문태순(여, 1928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대신2동 동이부녀경로당]

어디다 할매를 져다 내삘(내버릴) 낀데,

"그 지게 놔뒀다 나도 아부지 져다 내삘라 가(가져) 가자."

카매, 그래가 안 없어졌나 고려장이. [조사자: 그래가 없어졌는가?] 예.

[서구 설화 91]

꼬부랑 이야기

장명순(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대신2동 동이부녀경로당]

꼬부랑 개가 꼬부랑 길을 가몬, 꼬부랑 짝대기로 들어가 딱 때리몬, 꼬부랑 깽깽 꼬부랑 깽깽 한다.

[서구 설화 92]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강복명(여, 1932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동대신2동 무궁화경로당]

옛날에, 옛날에 있자 고려 시절에 인자 사람이 칠십 살만 무몬(먹으면) 납골장에 덱고(데리고) 안 갑니꺼. 인자 산에 안 갑니까. 그래 인자 엄마가 칠십 살이 뭈는데, 아들이,

“야야 할머이(할머니)로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자.”

이래 인자 아바이(아버지)가 지게로 갖고 딱- 자기 할머이로 업고 올라갔는데, 인자 일주일 무울 거 양석(양식)하고, 그 산에다 지 놓고 올라갔는데, 딱 아바이가 져다 놓고,

“어머이 여기서 이 쌀도 쪼금 가(가져) 오고, 이거 잡순 데 잡숬고 있어사소.”

한께, 이래 엄마 지게로 갖다 놓고 지게로 딱 놓고 온께, 이 아들이 지게 그거로 짊어지고 짝대기 지고 이래 앞을 간께,

“야야 그거 왜 지고 가노?”

이래.

“아버지도 할무이를 져다가 이래 놨인께, 나도 후제(후에) 커서 아부지 나이 많으몬 져다가 할무이 매이(처럼) 이래 져다 놓을라고 지게로 안 가(가져)갑니까.”

이래 되거든. 그런께네 아바이가 할 말이 없거든예. 져다 노이(놓으니). 그래갖고 예를 들어 말하자몬, 그래가 인자 그 업어다가 내삐는(내버리는) 그기 없어졌다.

[서구 설화 93]

도깨비와 싸운 사람

강복명(여, 1932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동대신2동 무궁화경로당]

할아버지가 인자 옛날에는 차도 없고 이렇는데, 갓을 씨고(쓰고) 인자 막 의간(의관, 衣冠)을 하고 이래가 산 넘에(너머에) 친목 계 모으러 갔어요. 말하자몬 계 모으러 떡 가가 하루 종일 계로 모으고, 밤에 인자 이래 산 고개를 떡 넘어오는데, 헤헥거리 할아버지가 말을 좀 더듬아요. 해 해 해해해, 해해해거리고 딱 들어잔께,

"아 그 해 하하라!"

이래 도까비(도깨비)가 나와갖고. '게 섯거라.' 이 말로, 한 잔 뭈제(먹었지), 해는 자제(넘어갔지),

"거 애 하 하해 하라."

인자 '서라' 이 말로 갖다 '게 하라' 이래서, 그래 딱 보이 키가 팔대식(팔척식) 겉더라요. 그래서 마 호주머니 전에, 옛날 어른들 딱게(잭나이프, Jackknife),[71] 지금 딱게 꼽는(꽂는) 거 안 있습니까. 그놈을 내갖고 마 탁- 복장(복부)에다 찔러삤다요. 찔러삤더만 더 덤비더라요. 먼저 마 상투를 잡아 흔들더라요. 그래서 마 한 번 더 찔러가 쎄리(세게) 찔러뻐리갖고 마 그 할아버지가 이깄어.

그래 넘가삐리고, 집을 살-살 왔는데, 할멈캉(할머니하고) 마 메늘캉(며느리하고) 마 어른이 어디서 인자 오시나 보이 마, 옷이 다 젖고 상투 머리도 패이지고 마, 갓도 날라가고 행피이(형편이) 없거든요. 그래가 마 의사를 부르고 마 쌍머리로 갈아 마시고 마, 쩌고(그리고) 할아버지 해가(혀가) 좀 짤랐어. 햇거리 고거 막 때러잔께, 할아버지 할무이를 보고,

"그 해 하라- 이래서, 마 간이 호랑호랑하도록 뛰 왔다."

고 이런께, 인자,

"아이고이, 거게 도깨비가 마이(많이) 나는 곳에 그래 왔구나. 그래 영감이 죽을 뻔 당했구나."

71) 접이식 칼.

마 할멈이 영감을 아듬고(안고) 울고불고 난리조. 그래 메칠로(며칠을) 아팠는데, 안날(다음날) 아직에(아침에) 아들이 그 해꺼리 고날 갔어요. 갔는데, 지다만(길다란) 빗자리(빗자루), 몽댕이. 거게 짜께 칼이 있더라요.

[조사자: 칼이 꼽히가?] 딱 꼽히(꽂혀) 있어도, 두 자리(자루)나 꼽히 있더라. 딴 사람한테 또 그랬는가.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옛날에 그리 있더라. [청중: 전설이 진짜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많았어요.

[서구 설화 94]

글공부만 하는 선비 남편을 고친 부인

강복명(여, 1932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동대신2동 무궁화경로당]

옛날에 인자 선부(선비) 남편을 만냈는데, 이 부인이 밭 매러 갔어요. 밭에 갔는데, 밭을 매인까네, 비가 와서로 이 움키는 마이(많이) 널어 놨는데, 이 영감이 걷어들있는가(거두어들였는가) 안 들있는가 모르고, 참 집을 우죽우죽 온다고 온께, 비는 와서 물이 한건데(가득한데) 오이까네, 이래 물리서 널어논께 비를 맞고 있거든요. 문을 히뜩 열어본께, 영감은 도포 들고 글만 씨고 있더라요. 그러이,

"당신은 밥도 안 자시요? 움키 늘어놓은 기 떠내러가몬 걷을 줄도 모르고, 글만 씨고 있어 묵고 살겄소 그냥?"

"몰라. 걷는 사람은 걷고 글 쓰는 놈은 글만 써야 되지."

하고 쓰고 있더래요. 그래 할멈이 동동 걷이고 붓대로 마 빼직 가지고, 하 저것도 뺀게 치르고 영감을 덕고(데리고) 나가가 같이 걷었다고 거 말이 있대. [조사자: 아, 같이 걷었네.] 예.

[서구 설화 95]

도깨비가 되는 빗자루

염화자(여, 1945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동대신2동 무궁화경로당]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 시골에는 아궁이에 불 때가지고 밥 짓잖아요. 그랬을 때는 여 저게 수수 수수 수수, 수수 빗자루. 수수 빗자루를 깔고 앉아가지고 부지깽이로 불 때고 하몬, 거기 여자들은 이리 한 달에 하문씩(한 번씩) 하는 멘스(월경) 돼가, 멘스가 그기 [조사자: 피가 묻으몬.] 피가 묻어요. 그 빗자리에. 수수 빗자리에 묻으면 고기 도깨비가 되고 귀신이 된단 말이 있대. [청중: 손때가 묻어가.]

그래갖고, 그래갖고 오면은요 그 난제는(나중에는) 그걸 귀신인가 뭔가를 꼭꼭 묶어 놨더나, 지 자리에 이튿날 가보며는요 빗자리를 딱-.

[서구 설화 96]

시신을 먹고 살아난 할머니

염화자(여, 1945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동대신2동 무궁화경로당]

사람이 죽게 됐을 때, 하-도 고민이 돼가서 구덩이 파가지고 그걸 저 저저 그걸 [조사자: 사람 시신을.] 사람 시신을 가주 가서 [청중: 전설 거 나왔지.] 가마솥에 앉히가 끓이가지고 그걸 드리이께네 낫았는데, 그걸 알고 봤더니 동삼이라요.

[조사자: 아-하, 그래 그 동삼. 시신이.] 동삼을 잡숫고 할머이가 인자 살아났는 기라. [조사자: 효심이 워낙 커이카네.] 예. 그런 얘기는 들어봤지.

[서구 설화 97]

고려장을 가면서도 자식 걱정하는 부모

추수연(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동대신2동 무궁화경로당]

[조사자: 고래장(고려장)하러 올라갈 때.] 올라가는데, 부모는 지게 지고 있으면서 나뭇가지를 딱딱 끊으면서,

"요 길로 내려가라."
고, 자기 자식 갖다 내삐라도, 내 자식 길 못 찾어가까 싶어서,
"야야, 내려갈 직(적)에 내가 솔가지를 딱딱 끊어서러 내 쳐놓고 왔다. 고거 보고 내려가거래이."
그러더랍니다.

[서구 설화 98]

당산나무에 정성을 다하지 않아 생긴 재앙

추수연(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동대신2동 무궁화경로당]

고목나무는 이 시골 가면은, 고목나무는 당산나무라 카거든. [청중: 다 있어. 옛날엔 당산 다 있었어.] 큰 고목나문데, 해마다 거게서(그곳에서) 그 악귀를 쫓기 위해서, 그 동네에 재앙 들오까 싶어서 대접을 놔 놓고 거 정성을 드리는데, 한 해는 흉년도 지고 아무 것도 제사 올릴 것도 없어서 그냥 지냈더만은, 그 동네에 전렴병(전염병)이 들어와갖고 한참을 나갔다 카는 기라.
옛날에는 그만큼 미신을 마이(많이) 숭상했는 거라. 그렇죠, 나무가 무슨 신이 되겠어요. 나무. 그런께 마음가짐인 기라. 아이구 금년에 그거 제사 올릴 게 없어서 당산나무 할배인테 이래 정성을 안 들였디만은 재앙을 보내주는 거라. 그 정성도 사람이 생각하는 기라.

[서구 설화 99]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추수연(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동대신2동 무궁화경로당]

하도 아는 울어쌌고, 아는 달개지지는(달래지지는) 안 하제, 하도 몬(못)해서로,
"아가 아가, 울지 말아라. 꽂감(곶감)을 주께 니가 울지 마라."

컨께, 꽂감을 딱 주이까 울음을 딱 끄치더란다(그치더란다). [청중: 아이 참 호석께(호식해), 옛날에는 사람을 물고 가는 기 호석께라 캤는 기라.] [조사자: 응 호식한다 했지.] 범이 내려와갖고 고 애를 잡아 물고 가야 되는데, 꽂감이 얼마나 나보다 무섭운지 애기가 물음을 끄치는 거 보이께, 내가 저긴가 보다 달아내빼더란 기라. 호랭이가.

[조사자: 호랑이가?] 하모. 방안에서 인자 어머니가,

"꽂감 주께 울지 마라."

하이께, 애기가 울음을 딱 그치거든. 그런데 아 호랭이 '내보다 더 무섭운 게 꽂감이구나. 내보다 더 무서운 꽂감이.' 커면서 달아빼더라, 호랭이가.

[서구 설화 100]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한기(남,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8일 채록
[동대신2동 북산경로당]

자기 어머니를 지고 가가지고, 장터 고래장(고려장)하는 데 장터 넣어놓고, 지게를 놔 놓고 집에 오니까, 본인 아들이,

"아버지 지게 어옜어요?"

이래.

"거 놔뚜고 왔다. 놔뚜고 왔다."

이란께네,

"그럼 나는 앞으로 아버지를 어떻게 지고 갑니까?"

이라이, 그 쫓아가가지고 지게를 도로 가져왔다는 말은 있어.

[서구 설화 101]

거미줄에 걸린 다듬잇돌[강원도 거짓말]

김한기(남,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8일 채록
[동대신2동 북산경로당]

강원도 꼴짜기(골짜기) 산 제일 높은 데서 원두막 안 있는교, 원두막. 그 당시에는 어르신들 주로, 강원도에는예 수수, 강냉이 아입니까. [조사자: 그렇지. 그렇죠.] 강원도에는 들오모 숫재이 안 있어? 수수 나무가 강냉이나무고.

근데 거기 도둑놈들이 오싸서, 인제 원두막을 지이놔(지어놓아) 놓고, 낮에도 가야 되고 밤에도 가야 되고 이라이, 낮에는 이제 놀자 마 이라면, 그 처이들하고 아지매들하고 거 뭘 보내는 기라. 메느리들이, 빨랫감 안 있습니까, 따듬이돌(다듬잇돌) 이래 놔 놓으면 뚜들겨가지고 매 뚜들기고. [조사자: 그래 빨랫돌.] 그래 문까지 남자들이 갖다 주고, 빨래 같은 거를 이래 하고.

그날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거 요즘으로 태풍이라. 막 뚜드리는데, 태풍이 무슨, 무슨 기 날라갔겠습니까? [조사자: 바람이 불고, 어 원두막이 날라갔나.] [조사를 보조하는 여학생을 보고] 아가씨는? [대답이 없자] [조사자: 방맹이를 뚜드리는데.] 방맹이가 날라가겠나? 사람이 날라 가겠나? 따듬잇돌이 날라 가겠나? 원두막이 날라 가겠나? [청중: 원두막이 날라 가지. 원두막이 날라 갔다.] 그런게 그기 아닌 기라. 따듬잇돌이 날라가가지고, 뭐 따듬잇돌 그기 안 보이는 기라. 한참 그거 문에 거미줄 쳐가 안 있습니까? 다듬이가 거미줄에 딱 걸리더라요.

[서구 설화 102]

도깨비로 변하는 빗자루

김한기(남,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8일 채록
[동대신2동 북산경로당]

광 안에, 이 술 먹고 토깨비(도깨비) 잡아가지고 묶아놨는데(묶어놓았는데), 그 이튿날 빗자루에, 피 묻은 빗자루가 나무에 묶여 있더라요.

그런 이야기 하기는 하대요.

[서구 설화 103]

자기 손을 깨물어 아버지를 살린 효자

김한기(남,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8일 채록
[동대신2동 북산경로당]

효자 났다고. 무슨 이야긴가 이라니까,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싰는데, 자기 동생은 마 대여섯 명 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까. 가족 구조가. [조사자: 그렇지. 그렇지. 자식 마이(많이) 낳았어.] 집 팔 놈도 있고, 그럴 거 아입니까. 저거 아버지가 죽으면은 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기라. 그러이 아들, 장남이 손을 끄어가 피를 갖다 입에 막 넣어주는 기라.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된다. 돌아가시면 안 된다."

카매 말이지. 그 이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애들, 동생들 내가 책임을 지야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살려내야 돼. 그런 일화가 있대요.

[조사자: 안자 자기 손을 깨물어가지고 인자 그래.] 그래서 이 효자가. 요즘도 그런 없을 긴데, 일은 없을 긴데, 옛날에 일화가 그런 이야기가 나옵디다.

[서구 설화 104]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김한기(남,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8일 채록
[동대신2동 북산경로당]

그래 신라 멫(몇) 댄지 그건 모르겠다만은. 그기 종을 만들어가 이기 녹그릇(놋그릇) 이런 것도 모이가 이래가지고 시주를 보내는 기라. 가니깐 이제 가면서 몯우고(모으고), 몯우고 이래가지고 양을 재보니까 쫌(좀) 모지래거든(모자라거든)예. 그래 한 군데 가니까,

"아이고 우린 줄 기 없는데, 뭐로 줄꼬?"

"아이, 없으몬 놔 놓으소."

하고 나가는데, 시주 받어 나오도,

"우리 집에는 줄 거는 봉덕이 딸내미뿐입니다."

이라이, 그 듣고 좀 나가삤는 기라. 그 아지매 말마따라 만들어보이 치이도 아무 소리도 안 나고 희안한 소리가 들린다거든. 그 이야기를 갖다 저거 주지스님한테 이야기를 핸 기라. 이라니까,

"마 그라몬 뭐 부정 탄 거 아니가?"

이라이, 이래가지고 이제 도로 갔는 기라. 그런께 어찌 하다 보이, 또 아로 마 이거로 돌아가가지고 막 끓는 데다 옇어뿠다. 그래가 만들어가지고 이 봉덕 소리가 처음에는, 봉덕 소리가

만날 이래 들리게, 아 이름이 봉덕이라 해가지고 [조사자: 봉덕사라고.] 봉덕사라 명령을 했는 기라. [조사자: 그래 종소리가 울리이, 아까 엄마(송봉선 제보자) 말대로 에밀렐레, 에미가 원망한다고.]

[서구 설화 105]

조상의 환생을 점치는 제삿밥

김한기(남,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8일 채록
[동대신2동 북산경로당]

그래 인자 제삿밥을 만들몬 이제 솥뚜껑 딱 펄 때 솥뚜껑 열다 보이까, 보몬 거기 짐승 발자국이 있다는 소리가 들리더래.

예를 들어서 뭐 쥐 발자죽, 무슨 짐승 발자죽이 거기 났어. 거기 속된 말로, 예를 들어서 이제 쥐 발, 발바닥이 아 혼령이 쥐가 되었구나. [청중: 새 발자국도 새가 됐고.] [조사자: 새도, 새 발자국이 있네.] 그런 얘기.

[서구 설화 106]

호루라기를 불고 들어오라

김한기(남,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8일 채록
[동대신2동 북산경로당]

방은 쫍제(좁지), 애는 많제 이래가지고 밤일로 몬(못) 한다 아입니까. 밤에는 모하고(못하고), 낮에는 인제 좀 해야 안 됩니까. 근데 이 애들이 안 나가는 기라. 그래 호루라기를 사가지고 하내씩(한 아이마다) 나놔주고(나누어주고),

"저 밖에 놀다가 들올 때, 호루라기를 불어라."

이래 가르켜 주는 기라. [일동 웃음] 그런 이야기가 있어.

[서구 설화 107]

견우와 직녀

김한기(남, 1935년생), 송봉선(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8일 채록
[동대신2동 북산경로당]

[송봉선] 견우 직녀가 서로 사랑했다 아입니까. [조사자: 응 서로 사랑했다.] [일동 웃음] 그래서 사랑해가지고 뭐라고 했던 모양이지. 그래 서로 견우 직녀가 만낼라고 칠월 칠석 날 열두 시에 만내기를 했어예. 그래 까치가 다리를 놔주가 견우 직녀가 만났다.

[김한기] 나두가 있기 때문에 그 못 건넌 기라. 고민하고 있는데, 이 요 까치들이 머리를 들어가지고 [송봉선] 이 다리를 놔줬다. [김한기] 윤락교 내준 기라. [조사자: 으응, 일 년에 딱 한 번.] 그런 이야기가 있어.

[송봉선] 칠석에는 그 이튿날 보면은 까치가 요 머리가, 요 목아지 거기 태가 딱 있어예. [조사자: 까치가 사람.] 털 빠진 기 있습니다.

[서구 설화 108]

개로 환생한 부모를 세상구경 시킨 아들

송봉선(여, 1939년생), 장춘옥(여,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8일 채록
[동대신2동 북산경로당]

[송봉선] 어머니가 돌아가싰는가 모르겠고, 저게 어머이한테 효도할라고, 한 쪽 어깨에 아부지를 메고, 한 쪽 어깨에 어머니를. 그래가 팔방 산천을 다 댕기면서 구경 시키줬다 그런. 이이 불경에서 나온 소리라네.

[조사자: 살아계실 때?] 예. 살아계실 때 한 쪽 어깨는 아부지를 메고, 한 쪽 어깨는 어머니를, 그래 싸악 세계를 다 댕깄어요. 그래가 구경 시키줬다 카는.

[장춘옥] 아니 구경을 너무 안 해가지고예, 돌아가시가 개가 됐답니다.

그래갖고 딱- 앉아있은께 인자 저 아들이 그 개를 짊어지고예, 동네 방방곡곡을 구경을 시깄다(시켰다) 이런. [조사자: 그 효자네 그지요?] 예.

[서구 설화 109]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송봉선(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8일 채록
[동대신2동 북산경로당]

스님이 시주하러 와가지고, 아무것도 줄 기 없어가지고, 그래 자기 자식을 줄라 했는 기라예. 그래 갔는데, 스님이 갔는데, 갔는데, 이 종을 맨들어가고 울리기나 안 울려지는 기라예.

그래서러 다시 그 집을 갔는 갑더마는. 가가지고 그 아를 덱고(데리고) 왔는가. 그래가지고 그 종을 맨들었다.

[청중1: 뭐를 주꼬? 우리 봉덕이를 주까? 마 이랬다 하더만은.] 아들로 줄라. [청중2: 아들은 없고, 그거는 없고, 아들로 안 줬다.] [청중1: 봉덕이, 봉덕이, 봉덕이를 주까 이래서 그래 갖고 그 봉덕이를, 왜 그래서 인자 엄마를 원망한다고 '에밀레, 에밀레' 이란다.]

[서구 설화 110]

저승에서 이승으로 보내 살아난 사람

송봉선(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8일 채록
[동대신2동 북산경로당]

인자 사람이 죽어갖고 저승을 가인께네,

"니는 안죽(아직) 올 때가 멀었다."

하면서러 다부 보내는 그런 거는 내가 [조사자: 응, 그래 자꾸 보내는데.] 자꾸 보냈어, 이승으로. 이승으로 보냈어. [조사자: 그래 우째 왔는고? 이승으로. 막 보내서 어째 했는교?] 메칠 죽어가 있는데, 막 보내이께네 깨나더라 카네. 메칠로 미안해서러 깨났더랍니다.

[서구 설화 111]

잉어가 놓은 다리로 강을 건너다

윤순식(여, 1943년생) 구술
2020년 1월 8일 채록
[동대신2동 북산경로당]

그 왜정 시대 땐가 뭐 옛날에, 뭐 막 강을 건너야 되는데 못 건넜대. 못 건너고서 인자 저 저 뭐 죽을 판이잖아요. 시간 저 없어지지. 인자 죽을 판이니까.

그랬는데, 다리가 타악 놔지더랍니다. 그래서 거길, 그래서 거기를 건너갔대요. 그 다리를 건너가고 보니까는 잉어더래. [조사자: 잉어?] 예. 잉어 땜에. 그래 다리를 놔 줬대요.

[서구 설화 112]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장춘옥(여,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8일 채록
[동대신2동 북산경로당]

그러니까 쟁피를 만날 훑어가지고, 인자 남편은 과게(과거)보러 가고, 쟁피(강피)를 만날 훑어서. 그래 인제 딴 데 시집을 갔는 갑대예. 안 살고.

갔는데, 인제 남편은 과거를 해가지고 막 이리 오니까, 여자가 또 딴 데 가서도 역시나 쟁피를 훑고 그래가 있더랍니다. [조사자: 그래 남자는 그냥 마 과거만 급제하고?] 예. 과게 급제하고. 그래 인자,

"저게 저 여인은 또 훑던 쟁피를 다시 훑느냐?"

고. [조사자: 인제 복이 그거빾이 없다.] 예.

[서구 설화 113]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장춘옥(여,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8일 채록
[동대신2동 북산경로당]

얼굴이 노래져서,

"와 니가 얼굴이 노랗노?"
이러이까,
"방귀를 몬(못) 껴서 그래 그렇다."
이러이,
"그래. 방귀를 한 번 뀌 봐라."
시어머니가 그래.
"그라몬 아버님은 어데 잡고, 인자 어머님은 어데 잡고, 지동(기둥)을 잡고."
그래 방귀를 뀌이 마 날라갔더라 이래.

[서구 설화 114]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장춘옥(여,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8일 채록
[동대신2동 북산경로당]

그걸 갖다가 싹 맛있어가지고 닥 그기 숨기가지고 항시 이 다라, 그 저 자리 밑에다 옇어 놨답니더.
"그래 뭣이 그리 맛있노?"
"요고를 해주더라."
지렁이를. 이걸 낋이죘다 시어머니를. 그래 맛있더라. [조사자: 그래가 얼굴이 좋던가예?] 예예. 얼굴이 좋더라. 그래 보하이 살이 찌고 그렇더랍니더. [조사자: 아아. 지렁이국을 낋이 주이카네?] 예. 그기 맛있어가지고 거 보약이 됐다.

[서구 설화 115]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우열(남, 1946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동대신2동 서부경로당]

그 집 아들이 어머이(어머니)가 칠십이 되모 고래장(고려장)을 해야 되는데, 어머이를 지게에 지고 산으로 들어갔는데, 고래장을 하기 위해서. 이 어머이가 나중에 그 자식이 못 찾아갈까 싶어서, 질(길)을 모를까 싶어서 올라가면서 나무를 꺾어가지고 계속 길에다 흘리(흘려) 놓고, 그래가 요거 요거,

"이걸 쳐다보고 아들아 찾아가거라."

뭐 그래 그 뒤로부터 없어졌다 하는 그런 소리도 있고.

[서구 설화 116]

참기름이 없어지는 이유

김우열(남, 1946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동대신2동 서부경로당]

메느리(며느리)가 보이까, 참기름 거기, 참기름 쓸 데도 없는데, 참기름이 자꾸 저거 집에서 없어지거든. [조사자 웃음]

'우째서, 그라몬 우째서 없어지는고?' 싶어서 하루 지녁에(저녁에) 가마히(가만히) 보니까네, 시아버지가 들고 가가지고 참기름을 발라 놓고 뭐를 했답니다.

[서구 설화 117]

시어머니에게 생선 만진 손으로 국을 끓여준 며느리

김우열(남, 1946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동대신2동 서부경로당]

효자가, [조사자: 그거 이야김더.] 효자가 아이라 효부지. 눈을 됐고, 이거 뭐 시어머이가 아파가 있으니까, 좀 쉽게 돼서 '기름기를 좀 먹어야 살 수 있겠다.' 했는데, 시장에 가가지고 돈, 아 고기를 살 형편은 못 되고, 생선 가게 가서 이 생선 저 생선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손을 안 씻고 집에 와갖고 손을 씻어가 그 국물로 가지고, 거 갖다 고깃국을 끓여줬다는 그런 소리는 예 들어봤어.

[서구 설화 118]

글공부만 하게 하는 아버지

송태원(남,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동대신2동 서부경로당]

[조사자: 남자는 뭐 하는, 뭐한다고예?] 공부, 글공부만 해. 과거 볼라고. 과거를. 그래가 곧 저 남자는 옛날에 뭐 나무도 해오고 뭐 해야 되는데, 들앉아가 만날 공부만 하는 기라.

그래가 저거 엄마가 아들로 시킸는 기라. 나무 한 짐 해오라고 이래 시키놓으이, 나무를 캐가 왔는 기라. 그 아버지가 나무로 바까이(바깥에)를 해가 불을 폭 질러뿌더라.

"나무 해가 오몬 정신이 빠져가 공부가 안 되는데, 와 나무로 해가 왔노?"

고 소리만 들었어. [조사자 웃음] [조사자: 아이고 공부만 한다고?] 공부하는데, 그 잡마음이(잡스런 마음이) 안 들게 나무로 시켰노 이 말이라. 나무를 크게 이렇게 해가 왔는데, 바까다(바깥에다) 놔 불로 확 끼. [조사자: 그 사람 나중에 어데 뭐 과거 급제 했는가요?] 그거는 내사 모르겠고, 그래 하더래.

[서구 설화 119]

도깨비에게 홀린 사람[도깨비가 되는 빗자루]

송태원(남,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동대신2동 서부경로당]

그 저 아주 남자가 등치도 크고 신체 좋은데, 힘이 좋은데, 밤새도록 토채비(도깨비)한테 홀리가, 까시밭(가시밭), 토채비가 까시밭을 걸로(그곳으로) 자꾸 그래 모여 있는 갑대. 그래 댕기다가(다니다가) 얼매나 욕을 봤는지 집에 왔는데, 아들인데 그러는 기라.

"야야, 아무 데 거 가봐라. 토채비를 어지(어제) 내가 잡아 놨으이께네, 잡아가지고 줄로 가 딱딱 묶아 놨다고."

그래 가보이, 가보이 빗자리(빗자루), 빗자루 몽댕이 그거로 줄로가 묶아가, 마 그래 놨더래. 밤새도록 그 사람이 얼매나 욕을 봤는지 형핀(형편)이 없단다. 거가 마 그거를 까시밭에 댕기이, 자꾸 그건 데만 어만(엉뚱한) 데만 거기 갔는데, 거 빗자리 몽댕이, 빗자리 그거로 탁 묶아가 그래 놔놨더라. 그 토채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서구 설화 120]

봉사와 벙어리 부부의 대화법

송태원(남,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동대신2동 서부경로당]

남자는 봉사제? [조사자: 응, 봉사.] 남자는 봉사고, 그래 인자 불이 났는데, 봉사가 나가지는 몬(못)하고 인자, 마누래로 왔다고 오라고 인자 보냈는 기라.

그래 인자 그것도 어떻더노 이야기를 못 허이꺼네, 인자 할마이가 자 영감 다리로 씨담서러(쓰다듬어면서),

"다 타고 빽다구(뼈다귀)만 남아 있더구나."

그러제. [조사자: 그 이야기야.] [조사자 웃음]

[서구 설화 121]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송태원(남,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동대신2동 서부경로당]

애가 우는데, 살살 달래도 안 그치지예. 그 호랑이가 밖에 있고. 그 저 암만 해도 안 울어는데, 그 애인테, 꼿감(곶감) 주꾸마 이랬는 기라.

"꼿감, 꼿감 주꾸마."

카이께네, 턱 애 울음을 그치더래. 그 호랑이가 가만 들어보이카,

"야 이거 꼿감이 얼마나 무섭운데 애가 울음을 그치노."

그래가 그 소리는 들어 봤지. [청중: 그리고 중간에 엄마가 자꾸 울어싸니까,

"호랑이가 와서 물고 간다. 물고 간다."

해도 안 그칬는데,

"꼿감을 주꾸마."

커이 끄치는 거라. 그러니까,

"아! 저기 내보다 무섭운 기 있는 갑다."

그래서 호랑이가 달아났다.]

[서구 설화 122]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윤성균(남,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동대신2동 서부경로당]

고향에 있는 그 아주머인데, 키가 큰데, 그 정신병자는 아닌데. 그 죽었다 깨나고 거 온 그 철이 돼버러, 팔리가 거 온 동네 다 돌아다님서.

그래 이 저 염은 그 줄이 있어 몸에. 줄이 흉터가 있어. 죽을 직에 오일이나 당했다 쿠던. 오일만에. 오일 낮장을 하는데, 그래 인자 초장에 염을 안 치고, 칠일장을 헐라고, 뭐 그 또 기달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오일만에 당했어.

그런데 그 너무 덥어가(더워서) 얼굴에 검은 피, 똑 저 그 피가, 피가 씨가 껌은 색깔 매이로 그래가 얼굴이 껌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깨어. 나 봤어.

[서구 설화 123]

제삿날 가는 귀신을 태워준 택시기사

윤성균(남,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동대신2동 서부경로당]

하루 저녁에는 인자 가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아가씨가 말이 차를 세우더라니까, 거 태우고, 태우고 아무리 뒤에 돌아봐도 없는 기라. 앞에 참 거울, 거울도 없고. '그래 이상하다.' 돌아보몬 인자 고 앞에 거울에는 없고.

그래 인자 가자 쭉 가이 인자, 한 동네 들어가서 딱 여게 대라거든. 그래,

"나 지금 들어가서 차비 가가 나올테니."

여 기다리거든. 하몬 해도 안 나오더라 캐. 그라니 들어간 기라. 갔는데, 사람이 무슨 상이라 카거든.

"그래 무슨 상이 났는지?"

그래 이런 아가씨로 내가 태어 왔는데, 올 때 거 물으니까, 그래서 딱 자기 제사라 하는 기라. [조사자: 그 딸 제사라.] 그래 고맙다고, 그 집에서 차비에다가 음식 조서(주어서) 먹고, 그래가 그 질(길)로 소문이 딱 나삤어.

[서구 설화 124]

도깨비에게 홀려 죽은 사람

윤성균(남,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동대신2동 서부경로당]

시장에서는 호불애빈데(홀아비인데), 호불애비 지금 시아버지, 시삼촌인데. 시장에 갔는데, 안 오는 기라. 안 오니까. 안 오는데, 그 양반이 시장 간다 카는데 안 와서, 밤에 나가 기다리도 그날 아칙(아침)인데. 그 아랫동네 하고 또 거리가 멀다 말이야. 지금은 그 버스정류장이 되었지만은도, 전에는 차가 없으니까.

그래가주 걸어가는데, 그 뒷간인데 도무징이야 도무지가. 파놔 놓으몬 거 따묵는 기라. 거 따주 오시라고 딱 여 목을 밀어재치고 죽었는 기라. [조사자: 아이구.] 그래 집에 와서 보니까, 요리 졸- 흠집이 있는 기라. 바로 그리 홀치가(홀쳐서. 즉, 낚아채어) 죽은 기라. [조사자: 아, 그기 도깨비한테 홀치가지고.] 도채비가 허잽이. 허재이가 홀친 기라.

[서구 설화 125]

도깨비에게 홀린 사람(1)

김미금(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10일 채록
[부민동 부민경로당]

저 저 뭐꼬 메누리(며느리)가, 저 신랑이, 신랑 각시 자다가 나가더라네예. 그래서는 인자 나가더니 아무리 안 들오더란다. 안 돌아, [말을 바꾸어] 내 지금 이가 제대로 안 돼갖고 좀 발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들와서 인자 혹시 화장실 가서 안 들온가(안 들어왔는가)? 또 인자 나가보이께네 없더랍니다. 그 없어가지고 인자 마 오만천지 다 찾아댕겨 동네사

람 불러갖고 막 그 풍물 치면서 찾아다니잖아요.

그래갖고 찾아다녔는데, 없고 인제, 찾아다니다가 인자 못 찾고는 다부(도로) 돌아서서 오는데, 옛날에는 시골집에 그 울타리가 그거로 대 막 그런 거로 막 [조사자: 그렇지. 싸리 빗자리하고 이런 거.] 예. 고기는, 거기가 딱 이래갖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구, 왜 여가(여기서) 이라고 있냐?"

한께는, 누가 불러서 나왔는데, 키 큰 사람이 자기를 이리저리 덱고(데리고) 돌아댕기더니 여기다 갖다 앉아놓고 가더랍니다. 그래가 찾았어예. 그리고 얼마 못 살고 가대요.

[서구 설화 126]

도깨비에게 홀린 사람(2)

김미금(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10일 채록
[부민동 부민경로당]

저게 장에 갔다가 늦도록 안 오더라 카는 기라. 그래서 안 오서(와서) 이리 저녁인데 여름에 이리 한게네, 더 큰딸이 덕순인데, 저 우(위)에서,

"덕순아! 덕순아!"

부르는 소리가 나더라 쿠는 기라.

"이상하다. 복천 양반이 저서."

뭐 촌에 전기가 있습니까? 머한(뭐 같은) 거.

"부르는 소리가 나더마는 안 온다."

그거 넘어오는데, 산이 막 한푸 거해가 나무뿌리가 막 막 들어난 기가 샜어(많았어). 고거 동네 뒤에 산이. 그래가 동네사람들이 짚단을 묶어가 불로 써갖고 올라간게, 세사아(세상에) 나무 밑에다가 자기가 나무뿌리 이리 된 데 거기에 꼬-옥 처백히가(처박혀서) 있더랍니다.

그래가 뭐 하고 어떤 넘이 와서 씨름하자 캐가 [웃으며] 했는데, 자기가 져가 묶이가(묶여서) 있다 하더랍니다. [조사자: 아하, 져가지고.] 하모 져가. 도깨비들이 거따(거기에다) 묶아놓고 갔더랍니다.

[서구 설화 127]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김미금(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10일 채록
[부민동 부민경로당]

지금은 인자 밤늦게 인자 오는데, 요래 요 모퉁으로(모퉁이로) 이래 이래 돌아오는데, 밤에 인자 늦게 온께로 앞에서,

"야 이놈아! 거 안 놓나? 거 놔라. 이놈, 이놈이 안 놓나?"

하면서 막 싸와쌌더라 캐요. 그래가 인제 저 그거 뭐꼬?

"왜 그라느냐?"

고 인자, 아니 남자, 옛날 사람들은 다 아는가 봐요. 그란께, 저놈이 또, '도깨비한테 붙잡혔다.' 싶어갖고 막 괌(고함)을 지르면서,

"누구냐?"

고 막 그람서 이래 오이께는, 인자 그 도깨비들 딱 가버리고, 그 그 양반이,

"아 이놈들이, 저 그거 뭐꼬? 내가 오이께노, 마 길을 딱 가로막고 서가 씨름 한 번 하고 가라고 마, 이래가지고 못 가고, 붙잡히갖고 그래 있는데, 행님(형님)이 다행히 오시가지고 내가 살았다."

고 이람서, 또 지몬 죽을 수도 있는가 보대예. 그래가지고 살아갖고 왔다, 그런 옛날에 도깨비가 실지로 있었다. [청중: 있었어. 나도 도깨비불 마이(많이) 봤어.]

[서구 설화 128]

할머니로 변신하여 아이를 보호해준 산신령 호랑이

김미금(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10일 채록
[부민동 부민경로당]

인자 저 그거 저 외동딸이라 인제. 저 그거 일곱 살 묵었다(먹었다) 하대. 저거 아바인가(아버지인가). 옛날에 시골이몬, 이 동네 산 넘어서 이 동네 있고, 저 동네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인자 놀러갔다 오신다고 가셨는데, 아부지가 인자 늦게까지 안 오시니까는, 쪼깨는(조그만) 왜 일곱 살 무운 거이 인자 아부지 찾으러 간다고 갔어요.

갔는데, 가다가 또 그 애가 안 돌아오는 거라. 그래갖고 인제 저 아바이, 아버지가 오셔서 물어보이까 안 왔더라 캐. 그래가 인자 동네 사람 또 다 해갖고, 그 전에는 호식(虎食)해갖고 그런 거이 마이(많이) 있다 아입니까. [청중: 아 호랭이가 물어갔다 안 하나.] 그래가지고 인

자 동네 사람 다 이래갖고는 산으로 어데로 마 꽹과리 쳐가면서 인자 막 찾으러 들어갖고, 앞에는 마 산이 깊으니까는 인자 낫으로 이래 인자 치고 막 찾어들어 갔는데.

저- 산골짝에 간께, 가니께로 물이 이래 철철철 내러오더라네. 그래갖고 그리 따라서 올라가인께노, 바위가 모도 막 이래갖고 있고 인자 그라는데, 그 물 내러오는데 거게 앉아서 손을 씻더라요, 그 애가. 그래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니 우째 이라고 앉아 있노?"

그라께노,

"안저 할무니가 여게 앉아, 저 여기 놀고 있어라 하더라."

캐요. 그래 인자 여어 놀고 있으이까는,

"있으면 인자, 그러면 며칠 동안을 뭐로 묵고 살았냐?"

하이께, 저 그거 할무이가 자꾸 뭐 산따래(산딸기)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따다 주고, 또 그거 뭐꼬 또 으름.[72] 으름 같은 것도 따다 주고 그러더랍니다. 그란데 그기 인자 호랑인데, 그 할머이로 보였는 거라. 하얀 게. 그래가지고 찾아왔어예.

근데 그분도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대. [조사자: 아하, 그거 참 재미나네.] [청중: 호랑이한테 가몬 혼이 빠지뿐다.] 우리 이우지에(이웃에), 우리 이우지에 살았는데, 그래가 [조사자: 음-, 호랑이가 인자 그 산신령인데 안자 할무이로 비이네.] 예.

그래가,

"그 집은 어쨌냐?"

하몬,

"저 바위 밑에다 요래 지붕같이 이래 생기갖고(생겨가지고) 그 안에서 인자 살았다요. 그래가지고 할무이가 그래 산에 나가서 뭐 따가지고 인자 이래가 묵고 살았다."

그래.

그렇고 엄마 찾아와갖고 결혼해가 남매 낳고 그래 살더마는 젊어서 갔어.

[서구 설화 129]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호식 당한 어머니]

김정자(여,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10일 채록
[부민동 부민경로당]

72) '으름'은 우리나라의 산에서 볼 수 있는 열매로 한국산 바나나라고 하는 열매이다. 익으면 알이 벌어져서 마치 전복이 입을 벌린 모양과 비슷하다.

떡 하나 주몬, 한 고개 넘으이 또, 그라몬 또 떡 다 주고 난게네, 팔 한 쪼가리 주고, 또 주고 이런다. 그래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조사자: 응. 그래 엄마 다 잡아묵고?] 다 잡아뭈다고 그라대예. [조사자: 아들은요?] 예? [조사자: 아들은 안 잡아묵는가?] 아들은 그래가 엄마가 인자 그 아들 안 자아믹힐라고(잡아먹히려고) 자기 거를 다 주삐고(주어버리고) 나이, 엄마만 죽었더라 이라대.

[서구 설화 130]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최정숙(여,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10일 채록
[부민동 부민경로당]

죽어도 앉아서 공부한다고, 상투로 천장에 매 놓고 공부만 하는 기라. 고마 물성이가(성질이. 즉 화가) 나서 고마 시집을 가삤어, 딴 지(데)로. [조사자; 딴 데로.]

시집을 갔는데, 고마 그 집에도 간게, 내나 역시 그렇는 기라. 또 대니면서(다니면서) 갱피(강피)로 훑는 기라. 피거든.

본께는, 저거 신랑이 베슬(벼슬)을 해가 말로 타고 오거든. 그래 각시가, 그래쿠 말로 타고 옴서 하는 말이,

"갱피 훑는 저 아즈매 간 데 쪽쪽 갱피 훑네."

신랑이 그래 쿠거든. 그건게는 쳐다본께 저거 신랑이거든.

"소죽 말죽을 낋이조도(끓여주어도) 서방님 따라 갈랍니더."

쿤게는, 고마 [청중: 싫다고 안 된다 카고.],

"여어 온다."

쿠고, 따라오다가 그거 신랑 말 발굽에 밟히 죽어삤단다. [조사자: 말 발굽에 밟히가.]

팔자가 더럽은 사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기라.

[서구 설화 131]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최정숙(여,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10일 채록
[부민동 부민경로당]

옛날에 칠십 된 데 아들이 어마이를 고래장(고려장)하러 짊어지고 간께네, 감성(가면서) 나무를 똑- 똑 뿌질러가 질(길)에다, 산에 가는 데가지 놓거든.

"와 그랍니까? 어부이."

카이,

"난주-(나중에) 니 잘 찾아 내러가라고."

아들 질 잊으뿌까 싶어서. 아들은 고래장 가도 묻어 놓고 가도, 그래갖고 그 아들이 거 가서 그걸 못 묻고, 어마이를 도로 덕고(데리고) 와서 고래장이 없어졌답니다.

[서구 설화 132]

높임말만 쓰는 며느리

최정숙(여,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10일 채록
[부민동 부민경로당]

[조사자: 요즘 말로 하몬.] 가갖고, 어쨌든 시가집에는 가몬 싹 다 높히야 되거든. 어떤 보통 시집 해갖고,

"그래 야야, 강아지 어디 갔노?"

"아이고, 송치씨가 꺼치씨로 씨시고 뛰십니더." [일동 웃음]

[조사자: 거기 무슨 말인가요?] 송아지가 꺼지(거적)로 씌고 뛰이가, 뛰 대인다(다닌다) 소리. [조사자: 아, 뛰 댕긴다는 소리. 그래가 인자 뭐 다 높이라 카이카네 인자.] 다 높이라 쿤께.

[서구 설화 133]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최정숙(여,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10일 채록

[부민동 부민경로당]

저 시집 가몬, 야야 아버지가,

“시집 가논 니는 귀머거리 삼 년, 버버리(벙어리) 삼 년, 봉사 삼 년 살아라.”

캐나노이, 그거는 아는데, 방구는 그거. [조사자: 뭐든지 참아야 된다고.] 예. 그런께는 참아야 된다 하면서, 버버리 삼 년, 귀먹어 삼 년, 봉사 삼 년 사라 캐노놘께는, 이 뭐 삼 년을 살고 난게 노란 꽃이 피더라대, 노오-라이 노란 꽃이 피더래.

그래서 시아배가,

“니 와그렇노?”

한게는,

“아버님, 방구(방귀)로 몬(못) 뀌 그렇습니다.”

쿠거든.

“그러면 야야, 그래가 되나? 뀌라. 방구는 뀌야 된다.”

칸게나,

“그럼 아버님, 저 가서 지둥(기둥) 잡으이소.” [일동 웃음]

그래,

“니 암만 방구가 크지만 지둥을 잡아?”

마 푸욱- 뀐께네 소리가 엄청시리 크더란다. 뭐 그거밲에 몰라예.

[서구 설화 134]

몸종만 찾는 주인 서방

최정숙(여,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10일 채록
[부민동 부민경로당]

옛날에 가모, 있는 집 딸들은 몸종을 덕고(데리고) 간다 아이가. 시집을 감서. 이 몸종을 갖고 가는디, 주인 서방님이 만날 몸종만 저녁마다 오는 기라. 참 낭패거든. 자기는 그 주인 딸 내미 따라갔는데.

그래가 저게 인자 한 분(번) 자기 마누라를 보고, 자기 그거 본 그걸 보고,

“아가씨, 그거 저게 내 시기는(시키는) 대로 하이소. 서방님이 밤마다 내 바아(방에) 옵니더.”

"그래 우짜꼬?"

쿤게,

"딱- 내 시기는 대로만 하이소."

그라거든. 멫(몇) 시 되몬, 이제는 불 아입니까, 호롱불 딱 하고 누웠이몬 서방님이 들어가서 우째우째 한께네, 거 가서 가마히 또 몸종 거리(같이) 해가 누웄이인게노(누웠으니까), 이 영감이 드가면서, 아이구, 아가씨들은, [조사보조원 여학생들을 보고] 너거 저게 말, 뭐라 쿠노? [청중: 주인을.] [조사자: 마님이.] 애씨(아가씨), 애씨.

"애씨는 부지이(버지기. '보자기'의 방언)만 한데, 니는 참 좋다. 딱 맞다." [일동 웃음]

거기 거긴데. 그래 하고 고마 나가서 하는 소리가, 저 신 한 커리(켤레), 이전에는 짚신 신기죘다 아이가.

[서구 설화 135]

욕을 못 참는 아버지

최정숙(여,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10일 채록
[부민동 부민경로당]

어띻기(어떻게나) 아버지가 욕을 해쌌는고, 아들 장개(장가)로 감서 아부지(아버지)를 욕하러 못 따라오구로 하거든. 그래,

"처갓집에 동네 가몬, 아부지 망신당한게네, 절대로 아부지 따라오지 마이소. 아버지는 안 모시고 갈 끼고, 삼촌을 차라리 덕고(데고) 갈랍니더."

"내 절대로 욕 안 한다."

쿠거든, 그래서 참 덕고 갔다. 상각(상객. 上客)을. 그런게 행주치마 이래가 큰, 촌에는 이래가 선다 아입니꺼? 시엄(수염)이 되게(매우) 많던가 봐. 이래갖고 시엄이 까-악 이리 덮었던가 봐. 요고 따라온 사람이. 그런게 여자들이,

"저 처다 봐라, 요이 상각이 입이 없다. 상각이 입이 없다." [일동 웃음]

[조사자: 털이 많이 나가지고?] 하모. 털이라 놓은께네, 욕 안 한다 쿠더마,

"야 이년들아! 너거는 입 아이고, 니 입이 뭘까?" [일동 웃음]

[서구 설화 136]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최정숙(여,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10일 채록
[부민동 부민경로당]

과게로(과거 보러) 갔는데, 시어매가 눈이 멀어가 들앉았는데, 뭣이 해줄 기 없어서 만날 지렁이로 잡아다게 반찬을 해죴어. 아들이 돌아온게, 허-하이 엄마가, [청중: 지렁이 영양가 있는 갑다.] 억수로 좋거든.

"아이고 엄마, 뭣을 무서(먹어서) 얼굴이 이리 좋소?"

쿤게,

"몰라, 하도 맛있는 걸 해조서 내가 여 자리 밑에 좀 옇어났다."

요리 꺼내는데 지렁이거든.

"그 엄마, 지렁이요."

쿤께, 엄마가 놀래 눈을 퍼뜩 뜨더란다.

[서구 설화 137]

집지킴이 구렁이

최정숙(여,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10일 채록
[부민동 부민경로당]

주소는 모르겄는데, 그 북촌에 숙제에, 거 이 부자 있었거든. 아주 산, 산동넨지 온 꼴차기(골짜기) 한 꼴차기에 마 기와집이 꽉- 차거든. 이 도굿대라 그랬어. 이름이.

진짜 죽고 났는데, 돼지고기로, 돼지로 잡는데 막 머슴들이 멫(몇) 마리를 쫄아 갔는데, 커단-한 이런 구러이가 와서 이래 집 뒤로 떤지주몬 묵고 가고, 너무 잘 묵고 가더라 하는 거라.

그래서 모두 저게 참 돈을 그마이 모으자니 좀 모진 짓을 하기는 했겠지. 그래 지킴인가 봐, 저녁에 상을 크게 차려놓는다 아입니까. 그 시체 앞에 이래 팽풍(병풍) 쳐놓고. 세사아(세상에) 팽풍 밑에 거게, 그거는 이바구도 아이고, 우리 클 때 쪼깬할(조그만 할) 때 들었던 소리라. 구리이가 거 판, 절판 채리놓은 데 그 뒤에, 팽풍 뒤에 와 누웠더라 쌌더라. 그거는 서대 실화라. 거기 이전에 내러오는 이바구도 아이고.

[서구 설화 138]

곡소리도 못하는 바보 신랑

최정숙(여,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10일 채록
[부민동 부민경로당]

초상이 나서 감서, 어~이 어~이 우야꼬 시기(시켜) 죘어. 꼬랑(도랑) 건니는데 잊어삤어, 그 소리를 갖다가.

잊어뿌리고, 고마 꼬라아 빠지이 머라고 그랬는지, 온 꼬랑에 이리 찾는다고 그런게 미꾸라지가 있어서 딱 쥐인께,

"삐-익!"

카거든. 그래, 그래갖고 초상집 가서 엎져서(엎어져서) 삐-익 삐-익. [일동 웃음] 상주가 웃도 모하고(못하고), 대나무 작대기로 마 파악 깨물았어. 안 웃을라고. 그런께 빠싹 소리가 난다 아인교, ○○○로 폭 묻고. [일동 웃음] 그런 일화도 있다.

[서구 설화 139]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최정숙(여,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10일 채록
[부민동 부민경로당]

호랑이가 어디 가서 요래, 아가 자-꾸 울거든.

"호랑이 왔다."

캐도 울고, 뭐이 왔다 해도 울고,

"꼿감(곶감), 꼿감."

쿤게, 고마 안 울거든. '저거 내카마(나보다) 더 무서운 기 있는 갑다.' [웃으며] 싶어서. 그래 쪼금 준께나 안 우는데, 그래서 꼿감이, 호랑이가 꼿감을 무서워한답니다.

"꼿감 주게. 꼿감 주게."

하께 고마 아가 안 울거든. 호랑이 왔다 캐도 울고 그런 덕에. 그래서 거 호랑이카마(호랑이보다) 꼿감이 무섭다 칸다 쿠더만.

[서구 설화 140]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김순희(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8일 채록
[서대신1동 상록고운경로당]

아들은 징병에, 징병 가게 돼가 있어서, 그래 메느리(며느리) 시어머이(시어머니)로 모시는데, 메느리 국을, 시어머이 국 아이몬 밥 못 잡숬고 이래가, 만날 국물을 해드릴라 커이까네, 그래 그 지렁이 그기 비 오고 나몬, 물 ○○에 내러간 데, 삽으로 요래 파몬, 그기 깨끗답니더. 그래가 메느리 내도록 할매 국을 해드렸어. 그래 할매 눈이 봉사라노이까네, 뭔동(무엇인지) 모르고 잡숬고 그래가.

그래 아들이가 올 때 되가 왔다 카더나. 마 댕기가. 할매가 포-하니 요래 살이 찌고, 요래 기명(구명, 救命)을 메느리가 잘했어. 그래가지고,

"어무이 그래 뭐 잡숬고 그래?."

"그래 저녁에 국 들어오걸랑 봐라. 그러께네 맛있는 국을, 그래 국물로 잘해 준다."

색깔이는 자기는 눈이 어둡아노이 모르지 뭐. 그래가지고 보이까네, 지렁이를 파가 와가지고 메느리가 해드리는 거로 신랑이 알았어. 그래 자기 어무이잩에(어머니에게) 아들이, 또 아들잩에 할매가 물었어.

"야야, 보이 뭐더노? 무슨 돈이 있어가 그래 맛있는 고기를 사다 날로 매일 그래, 무이(먹으니) 구수하이 맛도 있다."

이래.

"어무이예, 다른 기 아이고 돈 안 들고요, 지가 파다가요 그기 지렁이 죽."

"아이쿠!"

껌쩍(깜짝) 놀래가 마 눈 떴다 카대.

[서구 설화 141]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신영순(여, 1931년생) 구술
2020년 1월 8일 채록
[서대신1동 상록고운경로당]

갱피(강피)로 또 훑어가 이래 죽을 쑤(쑤어) 먹고 이러는데, 저 비가 마 소낵비(소나기)가 여름이면 잘 오거든. 오뉴월 달이 되몬. 이라몬 그 갱피를 훑어가지고 널어놨는데, 아이구 마 비가, 소내기가 와서 그기 다 떠내려가뿠어.

그래도 자기 영감은 글 읽는다고 마 떠내러가든가 마든 모르이까네,

"내는 저 영감 데리고 내가 살몬 평상(평생) 고상(고생)이겠다. 이것도 하나 지대로 훑어 논 것도 이 저거 우다(걷어) 안 주고 저랬다."

고 마 그 질(길)로 마 나가뿠어. 할매가 안 산다고. 그래 나왔는데, 나가서 딴 데 가서도 마, 그런 이야기 그런데.

이 사람이가 베실(벼슬)을 해가지고 자기 과, 급제를 했어요. 안자 그 인자 됐어. 돼가지고 참 말을 타고, 옛날이 지 살던 데, 마누래하고 살던 데로 그 막 그냥 막 군사들로 데리고 마 철렁거리고 말로 타이 오는데, 그 또 쟁피(강피)로 훑더래. 그 할매가, 자기 마누래가. 그래,

"쟁피 훑던 저 저 여인이 안주까지(아직까지) 쟁피로, [조사자: 훑던 쟁피 다시 훑네.] 다시 훑네."

[청중: 다시 훑네.] 그래가,

"시아라(세워라)."

이래가지고, 그러이까네 참 자기는 보이까네, 자기 영감이 인자 그래도 과, 안자 빗(빛)을 내가지고 그래 오는데, 할 말이 있나? 그래가,

"물로 한거 떠가지고 다부(도로) 부아서 다부 담을 수는 없다. 인자 한 번 이혼했으니까 할 수 없다."

는 식으로 그래 말하더라 카대. 그래가지고 참,

"저 갱피 훑던 저 여인이 안주까지 훑구나."

카면서, 안 됐게 그래.

[서구 설화 142]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신영순(여, 1931년생) 구술
2020년 1월 8일 채록
[서대신1동 상록고운경로당]

자기 엄마가 칠십이 인자 넘었겠지. 그래노이 인자 아부지(아버지)가 저거 엄마로 데리, 지게에다 지고 인자 그래 인자 고래장(고려장)을 하러 갔어. 손자를 데리고. 자기 아들이고, 할

매한테는 손자지. 그러이까네 인자 거기다 갖다 옇어놓고, 인자 지게로 다부(도로) 가져 올라 하이까네,

"야야 그거 놔두고 가라."

이라도,

"이거 아버지도 돌아가시면 내가 여다가 갖다 옇어야지."

카고 지게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걔가 가져오거든. 그래노이까네 인자, '아 이거 나도 그렇구나.' 싶아, 에이 지게 그거 마 가. 그때부터 마 없어졌는갑대. [조사자: 응, 고래장이?] 고래장이 없어져뿠어.

[서구 설화 143]

손자 대신 벌 서는 아들

신영순(여, 1931년생) 구술
2020년 1월 8일 채록
[서대신1동 상록고운경로당]

공부로 안자 할아버지가 갈치(가르쳐) 주는데, 인자 아들은 산에 나무로 하러 갔어. 나무로 인자 떡 해가지고 이래 오니까네, 손자가 바깥에 마 이래 웃통을 막 벗고 이래가지고 마 이래 벌로 서가 있거든. 저거 아부지 보이, 저거 아들이 거 서가 있는 기라.

"야 이, 니 와 거기 서가 있노? 와 여어 서가 있노?"

이라이까네,

"할아버지가 공부 몬(못) 한다고 날 벌로 세서 이래 서가 있다고."

"이 춥은데, 이놈아 드가라."

그래놓고 지가 마 웃통을 벗고 마 이래 서가 있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손자 이놈이 서가 있나 어쩌나 싶어 문구녕(문구멍)으로 요렇게 인자, 요런 데 요래 달아놨거든. [조사자: 아, 옛날에.] 쭈욱 내다보이까네, 저거 아들이 거 딱 서가 있거든. 그래서 문을 퍼-억 열면서,

"야야, 니가 와 거 서가 있노?"

이라거든. 그러까나,

"내 아들이 니 때문아, 니 아들 함(한 번) 떨어보자."

카고. [일동 웃음]

그래 세상 지지금도(제각각도) 아들 중요해가지고, 인자 지 할아버지는 인자 자기가 아들이니까네,

"니 아들 내 떨어보마. 내 아들 니 떨우나(떨게 하나) 한 가지 아이가."
카면서,
"니 아들 내 함 떨어보자."
카면서,
"니 맘이 어떻겠노? 그렇게 안 주나."
[조사자: 그러카네 벌로 안자 면했겠네 안자.] 예, 그래가 안자, 그래서 안자 아들이, 아들로 [청중: 내리사랑이라고.] 그리 쿠거든, 웃통 벗기가 바깥에 벌로 안 세아더라 카네, 할아버지가. [조사자: 아,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떨고 서가 있으이 아깝어가지고. 손자는 그래 놔놓고. 그리이 손자는 저거 아들이 또 저거 아들이니까네.

[서구 설화 144]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신영순(여, 1931년생) 구술
2020년 1월 8일 채록
[서대신1동 상록고운경로당]

아들이 하도 무울(먹을) 건(것은) 없고, 할머니는 눈도 어둡고, 무울 게 없어가지고, '아이고. 어머니를 뭐로 해다 드리야 우리 어머니가 잘 자시겠노?' 싶어서, 그래 마 젖은 데 가서, 거 축축한 데 이런 데 지렁이가 있거든. 그걸 파다가 그래 씻거가지고, 요런 약단지 같은 데다, 이거 뭐꼬 수퍼에 가서 고아가지고, 보하이 우러나는 거로,
"어머이 이거 잡솨 보이소. 참 맛있습니다."
"아, 야야, 뭣이기에 구신(구수한) 내가(냄새가) 나노?"
"어머이, 약, 보약입니다."
"아이구 그래, 어서 좀 가(가져) 온나. 마시 보자, 맛있는 내 난다."
그래가지고 이래 갖다 드리이까네, 너무 맛있거든, 할매가.
"아이고, 무슨 고기가 이렇게 맛있노?"
카이까네,
"아이고 야야, 무슨 고기고?"
그래,
"어머이, 이거 지렁입니더."
이랬거든.

"으어?"
카면서 마 눈을 번쩍 뜨더라 카대.

[서구 설화 145]

진주 자린고비

신영순(여, 1931년생) 구술
2020년 1월 8일 채록
[서대신1동 상록고운경로당]

진주 자린곱제기(자린고비. 즉 구두쇠)가.
"여어서 마 니 마 진주 자린곱제기카마 더 하네."
진주 자린곱제기가 고기를 사다 매달아 놓고 묵지도 몬(못) 하고 아깝어가지고. 좀 묵으몬 또 사야 될 기이까네. 그래 밥 한 번 떠묵고 그거 한 분(번) 쳐다보고, 밥 한 분 떠먹고 그거 한 분 쳐다보고 이랬다 하대. 그래가 그거로 몬 묵고.

[서구 설화 146]

고려장 가면서도 자식 걱정하는 부모

이을출(여,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8일 채록
[서대신1동 서대2경로당]

가다가, 등어리 앞에 나문니(나이 많은 이. 즉 부모)가 생각한게, 아들이 오다가 이 흉한 거이 하다가, 길 잊아버릴께배, 등허리에서 나무를 딱딱 짤라놓고 갔어. 인자 낳을 날 거 가서 내려놔서,
"내려놓고 내러갈 때 내가 나무를 끊어 놨으니까, 그 길로 따라가면 집이, 길 나온 데로 간다."
고 그래 없어졌어.

[서구 설화 147]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며느리를 변하게 한 아들

이을출(여, 1935년생) 구술
2020년 1월 8일 채록
[서대신1동 서대2경로당]

저 시어머니가 하도 메느리하고 아들하고 사는데, 저거 시어머니를 안 좋아하는 기라. 눈을 찡그리고 막 하니까, 지 어머니를 그리 구박을 하고 그라니까. 아들이 그래 가마히 보이까, 무슨 그걸 해가지고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 놔 놓으니까 마, 어머니 눈치를 채고 자꾸 말라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뭐 마누라를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란께,

"얘, 어머니, 빨리 돌아가시몬 좋겠지?"

그런께,

"아이고 그걸 말이냐 하냐."

하면서, 이러니까,

"그러몬 어머니 빨리 돌아가시게, 그리 저리 빼짝 말랐으니까 밥할 때, 밤을 한 세 톨씩, 깎아서 밥에다 낳다 꼭 어머니 밥에만 세 톨씩 넣어 드리라."

했대.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기는커녕 할머니가 밤 세 톨 잡숫고 살이 통통하게 찌더란다. 어머를 구할라니까 그래 그리이. [조사자: 아들이 머리를 썼네.] 예. 그래 해가지고 어머니를 그래 살이 찌게 하더라고 또 그러대.

[서구 설화 148]

제삿날 가는 귀신을 태워준 택시기사

이인석(남, 1947년생) 구술
2020년 1월 8일 채록
[서대신1동 서대2경로당]

택시기사가 태아가지고 이제 그 소복을, 하얀 소복을 해가지고 그래 가는데, 아주 캄캄한 밤에 비는 내리고 있는데, 가는데 손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세우니까, 흰 소복을 입은 아주머니가 인자 탔는 거라예.

탔는데, 어딜 가자 하는데 초상집에 가는 겉더라고.

"초상이 났는데, 그래 좀 가자."

그래 가는 도중에 빽미러를 보니까 사람은 안 보이는데, 요 돌아다 보면은, 뒤로 고개를 돌려보면 사람이 있고. 그래 이상해가 '이거 뭐 귀신한테 홀맀다.' 이래가지고 마 겁이 나는 거에요 인제.

그래가지고 그 제우(겨우) 길을 돌아가 초상집을 찾아갔더네. 그래서 내리고서 인자 차비가 없어가지고 갤국은, 아까 교수님 말씀, 교수님 이야기한 대로,[73]

"차비가 없어가지고 조금 기달려 달라."

그래 기다렸더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라예. 고 고 정도 인자 얘기.

[조사자: 그래가 마 할 수 없이 기다리다 그냥 가뿠네?] 어, 그리 가지는 안 했을 거라예. 생각이 지금, 가지는 안 하고, 거 머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고 이래 나온 걸로 내가 알고. [조사자: 아아,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네.]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라.

[서구 설화 149]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정정순(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8일 채록
[서대신1동 서대2경로당]

저저 고래장(고려장)을 하고 지게 내비린다(내버린다) 아이가. 그래,

"아버지, 지게를 지고 가야겠다. 아부지 고래장하야지. 지고 가자."

그 질(길)로 고래장이 없어졌다 그런다.

[조사자: 아하, 그래 그래. 지게로 거, 손지가 따라갔던가 보지요?] 예, 손주가 따라가. 저거 할매를 묻고 오는 날에, 고래장 하고 온 날에,

"지게 와 내비맀노? 지게를 지고 와야 아부지도 고래장해야지."

[서구 설화 150]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정정순(여, 1937년생) 구술

73) 제보자의 구술을 받아내기 위해 미리 간단히 이야기한 것을 두고 말한 것임.

2020년 1월 8일 채록
[서대신1동 서대2경로당]

아들은 어데 가고 없고, [청중: 군에.] [조사자: 군에 가고.] 그래가 요 할매가 뭐 삼년꺼정(삼년까지) 아들이 안 오이까네, 그걸 갖다 자리 밑에다 옇어놘(넣어놓은) 기라. 한 개 한 자리. 하도 맛이, 봉사라 논께네, 옇어 놨는데, 아들이 오는데,

"야 이기 눈 어덥어가(어두워서) 마 맛있는 걸 해줐는데."

살이 저거 엄마 보하이 통통하이 쪄가 있거든.

"뭘 잡솨 이래 살찠나?"

"야, 메느리(며느리)가 이래 맛있는 고기로 맨날 해주는데, 이 무슨 고긴고 함(한 번) 봐래."

하이께,

"아이고 엄마 거시."

그래 눈을 퍼뜩 뜨더라 안 카대. [조사자: 거시이라 하니까 놀래가지고?] 놀래갖고. 그래, 그래 옛날에 무울 기 없은께네, 그걸 잡아가지고 그래 해드맀지.

[서구 설화 151]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서정수(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서대신4동 꽃마을부녀경로당]

선비가 장개(장가)를 갔는데, 이 아주마시(아주머니)가 만날 갱피(강피)를 훑어. 훑으이께네, 비가 와도 갱피 그거 널어놘 그것도, 이거 집에 있으면서러 이 선비가 거다(거두어) 들이지도(들여놓지도) 안 하고, 만날 글만 서당에 앉아 글만 치다보고 있으이께네, 이 아주마시가 저 논 귀팅이(귀퉁이) 앉아가 갱피로 훑어가 오이, 비가 홀딱 맞차놓고 이러이께네, 하다가 하다가 안 되이까네 몬(못) 살겠다 하면서 인자,

"니 밥은 그만 먹고 내는 내대로 갈란다."

이래갖고 인자 딴 데로 갔어.

갔는데, 저- 저 가고 이래 살아보이꺼네, 저 저 갱피 훑는, 그때 한 쪽 구석, 그 팔자도 갱피 훑는 팔잔가, 딴 데 가도 갱피를 훑어야 돼. 이래 들에 이래 있으이께네, 막 과게(과거)를 해가지고 [조사자: 응, 남편이. 옛날 남편이.] 말로 타고 막 '띨랄라' 이래 부르고 이래 오거

든. 그래 갱피 훑다가 이래 치다보이 저거 남편이라더랍니더. 그래 갱피 그거로 확- 이래 버리고,

"그대, 그대 따라가몬 안 되겠나꼬, 말부(마부, 馬夫)로 말 그거 인자 죽 쑤는 거기라도, 말부로 하더라도 따라 갈란다."

카이께네, 그래,

"그대 마음이지."

자기는, 선비는,

"못 온다."

이라더랍니더.

[서구 설화 152]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서정수(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서대신4동 꽃마을부녀경로당]

저거 아부지(아버지)가 계싰는데, 아들이 아들로 덕고(데리고) 지게에다가 아부지를, [청중: 할매를.] 아들이 아부지를 지게에다가 인자 지아갖고(지워가지고) 저 산에 갔거든. 산에 아부지를 내라놓고, 지게도 거 놔놓고, 그래 인자 내러오이끼네, 어린 아들이 [조사자: 손자지 안 자.] 예. 손지가 아부지캉 같이 내러오면서 다부 올라가더랍니다.

"니 어데 가노?"

이라이께네,

"내 지게 가지러 간다."

이라거던.

"지게 말라꼬?"

하이,

"나도 아버지 맨치로 아부지 지다가 산에 버리러 그 자리 갖다 놓을라고, 그래 지게 지우러 간다."

이러이께네, 거 인자 아부지가 자기는 안 그랄라고(그러려고) 산에 가가 지게 그거로 아부지를 담아, 담아 지고 다부 내러오더랍니더. 지는 안 그랄라고. 지는 아부지로 버맀는데, 지 자식이 지게 그거로 곧 가지러 간다 카이께네, '아부지를. 아 나도 인자 이거로 당하몬 안 되겠

다.’ 싶어가, 아부지를 담아가 지고 오더랍니더.
그래까지밲에 모릅니더.

[서구 설화 153]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서정수(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서대신4동 꽃마을부녀경로당]

안자 앞을 못 보는 어른이, 이래 방에 있으이께네, 시어머이로 굶기진 몬(못) 한다 아입니꺼. 그래 메느리가 할라고 할 끼도 없고, 이래 보이끼네 이래 지렁이가 이래 댕기꺼네, 지렁이 그거로 고아가지고 폭 고아갖고 할매로 디리이까네,
“아이구 야야, 이게 뭣인고 참 맛있다.”
이러 카면서, 그래 잡숫고 이라는데, 그거로 오래 인자, 메느리 정성이지 그러이. 그래 잡숫고 할매가 눈을 떴답니더. 눈을 떠가 이래 보이꺼네, 고기 이래 보이 지렁이더랍니다. 그래 깜짝 놀래갖고 그래 눈 뜬 일이 있다고, 그런 또 이야기도 있어예.

[서구 설화 154]

은혜 갚는 노루

정정자(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서대신4동 꽃마을부녀경로당]

짐승을 공을 주면 꼭 공을 갑는다는 말이 맞어. 우리 배 탄 사람이 있는데, 노루가 포수한테 쫓겨가지고 배로 요래 딱 달라든께, 그 사람이 숨카갖고 난중에 살려줬는데, 고마 그 여우마, [말을 바꾸어] 그 노루, 노루만 보몬 고기가 많-이 잽힌대.
그런디, 또 한 사람은 배로 뛰들면, 안자 동네가 이짝 저짝 그래, 한 사람은 콱- 발을 쪼사갖고 잡아묵어버렸어. 그랬더만 그 사람은 앉은뱅이가 됐부더라.

[서구 설화 155]

집지킴이 구렁이에게 잘못을 빈 주인

김덕득(여,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서대신4동 수원경로당]

우리 아부지가 저- 전라도 가서 사업을 했어예. 개인사업을. 거서 인자 집을 둘이나 정해 놓고 사업을 했는데, 그래 그 집 머심(머슴)이 산에 풀을 베는데, 구리이(구렁이)가 요래 잔디(잔등. 즉 등)가 짤라졌어(잘라졌어). [조사자: 아이구, 아이구.] 예. [청중: 잔디가 허리다.]

허리 이리 짤라져가지고, 암놈이 짤라져가지고 이래, 이래 왔는데, 그럴 줄을 몰랐는데, 이틀 있은께나 큰- 구리 한 바리(마리)하고 머리 있는 그 뱀하고 그래 이래 그 집을 찾아왔다 하대예. 그런께나 그 집 주인이, 아저씨가 물로 떠놓고 잘못했다고 자-꾸 빌더라 카대.

"우리 머심이 이걸 잘 모리고(모르고) 풀로 베다 보니 그래 됐는데, 그래 어떻든지 고만 돌아가라고. 좋은 데로 가라고."

자꾸 그런께, 동갈이 그러 안 갈라고 자꾸 짤짤짤 흔들더라. 우리 아부지가 직접 봤다 하더라고. 거기 인자 암놈 그건 안 갈라고 자꾸, 자기 한 동가리가 없이니까. 자꾸 짤짤짤 흔들고, 긴 거 인자 숙놈(수놈) 그거는 자꾸 가자고, 입을 가지고 자꾸 가자고 이래 하는데, 아따 그 몬(못) 보겠더라 카대.

거서 막 그 주인이 나와서 막 물로 떠놓고 막 절로 하고 빌고 마,

"잘몬했다(잘못했다)고. 우리 머심이 모리고 그랬는데, 어찌할 수가 없다."

쿰서러,

"좋은 데로 가라."

고 빈께너, 자-꾸 숙놈 거기 인자 암놈을 자꾸 가자, 이리 이리 빈께네, 그 암구리이 거기 고개로 이리 치-익 거들더만은(들더니만), [청중: 살- 따러가던가베.] 고개로 푹- 시키더마는[74] 가더라 하대예.

[청중: 그래 빌어야 된다 카대. 물 떠놓고 빌어라 카더라.] 그래. [청중: 큰 구렁이가 뵈몬(보이면), 어른들이 전에 그러대.]

[서구 설화 156]

74) "아래로 내리더니만"의 뜻으로 말한 듯하다.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김덕득(여,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서대신4동 수원경로당]

밤에 인자 오데 갔다 오시는데, 우리 시아부, [말을 바꾸어] 생 저저 시어른이 키가 자그만하이 똥똥하이 그랬거든예. 하-다 앞에서 얼른거리싸서,

"이놈의 자석 오늘 니하고 내하고 씨름을 한 번 해보자."

도캐비(도깨비)하고 둘이서 마 밀고 딱치고 머 싸움을 하다가,

"보자. 낼 아침에 닐로(너를) 한 번."

허리끈을 끌러가지고, 빗자리로 묶아가 솔나무에 딱 매 낳다(매 놓았다가), 뒷날 아칙(아침)에 온께 빗자루 몽댕이더라.

[서구 설화 157]

저승 갔다 살아난 사람

김덕득(여,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서대신4동 수원경로당]

팔십 아홉인데, 자는데, 오데로 이리 거더라, 갔다 하대예. 이리 가는데, 갈 때는 모리고 이리 갔는데, 간께나 마 사람들이 마-이(많이) 있고,

"여 안중(아직) 올 때가 멀었는데, 와 왔느냐?"

쿠고 막, [청중: 그러더라 카대.]

"어서 가라."

하더랍니더.

"그라몬 내가 어떻게 어데로 가야 되냐?"

쿤께, 하얀 강아지로 요매난(요만한) 걸 한 개 주면서는,

"요오 강아지 따라가면 된다."

그라네. 지랫당구. 옛날에는 촌에 삼 하는 거 지랫대(겨릅대) 안 있습니까. 그거로 요리, 요리 인자 물 우에다 요리 놔줌서는, 요 강아지 따라가라 쿠더라. 오다가 마 지랫당구 거기 탁-

뿌질러진께, 탁 깬께. [청중 박수] 아주까지 살고 있어예.

[서구 설화 158]

죽었다 깨어난 이야기

김덕득(여,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서대신4동 수원경로당]

여 위에 저 할맨데, 우리 집 영감님이 아파 누우(누워) 계실 덕(적)에 할매가,

"아지매, 우리 아저씨가 세상을 베리거들랑 함부래(함부로) 우지 마라."

고 신신당부(申申當付)를 하더라고요.

"그래 와 그렇습니까?"

그러께네, 자기 오라버니가 인자 돌아가시가지고, 곽에다 옇어서 천개(天蓋, 관의 뚜껑)만 안 덮었제 놔놨는데, 살아나더라예. 아이구 깨남서는(깨어나면서는),

"아이구 시끄럽어라. 와 이리 시끄럽노? 닭도 짖고 개도 울어서 내가 시끄러워서 못 가고 왔다."

그러 쿠면서, 절-대로 돌아가시거든 울지 마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네.

[서구 설화 159]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김덕득(여,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서대신4동 수원경로당]

시어머니가 봉사라예. 봉산데, 인자 아들하고 서이(셋이) 살았는데, 아들이 저 먼데로 안자 돈 벌로 갔던 모냥이지. 그런데 시어매를 해줄 기 없어가지고 지렁이를 파가지고 만날 이래 삶아가 드린께, 그기 참 맛이 있었답니다. [청중: 맛도 있고, 보신도 되고 그래.]

맛이 있고 그래가지고 인자 시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오면 비야 되겠다."

카맨서 이래 싸가지고 자리 밑에 옇어놘 기라. 자리 밑에 옇어놨는데, 온께는 어마이(어머니)가 마 살이 찌가지고 복실복실하이 참 좋아예. [청중: 보신이 돼서 안 그라나.] 그래서 아들이, 오마이(어머니)가 꺼시이(지렁이) 그거로 들내서(들어내어서),

"야야, 이기 뭣인고 봐라. 메느리가 이 날로 해조서(해주어서) 맛있는 거 묵고 이래 내가 건강타."

"아이고 마 꺼시이다."

눈을 퍼떡 뜨더라예.

[서구 설화 160]

남의 묏자리에 묘를 써서 집안이 잘된 여씨

김덕득(여,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서대신4동 수원경로당]

내나 삼천포 거 노산(魯山)[75]이라 쿠는, [청중1: 거게(거기에) 노산 있다.] 노산. 노산에 거 참 못자리(묫자리)가 좋은 기 하나 있었어. [청중: 여산에 보몬 연못이 하나 있어.] 좋은 못자리가 있었는데, 거 누가 모(묘)를 썼나 쿠몬 그 사람들이 이씨든가? 그 사람들이 모로 썼는, 썼는데, 억시기(매우) 깊이 파고 인자 썼는데, 그 우에다 또 누가 또 모로 썼는 기라. [청중2: 그리 한다 하대.]

그래 여씨들이 그걸 알고, [청중2: 명산이몬 그래 한다.] 우에 모를 인자 파내고, 이래 뚜들께나 꿍꿍꿍꿍 소리가 나더라. 울려. 울려가지고 인자, 그 여씨들이 참 울리고 살았거든. 그래가지고 그 인자 모를 파서 내놓고, 그래 지금 같으몬 전화가 있고 한께, 전화가 없인께노 고마 그 뭘 써서 온 천지에다 이기 붙있는 갑다.

그래 놓으께 인자 뭐 최, 최씨들이 찾아왔더라 하대. 그래가지고 그 최씨들은 그 모를 파내고 못살, 살림이 갔고, 여씨들은 참 살림이 일었다.

[서구 설화 161]

75) 삼천포 노산(魯山)은 행정구역상 경남 사천시 서금동에 위치한 낮은 야산(25.3m)이다. 도로명은 경남 사천시 노산공원길에 있다. 현재는 노산은 노산공원(魯山公園)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정상에서 삼천포항을 비롯하여 한려수도가 내려다 보인다.

오늘 저녁엔 할머니 찾아가지 마라

김덕득(여,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서대신4동 수원경로당]

그래 참 할배가 할매 찾아서 이 손지(손자) 저 손지 넘어서 이리 찾아간께로, 손지가 하나 그라더란다.

"할배."

"와?"

"오늘 저녁은 할매 찾아가지 마라. 할배 불알이 내 목을 찔렀다." [일동 웃음]

할매 실치(?)가 이마이 이렇거든. 이래가지고 할매가 우스갯소리를 잘해. 아이구, 그때는 어- 할매 웃었는고 모린다(모른다) 마.

[서구 설화 162]

고기 잡아 장가가고 부자 된 총각

김순자(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서대신4동 수원경로당]

저 저 총각이 나이, 마-큼(모두) 옛날에는 장개(장가)를 못 갔대. 돈이 없어갖고. [청중: 맞아. 옛날에 그랬어.] 그래 인자 저거 엄마 저거 아배(아버지) 나이 많아. 많은께로,

"아이구, 우리 아들아 저래 장개를 몬(못) 띠서 우-짜꼬?"

우짜꼬 이래 쌌고(했고), 참 그래 쌌단다. 그래갖고 이 사램이 바닷가인데 가서 호밀라(?)[76] 쿤께, 고기 큰 마리, 큰 거 한 바리를 낚이면서,

"내 이름은 동녘군이요."

그래가 발발 떨고 죽더래. [조사자: 내 이름은 뭐?] 동녘군. 지 고기 이름이 동녘군이라고. [청중1: 그기 여석 그거 고기?] [청중2: 동녘 거기 무신 뜻인데, 형님?] 몰라. 그래 들어봐. 그래갖고 짊어지고 와가지고 가서 시장 가,

"동녘군 사소! 동녘군 사소."

76)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한께,

"무슨 고기가 동녘군이요?"

하면서 서로 살라 카는데, 비늘이 번뜩번뜩 마 고기가 크고 좋은께. 그래 돈을 마이(많이) 받고 팔아갖고 인자, 그 돈을 갖고 인자 보리쌀 좀 사고 쌀 쫌 사고 짐을 지고 온께, 저거 어매가 나이가 많아, 저거 아부지 집에 오이 앉아서 아칙(아침)도 점심도 먹고 앉았는데, 짐을 지고 오이께,

"아이고 야야, 니가 어데서 이렇게 무슨 돈을 이걸 했냐고?"

마 저거 재인 깜짝 놀래, 도둑질을 해갖고 이래 갖고 왔나 싶어가 마 놀래갖고, 아 그래갖고 이 사람이 차마, 저거 어매 저거 아부지가 마 좋기는 좋은데, '어디 나쁜 짓을 해서 사갖고 이랬나?' 저거 엄마 저거 아부지가 간이 하나도 없는 기라.

"아이구! 그런 일 하몬 안 된다."

한게,

"아부지, 절대 그런 기 아이라."

카거든. 이 곧이 안 들어요. 그 뒤는 한 열 시나 돼서 그 냇가에 가서 또 고기 낚군께(낚으니까), 또 큰 놈이 한 바리 낚이면서,

"내 이름은 질렀군이요."

[조사자: 질렀군?] 질렀군이라 카더라 캐. 그래서 그 까시(가시)를 빼서 주머치(주머니)에 옇고, 옛날에는 지갑이 없어 주머치가 지갑이라. 그래 동녘군 까시 하나 빼갖고 찔러군 까시하고 두 개 빼놨다 아이요? 그래가 인자 또 가서,

"찔러군 사라."

이래 싼께,

"아이고 어제도 고기로 이상하이 동녘군 사라 싸서 산께, 고기가 그래 좋디만은."

오늘도 근처에서 와서 우- 나오다가, 또 돈을 마이 주고 사가더란다. 돈 있는 사램이. 그래 또 돈을 저게 보리쌀, 쌀이 있은께, 기냥 돈을 갖고 와갖고 저거 어머이를 줬어.

"어무이, 원래 고기를 낚아 팔았더이 이렇게 돈을 마이 받았으니, 꽉 지니고 있다가 쌀, 보리쌀 떨어지몬 사 먹읍시다."

이런께,

"하이고 야야, 어데서 그런, 그런 고기가 있었더노? 아이고, 어데서 그런 기. 거 우리 용왕님이 돌보는 갑다."

인자 나만(나이 많은) 사람이 되논께 그래싸. 그라고 인자 또 삼일 채 또 인자 고길 낚우러(낚으러) 갔어. 간께로, 또 언자 어짤피리 누가 고기다 옇어놓고 있은께로, 노래하고, 노래 한 자리 부르고 이래 있은께로, 또 고기 쭈리쭈리 또 물어.

"나는 깔짝군이요!"

캄시러, [조사자: 깔짝군?] 응, 깔짝군 카더란다. 그래서 인자 참 지가 고기를 낚지만 이상하다고, '어찌 이리 크고 좋은 고기가 이름을 갈치주고 이라는가?' 싶어 인자, 그래 또 집에 와서 파인께, 또 돈을 마이 주더래.

그라고 인자 해갖고 또 인자 한 날 고기를 낚는데, 고 뒷날 또 가서 이래 바구니 인자 대바구니, 큰 바구니 딱 있이이 고기는 안 낚이고, 그 처다보고 일로 있은께, 어찌 어찌 큰애기가, 면을 요거 심어 필 제 인자, 전에 촌에 명을(목화를) 숨가가(심어서) 하야이(하얗게) 잎이 피는 그걸 딴다 아이가. [청중: 보따리에다 딴다.] 그래갖고 인자 시장치에 와가지고 점도록 밥을 사서 한 숟갈 묵고, 거서(거기서) 그걸 따더란다. [조사자: 명을.] 그래 명을 따고 나서 인자 솔 위에 홀 올라갈 거 아인가베. 그래 솔하고 가보이, 난주에(나중에) 총객(총각)이 장개도 몬 가고, 그 오줌 누는 데 처다본께, 오줌을 누던 포(표) ○○○○[청취 불능] [일동 웃음]

거따 갖다 까시를, 동녘군 가시를 폭 꽂고, 찔렀군 가시가 떡 꽂고, 깔짝군 까시를 딱 꽂고 이런께, 그 아가씨는 저거 집에 안 가는데, 아가씨는 저거 집이 앞이라고, 아가씨는 뒤에 가고 둘이서 이래 이고 가는데, 설 때는 동녘군 찔렀군 깔짝군, 동녘군 찔렀군 깔짝군 자꾸 이래싼게, 저거 올키(올케)가,

"아이고 애기씨, 어데서 무슨 소리가 그런 소리고?"

"아이고 새이야(형아) 이기 무슨 소린고 모르겠다. 사타구니서 자꾸 무슨 소리가 난다."

카더란다. 그래갖고는 아이 그래 인자 이 총객이 또 인자 그 동네에 가서, 산당에 가서 비잉 돌고 있인께, 나만(나이 많은) 영감들이,

"이 총객놈이 돈을 벌라고 어찌 그라고."

또 머라쿠더란다(나무라더란다). 그런께,

"아이고 젊은 놈이라도 돈 벌 데가 없어서 놀러 왔습니다. 잠깐 주소."

이카고 있인께, 그래 또 마을사람들이 불상타고 집집에서 길에서 먹을 것 좀 주고 그래 연명하고 있는데, 부잣집에 가서 막 저 아가씨가 인자 시집갈 때도 됐는데, 막 그 자다가 군소리 난다 쿠고, 아가씨가 울어쌌고, 방에 누워갖고 나오도 안 하고 밥도 안 묵고, 그래 저거 엄마는 마,

"아이고 뭣이야 이 묵고 낫으몬, 안 낫아지겠나? "

달개쌌고 이런데, 그 소문이 났어 인자. 이 사람 사흘간 누우있은께,

"아이고 아무 것이 신산댁이 그 딸, 예쁜 딸이 이상한 병이 들어갖고 저래 누우서 밥도 안 묵고 죽을라 칸다."

컨께,

"그런 병이 있으몬 내 당장 낫울 낀데."

그러 쿠제. 그래 있으께네, 그 집에서 소문난 게 귀에 들어갔어. 그런께 그 집에서 막 어사, 판산가 뭣이 그 사람인가 종을 보냈어. 가 모시고 오라고. 그래 모시고 왔는데, 모시고

나이까 이미 벌써 저거 집에서 인자 지집(계집) 종 태아갖고 쪼깨 갈아가지고장 끈 저거 만들어갖고 베개 갖고 인자 거기 갔어. 호주머이 옇어갖고 갔어. 그래 가갖고,

"얼른 깨끈(깨끗한) 수건 하나 빨아갖고 오라."

캤어. 그래갖고 뭐 그걸 따로 죽을 가오더니, 딸은 마 기절해서 뭣이 와서 보는가 그것도 몰라. 몇 날 몇 일 굶고 그래서. 그런께 인자,

"어쩔 끼고?"

침에 끌고 전부 닦아서 손을 닦고 그걸 쪼깨 발라주고,

"한 멫 시간, 내가 가고 나서 멫 시간 되몬 쪼깨 소리가 작아질 기요. 한 가지는 낫을라 할 기요."

이러 카고, 그런께 이 사람들이 돈을 한 뭉티기 주어갖고 보냈어.

"그래 언제 올 기요?"

해가,

"내가 한 이틀이나 삼일 있다가 온다."

고 이래쿠이, 이래 집에 눈 빠지게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기라. 그런데 아이 대체 그 사람이 가고난께, 동녘군, 동녁군 그 소리가 동녘군 찔렀군 깔짝군 하던 게 [작은 소리로] 동녘군, [큰 소리로 빠르게] 찔렀군 깔짝군, [작은 소리로] 동녘군, [큰 소리로 빠르게] 찔렀군 깔짝군 [일동 웃음] 그러는 기라. 아이고 조금 낫는 갑다. 저거 엄마 저거 아부지 마 참 낫을라 칸다고 막 좋아갖고 막 자꾸 인자 거기 종을 보냈어. 빨리 오라고.

그러케(그렇게 하니) 그 사람이 조깨 물 해가지고 또 갔어. 가가진께 밥을 마 엉망진창으로 채리서(차려서) 걸기 채리서, 막 장개 갈 사람카마 더 걸기 채리서 막 대접을 했어. 그래 묵고 그 치료해서 나서면서 정말 돈은 말대로 준다고. 그래 인자 자꾸 이 사람이 그 이튿날 인자 동녘군 까시를 찌처(쫓아) 들어가가지고 동녘군 까시를 빼버리고, 인자 치료해주고 왔어. 그래,

"내가 가고 난 멫 시간쯤 되면 이기 한 다리는 다 낫을 기요."

인자 그래 인자 까시, [청중: 까시는 한 번에 한 개씩 빼주는가베?] 한 번에 한 개씩 안 빼. 죽었나 싶어 빼 올리고, 세게 작게 만들고. [일동 웃음] [청중: 꾀가 많네.] 그래 그 까시가, 동녘 까시를 완전히 빼버렸어 인자. 한 닷새 대이면서(다니면서). 그런께 인자 저거 엄마 저거 아부지 좋아서 춤을 추고 인자 저거 딸 낫일(나을) 거라고 마. 이 이상을 막,

"돈을 얼매 원하냐?"

고 자꾸 그래싼게,

"아이구, 제가 낫아 봐야 알지, 아직은 제가 장담 못합니다."

이러 카고 인자, 있는데 막 왔다 카고 마 집에서는 최소 거처를 하고 마, 그래하고 밥을 대접을 잘하고, 저거 집에 돈을 갖다 짊어지고, 저거 엄마 저거 아부지,

"하이고 무슨 돈을 이렇기 가져 왔노?"

놀래 자빠지고, 만날 대번에 막 그 대문에 들어가면 집을 아랫집 지와집을(기와집을) 잘 짓는 기라. 돈이 있은께. 그래 짓고 인자 그런데, 그래 인자 두 번째, 인자 여섯 번째 가가지고는,

"저- 잘 안 낫겄네요. 좀 낫기가 힘들겠는데."

그랬어. 그래 장모, 쟁인이 마, 그 장모 될 사람이 쟁인 될 사람 막 죽는 기라.

"어쨀든 낫으만 돈은 얼마든지 줄 기라고."

그래논께로 또 쪼개 빼어주고 갔다 왔어. 찔렀군 깔짝군, [작고 큰 소리를 번갈아 하며] 찔렀군 깔짝군, 찔렀군 깔짝군 그러는 기라. 그런께 [청중: 소리 안자 조금씩 작아지네.] 그래갖고 인자 그래서 다 낫아가는데, 마지막 판에 가서 인자 사람의 간을 녹후는(녹이는) 거라. 머시마가.

인자 그 앞에 두 개는 마 한 두 번 그래가 빼버렸는데, 이거는 마 쪼깨 빼고, 쪼깨 빼고, 쪼깨 빼고 그라고 멫 날 멫 일을 질질 끄는 기라. 그래서 인자 그 집서 내 요번중에 다해 준다 카고, 다 부르는 대로 다해 준다 카고, 막 이래 싼께,

"마이 해주는 것도 필요 없고, 마 처녀만 날 주면 어떻겠냐고?" [일동 웃음]

그러고 인자 처녀 줄라몬 저거 재산을 마이 줘야 될 거 아이가. 저거 사우(사위) 삼을라 칸께. 이 총각도 인물도 참 좋은 기라. 그 돈이 없어 장개를 못 가고 그렇게 산께 그러고. 그라고는 마 그 저 들어간 돈 저거 집 아랫집 지와집을 삼칸, 지와집을 지어놓은께, 집이는 커단해(커다랗게 되어서) 얼매나 좋을 기고. 그래 저거 엄매 저거 아부지가 마 좋을 옷을 해 입히서 떡 앉혀 놓은께, 지금 영감하고 마 호불 아이가? 그런께 인자 사부인 마 선을 볼라고 인자, 저거 딸 인자 시집가려고 선을 볼라고 인자, 선을 보이 본께 저거카마 멫 배나 인물이 좋은 거야. 그 영감 할마이가. 그래 사우도 인물이 훤하제.

그래갖고는 인자 갤혼식(결혼식)을 시키갖고, 논을 막 주고 머슴 주고 안쪽 보내고 배깥쪽(바깥쪽) 보내고 그리 잘 살더라다.

그래 그 할매가 어째서 그렇게 그 아들이 잘됐나면, 산에 가서 아저씨는, 그 할아버지는 나무를 위해서 한 번 안 끊었단다. 산에 가서 똑 가지 검어 떼고 접가지 떼고. 그래 산신도 하고. 또 할매는 맨날 물을 그래 애낏다네(아꼈다네), 물을. 물을 그래 아끼논께 용왕님도 돌보고. 그래갖고 그래 부자가 되가 잘 살대. 물을 애끼모(아끼면) 용왕님이 돌보고, 산에 가서 나무를 애끼모, 나무를 뗄, 팍 치모 거기 죄가 많다고 그리 못하구로 하고. 그래 그렇다고 이야기로 해주대요. 나만 사람들이. 그런께 물을 애끼면 용왕님이 돌보고, 산에 가서 나무를 돌보고 [청중: 산신이 돌보고.] 그래 다 그리 살게 된다고. 그래 어른들이 그래 이야기를 해싸.

[조사자: 아까 고기 잡으몬, 고기 이름이 뭐라 그랬는교?] 동녁군, 찔러군, 깔짝군. [일동

웃음] 그런데 [조사보조 대학생들을 두고] 이 아가씨들이 있어서 내가 마이 몬 웃기고, 그래 그리 하고 마요.

[서구 설화 163]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순자(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서대신4동 수원경로당]

그 지게를, 저거 할아버지를 묶고 지게 탈탈 털어갖고 인자, 저 손지(손자)가 가지(가지고) 간께, 아바이가,

"야야 지게 내버리자. 태아버리고 없애자."

그런께,

"아부지 무슨 소리 합니까? 아부지도 세월 버리면, 할머니를 갖다가 이리 잊어야 될 것 아입니까."

그래갖고 그기 없어졌다 카더마는. 그래갖고 없어졌다 캐.

[서구 설화 164]

귀신에게 홀린 사람[도깨비가 되는 빗자루]

김순자(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서대신4동 수원경로당]

오소리[77]에 마 청포장사가 있었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술만 묵으몬 귀신한테 홀켜. 그래갖고 저-게 저 남산[78]이라 카는 동네 거기 가면, 한 오리쭘 가면 동네가 있는데, 그 산 밑이라.

77) 제보자는 경상남도 하동 출신이다. 이를 고려하면, 여기서 말하는 '오소리'는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남산리에 있는 오시릿마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시릿마을은 오소리가 살았다 하여 '오소리마을'이라고도 한다.

78) 여기서 말하는 '남산'은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남산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잔치에, 환갑잔치에 가갖고 늦게 왔어. 어데가 할만 하더래. 귀신한테 홀리가 밤새도록, 새벽에 들어왔는데, 옷을 탁- 해 입고 들어왔더래. 그래 장인으로 갖다가 너-무 괴롭히고 막 뚜디리(두들겨) 패싸서, 그놈을 잡아 그 묶었다고 캐. 그놈을. 그놈을 뚜디리 패는 사람을 묶우는데(묶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빗자리(빗자루) 몽댕이(몽당이)더란다.

[서구 설화 165]

가묘(假墓) 파내고 제를 지내 다시 살린 우물

김순자(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서대신4동 수원경로당]

우리 동네 거 가평[79]이라 쿠는 동네가 뺑- 요리 산[80]이 돌아가면서 있고, 가운데 또 요래 갖고 한 쪽에 좀 튀고(튀어) 이런데. 그 산이 명산이라 캐.

근데 거기다가 백정놈이 옛날에 숨도 크게 못 쉬었는데, 백정놈이 아들이 하나 가서 소랭이(소령이)[81] 됐다네. 그런께 우리 저 김씨, 그 동네에서 김씨들이 가몬, 저녁에,

"칼, 거 몇(몇) 근 도라."

고(달라고) 딱 반말하몬,

"예 드리지요."

그리 했는데, 저거 아들이 와서 소랭이 되고 난께, 무슨 소리냐 쿠고 말도 반말 안 받고, 그렇기 세력이 막 무섭더란라. 그런데 우리 가평 동네가 백여 호가 넘는데, 샘을 고거 하나 갖고 싹 빨래 씻고 뭐하고 다 묵고(먹고) 살아. 근데 그 빚을 마 면에까이 전세(전부?) 줄줄이 면에 가이 면에 참 막 잘 돼. 물이 그리(그렇게) 마이(많이) 나.

근데 여자들은 샘을 못 쳐요. 돌이 요리 반석이 있는데, 똑- 물 나오는 구덕이 돌꾸지(돌무더기) 겉은 데서 마 팡팡 솟은께, 남자들이 열 명 갖고 안 돼. 두 빠지(바가지) 한 번 뭉쳐갖고 사지(四地. 즉 네 군데 땅)를 마 큰 거를 갖다 박아갖고 양쪽에서 자꾸 퍼내야 한다고, 물이 굴은(줄어드는) 기라.

근데 그리 큰 샘인데, 아이 물이 고마 자꾸 말라서 저 동네에서도 물 이러 오는 기라. 물이 좋고, 겨울에는 따시고 여름에는 막 물이 맑았고 참 좋은 기라. 그런데 그 물이 서울에서 여꺼정(여기까지) 내러와도 그런 물은 안 봤다 카는데, 저 지리 보는 사람이 참 이 물이 좋다

79) 여기서 말하는 '가평'은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방화리에 있는 가평마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80) 가평마을을 감싸고 있는 뒷산은 '구곡산(해발 961m)'이다..
81) 소령 계급의 군인이.

쿠고. 맨날 그 한강수 같고. 저 엄밭 새암(샘) 가에는 또 한 강우라. 근데 아이 그 많은 물이, 철철 많은, 넘는 물이 바가지로 퍼 씨는(쓰는) 물이 바짝 샘이 말라. 말라들어 가.

그런께 여 동네서 가만히 있나? 전부 다 들고 일어나제. 산에 가서 점 밭들 틀려. 붙든께, 붙들고 새기 마 요래서 뗏장을 뜯어서 요래서 요래서 따악 요래서 갔다. 그럼 떼놓고 다부(도로) 갖다 입했는데(입혔는데), 일 년이 넘은께 뗏장이 안 뗀 데는 새카맣고, 떼서 갖다 붙인 데는 노른(노란) 기라요. 그래갖고 인자 그거를 알아본께로, 어느 백정 놈이 저거 할아비(할아버지)를 거기다 갖다 썼어. [청중: 아이구.] 그래갖고 안자 그걸 동네에서 다 들고일어난께, 저거가 암만 높은 자리에 있어도 몬(못) 이기는 기라.

그래갖고 인자 갱찰(경찰), 순경을 불러대갖고 그 메(뫼)를 인자 파내이 본께, 막,

"메 건들기만 건드리몬 막 누구든 다 쎄리 직인다."

고 막 그러디마는, 지랄 경찰들이 딱 짜갖고,

"파라."

했어, 아무 말을 못하는 기라. 그래 인자 파냈는데, 메도 안 씨고, 그 줄 서는 글자만 써서 산에 담아갖고 [청중: 글자만 써났지.] 그래서 여 딱 뽀시게 덮어서 갔다. 그기 메 씬(쓴) 긴 강(것과) 똑같단다. 이름이 들어가몬. 그래서 딱 해놓고 떼를 입히놨는데(입혀놓았는데), 그 물이 말라들어 가.

그래갖고는 [청중: 물줄기를 끈께는(끊으니까는) 물이 마르지.] 응. 그래서 고걸 파내버리고 동네에서 마 깨끗한 사람, 남자들 둘이 가서 장을 봐다가 마 쟁반을 세아면서 검구(금줄)를 해놓고, 산 나무가 전부 다 있는데, 산 만디(언덕) 싹 금줄 쳐놓고 아무도 몬 들이가도록 하고, 그래 놓고 산 거 샘에서도 제를 지내고, 그 산에 가서 또 제를 지내고. 아이 그러고 난께, 물이 살살 돌아 와. 내가(하천이) 싹 고대로 돌아왔어. 물이. 아이 팽생(평생)에 그런 꼴을 봤어.

[서구 설화 166]

제삿밥을 못 먹은 혼령

김순자(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서대신4동 수원경로당]

마 뻐들치고 오몬 그걸 팔라 카몬 그렇기 질(길)이 마이(많이) 그렇대. 산길로. 그래 오는데, 오다가 마 너무 춥고, 너무 춥고 마 배도 고프고 해서 인자 거 마 허리도 어깨도 아프고 해서 그 쉬있다네(쉬었다네),

쉬니께, 꿈을 꾸는데, 꿈을 꾸는데, 무슨 쎄- 카매,

"아이구! 우리 집에 오늘 내 생일인데, 내 제산데, 인자 묵으러 가자."

막 친구를 막 설득해갖고 가는데 마 바시락 여남은 것 간 것 같더래. 그래갖고 가디만 쪼깨 한참 한, 한 시간쭘 있은께, 막 욕을 해쌌고 오더란다. 그래서 아이 거 또 옆에 사람이, 그 멪이 하고 같이 몬(못) 가고, 뒤따라 간 사람들이,

"와 그리 욕을 해쌌고 그렇냐고? 난 지금 쌔가(혀가) 빠지 갈라고 애를 씨고 가는데. 와 그리 욕을 하고 오나?"

고 그러더란다. 그런께 앞에 가는 사람이, 그 임자가, 제사 임자가,

"아이고! 친구들을 그리 덱고(데리고) 오늘 한 잔 묵을라고 갔디마는(갔더니만), 구리이 큰- 거 삶아갖고 척 걸치놔서 기분이 상해서 마 가보도 안 하고 마 저 침을 탁 뱉고 마 욕을 얼매나 하고 왔다."

하더래. 그래 손, 그래갖고,

"손지가, 손지가 얼른 비서(보여서) 손지를 갖다가 가마솥에 어데 뜨끈 물에다가 처박아버리고 왔다."

칸다. 그리이 안자 소금장수가 그 뒤는 쌔가 빠지게, 그래서 그 동네를 찾아간께, 아를 물에 빠져 디있다고(데었다고) 난리를 났더란다. 그래서 인자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다 캐, 그 집에다가.

[서구 설화 167]

처녀가 아기를 배었다가 죽은 처녀바위

이영자(여, 1954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서대신4동 수원경로당]

어느 쪽에서 딱 보모는, 지금 그 바위 형태가 그렇게 안 나타나. 딱 베락(벼락) 맞고 뭐 우짜고 우짜고 뿌아지고(부서지고), 우째 우째 사람들이 하도 오르내리 싸이케네, 그 형태가 안 나타나는데, 요서(여기서) 딱 보몬 처녀바위[82]가 아를 딱 안고 있거든. [청중: 딱 고렇다.] 응. 딱 고거 고대로 고거 처녀가 아를 딱 그래 돼가. 요쪽에서 어더로 보고 되냐면, 군부대 쪽을 보몬 돼. [조사자: 응, 군부대 쪽으로.] 저쪽을 딱 보몬 형상이 처녀바위가 아를 딱 해가 형상이 있는데.

82) 구덕산 정상으로 가는 길에 처녀바위가 있다.

쪼맨할 때, 쪼맨할 때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 처녀가 저 아를 배갖고, 저 죽으러 올라가 갖고 죽었는데, 처녀바위 현상이다 이라면서 그라더라고.

[서구 설화 168]

아이들이 죽으면 묻었던 애장터

이영자(여, 1954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서대신4동 수원경로당]

거기 공원[83] 바로 밑에가 애장터다.[84] [조사자: 아, 애장터.] 저 거 애장턴데, 우리 오빠도 죽고 거 애장터에 거 묻힜고, 옛날 그 또 아들 놓으면, 집에서 다 대체로 애들 놓으몬 태를 다 거 갖다가 묻었다 아인교? [조사자: 그렇지. 그렇지.]

지금도 올라가몬 아마도 단지 쪼가리 정도는 있을 거요. [조사자: 옛날에 애장터다.] 단지를 갖다가 애 죽으면 단지 단지에 아를 옇어갖고(넣어가지고), 태를 갖다 묻었다 카대.

[서구 설화 169]

군인 총각이 외출해서 처음 느껴보는 기분

장지자(여, 1948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서대신4동 수원경로당]

그 군대는 뭐 그 외출하는 기 뭐 연애도 좀 하고 오고 그런 뭐 있다면서요? 그런데 인자 촌에 커갖고 인자 외출을 갔는데 뭐 사귈 만한 여자도 없고, 적당하이 갈 데도 없고 그렇더란다.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래 어데 보이께네 쪼깨 잔 술이나 팔고 마 아줌마가 그래 하더라네. 마 갈 데도 없고 거 들어가서 인자 술을 한 잔 받아놓고 인자 마 그 아줌마하고 이야기하고, 처이(처녀)도 어데 사귈 것도 없고 마. 그래 인자 집에 술을 꼴딱꼴딱 한 잔 묵고 그런데, 마 여자 거 있어도 처이도 아이고 아줌마인끼네,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래 있으께네, 아이 어느

83)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산과 엄광산 사이에 조성된 대신공원을 말한다.
84) 처녀바위로 가는 길 위쪽에 과거 애장터가 많았다고 한다.

정도 시간이 지난게 그마, 우리 그 동창생이 지금 부속고등학교 교장이건마는, 그 아줌마가 지 손을 끌고 들어가서 가슴에다 팍 주우옇어삐더라(집어넣어 버리더라) 캐. [일동 웃음]

지는 그때까지 여자를 그거로 몰랐는, 하나도 접촉을 안 해 봤는 기라. 거 마 발톱 열 개 하고 손톱 열 개가 싹 빠지뿌는 것 겉더라 안 카나. [일동 웃음] 좋아가지고. 여자 살에, 젖무덤에 지 손을 갖다 대있으니(대었으니) 얼마나 그래 남자가 그래 하겠노. [청중: 망칙도 하다.] 처음인 기라. 지 난생.

[서구 설화 170]

시집가서 잘하는 도둑질 그만둔 며느리

장지자(여, 1948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서대신4동 수원경로당]

시골에는 옛날에, 시골이 우리가 뭐 옛날에 참 어렵게(어렵게) 살았다 아입니꺼? 그런데 아들 장가로 들이야 되겠는데, 별로 살림도 없고, 뭐 좀 메느리(며느리)로 좀 뭐, 좀 마 좀 똑똑거나 머리 잘 돌아가몬, 요새 겉으모이(같으면) '유능한 메느리를 봐갖고 재산을 좀 이라야(일구어야) 되겄는데, 어떤 메느리로 보겠노?' 이래 고민을 하고 있는 차, 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웃 마을에 옛날에는 마 마을에 이우지 건네 마을이 있고 그렇다 아입니꺼? 그 마을에 처녀 하나가 [청중: 마을에 산다.] 도둑질로 참- 잘하는데 안 잡힌대.

[조사자: 뭘 잘하는데?] 도둑질을. 도둑질을 잘하는데, 뭐 하나가 없으지몬 심적으로 그 아가씨가 가져갔는데, 물증을 몬(못) 잡으니까, 마음은 있어도, 요새 겉으모 인자 연행을 몬 하는 기라.

그래 인자 이 시어머이가 인자 총각 엄마가 가마 생각허네, '저기 도둑질을 확실히 마이(많이) 하기는 하는데, 한 번도 안 잡히니까, 요새 겉으모 안 들키니까, 조거로(저것으로) 내가 메느리를 삼아갖고 도둑질로 좀 해가 오몬, 절대 안 걸리니까, 안 들키니까 좀 살림에 보탬이 될란갑다.' 싶어서 인자 연통(連通)을 옇어갖고 인자,

"혼인을 하자."

이래갖고 메느릴 삼았는데, 야가 시집 와가난 도둑질을 한 개도 안 해 오는 기라. 시어마이가 혹시나 뭐 훔치(훔쳐) 오까(올까) 싶어서 기다리는데, 집에 있는 기나 애끼(아껴) 묵고 마 뭔 짓을 안 하는 기라. 그래 인자 한 날은 메느리 보고, 그래 저 요새 겉으몬,

"이야기 좀 하자."

이래가지고 인자,

"그래 야야, 내가 들은 소문이 있어서, 니가 그런 거로 참 소리 없이 잘 한다 캐서 메느리로 삼았는데, 와 니 마 끄떡도 안 하고 와 이래 있노?"
카께네,
"어머이, 내가 마 오늘 저녁이라도 가몬 얼마든지 해가 올 긴데, 어머이가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래 쿠더라 카네. [청중: 처리가 문제지.] 야. 거 도둑질 하는 기 아이고 인자 처리가 문제라.
"아, 그래 내 처리하꺼마. 마 마 기회가 되거던 함(한 번) 해봐라."
쿤께 마, 옛날에는 마 갤혼식(결혼식)을 해가 신랑들 막 옷 해준다고 맹주(명주. 明紬), 맹주 그런 거 집에서 길쌈해가지고 이래 바르거든예. 물로 묻히갖고 [청중: 씻고 바르고 염색하고.] 담장에 그런 데 쭉- 널어예. 울타리에. 그 광목(廣木)[85]도 그라고 무명베도 그라고 마 이불도 꾸미고 한다고. 그래가 마 어데 사우(사위) 볼 직에 맹주 베 그거 새신랑 저 저 옷 해줄라고 마 울타리 널어놘 거로 마, 맹주 그거 꼬캐꼬캐(꼬깃꼬깃) 입으몬 얼마 안 되거든예. 요새 겉으몬, 그거 실크(silk)라. 그래 한 사시(四時, 4시)가 되는 거로 마 탁 갖다 주고 마,
"어머이 빨리 처리하소. 이거 날 새몬 난리난다."
카이께네, 막 이 시어마이가 그걸 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 오이다(어디에다) 감차야 될 긴가 몰라가지고 막 그래 마 날이 설(서서히) 샐라 하는 기라. 그래 가마이 메느리가 본께네, '아이갸 아이갸, 아무리 훔치가 조도(주어도) 우리 어머이는 처리 몬하겠다.' 싶어가, 가마이 보께 마, '날만 새몬 이거 탄로나겄다.' 싶어서,
"어머이 얼는 주이소."
쿠민서러 마, 그거로 마 물에다 징건(실컷, 듬뿍) 적시갖고(적셔가지고), 촌에는 솥이, 밥하는 솥이 다 쇠솥, 바닥에 탁 맹주로 깔아놓고 고마 탁 보리쌀 놓고, 그래가 밥을 물로 찰찰 흩치가(흩어서) 밥을 안치가(안쳐서) 불을 실실 떼뿠는 기라.
그래가 이 집에 안자 찾아, 찾으러 쳐들어오는 기라 안자. 의심을 하고. 아무리 디비도(뒤집어도) 안 나오는 거라. [조사자: 그렇지.] 거 밥솥 밑에 깔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던. [청중: 그기 큰 도둑이다.] 도둑질로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고, 잘할라몬(잘하려면) 처리도 잘해야 되고. [청중: 옛날에 우리도 들었다.]

[서구 설화 171]

일기를 잘 보다 시집간 후 일기를 못 보게 된 며느리

85) 무명실로 짠 넓은 천 조각.

장지자(여, 1948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서대신4동 수원경로당]

욕심 많은 할아버지가 메느리(며느리) 하나 봐야 되는데, 그 좀 똑똑하고 복 있는 그런 거 보고싶어갖고 인자, 스-설 인자 동네마다 스-슬 다니면서 인자, 좀 촌에는 이야기도 듣고 마 여론도 듣고 그래가 스-슬 다니는데, 아이 어데 우물가를 지나가니까,

"아이고 내일 틀림없이 비 온다."

이래 쌌더라 쿠네. 날이, 날이 참 좋아가 있는데.

그래 그 아저씨가 그래 지나가다가 그 말을 듣긴 들었어. 흘러들었어. 아, 진짜 날이 새고 나니까 비가 축축 오는 기라. '아! 저기 뭐 보네. 보는 걸 할 줄 아네.' 싶어가 메느리 삼을라고 마음을 뭈는(먹었는) 기라. 그래 또 연통(連通)을 옇어갖고 인자 메느리 삼았는데, 이기 뭐 '내일 비가 와갖고 뭐 아부지 논에 뭐가 덮어야 됩니더. 집에 뭐 덮어야 됩니더.' 이런 소리도 안 하고 비도 맞쵰고(맞히고) 이라는 기라. 그러니까 '새미(샘) 가 거서 하는 소리는 맞더마는 와 우리 집에 와서는 못 맞치노?' 싶어가지고 시아버지가 물어보니까 ,

"그 그래 니 와 그래 몬(못) 맞히노?"

카이께네,

"아이구 아버지, 우리가 살기가 어럽아가지고(어려워가지고) 소금, 그걸 푸대를 씻거가지고 내가 바지를 처녀 때는 그거로 갖고 옷, 옷 해 입을 천이 없어가지고, 소금자리(소금자루) 그걸로 갖고 바지로 해입었더만은, 그거 마 그마 얼라고 바지 꿉꿉해갖고 마 피부에 닿고 이란께 내가 알았는데, 시집가서는 그 바지를 안 입으니까 내가 모르겠다." [일동 웃음]

시골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있다.

[서구 설화 172]

함안 조씨(咸安 趙氏)가 양반인 유래

장지자(여, 1948년생) 구술
2020년 1월 9일 채록
[서대신4동 수원경로당]

우리 어머니가 저 어릴 때 보면은, 꼭 초, 그거 우리 시골서 그걸 초성을 지어가 읽었다 이라거든. 옛날에는 책이 습자지처럼 아주 얇게 해갖고, 그 뭐 이야기 언문이라 그러면은, [조사자: 그렇지.] [청중: 창호지가 억수로 좋다.] 한문을 그때나 마이(많이) 아는 사람이 알아

졌제, 한글은 그 처음에 배운 여자들이 그걸 배우몬 시골 갔는 갑더라고. 언문이라 이래갖고. 울 엄마는 그 이얘기책을 어머 [큰소리로] '어-짜고' 카고 누워서 이래 마 초성을 지어 읽어 싸.

그러고 그거를 안자 엄마가 읽어보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조가 성을 가진 사람이 인자 어느 규수하고 언자 혼사가 돼가지고 장가를 갔는데, 아 첫날 저녁에 신부가 고마 아를 쏙 하나 낳아뿐다. 그 아들이더래, 아들. 그래갖고 마, [청중: 아이구, 어짜겄노.] 향방(向方. 즉 방위를 보는 풍수)에 대한 이야기라 이거 뒤에는.

그래 인자 아이 새신랑이 기가 안 차는 기라. '와 그랬나?' 싶어서 인자 고민을 하다가, '일단 내가 이거 이 사람하고 결혼 안 살고, 아 안 하겠다 카고 떠나몬 둘이를 직이겄는(죽이겠는) 기라. 태어난 애기도 직이고, 신부도 직이고.' 옛날에 가문에 그런 일 일어나몬 생매장을 해야 되고 이런 시절인 거라. 그래 인자 '내가 이 아까운 생명 둘이를 죽이면 안 되겠는데' 탁- 자기가 고심을 하고 인자, 이 두 생명을 우사로(남우세를) 안 시키고 어떤 식으로 살리야 되겠노?' 생각하고, 탁 떠올랐어 인자.

고마 마 새신랑이,

"아이고 배가 아파 죽겠다고. 배가 아프다."

고 마 새신랑이 마 첫날밤에 구불랐는 기라. 고함을 지르고 배가 아파 죽겄다고. 그래가 집안 사람들이 마 잔치한다고 마이 모이가 있다 마, 뭐 놀래가 뛰어 들오는 기라.

"와 그렇는고? 와 그렇는고? 갑자기 와 그렇노? 뭐 음식을 잘못 무서(먹어서) 그렇나."

막 인자 걱정을 해싼께네,

"아이고 제가 이기 처음이 아닙니더. 장개(장가)오기 전에도 집에서 클 때도 하문씩(한 번씩) 자다가 배가 아픈데, 이럴 때는 저저 미역국을 낋이주몬(끓여주면) 내 배가 사알 낫습니다." [일동 웃음]

그랬는 기라. 그러이께네 막 인자, 아이구 막 또 저 미역국을 주선을 해가 마 끓이가 들라주는 기라. 그런께 인자 참 미역국을 고걸 묵더마는 방에 마 조용한 기라. 그래 인자 새신랑이 [청중: 신부를 믹있지(먹였지).] 아, 이 새신랑이 국은 거 신부로 믹이고 다부(도로) 거 눕히놓고, 아(아기) 그거로 인자 자기가 쌈을 갈라가지고 인자, 막 그거 옷도 없고 그란께네 마, 말끔하이 걸레 겉은 데 이래저래 싸가지고 탁 이불 밑에 묻어놓고. 인자 장가를 가면서는 옛날에는 그 뭐꼬, 무슨 종이라 카나? 한 사람씩 덕고(데리고) 가는 갑대. [청중: 하인, 하인.] 하인. 저 총각을 보고, 날이 훤하이 샐라 칼 때 아로 하인을 주면서,

"저 내가 산책을 저리 나갈 긴께네, 거 부러 오다 본까네 다리 하나 안 있더나? 그 다리 밑에 애기가 안 얼어죽고로."

매양 싸갖고 주면서,

"거따(거기다) 갖다 놔라. 몇(몇) 시쭘에."

요새 겉으몬.

“그럼 내가 그때 산책을, 바람 쇠러 가꺼마.”

이래갖고 짜고 인자, 종을 보고 인자 아를 거 갖다 놓으라 캤어. 그래 인자 참 인자 가는, 바람 쉬러(쇠러) 가는 칙(척)하고 간께네, 그 애가 하나 새가 앵앵 울어쌌거든. 그래 안고 와 갖고, 이 새신랑이,

“아이고 저 바람 쉬러 나간께네, 누가 애기를 하나 몬 키우겠는가 그래 저 암아다(안아다) 놨는데, 내가 신행을 차러(차려) 가민서 애를 덕고 가서, 내가 고마 내 자식처럼 키울랍니다.”

그래 인자 처갓집에 인자 동의를 얻어갖고 언자 신행을 차리가 자기 집에 돌아갔어. 가서도 마 자기 마누라보고도, ‘마 왜 니가 그런 짓을 했노? 이 애기는 누 애기고?’ 그런 거 따지지도 안 하고, 고마 딱 말없이 그 애기를 십칠 세까지 키우도록 말 안 하고 잘 키았는(키웠는) 기라. 그래 인자 이 마누라가 언자 그 남편하고도 사이에 자식이 태이낫는데, 아무 구별 없이 인자 남편이 대해주니까, [청중: 똑 같이 키운다.] 그 아가 십칠 세 되던 해에 언자 그 엄마가 너무 양심이 가책이 되는 기라. 남편이 너무 그라니까. 그 남편 몰래 그 애한테다가 알맀어.

“그래 엄마가 그때 그래가지고 참 니하고 내하고 죽을 목숨인데, 너거 아부지가 요만코 요만코 해가 니로 살맀은케네, 니는 결혼해가 살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부터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라.”

거 요새 겉으몬 대학을 간 것 같으몬, 과목을 무슨 과목 무슨 과목 있듯이.

“니는 못자리(묫자리) 보고 잘 보고 하는 그런 걸, [조사자: 풍수.] 아, 풍수지리. 그걸 가서 절에 가서 공부를 해갖고, 아부지 거 니가 그거로 갚아라. 갚아라.”

그런께 인자 아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죽은 목숨인데 아부지 땜에(때문에) 살았으니까, 내가 또 아부지한테 그 품을 갚아야 되겠다.’ 싶어갖고 인자, 절에 가서 공부를 마이 해갖고 인자 세월이 되기(매우, 한참) 지내갖고 인자, 이 저거 아부지 죽었는가 싶어서 언자, 그거 옛날에는 스님이 똑딱똑딱 뚜디리고 시주하는, [조사자: 시주하러 그렇지.] 뭘 울러매고, 바가치(바가지) 한 개 들고 시주하러 간다고. 그래 말은 몬(못)하고 떡 붓고, 바가치에 받아가 그래 하더라고. 그래 인자 시주하러 오는 척 하고, 그 사람 저 아부지 죽었는가 그 소문 들으러 내러오는 기라. 멫(몇) 번을 왔다 갔다 해도 죽었다 소리 안 하더마는, 아이 한 문(번)은 참 시주를 내러온께, 그 집에 초상 친다고 난리가 났더라 캐. [청중: 자기 키운 아부지가?] 하모. 그래 인자 가서 똑똑 뚜드린께 인자 잔칫집에 시주를 쪼깬 바가치다 부어주거든. 쌀 같은 걸 뜨가 와갖고.

“아이고, 그래 저저 내가 이 집에 딱 시주를 하러 들어서서 본께네, 이 죽은 혼령을 잘 모시몬 이 가문이 손손, 자자손손이 이거 영광을 누리고 요새 겉으몬 출세를 하고 살겄는데. 제 눈에는 보이는데, 그거 뭐 일개 제 중이, 중의 뜻을 따라 줄 수도 없는 기고. 이 안타깝지만 제 말을 안 들어주몬 마, 저는 시주만 해가 갈랍니다.”

인자 그러쿤께네, 어- 자자손손 자기 말로 들으몬, 그래 부자로 살겄다 쿠고, 출세하겄다 카고 마, 옛날에는 베슬(벼슬). 그런께,

"아이 그라몬 이 안을 들어오시라."

고. 저 인자 집안에 어른들 안 있는가베,

"어른들하고 상의를 함번 해보시고 가시라."

고, 인자 사랑방에다 안자 모시드린께네, 그래 인자,

"제가 안자 거서, 절에서 풍수지리로 배았는데, 이 가문에 내가 탁 들어서니께 그런 정기가 느껴지는데, 이 어른을 아무 데라도 묻어서는 안 된다. 고래 좋은 자리에 묻으면 틀림없이 이 집안에 마 자자손손 마 거 번창하고 출세한다. 요새 겉으몬. 옛날에 뭐 영의정, 우의정 그런 것도 한다. 이런 가문이다."

그 어른들이 인자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보더만은,

"그럼 이 말을 듣자."

안자 결론이 났는 기라.

"그래 그라몬 우리가 스님 말을 듣겠다."

자리를 자기가 다 봐줄거마 하는 거라, 스님이.

"그럼 내 말로 듣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섬이다. 이 돌아가신 분을 묻을 데가 섬이다. 내 돌아다니면서 지리 풍수를 봐놓은 데가 한 군데 있는데, 섬인데 배를 두 대를 구입을 해라. 근데 제일 앞에 배에는 내하고 시체만, 관만 태워라. 거 언자, 거 인자 친척들은 [청중: 뒤에 타라.] 그 뭐이라고 상두꾼이라 쿠나? [조사자: 상두꾼.] 그런 분들은 뒷배에 타고 오이라. 그래 그래 해줄라나?"

한께,

"그래 하겄다."

쿠는 기라. 그래 명산에 묻어주꺼마 카인께네.

그래 인자 딱 인자 채비해가지고 인자 앞에 배에 관 실고(싣고) 스님 태우고, 고 인자 막 사촌들 오촌들 이런 친척들 뒷배에 타고 가는데, 한-참 차차차차 뒤에 따라갔는데, 어디 한 시점에 가니까 그 앞에 배가 속력을 내가 엄청 가뿌는 거라. 친척들 잊어버렸어 배를. 어디다 썼는고 그걸 모르는 기라. [청중: 저거 아부지 인자 봉하는 기다.] 어. 아부지 봉한다고.

그래 가는데 옛날에는 맹산(명산)은 인자 예를 들어서, 저리 맹산에 썼시몬 표가 나몬 이걸 파버리고 또 행님이 와서 여서 쓴단다. 그래 한다 캐. [조사자: 그래, 아무도 모르게 할라고.] 모르게. 그런께 이 사람도, 스님 그걸 알고 딱 이 뭐 헌 이불로 갖다 놓고, 또 여 떼를 이마쿰(이만큼) 뜨가 여어 딱 갖다 놓고, 또 이마쿰 떠가 똑 갖다 놓고, 인자 퍼즐 맞추듯기(맞추듯이). [청중: 그리 하더라.] 거따다가 관을 옇어뿌고, 이걸 거다 흙을 갖다 탁탁 이래 묻어가 딱딱 밟아뿌몬 모른다네. 이걸 몬(못) 파내도록 인자. [청중: 그리 모르는데 인자 이런 집에

풀 쇠러 갔다 잎에, 풀이 좀 노롬하더라고(노랗더라고). 우리 동네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갖고 인자 아 그라고 난께 고마 마 아! 과거시험에 또 누가 합격을 하고, 또 마 밑에 간께 또 과거시험에 합격하고 마,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너무 마이 태이나고.

그래서 지금도 함안(咸安) 뭐 조씨(趙氏) 성에 시집을 가면, 조씨 성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 말이나 소나 어디에서 태어나도 양반이다. 조상이 그런 양반. [조사자: 그런 양반. 어허.] 그래서 조씨 성이 양반이다 쿠는 유래가 흘러왔다고 우리 친정어무이가 얘기 하더라고.

[서구 설화 173]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김필안(여, 1931년생) 구술
2020년 1월 10일 채록
[서대신4동 한마음경로당]

옛날에 선비가 장가를 간다. 만날 글공부한다고. 가정은 안 돌보이, 여자가 혼자서 남자 수단을 몬(못) 묵고 살겠거든요. 몬 묵고 살아가지고 그래가 뭐 피로 훑고, 피로 훑어가 농사를 몬 지이께, 논에 가 피로 훑어가지고 미음 있다가 믹인다. 그라고서 또 가가 널어논, 덕시기(덕석) 널어놓으몬, 덕시기 널어놓으몬, 비가 오면 남자가 그래도 공부로 해도 그거 걷아(걷어) 들루도(들여놓지도) 안 하고, 비가 와가 다 떠내려가 얼마나 여자가 보굴나겠는교(골. 즉 화가 나겠는교)? 보굴이 나가지고 고마 가뿠는 기라.

"에이고! 내 모르겠다."

가뿠다. 가가지고 인자 그래가 얼매로 있다가 이 남자가 안자 우째 해도 공부를 해가, 과게(과거)를 해가 떡- 내러오이꺼네, 이래 말로 턱턱 타고 내러오이꺼네 자기 여자가 내가 쟁피(강피)를 훑고 있거든. 그래 인자,

"영천아 너른(넓은) 들에 쟁피 훑는 저 마누라, 날 마다고 가더마는 훑던 쟁피 다시 훑나? 그아 그거 쟁피 훑고 있었으몬, 내캉 살몬 될 낀데, 그거를 몬(못) 참아 갔나? 훑던 쟁피 훑나? 다시 훑나?"

카고 내러보이, 여자 훌떡 들어보이께 자기 남편이 참 과게로 해가, 어사가 돼가 내러, 얼매나 섧겠는교? 그래도,

"뭘 말죽도 긿이주고 소죽도 낋이줄 낀께네 당신 따라, 어사님 따라 가겠다."

카이께,

"굽 높은 나막신 줄 테이깐, 이거 주고, 굽 잘도 따라 오소."

카면서, 그래 굽 높은 머 신어 보이, 말 타고 가니 뭐 따라갈 수 있나,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거빼이 몰라. [조사자: 그래 못 따라가, 따라다가 마 죽어뿠겠다.] 옛날에 상게(조금) 즀겠지 뭐.

[서구 설화 174]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1)

김필안(여, 1931년생) 구술
2020년 1월 10일 채록
[서대신4동 한마음경로당]

고래장(고려장)이 있었다 카대. 그래도 거 칠십만 되몬 와 고래장 하는데, 그 손자가 그거 보고, 그래 인자 살-살 뒤따라, 뒤따라 할배로 갖다 산에 묻거든.

묻어놓고, 거다 폭폭하이 묻어놓고, 그거 저거 아부지가 가보이깐 없거든. [갑자기 생각나서] 아, 그래 지게를 가 오는데, 아버지가 지게를 애삐리고(내버리고) 오이께, 지게로 가가주 돌돌 끌어가 오거든.

"이놈 자식! 지게를 말라(뭐하러) 가(가져) 오노?"

한께,

"놔둤다가(놓아두었다가) 지게 이것도 아버지 죽으몬 지고 갈라 그런다."

카이, 마아 아부지 덱고(데리고) 왔더라 안 카나. 그런 말이 있대요.

[조사자: 응 그래가 고래장이 없어졌는가?] 예, 고래장이 그래가 없어졌대.

[서구 설화 175]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2)

김필안(여, 1931년생) 구술
2020년 1월 10일 채록
[서대신4동 한마음경로당]

옛날에 마 왕 때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진짠가 어떤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나라에서 옛날에는 중국에서러 사신이 왔던갑던데. [조사자: 사신이 왔네.] 예. 사신이 와서 댕기가지고 뭐꼬?

아이구 말하는, 아 안자 와가지고, 거 뭐라 캤노? 저 새끼로, 저가 뭐꼬? 꼬아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 아아, 아이다. 저 나무로 토막을 내가 와가지고, 큰 토막을 태아가(태워서), 중국 소원에,

"이기 [조사자: 어던게 위고?] 이기 아랜가, 그래 알아 보내라."

이라이께네, 아이구 나무 큰 토막을, 큰 거는 이래 찌이놓으몬(쪄놓으면) 모르거든. 아래 우를 모르거던요. 그래 나라에서 큰일이거든. 그거를 못 해가, 사신이 하니까.

그래서 인자 걱정을 하다 걱정을 하다, 안자 하는 수 없이 안자 충신이 아부지를 갖다가, 옛날에 고래장(고려장) 하라 캤는 기라. 집에다 숨키놨던(숨겨두었던) 모양이지. [조사자: 마리(마루) 밑에?] 아이. [조사자: 집에 몰래?] 몰래 백장(벽장)을 맨들어가 숨키놓고, 그래 인자 갔다.

"아부지 갔다 왔습니다."

카이,

"오늘 가이까 나라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

이러 카거든. 그래 인자 나라에서 세상에 마, 그거 오새(요새) 겉으몬 마, 그걸 돌리몬 뭐라 캅니꺼? 뭐라 카이 말이 안 한다. 마 돌리는 거지. 아이 그래 오새 겉으모 온 데 그 통보로 해도 모르닌(모르는) 기. 대신들 불러놓고,

"전부 다 이기 알로가 어는 기고 알어?"

카이, 아무도 모리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 오늘은 어떻더노 야야?"

카이께,

"그래 아부지, 오늘은 나라에서 큰 일이 생겼습니다."

카거든.

"그래 우째 일이 생겼노?"

카이, 그래,

"대국서러 저 나무를 한 토막을 가아가(가져와서) 알로 우로 하튼 알아내라 카이꺼네, 어느 거 운지(위인지) 몰라서 그러, 그렇다."

이러 카이까,

"아이고 그거를 모리는가?"

"그 우짜면 좋으까?"

"나무를 물에 띄아(띄워) 봐라. 물에 띄아만 암만(아무리) 캐도(해도) 뿌리 쪽은, [조사자: 밑에로 가고.] 우쪽에는 좀 뜬다. 지몬 쪽이 뿌리다."

이래가 준다. 그래 와가 인자, 아들이 와가 그래 임금잔테,

"지가 그래 될랑가 안 될랑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래 말을 해봐라."

그래 카이, 그래 인자,

"이렇고 저렇고, 너거 나무가 이래 이래 해야 된다."

카이, 참 뭐 나무를 갖다 못에 띄아 보이께네요, 참 한 쪽은 까라앉고 한 쪽은 들거든. 그래 인자 거다가 이거 아래 우로, 그거 사신 해가지고, 암 메모로 해가지고 중국에 보냈거든. 보냈고,

"하-! 조선에도 옛날에 그런 기 있구나. 이인(義人)이 있구나. 아주 머리 좋은 사람 있구나."

이래가저, 그래 우리나라로 갖다, 거 안주 재인(才人) 있다 이래 칭찬을 해가, 그 좋은 그거 통보를 보냈는 기라. 그래 인자 임금이 이래 대신을 불러가지고,

"우째서 니가 알아냈노?"

이란다. 그래,

"아이고, 죽을죄로 지았습니다. 죽여주옵소서."

"그래 뭐고 말로 해봐라."

그래,

"지가 아부지가 계싰는데, 첨 마 찾아가, 아 그거 [조사자: 고래장을.] 고래장 몬 하고, 우리 집에 아부지를 그 우에 숨키 놨다가,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여쭸더마는, 아부지가 그래 하더라."

카이,

"그래- 그래이까 그때부터 니는 노로 서라. 아, 나가 많은 사람, 사람은 나만 사람 서 있는데, 니는 노로 서라."

고 그때부터는 [조사자: 고래장이 없어졌는가?] 예. 칠십 그거 마, 에- 칠십에 고래장이 없어졌답니다.

[서구 설화 176]

구두쇠 시어머니와 며느리

김성이(여, 1957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아미동19번지 사랑방]

시어머니가 쪼매 내주면, 며느리가 이 밥 가지고는 보고, 쌀 내준께 보고,
"아이고, 내 밥은 없겠네."
눈물을 흘려주고, 우물가에 우물을 푸러 가갖고 우물 떠가 와가 밥을 안칠라고 보니께, 자기 밥이 없겠다. '에라, 모르겠다.' 밥 해놔놓고 내가 먼저 먹고 쪼매만 퍼주는 기라.
그래 내가 먼저 묵으니까, 밥을 먹었다 이이가. 그러니까 시어마이가 몬 얻어먹지. 시아버지 하고 신랑하고 밥 먹고 시어마이는 굶는 거야.

[서구 설화 177]

호랑이보다 무서운 곶감

박명석(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아미동 19번지 사랑방]

애기가 하도 울어쌌어,
"꽂감 주까? 뭐 주까?"
뭐 준다 해도 울음을 안 그쳐. 그래서러,
"호랭이 온다."
해도 안 그치고, 뭐를 준다 해도 안 그치고 해서러 그래,
"꽂감 줄까?"
하이, 덜꺽 그치더라고.

[서구 설화 178]

욕쟁이 며느리

박명석(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아미동 19번지 사랑방]

메느리(며느리가) 참 욕쟁이 메느리라. 욕을 몬 해고 시집왔다고. 참 하리는(하루는) 김장을 하는데 이 시어머니가 그래도 메느리 거든는다고 자꾸,
"어머이, 들어가이소. 들어가이소."

카이까네, 안 들어가고 자꾸 거든는다고 있으니께네, 이 메느리가 욕은 몬 하고 자꾸,
"어머이, 들어가이소. 어머이, 들어가이소."
하니까,
"야야, 내 여 좀 거들아주고 가꾸마."
이래 하는데, 마 벌벌 떠는 거 보이께네 안타까워서러, 마 메느리가 욕을 하나 하는데,
"씨발년, 드가라 카이." [일동 웃음]

[서구 설화 179]

며느리의 꿈 해몽

박명석(여, 1934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아미동 19번지 사랑방]

저, 그 집에도 양반 집안인데, 시아바씨가 꿈을 꾸면 그거 해석을 잘 해. 오만데 이래. 그라면 해석가라고 불렸어. 불려가지고 그 할배가 잘 했는데, 할배가 마 죽어삤어, 그래논께 인자 해석 하러 오는 사람, 과게(과거) 가고 이런 사람들은 오고하는데,
"다시 그거 해줄 사람이 있냐?"
카이, 며느리가 가만히 보니께네 지가 꾀를 부리야 되겠다 싶어서는,
"누가 병 조디(주둥이)가 깨졌는데, [일동 웃음] 병 조디가 깨졌는데, 과게는 가야되겠고 이거를 어째야 되겠냐?"
고, 인자 와서러, 꿈을 꾸고 인자 해석하러 온 사람이 그래싸이께네, 메느리가 가마이(가만히) 듣더만은,
"내가 우리 시아바씨졑에서 배왔는데, 가마이 본께네 깨졌다고 나쁜 기 아이고. 고기 탁 깨지고 나이께네, 과게 운이 틔이가지고 과게 걸리더라고."
이래 카이까네, 그 사람은 과게 가서 걸리가지고 그런 거 있고.

[서구 설화 180]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송필순(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아미동 19번지 사랑방]

옛날에 신랑은 어데 가고 없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는데, 그래 너무너무 해줄 기 없는 기라. 그래갖고는 마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고기 먹고 싶어 하고, 병은 들어가고 막 골아서 죽게 생겼어.

그래 며느리가 어데 가서 마, 지렁이를 막- 줏어 와가지고 그 놈을 싹- 씻어가지고 인자 모르게, 지렁이 아인(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줬더니만은, 맛있다고 그렇게 잘 먹고 난중에는 뽀-해갖고 병이 낫았다 하는 이야기라.

[서구 설화 181]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송필순(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아미동 19번지 사랑방]

그것도 그래, 저게 저 뭣고?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가 죽었는데 초상을 치루면은, 고려장 하면은 지게 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래 가가지고 지게를 인자 내삐리고, 내삐리고 돌아서서 오는데, 그래 아들이 지게를 줏어 가면서러 그래,

"놔뒀다가 다음에 지도 저거 아버지 죽으면 해야 된다."

고, 인자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래 지게를 내삐리고 오니까,

"나도 아버지가 죽으면은 그 지게를 지고 가야 된다."

고, 지게를 도로 줏어 왔다 안 카나. 지게를.

[서구 설화 182]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송필순(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아미동 19번지 사랑방]

종을 만드니까 종이 잘 울리지 않고, 그래 자꾸 종소리가 뭐 어데까지 안 울리가고 갈라지고 갈라지고 해가지고, 그래 어느 스님이 인자 쇠를 끓이는데 애기를 하나 그 쇳물에다 넣어 가지고 그래 한께 종이 잘 만들어졌다고.

그래갖고 이래 종을 치면은 그 엄마 때민에(때문에) 그래 됐다고,

"에밀레."

엄마 땜에,

"에밀레, 에밀레."

그랬단다.

[서구 설화 183]

아이를 죽여 부모를 살린 효자[산삼동자]

송필순(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아미동 19번지 사랑방]

그 이야기는 저게 뭣고, 시아버지가 아팠다하더나? 어른들이 아팠는데, 그래 그 아를 어떻게 어른들 살릴려고 솥에 팍 넣고 고았는데, 고우고 본께 아가 아이고 마 동삼이. 아는 어데 가고 없고 동삼이라 그기. 그래갖고 시아버지가 낫았다고 말도 들었어.

[서구 설화 184]

며느리 말을 욕으로 들은 시아버지

송필순(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아미동 19번지 사랑방]

옛날에는 농사를 하면은 마, 방앗간에 가 찧도 안 하고 마, 그냥 만날 도구통에다 이레 이레 가지고, 체에다 이리 까불고 마 이래갖고 밥을 해 먹었는데, 그래 인자 시아버지가 담배 물고 대청마루에서 이래 보이까네, 메느리가 마 쎄가 빠지게 마 이래 쌌거든.

이래 싸이께네, 뭣이 펄펄 날아가는 기, 노란 기 자꾸 날라가는 기라.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시아버지가,

"야야, 그거 펄펄 나는 기 뭣고?"

이러는 기라. 그러이께,

"아이고 아버님, 조 껍데기 아입니까?" [일동 웃음]

조 껍데기라.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거를 욕으로 들었는 기라. 그래가 성이 났어. 시아버니가 그래가,

"뭐 조 껍데기? 니는 씹 껍데기 아이가."

[서구 설화 185]

개로 환생한 어머니를 세상구경 시킨 아들

송필순(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아미동 19번지 사랑방]

저기 엄마가 아들로 키우면서로 너무 몬 사는데, 어쨌든가 아들은 쌀밥만 주는 거야. 그라고 자기는 찌꺼래기(찌꺼기) 먹고. 누룽지 먹고. 맨날 그리 개같이 살았어. 인자 아들만 그래 해주고. 그래가지고 부모가 죽었는데, 죽었는데 저승에 가니까, 저승에 가니까, 저승에서 하는 소리가 높은 사람이,

"니는 이승에 살면서 평생을 개맨치로(개처럼) 살았으니까 개로 태어가라."

개로 태 내보냈는 기, 그 개가 어디로 갔나 하면,? 아들 집에. 아들이 인자 갖다 키우게 됐는 기라. 뭣도 모르고 사가 온 개가. 그 아들한테 가가지고 컸는데, 그래 그 개가 만날 그래. 부뚜막에 올라오면 뭐 주워 먹고, 주워 먹고 이래 싸서로. 그래, 뭐 어째 됐다더라?

그래가지고는 어째 그 아들이 뭔가를 물어보니께네, 그래 엄마가 개로 태어났다. 이래놓은께네 그러면 '저 개가 우리 엄만갑다 싶다. 엄마가 태어나 우리 집으로 왔는갑다.' 싶어갖고, 이거 하나 짜가지고 여 여넣고 천-지로 구경 시켜준다고 다 댕깄다 캐. 저거 엄마 좋은 데 가라고.

[조사자: 그라면 그래 갑니까?] 그래갖고 저거 엄마는 그래가지고 개로 태어나도 죽어서 저승으로 좋은 데로 가고, 아들은 인자 효자 그리 핸 기지. [조사자: 너무 놀러 안 다니고 해도 안 된다대에.] 안 돼.

[서구 설화 186]

고양이를 쪄 도둑 잡는 양반

송필순(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아미동 19번지 사랑방]

옛날에 내 어릴 때, 김해 살 때 그때는 어짜노 카면, 할매들이 뭘 잊어뻐리는 기라. 제일 잊아뿌는 거는 뭘 잊어뿌냐면, 딸 시집 보낼려면 언제부터 하나 해가 옇어놓고, 하나 해가 옇어놓고, 그거로 인자 딸 시집보낼라고 딱 해놨는데, 도둑놈이 가져가 버렸는 기라.

그래놓은께 그 엄마가 인자 장대다가 고양이를 달아가지고, 묶아가지고 대문에다가 해질 때 묶아놓고, 솥에다가, 가마솥에다가 이런 엉거리[86] 딱 놔놓고 물을 펄펄 끓이는 기라. 그래, 동네 싹 한 바퀴 돌면서로,

"갖다놔라이. 응? 내가 누가 가져갔는지 안다. 응? 이름도 알고 성도 안다이. 오늘 저녁에 여 담벼락 밑에 안 갖다옇으면, 내가 여 고양이 내려가지고 솥에 찌가지고 양밥 한다."

고,

"솥뚜껑 탁 넣으면 고양이 너거 집 가서 물어뜯고 한다."

고. 탁 그래갖고 외고, 마 열 시나 돼서러 외는 기라. 외가 집에 돌아가지고, 촌에 가면 이런 문에다 어떤 집으는, 우리 집도 그랬지만은 유리 요만치 붙여놨어. 누가 오는가 내다보는 거. 그래 다 불 끄고, 호롱불 끄고 이래 가 있으니께네, 뭣이 보따리 하얀 걸, 쉴쉴 오더니만은 담벼락에 탁 놔두고 가더라는 기라.

그래가지고 나가이까 딱 갖다 놨다 이기라. 그래 마 갖다 놓을 때 탁 도둑놈은 안 잡고, 마 갖다 놓길래 마 보따리만 찾아가지고 그래가 찾았다 카이께네.

[서구 설화 187]

도깨비에 홀려 죽은 사람

송필순(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아미동 19번지 사랑방]

그것도 저거는 여게가 옛날에 뭐였냐면은 일본 사람들 공동묘지고, 전신에 비석이고 막 이런 거라. 그런데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인자 몬 살으니께 공동묘지로 올라왔는 거라. 갈 때가 없고.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께네 일본 사람 뫼는(묘는) 딱 이래 집맨치로(집처럼) 칸을 이리 해놨어. 이래 해가 이런께네 비석 밀어뻐고, 고마 비석 밀어뻐고 요래 요래 가지고 우선에

86) '엉거리'는 '잉걸'의 방언으로 불이 이글이글하게 핀 숯덩이를 말함.

피난민들이 살았어.

그래 살았는데 우리 앞집에, 우리 앞집에 그, 저 영광이라고 우리 영감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젊었을 때라. 몸이 좀 실실실 아파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뭐, 하루는 밤에 안개 끼고 안개비가 솔솔솔 오는데 자꾸 지 이름을 부르더래. 대문에서. 대문에서 불러서러 이것도 바로 우리 앞집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긴데.

그래,

"응, 응."

하매, 자꾸 따라갔대. 따라가이께네 뭔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이야기 했어.

"그래, 그래. 응, 응. 맞아, 맞아."

카면서, 자꾸 뒤에 따라 갔는데, 한참 따라 가다가 보면은, 요 산으로 이레 가면은 용담이라고 있어. 요래 우물 이래 있고 바우가(바위가) 이-래 파졌는데, 그 바우 밑에 샘이 그 있고 할매들이 와서 그 뭐 과일하고 막 갖다놓고 빌어, 맨날 비는데 좋은 날에 보면 뭐 마 항거(많이) 과일도 가면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 그까지 따라가가지고.

"들어온나."

해서 방이라고 들어갔는데, 쑥- 들어가 꾸부리가 들어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고 한참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본께네, 언제 본께네 대답을 안 하더래. 말도 안 하고. 휘딱 보이 사람이 없더라 이기라. 그래서 '아이고야 수상하다 싶어가 나온께네, 탁 일어나니께네 바위가 받치는 기라.

아, 그래갖고 마 살살 기어나와갖고 이 산을 갖다 온 데로 돌아댕깄어. 가시밭이고 망개밭이고 돌아댕기갖고 정신이 그때는 어리해가지고 마 이리 돌아댕기는데, 한창 댕기다 지금은 공원산에 있지? 공원산 거기 안 지었을 때 거도 순- 공동묘지거든. 거기도 비틀거리다가. 날샐 무렵에 아직 저기 저 앉았더래. 앉으이께네 거게 하꼬방 많이 있었다 아이가? 지 앉은 밑에 그기 하꼬방이 얼마 안 떨어져가 있었어. 앉아가 있었는데 자꾸 자기 코에 똥냄새가, 화장실 냄새가 나더래. 그마 푸는 화장실, 어쨌는데 화장실 냄새가 솔솔 나서 '이상하다 어데 동네가 있는갑다.' 싶어서, 밑에 동네가 있더라 카는 기라.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사람들이,

"니 와 왔노?"

이람서러, 그래 얼띰해갖고(어리둥절해서라는 의미), 대답도 잘 못하고 이래서러 집에 덱고(데리고) 왔는 기라. 집에 덱고 와서 며칠 안 돼가 죽어뿠다 그 사람. [청중: 혼이 다 빠지가.] 죽어뿠어. [청중: 도깨비한테 홀맀다.] 도깨비한테 홀리가 죽어뿠어.

[서구 설화 188]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이정복(여, 1941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아미동 19번지 사랑방]

시집을 가가지고 시집살이를 하는데 만날 피죽을 먹어. 그 며느리가 그래 피죽에서 너무 막 진저리가 나고 하니까 그 집에서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갔는데, 도망 가가지고 인제 또 어데 시집을 가가, 그 집에도 좀 변변치 못하니까, 어데 들에 가서 피를 훑는데, 저기 어디 보니까 말을 타고 오면서 과거 급제해가지고 온다고, 마 여기 머리에 그 꽂아가지고 말을 타고 오더래.

그래 오면서러, '와, 저 남자는 어째서 저렇게 복이 많아서 급제를 다하노?' 이러이께 젙에(옆에) 와서 보니까, 그기 저거 신랑을, 버리고 갔는 그 신랑이고. 이 사람은 저거 집 몬 산다고 피죽만 먹는다고 도망을 갔는데, 그 집에 가도 또 피를 훑고 있더래.

그래, 그런 이야기라.

[서구 설화 189]

아미동 귀신 이야기

김귀엽(여, 1946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아미동 대성사]

그때에 인제 아들 딸 해갖고 식구가 좀 많았어. 그 집에 [조사자: 아미동에?] 응. 우리 동네에 [조사자: 아미동 19번지에?] 어. 많았는데 그래 인자 참 생활이 억수로 곤란해. 곤란해가지고서 인자 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초상 칠 돈이 없어갖고, 요 돌아가면 저 우에 그리스도 수양병원이 있거든? 요양병원인데, 그 밑에 그 바위 있는 데다가 그 위에다 밤에 살짝 갖다가 모싰는 기라.

모씼는데 그래 인자 막 그 밑에 또 우물이 있어. 밑에 가면 저 돌아가면 우물이 있었는데. 밤 되면 막 울고, 그 할매가 다리 뻗어놓고 앉아서 울어싸면서로 막 '내 팔자야.' 구신(구신)이 나와서 울어쌌거든. 마 구신이 나와서 울어싸.

그래 인자 누가 그 가보니께는 그 할매를 갖다가 바위 우에다 그냥 묻어놓고 다후다[87] 버선 하고, 버선을 신기가(신겨서) 이랬는데, 이리 나와가 있어. 그 머리에다 수건을 댕기고, 이리 그 할매 평소에 살았을 때 수건 댕기고 이래 있었는데, 편도 머리가 아파갖고 이래 했는

87) '다후다'는 '테피터(taffeta)'로 광택이 있는 얇은 평직 견직물을 말함.

데, 그래갖고 인자 동네 사람들 모두 뭐 들고 일어났어. 시끄럽다고.

그래갖고 그래 인자 그 자식들이 돈을 모아갖고 저 당감동 화장막, 그 당감동 화장막이 있었거던? 당감동 화장막에 가갖고 그래 인자 그 할매를 다시 화장을 시킨 기라. 그런께 인자 그런 게 없어진 기라. 밤에 댕기는 게.

그런께 인자 자리가 그냥 땅을 파고 묻었으면 될낀데, 모두 몬 묻어라 하이께네, 밤에 이렇게 묻었는데, 이래 했는데 덜 묻어져 있었는 기라. 그래갖고 그런 일이 있었지. [청중: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문 다 뚜드리고.] 문 뚜드리고 그랬다. [조사자: 그 할매가?] 그 할매가. [조사자: 그래갖고 어째 됐는대예?] 그래갖고 그래서 화장막을 인자 다시 모싰는 기라. 모시고.

또 인자 여기, 저기 옛날에 요 세탁소 하던 집이 있는데, 그 세탁소 하는 집 밑에 안에 드가면, 지금도 거기 일본사람 모시가(일본인 묘를 말함), 쑥- 들어간 데 있어. 지하에 들어가면 그 집은 그 서구청에서 샀지. 그 카바(커버, 모퉁이) 도는데, [조사자: 그 문화잰데.] 그 문화재도 아니고 우찌 집을 사놨어. 사놨는데 그 인자 그 바깥에서는 그 놓고서 그 사람들이 세탁을 해. 영감 할매가 세탁을 하고 하는데.

저녁때면 게다[88] 신고 타타타타타 기모노을 싹- 입고 나오는 기라. 그 아마 그 여자 그기 하카(하까)[89]가 있는 모양이라. 일본 사람을 하까라 카거든. [조사자: 무덤을?] 무덤을. 우리여서 무덤이라 카고 일본에서는 그거 '하카', '하카' 카거든. 하칸데, 그래 인자 그 밑에 들어가면은 대리석으로 번쩍번쩍 해갖고. 이 세탁소는 위에고 밑으로 굴로 쑥- 들어가면은, 인자 그런 그 안즉까지 지금도 그 자리가 있어. 지금 그 집을 서구청에서 샀다고.

그래갖고 게다를 신고 '타닥타닥' 나온다는 기라. 그서 나와갖고 싹- 이래 기모노 입은 여자가 싹- 나가고 한다는 기라. 나와갖고 그래서 인자 그 아저씨는 세탁하다가 화장실, 공동변소, 그때는 집집마다 변소가 없고 공동변소 내- 했어. 공동변소에서러 화장실 갔다가 돌아가싰어. 돌아가시고, 아지매는 인자 몬 있어서, 그 세탁하다가 인자 우리 집 요 와서 내- 있다가, 인자 금년 봄에 저거 집에, 저 해운대로 저거 아들집으로 갔어.

[서구 설화 190]

손님을 못 오게 해서 망한 집안

김귀엽(여, 1946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아미동 대성사]

88) '게다(下駄)'는 일본의 나막신을 말함.
89) '하까(墓)'는 묘를 말하는 일본말.

옛날에 시골에서는 어느 부자 장자가 있었다 하대. 그래갖고 인자 너-무 손님이 많이 온께는, 귀찮으께는 인자 어느 누가, 아이고 메느리들이 귀찮다 아이가. 겨울 되면 지금 물이 있나 뭐 있나 이러이께,

"야, 너거 집 손님 안 오고로 하는 방법이 있다."

"허면 갤카(가르쳐) 주소."

이래이,

"니 부엌에, 밥하는 부엌에서 껌정을, 나무를 불 때 껌정을, 너거 그 정지문(부엌문) 앞에 자꾸 밟아가지고, 숯을 자꾸 밟아 문대면(밟아 문지르면) 손님이 안 온다."

이카이. 그래갖고서 삼 년 하고 나이까 다 망했다. 부자가. 그런 거 옛날에 있다.

[서구 설화 191]

명당에 쓴 동래 정씨의 정묘사

김귀엽(여, 1946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아미동 대성사]

요 저 동래 정씨네들 정묘사 안 있나? 동래 정씨네들 그 정묘사에 그기 인자 그게가 명당자리다. 이래갖고서 그 갖다가 묘를 써논게네, 도깨비가 나와갖고서는 확 파삐리는(파버리는) 기라. 그래 인자 짚단 같은 데 들어갖고. [조사자: 금궤 아니라고.]

그래가지고서 내중에는 그거로 갖다가 그게 뭐이고? 인자 밀딴(밀짚단) 그기, 밀딴 그거는 인자 반짝반짝 하거든. 그래 그걸 가(가지고) 모시니까 안 파더라 하는 기라. 거기가 명당자리 아이가. 그래서 정묘사.

[서구 설화 192]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김귀엽(여, 1946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아미동 대성사]

아가 울어싸서, 그래갖고 할매 할배가 달갬씨러(달래면서),

"꽂감 주께, 꽂감 주께."

이러이께, 꽂감이 호랑이거든. 그래 호랑이 보고 곶감인데. 마,

"꽂감 줄까? 꽂감 줄까?"

하니까, 호랑이한테 잡아먹히 갈 낀데, 호랑이가 꽂감에 놀래갖고 도망가삤는 기라. 그래서 꽂감이 호랑이라.

[서구 설화 193]

쌀이 나오는 바위

김귀엽(여, 1946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아미동 대성사]

쌀바위는 저 지리산 백제암, 백제암 절에가 쌀바위가 옛날에 있었다대. 그래갖고 사람이 한 사람 가몬 한 사람 몫아치 나오고, 두 사람 가몬 두 사람 몫아치 나오고.

그래갖고 인자 나오는데, 하도 인자 고양주가, 그때는 인자 추사[90]가 들어갖고 머스마가 짓궂은데. 무슨 도술로써 이리빽에 안 나오는가 싶어서 부지깽이 갖고 휙휙 저어뿐 기라. 많이 나오라고. 그런께 그기 딱 멕히더라(막히더라) 하대. 뜸물(뜨물)만 나오제, 쌀은 안 나오더라 하는 기라.

[서구 설화 194]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김귀엽(여, 1946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아미동 대성사]

인자 그 시어머니는 봉사고 남편은 군에 갔고, 징영(징용)에 잽히가삐고 이랬는데, 그래 인자 메느리가 참 효부라. 그런데 묵을 거는 없고, 할매는 인자 봉사가 돼가 방에 들어앉았고 이런께, 그런데 인자 그 저기 뭐이고, 이 밭에 가갖고 수채구녕(수체구멍)에서 지렁이를 잡아왔어. 인자 깨끗이 씻어갖고 할매 국을 만날 끓여주는 기라.

90) '추사(醜事)'는 보기 흉한 일이나 더러운 일을 말함.

끓여주고 한께, 국이 어찌 맛있는지 인자, '아이고 내가 아들 오면 인자 뵈이야 되겠다.' 싶어갖고 한 마리 먹고 자리 밑에다 딱 말라 놨는데, 옛날에 돗자리 안 있나? 그 자리 밑에다 옇어논께 말라가, 딱 해놨는데 아들이 인자 참 징영에 갔다 왔는 기라. 아이고 어머니가 막 팔자가 허여이 이쁘게 해가 있는 기라.

"아이고, 내 아들 오나?"

"아이고 어머니, 참 얼굴이 좋다."

고, 이래 한께네,

"아이고 야야, 맛을 잡아다가, 우리 메느리가 맛을 잡아다가 만날 맛국을 끓여서 해주기 때문에 내가 먹고서 건강하고 살이 쪘다."

이래 캤는 기라. 그런께네.

"아나, 내가 맛, 하도 내가 맛이 있고 그래서러 내 니 줄라꼬, 뷔줄라고 놔났다."

떡 보이 지렁이라. 그런께,

"아이고 어머니, 지렁입니다."

하이께네,

"악!"

하면서, 눈을 번쩍 뜨더란다. [조사자: 효부다 그지예?] 효부라. 효부라. 그래가 시어머이 눈을 띠았어.

[서구 설화 195]

산초 따는 부인 덕분에 과거에 합격한 남편

김귀엽(여, 1946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아미동 대성사]

그런께는 하도 몬 사이께 그 재피[91] 아이가. 갱피 아이고 재피라 재피. 산에 재피 딴다 아이가. 재피. [조사자: 산초?] 산초. [조사자: 재피.] 그래 그래 재피다. 그게 얼매나 가시가 많더노? 재피다. 그래갖고 인자 그래 거기를 재피를 훑으러 댕긴다 아이가. 봄 되면 이파리 장아찌 옇고 한다 아이가.

훑으러 댕기이 남자는 묵을 끼 없으이 글만 쓰고 다니거든. 그런데 인자 그게 인자 남자가 글로 써놓고 전부 다 과거에 합격을 했는 기라. 그래가 오니께네 그 여자는 이때까지 그거만 하고 있는 기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효부 아이가. 그 시집 안 가고 살았은께.

91) '재피'는 산초나무 열매의 껍질.

[서구 설화 196]

죽어 새가 된 며느리

김귀엽(여, 1946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아미동 대성사]

인자 저 하도 시어머이가 시집살이를 얼마나 독하게 살리는지, 배도 고프고, 시집을 살아야 되고. 해는 질고(길고) 이러니께네 인자 부엌에 들어가서로 마 김치로, 짭은 거 홀딱 집어먹다가 시어머니가 문을 훌딱 열어삤는 기라. 그런께네 그게 목에 걸려서 죽었는 기라. 인자 메느리가. 그래갖고 그기 원한이 돼갖고, 원이 되고 한이 돼갖고, 그래가지고서 인자 그래 봄 되면 산에 가면 새가,

"후, 후우후우우우우."

하면서,

"후후후 호호호."

하는 새가 있거든. '후우' 하면서 이라는데, 그 새는 그 김치를 훔치(훔쳐) 묵고 목에 걸리갖고 맵아서 그래.

[서구 설화 197]

남해 보리암의 상사바위

김귀엽(여, 1946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아미동 대성사]

상사바위가 있다. 그게는. 그런데 인자 그 밑에 마을에 인자 아가씨하고 총각하고 사랑했는데, 촌에는 사람들이 그거 연애는 없다 아이가. 그런껜아 아 인자 꼬질꼬질 마리는(마르는) 기라. 그인께(그러니까) 상사가 돼갖고, 원한이 맺혀갖고.

그래서 인자 그 한께는 아가씨하고 인자 그 연애를 몬 해가이고 상사병에 걸렸는 기야. 이런께는 뭐 굿을 해도 안 풀리고 별짓 다 해도 안 되는데, 내중에는 한이 돼갖고 여자가 죽었는 거야. 죽었는데 인자 뱀이가 됐는 거라.

뱀이가 돼갖고서는 인자 그 그걸 하이께는, 그래 그 상사바위가 거 가서 인자 굿을 막 해갖고 그래 하이께네, 뱀이가 거서 탁 꾸부러지면서는 딱 떨어진다 안 카나. [조사자: 남자들

이 보통 뱀이 돼가지고 밑에 꼽고 턱을 받혀가 눈물 받아먹고.] 받치고 눈물 받아먹고 그러는데 그래서러 그래갖고 거서 상사바위 거서 풀어갖고, 그 둘이서 거 널찌가(떨어져), 뱀이 하고 같이 널찌가 죽어뿌이 그기 되더라 카대.

[조사자:그거는 상사바위는 안 풀린다데예, 같이 죽어야 끝난다던데.] 죽었다 하대. 그래 널찌가 죽어뿠다 아이가. 떨어지가. 남해 보리암 가면 거 상사바위 있다. 상사바위 거 있다.

[서구 설화 198]

딸을 범하려 했던 아버지[사량도 전설]

김귀엽(여, 1946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아미동 대성사]

아버지하고 딸하고 저 그 사량도. 사량도가 와 사량도냐 하면은 딸하고 아버지하고 인자 사는 기라. 딸이 참 너무 이쁜 거라. 이쁜데, 마 넘주기가 너무 아깝은 거라. 딸이 너무 이뻐갖고. [청중: 그런 딸이 있었어.] 응. 그런 딸이 있어. 그런께 아버지가 참- 그 딸로 사랑했어. 사랑했는데, 딸은 아버지하고는 안 되거든. 그런께 딸이 인제 '아버지', 저 한 번만 인자 딸 보고 인자 같이 이리 해라 한께네, 딸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와 딸은 아니거든. 그라이께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소원을 들어줄 끼께는 내 시키는 대로 할랍니꺼?"

하니까.

"한다."

했어. 그래가,

"내가 거 꼭대기에 올라가서러 있은께네, 아버지가 꺼꿀로(거꾸로) '음마 음마.' 기어올라오라."

캤는 기라. 소하고 똑같은께네.

"거꾸로 올라오면은 내가 아버지 소원 들어주꾸마."

이라는 기라. 그래갖고 소맨키로(소처럼) 거꾸로 '음마, 음마.' 올라가다가, 그거로 아버지가 꺼꿀로 올라가는 기라. 딸로 그 할라고. 근데 거기서 인자 죽었는 기라.

[서구 설화 199]

아미동 당산을 모시는 대성사

김귀엽(여, 1946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아미동 대성사]

산성을 갔는데, 산성 가서 그 전부 다 계를 모아갖고. 그때 내가 스물두 살 땐가 세 살 때가 계를 모아갖고 이 동네사람 산성을 갔는데, 그때 산성에 버스가 한 대 밖에 안 되거든? 저 산속 마을버스, 그 인자 거기 그래 가갖고 모두 염소고기를 다 먹는 거야.

그런데 그래 염소고기 나는 안 묵었는데, 산성 그게 버스 탈라 한께네 다리가 딱 안 떨어지는 기라. 내 다리 이기 마, 그래가 부축을 해갖고 우찌 마을버스를 타고 해갖고 부산대학교 있는 데 거서 인자 몇 번인가 타고 인자 아미동까지 왔거든. 그래 와갖고 인자 아미동 떡방 앗간에 유명한, 춤(침) 잘 놓는 도사 할매가 있었어. 그래 그 할머니를 내가 몬 가고 모셔와서러 인자 춤을(침을) 놓는데, 이 할머니가 있다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 동네 당산이 저 낼로, 다리로 딱 내려앉챠뿠다. 당산을 지주라꼬(지어달라고). 그래서 그렇다."

고, 이러는 기라.

"니 여 와서 당산을 한 번 안 봤네."

"당산이 어딘고 내 모림니다(모릅니다)."

내가 이래 캤어. 그래,

"다리 낫아주면 니 당산 가라."

이래 카대. 그래서 인자,

"다리만 낫아주면 당산 가지요."

내 이래 캤어. 그래갖고 인자 그 할매가 춤을 놓고 난 뒤에 삼일로 와서 안 일어나고. 사일 만에 살살 걸어댕겼어. 당산이 어덴고 살살 찾아간께, 그냥 나무에다 판때기를 붙이가 이래 놨어. 나무로 갖다가 이래 이래 붙였어. 이래 막 당산에다 이래 놨더라고. 다 썩은 나무라. 그래서 내가 인자 가서,

"내가 당산을 잘 지이줄끼께는(지어줄테니) 내 다리 낫아주라."

하라 하면서, 내가 불을 키고 소주, 막걸리를 한 병 부어놓고 왔어. 와갖고 그 다음에 인자 다리가 낫더라고. 그래 낫어갖고 인자 그때부터 시작해서러 좋은 날 되면은 언제든지 그 가서러 과일 같은 거 떡 같은 거 올리고. 또 우리 절에 올리고 그거부터 먼저 올려. 천마산에 올리고, 거 올리고 절에다가 부처님 앞에 불 키고. 언제든지 인자 이때까지 그래.

[서구 설화 200]

집지킴이를 죽여 망한 집

김귀엽(여, 1946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아미동 대성사]

그 남해에 우리 그 무지개 마을에 아는 그 집이 있는데, 본 엄마가 그러께는 애기 놓고, 아들 한 개 놓고 백일 안쪽에 죽었고, 두 번 엄마가(새엄마를 말함) 와갖고서러 아들딸 오 남매를 낳았거든. 낳았는데, 인자 제사 지낼라고 떡 보이, 쌀을 찍어다가(찧어다가), 추석에 쌀 찍아가 딱 그 가간께네(가지고가니), 밥 할라고 간께네, 쌀에 거기 떡 앉아있더란다. 그님이 앉아있다.

그래서 이 어마이가 간도 크제. 새로 온 어마이가 그걸 떠갖다 거랑에다가 확 버렸어. [청중: 세상에.] 그러고 난 뒤에 그 자기 논(낳은) 아 말고, 그 할매 논 아들이 물에 빠져갖고 죽다 살았어. 물에, 저 자갈치 물에 발로 헛디뎌 빠져갖고서러 그래 일주일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자갈치 물, 그 더럽은 물 그거 마시갖고(마셔서). 머리까지 올라가가지고 묶아놓고 이래 놨거든. 이 실화야. 대학병원에서 그랬거든.

그래갖고 일주일만에 살아났어, 그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산 사람이, 살은 사람이 김영인이거든. 영인이. 그래갖고 그 살았는데. 그라고 난 뒤에, 그 사람이 그라고 난 뒤에, 그 집, 인자 저 뜯아내삐린 그 집 아들이 또 인자 다리를 뿔라삤는 기라. 경운기 사고로 뿔루고. 그 다음에 인자 또 뭐 할라고 가이께는 집, 그거 소막 우에 있는데 뭐 가이까네, 그기(집지킴이 구렁이를 말함) 또 이런 게 있더라 하는 기라. 이런 게 휘 돌아댕긴다 하는 기라. 그래서 그 인자 그 어마이도 배가 퉁퉁 부우가 죽었어. 떠다 내삐리가. 이거 오래 아니고, 이건 십 년 안 됐어. 그 집은 실화야.

그래갖고 인자, 그러께네 막 전부다 원수가 다 돼고 막 싸우고 이래 하대. 그런께네 조치법에 뭐 땅 같은 거, 그런 거 갖고 싸우고 마. 그래갖고 본 할매집에 인자 큰 할매가 놓은 아들, 메느리, 메느리가 못됐어. 못돼갖고 그래가 싸우고 찌지고 볶고 이래 쌌더라고. 요새는 이래가 있다. 안즉까지도.

그래갖고 그랬고. 작은 인자 어, 저 할매가 놓은 메느리가 착해. 그 메느리 착해. 조상들 제사를 지가 다 몰아가 지내고, 그 인자 오 남매 놓은 형제간들 다 한테 뭉치갖고 이래 하고 한께네, 그 집은 억수로 잘 되는 기라. 그래가고서 그 형제간은 잘 돼가 잘 살고.

인제 큰 할매, 그 구렁이 돼가 빈(보인) 거게는, 추석에 빈 그기는, 아들도 뭐 물에 빠진 그 사람도 배를 타고 댕기는데, 요즘은 메느리가 마 애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실화야 이거는.

[서구 설화 201]

뱀을 죽여 우환이 생긴 집

김귀엽(여, 1946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아미동 대성사]

우리 아는 집에, 옛날에 초갓집에 보면 그런 게 있다. [조사자: 뭐가예?] 구렁이 큰 기 있다. 그 두 마리가 쌍으로 해갖고, 이래갖고 쌍쌍이 이래갖고 막 붙어갖고 [손뼉을 치며] 이런 것도 막 하거든.

그래 인자 그 저 할아버지가 막 가만히 냅두면 될 낀데, 잡아갖고 막, 도치로가(도끼로) 팍 팼삤어. 때리갖고 막 죽여삤어. 그 죽였는데, 그거 죽고난께는, 죽고난 뒤에 가만히 냅두면 될 낀데 할배가 그걸 태워삤네. 그 노랑냄새가 막 나고 이랬는 모양인데, 무단히 네 살 먹은 손자가 부어갖고 마, 이래갖고 마, 배가 이래 해갖고 죽더라고,

손자가 죽고난께는 그 다음에 또 집에 또 구렁이 또 나오는 기라. 또 쌍쌍이 또 나와. 나왔어요. 또 쌍쌍이. 또 나와 또 이리 붙어가 이래 마. 이리 마 용머리서, 용머리 마을에서 마 이러는 기라. 그런께 그 할배, 그래가고서는 그 며느리가 도망가삐대. 집안이 자꾸 망하는 기야. 그래갖고 인자 낸중에는 마 집에 큰 굿을 하더라고. 굿을 하고난께 집에 또 괜찮아지대. 애가 멀거이[92] 부우(부워) 죽는 거라. [조사자: 무시 못한다 그지예.] 무시 몬 해.

[서구 설화 202]

큰 뱀을 잡아 집안이 망한 땅꾼

김귀엽(여, 1946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아미동 대성사]

이것도 실환데, 강원도에 우리 그 저, 스님이 고향이 양양이거든. 양양에 인자 해남면인데, 거서 인자 시골사람들은 뱀이 잡는 사람을 땅꾼이라 하대, 땅꾼. 땅꾼, 그래갖고 시동생하고 형수하고 둘이서 그거 하러 댕기는 기라. 그런데 저 인자 그 저기 뭐이고? 소금강 몬 가서 생원이라는 데 가면은, 생원이라는 동네가 있어. 거서 가면은 거기 인자 큰 저수지 있고, 거기가 뭐 용골이라 하든가? 뭐, 하는 이름이, 골이 있어.

용골이라는 골이 있는데, 그런 그 날이 인자 거기로 인자 저 점슴을 먹고 시동생하고 형수

92) '멀거이'는 '멀거니'의 방언.

하고 인자 땅꾼 하러 갔어. 뱀 잡으러 갔어. 간께네, 아 돌판 우에 앉았는데, 이만-한 게 앉아있더란다. 이래 이래 큰 게 앉았더란디. 그래 아, 형수가 좋아갖고, 아이고 시동생하고 하면서,

"오늘 홍재(횡재) 맞았다."

하면서 해갖고, 이 푸대, 쌀푸대 큰 거 안 있나? 그거로 잡으면 얼매나 크던지, 용인데 그기 뒤비져가 그걸 잡았어. 집구석이 망할라고 그러는 기지. 헛기 비있지 뭐. 그래갖고 그걸 잡아갖고, 그 집에 인자 부산 아, 저 서울 사람한테 삼백만원 받고 팔았대. 서울에서 누가 와서 저 탕재원하는데, 삼백만원에 팔았대.

그돈 삼백만원 딱 받고 난 뒤에 아지매가 마 설설 붓는 기라. 설설 기운이 없고 밥도 맛이 없고 자꾸 붓는 기라. 인자 부어싸서러 굿을 하고 뭐 이래 병원에 가이까네 암이라 카고. 결국에는 살림이 쫄딱 다 망하고 죽었다. 그 사람. 그 시동생도 죽고 다 죽었어. 시동생은 백만원 주고 지는 이백만원 묵고 이랬단다.

[청중: 목숨을 아주 헐값에 팔았네.] 어. 헛기 빘어 그래. 헛기 보있어. 헛기 보이가지고 그래.

[서구 설화 203]

부처님께 바쳐야 하는 딸

김귀엽(여, 1946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아미동 대성사]

나도 지금 저기, 한 여덟 살인가 묵을 땍에(때에) 시골에 있은께네, 시골에서러 우리 그 집에서러 거랑에 물, 걸레 빨러 갈라 카면 멀어요. 말깡 멀리 가야 돼. 춥어서러. 그래가 걸레 빨아갖고 이래 이래 온께네, 스님이 졸래졸래 날 따라오더라고. 따라오더니만은,

"아이고, 너거 집이 어데냐?"

이랜께, 우리 집에 따라왔어. 그래갖고 그래 보더니만은 우리 어머이를 보고,

"아이고 당신은 부처님 딸로 낳았어."

이래 카는 기라.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께네,

"당신은, 당신 딸은 부처님한테 줘야 돼."

이래 칸께네, 우리 엄마가 막 성을 내갖고,

"무슨 얻으러 왔으면 그저 곱게 왔다 가지."

마 막 촌사람들 별나다 아이가. 이래 폴쩍시리[93] 말로 하면서로 막,

"씰데없는(쓸데없는) 소리 마라."
그래갖고 마 쌀을 쪼매 떠가와 ,
"동냥 얻으러 오면 그냥 곱게 가는 거지. 이놈의 것?"
한다고 줬어. 나가면서, 혀를 차면서,
"당신이 두고두고 후회할 걸?"
이러면서, 그 사람이 나가버렸어. 그래서,
"열 네 살인가 무우면 붙잡아도, 당신이 묶어놔도 그 사람은 집에 안 붙어 있다."
[조사자: 그래 갔다 봄에.] [조사자 웃음] 응. 딱 맞는 기라. 결국에는 부처님 밥을 묵고 살고. 그때가면 큰 사람 됐어. 내가.

[서구 설화 204]

혀가 짧아 우습게 된 말

김귀엽(여, 1946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아미동 대성사]

그런께네,
"아지매-."
"예."
"아지매."
"예."
"아지매 비가 오요?"
한께,
"아지매 보지비가 보지보지 오요."
보슬비가 온다 이 말을 쎄가(혀가) 짧아서 보지비가 온다 했는 기라.

[서구 설화 205]

성주신의 내력

93) '폴쩍'은 '펄적'의 방언으로 이야기 속 '폴쩍시리'는 다급하게 큰 소리로 말한다는 의미.

김귀엽(여, 1946년생) 구술
2020년 1월 6일 채록
[아미동 대성사]

청국대왕 마님이, 마님의 아들이, 아들이, 아들이 그 인자 본 댁을 비방하고 그래갖고 인자 그 저기 뭐이고? 저, 그 성주 그런께는 자식을 몬 둬갖고, 자식을 몬 둬가, 슬하에 자식이 없어갖고서러 석달 열흘 백일기도를 해갖고 성주님을 낳았거든. 그래 낳는데 인자 성주님을 낳고보이 참 아기 관상을 쳐다보디이는,

"니 팔자 기박하고. 자기도 자식을 몬 낳다가 공을 들여놨는데 내 팔자도 기박하다."

아들로 낳아놓고 부모가 아주 통곡을 해. 그 아들을 보고. 그래면서 비로서 이름을 성주로 짓자. 영감 할머니가 그리 지었어. 청국마님하고 대왕마님하고 둘이서러.

그래 지었는데 그래 그 성주님이라고 지었는데, 아기 관상을 보이께는, 그러께는 열 몇 살에서 귀향(귀양) 갈 팔잔 기라. 관상을, 관상이. 그런데 인자 마누리도 비방하고 주색에 방탕하고 돌아댕기다가, 마 귀향을 보냈는 거야. 하도 인자 말을 안 들으니께는.

그래 보내갖고 황토섬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인자 먹을 양식을 다 실어가고서러, 니가 죄를 지어 죄를 지었으니 귀향을 간 기지. 귀향을 보낸 기지. 귀향을 보냈는데 거기서 인제 편지를 썼어. 자기 손가락 깨물어갖고 편지를 써갖고서러 그래갖고 인자 엄,

"제발 날로 좀 기하씨, 마누라가 기하씨라. 기하씨. 기하씨 인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은께 날 좀 풀어두라."

해갖고 상소문을 써서 올린께, 기하씨가 그걸 받아 들고서 저 어데 가서 탁 외롭게 섰는데, 새가 청조새가 한 마리 입에 편지를 물리주고 전해줬거든. 근데 그 편지를 물고서러 인자 가서 기하씨 떡 떨트려주논께 기하씨가 가지고서러 청국대왕 마님한테 가갖고서러,

"이 편지가 왔다."

고, 보여준께네 비로소 성주씨가 전해준 편지거든. 그런께네,

"인자 귀향 풀어주자."

이래갖고 그래 그 귀향을 인자 함시는(하면서는) 비단 닷 돈, 근단 닷 돈, 인자 그 은금 보화을 담아 싣고서는 인자 배로 해갖고 돛을 띄우고 흑주성에 당도했거던. 가이께는 숭악한 짐승이 앉아있어. 사람이 아니고. 털이 나갖고 이래 있으니께네, 그래 험한 짐승이께네, 그기 아니고 비로소,

"나는 성주님이다."

그런께네,

"성주님을 잘 모시라."

모시갖고서. 해가서는 이발 시키고 마, 그거 그 맛있는 걸, 마 은금 보화 전부 입히고, 인자 좋은 약을 먹이니께, 싹 씻겨서 집으로 모셔왔는, 황토섬에서 인자 집으로 모셔왔는 거지. 그래갖고 인자 그래서 이때부터 자기가 저 기하씨하고 인자 다시 합방해갖고 아들 다섯, 다

섯 딸 다섯 낳은 기라. 그기 근본이야. 그거.

그래가 안동 땅으로 갔는 기야. [조사자: 그거는 경문총람에만 있대예.] 그래가, 그렇다. 그래갖고 인자 그기 인자 안동땅에 가갖고서 아들 다섯, 딸 다섯 낳아갖고 [조사자: 딴 데도 다 갈 낀데, 왜 하필 안동에 갔는가? 이걸 못 푼다고.] 어. 그래갖고 인자 그래서 아들 다섯, 딸 다섯을 낳아갖고 그라면은,

"우리는 조선국에 가갖고, 인자 나무가 없는 곳에 가갖고, 인간이 집을 짓고, 좋은 일로 내가 하겠다."

이래갖고 이게 사방으로 퍼져가 나와갖고 솔씨가 돼갖고, 솔씨 서말 서홉인가? 칠홉을 가져 와갖고서로 온- 무주강산(무주공산)을 던진 거지. 그래갖고 솔이 된 기고. 그게 인자 유래라.

[서구 설화 206]

봄나물들의 대화

배순선(여, 1948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아미동 송이사랑방]

논에 달롱게[94]가 달롱달롱 올라온께네, 시누이가,
"씹하고 싶다."
이란다. [일동 웃음] 저 나새이[95]가,
"나도."
이란께네, 돈냉이[96]가.
"돌아가면서 하자."
한께네, 미나리가,
"미쳤나." [일동 웃음]

[서구 설화 207]

단칸방에서 몰래 나누는 사랑

94) '달롱게'는 '달래'의 방언.
95) '나새이'는 '냉이'의 방언.
96) '돈냉이'는 '돌나물'의 방언.

안말란(여, 1943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아미동 송이사랑방]

우리 집 앞에 친군데, 방이 적어가, 방이, 쪼깨난 방에 인자 아들딸이 전부 다 한 방에 자는 기라. 한 방에 자이께네, 남편이 자꾸 바람을 피운다 아이가. 바람을 피고 어쩌다 집에 자면, 인자 술이 한 잔 먹고 와갖고 그래도 할마이 본 할마이라고, 본 할마이라고 인자 다리를 땡기싼께네, 딸 다리를 땡깄어.

"아빠, 미야 다리다." [웃음]

이거 실화다. 그래 진짜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 그래가 참 새끼들 많으이께 부부생활을 잘 몬 하잖아. 몬 하니께네 남편이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다 아이가. 그래가 참 그런.

[서구 설화 208]

제삿날 가는 귀신을 태워준 택시기사

주또연(여, 1933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아미동 송이사랑방]

전에 저 택시기사가 있었는데 영도로 갔어. 택시에 사람을 싣고 갔는데, 그 나는 범일동에 살았는데, 그 실어놓고 차가 나오이께네, 길가 집인데 사람이 오순도순 있는데 색씨가 하나 손을 들더래. 택시도 손들었으이 태워갖고,

"아미동으로 가자."

카더라. 그래 아미동 가서 내리갖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저 골짜기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 들어가가,

"차비 가(가져)올 끼네께네 좀 기다리시오."

카대. 아무리 택시기사 기다려도 안 나와. 그 집에 가니께, 마 그래, 이러쿵 저러쿵 이걸 타고 이래 왔는데, 차비 가온다 카고 세상 안 나와서. 그게 딸이 죽어서 그날이 지 지사(제사)라. 지사가 돼서 혼백이 왔는 거라. 그러이께 저 엄마가 울면서 차비를 줬더만. 그 역사가 있어. 우리는 범일동 살아도 그 소릴 들었어.

[서구 설화 209]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다 천벌 받은 며느리

주또연(여, 1933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아미동 송이사랑방]

남편이 과게에(과거에)가고 없는데, 과게에 가고. 나는 우리 시어머이한테 그 소리 들었어. 과게를 가고 없는데, 너무 곤란한 게 묵을 게 없는 거라. 그래갖고 밥을 얻어다 묵고 그랬는데, 인자 지렁이를 파가지고 직이가(죽여서) 묵었으면 그래 안 그랬을텐데. 할매는 그 지렁이를 꿉어갖고 이래 주면 할매가 그리 맛있다고 잘 자시. 근데 꼭 보면 한 마리는 아들 준다고, 아들이 과게에 갔는데, 몰리는(말리는) 거라. 몰리는데, 그래 아들 와서 인자 그 줬는 기라.

"얘, 얘. 너거 마누라가 날로."

그래, 그 어머니가 얼굴이 억수로 좋은 기라. 그래,

"어이구 야야 너거 마누라 뭐땜에 나를 뭘로 해줬는고, 이리 맛있어갖고 내가 묵고 이리 얼굴이 좋고. 다리도 좋다."

그래더래. 그래 보이까 지렁이 말린 거. 그래갖고 그 사람은, 할매가 알았으면 괜찮을 낀데, 할매는 모리고(무르고) 묵지. 그러이께나 그 소리 하자 벼락이 떨어져 그 아지매는 죽었어. 죽고, 그러이께네 그 묵은 할매는,

"아이고, 날로 묵을 께 없어 보양한다고 이래 했는데 하느님이 그걸 몰랐는갑다."

카더란다. 그 말이 있었어.

[서구 설화 210]

개똥을 씻어 부모를 봉양하다 천벌 받은 며느리

주또연(여, 1933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아미동 송이사랑방]

피난을 가는데, 피난을 갔는데 워낙 묵을 끼 없으이께는, 막 개똥도, 개가 보릿쌀 먹으면 똥이 그냥 나오거든. 그놈을 씻어갖고, 냇물에 씻어갖고 그래 밥을 해갖고 어른을 드맀어.

그래 저거가 한 번 묵고 주면 괜찮은데, 작으니까, 줄 께 없으니까 저거 묵지고 안 하고 어른을 드맀어. 그래 그 할매는 묵고 붕두각시같이 좋는데, 그 하느님은 그기 양해가 안 되는 기라. 벼락을 던져가 그 자석은 죽었어.

[서구 설화 211]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주또연(여, 1933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아미동 송이사랑방]

고래장을 가는데, [조사자: 누구를 업고 가는데예?] 아들을. 아들을 업고 가는데, 그런께네 아버이가 아들을 업고 가지. 그래 가는데, 이제 아들 업고 감서, 그 젙에 가서 아들 내려놓고, 인자 어머니를 고래장을 해야 될 거 아이가. 그래 내삘고, 인자 할매를 그따 놔두고 갈라꼬 그라는데, 지게를 안 가가거든 . 그러이께 손자가,

"아버지, 아버지. 지게를 가가야 나도 아버지 난주(나중에) 갖다 버릴 꺼 아이냐."

이래 카더란다.

그러니께네, 그 아버지가 엄마를 몬 버리고 지게도 갖고. 손주도 죽고. 그 질로 고려장이 없었어. 그 질로. 다 역사라 그기. [조사자: 맞아.] 맞아. 그 질로 고래장이 없었어. 내 그 이야기는 들었다. 우리 할매한테.

[서구 설화 212]

엉뚱한 사람 고려장해서 화를 입은 사람

주또연(여, 1933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아미동 송이사랑방]

우리 할매가 만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오데 피난을 가는데 너무 너무 묵을 게 없으니께네, 이제 냇바닥을 이래 해서 지내(지나) 가는데, 냇바닥을 지내 가는데, 마 아가 울어쌌고 묵을 것도 없고 하이 귀찮거든. 그 업고 가는 할매가,

"나를 엿다(여기에) 고래장을 해라."

한께로, 어마이는 고래장을 안 하고 자석을 그따 고래장을 시키삤는 기라. 그래갖고 어마이는 살아가지고 가는데, 벼락을 떨어져갖고 아바이가 아들도 직이더란다. 자기가 죽든지, 어머니가 죽든지 해야지. 손주는 이제 다섯인데. 그 말이다. 옛날에.

[서구 설화 213]

뱀을 낳은 여자

주또연(여, 1933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아미동 송이사랑방]

옛날에 할매가 그라대. 저 물이 귀하이께나, [조사자: 물이?] 물이 귀하이께나 저 논 있는데 가면 등걸이[97] 큰 거 안 하는가배? 거 있는데, 그 물을 여다 먹는 거라. 그러니께 뱀이 알로 씰어 놓은 물은 몬 묵어. 묵었는 기라. 뱃속에서 뱀이가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대. 그것도 인자 들어차가 놓는데, 뱀이를 한없이 쏟는 거라. 뱃속에서. 그래갖고 그것도 죄라. 그 자기, 쏟는 아지매 업이라 그기.

[서구 설화 214]

도깨비가 되는 빗자루

주또연(여, 1933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아미동 송이사랑방]

도깨비가, 도깨비가 아이라 그게 여자들이 옛날에 부엌에 불 때면 빗자루 잘 깔고 앉는 거 안 있나? 맨스가 있어가 묻으면 그게 도깨비라. 그게 그러니까, 여자들 빗자루 깔고 앉는 거 아이다.

시방은 빗자루 깔고 앉는 부엌이 있나 오데. 그게 없는데 옛날에 다 그리 살았다. 뭐 별 수 없이 살아. 할매들 다 사는 게.

[서구 설화 215]

아이를 구해준 호랑이

주또연(여, 1933년생) 구술

97) 줄기를 잘라 낸 나무의 밑동을 말함.

2020년 1월 7일 채록
[아미동 송이사랑방]

머슴들이 산에 나무를, 옛날에 나무를 해가, 우리, 우리 산이 있었는데, 요 아미동 뒷산 보다 훨씬 높은 산이 있는데, 그 나무하러 갔는데 막,

"어헝."

호랑이가 울더래. 울어도 마 나무를 하고 집에 왔는데. 하다 아가 울어싸이께나 그 아를 갖다가 그 이웃사람이 그 산에 갖다가 묻는 거라. 묻었어. 너무 울어싼께네. 그래갖고 우에 호랑이가 울어싼께 아를 묻다가 가삤어. 그래 밤에 오이께는 그 아를 데려다 집에 딱- 모시다 놨대. 호랑이는 가고.

[서구 설화 216]

죽었다 살아난 사람

주또연(여, 1933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아미동 송이사랑방]

우리 엄마가 가슴 아픈 병이 있어. 막 치밀어 올라오는 병인데, 울 아버지가 어데 간께, 옛날에 왜놈시대에 깡통에 동그란 깡통에 약이 폭폭 품으면 나와. 약이, 빈대약이. 근데 옛날에 빈대가 많이 끓었다 아이요. 집에. 그래 그걸 오데 가이께,

"그거를 묵으면 낫는다."

카더래. 그래 그걸 한 통 사가 왔어. 우리 엄마가 가슴이 아파 마 애를 썩히고 있는데, 그래 한 숟가락을 이리 떠갖고 엄마를 드렸는데 조금 있으이 잠잠하거든. 이게 낫는갑다 싶어가 한 숟가락 더 떠가 더 드렸어. 그마 그 질로 죽어뿠는 기라.

죽어갖고 영 살아나도, 마 하루 점도록 있어도 안 살아나고, 이틀 가도 안 살아나고. 마 사흘 들어갈 때는 돌아가셨다고 마 초상 치르라고 마, 새잎 꽃을 만들고 마 생이를, 우리 산에 가서 나무를 쳐다 만들고. 막 죽음옷, 그때 아직 죽음옷도 안 해놨지. 저승옷도 맨들고 이래 쌌는데, 살아나면 내일 낮에 한 열 두시 되면 나갈 끼라고, 생이 다 만들고 꽃송이 다 하고. 엄마가 막 대통 터지는 소리를 하는 기라.

근데 곽도 만들고 다 만들고 옷도 입히는데 염을 안 했어. 와 안 했노 하면 요 복장이 따땃해갖고 죽지 안 한다고. 죽지도 안 한다고 그래갖고 염을 안 했는데, 그래 좀 있으니께 우리 엄마가 코 숨통 튀이면서 천장을 떠받는 소리를 해. 그래 살아났는 거라. 그래 살아가 그 뒤로 오래 살다가 돌아가셨어. 오래 오래 살다가.

[서구 설화 217]

저승갔다 살아난 사람

주또연(여, 1933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아미동 송이사랑방]

그래 우리 옴마가(엄마가) 죽어갖고 저승을 갔는데, 이우제 아저씨가 면사무소 댕겼대. 옛날에 면사무소하면은 애법[98] 핏줄이 좋은 사람이거든. 가이께네 그 아저씨를 만났어. 저승 가다가. 갔는데, 우리 옴마 혼이 가는데, 그래 갔는데 그 아저씨가 부잣집, 아주 부잣집에서 나무를 푹푹 패더래. 그래 가보이께,

"아이고 어르신, 안즉 갈 때 올 때 멀었는데 왜 오셨냐?"

이러더란다. 그래,

"마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왔네."

이러니께, 그래갖고 그 소리 듣고 있는데, 가을인데 명(무명), 촌에는 와 명을 숨구면은(심으면) 따고 널어놓거든. 그거를 막 따고 말려놓고 꼬치도 따고. 그래 밥이 다 왔는데 다른 사람은 숟가락이 있는데 우리 엄마는 숟가락이 없어. 그래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저 냇고랑[99] 저 가면 물 줄줄줄 참 좋은 물에, 어데 가서 손 씻고 와서 손이라도 갖고 잡수소."

이러더라. 그래 손 씻으러 간다고 냇가에 이리 높은데, 냇바닥이 촌에는 냇바닥이 넓어봐야 얼매나 넓겠노? 이런데. 물에 요마이(요만큼) 내려갔는데 요 아마이 바우 틈이 있더래. 거서 이래 내려다 보고는 손을 몬 씻겄고, 그거를 발로 디디고 인자 내려가서 씻을 끼라고. 돌이 해-딱 뒤비졌어. 뒤집히 울 엄마 물에 탁 빠졌는데 그때 깨어났어. 그래 깨나가 오가 싶은데, 그래 이우지 사람 아저씨가, 면사무소 댕기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 아들 하나 놔두고 참 똑똑은 사람이 죽었어.

[서구 설화 218]

두꺼비에게 밥을 줘서 부자가 된 집

주또연(여, 1933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98) '애법'은 '제법'의 방언.
99) '냇고랑'은 '내고랑'으로 '개울'의 방언.

[아미동 송이사랑방]

옛날에 그런 소리도 있대. 부엌에다 떠놓으면, [조사자: 뭘 떠놓는데예?] 밥을 퍼면 소두방 열면 안 돼. 어른 밥부터 먼저 안 퍼는 갑애. 근데 두꺼비가 만날 소두방[100]만 열면, 소리만 나면 뛰오는 기라. 오이께네 주개[101]를 갖고 밥을 먼저 떠서 그 부뚜막 놔 주는 기라. 놔 주면 두꺼비가 묵고 가고. 묵고 가고. 항상 그래. 그래 그 두꺼비가 그 집에 참 부자를 이라주더래.

[서구 설화 219]

귀신이 보이는 질경이기름 불

허분이(여, 1932년생) 구술
2020년 1월 7일 채록
[아미동 송이 사랑방]

옛날에 빼뿌쟁이[102] 씨로 받아가지고 기름을 짜갖고, 저 접시에다가 담가가 기름을 놔놓으면 죽은 사람, 내가 엄마가 일찍 죽었거든. 엄마가 보고저으면(보고싶으면), 엄마가 보고저으면 빼뿌쟁이 기름을 짜가이고, 그걸, 기름을 불로 키면 엄마가 뵌다고(보인다) 그런 소리 들었지.

옛날에 그 소리. [조사자: 빼뿌쟁이 기름 해보셨어요?] 안 했지. 그래 그 소리 듣고 날로 해보라꼬. 나가 인자 어려서, 어려서 엄마가 일찍 죽어논께 엄마가 보고지으면, 뭐 옛날에 어른들이 그래 쌌대.

"엄마가 보고 지으면 빼뿌쟁이 기름을 짜갖고 하면 엄마가 비인다."

그래. 내가 뭐 하러 그걸 할 끼고? 안 했지. 안 했어.

[서구 설화 220]

도깨비불

허분이(여, 1932년생) 구술

100) '소두방'은 '소댕'의 방언으로 솥을 덮는 쇠뚜껑을 말함.
101) '주개'는 '밥주걱'의 방언.
102) '빼뿌쟁이'는 '질경이'의 방언.

2020년 1월 7일 채록
[아미동 송이사랑방]

여 저저 아미동 톳가비 나오는 그 화장막이 뒤에. 화장막이 여 있었거든. 우리가 화장막 산 앞에 저게 마주 뵈게 딱 있다. 앞산에 톳깨비 불이 나고, 불이 번쩍번쩍 톳깨비불이 나고 그래. 그래가 그 화장막 뒤에 죽은 시체로, 인자 뭐 뼈로 흩여놓은 그기 인자 비가 올라 쿠고, 날이 이리 거기 하면, 거기 [청중: 시거리[103]가 나온다.] 시거리가 나와가 불이 번쩍번쩍 하고.

[서구 설화 221]

점점 커지는 며느리의 방귀소리

안임선(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천암경로당]

시아버지가 하는데 꿇이(꿇어) 이리 앉아가 있어가지고 안 낄라고 요랬다가 저랬다가 하이,
"뽀-옥." [웃음]
캤다 카대. [웃음] 더 소리가 요란하게. 아니 안 할라 카면 자연히 그리 돼잖아. 옛날에는 마음대로 뿡뿡 그리 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소리는 들어봤어.
이렇게 꿀이앉아가 있으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나올라 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 있으니깐 나중에는 더 소리가 크게,
"뽀-옥." [웃음]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가 뭐라 하는교.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 소린공?"
카더란다. [웃음]

[서구 설화 222]

철없는 꼬마신랑

안임선(여, 1938년생) 구술

103) '시거리'는 달이 뜨지 않았을 때 바다에서 파도나 돌 등에 자극을 받아 반짝이는 플랑크톤을 말함.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천암경로당]

그래도 옛날에는 또 나이, 남편이 나이가 어리고 저 부인이 나이 많은 사람. 이런 결혼을 마이 했어. 옛날에는 차이가 많고로. 아홉 살짜리를 장개를 보내주니까. 그냥 색시는 열 몇 살 묵고 그러니까. 그래,

"오늘 저녁에는 그래 색시한테 가자."

하니,

"색시한테 가서 몬 자겠다."

그 애가.

"자꾸 고추 만지서 아파서 못 가겠다."

[웃음] 그런 일도, 그런 소리도 들었고.

또 한 번은 너-무, 뭐 너무 나이 어린 짓을 해가지고 신랑이라 카는 기 너무 나이 어린 짓을 해갖고. 아침에 막 보골이 나서, 저 그 옛날에는 저 짚, 짚이 있잖아. 거다가 막 올려버린 거라. 색시가 막 너무 말도 안 듣고 그래서 팍 올려주니까. 그래 시어머니가 저 들판에 일하다 오니까, 아들이 저 뭣고? 지붕 위에 올라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남편이라고 색시 보고,

"색시 이 박을 딸까? 저 박을 딸까?"

이러더래. 그래도 아홉 살 먹는 게. 그래도, 그래도, 어 그래도 부모한테는 저거 색시 욕 안 믹이려고.

"색시, 요 박 딸까? 저 박 딸까?"

이라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큰 거 따시오."

이랬대. [웃음] 그랬대요. 그런 일도 있었대요. [조사자: 그래도 체면은 채렸네요.] 그래도 남편이라고. 아홉 살 먹는 거로 보내가지고.

그 이렇게 옛날에는 뭐 이렇게 올라갈라 카면 이래요. 못 올라가서 울고. 이라더라던대. 그런 일이 다 있대요. 그 문지방에 몬 올라가서. 또 요새 애들보다 더 성숙하지 못했다 아이가. 옛날에는 아홉 살 묵으면 뭐 아나? 뭐 그래서 거다가 색시 방에 몬 자겠다고.

"색시가 자꾸 고추 만지싸서(만지고 해서) 아파서 몬 가겠다."

[웃음] 그런 소리도. [웃음] 언자[104] 할 거 없어 인자. [웃음] 아이구 참. 아이구. [조사자: 참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대요.

[서구 설화 223]

104) '언자'는 '이제'의 방언.

피난 떠나는 식구를 배웅한 집지킴이

안임선(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천암경로당]

찌끼미(지킴이), 저 우리 옛날에 저 뭐야? 우리 영감님이 이북 사람인데. 그래 지금 돌아가시고 없지마는, 그 평양에 살았어. 피란 나올라 하니까, 그냥 막 짐을 싸니까, 그 기둥에서 막 구렁이, 알록달록한 구렁이가 떡- 내다보고 있더래. 그래서 그냥 피란 가다가 피란만 하고 도로 집에 올 줄 알았지. 그냥 피란할 때는 이리 올 줄은 몰랐다 하대.

그래가지고 가다가 이리 뒤돌아보니까 구렁이가 떡- 반쯤은 그리 치다보고 있다 하더래. 얼룩덜룩한 구렁이가. 다 집지킴이야. 그기 집집마다 다 있다 하더라고. [조사자: 집 떠난다고 이리 보고.] 응 떠날 거래. 생전에 안 보이던 게, 인자 피란 갈라고 이불 보따리 싸고, 옷도 보따리 싸가 넘어와가지고. 구렁이가 턱 제-일 저 굵은 저 기둥에 딱 챙챙 감아가지고 보고 있더라 하대. 그래가 또 가면서 또 보니 그냥 고개만 치켜들고 이래가 있더라 하던대. 찌끼미야. 집찌끼미. 집집마다 다 있대.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서구 설화 224]

구렁이를 만났을 때 일자로 가면 안 되는 이유

안임선(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천암경로당]

그래서 산에서 구렁이 보면은. 그냥 쪽- 바로 가면 안 된대. 이 구렁이가 길잖아. 꿈틀꿈틀 가야 천천히 오기 때문에, 도망갈 때 이리 이리 댕겨야 되는 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래야 구렁이가 그거를 틀면은 빨리 빨리 몬 오고, 쪽- 가면 빨리 가잖아. 구렁이가. 그러이 이리이리 이래 한다. 그런 소리는 들어봤어.

[서구 설화 225]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안임선(여, 1938년생) 구술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천암경로당]

[조사자: 옛날에 에밀레종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가예? 그 전설이 있더만.] 그것도 전설이 있대. 그거 저제 뭐야? 뭐 어째서 그래갖고 에밀레 카고 종을 치면 운다 칸다 키제? [조사자: 아를 넣었다 아입니까?] 아를. 종. 그 인자 지금 기억나는데.

쇠를 고아야만 종을 맨들잖아. 그래가 어데 가이까네, 시중을[105] 하러 가이께. 뭐 쌀도 주고 안 주고, 주는데,

우리 집에는 줄 끼 없으니까 애기를 주더라 하는 기라. 그래 애를 주가, 그 애가. 그 애를 뭐 종,[조사자: 종?] 응. 할 때에 넣었는가? 하여튼 그 쇠를 넣을 때, 그래가 곧 종을 치면,

"에밀레."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났다 하대. 근데 왜 저 시중할 거 없으면 그만 두야지. 왜 애를 준대요? [청중: 그래 줄 게 이제 애밖에 없으니까.] 꼭 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준거가 봐. 줬는데 근데 그 애가 쇠 고우는 데다 옇어가(넣어서), 종을 옛날에는 크-게 만들었는가봐.

"에밀레, 에밀레."

치면,

"에밀레."

부모, 엄마라고 부르는 그 에밀레 소리가 났다는 그런 소리는 들어봤어. 그것도 실환가는 모르겠어. 그런 말이 있지. 전설은. 근데 너무 기가 찬다 그쟈?. 그 아니 아니 뭐. 시중을. 그러니까 그 애 바치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내 생각에는. 그거 시주할 게 없어서 준 게 아니고 뭔가 있는 것 같애. 내 생각에는.

[서구 설화 226]

제 구실 못하는 할아버지의 남근

김만순(여,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청송경로당]

할머이가 그랬어. 할머이가. 할머이가,

"네 꼬추 예쁘다. 예쁘다."

105) 시주를 시중으로 잘못 말함.

하면서, 이래하니까. 응 그래하니까 손주가.
"그러면 할아버지 꼬추는 뭐인데?"
"할아버지 꼬추는 좇도 아니다."
[청중 웃음] 그렇게 해뿠어. 그래,
"아빠 꼬추, 니 꼬추는 꼬치고."
인자, [청중: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꼬추는 좇도 아이다."
그랬어. 그래가 조천역[106]에 갔다 아니가. [조사자: 조천역이 뭔데요?] 조천역. 조천역에. 할아버지가 저 가서 내놓은 그게, 짱글라(잘라) 뿔라고. 그 인자 가서 역에 가서 이 좇도 아닌 이 좇 짱글라 뿔라고.

[서구 설화 227]

욕심 많은 이월 영동할매

김만순(여,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청송경로당]

이월 할매 할 땍에는(때에는) [조사자: 초하루?] 응. 초하루. 이십일까지. 이십일까지 뭐 아침마다 샘물 떠다놓고 뭐. [조사자: 장돗대에?] 응. 아니 뭐. 부엌에 안에다가, 선반 우에다가 물 얹어놓고. 아침마다 샘물 떠다가 떠다가 그래 한다. 요새 그런 거 안 한다.
[조사자: 할머니, 그 영동할매는 영검해가지고 나락 같은 거 하면 새가 먹으면 죽는다 하대예. 할머니, 바람 불면 딸 데려오고 그 이야기 해주이소.] 응. 바람 불 때는 치마가 팔랑팔랑 날려 딸 데려오고, 메느리 데꼬(데리고) 올 때는 비 맞으라고 비가 오고. 그리하고 올라갈 때도 딸 덱고 올라갈 때 바람 불고, 메느리 덱고 올라갈 때는 비가 오고. 그 만큼 심술쟁이다.

[서구 설화 228]

천마산의 유래

김원순(여, 1947년생) 구술

106) 조치원역을 말함. 조치원의 지명 유래 설화에 남근을 철로 위에 얹는 화소가 있음.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청송경로당]

천마산에, 천마산에 옛날에 말이, 이 천마라 하는 말이, 옛날에 우리가 모르지만, 그 말이 이 산에서로 저 저 영도 고갈산으로 뛰어갔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단다. 옛날에. [청중: 천마산 할배.] [조사자: 영도에 목마장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조사자: 천마가 이리 왔다갔다 했다는.] 그랬다 하는 말이.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천마산 이리 가면은 이 돌이 많았잖아. 돌산에, 그기 말 발자국이 있었다 했어요. 옛날에 우리 이사 왔을 때, 옛날에 50년 전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 이게 그랬다 하대. 나도 그 들었어. [청중: 그 산이 그래도 이름 있는 산이다.]

[서구 설화 229]

욕심 많은 영도할매

김원순(여, 1947년생) 구술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청송경로당]

영도 고갈산 할매가 심술이 많아가지고, 욕심도 많아서 거기 할매, 거기 살던 사람이 이쪽으로 이사하면 망한다 하거든. 그래 그 사람들은 옛날에는 이사를 오는데 밤에 보따리 싸갖고 이사하러 왔답니다. 그 천마산, 고갈산 할매 모르게 이사를 온다고. 그리 이사를 오곤 했답니다. [청중1: 너무 지 욕심 많아서 그렇다.] 응. 그 살던 사람은 그만 있어야지, 일로(이리로) 나가는 사람들은 방해로 했다 하는. [청중2: 영도 사는 사람도 그렇다.] 영도 사는 사람이야기지.

[청중2: 그래 영도산에 옛날에 영도에서 돈을 벌이갖고 부산 이쪽에, 천마 쪽으로 오면 쫄딱 망핸대. 몇 년 되면 다 망해뿐다.] [조사자: 할매가?] [청중3: 3년 안에는 괜찮아요. 하여튼 3년 안에는.] 그래도 그만큼 욕심도 많아. [청중3: 영도는 섬이든 3년 살고 나와야지.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오래 살면 그거 다 붓고 나오는 기라. 다 잊아버리고. 원래 영도 그렇습니다.]

[서구 설화 230]

여자 음부를 문 게를 떼어준 사람

신경애(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청송경로당]

옛날에 저 마을 원님이 과거를 해가지고 막 그 밑에 졸병들이 있다 아이가. 나팔 불고 막 오거든. 오는데 이 여자 도랑에 뭐 하러 가갖고 진짜 끼(게)한테 물렸어. 물리가 아파 죽는다고 고함을 질러싸니까는 그 나팔 부는 사람이,

"저 사람이 와 저리 하는고 함 가봐라."

이라거든. 가니까는 진짜 역시나 끼한테 물리가 내 죽는다고 난린(난리) 기라. 그래가 아무리 뗄 수가 없어도, 그다 대고 나팔을 싹- 부니까는 그마 끼가 떨어져뿠어. [웃음] 끼가 떨어졌는데 그 나팔 부는 사람이,

"참- 오만 짓을 다 해도 씹나발 불기는 처음이다."

[일동 웃음]

[서구 설화 231]

뱀을 죽여 벌 받은 사람

신경애(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청송경로당]

[조사자: 할머니 찌끼미 같은 거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아입니까?] 그래께. [조사자: 그거 그 이야기 좀 해주소. 찌끼미 죽어갖고 망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할머니.]

옛날에 그런 일 있었다 하대. 여자가 애기를 뱄어. 응 이건 진짜래. 애기를 뱄는데 그래가 옛날에 와 봉창문이 요만큼 있다 아이가. 누우가 있으면 뱀이가 들어올 수가 있어. 옛날 사시도 안 하고 몬 살고 이러니깐, 흙담집 아이가.

그래 떡- 있는데 뱀이가 들어와가지고 마 그 여자 배 위로 씩- 뱀이가 들어와가, 어떻기 무섭던지. 뱀이를 마마 그 했다 하대. 한 번은 죽이고, 한 번은 삶고 이래갖고. [청중: 아이구.] 응. 그래갖고, 그랬는데 아를 났어. 아를 낳았는데, 딱- 아가 영판 뱀이. 뱀이 같은 아를 났어. 쎄(혀) '낼름 벌벌'하고. [조사자: 그래갖고 어찌 됐다는데요?] 그랬으면 끝이겠지. 모르지. [조사자: 뱀이 와서 그리됐네요?] 응. 벌을 받아가지고.

[서구 설화 232]

개로 환생한 어머니를 세상구경 시킨 아들

신경애(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청송경로당]

옛날에 자기가, 엄마가 엄마 제사를 지내는데, 거 돼지머리를, 돼지고기를 떡 이리 놔났는데 수육을 해, 수육을 해 놨어. 호랑이가 마루층 밑에 있다가, 아참! 개가 마루층 밑에 있다가 홀딱 뛰어와갖고, 옛날에 마루층에 제사를 모신다 아이가. 병풍 쳐놔놓고 마당에 덕석 깔고. 그래가 다 잡아먹어뿌렸어. 먹어놓으니께는 어찌 개를 갔다가 저 뚜드려 팼어. 뚜드려 패이 그날 지녁에(저녁에) 큰아들 꿈에

"내가 너거 엄만데 너무 너무 몬 먹고 몬 입고 살아서 내 그 고기를 먹었다."

이라더래. 또 그 안날(앞날) 지녁에 또 작은아들 꿈에도 역시나 그리 보이더래. 그래가 자기 그때부터 저거 엄마를 탁- 이런 포대기로 싸고 산으로, 들로, 강으로 구경을 팔도로 댕기. 그때부터 개를 좋아했대. [청중: 맞아. 그 소리 들었어.] 그때부터 개를 좋아했대.

[서구 설화 233]

주인 구한 개

신경애(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청송경로당]

그래 친구를 덱고(데리고) 가갖고. [조사자: 맨 처음에 어데 갔는데예?] 저 어데 산인가 가갖고 그 죽었는데, 그 이웃집 개가 그 아저씨 친구로, 할아버지 친구를 덱고 와갖고 막- 짖고 막 난리가 났더래. 그래갖고 그 개 따라 졸졸졸 가니까, 진짜 역시나 그렇대. 불이 나 가지고. 그래갖고 [청중: 그래 아 덱고 왔다. 찾았다.] 응. 찾았다 아이가.

[서구 설화 234]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신경애(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청송경로당]

[조사자: 할머니 옛날에 쟁피 훑는 여자는 어떻게 되는데예?] 아 그거.

옛날에 탁- 여자가 남자 선비라. 선빈데, 진-짜 마마 남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만날(맨날) 책만 보는 기라. 책만 봐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자는, 여자는 인자 쟁피라도 훑어야 그 죽이라도 낋이 묵을 꺼 아니가. 비가 와도 그 늘은 쟁피 훑어 놓은 거 걷을 줄도 모르고, 빨래도 걷을 줄도 모르고 책만 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여자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딴 데로 남자와 헤어졌뿠어. 그리 딱 어디 가뿠는데, 그래갖고 그리 세월이 흘러가 남자가 이제 딱 진짜 과거를 봤어. 그 남자, 책 보는 남자가 과거를 봤는데 암행어사가 됐다 아이가. 그리 딱 됐는데 인자 선비 차를 타, 차가 아니라 말을 타고 오면서,

"저기 논에 훑는 저 여자는 무슨 사연이 있어 그렇노?"

하니까, 그 인자 그렇다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 여자가 옛날에도 만-날(맨날) 쟁피 훑더만 지금도 쟁피 훑고 있더나?"

고 묻더래. 그래 물어가 저거 마누라야. [청중: 맞아.]

사주팔자가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라는 팔자고, 이 사람은, 책만 만날 보던 선비가 암행어사가 되라는 팔자야. 그게 끝이야. [청중: 그건 얘기가 아니라 실화라.] 응. 그렇다 해.

[서구 설화 235]

혀가 짧아 우습게 된 말(1)

신경애(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청송경로당]

제수씨하고, 제수씨하고 형수하고 첩첩이 같이 사는데, 이제 제수씨도 뒷집에 살고, 앞집에 살고 이리 사는데, 쌔(혀)가 짧은 시동생 하나 있었어. [청중: 맞아 맞아.] 그 시동생이 농사를 다 지야 되는데, 도로깨질(도리께질), 도로깨 딱- 해놘 거 안 있나? 그걸 딱 하면서,

"에. 에. 에."

하면서는,

"제수씨도 내 좇만 바래고, 형수씨도 내 좇만 바래고, [청중 웃음] 뒷집에 형수씨도 내 좇만 바래고, 앞집에 제수씨도 내 좇만 바래고, 에-. 에-."

[청중: 혀가 짧아서.] 혀가 짧아놓이 도리깨질,

"에. 에."
하는, 그랬대.

[서구 설화 236]

말을 줄여 우습게 된 말(2)

신경애(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청송경로당]

구통에, 구통에, 구통이 아이고 십통이라. 십통에 저게 조통장이 갔어. 인구 조사하러. [웃음] 인구 조사, [웃음] 인구 조사 가갖고.

"여보세요. 동민 여러분 구통에 조통장이 가갖고 인구 조사."

[청중: 십통이라 해라.] 조통이나 구통이나. [청중: 조통이 찾아가니까 십통이 벌러덩 있으니까, 그기다 그냥 박았다 안 하더나.] 박았다는 소리는 안 했다. 그건 엉터리다.

[조사자: 그래가지고예?] 그래가 그리했대. [조사자: 뭐 하여튼 이야기하다가 안 했는 데에. 녹음이 안 됐는데.] 몰라. [조사자: 조통에 가가지고?] 조통에 가 했다 안 하나. 난 안 했어. [청중: 조통하고 십통하고 살았는데, 그래 마 그래 있었는데.]

조통이 인자 자꾸 인자 그래 뭐 자고 싶고 이래싸이까는, 하니께는 동네 십통도 마이 있고 하니까, 남자가 십통을 찾아서 갔어. 그래 이제 가서 뭐 한 기지 뭐 있노? 그게 뭐 있노?. [웃음]

동민 여러분, 열 시가 넘었어. 여자들이 목간(목욕탕)에 낮우로(낮으로) 일하고, 세탁기도 돌리고, 벽에 못도 치고 그런다 아이가. 경비실에 아저씨가,

"동민 여러분, 지금부텅 이 시간에는 돌리기나, 돌리기나 빨거나 박거나 하는 거는 당장 중단을 해주세요." [청중 웃음]

그라더란다. 그게 끝이요.

[서구 설화 237]

단칸방에서 몰래 나누는 사랑(1)

신경애(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청송경로당]

옛날에 그 시아바이가. 옛날 참 삼베 이불, 여름에 삼베 이불로 풀로 꼿-꼿-하게 해놔놓으니께는, 옛날 사람은 풀 먹여갖고 껍데기 홑창[107] 영어가 풀 미기가(먹여서) 덮는다 아이가. 이 씻어가지고. 덮는데, 저녁에 참 아들이,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하는데, 시아바이 탁 한 이불 덮고 누우자는데, 참 마음속에 하면 되낀데 마 아들이,

"좋나? 좋나?"

하니까는, 마누라가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는, 기가 차서 하는 말이,

"야야, 그만 좋다 캐라. 시아바이 모가지 날라간다."

[일동 웃음] 그게 끝이라. [청중: 맞아. 그런 얘기 있었어.] 그게 끝이라.

[서구 설화 238]

단칸방에서 몰래 나누는 사랑(2)

신경애(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청송경로당]

그래 배에 갔다 오는데, [조사자: 배에 갔다 왔다고?] 응. 배 타고. 삼 년을 타고 왔으니 얼마나 남자가 막 밤이고 낮이고 하고 싶었겠노? 그래 하고 싶어갖고 인자 낮에 고마, 밤이고 하는데, 아들 하나, 큰아들 작은아들 한 말하자면 국민학교 5, 6학년쯤 됐어. 됐는데 작은 거는 좀 작고. 이래갖고 하는데, 작은 거는, 큰 거는 마 이불 폭- 덮어쓰고 가만히 있고, 작은 거는 자꾸 막 울어.

"와 우노?"

하니까는,

"아버지가, 아버지가 엄마 직인다(죽인다)."

고, [일동 웃음] 그래갖고 엄마 직인다고 그리 울더란다.

"이 새끼야 그마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지. 난 벌써부터 알았는데."

[일동 웃음] 응. 그래갖고,

"가만 있지. 가만 있지."

그란대요. 그랬대.

107) '홑창'은 이불 겉을 씌우는 홑겹으로 된 천을 말함.

[서구 설화 239]

단칸방에서 몰래 나누는 사랑(3)

신경애(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청송경로당]

단스[108] 우에다가 [일동 웃음] 옛날에 냄비. 냄비하고 막 척- 사서 얹어놓는다 아이가. 냄비, 냄비를 사서 얹어놓는데,

"온 지녁에(오늘 저녁에) 신식을 한 번 해보자."

둘이서 약속을 했어. 약속을 했는데, 아들이 전-부 한 방에 이리 있고, 이 방 저 방 다 있는데, 신식을 할라 하이까 [일동 웃음] 쫓아댕기야 될 꺼 아이가? 그래갖고 막 서가지고 훅- 갔다가, 훅- 갔다가 하거든. 그래니까 아들이 하도 기가 차서 하는 말이,

"아이고, 마 아버지 만날 하던 그대로 하지요." [일동 웃음]

"뭐 신석(신식)한다 그래 쌌소. 만날 하던 그대로 해라."

고. [일동 웃음] [청중: 만날 하던 그대로 하라 이거네.] 그래. 그래갖고 웃고 말았지.

[서구 설화 240]

나이 따라 다르게 부르는 남근

신경애(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청송경로당]

옛날에 그래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고 인자 막 그러는 기라. 손자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청중: 할머니를 보고.] 손자 보고. 아니 손자를 보고 하는 말이,

"야, 아이고 꼬추도 예쁘지."

이러니까는,

"아이구, 그래 할아버지는 나는 꼬추고 아빠는 뭐인데?"

이러니까,

"아빠는 자지 아니가." [웃음]

108) '단스'는 '장롱'이나 '찬합'을 말함.

"할아버지는 뭐인데?"
"좇 아니가." [웃음]
어떻게 보골나든지(성질나든지). 그래서 마 이씨이- 저거 [청중: 그 이야기는 그리 하면 안 된다.] 맞다. [청중: 아이다.] 성님(형님) 해봐라.

[서구 설화 241]

조치원의 유래

신경애(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청송경로당]

기차역 철도에 가갖고 착- 내가 걸치가(걸쳐) 있으니까, 기차가 뿡- 오면서러 인자,
"좇, 좇 치아라."
[일동 웃음] 이래갖고 조치원이 됐대. 그래가 조치원역이야.

[서구 설화 242]

앙숙인 고갈산 할매와 천마산 할배

신경애(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청송경로당]

둘이 마주보고 응글응글한대. [조사자: 이쪽의 할머니는, 이쪽의 할아버지는 천마산 할아버지, 고갈산 할머니.] [청중: 고갈산 할매.] [조사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둘이서 응글응글한대. [조사자: 사이가 안 좋다고?] 응. 사이가 안 좋대. [조사자: 왜요?] 몰라 나도. [웃음] 응. 사이가 안 좋대. [조사자: 고갈산 할.] 응. 그렇다 해. 그런 전설이 있다.

[서구 설화 243]

제삿날 가는 귀신을 태워준 택시기사

신경애(여, 1942년생) 구술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청송경로당]

제삿날 택시를, 비가 부실부실 오는 날에 여자가 택시를 잡더라대. 근데 하얀 소복을 해서 입고. 그래갖고 인자 오데로 자기가 가는 데로 가니까는 어느 집을 쏙 들어가.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차비를 주라 하니까는 차비로 가서 준다고 안 주더라면서는. 그래가 그 여자가 사라졌다고. 그 집에 제삿날, 제삿날 지녁에(저녁에) 지가 찾아 들어가는 기라. [청중: 제삿날 지가?] 응. 찾아가.

[서구 설화 244]

구렁이를 죽였다 화를 입어 죽은 사람

이필난(여, 1948년생) 구술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청송경로당]

동네 아이고 옆에 동넨데. 그 아저씨가 성질이 얼-마나 더러워. 성질이 더러워갖고 방앗간 하는데 성만 나면 말이고 뭣이고 다 지떤지고(집어던지고) 이랬는데. 그 또 빈소를 딱 차려놓으니 할매가 죽었어. 빈소를 딱 차려놓으니 구렁이 큰 거 하나 오더라. 그걸 놔놨으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동가리, 동가리 다 내가 갖다 내삐린 기라. 그래께는 그 사람이 따라 죽더라고.

[서구 설화 245]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이필난(여, 1948년생) 구술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청송경로당]

아들이, 아들이 할매, 할머이가 죽어서 모시고 가는 길. 산 사람이가? 그래 모시고 가서, 죽었어예. 그래가지고 모시고 가가지고 인자 저 할매를 그 놔놓고, 지게를,

"지게 마 거 내버려두고 가자."

카더란다.
"나도 아버지 늙으면 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래 말했어.

[서구 설화 246]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의 힘

이필난(여, 1948년생) 구술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청송경로당]

[조사자: 며느리가 방구를 오래 참아가지고.] 메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노라이 시아바씨가(시아버지가),
"니는 왜 그러냐?"
하니까는, 방구를 몬 껴서, 그래 저 방구 그거 체이가 얼굴이 노랬대. [조사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뭐.] 아. 그래 맞아. 저 시아바씨 보고,
"기둥 이리 잡고, 내가 방구를 뀌면 집이 날라가니까, 마 기둥 이리 잡아라."
캐가지고, 그래 시아바이 [조사자: 지붕이 날라갔어요?] 안 날라갔어 그래도. [웃음] [조사자: 옛날에는 막 시집살이 힘드니까 막 그랬네요. 방구도 참고.] 방구 그런 거 어른 앞에 잘 몬 끼잖아. 그래께는 그 그놈(방구)을 안 끼고 있으께 얼굴 노라해가지고 있으니까, 방구는 뀌야 되겠고, 그래께는 시아바씨 혹시나 날라갈까봐 싶어서 지둥(지붕) 잡고 이렇게 있으라 카고.

[서구 설화 247]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이필난(여, 1948년생) 구술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청송경로당]

도깨비 그거는 사람도 이래 그거 해가지고 쓰러지게 만들고 그러더만도. [조사자: 씨름한다고 하던대.] 씨름, 씨름하면 그기 같이 붙들고 하다가 이튿날 보면 그기 빗자루 몽딩이라. 이

튿날 보면.

그리고 우리 형부는 저- 골짜기 거서 제사 모시고 오다가 도깨비 만나가지고, 하도 안 와서 가보니까 세상에 도깨비랑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옷 싹 다 버려가지고 그러가 왔더라고. 그리고 이튿날에 여가 뭣이 있는가 싶어가 가이께는 빗자루 몽댕이가 있더란다. 빗자루.

[서구 설화 248]

도깨비에 홀린 사람

이필난(여, 1948년생) 구술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청송경로당]

우리 할매는 요 밭에 요게 뭐 숨거났는데, 또 저 한 시 돼서 '아이고 고추가 얼마나 덥겄노?' 싶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도깨비한테 홀끼가지고(홀려) 탁 넘어졌는데, 일나(일어나) 갈라카이까 머리가 무거워서 자꾸자꾸 누르더라네. 그리 어찌어찌 해가지고 보이 우리 강아지가, 그 까만 강아지 한 마리. 아 그리 보이께 앞에는 마 큰- 저 뭣고? 바다가 있더래. 막 바다가, 돌도 있고 막 옆에 그는 그렇고. 가만히 생각하이, 정신을 차려가 가만히 생각하이 우리 강아지 고서, '아, 요리 내려가면 내가 살겠다.' 싶어가 그래 내려갔는데, 요기 싹- 다 갈아가 왔는 기라.

"아이고, 엄마야. 엄마야. 여 나와 봐라."

캐서,

"와예?"

이래 카고, 쫓아나가이까 피도 흐리고 온 만신에,

"왜 이랬어요?"

카이,

"아유 몰라. 저 넘어졌는데 날 눕히놓고 누질러가지고(눌러서) 머리를 몬 들어서 내가 그래 자꾸 머리 들라고 막 몸부림 이리 치다보이."

얼굴이 다 갈렸어. 이마도 다 갈리고 그래가 내려왔대. 이 할매가. [조사자: 어째 됐어요?] 그 도깨비에게 홀려가. 홀렸어. 도깨비한테 홀키가.

[서구 설화 249]

구렁이를 함부로 먹은 사람

이필난(여, 1948년생) 구술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청송경로당]

이거는 실환데, 우리 교회 집사가, 남자 집사가, 차집사가 저 여 밑에 내려가면 그거 있거든. 뭐 그 포크레이가 구덩이 이리 파이께네 이만한 구렁이가 동가리[109]가 탁탁 나오더라네. 땅을, 집 만들라고 땅을 히비(후벼) 팠어. 포크레이로 히비 파니께 이만한 구렁이가 나왔는데, 이 집사가 그걸 갖고 와가지고 고와가 먹었거든. 고와가 먹었더니만 아파가 지금 요양병원에 몇 년이 됐다. 지금. 아직 살았다 살기는.

우리 집 저것도 그 차집사 그 사람 짔거든. 짔는데 그래가 그걸 삶아가 묵었다 하더래. 내보고. 그래 그걸 어찌 삶아가,

"내가 그걸 그래도 그기 보약이라 하면서 먹었다."

하면서, 그거 묵고나니까(먹다) 어디 일하러 가가지고 다리도 뿌라지고(부러지고) 마 내- 그리 아프대. 자꾸 아프더니만도 그래 저 요양병원에 있다. [조사자: 구렁이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카대예.] 그래. 근데 그 사람은 교회를 댕기께 미신을 안 믿는 기라. 교회를 댕기니까.

[서구 설화 250]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이필난(여, 1948년생) 구술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청송경로당]

호랑이 오면, 호랑이 오면 아가 자꾸 우는 기라. 울어놘께,

"뭐 주께(줄게)."

해도 안 되고,

"뭐 주께."

안 돼고. 호랑이는 야를 잡아묵으러 왔는데, 잡아묵으러 와가지고,

"뭐 주께."

캐도, 안 그치고.

"뭐 주께."

109) '동가리'는 '동강'의 방언.

해도.
“꽂감 줄께.”
카이께는, 그 저 호랑이가,
“왓다. 애는 내보다 더 무서운가 봐. 아가 안 우는 거 보이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서구 설화 251]

자기 새끼 예뻐하는 줄 아는 호랑이

조정임(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청송경로당]

[조사자: 그래 옛날에 호랑이는 왜 지 새끼 좋아하면 이뻐해가지고. 누가 갔는데 지 새끼 ‘하, 이쁘다.’ 하는데 ‘어흥’ 해서.] 예 예. [조사자: 다 갖다놨대. 자기가.] 예 예. 도로 갖다. 예 예. [조사자: 그건 어떻게 됩니까?] 예.예. [조사자: 산에 나물하러 갔다가.] 예예. 그런 얘기 있었어. [조사자: 그 이야기 좀 해주소.] 이쁘다고. [조사자: 뭐가예?]

산에 나물 캐러 갔는데, 호랑이가 막 잡아먹을라 하는데, 저거 엄마 ‘어흥’ 하는데, 새끼를 나낳대. 호랑이 창에. 이쁘다고 막 쓰다듬으니까네 호랑이가 지 새끼 이뻐한다고 안 잡아먹었대. 예예. 옛날에 그랬어. 예. [조사자: 그래가 바구니도 그 집에 다 갖다놨다대예.] 예예. 바구니. 맞아. 그걸 빼먹었네. 나물 바가지 그 집에 갖다 놓고. 호랑이가 지 새끼 이뻐한다고. 예. 그래 안 잡혀 먹혔다대.

[서구 설화 252]

배꼽을 누르면 열리는 음부

최영자(여, 1946년생) 구술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청송경로당]

어떤 남자가 텍사스로 갔는 기라. 자기가 밤일 할라고 갔지. 그러니까 암만 해도 안 되더란다. 그 여자 밑에 누워가지고,

"야, 내 거는."

그 인자 매몰질 하지.

"매몰에는 뚜껑이 있다."

이랬는 기라. 그래,

"뚜껑 좀 눌리봐라. 눌리봐라. 눌리봐라."

하니까네, 이 배꼽을 쏙 누르니까 뚜껑이 싹 열렸어. [일동 웃음] [조사자: 그래갖고?] 어? 그래갖고 인자 뭐 했지. 인자 그기 하면서 끝난 거지. 그기 텍사스 골목에, 텍사스 바에 옛날 색시집이 많았다 아이가. 하도 많이 하니까, 그 여자가 너무 하니까 그 여자들 그 돈벌이 아니가. 그것도 돈벌이니까 옛날에 그 얼마나 많았노? 그래 이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께, 여자 그기 우리 여 여자들 보면 와 이렇게 이렇게 줄도 있단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자들이 줄도 없고 완전히 여가, 그 정도로 옛날에 텍사스에서 했단다. 그래가지고 너무 해사니까 그기 웃길라고 그리 했는 기라 그기.

[서구 설화 253]

단칸방에서 몰래 나누는 사랑

최영자(여, 1946년생) 구술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청송경로당]

[조사자: 안방에도 그런 게 있다 하대. 부부가 잘라고 하는데 애들이 너무 많아갖고.] [청중: 맞아.] [웃음] [청중: 그거는 하나마나 다 아는데.] [조사자: 아니 그거 해주이소. 모르니까.]

그거는 인자 아(아이)들이 여덟 명, 아홉 명, 열 명 있는데, 다 한 방에 자는 기라. 다 한 방에 자니까 우짤끼고. 인자 초저녁에 같이 몬 자구로 하이까, 하나 남편이 딸이 자고. 딸이 옆에 한쪽에 이리 자고 가운데 아들 자니까 얼마나 또 하고 싶겠노?

그러이께는 남자가 아(아이)들 다 자는가 싶어갖고, 그 막 이게 급해갖고 인자 좀 내놓고 마 이렇게 가다보니까 전부 다 그기 입에 덜렁덜렁 대. [일동 웃음] 아들이 그때는 여덟 명 일곱 명, 뭐 내부터 다섯 명 낳았다 아이가. 그래도 얼마나 많노. [웃음] [조사자: 그래갖고 예?] 그래갖고 가가지고 할라고 했는데,

"아부지 엄마, 뭐 하노? 뭐 하노?"

이러더란다. 그래가 못 했다 안 하나 그기.

[서구 설화 254]

기름종이로 지붕을 덮은 하꼬방

최영자(여, 1946년생) 구술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청송경로당]

집을 지으면 지붕 따까리가, 지붕 따까리가 그 내나 기름종이라. 여기. [청중: 이 동네가?] 응. 옛날에 집을 지으면 기름종이, 지붕 따까리가 기름종이라. 기름종이로 해가지고 항상 우리 집 저다 다 그런 걸 덮어. 옛날에 없을 시절에 그런 걸 덮고 살았는 기라. 그래 얼마 안 지내서 나중에는 인자 그 뭐. [청중: 6.25때 피난민들이 그거를, 기름종이 그거는 피난민들이 오갖고.] [조사자: 보급박스.] [청중: 예. 오갖고 루핑 그걸 이어갖고 그 위에다가 골탕 그거를 칠하는 거라. 칠해갖고 그 위에다 모래를 쫙 뿌리잖아. 모래를 뿌리거든. 우리도 그런 집에서 살았어 옛날에.] [조사자: 하꼬방?] [청중: 예예, 하꼬방이 전부 다 그랬거든 옛날에. 그러고 다딤이방에 살고. 우리는 다딤이방에, 우리 아(아이) 놓을 때 우리 아들 그 놓을 때 다딤이 놓고 살았잖아.]

[서구 설화 255]

여자를 겁탈하려다 남근을 잘린 남자

최영자(여, 1946년생) 구술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청송경로당]

여자 저저 그 이름 대면 안 돼. 어느 마을에 인자(지금) 그거 [청중: 오바, 오바.] [웃음] 그래갖고 인자 남자가 인자 한 잔 묵고 인자 저거 집으로 올라가는데, 여자가 인자 만냈는 기라. 여자가, 만난 여자가 그냥 마 이리 거지매이로(거지처럼) 이렇는 기라. 거지매이로 이렀는데, 그걸 갖다가 덮쳤는 기라. 여자가 안 인나(일어나) [청중: 남자를 덮쳤구나.] 밑에 거 꽉- 물고 빼뿠는 기라. [웃음] 그래갖고 그기 인자 얼마나 그거 했으면, 인자 그걸 갖다가 할만하니까 여자가 밑에서 그거를 물어가 딱 떼삤는(떼어버렸는) 기라. 그래가지고 둘 다 마주치놓고 그 저저 뭣고? 난리가 났는 기라. 그래 옆에서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인자 그 119에다 신고를 했어.

"오바. 오바. 여기 지금 꼬추가 떨어졌는데 오바. 오바."

[일동 웃음] 응. 그 인자 보내달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오는 중에 딴 사람이 그 있어 찾았는가 봐.

"오바. 오바. 여기는 여기는 꼬추를 찾았다. 오바, 오바. 꼬추를."

[웃음] 센터 갔는데, 센터 다닐 적에 아줌마들이 감천 아줌마들이 얘기 해주더라고. 그 젊었을 적에 내보다 더 재밌게 하는데 오래돼갖고 말문도 모르겠다. [웃음]

[서구 설화 256]

욕심 많은 영도할매

황소임(여, 1940년생) 구술
2020년 1월 11일 채록
[암남동 청송경로당]

영도에 살다가 나오면, 나오면 안 되거든. 큰 공장을 하다가 부산에 나와 공장을 했는데 공장이 망해뿠는 기라. 또 그 사람 도로 영도로 가서 공장을 차려가 하거든. [조사자: 그럼 괜찮습니까?] 영도할매 그만큼 욕심이 많거든.

그래 아는 사람 딸이가 남항시장에 반찬가게 했는데, 잘 해가지고 모텔 할 끼라고 저거 했는데,

"아유 아지메요, 거서 나오면 안 돼요."

내가.

"거서 자꾸 벌어야지 나오면 망하요."

카이,

"니도 그거 아나?"

카더라.

"알지요."

내가. 그러니께 영도 할매 그만큼 욕심이 많다 하는 기고. 영도 봉학산('봉래산'을 잘못 말함)이라고 있거든. 그 절이 있고. 우리도 그 전에 거(거기) 가가지고 용왕도 믹이고 했지만은 그리 있는 기라. 있기 따문에 그 보살님 일본으로 들어갔는데 아마 죽었을 거야. 나이가 많아서.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가서 인자 점을 하제. 일본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기라. 일본에 가갖고는 거 점 하면, 뭐 거 거짓말하면 절대 일본 사람들 안 알아주거든. 일본 가서 그 사람들 돈 많이 벌었다. [조사자: 그럼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괜찮은가예?]) 그거는 자기 아들이 여 있으니까 드갔다 나왔다 해도 돼도, 일본에서는 점을 치고 뭐 일을 한다 아이가. 그래서

거짓말 한다 하든지 하면 안 되는 기라.

[조사자: 참 영도할매가 그지예.] 그래 영도 고갈산이라 안 카나. [조사자: 공갈산.] 응. 영도 영도가 욕심이 많다. 영도할 [청중: 영도 살면 영도에 살아야 돼.] 욕심이 참 많은 할매라. [청중: 영도할매가 둘이 엉글엉글엉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 나오면 안 돼.

[서구 설화 257]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강옥자(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초장동 초향경로당]

눈 봉사 인자 엄마가 있는데, 저 갔다, 아들이 어디 갔다온께네 마 살이 이래 쪄 있더라네. 그 '없는 가정에, 우찌 우리 어머이가 살이 이래 쪘을꼬?' 그래갖고,

"야야, 어머이가 어떻게 이리 살이 쪘나?"

한께네, 장판 밑을 이리 거들더란다. 본께네 지렁이가 항거(많이) 말란 기, 아들 오면 줄라고 말라놨더라는데, 자기 거기 좋으께네, '나도 내 자식을 주야지.' 싶어서. 그래 지렁이를 말라갖고 고아 믹이고, 고아 믹이갖고 어머이가 이리 살이 쪄가 그 참 효분(효부인) 거라. 메느리가.

[서구 설화 258]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강옥자(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초장동 초향경로당]

스님이 시주를 와갖고, 나는 이거는 자세히 모리는데(모르는데). 그래 쇠를 녹혀갖고 종을 친께네, 종소리가 안 났는 갑대. 안 나갖고 여자가 뭐 가벼워갖고, 나는 시주도 몬 하고 저거 아들 이름이 에밀레든 모양이라.

"내 자석(자식)을 시주한다."

고. 고마 종소리가 안 나께네, 고마 그 자석을 그 끓는 물에 잡아옇어가 그래 종소리가,

"에밀레, 에밀레."
라고 났다 하대. 그거밖에 몰라. 자세한 거는 몰라.

[서구 설화 259]

부인을 오해했던 소금장수

강옥자(여, 1937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초장동 초향경로당]

장가 가 결혼을 했는 기라. 산중에서 저 사는데. 그래갖고 결혼을 해갖고, 그 참 해놓이 시댁에로, 지 마누라 놔놓고 소금을 팔로 갈라 카이께네 무섭다 아이가? 그래갖고 인자,
"단디 자라."
하고, 말을 하고 갔는데, 소금은 비가 쪼끔만 오면 다 녹아삐잖아요. 그래놓이 몬 팔고 도로 지고 오이께네, 문을 본께 이 도둑놈 신발 같은 게 그래 있는 기라. 그러께 이 때리직일 기라고 낫을 그래 갈아갖고, 그래 우리가 참고 살아야 돼.
그래가 가가(가서) 직일라꼬 이래 하는데, 문 앞에 만날 참을 참자[110]로 써놨는 기라. 그거를 보고 직일라고 그거 하다가 그걸로 함 채리보고(쳐다보고) 들어갔는 기라. 그러이께네 지 마누라는 새록새록 자고. 오빠인 기라. 마누라 오빠가 동생 무습다고. 그래갖고 인자 와서 자주는 기라. 그러이께네 참 우리가 순간적으로 참으면 다 넘어가는 긴데, 항상 그래갖고 살인이 안 됐다고. [조사자: 재밌다.] [청중: 참 이야기로 잘 해요.]

[서구 설화 260]

정성을 드려야 하는 제사

김락힘(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초장동 초향경로당]

옛날에 제사를, 우리 집에도 제사, 말하자면 우리 집도 제사고 재넘에(재 넘어) 너거 집도 제사고. 제산데, 인제 소금장사를. 옛날엔 소금장사가 많았는 갑대. 소금장사를 둘이 하고 오

110) 참을 인(忍)자를 잘못 말함.

는데 비가 촥- 비가 너무 많이 오이까네, 그 다리 밑에, 다리 밑에 그 들어가갖고, 비좀 피해 갈라꼬 다리 밑으로 들어갔는 기라. 들어가니까네 역시 또 어떤 할배 할배가 둘이서 딱 비 피하고 앉았더란다. 앉았는데 들어간께네, 그 할배 하는 말이,

"자네는 제사라고 왔더만은 밥이라꼬 얻어뭈는가?"

이란까네, 그런께네 이 머리카락이, 제사상에는 머리카락이 비상인 기라. 머리카락이. 그래가 자네는 밥이라도 한 술, 옛날에는 몬 살던 시대이께네 그 소리가 나오지 그쟈?

"밥이라도 한 술 얻어뭈는가?"

이러이까네,

"나는 밥인지 죽인지 한 그릇 얻어묵기는 얻어무읐네만은(얻어먹었지만) 뱀이 동가리가 걸쳐 있어갖고 묵는둥 마는둥 했네."

그렇고. 한 사람은,

"자네는 뭐 얻어뭈는가?

이러이까네,

"아이고, 죽인지 밥인지 이리저리 해서 한 그릇 마시고 왔네."

그라더란다. '마시고 왔네.' 그래서로 날이 새갖고 그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았어.

"어느 집에서 제사를 밤에 지냈노?"

이라고, 집을 찾은께네 성씨가, 아무것이.

"강씨 자네는 밥을 얻어뭈는가? 김씨 자네는 밥을 얻어뭈는가?"

이렇게 말을 하께네, 김씨 집을 찾았어 그 사람들이. 강씨 집을 이리 찾아가 간께네,

"제사를 이래 지냈나?"

하께네,

"엊지녁에 우리 아버지 제사라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라는 기라. 이 집에서도 가서 물어본께 지냈다 하더란다.

"제사상을 어떻게 어떻게 봤습니까?"

이라고, 가서 본께, 엊저녁에 제사상이 그대로 가마이(가만히) 있어서 본께네, 그 보리밥 상우에(상 위에) 밥그릇 우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탁- 얹어져가 있더란다. 그러께 머리카락은 참말로 비상이란다. 제사에는. 그런께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그래 쌌대.

"머리카락 조심하라."

고. 그래 쌌는데, 머리카락이 그 밥숟가락에 탁 얹히지가 있더라네. 그래,

"그렇다."

이러고, 이쪽 집에 가서, 이제 김씨 집에로. 김씨 집에 가서 물어본께네,

"쌀은 다섯 개나 있고, 물을 한 그릇 끓이갖고. 그래 죽인지 밥인지 한 모금 마시고 왔네."

하더라 안 하나. 그란께 인자 쌀은 한 서너 개나 들어가 있고 죽을 낋이갖고 국물로 해서 한 그릇 떠나놨은께네,

"물인지 밥인지 한 모금 마시고 왔네."

카더란다. 그런께네, 그래서 간께네 역시 죽 그릇만 그리 있더라고 안 하나.
그런 얘기도 우리도 다 들은 얘기다.

[서구 설화 261]

받침을 빼고 쓴 편지

김락힘(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초장동 초향경로당]

군대에서 시동생이 보냈제. '형수씨, 만내 본 지도 오래간만이요.' 하는 걸 쎄짤래기[111]로, 형수씨 만내 봐본 지도 오래간만이고. 형수씨 만내 본 지도 오래간만이다, 이래야 되는데,
"형수씨 보지 본 지도 오래간만이고."
뭐 우짜고, 하여튼 다 잊아삤다. 모르겠다. [조사자: 그래가 엄마가 거지예? 저놈이 내 꺼는 태어났을 때 봤는데 저거 형수 껀 언제 봤던공?] 그래 그래, 맞다 맞다. 그 말이다.
"저 놈이 내 놓을 때 내 보지는 봤을 끼고 저거 형수씨 보지는 언제 봤는공?"

[서구 설화 262]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김락힘(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초장동 초향경로당]

아가 우께,
"호랭이 온다."
그래도 마,
"아앙."
그라고 울거든.
"아이고, 귀신 온다."
그래도 마,

111) '쎄짤래기'는 '혀짜래기'의 방언.

"아앙."

그라고 울거든. 그러께,

"아나 아나, 꽂감 주께."

꽂감은 묵는 거다 아이가. 그러께 꽂감 묵는다꼬 호랭이가 인자, '아이고, 내카마 더 무서운 꽂감이 있구나.' 호랑이 저거는, 호랑이 온다 해도 울고 마 귀신 온다 해도 울고 있는데, 꽂감을 주께 안 울거든. 그래서 꽂감, 저 호랑이 잡아먹는 담보('확실한 무엇'의 의미)가 있다. 꽂감이 있다. 이래가이고 얘기가 나왔다. [조사자: 호랑이가 내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 갑다.] '내보다 더 무서운 게 꽂감인갑다.' 그래 생각했대. 호랭이가.

[서구 설화 263]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김락힘(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초장동 초향경로당]

갱피라는 게 뭐인디? [조사자: 갱피? 피?] 잘 모르제? [조사자: 저는 잘 몰라요.] 그래, 나락 밭에 사람이 무면(먹으면) 안 되는 갱피라는 게 있거든. 그것도 묵어. 묵기는. 갱피라는 게 있거든. 잡종이라. 말하자면 풀 종륜데. 그것도 막 씨가 막 열고 이라는데, 갱피라는 게 있는데.

강태공이가, 남편이 강태공이 아이더나(아니냐)? 강태공이, 만날 낚시만 하는 강태공이가, 지 마누라는 무울(먹을) 게 없으께 갱피라도 뜯어다가 그거를 삶아갖고, 찐쌀맨키로(찐쌀처럼), 우리도 어렸을 때 갱피라는 걸 찐쌀 묵어봤거든 전라도서. 먹어봤는데, 그거를 삶아서. 그거는 맛은 있어. 잘잘하이 서숙알(좁쌀) 같은 요런. 그래. 그러께 그 여자는 서방이 낚시를 가든가 말든가, 옛날에 어디를 가든지 도둑질밖에 더 해오겠나 그쟈? 착한 사람들이 요새 같으면 살겠나. 그 남의 밭에 가서, 논에 가서 갱피를 훑어.

훑었는데 이 사람, 자석을(자식을) 나서 출세를 했다더나, 뭐 하여튼 강태공이가 출세를 했는가? 이래갖고 출세를 해가지고 그때도, 그 남자는 그때 헤어져갖고, 그때 출세를 해갖고 백마를 타고 가는데, 이 여자는 안죽까지도(아직까지도) 논에서 갱피를 훑거든. 그러께,

"갱피 훑는 저 여자야. 안주도(아직도) 세월이 이렇게 갔는데도 갱피만 훑고 있나."

그런 말이 있더라. [조사자: 아, 지 팔자라고.]

그 옛날에 옛정이 있어서 쫌 안 돼서 그랬겠지. 요새 말하면 그쟈? [웃음] 배고플 때, 한 가지만 알고, 인자 한 가지 그것만 내다 팔면, 때가 오면 자석(자식)들하고 먹고 살라꼬 그랬

겠지. 그것만, 그것만, 한 가지 일만 하고 사는 서방은 강태공이, 무슨 강태공이 되어갖고 말을 타고 가는데, 마누래는 안죽까지 갱피만 훑거든.

"저 논에 갱피 훑는 저 여자야.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아직도 갱피를 훑나."

그러고 무슨 말이 많더라. 잊어뿌고 몰라.

[서구 설화 264]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락힘(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초장동 초향경로당]

고려장을 할라고 어마이를 업고 자석(자식)이 올라가는데, 저 자꾸 등거리에서(등에서) 나무를 끈어서 들고, 또 한 주먹 되면 그여다(그곳에다) 꽂아놓고 가고, 업고 가면 꽂아놓고 가고 이라거든.

"어머이, 뭐 때문에 그라노?"

이러이께,

"니 갈 때 길을 못 찾아가면 우짜노? 니 갈 때 돌아가라고, 길을 찾아가라고 내가 길 만들어놓는다."

이랬어. 그래갖고 고려장을 안 하고 다부(다시) 업고 내려왔단다. 그런 유래가 있다 하더라고. 옛날에 우리도 들어쌌거든, 어른들한테.

[서구 설화 265]

도깨비로 변한 빗자루

김상윤(남, 1936년생), 김락힘(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초장동 초향경로당]

[김락힘]

도깨비가 뛰댕기는 거 잡았는데, 어떤 사람이 잡아갖고 '이 놈을 잡아 묶아놓야겠다.' 아침에 묶아놓고 나간께네, 빗자리 몽댕이, 빗자락.

[김상윤]
그러니까 여자들 보고 부엌에 밥 하면서 빗자루 몬 깔고 하라 하거든. 그래서 그래는 기라. 여자들 월경 나오면 그게 묻어삐면 그게 도깨비 되는 기라.

[김락힘]
옛날에 우리도 어렸을 때 이래 보면,
"빗자루 깔고 앉지 마라. 도깨비 뛰 댕긴다고."
막 이래 쌌더라고. 어른들이.
[김상윤]
우리 도깨비 봤다. 나는 헛것도 봤고.

[서구 설화 266]

자기 새끼 예뻐하는 줄 아는 호랑이

김상윤(남,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초장동 초향경로당]

그것도 실제라. 그거는 우리 어무이가, 자기 언니 집이 월평이거든. 그래 거 가가지고 나물 뜯으러 갔는데, 고사리 꺾고 나물 뜯으러 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 일곱 명인가 이래 갔다 캐. 가가지고 나물 뜯는데, 호랑이가 저 바우돌 밑에 새끼를 낳아놨는데, 억수로 이쁘더라 카네. 그래 막 그 이쁘다꼬 씨담고(쓰다듬고) 그랬다 카네. 그래 한참 쓰담다 보니까 우에서 호랑이가,
"어흥."
하더란다. 그래고 마 신이고 바구니고 마 다 때리 내삐리뿌고 집에 옸다 캐. 해코지는 안 한다 캐. 그래도 지 새끼 이쁘다 캐나놓이께. 지 새끼 이쁘다 해놓이께네. 쓰담고 이렇게 해코지는 안 하고 씨담고 이래놓으니. 그래가 전부 다 집에 왔는데 자고난께네 그 이튿날 아침에 집집마정 신발하고 바구니하고 전부 저거 집에 딱딱 다 갖다놨더라고. 희한하다 캐. 그래 갖다놨다더라 캐.

[서구 설화 267]

여자 밑을 보고 무서워 달아난 호랑이

김상윤(남,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초장동 초향경로당]

옛날에 아흔 아홉 고개 있는 기라. 아흔 아홉 고개 있는데, 거기는 만댕이[112] 올라가면 호랑이가 딱 죽치고 있는 기라. 그러이까 겁이나가 인자 아흔 아홉 사람이 되어야 그 고개를 넘어가는 기라. 그래 아흔 아홉 명 되도록 있을라 카면 억수로 오래 걸리는 기라.

그래 저게 한참 있으이께네, 사람이 전부 열 명도 안즉(아직) 안 모있는 기라. 아흔 아홉 명 오야(와야) 되는데. 그러께 아를 배갖고 여자가 뚱뚱 한 기 떡 오더란다. 그래,

"와 이래가 있노?"

커께네,

"지금 아흔 아홉 명이 안 되어가 못 가고 있다."

카이께네,

"갑시다. 내 하고 갑시다. 내가 앞장 설께."

그래가 그 여자 따라 갔단다. 그 여자 따라 떡 가이까, 그 여자가 산만댕이 호랑이 있는데 다가가서는 옷을 홀딱 벗어삐더란다. 벗어가지고 뒤로 마 엉금엉금 배는 불룩하이 해가 마. 엉금엉금 기어올라가니까 호랑이가 딱 차려보이(쳐다보이) 이거는 입이 [웃음] 옆으로 째져야 되는데, 이거는 똑바로 째져가지고 올라오거든. 배는 마 뭘 잡아먹는고 배는 부르제 그러이까 그마 호랑이가 마 달아나삤는 기라. 겁이 나가. 그래가 옷 입고,

"인자 갑시다."

카면서 가더란다. [청중: 이런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갈 낀데?] [조사자: 다 압니다.] 인자 없다.

[서구 설화 268]

묏자리 잘못 쓰고 지킴이 죽어 망한 부자

김상윤(남,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초장동 초향경로당]

이거는 실젠데. 합천에 거 내나 조중고라고 그 사람이 합천군 부재(부자)라. 근데 장가로, 새 장가를 아홉 번 간 사람이라 그 사람이. 새 장가를 아홉 번 가도 딸만 낳는 기라. 아들로

112) '만댕이'는 '산꼭대기'의 방언.

못 낳아가지고 그래가 풍수를 하나 데리갖고 그래가 인자 거 갔는 기라. 저거 아버지 뫼가, 옛날에는 참 못 살았어. 저거 아버지 때는. 그래가 저거 아버지 때 몬 살았는데, 그 사람이 공동묘지, 우리 거 가면 공동묘지가 있거든. 공동묘지 제일 우에다가 뫼를 써 놨더라고. 그래 그 공동묘지가 거해가지고 그 인자 풍수가 데려놓이께네,

"이기 여는 재산은 훨씬 붔는데 자식은 없다."

카는 기라. 그럼 재산 천지니까, 합천군 부자니까 천지 아이가 그쟈? 그러이까 다른 데 묏자리 보러 갔는 기라. 그라이까 요 자리는 참 풍수가 알긴 알아. 인자,

"요 자리요 뫼 쓰만 한 탯줄에 아들 둘 안 낳으면 자기 목을 치라."

카더란다. 그러이까 그 사람이 대번에 뭐 돈 쌨지(많지) 뭐 앵깄다(옮겼다)) 아이가. 진짜 그 앵기고나서 아들 둘 낳았다고. 둘 낳고나서 고마 한 몇 년 있디 지절로(저절로) 싹-망해삐대. 희한하이 짚불 가듯이 가더라고. 재산이. 그래갖고 그 사람도 죽어삐리고. 진짜 저 부자 집이거든. 그래 싹- 가삤다 아이가.

그 사람이 인자 와 망했노 카면, 옛날에 합천군 정부 도정했거든. 그 정부미 겉은 거 찧는 데는 그 사람하고 서이가 그 했다고. 근데 그 윤제라고 그 사람이 저게 했는데, 그 사람도 망했다고.

그기 와 그 했노? 카면, 쥐가 인자 달라들어싸니까 쥐약을 놨는 기라. 쥐약을 놨는데 이놈우 그거 찌깨미가, 구렁이가 쥐약을 갖다 주우먹고, 쥐약 먹고 죽은 쥐를 주묵어삤는 기라. 아, 뱀 앗다 크더라. 커도 그만치 큰 거 처음 봤다. 그 방아실에는 대들보 그 보면 저게 축 늘어졌는데, 그 걸리가 축 늘어졌는데 땅에 데일라(닿으려) 카더라꼬. 그 높은 데.

[청중: 우리도 옛날에 구렁이 감나무 밑에서 보면 찌꺼미라 카고. 그기 나오면 죽어요. 집 구석이 망한다.] 그래가 그 집에 인자 우리가 봤거든. 그래가 그 방아실 망하지 싶으니까, 그 생이(상여) 미고(메고) 그래가지고 가서 묘 쓰고 이란다고. 사람매이로(사람처럼) 그래 묘를 써 줬다고. 그런데 망하대. 고마 그 사람 망하니까 조중고이도 다 망하고. 세 집 다 망해삤다 아이가. 한 사람 망하니까. [청중: 구렁이가 막 담을 타고 나오이께, 막 우리 엄마가 물을 떠다놓고 절하고 마.]

[서구 설화 269]

조상 묘 이장하고 망한 집

김상윤(남,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초장동 초향경로당]

파가지고, 묘를 파야 되니까, 안 파고는 안 되니까, 내나 이거는 묘 판 거 그거는 우리 동네 사람인데 한 삼백 오십 년이라 카더나. 이 뫼를 학교 질라(지으러) 카니까 인자 안 파내면 안 되는 기라. 그래가지고 그 뫼를 팠는데, 삼백 오십 년 됐는데, 누러이 그대로 있더라고. 나도 파러 갔어. 그 묘 파러. 그 집에 묘 파내고 망해뿠다 아이가. 우리 친구 저거 집인데. 종기, 이순자 저거 집에. 제일 좋은 데 갖다 써도 안 되더라고.

삼백 오십 년 된 데도요, 그 저게 그 하는 데 보니까 그 풍수가 알긴 알대. 풍수가 공짜배기 묵는 건 아니더라고. 그 뫼를 갖다가 그 하디만은 우에 뫼는 그거는 삼백 육십 년인가 그래 됐다 카더라. 그래갖고 그 사람 판 데 그 사람 웃대라. 그러이까 그래가 풍수가,

"이미 이거는 참 자리는 좋은 자린데, 한 자로 갖다가 울로 써삤다."

이기라. 지금 파만(파면) 두는(머리는) 새까맣게 파이 아무것도 없을 거라 하더라. 파니까요. 진짜 모가지 울로는 아무 것도 없이 새까매. 나무뿌리만 엉키갖고 있더라고. 직접 봤어. 그거는.

밑에 거는 파니까 고대로 누-러이, 삐가(뼈가) 누렇더라고, 그래가 고대로 있더라고. 삼백 오십 년 된데 삐(뼈) 그대로 있으면 진짜 명산이라. 그거는. 그래 그 뫼를 갖다 파갖고 우리 동네 오서(와서) 제일 좋은 자리 써도 그 집이 망해삐대.

그 집이 망하는 기 와 그렇노 카면 찌깨미가 죽었다요. 찌끼미, 그 집에 뱀, 찌끼미인 모양이라. 그 나무짝에서 그자 뱀, 구렁이가 누런 게 나오더라고.

[서구 설화 270]

도깨비로 변한 빗자루

김상윤(남,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초장동 초향경로당]

옛날에 허깨비는, 진짜 그거 도깨비 댕기고나면 그거 그날 새벽에 쫓아가면 미꾸라지하고 진짜 한 바가지 잡아가 오요. 억수로 잡아온다고. 그거는. [조사자: 어디서요?] 그 저 합천에. [조사자: 강가에서. 냇가에서.] 냇가. 그거는 보면 훌훌 뛰댕긴다꼬.

이 다리가 한 개빼이(개밖에) 없으께 훌쩍훌쩍 뛰댕기지. 그것들 보면 여러 마리가 와가지고 뛰댕기지. 그거. 도깨비 그거. 난 실제로 봤어. [조사자: 그럼 어떻게 해야 갑니꺼? 쫓아낼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씨름해서 이기면, 빗자루 몽댕이고. [조사자: 지면예?] 지면 안 돼지. 지면은 며칠 있다 죽는 기라. 진 사람이. 이기면 빗자루 몽댕이 이기고.

[서구 설화 271]

제삿날 가는 귀신을 태워준 택시기사

김상윤(남,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초장동 초향경로당]

그거는 서울에 미아리, 미아리고개 거게. 그것도 실제라. 택시기사가 그래 가이까, 저게 새댁이가 소복을 해가 탔더란다. 밤에 한 열두 시 다 돼 가는데. 그래가 타고,

"빨리 저 미아리고개로 가자."

하더란다. 그래가,

"저저 불 서인(켜진) 집 우리 집인데, 내 차비를 안 가웄는데 저기 줄끼요."

이라 카더란다. 그래가 암만 기다려도 안 오거든. 그래가 그 집에 찾아갔는 기라. 불 서인 집에 찾아가가, 그래 찾으이까,

"우째 옸냐?"

고, 그라 카더란다.

"새댁이가 내리가지고 내 차비가 없다 카면서 저 불 서인 저기 우리 집인데 그거 거 한다."

카께네, 그래 그 집에서,

"아이고, 우리 딸 오늘 제사인데. 우리 딸이 왔는갑다."

카면서, 그래 차비를 준단다. 마이(많이) 줬더라고.

[서구 설화 272]

호랑이와 대적하는 소

김상윤(남,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초장동 초향경로당]

소는 호랑이가 저거 오면, 그기 인자 소가 묏등 같은 데나 소나무, 큰 소나무나 바윗돌 밑에 딱 서는 기라. 소가 그래야 저게 호랑이가 못 달려드는 기라. 호랑이가 궁디 물어삐면 지잖아. 그러이까 딱 거해가지고 뿔로가지고 호랑이 오면 조지는[113] 기라. 호랑이는. 그렇기 때

113) '조지다'는 호되게 때리다는 의미.

민에(때문에) 묏등 같은 데나 저게 큰 소나무 밑에, 바윗돌 밑에 딱 서는 기라. 소가.

[서구 설화 273]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상윤(남,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초장동 초향경로당]

그거는 옛날에 하는 이야기가, 고래장 그거 인자 짊어지고 가서 고래장 하는데, 저거 아들하고 인자 둘이서 인자 저거 할배로 지고 갔는 기라. 가가 이제 고래장 떡 해가놓고(해놓고) 그래 올라 카니까, 저거 아버지가 지게를 내삐리고 올라 카거든. 그러께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 지게 가 가입시다."

카거든.

"지게 말라(뭐하러) 임마 가가."

카이께네,

"다음에 아버지도 거 하면 지고 와야 될 꺼 아인교?"

커더란다. 그래가지고 인자 다부(다시) 캐가 왔다 안 하나. 그런 얘기 있었어.

[서구 설화 274]

말을 더듬어 손해 본 사람

김상윤(남,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초장동 초향경로당]

저 밀양 그 저게 마산 커는 데가 있어. 밀양 마산이 있거든. 그거는 실제라. 우리 그 사촌 지매[114]가 그 동네 살거든. 그 사람이 이야기 하더라꼬. 그래 말 되게 더듬는 사람이, 인자 그거 옛날에 그 훌치기[115] 안 있소? 훌치기를 인자 얻으러 딱 갔는 기라. 그래, 뭐 촌에는 아무거씨 양반, 어느 양반이라 안 카나. [청중: 와 아이라.] 이게 가가지고 훌치기를 얻으러

114) '지매'는 손아래 누이의 남편을 이르는 '계매'의 방언.
115) '훌치기'는 '올가미'의 방언.

갔는데, 아무 것이야 해야 캐는데,

"아-."

쌌고 서가 있는데 아무것이 소리도 몬 하고,

"아-."

입만 벌리가,

"아-."

하고 있으께네, [청중: 딴 놈이 얻어갔네.] 다른 놈이 와가지고,

"아무씨 양반, 훌치기 좀 주소."

"저 뒤안[116]에 있다. 그거 가 가라."

커거든. 그러이까,

"아-불캉."

하더란다. [조사자: 응?] 지가 그 얻으러 왔는데 어먼 놈이 얻어가버렸으니까 아불캉이지. [청중: 아, 안 됐다, 이 말이구나.] 안 됐다 이기라.

[서구 설화 275]

당산나무 베고 생긴 동티

김상윤(남,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초장동 초향경로당]

그거는 실지다. 우리가 그랬는데 뭐. 우리 동네 우에 알안지골이라고 있는데, 그 당산이 올라가면 음지조산[117] 양지조산 이래가지고 양쪽에 있거든. 그래 양지조산에 그 나무가, 소나무가 억수로 큰 기 있었다고. 그래 인제 딴 데 가서 나무 빌(벨) 때도 없는 거라. 육이오(6·25) 사변 나고나서 나무 다 비이삤제. 전라도 저 운봉서 온 놈이 있어. 그래 금마[118] 그기,

"저게 나무 저거 내가 빌 끼니까, 내 꺼는 징가(지게에 지여) 줄께. 지고만 가라."

카는 기라.

"그라면 비도(베어도) 임마[119]."

그러고 비 주더라고. 그 전부다 한 짐썩 짊어지고 일곱 놈인가 다 비가(베어) 왔다고. 금마가 징가줬어. 그래 집에 지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우리 친구 가져오자 카는 임마 이기 마 아

116) '뒤안'은 '뒤꼍'의 방언.
117) '조산'은 마을 수호신을 모시는 당산으로 돌을 쌓아 만든 돌탑을 말함.
118) '금마'는 '어이' 혹은 '그 사람'을 일컫는 경상도 방언.
119) '인마'의 방언 '임마'는 상대방을 얕잡아 부르는 말로 주로 남자를 가리킴.

파갖고 죽다다고 야단 직있거든. 그러이께 점쟁이 덱고(데리고) 오가지고 뭐 거 가서 굿하고 이랬어요. 조산 거 가서. 굿을 하고 뭐 뚜드리고 야단 직있는 기라. 그러고 낫더라고.

낫으께 그 이튿날 나무하러 떡 금마하고 같이 갔는 기라. 금마가 하는 얘기가,

"집은 청성개비가 짓고 벼락은 남선바위가 맞더라고. 비기는 내가 빘는데 재호가 아프단다."

이라는 기라. 그게 표현이 되어가 만날 가면 그러더라. 그날 저녁 오가 임마 이기 또 아파 가지고. [웃음] 또 점쟁이 내나 그거 덱고 가가 또 두드리고 마. 그러고 또 괜않더라고. 그리고 우리 인제 나무하러 가면 금마 보고 뭐, 지는,

"집은 청성개비가 짓고 벼락은 남선바위가 맞는다고. 재호가 아프단다. 인자 니가 아프다."

이러면은, 배 아파다고 죽는단다. 그런 일도 있었어.

[서구 설화 276]

삼천갑자 동방삭이 붙잡힌 까닭

김상윤(남,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초장동 초향경로당]

숯을 씻고 있으니까, 숯을 씻고 있으이까, 그래 동방석이가 하는 얘기가,

"저게 당신 뭘 숯을 씻고 있냐?"

커께네, 아,

"뭘 씼냐?"

커께네,

"숯 씻고 있다."

커거든. 그러이까,

"내가 삼천갑자 동방석이로 살아도 안즉 숯 씻는 거는 당신빼이(당신밖에) 못 봤다."

이래카이까,

"아, 니 놈이 동방석이가."

카매, 탁 잡아갔다 안 카나. [청중: 숯을 씼거봐야 내나 검다 아이가. 씼거도 씼거도 검는 숯이지. 희질 수가 없잖아. 그런께네 동방석이를.]

[서구 설화 277]

뱀의 발을 봐 죽은 사람

김상윤(남, 1936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초장동 초향경로당]

뱀, 그 구러이도(구렁이도) 발이 있다 카네. 발이 있다 캐. 발로 보면 사람이 죽는다 하네. 구러이 발이, 구러이 발은 딱 새 발 같다 카네. 우리 제일 큰 형님이 그때 일곱 살인가 이래 뭈는데(먹었는데) 구러이를 보고,

"구러이 발 봐라. 발 봐라."

쌋더란다. 그래.

"똑 새 발 같다."

쌌더란다. 그러고 나서 고마 죽었다 아이가. 우리 행님이 죽었다니까. [조사자: 보고 죽었어요?] 어. [조사자: 실제로 보셨는가?] 그건 나는 모르지. 우리 저게 엄마가 그라더라고.

[서구 설화 278]

완월동과 초장동 소막걸의 내력

이시우(남, 1942년생) 구술
2020년 2월 1일 채록
[충무동 산해경로당]

할아버지도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한 팔십 몇 년 전 되겠제. 그러께 완월동 이게 왜놈들의 누각이었어. 그래서 이 동네를 청루라 이랬거든. 청루. 기생들 술 묵고 장구 치고. 옛날 그 선비들 노는 것처럼. 그 이름은 청루였다고, 요 완월동 이름이.

그러다가 육이오(6·25)사변이 일어나면서 양키들이, 미군 군인들이 여기에 놀러오면서 양놈 상대를 하는 사람은 양갈보였고, 그 한국사람 상대하는 사람은 똥깔보였고. 갈보에도 두 종류가 있었다고. 양깔보가 있었고 똥깔보가 있었고. 그러면서 완월동으로 이름이 전향이 돼삤다고. 그런데 청루골에서 완월동으로 전향되면서 그러면서 요 완월동 동사무소는 없고 파출소만 있었어. 집성촌이다 보니까 사고 방지를 위해서 동사무소는 없고 파출소만 있었는데, 파출소가 지금 현재 파월장병고엽제 사무실이 돼가 있다고. 요 모서리. 그러께 이 동네가 흘러가삐맀고.

그러면서 그 위에, 완월동이라는 동네 그 위에 가면, 풀 초자를 써. 초장동. 그 동네를 초장동. 풀이 있는 마당이다 이래갖고 초장동이라. 이래가 저 우암동이든강 거기도 있어. 그 소

막걸. 그래 붙이가 그냥 소막골. 소막골 이랬거든. 소를 매어놓는 데. 여도 지금 현재 소막걸이 있는데, 거기 육이오(6·25) 때 피난민들이 와서 자리잡고 이래 하다보이 한 집, 두 집. 그 소막걸이라 하는 그 건물이 지금 셋 집이 살고 있어. 지금 세 가구. 현재 그 건물이 살아있다고.

그런데 인제 여기 있는 초장동 소막걸은 뭐냐 하면, 왜정시대는 요 뒤에 밭이 있어가지고 밭을 맸고. 육이오(6·25)사변 때는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그기 점점 없어졌어. 소가. 그 소가 뭘 했나 하면, 자갈치 나가가지고 하동, 하동 저런 남해안 쪽에서 숯하고 장장, 불 땔 수 있는 장작하고, 숯하고 장작 이런 게 목선으로 자갈치에 왔어. 그걸 받아가 여게 있는 소가 그걸 끌고 장터로, 저 부평동까지도 가고, 저 대신동 골목시장까지도 구루마로 해가지고 가고. 그 역할로 했다고. 소막골에 있는 소들이.

그러다 보니까 피난민들이 자리 잡아뿌니까 소 주인들이 이제 자기 집에다가 마굿간을 해 나놓고 인제 아침 일찍이 자갈치 나가면 자갈치에 소들이 많애. 그도 번호가 있겠지. 소 번호가 일, 이, 삼, 사, 번호 순으로 해가지고 장작 같은 거를 구루마에다 싣고 딸랑딸랑하고. 소 앞에 목에 요령 있잖아. 그기 이제 쉽게 말하자면 자동차 클랙션이나 한 가지라. 딸랑딸랑하면 '아, 뒤에 소 구루마, 소나 말 구루마가 오는 갑다.' 해서 피하고 그랬거든.

그래 그런 역사가 있으면서 요 현 초장동 동사무소 옆에 보면 지금도 건물은 새로 지어삤는데 장소는 있어. 지금 현재 초장동사무소 옆에 보면은 어린이집이 있어. 초장동 어린이집 그거. 지금도 애들 어린이집인데, 거기 왜정시대 야학, 공부 가르쳐주는 야학, 그게 이름이 양산학교라. 이 뭐 정식으로 무슨 초등학교 그게 없고. 양산학교라고 이름을 붙여갖고 그 공부 못한 사람들, 글 모르는, 그 야학도 하고 그랬어.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선생되는 분들은 군에 가야 되고, 학교가 그냥 없어져삤는 기라. 양산학교라는 학교가 없어지고 거기 처음으로 동사무소가 섰다고. 고 자리에 초장동사무소. 대충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여기서 나고 여기서 컸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흘러온 역사. 또 내가 들은 거. 내가 눈으로 봔 거. 이런 거로서는, 내가 지금 아는 대로는 대충 그래. 동네 역사가.

[서구 설화 279]

도깨비에게 홀린 사람

이시우(남, 1942년생) 구술
2020년 2월 1일 채록
[충무동 산해경로당]

그걸 뭐라 하노? 여 시에서 하는 거. 그 천마산 꼭대기까지 가는 거. 사람 타고 올라간다

고 하는 거. 그 영어로 해싸서 모르겠더라. 그 시발점이 여기 사람들은 새터라 했거든. 새터. 그 조그마한 봉우리를 돌아가. 이 돌아가는 새터라 하는데 거길 돌아가면은, 우리는 보지는 못했는데 소 잡는 데가 있어. 소 잡는 데가. 내 친구 배우진이라 하는 그 친구의 삼촌이 낚시를 좋아했는데, 그래 이거 물대밭에 낚시를 다니다가 밤 늦게 글로(그곳으로) 오다가 아마 여기서, 소 잡는 데서 도깨빌 만났던가 봐. 그래, 이 사람이 졌어. [조사자: 씨름을 졌어요?] 씨름을 했다는데, 졌는데.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댕기면서 지금 산복도로 난 거기에 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운동을 했다고. 축구 시합도 하고 야구도 하고. 편을 갈라가지고 에이(A) 비(B) 팀을 해가지고. 그 할 때 보면 이 친구 집이 밭쪽으로 쪼그마한 창문이 나가 있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보면, 뭐라 그럴까 머리는 뭐 귀신처럼 해갖고 뭘 음식을 주면 손으로만 받아묵고. 내 친구의 삼촌인데. 그래가 물으니까 그때 낚시를 가면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 지금 돼가 있는 감천항. 지금은 감천강 거기에, 지금도 모지포라 할꺼야. 거기 사람들이 몇 안 살고. 그 낚시하기에 참 좋았어. 지금은 매립이 되어갖고 마 부두가 되었는데, 그 감천항 그기서 낚시를 하다가 돌아오다가 그래 됐다 이기라.

지금은 내가 한 번 가봤어. 한 번 가봤는데, 이 건물이, 소 잡던 그 건물은 없어지고 그 터는 있더라고. 그 부근에서 천마산 꼭대기까지 에리베이턴가 그런 거, 그게 출발하는 거 같더라고. 지금 시중에. 그러면 저 위에 천마산 만댕이에(꼭대) 올라가면은 탑이 있어, 댈탑. 저 영도로 넘어가는 저 전기선 댈탑. 거기 옆에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놀러 올라가고, 여기서 초등학교 소풍도 다 천마산에 가고 이래할 때 보면 우리는 평소 때도 천마산에 놀러가니까 고게 장사 발톱이라는 게 있어. 거기가 저 천마산에서는 제일 험한 절벽이라. 돌로만 돼가 있는 기. 그 산꼭대기에. 거기 보면 우리 궁둥이 딱 들어갈만 해. 어렸을 때. 꼭 파져가지고 물이 있는데, 물이 보이는데 거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안 없어져. 올라가면. 막 이끼가 끼어 있으면서도 물이 고여 있더라고. 천마산 거기는 좀 신비로운 데지. 장사발톱이라는 데가.

[조사자: 그러면 그 귀신 들린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서 여기가 도로가 나버렸다고, 여기가. 여 우리 놀이터 하는 거기에. 도로가 나면서 이 사람들은, 내 친구는 친구대로 이사를 가고. 마 돌아가싰겠지. 내 친구하고 내하고 지금 팔십이니까, 그 분이 살아계시도 백세 가까이 되겠지.

그래가 하여튼 정신이상자 겉으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미친개이[120] 같으면 온 동네 떠다니는데 이 사람은 묶우지도(묶지도) 안 하고 그냥 딱 닫아놨는데,

"왜 너거 삼촌이 저렇냐?"

하이, 이런 식으로 고기 낚시 갔다가 그래 됐다면서 사람 멍청해져삤는 기라. 말도 안 하고. 우리가 쳐다보고, 조카가 '삼촌' 하이까, 우리도 '삼촌'하면서 같이 이래도 대답도 없고. 그냥 멍청하이 사람을 보는 기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도 아이고. [조사자: 씨름을 졌어요?] 자

120) '미친개이'는 '미치광이'의 방언

기 말로는 씨름에 져서 그렇게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라더라고.

그래가 집은 우째 찾아왔냐 이라이까, 내 친구 배우진이 말로 빌리면은, 새벽에 들어오는데 홈빡 젖은 상태에서 말도 올키(옳게) 못하고 '엉엉' 이라고 혼이 빠졌지. 쉽게 말해서. [조사자: 완전 홀려가지고.] 그런 거는 인자 우리가 직접 봤고. 중학교 다닐 때까지, 고등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봤거든. 여기서 우리가 뛰어놀고 했기 때문에.

[서구 설화 280]

욕심 많은 영도할매

이시우(남, 1942년생) 구술
2020년 2월 1일 채록
[충무동 산해경로당]

우리가 여기서 영도할매를 알기는, 저 할매가, 보면은, 여서도 보면은 보일거야. 할매 저 비석이. 여짝을 보고 있다고. 요 육지를. 저 골짜기에 영도할매를 모시났는데. 영도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여 할매가 보호를 해서 사는 건지 뭔지는 몰라도 살어.

사는데 이 섬이다 보니 육지에 건너와서 살고 싶은 갈망이 생긴다고. 영도 주민들이. 그래가 영도에서 좀 돈 좀 벌었다 싶은 사람들이 이 영도다리를 건너서 남포동을 오든, 뭐 초장동을 오든, 대신동을 들어가든 나오면은 못 산다. 망한다. 그런 전설은 있어. 그래서 영도에서 벌인 돈은 영도에서 소모를 해야지. 그 돈을 가지고 뭍으로, 일종의 여기 육지라. 육지로 나가면 할매가 노해서 못 살게 만든다. 이거지. 그런 게 있고.

[서구 설화 281]

고구마를 처음으로 재배했던 영도

이시우(남, 1942년생) 구술
2020년 2월 1일 채록
[충무동 산해경로당]

나도 영도에는 뭐 잘 안 가봐서 그런데, 한 번 저 친구 따라서 가니까, 거기에 그 고구마, 우리나라 처음으로 고구마가 들어올 때 조암[121]이던가 그래. 조암 씨인가, 일본에서 고구마

121) 조엄을 잘못 말함. 영도 조내기마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고구마를 재배했던 곳으로 1793년 일

씨를 가져와갖고 묻은 자리가 저 동삼동. 거 가니까 농사지었다 하는데, 그 밭이 아직 있더라고. 아주 오래된. 거기에 일본에서 고구마를 처음으로 가져와가 심어가지고 인제 우리 국내 다 퍼트린 거라. 영도 그기 제일 시발점이라. 조암씬가, 그래 그 일본에서 고구마를 가져와갖고 영도 그 처음으로 거기 심어본 거라. 그래가 우리 농토에 맞더라 이래가지고 각처로 분배가 되어갖고 지금의 고구마가 된 거지. 여가 시조라. 고구마 시조. [조사자: 영도가?] 영도가.

[서구 설화 282]

우암동의 유래

이시우(남, 1942년생) 구술
2020년 2월 1일 채록
[충무동 산해경로당]

[조사자: 우암동에 소막 얘기는 또 뭐였죠?] 그거는 왜정시대. 거리가 머니까 잘 모르겠어. 거도 부산에서는 소막골이 우암동 거기가 제일 컸어. 지금도 아마 있을 거야. 거 제일 큰데, 그거는 인제 우리 여 초장동 소막골은 생계용이고 살기 위해서 자갈치에 짐도 싣고 생계용이고. 거기 꺼는 일본놈들이 잡아묵는 거. 그런 용으로 그 시골에서 뺏아와가지고 인자 거다 매 나놓고 그랬는갑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암동 저쪽을 적기라 불러. 적기. 적군의 비행기. 우리가 적기, 적기 하면서도 왜 저짝 동네를 감금시키면 바다 건너지. 적기, 적기 그래 불렀다고. 우리가 그 동네를 부르기를.

[서구 설화 283]

아미동 화장터

이시우(남, 1942년생) 구술
2020년 2월 1일 채록
[충무동 산해경로당]

아미동 거기 보면, 하나는 까치고개로 넘어가고, 고 삼거리 아인가배. 파출소 있는 자리. 거기 조금 올라가면 사회기독관인가 하는 게 왜정시대 화장터라. 거기가 당감동 가기 전에 거기 화장터라고. 그러면 요기 사람들이 가까워. 화장하기는. 그러면서도 돈이 없어 못 가는 사람은 어디를 가느냐. 저 뭐라 하냐. 저 아파트 지어난 자리, 송도. 송도상고 앞쪽을 보면

본 통신사 정사였던 조엄(趙曮)이 대마도로 가서 고구마 씨앗을 동래부사에게 보낸 데서 비롯되었다.

조그마한 야산이 있어. 그도 사람들이 천마산 줄기니까 거기도 천마산이라 그라지.

거기는 지금 서민아파트라고 지어놨는 데 있어. 134번이 쪽 산복도로로 가다가 거기서부터 쭉 둘러가 저 아이시호로 내려가는데, 거기 가면 천마분교가 있어. 천마 남부민동에서 아마 갈라졌지 싶어. 천마분교라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서 있는 아파트나 분교나 그 다 전부 다 묘지라. 묘지. 근데 이름도 없어.

돈이 없어 화장터까지 못 가니까 밤중에 이쪽을 가서 묘지를 쓰는데, 내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시갖고 이제 묘를 쓰러 갔는데, 그것도 밤중에 남 모르게 가는 거지. 지게다 지고. 지금 맨치로(지금처럼) 그거를 못하고. 이제 못 사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그래 가보이까 묘 쓸 자리가 없어. 전부 묘지라. 좀 평지 같은데 이래 곡괭이로 갖고 해보니까 안에서 뼈대가 나오는 기라. 그러께 거기 보면 아파트 쓴 자리 거기에, 묘 우에 이래 다 써나 있으께 자리가 없잖아. 그러면 봉우리가 좀 얕은 데 골라서 파보면은 그 안에서 또 나와. 누구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다 써버리고 쫓아 도망 오는 거라. [조사자: 하도 못 사니까.] 어. 못 사니까.

[조사자: 아미동 가니까 귀신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왜정시대, 여기 아미파출소 바로 옆에 사회기독관인가 하는 고기가 화장터다 보니까. 여 이제 태우고 나면 그 시신들이 거거이(그것이) 있을 거 아인가배. 인분이 나올 거 아이가. 사람 갈릴고가. 그래서 저 아미동 까치고개, 거기 가보면은 전신에 전에 비석, 비석 그거는 왜놈들이 해놓은 거고. 한국인은 돈이 없어 비석을 못하고. 가루만 아무 데나 뿌리뿌고 집으로 다 돌아가는 기고. 왜정시대 일본놈들은 그 묘지를 썼는데, 그게 현재 피난민들이 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거기 살고. 묘비를 쓰러뜨려가 축대로 만들고, 방을 만들고, 거 일본놈들 시신 위에 방 만들어가 지내고. 지금도 그 사람들 살고 있는 자리 밑에는 왜놈들의 그거 저 시신이 누워있다고 봐야지.

[서구 설화 284]

일찍 매장해서 이승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들

김하자(여, 1939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충무동 산해할머니경로당]

인자 어느 통영이라. 통영 거게 요래 시골인데, 그래 그 마을에서 그래도 행세깨나 하고 사는 집안에 아들인데, 몇 대를 이렇게 와 외동을 내려오는 거 안 있나? 그거를 뭐라 하노. [조사자: 독자.] 어, 독자. 독자 애들로 몇 대를 내려오고, 그 아들이 또 하나 있었는 기라. 그래 참 아들 하나니까 귀하게 키았어. 이렇게 험한 일도 안 시키고. 이렇게 잘 키았는데 마 병

이 났어. 병이 나갖고 마 죽었는 기라.

죽었는데, 이 와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이틀 삼일 놔놓잖아. 놔나면 또 다부(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양반이 마 아들이 죽고 나이께네 정신도 없고 마 그래서로 하룬가 이틀인강 지나고 저저 땅에다 묻어삐맀어. 그랬는데 한참 있다가 인자 꿈에 아들이 딱 나와가지고,

"엄마 엄마 세상에는 내가 집에 오니까 늦어서러 아무리 대문을 뚜드리도 엄마가 말이지 문을 안 열어주서러,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밤새도록 뚜드리다가 그냥 마 시간이 되어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엄마 갔다. 내가 울면서 갔다."

이라 카더란다. 와이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노.

"아이고 그랬구나. 세상에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우째 할꼬. 아이고, 그랬구나."

하면서, 너무 억울해서로 자기가 잘 몬해서 돌아온 아들 그 안 묻었으면은. 그러니까 와 요새 사람이 죽으면 항상 이틀씩 삼일씩 놔둔다 아이가. 그래서 그 유래가 있어서 그랬다 하네. 그랬다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같은 날 죽은. 저거 아들하고 같은 날 죽은 아들이 있는가? 저짝 어디 동네도 초상을 쳤으니까 그 집을 한 번 찾아가 봐라. 그 집에도 그 아들이 그래 이야길 하는가."

그래서 이 양반이 찾아갔어. 그 엄마가 찾아가서 물으니까 저거 아들하고 같이 죽은 사람이 있는 기라. 근데 그 사람은 살아서 돌아왔는 기라.

"그래, 우리 아들이 이랬었다."

"아이고, 내가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래 거로 가니까, 인자 뭐로 하나 여기는 오면은 시간이."

안 올 사람이 올 수도 있대. 그렇기 따문에 밤에 이 화장을 하고 자기나(자거나), 세수도 안 하고 자면, 이러면은 잡으러 온 사람이 착각을 해갖고 이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 이렇게 얼굴이 좀 그래싸니까 이 사람을 잡아갈 수도 있대요. 그 귀신이.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서로 자기도 죽었는데 그날에. 그래 그날엔 우째 된 판인지 어떤 청년이, 내나 이 집 아들이라. 요게서 있다가 그냥 다부 우리 이 세상을 내보내주는 사람은 요게 표시를 하나 해나놓고 나가야 된다."

고 하더래. 저승에 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는 이 죽은 아들이 이 사람 보고는,

"당신은, 요래 나무 있제? 큰 나무가 있으면 밑에 와 동그래하이 저저저 그거로 싸잖아. 와 이래 뭣고? 이래 나무가 요래 서 있으면 가세(가에) 요래 동그래하이 돌로 요만큼 싸가지고 물도 좀 안, 그거로 싸라(쌓으라)."

하더래.

"쌓고 가라."

카이께네, 이 죽은 사람이 외아들로 너무 곱게 키아가지고 그런 일로 안 했대요. 안 해놓이께네 시간이 있는 거라. 거서도. 그러니까 그거를 싸니까 또 어그러지고, 또 어그러지고 이러니까, 아이고 너무 자기가 안타까워서 그 같이 죽은 사람이 사람은 모르는데 자기는 이제

나가야 되는 기라.

"나간다."

카고, 이래 서가 있으니까, 같이 갈라고 서가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거들었대.

"요곳에는 오면은 절대 저, 본인이 해야 되지. 요기 이 세상 모양으로 이렇게 안 된 사람 도와주고 이런 거 없고.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꼭 쌓지. 그거는 손대지 마라."

카고,

"시간이 없으니까 당신은 빨리 나가라!"

카더란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로 자기가 나오면서 보니까 또 몬하고, 몬하고. 그랬는 거를 보고 왔다."

이라더래. 그래놓으니까 그 어머니가 그쟈? 그 살 아들을 거다가 묻어다 놓이께네 마 그래서로 우리가 유래를 보면은 이틀씩 사흘씩 나아놓는 기 그래서 나아놓는다고.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 [웃음]

[서구 설화 285]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박윤금(여, 1930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충무동 산해할머니경로당]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선비라. 내- 책만 보고 앉았고 너무 가난해갖고, 마누래 만날 논에 피를 뜯어가 말라갖고 그래 죽을 쒀가 먹고 하는데. 하루는 피 뽑으러 가논께네 비가 되게 오더란다. 피를 늘어놓고. 그래 오니까 진짜 그 남자 책만 보고, 그 선비가 책만 보고 피가 둥둥 떠내려가도 안 걷어놓더라요.

그래가지고 보골나서 가삤대, 여자 고마 가갖고 딴 데 가삤는데, 그래 그 여자가 가고 나니 남자는 과거 급제 해가지고. 저기 논에서 피를 뽑더란다. 보니까 자기 본여자더란다. 그래서,

"저 마누래, 오나가나 피 뽑네."

라는 말이다.

[서구 설화 286]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박윤금(여, 1930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충무동 산해할머니경로당]

신랑이 어데 가고 엄꼬(없고). 그래 시어머이로, 앞을 몬 보는 시어머이가 있는데 돈이 없어 반찬을 몬 사갖고 만날 수채구녁(수챗구멍) 지렁이를 삶아갖고 국을 해드리께네,

"맛있다, 맛있다."

카고, 그 지랭이를 껀져갖고 딱 자리 밑에다 옇놨다가 아들 온께 보여주더란다.

"야야, 이기 뭔가 함 봐라. 이 국이 너무너무 맛있다."

카더래. 그래 아들 본께 지렁이더라 카대. [청중: 아이고.] 난 그거밖에 몰라.

[서구 설화 287]

상사뱀

박윤금(여, 1930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충무동 산해할머니경로당]

실제라. 우리, 나 처녀 때인데 막 구경 간다꼬 야단이대. 진주 고은이 있거든. 고은에다가 그 여자를, 처녀를 잡아다놓고. 뱀이가 탁 요리 요 [턱을 가리키며] 붙어가지고 기집애가 우니까, 눈물로 촉촉 받아묵고 어, 화장실 간다 카면 떨어져 나앉고 그라더란다.

그래서 모두 구경가고 그라는데, 결국 기집애하고 뱀하고 물에다 집어넣어삤다 안 카대. 난 그거밖에 몰라예. [조사자: 사람들 다 구경했는가예?] 그러는 실제로 그랬고. 그거밖에 몰라.

[서구 설화 288]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최정남(여, 1930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충무동 산해할머니경로당]

꽂감은 와 그렇노 하냐면, 호랑이가 옛날에는 사람을 잡아먹어 해칠라고 딱 문 앞에 가서 있으께네, 아가 자꾸 울거든.

"꽂감 주꾸마, 꽂감 주꾸마."

카께네, 아가 안 우는 기라. 호랑이가 딱 와가, 거 와가지고 아 잡아물라고 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꽂감 주꾸마, 꽂감 주꾸마."

카께, 아가 안 울거든. '내보담 더 무서운 사람이 곶감인갑다.' 싶어서 도망을 가삤더란다.

[서구설화 289]

짐승 말을 알아듣는 사람

최정남(여, 1930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충무동 산해할머니경로당]

짐승 말 알아듣는 거는 뭣고 하는 거 같으면. 사또가 됐어. 옛날에. 신간 사또가 옛날에 안 있나? 사또. 사또가 돼갖고 이래 있으면은 그 학자들이 많이 모이는 기라. 사또 집에 많이 모이께네, 우찌 돼나 하는 것 같으면, 거서 모이는 학자가 짐승 말로 참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카는 기라.

'하, 짐승 말 잘 알아듣는 게 우째 있는가?' 싶어서 맹맹이[122]라꼬 안 있나? 만날 이래 좋은 집에 제비매이로(제비처럼) 요래 집을 지어갖고 사는 기 있는데, 새끼를 낳아갖고 있는 기라. 그게. '이 새끼를 내가 숨카놓으면은 이기, 아마 새끼가 없으께네 안 짖것나.' 싶어서 그래서 새끼를, 도사가 이 사람이 참말로 짐승 말을 잘 알아듣나 안 하더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거를 갖다 숨카(숨겨)삤는 기라. 새끼를 한 마리 숨카삤는 기라. 그러께,

"껙껙껙껙껙껙."

울어쌌거든. 그 사람이 온께네,

"그래, 자네가 짐승 말로 잘 알아듣는다 카께, 저기 제비가 무슨 소리를 하는고 당신이 아나?"

카께네,

"아이고, 사또님. 신간 사또, 중의 자석(자식) 내 새끼 내 놓소. 내 새끼 내 놓소."

이라 칸다 하는 기라.

"신간 사또, 중의 자석, 내 새끼 내놔라, 내 새끼 내놔라."

122) '맹맹이'는 '칼새'의 방언.

사또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신간 사또, 지가 신간 사또가 됐는데 중의 새끼라 카거든. 저거 아버지가 중, 중의 새끼라 카께네, 얼매나(얼마나) 창피를 안 당했나.

그래가 저거 엄마한테 가 큰절로 똑 하면서.

"어머니, 내 아버지를 찾아도라."

고.

"내 아버지가 누구냐?"

카께네,

"옛날에 자석을 몬 낳아서 중이 온 거를 갖다가, 지가 겁탈을 해가지고 닐로 낳았다,"

이러는 기라. 그때사 손을 치면서 [손뼉을 치며] 그 사람을 갖다가 신간 사또가 짐승 말 잘 알아듣는 사람을 급수를 올려주더란다. 그게 끝이다 인자.

[서구 설화 290]

호박 키우다 상사병에 걸린 딸

최정남(여, 1930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충무동 산해할머니경로당]

이 딸이, 참- 딸로 하나, 외동딸로 낳아논께 억수로 귀하거든. 귀함서로 마당가에다가 호박을 한 뭉댕이 숨구주면서(심어주면서), 호박을 한 뭉댕이 숨구주면서,

"요거는 니가 가꿔가지고 니가 인자 해라."

카께네, 야가 오줌만 마려우면 그 호박 구덕에 가서 오줌을 누는 기라. 마당가에 있어 논께네, 촌에. 오줌만 누룹으면 거 가서 호박을, 호박 구덕이 가서 누고. 지가 키운다고. 잘 키아본다고. 그래 했더만은 그래 호박이 딱 커가지고, 호박이 딱 한 덩가리 이래 여는 기라.

예쁜 호박이 한 덩가리[123] 여께네, 따물 것도 엄고(없고) 그러께네 누렁댕이가 되도록 나놘 기라. 누렁댕이 아나? [조사자: 예, 누우런 호박.] 누렁댕이가 되도록 나논 기라. 그래 딱 나놨다가 그래가지고 그기 예쁘다고, 옛날에는 집 실겅(시렁)이 있었거든. [조사자: 예, 선반.] 이리 이리 실겅이 있었는데 실겅 위에다 딱 얹어놓고, 얹어놨는 기라. 호박 그거를 얹어놓고.

저녁으로 아버지가 사랑방에서 와가 딱 디다보면은, 호박 그기 저거 딸 품에 딱 있는 기라. 저거 딸 품에. 아버지가 쫌 지식이 있는 사람이대. '아하, 이 큰일났구나. 그저 만날 오줌을 호박꽃에 놨는데, 그기 인자 나중에 상사병이 돼가 저기 이제 화해가지고 인자 변동이 되어가지고 우리 딸을 해꼬지 안 하것나?' 싶어서 호박 그거를 갖다 들으면 그놈이 딱 알거든. 쥐

123) '덩가리'는 '덩어리'의 방언,

도 새도 모르거로 고아가지고, 고아가지고 그 딸을 다 믹이고 난께네, 고마 상사병이 엄꼬, 고마 시집을 가서 잘 살더란다. 아버지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돼서.

[서구 설화 291]

사카린 넣은 쑥즙 먹고 시어머니와 자신도 죽게 된 며느리

최정남(여, 1930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충무동 산해할머니경로당]

옛날에 뭐꼬 하는 것 겉으면 그기 있었다. 시어마이가 배가 아파서 어? 호부질(효부질) 할라고 호부질 할라꼬, 배가 아파가지고 있는데 아침에 가가지고 쑥을 뜯어가지고 즙을 내가지고 씹어서(쓰서) 그따다가 사까리(사카린), 옛날에 사까리라고 있었거든. 당 기(단 것). [조사자: 사카린.]

사까리로 그따가 옇어가지고 시어마이를 드맀는 거라. 그거 낫울라고.

그러께네 시어마이가 사까리, 쑥물 그거를 먹고 고마 죽어삤는 기라. 그러니께 집안사람이 다 모이가지고 난리가 났는 기라. 독약을 믹이갖고 직있다고 말이지 난리가 났으께네, 그래,

"난 어머니 살릴라고 이리 이리 해가 쑥물을 해 믹있다."

카께네, 그러께네 옛날에는 법도 모르고 마 주먹을 가지고 다스리고 하네. 한 번은 그래하고 난께네, 똑 자기 한 대로 하라 카는 기라. 시동생이고 마 집안사람이 모이갖고 신랭이고. 그래가 인제 쑥을 뜯어와가지고 사까리로 옇어가지고 무께네(먹으니) 고 자리서 죽어삤는 기라. 그 사람이 고 자리서. 그렇게 초상이 둘이 나더란다. 그는 현실이라 카는 그기 그렇더라고. 그거밲에다.

[서구 설화 292]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최정남(여, 1930년생) 구술
2020년 1월 31일 채록
[충무동 산해할머니경로당]

저기 시님이(스님이) 동냥을 하러 가면은 이 뭣이로 갖다가, 에밀레종을 갖다 이래 만드는

데, 큰 종을, 종 치는 걸 이걸 갖다 맨드는데, 그 전에는 중이 댕기면서로, 그거를 저기 동냥을 해가지고 대니면서로 이래 하는데, 스님이 오가지고(와서), 중이 오가지고 목탁을 치면서,

"동냥 주이소, 동냥 주이소."

커께, 이제 여자가 까분다고 가시나를 업고, 손자를 업고 있다가,

"아이고, 우리 딸 봉덕이나 줬으면 줬지. 동냥 줄 게 없다."

카거든. 아 요래 추시니까 그래 마 가삤어. 그래가 이제 전부 다 동냥해가 온 거로 가지고, 그걸 뭐해서 돈을 만들어갖고 종을 맨들었는 기라. 종을 맨들어가지고 종을 치께네, 어느 절에서 종을 치께네 종이 다시는 안 우는 기라. 소리가 안 나는 기라. 그래서 중들로 모아가지고,

"너거가 오데 마을에 가가지고 너거 들은 소리가 없나? 너거 들은 대로 얘기를 해라."

하께,

"동냥해가 온 게 아니라 들은 대로 얘기를 해라."

카께네, 어느 중이 나서더만은 그래,

"아무데 아무데 집에 가께네, 그래 아로 추스리면서로 딸아로, 우리 딸 봉덕이나 줬으면 줬지, 동냥 줄 게 없더라."

카께네,

"그거를 갖다 잡아온나."

이기라. 아를 갖다가. 아 그거를 잡아가 오가지고 한테(한 곳)다가 고아가지고, 인자 쇠로 고아가지고 종을 맨드께네, 종이 울기를 우찌 우노 카면,

"에밀레, 에밀레."

요래 울더란다.

"에밀레, 에밀레."

지 애미 때민에 지가 죽었다꼬. 하모,[124] 종이 울리기로,

"에밀레, 에밀레."

이래 울더란다.

124) '하모'는 '그럼'의 경상도 방언.

3. 영도구 설화

[영도구 설화 1]

소 피를 무서워하는 도깨비

박옥연(여, 1947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교경로당]

과부가 도깨비하고 살았는데 저 뭣고? 부잣집에 가가지고 뭐주고 다 갖다 주는 기라. 근데 이 과부가 땅을 샀어. 땅을 사이까네 이 과부가 인자 쪼까 밑이 붙었는 거 떼묵을 건 다 떼묵었는데 뛸라니까(떼어내려니까) 띨 수가 없는 기라. 그래 어느 무당집에 물어보러 갔어.

"그 사람을 띨라 그러면은 소 피로 광목에 묻혀가지고 늘어놓으면은 안 온다."

그러는 기라. 그래서 어느 날 턱 도깨비가 인제,

"여보, 여보."

이라니께,

"어."

이라니께는,

"내가 천도복숭아."

그때 옛날에는 천도복숭아가 참 귀했거든.

"천도복숭아 좀 가 오소."

이라니께는,

"와."

이라니께,

"나 아 뱄소, 지금."

임신을 했으니까네, 그때 임신이라 안 하고,

"아 뱄으니까네 좀 가 오라."

이라니까네,

"그라몬 니 아 가졌응께 내 가야지."

이라면서, 갔는 사이에 이 년만에 왔어. 그 천도복숭아를 따고 오니까네 피를 빨가치(빨갛게) 뿌려놨거든. 이라니까는 도깨비가 몬 들어가는 기라. 그래 천도복숭아를 탁 던져주면서,

"아나. 여 있다."

이캤는데, 땅 사놘 거 안 있나? 그래 그 귀신이 들어주는 거는 땅을 사라는 기 그기 맞아.

말이 그러니까네, 달은 훤한데 도깨비들이,

"으쌰 디샤, 으쌰 디샤." [웃음]

땅 띠가 갈라고(떼어 가려고) 그래 땅이 몬 띠가가(떼어서) 부자가 됐다는데 그런 전설도 있고.

[영도구 설화 2]

조카보다 어린 삼촌

박옥연(여, 1947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교경로당]

옛날에 아들이 마이 낳았잖아, 엄마들이. 아들이 마이 낳고, 시어머니도 아를 마이 낳았는 기라. 그러니까네 조카하고 호적이 먼저 돼 있고 삼촌이 뒤에 왔는 기라.

그런데 조카가 군대를 갔어. 그러고 뒤에 삼촌이 갔어. 조카가 가서 대장이 뽔는 기라.

"앞으로 가이소. 뒤로 가이소."

이라는 걸,

"앞으로 오이까. 뒤로 오이까."

이카니까네, 문디 저기서 키 쪼끄만한 저거 삼촌이 왔거든. 가란 소리 몬 하고,

"앞으로 가이소예! 뒤로 가이소예!"

이카거든.

"마! 훈련 쪽빠리(똑바로), 그럴 겨(그렇게 할 것이여)?"

이카니까네,

"말도 마이소예. 삼촌이 왔어예."

[웃음] [청중: 우리 삼촌이라고.] 응, 삼촌이 와서 말로 못 놨는 기라.

[영도구 설화 3]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박옥연(여, 1947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교경로당]

메느리가 묵을 거는 없고나 어무인데(어머니한테) 줄 꺼는 없어놘께나(없어서),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어무이요, 이거 잡수이소.”

하고 만날 준께나, 살이 찌고 이래나이께 마 지짐 뭈어(‘그냥 먹었다’는 의미). 마 지짐 뭈어. 저기 논에 지렁이. 여꺼(여기 것) 있는 거 말고. 그래가지고 그걸 묵고 해나놓이까네, 살이 풍둥풍둥 찌고 이라이까네, 아들이 어데 갔다가, 옛날에 아들이 몬 사니까나(못 사니) 장사를 나가잖아. 그래 아들이 온께, 저거 엄마가 퉁퉁하이 이래 있으이,

“어무이, 뭐 묵고 이래 살찟는교?”

하이,

“아이고, 야야. 메느리가 뭘 줬는고 내가 이래 그거로 하다가 장판밑에.”

한 개썩 묵꼬 장판밑에 여놓는 기라. 그래 낸중 지렁이가 그거래. 보약이다. [조사자: 눈을 번쩍 떴다던데.] 응, 그래. 그러이께나,

“어머이, 지렁이네요.”

하이, 번쩍 뜨더라 안하나.

[영도구 설화 4]

인색한 시아버지 몰래 동냥 준 며느리

박옥연(여, 1947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교경로당]

강원도에 저 저 아 업고, 그래 스님이 동냥하러 와가지고 최씨네 집에, 부자네 집에 뭐 동냥하러 오이까네 시아바지가 내쫓으라 그랬는 기라. 응 동냥은 일체 몬 하게 어찌나 시악하든지, 그래 아를 업고 이래 거하거든. 시아바지 모르게 탁 퍼주니까네, 저 가면서,

“이 길로 뒤돌아 보지 말고, 그래가지고 뒤도 보지 말고 그래 가라.”

고 캤는데, 어찌 어찌 올라가니까네,

“불이야!”

거하거든. 그라니까네 그때 보지 마라 캤는데,

“불이야!”

하이까네, 아 업고 그래. 그런 전설이 있다.

[영도구 설화 5]

턱이 없는 도깨비

오숙자(여, 1942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교경로당]

우리 동네에 샘이가 이래 하나 있었거든. 동네 그 복판에. 밤만 되면 그게 인자 물 뜨러 가면 뭣이 저,

"물 쫌 줄라."

이라거든. 주면 물로 이래 틱- 흘리고 이란단다. 그래,

"아래텍(아랫턱) 털컥, 아래텍 털컥."

진짜 그랬다 그는(그곳에는). [조사자: 아래텍 같으면?] [손으로 턱을 가리키며] 아래텍.

그런 샘이가 있었다고. 그 샘에는 밤에 열두시 돼가 물 뜨러 가믄 그기 딱 나와 있단다. 그래가지고 물로 뜨면, 물로 좀 주먼(주면), 이 밑에로 쭉- 흘리면 그래가,

"물로 와 흘리냐?"

이라면은,

"아래텍 털컥."

'아래턱이 없다'. 이 말이라.

[영도구 설화 6]

떡 장사 할머니와 호랑이

오숙자(여, 1942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교경로당]

떡 장사가, 옛날에 할매가 떡을 이고 이래 산턱으로 이래 올라, 딸네 집에 간다 하든가 이래 가는데, 호랑이가 나와가지고,

"할머니 그거 뭐요?"

이라이까네 그래,

"떡 좀 주면 안 잡아먹지."

이래가지고,

“떡은 안 되고 그라면 날로 팔을 하나 띠가라.”

이래가, 또 팔 띠가고, 또 가이까네 또 그 호랑이가 나와가 또 그래가 또 팔 하나 띠가고, 낸중에 다리고 다 띠가고. 그래가지고 뭐 또굴또굴 구불러가지고(굴러서) 딸네집으로 갔다고 그런 말도 있어.

[영도구 설화 7]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오숙자(여, 1942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교경로당]

옛날에 와? 그 중이 에밀레종 만들라고 그 마을에 인제 쇠겉은 거 이래 이래 인자 걷으러 가는데, 그래가 어느, 어느 아짐네(아주머니네) 집에 가이까네,

“아이고, 쇠는 엄꼬(없고) 우리 알라 이거로 줄 낀께(줄 테니) 가가라(가져가라).”

이래가, 알라(아기) 그거로 가와가(가져와서) 쇳물 끓는데다가 옇었다 안 하나. 그 에밀레종 만드는 데. 아를 그 끓는 쇳물에 옇어뿠다 안 하나.

그래 그 종을 만들었는데, 그 종이 인자 그래 울리면, 신라 그 에밀레종.

“에밀레, 에밀레.”

“엄마, 엄마.”

하는 머리에(의미로), 그래 에밀레, 그래 한다고.

[영도구 설화 8]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임경옥(여,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교경로당]

옛날에, 옛날에 칠십 살 되면 고래장 했잖아요. 그래가 인자 70살이 됐어. 요새 전부 다 우리가 고래장 할 깜들인데 세상이 좋아서 이래 있다.

칠십 살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턱 지고, 아들보고 올라가자 해서 탁 지고 올라갔거든. 딱 이래 아부지 탁 이래 그 내려놓고, 그래놓고 인제 그 지게를 아들이 다시 지고 내려오니까 아부지 한단 말이,

"야야, 그거 왜 내려놓지, 내삐리고 오지. 왜 또 갖고 왔냐?"

하이까나,

"또 이 담에 아부지 나이 들면 또 짊어지고 올려다 갖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인제 아부지가 '아이고! 이 짓을 인제 해가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고래장이 없어졌대. [청중: 총기 좋아서 얘기 잘한다.]

[영도구 설화 9]

코끼리를 협박한 개미

임경옥(여,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교경로당]

여름에 코끼리가, 커다란 코끼리가 덥자 낮잠을 탁- 자고 있는데, 개미가 '아, 날이 참 좋소. 서늘하이 산으로 등산을 한 번 할까,' 니꾸사꾸(배낭의 일본말) 탁 메고 보니까 언덕이 있는 거라. 개미가,

"응차 응차, 응차 응차, 응차."

올라가거든. 그래 언덕에 숨이 차잖아, 힘들잖아. 그래 거 탁- 해가지고 떡 앉아있는데, 코끼리가 누워자는데 뭣이 코가 간질간질하거든. 이래 보니까 개미 새끼가 막 거서 있거든. 그래니까는 코끼리가 있다가 이래 이래 막 터러럭 터러럭 터니까나 개미가 있다가,

"가만히 안 있을래? 발로 밟아가 탁 직이삘라 마!." [일동 웃음]

이라는 거야. 그래 날파리가, 하루살이가, 하루살이가 날라가다가, 여름에 하루살이가 날라가다가,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잖아? 날라가다 보니까 이 개미가 코끼리를 발로 탁 차며,

"마, 직이삘라."

이러거든. 그래가 하도 기가 차거든, 하루가.

"아이고, 오래 살다 보니까."

지가 하루살이, 억수로 오래 사는 거 같는(같은) 거야.

"아이고, 오래 살다 보니까 별꼴 다 보겄네."

이러고, 하루살이가 가더래.

[영도구 설화 10]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마음의 병

임경옥(여,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교경로당]

인제 옛날에 인제 선비들 할라면은, 왜 한양에 그거 시험 치러 갈려면은 배낭 메고 언덕을 언덕을 이래 넘어가잖아. 산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주막집이 있잖아요. 인제 한 잔 먹고 가야 될 거잖아. 배도 고프고 하니까 주막집 턱- 앉아가지고,

"주모, 막걸리 한 잔 주세요."

캐가지고, 주모가 막걸리 하나 탁. 인제 낮이 돼가지고 배는 고프니, 해는 저 중천에 올라갔제, 탁 이래 앉아있는데, 주막이 막걸리 한 잔을 탁 주는데, 선비가 막걸리 한 잔 해가 탁- 이래가 마시는데, 어이구 뱀이, 도마뱀이 입으로 쑥- 들어가.

"어어어!"

이러는 사이에 도마뱀이 쏙 들어가버렸는 거야. 그 질로 그 사람이 시험 치러 안 가고 이거는 실제적이야. [웃음] 실제로 그랬을 거야.

옛날에 그 왜 주막에 도마뱀 말라가 걸어놨다고. 주막에 옛날에. [청중: 약할라고] 응. 약할려고. 도마뱀 쪼까낸 거 있잖아. 꼬리가 이래갖고. 그기 인자 쏙- 들어간 거야. 그래 이 사람은 마 과거시험이고 뭐이고, 마 지 배에 지금 도마뱀이 들어갔는데 과거시험이고 뭐이고 도리(다시) 집에 와서 그길로 아프다고 드러누워 아팠는 거야. 이 사람이 아파서 꼬쟁이겉이 말랐는데, 자기 인제 친구가 그 이듬해에,

"이 사람아, 우리 시험 치러 가자."

이래 된 거라. 그 보니까 형편이 없는데,

"자네, 와 이렇노?"

하이까,

"내 작년에 시험 치러 가다가 주막에서 막걸리 한 잔 마셨는데 내 뱃속에 지금 도마뱀이 자라고 있어서 나는 시험이고 뭐이고 인제는 끝났다."

이러이까나, 그 선비가,

"그러면 오늘 다시 거 가자. 나하고."

이래된 거야.

"응, 다시 가자."

"그래, 니 어데 앉았노?"

하이까네,

"요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앉아라."

이러고 주모하고 인제 탁주를 한 잔 또 시키가 딱- 마시는데 또 들어가거든. 그래가 이 사람이 이번에는 마 탁 집어던지고는 마, 탁 떤지고 안 먹었는 거야.

"그래, 안 먹었제. 너 뒤쳐다 봐."

이래된 기라. 뒤에를 보니까 그집에 그 도마뱀 말린 거 꼬쟁이 말린 거 거(거기에) 걸려가 있더래. 그래가 인자 그 사람이,

"봐라, 이거 들어갔지. 니 뱃속에 도마뱀 들어간 거 아니야."

그래 마음의 병이라 카는 게 그만큼 겁나는 거라. 그래가 그 사람이 거서 인제 공부를 해가지고, 선비를 해가지고 암행어사가 됐대.

[영도구 설화 11]

도깨비불

임경옥(여,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교경로당]

도깨비가 왜냐면 이기 우리가 빗자리 같은 거, 우리 몸에 사람이 인이 있잖아요. 빗자리 같은 거 이리 자꾸 만지면은 이 인이 있잖아요? 빗자리에. 그래가 비가 오고 이러면은 어둡으면, 인은 밤에 반짝반짝 해.

우리 고기서 왜 칼치 인이, 칼치 같은 거 메루치 같은(멸치 같은) 거 반짝반짝. 그래가 사람 손에 만쳤던(만졌던) 이 도구들은 어두운 밤에는 반짝반짝하는 거야. 그래 그기 도깨비불이라 카고 그러지. 인이라 일종의. 우리 몸에 인이 있거든. 그래 사람 손에 때 묻은 거는 다 도깨비불.

[영도구 설화 12]

욕심이 많아 구렁이가 된 사람

정근순(남, 1937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교경로당]

그 옛날에 말이지 과거 보러 가는데 동래, 동래라. 동래 거 인자 행교(향교)에서, 아들이 세 명이서 행교에서 발탁이 돼가이고 세 명이서 인자 서울에 한양에 과거 보러 가는 기라. 과거 보러 갈라 쿠먼 공부를 해야 될 것 아이가? 그래가 범어사 올라갔어요. 범어사 올라가면 범어사는 과거 가는 아들, 과거 보러 가는 사람들 전부 다 방을 하나씩 주기로 다 돼가 있었거든.

그래가 방을 한 개 얻으러 가서 방을 하나 얻었다. 범어사에서 얻었는디, 그 세 사람이 갔는 기라. 김씨, 박씨, 이씨 이래가 세 사람이 간 기야. 그래가이고 방에 들어가가이고 거서 세 명이서 한 삼개월 동안 공부를 할 끼라.

그러고 인제 집에서 쌀은 가가야(가져 가야) 될 것 아인 가배? 옛날에. 쌀을 가가야 되는데, 쌀을 전부 다 짊어지고 이래가이고 한 삼개월 먹을 걸 짊어지고 왔어요. 갔는디, 그래가 가서 거서 밥을 해묵을라카면, 세 명이니까 세 사람이서 당번을 정해야 될 것 아닌 가배. 옛날에. 그래 당번을 정해서 밥을 해가 퍼는디, 밥이 맨날 처지는 기라.

한 사람이 인자 그날 들어오면 지가 밥을 해가 지가 퍼고 이랬는디, 인자 김씨가 밥을 하면 정확하게 딱 밥을 해놔놓으면 정확하게 똑같이 퍼요. 똑같이 퍼고. 이씨란 쿠는 사람은 인자 자기 밥은 조금 적게 퍼고 다른 사람 꺼는 조금 마이(많이) 퍼고, 또 박씨란 쿠는 사람은 그 인자 자기 밥을 마이 퍼고 딴 사람 밥 적게 퍼는 기라.

그러쿰 해놓고서는, 그러쿰 공부를 해가이고 딱 삼 개월쯤 공부를 해가이고 한양에 올라갔는 기라. 한양에 올라가가이고(올라가서) 시험을 봤단 말이지. 본께 김씨라 쿠는 사람이 제일 잘 시험 잘 봤어요. 그래 그 사람은 그 뭐이고? ○○저[125]되고 요즘 같으면 군수나 뭐 그런 게 됐어요. 되고 또 이씨라 쿠는 사람은 암행어사가 되고. 또 인자 박씨라 쿠는 사람은 그마 그 주위에서 그만 아무것도,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일이나 하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한 삼십 년이나 이래가지고서 고향에 인자 와야겠다 싶어가이고 김씨라 쿠는 사람이, 아! 이씨라 쿠는 사람이 떡 인자 암행어사가 친구한테 가가이고,

"아! 인자 고향 한 번 궁금한데 가자."

이래가지고 그래 가가(가서) 그서 만냈단 말이지. 만나가지고 술 한 잔 묵꼬(먹고), 정자 아래 술 한 잔 묵고 이래가, 저거끼리 허는 이야기가,

"이씨 이 사람은 통 소식도 없고 우예 되요?"

그래 됐거든. 그러쿤께 아! 박씨, 그러쿤께 박씨란 그분은 농사나 짓고 아무것도 못해. 공부를 몬 해가지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지 밥그릇에 지 밥만 마이 퍼고 이런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인자 이씨하고 김씨하고 인자 거서 떡- 한 잔 묵고, 이래가 그 사람 얘기가 나와 가이고 물은께, 이씨라 카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 김씨가, 군수, 김씨라 카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 여 마을 여, 여 있었는데, 여서 살고 있다."

125) 청취 불능.

그래 캤거든. 그러쿤께,

"아유, 오랜만에 만나봤으면 싶은데."

그러쿤께,

"아이고, 지금 부르면 당장 온다."

고, 그래 캤거든. 그러니께,

"그래 한 번 불러보자. 우리 셋이서 술이나 한 잔 묵꼬 오랜만에 한 번 만나보자."

회의해가지고 이제 불렀다. 그래 이씨란 사람이 인자 불렀는 기라. 아! 김 씨라 카는 사람이 군수라. 부른께 그 주막집에 그 마루 밑에서 큰 구렁이가 여(여기) 나오는 기라. 그래 이 사람이 우예 됐냐몬, 김씨라 카는 사람은 군수가 됐고, 이씨라 카는 사람은 암행어사가 됐고, 이 사람은 구렁이가 돼삤는 기라. 구렁이가.

그런데 말하자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욕심이 많애가이고(많아서) 밥 같은 거 퍼도. 그래 사람이 인자 그 얘기는 욕심을 버리라 이 말이야.

[영도구 설화 13]

도깨비가 되는 빗자루

김부연(여, 1948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평경로당]

도깨비한테 홀려서, 실컷 가서 그날 날을 새고 보이 빗자루 몽댕이, 빗자루 그 몽댕이만 남안(남은) 거로 요리 거꾸로 세아놘(세워놓은) 게 있고 그렇다 카네. 그기 도깨비라. 그기 도깨비가 나. 사람 손으로 이리 내- 때가 묻고 쓰던 거를 놔두면, 그 빛이 난께 그런가 그걸 도깨비라 캐.

[영도구 설화 14]

욕심 많은 영도할매

김부연(여, 1948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평경로당]

할매가, 돈을 벌이가 영도다리 넘어가면 부자로 몬 산다 하대. 말은 그래 쌌대. 할매가 욕심이 많아가.

[영도구 설화 15]

형체만 보이는 도깨비배

김성호(남, 1937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평경로당]

내가 사무장이었으니까, 배를 타봤으니까 아는데. 나는 누우자다가 못 봤는데, 일나니까 도깨비배 지나갔다 하더라고.

"그 도깨비베 어떻게 생겼냐?"

고 하니까,

"도깨비불은, 아! 도깨비배에는 죽은 밴데, 아무 것도 없는 형체만 보이는데, 그 보이는 사람만 보이는 데는 보이는데, 깜깜한 배가, 시커먼 배가 그냥 지나간다."

이거라. 그 유령선이라, 유령선 일종의. 난 몬(못) 봤어. 말만 들었어. 근데 저 바닷가 넓은데, 넓은 데 가야 있어. 이런 데 사람 많고 집이 많고 이런 데는 안 나타나요.

[영도구 설화 16]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김성호(남, 1937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평경로당]

아(아이) 울어싸면은 응,

"야, 호랑이가 잡아 묵는데, 응? 호랑이가 잡아 먹을라. 꽂감 줄게."

꽂감 주니까 호랑이가 도망가는 거야. 왜? 꽂감이 지보다 더 겁나는 줄 알고 갔다 이 말이야.

[영도구 설화 17]

영도를 벗어나면 망한다[영도할매 전설]

김성호(남, 1937)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평경로당]

고갈산하면 옛날 봉래산인데 일본놈들이 고갈산이라고 이름 붙였어. 왜? 고갈돼가, 말라 사서 말살해라 이 말이야. 응? 그래가지고 산마다, 봉우리마다 쇠말뚝이를 박았어. 정기를 끊는다고. 나쁜 놈들이야 그거. 그래가 정기를 많이 뺐잖아,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뺐는데, 이제 고갈산이 아니고 봉래산에 산신령 그 할머니가 살았어. 산신령이 살았어. 그래 인제 '영도에 사는 사람은 봉래산과 인연을 맺었으니 오래오래 살고 번창해라' 이런 뜻에서 다른 데로 나가면 사업이 잘 안 되고, 집안이 잘 안 돼서 다시 들어온다. 왜? 용심을 내가 시기를 한다 하는데, 사실 시기를 하는 게 아이고. 인연을 맺었으면 봉래산 영도에서 오래 살아라 하는 그런 전설이라.

그래 보이는데 가면 들어오게 만들고, 봉래산이 안 보이는 데 가면 괜찮다. 근데 실제 내가 여서 어, 열세 살부터 살아가 지금 팔십 세 살, 칠십 년이나 살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당한 사람을 내가 몇이 봤어요. [조사자: 어떻게?] 가서 잘 안 돼서 완(온) 사람, 사업하다가 안 돼서 완(온) 사람, 집안이 별로 안 돼서 완(온) 사람, 그런 사람 실제로 몇 사람 내가 경험을 했어요.

[영도구 설화 18]

도깨비불

김성호(남, 1937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평경로당]

도깨비불은 이 도시는 잘 없고, 저 촌에 가면, 섬에 가서 보먼(보면) 불이 번쩍번쩍 해. 응? 그러면 시골에 가면 번쩍번쩍. 그기 뭐냐 하몬? 거 가면은 사람 시체를 묻어가지고 놘데(놓은 데) 거 가로 인이 왔다갔다 하는 거야. 인이 왔다 갔다 하면 빛이 여서 번쩍번쩍, 여도 번쩍 여도 번쩍. 침침하고 바람이 약간 있으몬 마이(많이) 날라댕겨. 그게 도깨비불이야.

[영도구 설화 19]

절영도의 유래

김성호(남, 1937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평경로당]

대평동은 옛날에, 영도 전체는 절영도. 절영도는 한문으로 끊어질 절(絶), 그림자 영(影), 섬 도(島). 그림자가 끊어지는 섬이다. 무슨 그림자가 끊어지는 섬이냐? 그게 인자 옛날 신라 때 여서 말로 키웠어. 나라에서 말을. 목마장, 국마장이라 했어.

말을 갖다가 여러 수백 바리(마리) 키왔는데, 그 중에서 명마는 없는 거야. 저 중국에 그 뭐, 수호지나 그 삼국지 나오는데 그 뭐 적토마, 천리마가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건 없어.

사실은 절영마라 하면 됐을 낀데, 절영마는 없고. 그냥 명마라고 나와 있어. 역사에. '명마가 한 번 달리면 얼마나 잘 달리는고 그림자가 비쳤다 안 비쳤다 끊어졌다 해. 그래서 절영도.'라고 했다 하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봉래산 자체가 그림자가 안 보인다. 그림자가 끊어졌다.' 해서 그 설이 있고,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절영도.

[영도구 설화 20]

대평동 지명 유래

김성호(남, 1937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평경로당]

대평동은 1887년 일본 다나까라는 사람이 자갈치 쪽에 와서 쪼그만 철광소를 채리고(차리고)요, 조선소를 쪼끄만한 걸 만들어서 목선을 만들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목선을 왜 만들었느냐? 일본서 가져오면 며칠 걸리고 풍랑에 처하고 위험하니까. 지금은 배가 크잖아요? 그때는 짠짠한(작은) 배 20톤, 30톤짜리 고런 배가 목선. 이 고기잡이배. 여 고기잡이 마이 하니까. 그래서 그짝 자갈치는 물살이 좀 세고 영도 쪽에는 물살이 좀 안 세니까 이쪽으로 옮겼어요. 저 박사가 1887년에 다나까라는 사람이 저 충무동에서 했다가 영도로 온 거예요. 대평동에.

거서 그 다음에 다나까, 나까무라 도우가 이래 빵- 돌아가면서러 조선소가 생겨서 해방되고, 1945년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맡아가 지금까지 하고 있다. 백 여 년의 역사가 있

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영도 들어오면서, 옛날에는 이짝 바닷가 경찰서를 돌아오면 요만큼 선착장이 있잖아요? 그때 일본 사람이 만들은 거예요. 이 해안터를 일본 사람이 만들은 거예요. 응? 1916년부터 1926년, 10년간에 걸쳐서 십삼만이천육백육십 평방미터, 그쪽 인자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사만 이, 사만이백 평을 매립을 했어요. 매립 매축을 이래 해갖고 만들은 거예요. 근데 지금에 봤거든. 대충 바다 해안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대평동 요리 아래 통통했는데 이거를 매립을 해가지고 현재 모양으로 돼있는데. 그라면 이짝 경찰서 있는 계류장과 저 짝쪽에 계류장이 있어요. 그기 연결이 되어가 있어.

대평동은 영도섬에서 또 쪼그만한 섬이야. 그기 또 연결이 돼가지고 큰 다리도 없고 나무다리로 왔다갔다 했다고. 그래 이게 개발이 되면서 그 후에 매립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왔다갔다 했나면 사사마불이라 했어, 살마불. 이 뭐 저거가 붙이가, 저거 나라땅 이름을 붙여가, 큰 섬 남쪽에 있는 살마불이라 하는 그 사스마불이라. 그리 이름을 붙였어. 그 다음에 매립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없앴어. 그 신빙석이야.

그 후에 대평동 이래 만들어가지고 고기 잡으러, 바람만 불면 있다가 뭐 준비해야 하고 이래야 되니까. 대풍포는 바람을 피한다 해서 대풍포, 풍발포는 바람이 일어난다는 포구다. 그래서 풍팔포가 먼저고, 그 다음에 대풍포, 그 다음에 대평동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대평동이고.

[영도구 설화 21]

깡깡이마을로 불렸던 대평동

김성호(남, 1937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평경로당]

깡깡이는 목선에서는 없었고, 철선 있을 때 지금은 기계로 하지만은 옛날에는 철은 상하잖아요? 녹이 쓸잖아요? 녹이 쓸면은 구멍이 나면은 물이 들어오면 위험하니까 수명을 연장할라면 녹을 빼줘야 되거든? 그러면 지금은 그라인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인제 샌드, 뭐 브로크로 팍- 압축, 공구로 쏘고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 망치로 가지고 이래 막 뚜드렸어요. 땅, 땅, 땅, 땅. 그래서 깡깡이가 깡깡 소리 나서 깡깡마을이 됐고. 그 뚜드려가지고 인제 페인트로 칠하면 인제 오래 쓴다꼬.

[영도구 설화 22]

처녀로 변한 여우

박일순(여, 1937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평경로당]

어데 갔다 오다가 산에 여우로 만났는데, 그 간을 다 빼 묵고 뭐시 여시가 돼갖고, 아니 처녀가, 처녀가 인자 그라니까네 여시, 여우로 변했는갑더라. 그래 사람 만나면 전부 뭐 줄께 뭐,

"오빠 한 때(한 끼니라는 의미) 말 한 때, 오빠 한 때 말 한 때."

이리 묵고, 같이 묵고 가면서 또 말도 다- 빼 묵고, 사람까지 인자 간을 다 빼 묵고. 그래 갖고 뭐이 돼고 이리 그런 말은 있었다. 인제 모리겠다(모르겠다) 모두.

[영도구 설화 23]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전명옥(여,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평경로당]

할머니가, 인자 아버지가 저 할머니 지고 인자 할매로 고래장 하러 가는데, 그 인자 손지가 같이 따라갔거든. 따라가니까 할매가 가면서 솔잎을 뜯어가지고 가면서 훑는 기라. 왜 훑느냐 하면은 아들 질(길) 모르고 올까 싶어서. 그 가면서 한 줌씩 또 흩고 훑고 이래가 인자 그 자리에 가가지고 할매를 인자 고다(그기에) 내라놓고, 고 지게를 고다 인자 놔놓고 올라꼬. 저거 아배가 놔놓고 올라꼬 그래 하니까, 그 손지가 하는 말이 이라는 거야.

"아부지. 아부지도 늙으면 그 지게를 내가 지고 아버지를 여 갖다 놓을낀께네, 아버지 가가 입시더."

이래 카이까, 할매를 다부 저, 지고 오더라 안 합니까.

[영도구 설화 24]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전명옥(여,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평경로당]

그래 시주 하러 갔는데, 아를 못 낳다가 그 아를 낳았는 거라. 아를 나나이(낳으니) 얼마나 좋아가지고 인자 시주 줄 꺼는 없고, 시주 줄 꺼는 없고, 인자 아를 둥둥둥 이래 그 어루면서,

"아이고, 시주는 줄 꺼 없고 우리 아기나 저, 주면 줄까, 줄 끼(줄 것이) 없다."

카거든. 그러니께네 그날 가가지고, 그 저, 저 절에 가가지고 종을 만드는데 종을 아무리 만들어가 종을 치도 안 나오는 기라. 그래 스님 꿈에 이라는 기라.

"그 애기를 내가 가가지고 종을 만들어야만이 종이 저 소리가 난다."

하는 기라. [청중: 에밀레.] 에밀레. 그래서 어떻게 그 아를 가오겠노 싶어가지고 걱정을 너무 하고 너무 하고. 그래가 그 집에 가서 인자 이야기를 했는가 봐. 그래,

"이래 했는데, 이래 저, 종에서 그래 소리가 안 나니까, 그래 애기를 주면 안 되겠냐?"

이라니까, 펄떡 뛰면서 안 된다 하거든. 그래 우째 해가, 그 아를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와서 그 종을 만들어가지고, 종을 인자 그거 저 만들어가지고 종이 뚜들기니까 소리가 나는 기, 그기 그 소리가,

"에밀레, 에밀레."

그란다대. [청중(박일순): 애기를 아마 인제 삶았다 하더만은. 그래 인제 그 물이 종이, 종이 돼갖고 종이 인자 뚝 치면은 "에밀레, 에밀레." 그리 말이 나더라.]

[영도구 설화 25]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전명옥(여,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평경로당]

인자 남편이 배 타러 갔는데, 할매가 인자 나(나이) 많은 할매가 인자, 저 다른 어떤 사람이 이라거든.

"거싱이('지렁이'를 말함)를 잡아 믹이면 할매가 빨리 죽는다."

카거든. 그래서 인자 거싱이를 잡아가지고 국을 낋아주이(끓여주니) 너무너무 맛있거든. 그래가 인제 한 번은 인제 저거 아들이 오면은 가리키 줄라꼬, 뵈(보여) 줄라꼬 한 바리(마리) 샅자리 밑에 넣어뻰 거야. 샅자리 밑에다 또 한 바리 여놓고, 또 낋이주면 한 바리 여놓고.

할매가 봉두각시 같이 마 얼굴이 좋거든.

그래가 인제 저거 아들이 왔다. 할매가 죽진 안 하고 봉두각시 겉이 좋으니까. 왔다. 와가지고 그래 아들이 이라거든.

"엄마, 얼굴이 너무 좋습니대."

이러니께네,

"우리 며느리가 이래 맛있는 거로 날로 해줘서로 이래 얼굴이 좋다."

이라거든. 그래 야야 자리 밑에서 그거로 뵈주이까(보여주니까),

"아이고, 엄마 이거 거싱이다."

이라거든.

"예?"

이라면서 눈을 퍼뜩 뜨이까네, 눈을 못 뜬 사람인데 눈을 퍼뜩 뜨더랍니다.

[영도구 설화 26]

보고 배워 효자가 된 아들

전명옥(여,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평경로당]

그래 옛날에 산골에 인자 숯장수가 숯을 이래 꾸우가(구워서) 파는데 아들을 하나 낳았거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인자 밤에 뭐 아들하고 놀 끼, 일이 없는 기라. 그래 인자 쪼깨낼 때부터(어릴때부터) 인자,

"아무것이야. 너거 아부지 뺨 한 쪽 때리고 온나."

또 저거 아배는 또,

"아무시야. 엄마 뺨 한 짝 때리고 온나."

이라거든. 이래 큰 어른들이 이래 하는 줄 알고. 인자 마 커서로 기가 차는 기라.

그래가 인제 장에 숯 팔러 아들을 보냈는 기라. 보내가지고 그 숯을, 사람이 될라고, 숯을 파는데, 팔아가지고 올라 카이, 인제 해가 져가지고 어데서 자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소고기를 요만치(이만큼) 사가지고 가(가지고) 가거든. 그래 '아따, 저 사람 집은 부잣집인께 저 가서 쪼께 자고 내일 내가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 집에 가니까, 그 사람이 그 고기를 볶아서 해나 놔놓코 어무니 앞에서 절로 너부시 하거든.

"어머니, 많이 잡수세요."

이라거든. 그래 거기서 그 사람이 마음을 그거 해가 '아, 내가 참 나쁜 짓을 했구나. 저 사

람은 부모한테 저래 하는데 나는 맨날 부모를 때렸으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노.' 하면서 그래 자기도 시장에 가서 소고기를 사가 엄마한테 절을 너부시, 인제 끓이놔놓고 절을 너부시 하니까,

"아이고, 저거를 믹이가(먹여서) 또 오늘은 얼마나 우리를 한 자리씩 뚜드릴."

그 소리가 괜히 크나.

"우찌 맞겠노?"

이랬더니, 아가 절로 너부시 하면서,

"어머니, 잘못했습니더.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어무니 글케(그렇게) 하는 걸로 몰랐다."

카는 거라. 우찌 봔 데가 없으니께네, 보고 배운 데가 없으니까. 그래 호자(효자)가 되더래요.

[영도구 설화 27]

자기 새끼 예뻐하는 줄 아는 호랑이

전명옥(여,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평경로당]

저 안골에, 안골에 굴이 있거든. 굴이 있는데 그 굴에 인자 저 여자 서이가 나물을 캐러 갔어. 나물 캐러 갔는데, 그 인자 나물을 캐가지고, 새끼들이 꼭 또 고양이 새끼 안 같는가배. 고양이 새끼마냥 요래 있는데, 나와사 있으니 너무 이뻤는 기라. 이래 이쁘다고 요래 살살살,

"아이고, 이뻐, 이뻐."

이라면서 손을 실- 쥐고 하이까네, 호랑이가 우습다고 안에서 '허' 웃으니까네, 그 길로 바구미(바구니) 전부 다 놔놓고 달아나뺐는 기라. 그래가지고 나중 집에 와서 보이까네, 아침에 보이까네 바구미 저거 집 앞에 다 놔 놨더래요. [청중: 갖다 놨다.] 응. 갖다 놨더래. [청중: 새끼 좋다고 해나이까.] 응. 새끼 좋다고, 자기 새끼 좋다고.

[영도구 설화 28]

달래강 이야기

전명옥(여,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평경로당]

남매가 오데 가다가, 외갓집인가 오덴가 가다가 그래 비가 오니까 옷이 젖으니께로, 지도 옷이 젖으니까, 얇은 옷이 돼놓으니까, 젖으니께로 보이고, 동생도 보이고 이라니까네, 인자 마음이 흑심이 들어가지고 고마 저거 동생을 보담았는 기라.

그라이께네로 그래 조금씩 오빠가 안 오는 거라. 그래 돌아보이까네 나무에다 양물을 찍어가 죽었는데, 그래 지가 그라더라.

"오빠 니만 알고 내만 알 낀데 왜 죽었노. 왜 죽었노. 니만 알고 내만 알면 될 껀데."

그래, 그라더라 안 하나.

[영도구 설화 29]

여자 음부를 문 게를 떼어준 사람

전명옥(여,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평경로당]

옛날에 모를 숨구는데, 인자 그 소죽을, 소죽을 이고 안 갑니까. 소죽하고 인자 그거하고 이고 가거든. 이고 가는데 오줌이 누룹으니까네(마려우니) 끄잡아 내릴 수가 있나. 옛날에는 여 타준다 아입니꺼(밑이 타진 고쟁이를 말함). 거(그것) 가지고 이래 엉거주춤하이 서가 있는데, 인자 누는데 해필 끼(게) 구멍에다 눴어. [웃음] 끼구멍에다 눴는데, 끼가 그마 꽉 물었다.

그래 요 오지도 몬 하고 서지도 몬 하고 이래 엉거주춤 있으니까네, 그래 인자 그때 사또 간다고 나발(나팔)로 막 불고 하고, 사또 간다꼬 어서 길 비키라 카거든. [웃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비키라 캐도 안 비키거든. 그래 하는 말이가,

"아이고, 이게 아, 이기 이리 돼서 이렇다."

카이까네, 나발로 팍- 불거든. 그러면 떨어지거든. [웃음] 그래 마 떨어져서 그래 가더라 안 하던가배.

[영도구 설화 30]

여우 구슬을 삼켜 풍수가 된 동자

전명옥(여,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평경로당]

안골, 그 엄마가 인자 만날 인자 벌목 가가지고 팔아가지고 인자 오면 아들이 인자 고 고개 넘어서 덱고(데리고) 오는 기라. 덱고 오는데, 고개 넘어 그 울막, 그 저 막이 쪼깨난 게 있는데 그기 인자 들어가서 엄마 오면은 인자 그거 하고. 거기서 엄청 예쁜 아가씨가 나오는 기라. 나가가지고 이래,

"니 온나, 온나."

이라거든. 그래 인자 들어갔다. 들어가가지고 둘이서 인자 구슬을 딱 내더래.

"내가 입에서 뱅- 돌리고 니를 주거든. 니가 또 입에서 뱅- 돌리고 나를 도고(다오)."

이라거든. 그래 인자 입에서 떡 돌리가 주니까 재밌거든. 그래 인자 하고 집에 왔다. 한 며칠로 했어. 저거 엄마 나갈 동안에 했는데, 그래가 인자 그 저 인자 옛날 족장, 거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

그 저, 그게 뭣이라? 옛날에 고런. 고런 데 그기 있거든, 그런데 쪼개만치 그거. 초당인가 뭐, 뭐라 카더라. 그 집으로. 그래 인자 [조사자: 상여집?] 응. 상여집 맨치 고런 게 있어. 그런 [조사자: 서낭당?] 응. 서낭당인가 뭔가 고런 게 있어. 그래서 인자 와가지고 그 선생님, 족장한테 이야기를 했어.

"족장님, 족장님. 그래 내가 그게 가니까예 그래 예쁜 여자가 와가지고요 날로 저 구슬을 돌리가지고 그래 저 또 내 입에 옇고, 그래 내 입에 옇고. 또 돌리가지고 지를 줄라 카고 이라대예."

이라니까네,

"그래 그라거든 다음에는 가거들랑 그거를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보고 꼴딱 넘가뿌라."

카거든. 그래 인자 들었다. 들어가지고 그래 인자 한 날 가가지고, 그 인자 엄마 온데 하이 또 그래하거든. 그래가 인자 그 무시마가(머시마가) 그것도 모르고 인자 하늘은 쳐다보도 안 하고 땅만 쳐다보고 마 무삤는(먹어버렸는) 기라. 급해가지고 묵어삤는 기라. 그래 이 아가 하는 말이, 그 욕을 하고 가는 기라.

"니가 쪼끔만 있었으면 내가 니하고 응? 그 하늘에 득천을 하고 그래 할 건데, 왜 니가 그거로 묵었노?"

이라더래. 이라면서 팽-하고 가뿌니 없어지버리거든. 그래가 집에 오는데 이 땅 밑이 환한 기라. 이 땅 밑에 뭐가 있다 하는 거 다 아는 거라. 풍수라. 풍수가 된 기라. 그래 하늘도 보고 땅을 봤으면 천기도 보고 땅도 볼 건데 땅삐께(땅밖에) 못 보는 기라.

그래 인자 어데로, 그래가 인자 짊어지고 환히 보이니까네, 집에 살 수도 없고 인자 댕기는데, 어데로 한 군데로 가니까 인자 부잣집에 인자 할배가 죽고, 또 가난한 집에 한 아이가

죽어가지고 울고 있거든. 울고 있어서

"아,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울고 있나?"

이래 했더만, "인제 아버지가 죽고 인제 그 엄마가 죽고 이래서 울고 있다." 안 하나. 그래 인자 풍수를 인자 찾는 기라. 그래 그 사람이, 인자 풍수가 가가지고,

"그래 참 좋은 데가 있다."

하대. 그래,

"어데가 좋나?"

물어보니까,

"저 바다 물 밑에 그 섬이 있는데 그 섬에 밑에 내리가면(내려가면) 고리가 두 개 있다 카네. 양짝에 고리가 두 개 있는데, 여 쪽에는 삼정승 육판서가 되는 자리고, 저쪽에는 거러지가(거지가) 되는 자리다."

카더란다. 그래서로 인자, 그래 인자 거기에 묻기로 하고. 그래 이 인자 없는 사람도,

"그래, 나는 치울 데도 없으니까네, 마 저 아무 데라도 그 있는 자리에라도 우리 아버지 좀 치아주이소."

이랬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이 삼정승 육판서 집에, 그 저 고리에 묻깄고(묻혔고), 부잣집에는 그 가난뱅이 거기 묻깄는 기라. 그래가 그 사람은 쫄딱 망코(망하고) 그 사람은 부자가 된다대.

[영도구 설화 31]

손님을 오지 않게 해서 망한 집

전명옥(여,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평경로당]

내나 그래 부잣집에서로 하도 손님이 와서 마 절하기가 귀찮아서로 그래 인자 스님한테 물었어.

"스님, 스님. 저 우짜면 손님이 안 오겠습니까?"

그라이.

"저 밥상을, 딱 밥 묵고, 밥상 딱 차려놓은 고 자리에서 머리를 빗으라."

카더란다. 매일 빗으라 카더란다. 그래 하니까 한 삼 년 하고 나니까 손님이 한 개도. 쫄딱 집이 망해뿌더라 안 하나.

[영도구 설화 32]

수수밥을 먹는 이유

전명옥(여,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평경로당]

과거 보러 가는 사람들 그 인자 수수밥을 해먹고 간다 카대. 그 인자 수수밥을 해먹고 가면은 수시(수수) 그게 안 삭는다 아입니꺼? 그래 인자 똥에 나오면 그거를 씻어가 또 다시 묵고. 그래 과거를 보러 갔다 카는 그런 말은 들었지.

[영도구 설화 33]

기다려야 되는 부부 인연

전명옥(여,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평경로당]

여자가 참 몬 생깄어. 몬 생기고 남자는 인자 이가네 집이고 이래 좋은 집인데, 이 집도 집안은 좋은데 옛날에는 뭐 선을 안 보이까네 몬 생깄나 잘 생깄나 모르고. 같은 인자 좋은 집안끼리니까네 그거를 했는데. 시집을 가보이까네 여자가 몽창시리도(엄청나게) 몬 생겼는 거라. 곰보딱지고 몬 생겼는데 그래가 골방에다 잡아여놘께. 골방에다 잡아여놓고 저거는 과거를 보러 가가 저거 신랑은 인자 좋은 벼슬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인자 벼슬을 했는데, 이 앞에 학 놓는 그거를 못 놓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오데 가서 놓을꼬? 오데 가서 놓을꼬?"

이라니까, 고 여자가 들았는(들었는) 기라.

"그라면 내한테 가오라."

카거든. 놔도(수를 놓아도) 요상케 그 학을 놔주거든, 학을. '그 이상하다, 이상하다. 저래 저 그거한 사람이 이 저 몬 생기고 험한 사람이 저 오데서 저런 이쁜 걸 놓았겠노?' 싶거든. 싶어가지고, 그거 하더만은 또 마 인자 그 나라에서로 뭐 큰 뭣을 해놨는데, 그거를 몬 해서 또 막 글도 몬 쓰고 막 이래 하는데, 그래 인자 불러가지고,

"그 가와봐라."

그래 카는 기라. 그렇게 글도 잘 쓰고 그 글, 저 뭣고? 수도 저렇게 잘 놔서 그래 주거든.

그래가 '이상하다.' 싶어서 거 하고 가만 있다가, 인자 신랑이 '참 이상하다.' 싶어서 살살 와 가지고 그래 문을 열고 딱 들어가가지고,

"그래 당신이 어떻게 이래 그거를 했나?"

이라이까네,

"그래 나는 하늘에 천산데(천사인데)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래 내려와서 당신을 같이 만나면 안 되고. 그래 내가 한 몇 년 동안을 고생해서 당신을 만나야 된다."

카면서로,

"그래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네, 인자부터는 같이 해도 된다."

카면서, 여자가 반달 같은 여자가 나오더라 안 하나. 그 이쁜 여자가 나오더란다. 그래서 그 참 살았다 카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영도구 설화 34]

가덕도의 아기장수

전명옥(여,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평경로당]

가덕에, 저, 저 가덕에 그 할매가 참 힘도 쎄. 장사다 할매가. 그 할매가 아를 낳는데 애가 하룻밤 자고나니까네, 이상하게 포리들을(파리들을) 모아놔놓고 군인을 시키고(군사훈련을 시킨다는 의미) 이라더래. 문구녕(문구멍) 보니까,

"어머나, 저거 왜 저렇노?"

이랬더만은, 쪼깨 있으니께로 또 가. 뭣이 짜다라 있었더만은 날개가 나더라대. '엄마야, 이거 큰일났다.' 싶어서 이래 그거 하면은 나라에서 큰일 났다 싶어서로 맷돌로 한 짝을 가갖고 눌러도 안 죽더래요. 두 짝으로 눌리니께 죽더라 안 하나.

그래 그것이가 그 눌리 죽는데, 그기 날라가는데 우리 그 산이 있어예. 그 저, 저 연대산 아니고 고가 무슨 산이다. 그 산에 발자죽(발자국)을 남겨서 발자죽이 있다 카데예. 옛날에.

[영도구 설화 35]

쌀이 나오던 바위

전명옥(여,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평경로당]

그거는 저, 저 산에 스님에, 어데던가 그렇대. 그래 쪼깨이 나서로[126] 스님이 밥을 해묵는데, 이 어느 놈인가 마이 묵을라꼬 쑤시가지고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런 소리는 들었다.

[영도구 설화 36]

거북이 각시[우렁각시]

전명옥(여,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평경로당]

한 사람으는 그래 산에 가서 인제 밭도 없는, 아무 것도 없는 총각이 돼가지고 밭을 쪼사면서,

"이 밭을 쪼사가 누캉 내캉 묵꼬 살꼬."

인자 이라면서, 또 쫐고 쫌 밭을 맨들어놓고 나오고, 또 그 안날 가서 또 쪼스면서,

"이 밭을 쪼사가 누캉 내캉 묵고 살꼬."

이래 하니까, 어데서 하는 말이,

"내캉 니캉 묵고 살지."

이라거든. 그 이상하다 싶어서로, 또 인자 그 안날 가서 또 그라이 또 그라거든. 그래 고게 가보니까, 가보니까 거북이가 있는 기라. 거북이가 그 한 바리(마리)가 있는 기라.

그걸로 인자 갖다가 자기 정지에다가(부엌에다) 딱- 모셔난 기라. 딱 모셔다놓고 인자 밭에 가서 밭 그거하고 오면 밥을 이상쿠로 해서 또 놔놓고 이라는 기라. 놔놓고. 또 그 밭에 갔다 오면 이상쿠로 해나 놔놓고. 그래 그거 하더만은 난중에는(나중에는) 그 거북이가 여자가 돼서 나오더라 하대. 여자가 돼서 나와서 그래 잘 살더라 하대. 둘이서.

[영도구 설화 37]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전명옥(여, 1934년생) 구술

126) 쌀바위에서 쌀이 조금씩 나온다는 의미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평경로당]

신랑은 인자 갸는 맨날 공부만 하는 기라. 공부만 하고 이 여자는 인자 피캉 이런 거 뜯고 인자 그거 해가, 인자 넘의 집 그 쪼개 받아가지고 방석에다 늘어놨는데, 비가 와도 그걸 안 가가고(가져가고) 천대겉이 내삐리놔놓고 안 걷고 이라거든.

이라니까네 여자가 얼마나 부애가(화가) 나겠노? 지가 뭐로 해가지고, 뜯어가지고 그 해 놘 거를 안 그거 하니까. 그래가 부애가 나가지고 마 안 살라꼬, 이혼을 하자고 마 이혼을 해삤는 기야. 그래 이혼을 해가지고, 이혼을 해가 가도 역시나 넘의 집에 가서 그 피를 훑는 거라.

그래 이 사람을 과거를 해가 내려오면서 그 자기가 체리다보이(쳐다보니) 저거 신랑이거든. 그래가 저거 신랑 앞에서 운다. 울면서로 그래,

"내 잘못을 했으니 내 살리주라."

이래하니까, 그래 신랑이 하더란다.

"깨어진 사발로 니가 한 번 붙이 봐라. 깨어진 사발이 붙으면 내가 니한테 갈꾸마."

그래 하더란다.

[영도구 설화 38]

저승 갔다 살아난 사람

탁덕례(여,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남항동 대평경로당]

작년이다. 작년에 갔더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나 저승 가니까 이런 무슨 똑 운동장 매이로(처럼) 이런 데서 흰 소복을 입고서 여자고 남자고 전부 장구 치고 북 치고 노래 부르고 그래 놀더란다. 노는 거 봤다고 그러더라고.

[영도구 설화 39]

굿을 해서 낫게 된 앉은뱅이

최복실(여, 1946년생) 구술

2019년 1월 22일 채록
[동삼1동 경전경로당]

우리 고모한테 들었어요. 왜 그라냐면은 내가 여름 되면 우리 고모 집을 가예. 우리 고모 집을 가면 인자,

"고모야, 고모야. 이야기를."

꼬치(고추) 따면서,

"고모야, 고모야 얘기 좀 해도. 얘기 좀 해줘."

내 자꾸 이라거든요. 심심하니까. 인자 고모가 내 얘기 하더라고.

"그면(그러면) 내가 네 얘기를 하나 할꾸마."

이라고예. 그서 인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자 내가 학교 댕기다가 일곱 살 먹던 해에, 저는 인자 우리 집에서, 우리 친정에서, 자식을 나면 죽고 자식을 나면 죽고. 말하자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의사했는데, 울 아버지 열세 살 먹었는데, 이 아들을 빨리 여우라('결혼시키라'는 의미). 그래 내가 며칟날 되면 갈 테니까 니 아들 여우라 해갖고 울 아버지를 갖다가 열세 살에 장가 가갖고 나를 열일곱에 났는데, 내가 얼마나, 외동딸이 얼매나 귀합니까? 근데 이놈의 자식이 크진 않고 자-꾸 아픈 짓만 하고 인자 앉은뱅이가 돼버린 거라. 내가. 그래 내가 지금 다리를 올케 못 써예. 이게 말하자면 속된 말로 저승에서 갖고 왔다는 말들도 하더라고. 내가 최면도 했어요. 하도 다리가 다쳐갖고서 최면을 허니까 나보고,

"저승에서 갖고 왔다."

고 하더라고예. 그래갖고 인자 앉은뱅이가 되니까 인자 우리 고모가 인자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걱정이 돼서 인자 유명한 무당은, 무당은 다 불러다가 인자 굿을 하게 되는 기라. 멀쩡한 자식이 앉은뱅이가 돼 놓으니까.

이게 인자 우리 고모는, 인자 고모부는 인자 시골에는 염전이 있으니까 염전으로 가시고, 인자 우리 고모하고 인자 나를 갖다가 방에다 눕혀놓고 인자 점쟁이가 데리고 와갖고 딱- 그러니까, 막 푸닥거리니까 거 갖고 와갖고(가지고 와서), 칼을 세 개를 딱 갖고 오더랍니다. 파드득거려서. 칼을 딱 던진께 칼이 다시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더랍니다. 그래 또 막-, 그래서 막- 뚜덕거리니까 막 그냥 막 인자 억수로 우리 고모가 그냥 겁나게 빌었는 기라.

이거는 귀한 내 자석(자석), 내 조칸데, 하나빽게(하나밖에) 없는 내 조칸데, 야가 이것을 이걸 공든 자식을 세상에 배놨는데 와 이런 멀쩡한 자식이 앉은뱅이가 됐노? 기냥 막 빌어갖고 칼을 딱 던지니까 바깥으로 가더만 도로 다시 들어오더라 하는 기라. 거서 들어오더라면서 그래갖고 인자 먹을 것을 팍 내노라 하더랍니다. 그 무당이. 거서 인자 먹을 것을 잔뜩 내놓으니께는,

"아따매, 부잣집이라고 왔건만."

그래 우리 집이 부자니깐 딸을, 내를 건들면은 먹을 것을 얻어먹을라고 왔는데, 부잣집이라고 왔는데 아따 인자 배부르게 먹을 것을 주니까,

"인자 가야겄네."

그러더만 그때 칼을 딱 던지니까 칼이 휙- 나가불더랍니다. 그라고 인자 칼 세 개 갖고 젤 첨에 두 개는 들왔는데(들어왔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르지만, 내 어렸을 때 고모한테 들었은께 알제. 세 번째 칼을 던지니까 나간다면서 그, 그런 말이,

"아따, 부잣집에 왔더만 과연 띵깡도 놀만(투정을 부릴만) 하네."

인자 귀신이 하는 말이,

"띵깡도 놀만 하네. 아따 인자 배불르게 먹고 했은께 나가자."

그라면서 인제 귀신이 나가더라 카는 기야. 우리 고모가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니가 인자 다리를 서더라. 앉은뱅이가 인제 서더라."

이라면서 그래갖고 그러고 나서도 몸이 불편하니까, 옛날에 육이오 때 지리산에서 사람이 마이 죽었잖아요? 그 인자 빨갱이들이. 많이 와갖고 죽은께 나밖에 하나밲에 없는 자식이, 조카자식이 이래 돼놓으니까네, 우리 할아버지가 의사였고 할머니도 의사니까 약초 뿌리를 인자 지리산으로 캐러 갔더랍니다. 나를 살리라고. 약초 뿌리를 캐러 가니까, 이 말하자면은 지리산에 사람이 마이 죽었잖아요? 이런 해골, 마냥 해골 같은 거 있는 데 그래 물이 그리 고여져 있더랍니다. 거서 그 물을 받아갖고 와서 나를 멕이갖고, 나를, 니가 이 세상에서 살아났다 하면서 우리 고모가 생전에 그래 내한테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예.

[영도구 설화 40]

조상 묘 이전하다 봉변 당한 사람과 개장국을 제상에 올린 사람

최복실(여, 1946) 구술
2019년 1월 22일년생 채록
[동삼1동 경전경로당]

인자 우리 고모가, 우리 인자 나가 이래 돼 놓으니까, 옛날에는 아들만 선호했는데 우리집에는 아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 고모가 우리 집 재산을 갖다가 다 갖고 있는 상탠 기라. 우리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버는 의사였으니까. 돈이 많이 있는 상탠께(상태니) 고모부가 자기 딴에는 처갓집을 잘 해주것다 해갖고 인자 선산을 할아버지, 할머니 한 매장을 할라고 같이. 각처에 있는 묫자리를 갖다가 다 인자 옮기는 기라. 이 옮기는데 그래갖고 차례대로, 순번대로 조상들 딱 딱 딱 모우는데, 그래갖고 우리 할아버지 차례 돼서 우리 할아버지를 딱 그래갖고 우리 할아버지로 딱 그 날짜에, 돌아가신다던 그 날짜에 돌아가시더랍니다.

그러고나서 세월이 흘러서 인자 나도 건강해졌고. 건강해졌는데 인자 우리 고모부가 우리 할아버지 묘를 인자 좋은 데다 이전을 할라고 딱 옮기니까, 하늘에 비도 하나도 안 오고 하

늘에 쨍쨍 햇볕이 나는데 난데없는 막 뇌성벼락을 하고 저 난리굿을 빼더랍니다. 그래갖고 우리 고모부가 놀래갖고 땅 판 데로 휙 자빠졌뿌렸답니다. 땅으로 떨어져버렸는 기라.

인자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묘 파다가 하늘에서 뇌성을 치고 무섭으니까, 저 엉겁결에 뇌성 치니까 놀래가지고 자빠진 것이 말 그대로 구들장에 짚은(깊은) 대로 빠져버려잣고 그대로 중풍이 돼버렸어요. 중풍이 돼갖고 인자 몸을 움직이지 몬 하니까, 시골에는 농사짓는 게 일 아닙니까? 우리 인자 고모부가 그래 몸 눕고 나니까 인자 우리 고모가 혼자 농사를 짓게 되는 기라. 농사를 짓게 되니까 지금에 와선 물 경기가 좋아서 아무 데나 물만 틀면 농사를 짓지만, 옛날에는 물, 새벽에 잠 안 자고 물을 받아야 그 농사를 지어. 우리 고향에는.

그라면 인자 가면, 가서 물꼬를 딱 이러고 틀어놓고 그놈 물을 다 받도록까지 지키고 앉았어예. 그놈 물이 다 들어가고 나면 인자 내가 와야지, 옮깄다고 또 누가 물꼬를 따부리면 물 못,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갖고 인자 물을 대러 가는데 딱 어떤 아저씨가 와갖고 인자 아고 우리 고모부가, 고모가 당산댁이거든.

"아, 당산댁. 어데 가요?"

컨께, 우리 고모가 하는 말이,

"지금 논에 물 대러 가요."

이라는 게라. 그래서 물을 대고 딱 오니까 또 인사를 허더랍니다. 그 사람이, 또 만났던 사람이,

"아따, 내 잘 먹고 가요."

이라더랍니다. '아, 무엇을 잘 먹었단 말인고?' 그래갖고 가만히 생각한 게 그 죽은 영혼이더랍니다. 바로 말하자면 담장에, 시골에는 담장 너머로 '아무개야!' 불러가이고 먹을 거를 나놔주고 그래예. 우리는. 여그는 지금은 아파트기 때문에 가서 노크를 하지만은 시골은 담장 사이로 이렇구 냄겨서(넘겨서) 음식을 주고 먹고 하는데, 우리 고모가 '갈 때 인사 받고 올 때 아 잘 먹었다고 그래 인사로 한 게 아 이상하다.' 그때서 그 옆집이니까,

"야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말하자면 애기 이름을 부르면서,

"엊저녁에 뭐 했노?"

물으니께,

"아따, 엊저녁에 우리 영감 제사 아니었소. 영감이 하도 잘 먹기에 내가 개장국을 끓여놨어요."

죽은 사람한테는 개장국을 안 끓이잖아요?

"살아 생전에 개장국을 끓여놨더만 그걸 해줬어요."

거서, 근게 '살아서 잘 먹은 음식이 죽어서도 잘 먹는다' 한 거를 우리 고모가 그거를 느꼈다 하더라고예.

[영도구 설화 41]

객귀 물리기

최정심(여,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22일 채록
[동삼1동 경전경로당]

바가치(바가지) 밥 떠갖고, 그거 저 밥 뜨고 막 된장, 나물도 넣고 된장도 넣고 막 이래갖고 주물주물 해갖고, 그래갖고 바가치 머리에다가 여따(여기다) 대놓고,

"헛세, 헛세."

이래 김가, 박가, 머선(무슨)가 그라면서 [웃음] 그래갖고 인제 칼로 갖다가 휘떡 떤진다 아이가. 떤지먼 귀신이 나가먼 칼이 저래 똑바로 나가고 안 가면 안으로 들어오고.

[영도구 설화 42]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현수만(여, 1932년생) 구술
2019년 1월 22일 채록
[동삼1동 경전경로당]

옛날에 인자 애기를 나면은 죽고 죽고 하다, 어쩌다가 인자 아들 하나를 낳는 거라. 아들 하나를 나아가지고 한 백날쯤 요래 돼서 동실동실 예쁘잖아요? 여느 날 중이 종을 하나 만들라고 아무리 댕기면서, 인자 이게 그 저 불사를 얻어서 종을 만들아도 종이 울지를 안 해. 종이 울지를 안 해.

그래가지고 댕기다 댕기다 안 돼가지고 어떤 한 집에를 갔어. 그 애기 있는 집에를 갔어. 가가지고,

"저 시주 좀 하시오. 우리가 종 만드는데 이게 종이 잘 안 돼서 시주얻으러 왔더라고, 우리 이게 공, 같이 공을 좀 들이달라고 시주를 좀 해주세요."

하니까, 아무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 그래서,

"아이고. 우리는 줄 것도 없고 요거나 줄까? 요거나 줄까?"

이렇게 애기를 안고 막 이래뿌맀는 거라. 그러니까 인자 그 중이,

"아, 좋다고, 그럼 그 애기를 그럼 시주하라."

고, 딱 안고 가뿌맀어요. 그 안고 가가지고 종 만드는데 같이 반죽을 해가지고 인자 종을 만

들았어요. 그래 종을 만들고 나니까네, 인제 그걸 때리니까, 그때는 그 종이 인자 엄마 땜에 내가 이렇게 죽었다고서,

"에밀레, 에밀레."

해가지고 우는 거야 이게.

[영도구 설화 43]

몸에 좋은 오가피나무

현수만(여, 1932년생) 구술
2019년 1월 22일 채록
[동삼1동 경전경로당]

제주도에서, 우리 제주도에서 인자 이게 홀어머니가 남매를 키우고 살았어요. 남매를 키우고 살다가 엄마가 병이 들었는 거라. 갑자기 병이 들었는 거라. 그러니까 인자 남매가 인자 아무리 댕기면서 인자 약을 구해서 대접해도 그 낫지를 안 해. 낫지를 안 하는데 어디 가서 물으니까네,

"저게 제주도 어느 바우에 가가지면 거기 인자 그거 오가피나무가 있는데, 그 오가피나무를, 오가피나무를 해다가 삶아서 멕이면 낫는다."

이래요. 그래서 인자 그 딸 이름이 수월인데, 그래 저거 동생을 데리고 갔어요. 저 제주도 산꼭대기에 가니까 절벽에, 절벽 밑에로 딱- 보니까네 오가피나무가 하나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오가피나무, 아 동생 보고,

"아, 저기 오가피나무 있다. 내려가서 저거로 따 올 꺼니까 니가 여서 내 손을 잡아라."

그래 우에서 엎드려서 동생은 인자 저거 누나 손을 잡고, 누나는 인자 절벽 밑으로 인자 내려갔어. 내려가가, 내려가다가,

"아, 오가피 여깄다. 내가 잡았다!"

이랬거든. 그래 오가피나무를 딱 잡으니까네, 동생이 기쁜 굼에 고만 정신을, 우숭숭 손을 놔버렸어. 그래서 인자 그 인자 수월이가 인자 그기 오가피를 안고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전설의 오가피나무는 우리 인자 이게 몸에 좋다고 해서 약으로 지금 많이, 인자 지금 그거 하고 있어예.

[영도구 설화 44]

절영도의 유래

박씨(남, 1935년생[127]))구술
2019년 1월 22일 채록
[동삼1동 동삼경로당]

절영이란 것은 옛날에 나라에서 말을 이쪽에다가 이거 주면서, 말을 여기서 훈련을 시키고 말을 이렇게 이 나라에서 그쪽에다가 이렇게 이임해주면서, 영도에다가 말을 키우고 말을 훈련시키는 그런 전설 아입니까?

[조사자: 그래가지고 와 절영돈데예?] 예? [조사자: 이름이 왜 절영도라예?] 글쎄 그거까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청중: 그거는 말이 이래 달리는 여가, 영도가 말 키우던 데거든요. 그럼 '그 말들이 얼매나 빨랐던지 그늘이 안 보일 정도로 갔다.' 그런 뜻에서 인자 절영이라 캤다던데.]

[영도구 설화 45]

죽은 사람의 인으로 생기는 도깨비

박씨(남,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2일 채록
[동삼1동 동삼경로당]

옛날에 도깨비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옛날에 죽으먼 옛날에는 산에다 묻어놔놓고 거기 삼년을 장자가 거서 시모를 살았기 때문에, 그래 살만 자연히 사람은 죽으면 여기 인이 있기 때문에 인이 폭발하면 거서 불빛이 생기거든. 그거를 인자 말하는 긴데 전부 그게 살을 달아 갖고 거짓말로 이래 만들고 저래 만들고 핸 기지.

[영도구 설화 46]

도깨비와 도깨비불

이정기(남, 1940년생) 구술
2019년 1월 22일 채록
[동삼1동 동삼경로당]

127) 성만 말하고 이름을 밝히지 않아 '박씨'라 함.

아 글쎄,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할아버지가 그 저 주막집에서 술을 잡수시고 밤에 마 열 시나 돼서 이렇게 일로 오시다가, 중간에 이렇게 집이 없는 마을에서 주막하고 우리 집하고 중간쯤 지점에서 오르다가, 눈에 뭐 헛게 보였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도깨비라고 칭했어요. 그리고 도깨비가 이렇게 건너 마을 쪽에서 불이, 그 이바구를 하이까 내가 그냥 몸에 그냥 전율이 쫙 퍼지네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뭐 불이 왔다 갔다 막 이래가지고 그걸 도깨비라 카고. 그래 도깨비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보이까 옷이, 한복이 엉망이고 막 이래가지고 저녁마다 이렇게 우리 형제간이 많다 보이까, 한 서 너명이서 호롱불을 이렇게 잡고 할아버지 마중을 나가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아 인제 그 마을 건너편에 그 도깨비가 나타난 지점에서, 씨름을 했다는 그 지점에서, 앞에 마을에 막 그냥 불이, 마 도깨비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렸으니까 몰랐는데 그 다음부터 화장실을 못 가고 그랬어요.

[영도구 설화 47]

명당자리에 몰래 묘를 쓴 사람

이정기(남, 1940년생) 구술
2019년 1월 22일 채록
[동삼1동 동삼경로당]

옛날 그 좀 잘 살은, 권위가 있는 그런 분들은 그 묫자리를, 명당자리를 찾으려고 그냥 이렇게 자기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자기는 모르니까 그걸 보고 뭐라 캅니까? [조사자: 기관. 지관.] 그 좌청룡우백호 그런 걸 알고 이렇게 그 방향 나침판을 들고 다니면서 그 묫자리 명당 찾는다고 산을 헤매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못 살아도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잘 살아 보겠다'고, '묫자리를 잘 쓰면 우리도 부자 되겠지' 카고 밤에 몰래 자기 조상의 유골을 파가지고 그 명당자리라고 정해 둔 자리에다가 몰래 갖다가 뭐 거창하게 묘를 쓰면 표가 나니까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영도구 설화 48]

양식을 나눠주고 손님을 잘 대접했던 경주 최씨

이정기(남, 1940년생) 구술
2019년 1월 22일 채록
[동삼1동 동삼경로당]

경주 그 최씨네 집안이 얼마나 부자로 잘 살았는지, 자기가 그, 그 몇 대까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벼슬을, 요즘에 말하면은 국회의원 정도, 국회의원 정도는 벼슬을 해도 그 이상은 벼슬을 하지 마라.

그리고 4키로(km)가 십 린데 약 한 8키로(km) 정도 가는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못 먹고 헐벗는 가난한 백성들을 양식을 다 노나주면서 내 집에 찾아오는 손님은 어여튼(여하튼) 후히 대접해서 보내라, 그 이런 그 전설 이야기고.

[영도구 설화 49]

영도를 벗어나면 망한다

이정기(남, 1940년생) 구술
2019년 1월 22일 채록
[동삼1동 동삼경로당]

영도에서 살다가 저 영도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다시 이사를 가시면은 하여튼 망한다.' 그런 속설이 있어요. 다시 그래가지고 시내 가가지고 왔어. 거지가 돼가지고.

[영도구 설화 50]

자기 새끼 예뻐하는 줄 아는 호랑이

윤봉림(여, 1928년생) 구술
2019년 1월 22일 채록
[동삼1동 절영2차아파트경로당]

나물 캐러 갔는데, 나무를 하러 간 게 아이고 나물. 옛날 속담이야, 속담. 캐러 갔는데 호랭이가 새끼를 놔났는데, 그래 좋다고 만치고(만지고) 이래 했더만은, 호랭이 큰 놈이 오니 놀래서 다들 집으로 와삤는데, 자고 나서 보이까네 뭐 나물 바개미를 문 집 앞에 딱, 집 앞에 물어다 놨더라. 속담이야, 옛날 속담.

[영도구 설화 51]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윤봉림(여, 1928년생) 구술
2019년 1월 22일 채록
[동삼1동 절영2차아파트경로당]

옛날에 그 뭐 고래장, 칠십에 고래장 안 하나? 고래장을 하는데 인자 아들이 인자 어마이를 뭐 고래장 한다 하이까 지고 산에 가가지고 갔는가배. 마 옛날 이야기다. 옛날. 갔는데, 그 인자 가져갈 때, 갖다 놓을 때 그 밥을 어마이를 해주기 위해서 밖에 나무로 자꾸 뿌러가지고 질가다(길에다) 놓고 놓고 이런 게, 옛날에 뭐 하더라고. 텔레비전도 이래 했는데.

그래 인자 그 말에, 인자 그 하고나서 어마이한테 인자 밥을 가가지고 가는데, 뭐 나라서 그 뭐, 뭐라든고 뭐? 손(소)가 뭐, 뭐 두 바리(마리)라 카나? 짐승 두 바리로 똑같은 거로 갖다놓고,

"어는 게 에미고 인자 뭐 아들이거든, 짐승이라도 아들이고 에미냥(아들인지 어미인지) 이런 거 알아 마치는 사람을 큰 상을 준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그래 하이까네, 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아요 그러로? 똑같은 건데. 그라니까네 인제 그 저거 어매 밥을 가져가서 저거 어매보고 그런 소리를 하이까네, 뭐를 주보면 앞에 먹는 사람이 새끼라 카더라요. 응?

그래서 인자 그 사람이 와서러 뭐를 주묵어보이까네('줘서 먹여본다'는 의미), 새끼가, 항상 뭐를 물어다가 새끼를 멕이더라 아이요?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라이까네,

"상을 딴 거 주지 말고 저거 어무이를 살려줄라."

고, 그런 말로 했더니만은, 자기 어머이 살리라고 마 가이까네, 저거 어매가 죽어있다. 이런 말이 있대요.

[영도구 설화 52]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윤봉림(여, 1928) 구술
2019년 1월 22일 채록
[동삼1동 절영2차아파트경로당]

쇠로(쇠를) 거두러, 인제 용[128]을 맨들라고 쇠로 거두러 댕긴께, 아지매가 애기를 업고,

"나는 아무 것도 줄 것도 없고, 애기를 줄꼬?"
말이 또 하다가 보이 그 사람도 그래 나왔겠지. 그러니께 그 종이 안 돼가, 그래 애기를 넣고 종을 맨들어놘께, 그래 종을 땅 치면,
"에밀레."
종이 땡 치면,
"에밀레."
한다고, '그 종에다가 애기를 옇어가지고 했다.' 이런 말도 옛날 속담.

[영도구 설화 53]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윤봉림(여, 1928년생) 구술
2019년 1월 22일 채록
[동삼1동 절영2차아파트경로당]

그거는 인자 아들이 먼 데 어데 가고 없는데, 아들이 먼 데 가고 없는데, 이 시아마이 뭐 줄 끼 없어 지렁이를 잡아 멕있는가? 마 그런 거는 모르겄고.
이 지렁이로 묵고 살이 찐께, 할매가 한 바리 묵을 때마장(때마다) 옛날에 자리 밑인게, 자리 밑에 여놓고 자리 밑에 여놓고 해가, 아들이 왔는데,
"너거 처가 날로 이거를 묵어서 내가 살이 마이 쪘다."
이래 하이까, 난주(나중에) 보니 지렁이다 칸께.

[영도구 설화 54]

고갈산 도깨비불

김순녀(여, 1928년생) 구술
2019년 1월 22일 채록
[동삼1동 절영3차아파트경로당]

옛날에 우리 피란 내려온 담에 그땐 옛날이야. 요 고갈산 여기에. 우린 저 팔십오번 종점이고. 이렇게 해서 바래다 보면 새파란 불이 있는 거야.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왔다 갔다

128) 종을 잘못 말함.

해. 저걸 또깨비불이라 걸대(그렇게 한다). [청중: 와 아이라.] 또깨비불이라 그랬어. 그런 거만 내 눈에 직접 많이 봤어.

[영도구 설화 55]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김순녀(여, 1928년생) 구술
2019년 1월 22일 채록
[동삼1동 절영3차아파트경로당]

옛날에 아들이 어데 가면서, 장님 엄마가 있거든. 장님 엄마가 있는데, 저거 마누라 보고 뭐라 했냐니, 시어마니한테 잘못하니까,

"내가 가게 되믄 지랭이(지렁이)."

파면 지랭이 있지?

"당신 이거 어무니한테 해드리라고. 그러면 엄마가 빨리 세상 뜬다."

고 그라니까네, 갔다 오니까 할머니가 살이 퉁퉁 찌고 더 좋거든.

어머니한테 잘하라 이거라. [청중: 맞아. 맞아.] 그럼, 그럼.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어무니가, 잘 못하니깐 '이거 잡수면 내 없을 때 이렇케다가 부지런히 잘해드리, 국 끓이 드리라.'고 그랬더니 그냥, 갔다 오니까 뭐 살이 퉁퉁 [웃음] 더 좋으니까네 무슨 할 말이 있노? 그랬다고.

[영도구 설화 56]

어머니 놀래는 것도 조심스러운 효자

남옥순(여, 1937년생) 구술
2019년 1월 22일 채록
[동삼1동 절영3차아파트경로당]

옛날에 또 말이 안 있나. 할머니가 눈이 어두운데 참기름을 메느리가, 참기름 장사하는데 메느리가 어디 갔다, 시어미니가 갔다 오이까, 메느리 뭐 도와줄 건 없고 이 보니 꾸중물이 한 통 있어서 갖다가 버리뿠어. 참기름을. 그래니까 인자 너무 너무 아까워서 메느리가 놀래 나이 아들이,

"조용(조용히) 하라고.
엄마 놀랜다."
고, 조용히 하라고 그런 효자도 있더랍니다.

[영도구 설화 57]

뽕나무를 여우로 착각한 사람

남옥순(여, 1937년생) 구술
2019년 1월 22일 채록
[동삼1동 절영3차아파트경로당]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하도하도 담이 세가 밤에 이래 걸어오면 마, 우리 그 고향에 이래 산이 있고 막 그거 홀리는 게 있잖아? 여우 안 있습니까? 여우가 내려오면 막 사람 정신 빨라꼬 세아놓고 뱅뱅뱅 돈다고. 그럼 방향을 몰라서 마 그 잡히먹고 그런 것도 있고 그렇는데, 글로(거기로) 우리 아버지는 지나 오셨어예. 그래 오니까 막 그래 도는데,
"아이고, 비키라, 비키라."
하고 왔더만, 그 이튿날 가보니까 그 여우가 잡은 게 아니고 뽕나무밭이더랍니다. 뽕나무밭이라 놓으니까네(뽕나무밭이라서) 가시가 여도 걸리고 여도 걸리니까 자기 자신이 막 여우가 잡아댕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은.
그래 담이 세면 산다.고 정신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 뭐, 뭐 범이 물어가도 정신만 채리면 산다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장심이.

[영도구 설화 58]

하늘이 아는 효자

남옥순(여, 1937년생) 구술
2019년 1월 22일 채록
[동삼1동 절영3차아파트경로당]

인자 산이 이래 있는데, 그 인자 옛날에는 무섭다 아입니까? 와 지진도 있고 이라이까네. 그래서 산 그거로 가르켜 줄라니까네,
"아이고. 이래 밤, 산에 그거로 하면 되겠나?"

한께네, 갖다다(가져다), 할아버지나 마 구찮은(귀찮은) 사람 갖다다 놓으면 그 산사태로 넘어 간다 아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너무 효자라 놓으니까네 업고 가서로 산사태가 안 날만 한 데로 업고 갔는 기라. 그래 턱 있었더만, 그 이튿날 밤에 막 인자 베락이 치고 마 폭풍 해갖고 다른 사람 다 떠내려가고 마 죽이지 않은 사람 다 떠내려가는데 그 피난간 그 사람만 딱 남았더랍니다.

그건 내 책으로 읽었어예. 옛날 동화책으로. 그래서러 예, 착한 사람은 그거 한다고.

[영도구 설화 59]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박말연(여, 1938년생) 구술
2019년 1월 22일 채록
[동삼1동 절영3차아파트경로당]

인자 그 껍데기 안 있나? 뭐 딴 사람이 보이, 밥은 안 주고 맨날 꺼시기(지렁이) 그거 주니까네, 이기 뭐 자기가 무어보니(먹어보니) 이상하거든. 그래도 그 아들은 오데 가고 없고 죽었다 카든가? 뭐 어데로 갔다 카고 없고.

그런데 만날 껍데기 그걸 꼬아가 씹어가 넘가뿌고, 안 넘구고. 뭐 저 옛날에 저 삿자리 피고 잤다 아이오? 우리 클 때는.

그래 삿자리 밑에 여놓코, 삿자리 밑에 여놓코. 묵고는(먹고는) 밥이지 뭐. 그래 난제(나중에) 그 인자 신랑이 와가지고, 엄마가 저 아들보고 사-살(살살),

"야야. 여 와봐라."

이카이까네, 인자 그 아들이 인자 살- 이래 들치보이 거시기 껍데기라.

그래가지고 탄로가 나가지고 뭐, 뭐 끝이 우예 됐는고? 마 그까징밖에(그것밖에) 모르겠네.

[영도구 설화 60]

고려장 이야기

박말연(여, 1938년생) 구술
2019년 1월 22일 채록
[동삼1동 절영3차아파트경로당]

[조사자: 칠십 고래장 하던 이야기.] 칠십 고래장 하던 이야기. 남자, 저거 아들이 저거 엄마 늙어 놓으니까네 그래 산에 갖다 묻을라고 지게 지고 가이, 저거 아들은 뒤에 따라오면서, 그 아 저거 아부지 내삐리놓고 오니,

"아이고, 아부지는 와 지게로 안 가지고 가나? 지게는 와 안 가져 가노?"

하이께네,

"나도 후제(후에) 커가지고 아부지만 하만(하면) 나도 그 지게로 갖다 져다 내삐릴낀데. 지게로 내삐리고 오면 되느냐?"

고, 그 카더란다. 그런 이바구도 있긴 있어.

[영도구 설화 61]

여자 음부를 문 게를 떼어준 나팔수

박말연(여, 1938년생) 구술
2019년 1월 22일 채록
[동삼1동 절영3차아파트경로당]

어떤 여자가 그 저 바닷가에서 끼(게)가 중앙청[129]을 물어가지고 [일동 웃음], 그래가지고 시님(스님)이 지나다 보이까네, 그 끼가 그거를 물고 있으니 아파가 띨라고 이래가.

중이, 중이 막 대가리 맬가이(말갛게), 그거에 머리가 길었든가? 막 문때제끼[130] 마. 어띡이(얼마나) 아푸는가 둘이가 붙어가 야단이거든.

그러이께네 나팔쟁이가 [조사자: 나팔쟁이?] 나팔, 나팔 부는 사람이 길에 가이 보이까네 중이 뭐 여자 밑구녕을 들치보고 막 이래가. '아고, 안 되겠다.' 싶어가, 가가(가서) 나팔로 '빡- 빡-' 불어뿌이 놀래가지고 뚝 떨어지더란다.

[영도구 설화 62]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이용희(여, 1937년생) 구술
2019년 1월 22일 채록
[동삼1동 절영3차아파트경로당]

129) 여성 음부를 말함.
130) '매우 세게 문지런다'는 의미

호랑이. 아가 자꾸 마이 울어가지고. 고거는 고거밖에 길지가 않고.

아가 하도 우는데, 무슨 소리해도 아가 안 그치서, 그래 인자 꽂감을 주니까 아가 그칬다. 고거는 인제, 호랑이보다, 나보다 꽂감이 뭔고 해 그 이야기고.

[영도구 설화 63]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이용희(여, 1937년생) 구술
2019년 1월 22일 채록
[동삼1동 절영3차아파트경로당]

옛날 선비는 책만 보고 비가 와가지고 떠내려가는데, 먹을 끼 없은께 여자는 피를 빼가지고 그거 했는데, 그래 그기 떠내려가도 안 하더라 이 말이라. 선비 책만 보고. 그꺼징밲에(그것까지 밖에) 몰라. [조사자: 그래가지고 남자가 과거 해가 오니까.] 응, 저 여자가 딴 데 가서도,

"피 뽑던 아낙네야, 어, 옛날에 피 뽑던 아낙네가 지금도 피를 뽑고 있네."

그라더라 안 하나.

[영도구 설화 64]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이용희(여, 1937년생), 남옥순(여, 1937년생) 구술
2019년 1월 22일 채록
[동삼1동 절영3차아파트경로당]

[이용희 구술] 아부지를 업고 가는데, 그래 인제 나무 그거를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뜯어내삐리고. [남옥순: 길 잃어뿌릴까봐.] 그 노래 아이가. 그 노래 있대.

[남옥순 구술] 그래 했는데예. 그래 인자 그래 하니까, 버리러 갔거든. 가이까네 아들이 그래도 부모를 버릴 수가 없어서러, '하이고, 그냥 마 내가 살짝 어데다 가마이 감챠놓고(감추고) 마 부인보고는 갖다 버맀다.' 할라고 왔는데, 마침 그 인자 저 청국에서, 우리 그때 속국에서 그기 나오기로, 뭐야 그거 문제가 나오기로,

"똑같은 당나귀를 막 놔나놓고 그게 엄마 당나귀, 새끼 당나귀를 찾으라."

하이까네, 찾을 수 있습니꺼? 못 찾지. 몬 찾으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밥을 주어봐라. 밥을 주면 먹는 놈은 새끼고, 안 먹는 놈은 부모다."
그래, 동물도 그렇더랍니다. 사람처럼. 그래갖고 그걸 맞췄거든요. 그래,
"아유, 이렇게 어째 맞췄냐?"
그걸 하더라꼬. 그래 그런 이야기도 있고.
[조사자: 그래갖고 고래장이 없어졌는가예?] 예? [조사자: 그래갖고 고래장이 없어졌는가예?] 고래장이 없어졌다고. [웃음]

[영도구 설화 65]

정성을 드려야 하는 제삿밥

이용희(여, 1937년생) 구술
2019년 1월 22일 채록
[동삼1동 절영3차아파트경로당]

소금장사가 인자, 그때는 저 늦으니까 인자 저 산소 두 개가 있는데 고 옆에서 잠을 잤는기라. 잠을 잤는데 꿈에 그래, 꿈인가 생신가 누가 나와가지고,
"영감. 오늘 저, 저 아들 집에 내려갑시다."
인자 자기 제사라 이기라. 그래,
"가자."
이라이까네,
"헐멈, 나는 안 갈라네. 할멈 혼자 가라."
면서 이라거든. 그라니까네 옛날에 할머니 제사라. 그래가 인자 자기가 갔어. 자기가 가니까, 저 말하자면은 국에, 밥에는 돌이 들어가 있고, 국에는 인자 머리카락 이기 들어가 있고. 그기 말하자면 제삿밥에는 깨끗이 해야 되는데 더럽게 했다 이거라. 그래가 자기가 마음이 인자 말하자면은,
"부아가 나서 국을 쏟아가지고 손주 여기 디이게 해놓고(데이게 해놓고) 왔다."
이라더란다. 그래 그래하고 왔는 기라. 왔는데 와서 그래 영감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약초 이야기를 하면서, 응 뭐로 갖다가 바르면, 뜯어다 바르면 그 저 딘 데 잘 낫는데.' 하면서 그라니까, 그 소리를 인자 들었는 기라 이 사람이. 그 약초 소리를.
그래가 인자 그 이튿날 아침에 건넛마을에 내려가서 내려가가,
"그 엊저녁에 제사 지낸 집이 어느 집이냐"
물으니까네,

"어느 집이다." 이라거든. 그래,

"내가 사실은 엊저녁에 거서 잤더만은 할머이가 일어나서 그래 영감보고 가자."

카고, 이래 하더라. 그라는데 응,

"밥에는 돌이 들었고 국에는 머리카락이 들었다. 머리카락이 들은 걸 갖다가 그냥 머리카락이라 안 하고 구렁이가 들었다."

이라더란다. 그라이께네, 그러면서 인자,

"디이게 해봔 거를 응, 약초 이름을 대면서 뭐를 갖다가 바르면 그거 낫는다 하니까, 그걸 뜯어다 아 있는데 여 붙이보라."

고 그라면서 이야기를 하더란다. 그니까 제사를 지내면은 이 정신을 쓰고 깨끗하게 하라는 이 뜻이다면서 그 이야기 끝이 그래요.

[영도구 설화 66]

말 피를 무서워하는 도깨비

이용희(여, 1937년생) 구술
2019년 1월 22일 채록
[동삼1동 절영3차아파트경로당]

도깨비가 말 피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 팥죽, 팥죽의 유래가 그래서 그 팥죽을 뿌리고 그란다대. 그기 말하자면 도깨비를 내가 친해놓으면은 도깨비가 뭐든지 갖다준대. 그래 도깨비가 와 은도 금도 갖다 준다잖아.

그런데 도깨비하고 인자 친하다가 갖다 주는데, 그거하고 마음이 안 좋단 말이야. 상하고 나면은 해꼬지하고 다 가가는 기라. 도로 뺏어가는데, 땅을 사놓으면은 땅은 못 가간대. 땅에 막,

"끙, 끙."

하면서, 밤에 막 잡아땡기는 소리가 나고. 그래가 나중에는 몬 쓰구로, 돌멩이가(돌멩이로) 밭을 몬 쓰구로 만든다대. 응, 그기 도깨비라.

[영도구 설화 67]

아내의 바람기를 잡은 봉사

이용희(여, 1937년생) 구술

2019년 1월 22일 채록
[동삼1동 절영3차아파트경로당]

옛날에 어떤 봉사가 여자하고 같이 살았는데, 저 여자가 쪼금 바람기가 있어. 근데 봉사는 와 저 가서 둥 둥 뚜드리고 뭐 하잖아? 그래가 돈 벌이고, 눈이 어둡으니까. 그거 하는 사람인데, 하루는 죽을 먹는데 죽이 요래 부부간에 먹으면은 후루룩 후루룩 하면은 두 후루룩이가 소리가 나야 하는데 하나가 더 있는 거라. "후루룩"하는 소리가 한 개가 더 나오거든.

그러이께 남자가 거서 감을 잡았는 거라. '이상하다.' 그래가 '아 요거를 잡아야 되겠는데 내가 눈이 어둡으니까 몬 잡으니까.' 인자 한 번 나갔다 오더만은,

"내가 일로 띴다(맡았다는 의미). 큰 일로 띳는데."

그거를 인자 뭣이고? 인자 옛날에는 저 그거 뭐고? 저 큰 주머니, 쌀 담을 주머니를 담으라면 베를(천을) 사가 오는 기라. 떠가 와가지고,

"니 키만큼 되는 거, 응 자리(자루)를 하나 만들어라. 요번에는 굿이 크기 땜에 쌀이 말하자면 마이 들어온다. 그러이께네, 만들어라."

카니까네, 여자가 인자 신이 나가, 남자 또 가고나면 인자 바람을 피울라고 막 신나게 집었는 기라. 그래가 이 집어놔놓으이까네,

"니 키 드갈 만큼 하게 했나?"

카이까네,

"했다."

하거든. 그라니까 그 인자 여자보고 그래,

"니가 드가봐야 내가 자리가 니만큼 되나 안 되나 알 수 있으이 드가봐라."

이래하이까네, 그래 여자 딱 드가고 나이까네 손으로가 딱- 훌치지고 여자를 때리면서,

"야 이년아. 죽 먹을 때 니 후루렉이 내 후루렉이, 또 하나 후렉이 누고?"

이라면서 때리더란다. 그래가 여자 버릇을 가르키더래. 말하자면 고런 짓 못하구로 하더래.

[영도구 설화 68]

욕심 많은 영동할매

이용희(여, 1937년생) 구술
2019년 1월 22일 채록
[동삼1동 절영3차아파트경로당]

이월 보름에 바람 불면은, 바람 불 때 인자 치마가 팔랑거리면 이쁘라고 딸 내려오면 바람 불고. 인자 메느리 하면은 처마에(치마에) 용심 놓는다고, 처마에(치마에) 얼룩지라고 비가 온

다 이기라.

[영도구 설화 69]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백금열(여, 1929년생), 정금지(여, 1932년생)구술
2019년 1월 23일 채록
[동삼2동 성진경로당]

[백금열 구술] 남자가 만날 공부만 하고 있고 여자는 천 날 만 날 농사지으러 댕기고 웃기둥식이[131] 늘어놓고. 비가 창대같이 오가지고 웃기둥식이가 떠내려가도 그 남자 웃기둥식이를 거둘 줄 모르고 공부만 죽- 하고 있더란다. 그래 마 여자가,

"하, 내가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니캉 살지는 몬 하겠다. 니는 니대로 가라. 나는 내대로 간다."

그러고 갈라지뿠어. 갈라지뿌이까네 그 여자가 지 복이 작아가지고, 그 남자만 붙어가 있었으몬 잘 묵고 잘 살낀데, 지 복이 작아 놓으니께네 그 남자는 내뿌리뿌고 지는 지대로 가뿌고. 지는 못 살고 남자는 잘 묵고 잘 살더란다. 그 공부를 배와가지고.

[조사자: 그래갖고 아직까지 쟁피 훑고 있다 거지예? 오나 가나.]

[정금지 구술] 그래 옛날에 감사를 해갖고 마을 앞 깃발 들고 백성을 데리고 옴서(오면서) 보니, 저거 각시가 몬 묵고 살아갖고 쟁피를 훑고 있거든. 그래니까는 저거 뭐꼬?

"저게 있는 저 마누라 간 데마당(가는 곳 마다) 쟁피로세."

캄서러, 남자가 그 노래를 부르고 지나가더란다. 그래서 여자가 쟁피를 훑다가 고개 들어본께 옛날에 저거 남자더라고 안 하나. 그래가 남자는 서울 가서 출세를 해갖고 인자 지방을 내려올 때 본께 지난 각시가 산에서 쟁피를 훑고 있더란다. 쟁피로. 그라니까네,

"저게 있는 저 마누라 간 데마당 쟁피로세."

그람서(그러면서), 그 남자가 노래를 부리고(부르고) 간까네, 여자가 쳐다본다고 쳐다본께 저거 남자더란다. 그래,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래 인자 그때 돼서는 후회하면 뭐 하겄노? 인자 지가 인자 남자로 막 몬 살겠다고 나가라고 싸서 나가갖고 남자는 출세를 해가 오고, 지는 만날 뜯어봐야 쟁피만 훑는 기라.

[영도구 설화 70]

131) '웃기동식'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지 않음. 일반적인 화소는 '강피'다.

혀 짧은 소리로 부르는 보리타작 노래

백금열(여, 1929년생) 구술
2019년 1월 23일 채록
[동삼2동 성진경로당]

보리타작을 하거든. 자 보리타작을 뚜드리니까네, 하! 이놈의 보리쌀 이리 쳐넘가주니까네 보리가 눈 빤히 보고 있거든. 보고 있으니까네,

"여기 뚜러리라, 여게 치라. 여 치라. 여게 치라. 여 치라."

하이까네,

"형수씨도 내 좇만 바라고 제수씨도 내 좇만 바라고, 전부 내 좇만 바라고 있다."

고 그러는 기라. 그라고 또 뭣이라 캤는가 모르겠다.

"모른(마른) 보지는 보지다 담고."

젖은 보지는, 젖은 거는 자지, 자리에다 담으란 말이가 세(혀)가 짤라가이고,

"자지다 담고."

"저 모른 보지는 보지다 담이라."

보리를 인자 담아라 카는데, 담아라 카는 거로 인자 세가 짤라가지고,

"보지다 담아라."

카거든.

"자지다 담고, 보지다 담아라."

고 했거든.

[영도구 설화 71]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정금지(여, 1932년생) 구술
2019년 1월 23일 채록
[동삼2동 성진경로당]

[조사자가 아이가 울 때 '곶감 줄게 울지 마라' 이야기를 들려주자 아는 이야기라 하면서 구술함]

옛날에 아 달랜다고 하는 소리 아이가 그거.

그래갖고 호랭이가 와서 떡- 가서 해코지 할라꼬 앉아있는데, 인자 하도 안 달개지니까네

"곶감 주께."

이란께네, 고마 아가 떨컥 그치거든. 그치께네 호랭이가 '아, 내보다 더 겁나는 게 있구나.' [웃음] 싶어서 고마 달나뺐다(달아나버렸다) 쿠대. 할매가 옛날 그런 이바구를 하더라꼬.

[영도구 설화 72]

자기 새끼 귀여워하는 줄 아는 호랑이

정금지(여, 1932년생) 구술
2019년 1월 23일 채록
[동삼2동 성진경로당]

호랭이는, 우리 저 거제 살 때 그런 게 있었다 아이가? 만날 남자들은 벌어묵는다고 물에 이래 가서 배 타고 노력하고. 우리들은 인자 남자가 없으니께 나물해 댄다고, 산에 댕기면서 만날 나물 몇 춤 몇 춤 해 좋은 거로. 참 산이 그 으슥한 데가 있거든. 그래갖고 나물 해갖고 만날 막 메기 지니 메기 지니[132] 해갖고 막 줄줄이 세와놨다가 또 이고 내려오고 이랬거든.

그랬는데 한 번은, 인자 우리 한 해 결혼한 사람들인데, 잘 친하게 요래, 한 아(아이) 부리면(부르면) 다 나오거든. 그래갖고 갔는데, 어디 바우 밑에, 오줌 누러 간다고, 바우 밑에 오줌이 누룹아서(마려워), 나무 꼬쟁이가 많은께네 인자 바우 밑에서 눈다고 살- 간께네 무슨 새낀지도 모르고 오골오골 해갖고 너무 귀엽더란다. 호랭이가 새끼를 놔났는데 호랭이 새낀 줄도 모르고. 그래갖고 '뭣이 무슨 산에도 개가 있는가? 개가 새끼를 낳았는가' 싶어서러 그래갖고 인자 올라간께네,

"아이구, 보래이(봐라). 이리 내려 와 보래이. 여게 개 새끼 겉은 새끼가 있는데 와 봐라. 우리 하나썩 가 가자."

이란께.

"어데?"

캄서, 옆에 와서,

"아이고. 귀엽다. 니 한 바리(마리) 내 한 바리썩."

내리 갖는데, 인자 하나씩 하나씩 보듬고 인자,

"하이, 귀엽어라."

이란께, 뭣이 위에서.

"허허허."

그러더란다. 쳐다본께 크다큰 호랭이가, 그 해미장골이라 쿠는데, 그래가 마 호랭이 있는 줄 알았거든. 그래갖고 그 부근에는 나물을 안 했다고 마. 가면 호랭이 잡아묵힐까 싶어서러.

132) 캔 나물을 자루에 넣어 묶어둔다는 의미라 함.

[영도구 설화 73]

혀가 짧아 우습게 된 말(1)

정금지(여, 1932년생) 구술
2019년 1월 23일 채록
[동삼2동 성진경로당]

그런 거 봤다. 내가 우리 이우지서(이웃에서). 비가 온께나,
"엄마, 비 온다. 보지 볶아라."
이라이.
"에이, 망할놈의 새끼, 보지가 뭐꼬?"
이라이께,
"볶아 묵는 거, 보지 좀 볶아라. 보지 좀 볶아라."
그래. 아이구 그놈의 소리 땜에 어찌 웃어났는지, 할매가 와서, 우리 집에 인자 할매가 있으니께 같이 친구라고 와갖고,
"아이고, 우리 집에 저 문디 팔푼이 새끼 저거는 비 온다꼬 낼로 보지 볶으란다."
그란께. [웃음]

[영도구 설화 74]

혀가 짧아 우습게 된 말(2)

정금지(여, 1932년생) 구술
2019년 1월 23일 채록
[동삼2동 성진경로당]

"형수 보지도 보고접고(보고싶고), 엄마 보지도 보고접고." [웃음]
저거 엄마는 그때 죽고, 저거 형수가 저거를 덱고(데리고) 밥을 해주고 그래 키아다가 군에를 갔거든. 갔는데 이놈우 편지를 한 장 해야 되는데 올케 쓸, 글로 알똥말똥 한께 쓸 줄을 모르는 기라. 그래논께네 인자 저거 친구한테 물어서,
"집에 애초에 편지를 씨몬(쓰면) 앞에 씨는 거로 우째 씨노?"
이라니까네,
"인사말로 해라."
"그 우찌 인사를 할 것고?"

물으니께네,
"보고접다고 그래 인사를 해라. 누나한테도 누나도 들믹이고(들먹이고) 보고집다 카고, 형수도 너무 보고집다 카고."
그래 시키놔논께나, 이제 저거 형수한테 편지가 왔는데 읽어본께네,
"형수 보지도 보고접고, [일동 웃음] 누나 보지도 보고접고."
인자 손주들, 조카도 뭐 함서 '아무개 보지도 보고접고.' 그래 편지를 썼더란다. 그란께 욕이 아인데(아닌데) 쎄(혀)가 짤라논께 말이, 글이 안 되는 기라. 그래갖고 그리 말로 한 기라 그게.

[영도구 설화 75]

혀가 짧아 우습게 된 말(3)

정금지(여, 1932년생) 구술
2019년 1월 23일 채록
[동삼2동 성진경로당]

그래 뭣이,
"아저씨, 비가 오요?"
그란께, 고마 '예' 카든가 할낀데,
"아지매."
불러놓고
"보지- 보지- 오요."
안 캐나. [웃음] [조사자: 보슬보슬 온다고.] 응.
"아저씨. 비가 오는 기요?"
이란께나
"아지매. 보지- 보지- 오요."
그라더란다. [웃음]

[영도구 설화 76]

첩의 시샘으로 잃었던 아들을 되찾게 된 남자

박상원(남, 1939) 구술

2019년 1월 23일 채록
[동삼2동 하리경로당]

옛날에 어느 할배가 작은할멈 큰할멈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래가 이 할매가, 큰할매가 이 애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작은할멈을 결혼을, 재결혼을 했는데 큰할머니는 놔놓고. 그래 하고난께네(그렇게 하고나니) 이 뭐야 '재앙 시기'라는 게 있었어.[133]

거기 있어가지고 이 큰할매가 이 애를 가졌어. 작은 마누라를 데리고난께네. 작은할매가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큰할매가 엉뚱시리 아를 가졌단 말이여. 그래놓고 이 할배가 바빠가지고 그래 인자 이 할매가 공직, 아니 이 할아버지가 공직에 있는 할아버지라. 그래 출장 갔다가 인자 멀리 가고 없었는데, 이 할매가 인자 이 애를 뱃속에서 잘 열달 동안 잘 키아가지고 애를 순산하게 됐는데, 그 집에 또 개가 있었는 기라. 개가 또 인자 새끼를 가졌어. 새끼를 가졌는데 그 이 할매하고 같은 날에 인자 순산하게 됐는 기라. 그래 이 할매가 한 집 아래서, 개를 보고 인자 밥을 주면서,

"한 집 아래서 둘이가 이 순산을 하면 안 된다. 너는 나가서 순산을 해라. 나는 집에서 순산을 할 테니까 너는 배같에(밖에) 가서 순산을 해라."

그랬는 기라. 그래 개가 인자 저도 순산하고 그 집 할머니도 순산하게 됐는데, 그때가 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아 보리, 보리가 인자 익어가는 그런 시절.

근데 이 개가 인자 새끼를 놓기 위해서 인자 버겉에 가가지고 새끼를 낳았는데, 그라고 새끼를 놓고 나니까, 또 저 집에서 인자 할매도 애를 낳았는 기라. 애를 낳는데, 그래가지고 인자 이 작은할마이가 인자 이 뒷수발을 하게 된 기라. 애를 받으이 아들인데, 받아가지고 뭐 작은할매가 이거 마 보리밭에 내삐릿는 기라 아를. 똘똘 싸가지고 아 죽었다꼬.

그래가지고 내삤는데 이 개가 새끼는, 인자 몇 마린가 그거는 마 모르지만은 새끼는 젖을 하나도 안 주고, 이 애기를 갖다가 이 개가 젖을 멕이가지고(먹여서) 키았는 기라. 그래가지고 이 주인네가 돌아왔을 때는 틀림없이 순산을 했는데, 집에 있는데 애가 없거든. 그래,

"이 어찌 된 사실이냐?"

작은 할마이한테 물어본께네,

"아, 죽은 아를 낳아가지고 버맀다."

이라는 거라. 그랬는데 이 개가 인자 그때 와가지고 그 주인장 바짓가랑이를 물고 인자 마 흔들어가지고 자꾸 마 왔다갔다 왔다갔다 난리가 났는 기라. 그래,

"왜 그렇나?"

한께, 자꾸 마, 마 바짓가랑이를 물고 흔들고 가자고. 그래 인자 그 개를 따라서 가니까, 그 밭에 있는 새끼는, 강아지 새끼는 다 죽었고 그 애가 '앵앵'하고 울고 있더란다.

그래서 '아하!' 그래서 바로 이기 첩하고 본마누라하고 틀린다는 것을 알아채리고, 그때 작

133) 이야기 속 '재앙'은 삼신할매를 말함. 아이를 못 낳는 본처가 남편이 첩을 들이면 삼신할매가 시샘을 해 아이를 갖게 된다는 속신을 말함.

은마누라는 내쫓아버리고 큰마누라하고 진짜 진정하게 내 마누라라꼬 생각하고 잘 살았더란다.

옛날이야기 그런 것도 있다.

[영도구 설화 77]

대를 이어준 첩을 식구로 맞이한 부인

박상원(남,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23일 채록
[동삼2동 하리경로당]

어느 집에, 부잣집인데 인자 밭이 아니 논이, 논이 있었는 기라 논이. 그래가지고 이 밑으로꺼지 자식이 없었는데, 이 할배가 논에 인자 그거 물끼 보러 께를 가지고, 비가 올라 칸께 인자 물끼를 맞챠야 되고 이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일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마 옷이 다 젖었는 기라. 그래가지고 그 논 옆에 쪼그만한 초가집이 있었는데 거기 드갔는 기라.

들어가가지고 이 할매고, 이 아지매가 보니까네 다 젖어있는데, 도저히 이 나만(나이가 많은) 할배를 그냥 보낼 수는 없고. 이래가지고 옷을 갈아 입히가지고 그래서 인자 식사 대접을 좀 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인자 잠을 자게 됐는데,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그 할머니를 사랑하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거서 애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애기를 잘 키우고 있었다꼬. 있었는데 그라고나서 인자 그 영감이 돌아가싰는 기라.

돌아가시고 처음에 제사를 딱 지냈는데, 거 뭐야 그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저거 동생 아들, 조카를 인제 양자로 그때는 들있는 기라. 양자를 들있는데, 이 할매가 인자 제사를 지내는데, 잠깐 졸았는데 그 꿈에 저거 남편은 들오지를 몬 하고 그 조카 아부지, 저 시동생이 와가지고 전부 묵꼬, 맛있게 묵고 나가더란다.

그래서 아 퍼뜩 잠에서 깨고 보니 그 이상하거든. 그런데 그 꿈에도 저거 아부지가, 저거 남자, 저거 영감이 그 제사 채려논 건 안 묵고, 팽-하게 논으로 가더라네. 논으로 가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쪼끄만한 얼라를(아기를) 보듬고, 그 작은마누라 되는 사람이지. 그 여자가 찬물 하나, 나물 하나, 밥 하나 딱 이래 채려놨는데, 그 영감이, 저거 영감이 거서 잘 묵고, 맛있게 묵고 이래 가거든. 가니까,

"아이고, 잘 묵었다."

쿠면서 나갔는데, 그 꿈에 현명하게 그 마 딱 나오기 때문에 그 당장 제사고 지랄이고 때리 치아삐리고 그리 팽-하게 갔어. 거 가서 보니까 이 얼라를 하나 보듬은, 젊은 여인이 얼라

를 하나 보듬어 있었다 말이야. ‘그럼 이 애가 바로 우리 애다.’ 싶어서 인자 그 애를, 그 여자하고 그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인자 행복하게 둘이서 잘 살았는 이런 이야기 있고.

[영도구 설화 78]

귀신을 태워주고 부자가 된 어부

박상원(남,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23일 채록
[동삼2동 하리경로당]

내가 들은 이야긴데, 옛날에 이 섬에서, 쪼그만한 섬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 섬에서 그 당시는 뭐 육지도 몬 나가고 섬에, 쪼끄만한 섬에서 거 할배를 묻었는 거라. 묻었는데, 이 아! 묻은 게 아이고(아니고) 그 섬에서 이래가지고 인자 돌아가시가지고 이 섬에서, 그때는 ‘이 섬에서는 묘를 써선 안 된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든 육지로 내보내가지고 묘를 쓰는 그런 동네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죽으면 무조건 하고, 인자 이 어떻게 하면서 날이 좋아가지고 그때는 노 젓고 하는 이런 시절인데, 노를 저어가지고 이 시체를 싣고 육지로 가서 묻어야 되는데, 날씨가 바람이 마이(많이) 불어가지고 못 가는 이래가지고 인자 한- 7일장이라고 있었어. 7일장. 5일장, 7일장 이런 기 있었는데, 7일장이 딱 돼가지고, 날씨가 좋아가지고 육지로 나가서 인제 묻었는데, 일 년이 딱 돼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됐는데, 그 저 집으로 가야 제삿밥을 얻어먹을 꺼 아닌가배? 귀신이 집에 가야 제삿밥을 얻어먹을 낀데 못 가가지고 인자 그 변두리에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쪼그만한 배가 이 밤에 낚시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배가 있었는데 그 배 사공이, 어느 영감이 부르는 기라. 불러가지고 그래서 그 뭐라,

“돈은 얼마든지 섭섭지 않게끔 오늘 고기 잡는 거 이상으로 해 드릴 테니까 어느 섬에까지 좀 가자.”

그래가지고 뭐 구신도(귀신도) 아이고(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아유, 그러면 갑시다.”

이래가지고 인자 태워가지고 그 섬에 갔는데, 그 섬에서 내리면서 하는 말이,

“여기서 몇 시까지 꼭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런께,

“한 시까지 꼭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만일 가면 안 된다. 내가 와가지고 그때 내가 충분한 사례를 해드릴 테니까 여 있어야 된다.”

그래 그 소릴 듣고 이 사람이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고 그 할아버지가 내려가는데, 하얀

옷을 입고 내려가는데, 이 인자 내리가고 나서 한 시간 이상 있었는 기야. 갔다가 딱 오더만은, 그 배 오르면서 진짜 섭섭지 않게끔 그때는 뭐 돈이 어디 있었노? 쌀 같은 거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인자 음식하고 뭐 이런 거를 인자 가져와가지고, 그날 저거집이 작업해가 고기 낚는 것보다도 몇 배 이상으로 사례를 주고, 이 할아버지가 그 또 배를 타고 육지로 또 건너는 기라.

그때는 그 할아버지가 인자 귀신인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그래 가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인자 내리면서,

"고맙다."

고 인사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고기 그때 억수로(많이) 잡아가지고 갑자기 벼락부자가 돼뿠다. 이런 이야기도 마이(많이) 있어.

[영도구 설화 79]

구렁덩덩 신선부

장숙자(여, 1945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동삼3동 도시아파트경로당]

그게 어느 엄마가, 이제 가난한 집 엄마가 이제 애기를 하나 낳았는데 뱀을 놓은 거야. 그 인자 구렁이를 낳았는데, 이 구렁이가 하는 말이

"엄마, 엄마. 나 장가 좀 보내 달라."

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장가 보내 달라니까,

"네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어? 이 구렁이로 태어나고 장가를 가느냐?"

"그래도 나 저 집에 셋째 딸한테 장가가고 싶다."

고, 막- 자꾸 조르니까 그 엄마가 가가지고 이제 사정을 이야기를 핸 거야. 그러니까 첫째 딸이,

"흥, 안 해."

이라고. 둘째 딸도,

"미쳤나? 내가 그 구렁이하고 결혼을."

셋째 딸이 인자,

"그러면 내가 시집가겠다."

이래가 시집을 간 거야. 그래 시집을 갔는데 인자 남편이 인제 간장 속에 들어가고, 간장에 한 번 푹- 빠지고, 그 다음에 인자 밀가루에 가서 묻혀가지고 허물을 싹- 벗는데, 정말

멋진 뭐라 그랄꼬? 총각이, 도령이 인물도 좋고 그런 신선 같은 도령이 나타난 거야. 그래 뭐 딸도 좋아하고 그래 했는데, 그래갖고 첫날밤에 그 구렁이가 허물을 탁 벗고 하는 말이, 허물을 주면서,

"내가 삼년만에 돌아올 테니까, 요거를 절대로 언니들 눈에 띄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인제 그거를 딱 주고 간 거라. 그래갖고 그 부인은 그 뭐꼬? 그 저 허물을 동정 속에다 딱- 해가지고 동정. 옛날에는 한복이니까 만들어갖고 입고 있는데 그 저거 언니들이 알은 거야 그거를. 막 속이 상해 미치는 거라. '아, 내가 갈꺼를. 내가 갈꺼를.' 이래 했는데 , 이 막내딸이 이왕 갔으니까. 근데 분명히 '저 아이가 그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을 거다.' 싶어갖고 마 집안을 다 디비고(뒤지고), 다 디비도 없는 거라. 그래 어째어째 해가 옷을 벗어놨는데 그 옷을 그냥 마 확 불에 살아삔 거라. 그래 그게 없어진 거라.

그래가지고 인제 저 이 부인이 '아이고, 큰일 났다. 인자 남편이 못 돌아오게 생겼다.' 아! 남편이 오다가 뭐 뭐 자기 그 저기 몸, 그 허물 벗은 게 타는 냄새가 나니까 도로 돌아간 거라 이 남편이. 근데 그 부인이 그걸 모르지.

그래갖고는 인제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을 찾아 떠나는 거야. 아주 먼 길을 가면서 떠나는데, 뭐 곳곳에 가면서 물어도 그 무슨 소식을 알겄노 그지? 사람들마다 물어봐도 잘 모르지. 그래 정말 어느 어느 한 곳에 도착하니까 막 애들이 새를 훑으면서 나 참, 우리 할머니한테 들어도, 이게 지금 칠십, 한 육십 몇 년 된 이야기네. 그걸 지금 기억해가 하거든. 그래갖고 하니까 애들이 막 새를 막-,

"후여! 후여!"

하고 쫓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거는 내가 확실히 생각 안 나는데, 음- 그 이름이 있더라. 그 도령이 내일 장가간다 이거라. 어떤 도령 이름을 알려줘. 그기 정 도령이라 하던가? 하튼 그 정 도령인데 내일 장가가는 날이라고 막- 곡식 먹지 마라고 막 날리고 있어. 그래 어, 자기 남편이 혹시 아닌가 싶어서 가서 인제 물어보니까,

"그 집이 어디냐?"

이라니까네.

"저기다."

이라거든. 그래갖고 인자 자기는 바랑(배낭)을 매고 인자 길을 떠났는데, 그 집에 가서

"저기, 여기 혹시 내일 결혼식 하는 집이냐?",

고 하이,

"그렇다."

고 이라거든.

"그래, 그럼 오늘 하룻밤만 재워줄 수 없겠냐?"

고 하니까,

"아- 그러면 안 된다."

는 거라. 그러니까네 이 부인이 꾀를 쓴 거야. 자기가 인자 좁쌀을 한 한 되쯤 들고 왔었는데

그걸 갖다가 거기에 모른 척하고 쏟는 척하고 다 쏟아뿐 거라.

"그래 내가 요거라도 줍게 오늘 밤 여기 좀 있게 해달라."

그래 그 좁쌀을 하나씩 줍는 거라.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 그래 인자 밤중이 됐다. 밤중이 되니까 달빛이 휘영청하게 이제 밝은데, 저기서 남자, 내나 내일 결혼하는 남자가 하는 말이, 내가 풀어서 얘기했고, 그때는 또 재밌는 말이 있던데.

아 긍께 자기 부인을 생각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야기 하이께 자기 이야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가가지고 인제 그 남편을 만나게 되지. 만나게 되는데, 그 또 시험이 있더라고 뭐 물동이를 이고 갔다가 물을 채워서 오는데 절대로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갖고 오기, 그 다음에 또 뭐가 한 세 가지가 있더라고. 근데 그건 기억이 안 나네.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 좀 그 중간에 많이 빠졌는데,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

[영도구 설화 80]

우렁각시

장숙자(여, 1945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동삼3동 도시아파트경로당]

우렁각시도 내나 그 저기 근께 인자 원래 늘 항상 보면은 착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복이 오는 거야. 근께 이 총각도 장가도 못 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장가도 못 가고 이러고 있는데, 그 우렁각시 그거를 갖다가 말하자면 논에서 우렁각시가 아니고 우렁이를 인자 키워가지고 인자 집에다 갖다 놨는데, 아침에 일나면 밥이 차려져 있고, 어딜 저녁에 나갔다 오면은 아 맛있게 상이 차려져 있고 마 희한한 거라.

고래 고래 세월이 한 일 년이 지나서 그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겠는 거라. 그래서 인자 하루는 딱 숨어서 보니까, 정말 예쁜 처녀가 나와가지고 그걸, 밥을 탁 해가지고 상을 차려가지고 마 그래 놓거든. '아, 도대체 저 여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인자 가가지고 뒤에를 살살살 보이까네, 고 고동 속으로, 우렁이 속 저거 집으로 쏙 들어가는 거라. 그래 인자 알아가지고 다음에는 인제 그 처녀가 인제 또 음식을 탁 하고 있는데 인자 못 가게,

"내하고 그냥 같이 살자."

이라니까네. 자기는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가 우렁이 속에 들어가가 있어야 편안하게 인제 나중에 낭군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 이래 핸 거라. 그래 인제 하니까,

"아, 제발 좀 놓아달라."
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나오면은 사람 구실을 몬 한다."
그래도 마,
"안 된다."
고, 남자는 마 붙들고 이라는 거라. 근께 이제 할 수 없이 나와가지고 그거 하는데, 그런데 밖에는 몬 나가지. 밖에도 몬 나가고 이래 쌌다가 언젠가 한 번 밖에 나가가지고 사또한테 들킨 거야. 사또가 인제 그걸 이제 멀리서 본 거라. 예쁜 여자가 있으니까. 그 부인인데. 그래 그 여자를 취할라 하니까 그 사또가 인자,
"니, 내 따라가자."
이러니까,
"나는 남편이 있어서 안 된다."
이라니까,
"그런 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따라가자."
이래가지고 인제 가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든가? 뭐 어쨌든가? 뭐 하여튼 나중에는 뭐 다시 음- 뭐라 할꼬? 음. 다시 찾게 되는, 마누라를. 응, 우렁각시하고 다시 찾게 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도 있더라고. 근데 확실히 모르겠네.

[영도구 설화 81]

떡 장사 할머니와 호랑이

장숙자(여, 1945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동삼3동 도시아파트경로당]

그거는 엄마가, 떡 장수 엄마가 인제 애기들 멕이(먹여) 살릴라고 떡을 갖다가 인제 저 팔로(팔러) 갔다가 오는데, 호랑이가 인제 나타나서 잡아먹을라 하니까, 아! 저거 떡을 이고 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묵지."
이래한 거라. 그래가 또 하나 주고. 또 산 넘어 가니까 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묵지."
이래갖고 호랑이한테 떡을 다 뺏긴 거야. 정 말하자면은. 그래가지고 그 떡을 그 애들도 못 갖다 주고 돈도 안 되고 인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햇님달님 이야기 이런

거야 책에도 나온다 아이가 그지?

[영도구 설화 82]

아버지를 살린 바리데기

장숙자(여, 1945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동삼3동 도시아파트경로당]

그 바리데기를 저거 엄마가 인제 아 죽이라 하는 거를 저거 엄마가 그기 불쌍해가지고 이 상자에 딱 옇어가지고 바다에 띄운다 아이가? 그래 어느 어부가 데리다가 인제 그 바리데기를 잘 예쁘게 키와놨어.

근데 인자 나라 임금이 죽게 생겼는 거라, 병이 나서. 근데 이 말하자면 뭐 예언가겠지, 뭐 그런 예언가가 그래,

"저기 서천서역, 서천서역에 가서 약물을 구해갖고 먹으면은 살아난다."

하는 거라. 그 이야기를 인제 요 바리데기가 들었지. 들어갖고 자기가 어떤 출신인가를 인자 할머니한테 들은 거야. 그 어부 부부한테 들어갖고 공주, 근께 니는 그래 저기 나라에서 온 공주라고 했는가? 그건 난 잘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응 그니까 그 바리데기가 지가 아부지를 살려야 되겠다고 그 서천서역을 지나는데, 서천서역을 지나면서, 강을 지나면서 어찌나 고난을 당하고, 불을 지나면서 고난을, 산을 지나며 고난도 온갖 고난을 다 당하는데, 그 고난 속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참- 많아.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뭐 뭐 뱀을 만약에 만나면은 나를 어떻게 해 달라. 그래 하면 내가 니를 나아주겠다(놓아주겠다) 이런 거도 있고. 불 속에 니는 이 불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불을 건너게 해주겠다. 이런 마귀, 마귀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그 뭐라 하노? 그 단어가 퍼뜩 생각이 안 난다. 음, 말하자면 응 귀신들이, 귀신들도 아니고 하여튼 [조사자: 도깨비?] 응? 뭐 도깨비 같은 그런 거. 그런 것들이 하이튼 해갖고 그래 그래 가가지고 약물을 구해가지고 자기 아부지를 살렸다는 그런 바리데기 공주 이야기도 있네.

[영도구 설화 83]

원효대사와 요석공주

장숙자(여, 1945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동삼3동 도시아파트경로당]

원효대사는, 원효대사 이야기는 그 요석공주 그 신라지? [조사자: 예.] 요석공주가 인제 혼자 됐잖아. 근데 원효대사가 자기가 인제 운명을, 자기 운명을 자기가 점치는 거지. 내 몸속에 이 기가 큰 아이를 하나 낳을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에,

"하늘을 받칠 나무가, 하늘을 받칠 나무가 있다."

하던가? 하여튼 그래갖고 마 그 서라벌 거기를,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인제 외치고, 외치고 다니니까 인제 그 요석공주가 그걸 알아들었는지 몰라도 그 원효대사를 초청을 하잖아. 그래갖고 인제 요석공주하고 밤을 한 번 지내게 되지. 그 이제 자기는 파계승이 되고 요석공주는 애기를 낳고. 그 원효대사는 인제 그리 하고는 다시 절로 돌아가고. 파계승이 돼갖고 절로 돌아가고, 요석공주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설총인 거야.

[영도구 설화 84]

아사달과 아사녀

장숙자(여, 1945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동삼3동 도시아파트경로당]

그게 신라시대 때 내나 그 저기 무영탑. 무영탑의 이야기잖아 그지?

고 인자 근께 아사달이 인제 그 불국사에 그 탑을 만들러 갔거든. 근데 아사녀가 부인이잖아. 그 남편이 보고싶어가지고 그 왔거든. 근데 고게 안압지가? 안압지가? 그 무슨, [조사자: 포석정예?] 아니, 포석정은 술잔 이래 돌리는 데고.

안압진가? 그래가 그 연못이 있는데 그래 자기 남편이 하는 말이, 그 자기 저 탑을 세우면은 거기 그림자가 비친다네. 그래 비치는, 그래서 비치는데 그 아사녀가 보니까 그림자가 안 비치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죽은 줄 알고 자기가 그 연못에 빠져 죽은 거라. 근께 아사달이 그걸 알고 자기도 빠져. 그래서 그기 무영탑이라고 이야길 하지.

[영도구 설화 85]

인도에서 온 허황후

장숙자(여, 1945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동삼3동 도시아파트경로당]

허 황후는 인도 그 아유다, 응 아유다라는 거기서 허 황후가 공주였는 거라. 공주였는데, 인자 그 우리나라 가야, 그 석탈해가? [조사자: 아니예, 김수로.] 아! 김수로. 응, 김수로왕한테 그 시집온다고 그 얼마나 그거 거짓말이 많이 섞였노 그자? 배를 타고 와가지고 그래갖고 뭐 결혼했는데. 석탈해도 알에서 낳잖아. [조사자: 예. 맞아예.] 알에서 났거든. 응, 알에서 나가지고 인제 이래갖고 다들 신화지.

[영도구 설화 86]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장숙자(여, 194년생5)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동삼3동 도시아파트경로당]

에밀레는 하- 스님이 그 종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지, 종을 만들었는데 근께 고것도 인제 절에서 만드는 거니까. 근데 소리가 안 좋은 거야. 너무 소리가 안 좋으니까 인제 말하자면 무슨 산신령이든지 누구든지,

"그 속에는 아이가 하나 들어가야 소리가 좋다."

이래갖고 인제 그 애기를 거기다 잡아넣잖아. 잡아넣어가 끓여 그 쇳물에. 애기를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종을 치니까 그게 인제 엄마 찾는 소리로,

"에밀레~."

이래 말하자면 에밀레지. 그게 어데 '딩~' 하니 그기 '에밀레' 하고 들린다. 그래서 그게 에밀레가 된 거지. 응. 애를 넣어가지고, 그 사람을 인제 넣어서 만든 거야.

[영도구 설화 87]

선녀와 나무꾼

장숙자(여, 1945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동삼3동 도시아파트경로당]

그냥 나무꾼이 나무하다가 뭐 선녀가 목욕하는 걸 보고 하도 예뻐서 옷을 하나 훔쳐갖고 숨겨놨다가, 숨겨놨다가 그래갖고 인자 뭐 삼 년이 지나, 그라니까네 애기를 셋 낳아야 그 날개옷을 줘도 못 올라가는데, 하늘에 못 올라가는데, 애기 둘 놓고 주니까, 마 저기 애기 둘 안고 마 날개옷 걸치고 마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래가 너무 남편이, 부인도 남편이 그리워서 해가 뚜레박 내려주잖아.

[영도구 설화 88]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장숙자(여, 1945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동삼3동 도시아파트경로당]

옛날에는 고래장이 육십이면 고려장이거든. 나이가 많다 이래갖고. 그 아부지가 그 인제 할머니를 업고 고래장 시키러 가잖아? 산에. 이 묻으러 가는데 그 쪼끄만한 요 아들이 따라간 거야. 따라가가지고 인자 할머니를 묻고 내려오는데 지게를 안 들고 내려오니까 그,

"아부지, 지게 들고 가자."

이라는 거야. 그니까,

"어, 지게를 뭐할라고 들고? 필요없다."

이라니까,

"나중에 아부지 저 내가 이래 갖다가 묻어야 안 되느냐?"

이래갖고 그때부터 고래장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여.

[영도구 설화 89]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효부

장숙자(여, 1945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동삼3동 도시아파트경로당]

그 시어머니가 너무 오래 앓아 있으니까 며느리가, 그 며느리가 효부지. 며느리가 그 인자 시어머니 좀 돈도 없고 하니까 먹일 게 없잖아? 그래서 그 지렁이를 고아가지고 맨-날 먹였는 거라. 그 맨날 먹이니까 할머니가 마 살이 통통하게 쪄서 인자 살아났다는 그 정말 그 효심 깊은 며느리의 이야기고.

[영도구 설화 90]

자기 아기를 죽여 시어머니 병을 낫게 한 효부[산삼동자]

장숙자(여, 1945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동삼3동 도시아파트경로당]

또 뭐 그런 효심 깊은 아들 이야기도, 자기 애기 솥에 넣어가지고 동삼이라고 동삼을 먹으면 자기 엄마가 낫는다 하니까, 동삼을 어디서 구하노? 저 삼을 못 구하니까. 지금 말하자면 산삼이지. 못 구하니까 자기 애기를 삶아가지고 멕이(먹여). 멕이갖고 살렸다는 그런 효자 이야기.

[영도구 설화 91]

두 동네가 한 동네 되었네

장숙자(여, 1945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동삼3동 도시아파트경로당]

며느리가 밥을 먹는데 너무 많이 먹는 거야. 마 하루 세 끼썩 마 세 끼 아니라 네 끼씩 먹고 이라니까, 네 끼씩 묵고 막 이라니까 마 집안 살림이 거덜이 나게 생겼어.

그래갖고는 그 저 또 화장실에 자주 가이까네, 옛날에는 마 종이도 없고 이라니까 기둥에다가 씩- 닦고 인자 이랬던가봐. 그니까 거기다 인자 못을 딱 박아놔 거야. 그래갖고 그 엉덩이를 이래 썩- 닦다가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이고. 두 동네가 한 동네 돼뿠다." [일동 웃음]

그런 이야기.

[영도구 설화 92]

할미꽃의 유래

장숙자(여, 1945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동삼3동 도시아파트경로당]

아니 그 딸을 삼형제를 길렀는데, 할머니가 근께 엄마지. 그때는 엄마였는데 다 길러가 시집을 다 보낸 거야. 근데 인자 할머니가 혼자 되니까 너무 너무 딸들이 보고 싶어서 인자 첫째딸 집에 딱 갔다? 근데 첫째 딸은 엄마를 싫어하는 거라. 오는 거를.

그러니까 또 인자 둘째딸 집에 인자 또 갔다? 근데 둘째 딸도 어머니를 싫어하는 거라. 셋째딸집에 인자 가는데, 막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 언덕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셋째딸은 인자 엄마 오는 걸 좋아가지고,

"엄마 오라."

이라는데, 할머니가 인자 두 딸 집을 지나다 보니까 기운이 다 떨어진 거라. 배도 고프고. 그래가 그 언덕에 쓰러져서 돌아가시가지고 그 할미꽃이 된 거라. 그래 셋째딸이 얼마나 슬펐겠어? 그런, 그런 할미꽃의 전설.

[영도구 설화 93]

소쩍새 전설

장숙자(여, 1945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동삼3동 도시아파트경로당]

소쩍새 이야기는 밥을 이래 좀 하면 시어머니가 맨날 그 메느리 밥 못 먹게 할라고 쪼깨만(조금만) 하라는 거야. 그 메느리가 배가 고파서 그래,

"솥이 적다. 솥이 적다."

그게 소쩍새 이야기고.

[영도구 설화 94]

선녀와 나무꾼

김정자(여, 1939년생), 정점순(여, 1947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동삼3동 동삼그린빌아파트경로당]

[김정자 구술] 나무꾼이 (웃음) 살았는데, 시내에서. 그 나무꾼이 살았는데 나무하러 그걸 잘못 넘어갔는 기라. 그 나무를 짊어지고 다녔는데, 나무를 하러 다녔는데, 나무를 하러 다녀도 ○○로 가야했는데, 인자 산에 나무하러 가니까 선녀들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선녀들한테 한 눈에 홀딱 반했버렸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선녀를, 선녀 중에서 선녀 옷을 가지고 딱 도망을 가뿠는 기야. 딱 바위 뒤에 숨어 있는데 다 하니까 입고 올라갔는데 이 선녀 하나만 몬 올라갔는 기야, 이 옷 때문에.

그래 그 선녀한테 잘 살고 있는데, 잘 살았는데, 애기를 둘이를 낳았는 거야. 그래 세, 네 명을 나아야 되는데, 그 네 명을 나아야 못 올라가는데, 근데 그 둘이 놓고 인제, 근데 하도 그 얘기를 해달라니까는 마누라가 너무 좋으니까는 얘기를 했는 거야. 그러니까 선녀가 그 옷을 딱 받아 쥐고는 홀딱 애기 안은 채 올라가뿌리는 기야. 그래 나무꾼은 혼자 됐지, 뭐.

[정점순 구술] 인자 그래갖고 남편이 마누라를 찾으러 가야 하는데 못 가는 거라. 그래가 인자 산신령을 만나갖고 인자 이리 이야기를 하니까 인자,

"보름날 아무 시에 가면은 그 인자 물로 길어갖고 목욕을 하니까 그 인자 물통을 잡고 올라가라고."

인자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거지, 그 산신령님이. 그러니까 인자 그 날로 탁 기다리고 있다가 인제 그 골짜기 거기로 인자 갔는 거라. 산신령이 일러준 대로. 그래 가니까 인자 두레박이 내려오더래요. 그래 그거를 집어타고 인자 마누라를 찾으러 간 거지, 하늘나라로. 아들들도 만나고 마누라도 만나고. 그래 거서 인자 잘 살았다더라고예.

[영도구 설화 95]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배종순(여, 1929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동삼3동 동삼그린빌아파트경로당]

아가 울어싸이 배겉에서(바깥에서), 배겉에 '이놈의 자석(자식) 내가 저거를 아를 엎고 가야 하겄다.' 싶어가지고 배겉에 기다렸거든. 암만 달개도(달래도) 아가 그냥 운다. 우니까네,

"아, 우지 마라. 그 꽂감 줄까?"

카이까네, 아따 이놈우 호랭이가 '내카마 더 겁나는 꽂감이 있구나.' 그래 마 가뿌더란다.

[영도구 설화 96]

실뱀이 된 구두쇠 시어머니

배종순(여, 1929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동삼3동 동삼그린빌아파트경로당]

시아마이가 며느리 보고,
"작기(작게), 작기."
만날,
"작기, 작기."
카다 죽었거든.[134] 그래가지고 죽어가지고 마 뱀이가 됐어. 혼백이 있거든. 혼백 아나? [조사자: 알아요. 혼백.] 요런 요런 혼백. 혼백이가 실뱀이가 돼가, 마 밥 가져가만 마 혀가 나불나불 그런다. 그래가 그런 이야기 있더라.

[영도구 설화 97]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배종순(여, 1929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동삼3동 동삼그린빌아파트경로당]

"뭐를 주꼬? 뭐를 주꼬? 우리 아무꺼이 주까?"
그래가 인자 그 시주를 가가지고 종을 맨들어도(만들어도), 아무리 해도 소리 안 나거든. 그래 거 가서러 그 아를 사가 갔는가? 뭐 우찌 갔는가? 그 아를 종에다 옇어놓으니 그래 소리가 잘 나더란다. 그런 이야기 있었다. [웃음]

[영도구 설화 98]

지렁이국 시어머니 봉양한 며느리

134) 시어머니가 구두쇠라 며느리가 밥을 하기 위해 쌀독에서 쌀을 떠내려 하면 항상 쌀을 작게 떠내라 하다 죽었다는 의미다.

배종순(여, 1929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동삼3동 동삼그린빌아파트경로당]

메느리가 효부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뭣이 이러치(이렇게) 맛있는고?' 싶어가, [조사자: 누가?] 시아마이가. 자리 밑에 하나 옇놨거든. 그래 옇놨다가 그래 딴 사람 오서로(와서) 비이(보여), 그 꺼싱이가(지렁이가) 먹는 기 있고 못 먹는 기 있어. 그래가 그거를 만날 잡아다가 고아가지고 할매를 주이, 그래 살이 쪄.

[영도구 설화 99]

저승 갔다 살아난 사람

배종순(여, 1929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동삼3동 동삼그린빌아파트경로당]

저승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 하는데, 저승에 인자 갔거든. 갔는데 가이까네,
"니는 오지 마라. 안즉(아직) 올 때 멀었다."
꼬, 다부(다시) 보내.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 강에, 이런 강이 있어. 그래 개로, 강생이[135]를 한 마리를 주면서로,
"이 따라 가라."
하더란다. 마 가다가 물에 빠져뿠어. 그 질로(길로) 깨났는 기라 사람이.

[영도구 설화 100]

큰물 들면 나타나는 도깨비불

배종순(여, 1929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동삼3동 동삼그린빌아파트경로당]

토깨비가, 사람이 죽으만 그 토깨비가 되는 모양이라. 토깨비가 불이 마 저 우리 낙동강

135) '강아지'의 방언.

젙에 살았거든. 큰물이 들라 카면 막 불이 이것만 하다. 불이. 불이 이거만 해.

그래가지고 저게서러 마 비치면 환-하이 이렇다. 그래가 '아이구 이자(이제) 큰물 들겠다.' 그래가 그기 토깨비라. 그 토깨비불이라 캐.

물이 들라 카만(하면), 물이 들라 카만 거서러(그곳에서) 그 불이 또 마 마 이래 큰 기 마 비챠는 기라.

[영도구 설화 101]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배종순(여, 1929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동삼3동 동삼그린빌아파트경로당]

에밀레종 그거,

"뭐를 주꼬? 우리 복덩이를 줄까?"

그래갖고 인자 암만(아무리) 해도 소리가 안 나. 복딩이를 그다 잡아 옇으니 마 소리가 나 더란다. 입이, 입이. 어마이 입이 방정맞아. 그래 그런 이야기 있었다.

[영도구 설화 102]

아랑 전설

배종순(여, 1929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동삼3동 동삼그린빌아파트경로당]

밀양아리랑[136] 있제? 아리랑 이야기가, 아리랑이 그거 했거든. 어느 놈한테 칼로 그 뭐, 뭐고? 지금 같으면 연애하자고 했는가? 우옛는고? 칼로 찔러가지고 그 영남루 아리랑, 밀양 아리랑. 그래 쪼매난 요런, 요런 집을 딱- 지가지고(지어서) 거 모시놨거든. [조사자: 아, 아랑각에.] 응, 아랑각에. 아랑각 들었제?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 겉으면 고을에 인자 어는(어느) 사또가 고을 살러 밀양에 왔거든. 오만(오면) 밤에 인자 그 처자가 와가지고,

136) 밀양의 아랑각을 잘못 말함.

"날 원수 갚아도라."고 옸거든. 막 기암을(기겁을) 해가 막 달라빼든지 죽든지 죽어뿌리. 그래가 또 오이 고을서 살 사림이 없어. 그래가지고 인자 저기 어는 사람이,

"내가 가겠다."

고, 그래 왔는데, 왔는데 거서러(그곳에서) 그래,

"우찌가 이래 아가씨가 이래 왔노?"

"날로 원수를 갚아도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자 그 사람의 원수로 갚았어. 갚으이 그 아랑각 모시 난데 거서, 그 때민에(그 때문에) 인자 아랑각, 아랑각. 그래 인자 기암을 해서 고을 살러 온 사람이 마 죽어뿌든가 막 달나삐든가(달아나든가) 하는 기라. 이 사람은 간이 커가지고 인자 원수를 갚아줬어.

[영도구 설화 103]

상사뱀이 된 처녀

윤상기(여,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동삼3동 동삼그린빌아파트경로당]

아가씨들이 한창 성장할 때 요새 뭐라 카노? 여자 스물 되면 뭐라 하노? 저 저 뭐꼬? 한창 성장해 뭐라 하노? 열 여덟, 열 아홉 되면 사춘기 오면 그때 성장기에 그 짝사랑하다가, 저짝 사람은 안 그런데 지 혼자만 짝사랑하는 거 있제? 그래 실망을 해가지고 그 상사뱀이 돼가지고, 내가 우리 이우제(이웃에) 확실히 그건 내가 봤어.

병이 나가지고, 군인을 알았는데, 그 군인이 이 아가씨를 따먹기 위해서 좋아했지, 진심으로 좋아한 게 아닌데, 이집 아가씨는 진심으로 지 좋아하는 줄 여깄는 거야. 그래가지고 만날 만나고, 만나고 하다가 마 그 사이에 어찌 됐는지 그 얘기는 다 몬 하겠다. 확실히 안 봐가.

그랬는데 그 군인이 군에서 가뿠어. 그 부대서. 가뿠는데 이 여자가 만나러 가이 없어. 그 좋아했던, 자기가 좋아했던. 만나긴 몇 번 만났는데, 지 혼자 마 억수로 그 총각이 좋은 기라. 그래가 군인 있는데 뭐꼬? 군인 훈련하는 데가 어데고? 그까지 찾아가, 연인 아니라도 각처에 포대들 안 있나? 찾아가이께네 이름을 대니께 그 군인은 어데 배치되가 먼 데 가뿠다 하더란다.

그 여자도 고등학교 이상 나와 똑똑해요. 그서 물으니까 안 겔챠(가르쳐) 주더란다. 배치된 데 그런 데는 안 겔챠 주더란다. 그래 이 여자가 병이 나가지고 2년, 3년 하더라.

[영도구 설화 104]

도깨비를 만난 사람

윤상기(여,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동삼3동 동삼그린빌아파트경로당]

아부지가 사촌집에, 한 마을에 사촌이 그 김해 가면 북정이라꼬 요 요래 자그만한 산이 있었다. 산 너머 우리 아부지 형님집이고 요짝에는 우리 아부지집인데, 밤에 늦가(늦게) 제사 지내러, 인자 그땐 제사도 많다 아이가. 우리 큰집에 제사로 마이(많이) 지내니까네, 우리 아버지가 형님집 제사를 인자 자주 지내러 갔는데, 그 인자 사람이 쫌 원기가 쫌 없고 하이까 그런 기 비는가(보이는가) 모르는데, 제사 다, 옛날에 제사를 지내면 요새는 일찍 지내뿌거든. 젊은 사람 살기 위해서 이러는데, 그때는 열두 시 딱 돼가지고 제사를 모신다. 그라면 제사 모시고 나면 딱 열두 시 쪼끔 넘어야 돼. 고런 방식이 있다.

그래가 오면은 한 시 정도 돼서 오거든. 건너오거든. 차도 없이 건너오면 들이 있는데, 여들이 있는데, 그 들에, 북정에서 이리 오는데 도랑가 들로 건너 오이께네, 앞을 탁- 불로 비차면서로 딱 서서 몬 가구로(못 가게) 하더란다. 그래 알고 보니 그 도깨비라.

딱 서면서러 아부지 눈에, 딱 불로 서면(키면) 사람맨치로(사람처럼) 탁 서가지고 요 불로 탁- 비챠 몬 가구로 비챠면서로, 말은 안 하고 몬 가구로 막후더란다. 그래가지고 거서 우리 집에 인자 짜다라[137] 마이(많이) 산이 안 있는데,

"아무거야! 아무거야!"

부르더란다. 자기 아들, 우리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고, 우리 올케새이[138]도 있고 그렇거든. 그래,

"아무개야!"

카고, 부르는 소리가 나더래. 우리 아부지 음성이. 그래 우리 올케새이가 나갔다든가 오빠가 나갔다든가, 그 들에 막 쫓아가이까네 아무도 없는데 아부지 혼자만 가음을(고함을) 지르고가 부르더란다. 그래,

"아부지 오시지 와 그라는교?"

카이까네

"야야, 내가 허깨비를 만났다."

하더란다.

"허깨비 없던데요?"

137)'짜다라'는 매우 많이를 뜻하는 경상도 방언.
138)손 위 올케를 말함

하이까네,

“없나? 찾아봐라? 없나. 여 앞에 불로 요래 캐가 날로 몬 간다고 탁 요래가지고 요라면서 탁- 맥후던데(막던데). 내 허깨비에 쏠리(홀려) 죽을 삔봤다.(뻔했다)”

이라더란다. 그래가 집에 모시고 왔는 기라. 왔는데 그 안날[139] 그 장소에 가이까네 빗자리 있제? 빗자리 막 들에도 씰고 하는(쓸고 하는) 기다란 빗자리 있니라. 자네들은 모른가 모르겠는데. 이 대로가 맨든(만든) 빗자루 기다란 거 이래 서가 이래, 그런 기 들에도 마 떤지 놨거든. 그 빗자리가 기다-라이(길게) 누워있더란다.

[영도구 설화 105]

떡 장사 할머니와 호랑이

정점순(여, 1947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동삼3동 동삼그린빌아파트경로당]

떡장사 그거는, 아이고, 내 참 우습다. 이게 옳은 말인지 아인지 모르겠는데, 인자 어느 시골 산골에서 아이를 서이를 데리고 인자 그래가 인자 떡을 팔아가지고 삼 남매를 믹이(먹여) 살리는 거라. 엄마가. 그래 인자 하루는 장날에 떡을 팔러 갔는데, 이놈의 떡장사가 안 돼가 밤에 늦가 온 거지. 그래 인자 호랑이가 한 마리 와가지고, 아, 엄마가 아무도 문 열어 주지 마라 했는데 호랑이가 와갖고.

“문 열어라, 너거 엄마가 왔다,”

한까네,

“우리 엄마 아이라.”

고,

“우리 엄마가 문을 못 열어주라고 했다.”

고 이라니까, 호랑이가 잠시 물러간 거지. 그래 인자 엄마 목소리로 흉내를 내는 거지. 그래 인자,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이라니까네,

“그래도 아닌데 손을 함 보자.”

그러니까는 엄마 손에는 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또 물러간 거라. 그래가 인자 엄마 손처럼 인자 분장을 해갖고 인자 문에다가 손을 옇었어. 그래가 인자 문을 열리짔다(열

139) 바로 다음 날.

렸다) 아이가. 엄마라고. 음성도 엄마 소리고 이러니까.

그래 들어와서 애들 서이를 갖다가 둘이는 해치삐고 하나는 애가 선반에 숨었어. 숨어갖고 인자 엄마 올 때를 보고 그래 있었는데, 그래 인자 그러고 나서 애 하나는 살려갖고 또 딴 데로 갔는데, 또 엄마 보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안 잡아 묵지."

이랬는 거라.

"떡도 없다."

그러니까네.

"그래 너거 아들놈 내가 묵어야 되겠다."

이러니까,

"우리 아들도 없다. 너거가 다 가갔다."

이라니,

"하나 남았지 않느냐?"

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 떡 다라이를, 떡을 남은 거를 인자 줬어. 줬는데 엄마 보다 먼저 아들한테 와가지고 그 애까지 키왔다는 이야기가 있죠.

[영도구 설화 106]

받침을 빼고 쓴 편지 때문에 쫓겨난 며느리

정점순(여, 1947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동삼3동 동삼그린빌아파트경로당]

옛날에는 공부를 몬 해, 한글을 몰랐잖아요. 그래 옛날에 군에 가면은 한글로 가르켰어요. 진짜로. 우리 어릴 때 오빠들. 그런데 아들이 글을 배와가지고(배워서), 배았다고 저거 집에다 편지를 쓰는 거지.

그래가 인자 편지를 쓰면서, [웃음]

"엄마 보지도 그립고, 형수님 보지는 더 그립고."

이라니까네, 시어머니가 인자 메느리한테다가,

"언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고, 다그쳐 큰며느리가 못 살고 쫓겨났다는 이야기지.

[영도구 설화 107]

은혜 갚은 까치

정점순(여, 1947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동삼3동 동삼그린빌아파트경로당]

까치들이 뒤쪽으로 와갖고 인자 종이 세 번 쳐야 날을 새면 이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 까치를 구했어. 이 선비가 뱀들한테서 까치를 구해 놔놓으니까는, 인제 까치들이 그 고맙다는 인사였겠지. 그래서,

"종이 세 번이 울어야, 날 새기 전에 종이 세 번이 울어야 내가 닐로(너를) 놔 준다."

이랬는 거라. 까치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로 그 종에 다 쳐가지고 그 남자를 구해줬다는. [조사자: 그 남자 어떤, 누구한테 잡힜는데 그렇게 됐는가예?] 여우한테요. 사람 여우.

[영도구 설화 108]

자기 새끼 귀여워하는 줄 아는 호랑이

정점순(여, 1947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동삼3동 동삼그린빌아파트경로당]

아니 나물을 캐러 갔는데 옛날에. 막 이래 보재기에다가 점심을 싸가 가잖아요? 그래 어느 산골로 길로 같이, 친구들 하고 같이 갔는데, 아주매들이 집을 못 찾는 거라. 길을 못 찾는 거라,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래 어느 고개 가니까 고양이 새끼 같은 것들이 많이 있더래. 오골오골. 그래가 인자 그걸 예쁘다고 막- 만져주고 쓰다듬고 이래 싸니까, 애미가 와서이 얼마나 놀래 기절로 안 하겠나? 그래 인자 나물 보따리를 인자 것다(거기에다) 팽겨치고 어째 어째 도망을 쳐가지고 집에 왔는데, 뒷날 아침에 보니까는 나물 보따리를 물어다 놨더래요.

나물 보따리를 물어다 놓고, 그리고 인자 나물 보따리를 물어다 놓코, 또 하룻밤 아침 자고나면 토끼도 한 마리 갖다 놓고. 자기 새끼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은혜를, 아침마다 그래 짐승들로 잡아다 놨더래요.

[영도구 설화 109]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박정옥(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봉래1동 미광마린타워노인정]

이 신랑이, 저 공부를 하니까, 그 늘어난(늘어놓은) 덕시기가(덕석이) 비가 아서(와서) 떠내리가도 글만 하지, 그거로 어째할 줄로 모르고 [조사자: 오, 안 거다(거두어) 놓고?] 양반이라고. 그러이까네, 그 떠내려가도, 때거리가 없는데, 떠내려가도 책만 보고 있으이까네. 그런 말은 있었어요.

[조사자: 음, 그래 어데 도망갔는가?] 도망가기는 뭐 도망가. 그래 살지.

[영도구 설화 110]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박정옥(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봉래1동 미광마린타워노인정]

고래장 시킨다고 지고 갔다가 지게로 벗어놓고 오이까네, 아들, [말을 바꾸어] 손자가, 따라갔던 손자가,

"그래 아부지, 그 지게로 가져 가야죠."

그라이까네, 아부지가 그래 [웃으며],

"이거를 버리고 간다."

카이까,

"가주 가야 낸주게(나중에) 아부지도 내가 져다 [웃으며] 내삐리시요."

그란다, [조사자: 오, 고래장할 때 되몬,] 예. 그런 말은, 얘기는 들어도 우리는 모르지요 뭣인고. [조사자: 그래가지고 안자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고래장을 없앴는갑대예.

[영도구 설화 111]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박정옥(여, 1931년생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봉래1동 미광마린타워노인정]

옛날에 저 할머니캉 손자캉 있는데, 손자가 자꾸 울어사서러 우지 마라고 달개는 기라(달래는 기라) 카는 기, 그래,

"아이고, 울지 마라. 저저 꽂감(곶감) 주까?"

이래도 울고, 뭐 주까 캐도 울고 이라다(이러다가), [갑자기 생각난 듯이] 아, 뭐 주까 캐도 울고 이라더만은,

"꽂감 주까?"

카이께네로, 그래 그 울음을 그칬더라 하데요.

그래서 [호랑이를 도깨비로 순간 착각하고] 또깨비가 바껕에서(밖에서) 듣고, [말을 바꾸어] 호랑이가 바껕에서 듣고 있으이까네, 그래 할머니가 거 그거로 꽂감 주까 카인께네 애기가 울음을 그치이까네, 이 그서 들은 호랑이가,

"와이고이! 꽂감이 내카마 더 무섭운 놈 있는 갑다."

카면서, 그래 달아나고. 뭐 예.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우리 어릴 때라도.

[조사자: 맞아 맞아. 그래 그 할무이가 호랑이 온다 해도 울고.] 온다 캐도 우는데. 그래,

"꽂감 주까?"

이라이까네, 애기가 [조사자: 울음을 뚝 그치니까네.] 울음을 그치인까네로 바껕에서 들으이까네, '와이구! 꽂감이 내카마 더 무섭은 놈 있는 갑다' 카면서 그 질(길)로 달아났다 카는 그런 말을 하지.

[영도구 설화 112]

노고단할매를 모시는 산제당[영도할매 전설]

박정옥(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봉래1동 미광마린타워노인정]

옛날부터 [조사자: 노고당(노고단)할매?] 옛날부텅 있었다 하는데, 그 무슨 당이다 이라더

라. 그래도 우리는 뭐, 잘 모르이까네로.

[조사자: 그 할매가 어디 영험이 있는가?] 그 할매가 지키던 기 안주 거 그기 있기는 있어도, 옛날 할무이들이까네 다 돌아가싰겠지. [조사자: 아, 그렇지. 그게 왜 저 산에 위에 올라가며는 뭡니까, 저저 사당, 뭡니까 당집을 지어놓고.] 예. 그렇답디다. 거 가보지는 안 해 봐도, 당이 있다 이랍디다. 근데 그 뭐 빌러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다 해도 우리는 여 있어도 뭐.

[영도구 설화 113]

도깨비에 홀린 사람

박정옥(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봉래1동 미광마린타워노인정]

또깨비에 홀리는보다도, 술을 자시고 그래 오이까네로. 저 늦어지이까네로,

"어째서 그래 늦었노?"

고 카이께네, 그래,

"오는데 누가 나를 걸리가지고 붙잡아서러 그래 몬 왔다."

고. 그 얘기로 하이까네로, 그래 그 이튿날, 아 그래가 연락이 와서 가보이까네로. 그 아부지 두루막 자래기가(자락이) 그 말뚝 박아 놘(놓은) 그게 걸리가지고, 할배가 몬 가고 술에 취해 노이. 그래가 내 도깨비인테 안자 홀맀다. [조사자: 홀린 줄 알고.] 예. 홀린 줄 알고 그래 했다 하는, 그런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조사자: 아아, 술 묵고 한참 오다가, 그래 도깨비가 안자 걸리가 잡아땡기는 줄 알고.] 그래가 안자 아들이 찾아나가이까네, 할배가 그래가,

"나라(놓아라), 나라. 내 갈끼다(갈 것이다). 우리 집에 갈끼다. 놔라"

카고. 그기 걸리가 있으이 안 벗기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할아버지 그예 덱고(데리고) 왔다 카는 그런 얘기는 들었지.

[영도구 설화 114]

쌀 나오는 구멍

박정옥(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봉래1동 미광마린타워노인정]

어데 한 절에, 저 방위(바위)에서러 쌀이 떨어지더라 하데요. 근데, 그 쌀 떨어지는 사람이, '더 크기 뚫으면은 더 많이 안 나오겠나' 싶어서러, 뭐 꼬쟁이로 꼽았다 하던가, 뭘 꼽으인까네로 그 후로는 쌀이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 주는 대로만 안 묵고 욕심 내가 더 내라 캐는 거이. [조사자: 그 스님이 좀 욕심이 많았는 모양이다.] 모르겠어. 스님이 그랬는가 누가 그랬는가 그거는 모르고. 얘기 들은 그기 그렇습니다.

어느 절에 가몬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서러 쌀이 똑똑 떨어져 한 사람 묵을 목아치는(몫은) 내(계속) 나오는데, 그래 '더 오히려 뚫으몬 더 많이 안 나오겠나' 싶어서 더 뚫어놔노이 뭐 하낱도 안 나오더라 카는 그런. [조사자: (웃음) 그래 맞다.] 그래 욕심을 부리지 마라 카는. [조사자: 아, 맞아 맞아. 그래.]

[영도구 설화 115]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박정옥(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봉래1동 미광마린타워노인정]

저 메느리가 그래 먹을 기 없으이카네, 할머니가,

"아프다."

카이까네, 그래 지렁이로 구해가지고시는 삶아 믹이까네로(먹이니까) 기력을 채리고 일났더라고(일어났더라고), 그래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조사자: 그럼 아들은 어데 돈 벌러 가고 언제 왔는가?] 아들으는 돈 벌로 갔낀다(갔기 때문에) 메느리 혼차서 그래 시어머이로 거느리고 있겠지요. [조사자: 시어머이로.] 그래 인자 신랑이 오고 보니까 엄마가 영 젊어졌고 마 좋아져서,

"어째서 이렇게 됐노?"

카이까네, 그래 할마이가 하는 말이,

"그래 내 요 밑에 여어 묵은 거로 옇어(넣어)놨으인까네로, [조사자: 자리 밑에.] 예. 자리 밑에 옇어(넣어)놨으이깐 이걸 한 번 봐 보라고."

그래 아들이 보이까네 지렁이더랍니더. 그래 지렁이 그거로 내(계속) 메느리 삶아가지고주시는 할머니를 믹이놓으이까네 그래 이만치 건강해졌다 카는,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영도구 설화 116]

진주낭군의 난봉에 죽은 부인

박정옥(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봉래1동 미광마린타워노인정]

저, 신랑어는 과거하러 가고, 시부모들 모시고 메느리 사는데, 참 신랑이 과거로 해가지고 높은 사람이 돼가, 말로 타고 막 부하들로 거느리고 이래 울리고 오는데, 이 메느리는 저 그랑에(도랑에, 냇가에) 가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 좋구로 해가 그 질(길)로 지내가서러(지나가서) 안자 빨래를 해가 가가 보이까네로, 자기 신랑이 안자 그렇게 높으기 잘 돼가 왔더라고.

그래가지고시는 그래 어쨌다더노. 그꺼정은 내가 잘 알겠는데, [조사자: 그래 오이까네, 와 아릿방에 기생, 기생을.] 여자로 덱고(데리고) 완 여자캉 놀고 있어서러, 아이 그래가 이 아줌마가 죽었는 갑대. [조사자: 아, 목을 매가 죽고.] 예. 목매가 죽었다 하대. 그런 말은 들었어요, 우리도.

[영도구 설화 117]

도깨비에 홀린 사람

최정애(여, 미상[140])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봉래1동 미광마린타워노인정]

옛날에는, 저 뭣이 어디서 술 묵고 모두 가다가, 어디 가다 술 묵고 둘어오는 사람도 있고, 온 사람도 있고 한데, 그 옛날에는 도깨비 만나갖고 뭣이 어차고 저차고 그런 소리는 언뜩(언

140) 제보자가 본인의 나이를 알려주지 않아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어 '미상'으로 함. 외관상 80대 중반으로 보임.

뜻) 들었어요.

[조사자: 또깨비 만나가 어데 이겼는가? 씨름 했는.] 그래도 죽기는 안 하고 초라히 집이 들어왔더라요. [조사자: 아, 도깨비한테 홀맀다가.] 예.

[영도구 설화 118]

영도를 나가면 망한다[영도할매 전설]

박수철(남, 1929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봉래1동 봉래1동경로당]

그래서 영도에서는 이 섬인데, 이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좀 잘 살먼, 영도 섬이니까 안 살고 밖을 나가서 살라 카거든. 그라몬 봉래산 할매가 서운해가지고 망한다 이래가지고, 그런 또 전설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 바로 이우지에(이웃에) 사는 사람이 그 고물상을 해가지고 참 여어 돈도 마이(많이) 벌고 했는데. 저저저 요 어데 저짜(저쪽), 그 어데고 저 서구에, [청중: 각시집이지. 각시집인데.] 각시집. 거 가가지고, 난중에 내가, 나는 여어 영도 온 지가 육십 구년(69년) 됐는데 지금. 그래서 저 그래 가가지고 거가 전부 다 망해삐고(망해버리고) 거 보니까 마 영 형편없이 이래가지고 오고 이래 하더란다.

그래서 봉래산 할머니가 그거로 바위 위, 그런 전설이 있었어.

[영도구 설화 119]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배용남(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봉래1동 봉래1동경로당]

[조사자: 물(먹을] 기 없어가지고.] [바로 생각난 듯이] 아! 지렁이. 그거는 그랬겠지예.

인자 자기 시어른인가 하도 집안이 가난한께 시어마이, 메느리가. [말을 바꾸어] 그런께 그런 기 조금 생각키네 인자예. 메느리가(며느리가) 참 돈은 없고 어른을 머 인자 참 보호를 몬

시키고 고게도(고기도) 한 바리 몬 사가, 몬 사다 드리고 인자 이래난께네.

지렁이도 그게 참 몸에 보약이라예.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고아가 단지(항아리) 곰을 해가이고 그 시어른을 갖다 자꾸 디리고(드리고) 난께네, 몸이 막 이래가 마 살이 찌고 막 이래 딱 몸이 좋아가이고 참 호자(효자), 호부(효부) 났다고 마, 호부 메느리 왔다고, 그 가문에서 막 아구 막 상을 내리고 그런 전설이 있답니대예.

[영도구 설화 120]

시주 잘해 부자 된 진주 하부자

배용남(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봉래1동 봉래1동경로당]

진주 허부자[141]가 우째가 또 부자가 됐노 크면은, 어마어마하대예. 마 기동이(기둥이), 복판 기둥이 그진 이만 하고예, 이 기와집이 막, 뭐라 카꼬, 부잣집인데 마 샘이 물로 떠가지고 마 그 너른(넓은) 마리로(마루를) 막 닦고 씰어나이(쓸어놓으니) 번질번질 하는데, 한 일주일 있인께네, 부자동넨데 기와만 기와집만 차복하인까(가득하니까) 초가집이라고 옛날에 없고예. 그래가 그 참 어마어마 하데예.

그런데 말도 몬하겠대예. 마 그런데 그 보인께네(보니까), 어떤 저 어른이 서넛이 본께네, 본다고 본께네, 모시옷을 탁 입고 상투 탁 해갖고, 육이오 핸 지가 지금 몇 년 챕니꺼 버어(벌써)? 오래 됐는데. 건 육십 년, 칠십 년 돼 갈 낀데. 그랬는데 집 짓는다 이랬는데. 결국에는 예 거는 예 거도 또 인민군이 새벽에 와가이고 총소리 내가이고 또 구석으로 안 드갔십니꺼. 그래 가고는 음력 음력 구월 달에 왔습니더. 그래 왔는데.

그 전설, 신산 허부자가, [말을 바꾸어] 큰 대사가 안자 이 온 마을로 댕기면서 인지 동태를 보는 기라예. 본께네, 언자 이짜(이쪽) 같으면 영도겉으몬 남항동이고 그런데 인자, 남항동인데, 저쪼서(저쪽에서) 인자 가가이고, [말을 바꾸어] 아 저 인자 태종태 건은 데 가가이고,

"시주 좀 하라."

쿤께네, 뭐를 마 나쁜 짓을 했던 모냥이라예. 막 거시 대, 무식하이 지내는, 무식하이 모른다 아입니꺼? 아닌 말로 참 돈을 한 푼 주든지, 엽전이나 한 푼 주든지, 쌀이고 뭐 보리쌀이고 마음 좋기 받아 가라고 이랬으면 될 낀데, 뭐 나쁜 거는 우째 했은게,

141) '진주 허부자'는 '진주 하부자'를 오해한 것으로 보임. '진주 하씨'는 있지만 '진주 허씨'는 없음. 허씨는 김해 허씨로 유명함.

"옳다. 요놈아, 니 인자 알았다."
카민서, 그짜 부자가 될 낀데, 자동으로 될 낀데예. 그 큰 봉래산, 옛날에 옛날에는 이거를 일본놈이 고골산이라 캤지 뭐, 봉래산이 맞아예. [조사자: 아 녜, 봉래산.] 봉래산인데예. 그부텀 멫 십 배로 큰데, 바위가 팽풍건이(병풍같이) 이리 싸가 있는데, 대사가,
"요놈아, 너거는 인자 안 돼 봐라."
카면시로(하면서), 그 바위를 갖다 싹 돌리삤네. 신산을 보고예. 진주 신산을 보고 돌맀는데 똑(꼭) 팽풍 치놘(쳐 놓은) 거 같아예. 유명하디 유명해.
그런데 막 ['진주'라고 해야 할 말을 실수로] 부산 신산에 허씨, 허부자가 마 부자가 마 말도 못합니더. 그거 뭐 마 그 말, 말 포(표현) 못합니더. 처음 봤다. [조사자: 그래서 망했는가?] 그래 그 인자 그 집에는, 시주 잘 못핸 그 집에는 벌을 받아서 그 동네는 망하는 기라예. 신산 허부자 집에 와가이고 시주도 많이 하고 해논께, 그 사람이 마, 지 혼차 부자가.
'신산 허부자의 돈 잠(좀) 봐라. 돈 떨어지면 니나 네나.'
이리 샀거든예, 그렇게 부자도, 그 동네, 그래 처음 봤습니더. 그래 그거를. 그라고 인자 [조사자: 아! 그 스님이 그러면 그 벽을.] 이이 그 바위로예, [조사자: 바위를 그쪽으로.] 바위를 갖다 싹 틀어가이고 진산을 보고, 진주를 보고 인자 고리 탁 돌리삤는 기라예. [조사자 : 그니까 그 진주에 허부자가 부자가 됐네.] 예. 그래가 똑 병풍처럼 딱 있는데, 모야게(묘하게) 생깄대예. 우리 봉래산은 마 점잖은 어른겉이 대감겉이 둥그레(둥글게) 있었지만은. 탁 바위 그 산에 그 큰 높은 산이 뱅- 돌아가이고 딱 담 싸듯기(싸듯이) 바위가 딱 싸가 있는데 참 보기 좋대예.

[영도구 설화 121]

쌀 나오는 구멍[쌀바위 전설]

배용남(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봉래1동 봉래1동경로당]

옛날에 쌀바위가 있었는데예. 쌀이 착 내리오는데, 이제 참 욕심 많은 꾸러기가 가가이고 더 마 더 마이(많이) 나오라고 이 마 구멍을, 쌀 나오는 구멍을 갖다가 마 파괴를 시켜삐렀어예. 그래가 딱 고마. 고런 말도 있습니더예.

[영도구 설화 122]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2)

배용남(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봉래1동 봉래1동경로당]

[제보자의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1)' 이야기에 이어서] 그라고예 제주도는 인자 그런데요, 말로 참 에미하고 새끼하고 꼭 같이 어는 기 어민고는(어미인가는), 알(아는) 사람 여서 나와가, 인자 취지(퀴즈) 내는 기라예. 이란께네 도저히 모르는 기라. 그래 인자 퀴즈 문제 나는 그 분이,

"콩을 가와(가져 와) 봐라."

콩을 가와서 널찍한 그릇에 담아 놓고 이리 흩치(흩어) 나논께, 참 언제 선생님 말씀 말마따나, 어미는 새끼 무라꼬 (먹으라고) 자꾸 입을 가(가지고) 밀어 내가 이리 새끼가 받아 묵고, 에미는 가마(가만히) 서가 있고 자꾸 무라 하고.

"어느 긴고?"

하니,

"받아 묵는 기 새끼고, 자꾸 주는, 밀어주는 기 에미다."

고래서 [청중: 짐승도, 짐승도 그래 하는데.] 그래서 인자 알았다. 그리 다 그래 다 있어요.

[영도구 설화 123]

장자못 전설

배용남(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봉래1동 봉래1동경로당]

[조사자가 장자못 전설을 이야기한 후] [조사자: 봉화에 그 뭐 그런 비슷한 기.] 예. 거게 인자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내 영감님이 길을 갔다 오면서, 저 산이 저 바위가 알라(아기) 업고 있는 것 높으대예. 차 타고 오면서 저런 전설이 있다 쿠더라고.

옛날에 참 어데 중인지 대사가 와서,

"좀 시주 좀 하라."

캐나논께네(하니까), 참 마 불친절하이 하고 이랬던 모냥이라예. 그런데 그 집 며느리로 돈

가가 옸나, 주리로 가가 나오는데 살(조용히) 나와갖고,

”내 시키는 대로 나를 따라 나오너라. 뒤도 옴시로 돌아도 보지 말고 나오너라고.“

참 그러이께네 여서(여기서) 어데 마침, 여서 어데 만치(만큼) 갔던고, 남항동 시장 마치 쫓아갔던공 우쨌든공, 이래가 보이, 돌아보도 보인께네 큰 마 물이 마마마 항도 수가 마 억수가 돼가, 동네는 마 싹 밀어삐렀고. 그래 인자 밀어삤는데, 그 인자 그 사람은 애기만 엎고 나온 그 사람은,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카대예. 그래 도와줘갖고.

그래 근데 그 바위가 본께네 똑 알라(아기) 업은 거, 참 모햐대예(묘하더라). 짚은(깊은) 솔이 있는데, 거거 저 봉화서 저 열차 타고 오는데, 온께 서쪽인가 남쪽인가 모르겄다. 저게 저 바위가 옛날 전설이 있는. 그리이 보통 안 봤거든. 젊을 때 보이. 이래 본께네, 크게 여자가 딱 알라 업고 거 있던 기. 바위가요, 참 모햐게 생깄대예. 그래 그거로 고런 전설이 있습디다.

[영도구 설화 124]

우렁각시와 결혼한 총각

배용남(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봉래1동 봉래1동경로당]

남자가 총각이 장가로 가가지고. 아름아름하네 오래 된께. 그것도 잊아삤는데 선생님 그란게 좀 생각키네예. [조사자 : 아, 그렇습니까.] 참 인자 남편이 일하러 탁 갔다오모예, 밥상을 탁 채리(차려) 놓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지는 인자 총각인데, 장가는 몬 가고 있는데, 그래 인자 옛날에 참 몬살았어예. 가난한 집안인데. 그래 이상하제 탁 밥상이 채리가 있고, 있고 해서. 그래가 가마이 망을 하문(한 번), 망을 탁 봤는 기래.

요고 내가 그기 기억이 쪼금 납니더. 테레비에 나옵디더. 테라비. 옛날에에 전설 나옵니더.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 카고 마이(많이) 했다 아닙니꺼. [조사자 :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했죠.]

그래가 본께네, 아주 예쁜 아가씨가 와가이고예, 탁 사람이, 진짜 사람이 와갖고 밥상을 탁 예쁘게 해가 채리 놓고 있다. 인자 세 분(번)이고 네 분이고 망을 보고 있다가, 한 다섯 여섯 골짜(번째) 마 탁 잡아뿠는 기라예. 쉽게 말하자몬 마,

“니는 인제 내 사람이니까 내하고 사자.”

인자 그기라예. 쉽게 말하자모예. 모른께네 이기 그거 다 좋은 말은 몬 하것고. 쉽기 말하자몬. 니는 내는 그래 싸이, 그래가 참 잘 살았답니더. 예. 그래서 하늘에서 옥황상제모냥 내리, 내라(내려)줬어예. [조사자: 하늘에서 내라줬다.] 그래 그기 보기좋대예.

[영도구 설화 125]

복 없는 사람[문칠네복 이야기]

배용남(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봉래1동 봉래1동경로당]

[조사자 : 혹시 문칠네, 문칠네. 복이 없으몬 아주 문칠네복, 복 뭐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그 문칠네복 이야기로 혹시 아는교?] 문씨가 옛날에 뭐 복이 없었는가. 뭐 안되몬,

"내가 문칠네복인 갑다."

이래 카고 그런 소리는 합디다. 그까지는 내가 모르겠고예. 옛날에 어른들이 복이 없이몬,

"내가 문칠네복이가. 와 이래 카노."

이러 카고. [조사자: 맞어.] 그런 말은 있지 있어예. 예, 있습니다요.

[조사자: 산에 나무를 해오면은 한 짝을, 한 짐을 해오면 또 한 짐이 없어지고.] 예. 그런 전설도 있지예. 예전에 복 없는 사람이 나무를 두 짐인가 세 짐을 했으몬, 들어내삐면 만날 한 짐 뿐이라예. 예 그리. 누가 가가삐고(가져가 버리고), 뚱쳐가삐고 없답니다 이래. 그런 전설도 있고 이랍디다.

[조사자: 그 사람이 그래 문칠네복이라 하데.] 그 사람이 문칠네복인가 그거는 확실하이 잘 모르겠어. 마 문칠, 나무해가지고, 선생님 그래 쿤께 알지마는. 그 나무를 두 짐이나 석 짐이나 해나도 언제든지 가가삐고 항상 요 하나뿌인 기라예. 고런 말이 있입디다. 복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예. 두 개 될 수가 없고, 자꾸 마(魔)[142] 가 생긴다 카는 기라예. 마가 생기가이고 마.

[영도구 설화 126]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142) 일이 잘되지 아니하게 헤살을 부리는 요사스러운 장애물.

배용남(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봉래1동 봉래1동경로당]

인자 그거 전설도 옛날에 인자 자간(좌우간) 남편이 선비든 모냉여. 선빈데, 인자 저 과게(과거) 보러 서울 가셨는데, 한양 천리 갔는데, 멫 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 기척이 없은께, 인자 여자가 화가 나서 마 고마 나가뿠는 기라.

나가가 인자 재혼을 했는데, 지 복이 그래난께네, 진주에라 맹지 뜰에 쟁피(강피) 훑는, 인자 그 옛날에 삼현육갑(삼현육각, 三絃六角)[143] 잽히고 서울서 인자 암행어사를 해가이고 막 닐니리하고 마 삼현육갑 잽히고 이리 내러오인께, 말이고 뭣이고 쭉 싣고 내러온께네, 진주 명기 뜰이라 카는 큰 들이 있는데, 거 인자 나락을 마이(많이) 심었는데, 옛날에 피라고 있었습니더. 그거 인자, 그거로 뽑암시롱(뽑으면서), 몬(못) 살고 보이께네,

"하이고, 저게 가는 저 선부는(선비는)."

[갑자기 다음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아서] 아이구 그 뭐꼬? [조사자: 저거 남편인가 보지예.] 응. 저게 가는 저 선부는, 뭐 베슬로(벼슬로) 해가이고 오는데, 내가 안자 마 안자 대숭하는데,

"내가 뒤이(뒤에) 가서 무종질 부종질을 해도[144] 저어 저 뭐꼬 감사 뒤에 내가 따라가고 싶다."

고 이라이께네, 인자 가가이고, 뿌득뿌득 가가이고,

"그라몬 인자 물로 한 도오(동이) 이고 오이라(오너라)."

카이께네, 그 인자 이거 저 베슬 해가 오는 그분이, 그래 인자 그래인께네 모래사장에다가 안자 있었던 모양이지. 바가지에다 물을 한 분 떠가이고 팍 부운께네, 모래에다가 물을 부우(부어) 난 그기 포(표)가 있습니꺼? 안 돼요.

"부종질해도 니는 못 온다."

"죽어도 내가 당신 옆에 가서 종질이라도 하고 싶다."

컨께네,

"안 된다."

[조사자: 안 된다면서. 아아.] 이람시로, 그래가 복 없는 사람 복이 그 뿐께네, 참고 칠년이고 오년이고 살았으몬 될 낀데, 이십년이고 살았으몬 될 낀데, 그걸로 몬 참아서 참다가 참다가 마 가뿠는 기래. 그래 놘께 그 좋은 영화(榮華)로 몬 보고. 그래 인자 사주가 그라몬, 복이 없이몬 안 되는 모양. 그런 전설이 있어요.

143) 피리가 둘, 대금, 해금, 장구, 북이 각각 하나씩 편성되는 풍류.
144) 종질, 즉 종살이. "종살이를 하든 하지 않든지 해도"의 뜻으로 말한 것으로 보임.

[영도구 설화 127]

은혜 갚은 두꺼비[지네장터 설화]

배용남(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봉래1동 봉래1동경로당]

옛날에는 주방에예 그륵(그릇) 씻는 통이, 요즘에는 참 오만 거 좋은 거 있었는데, 옛날에는 나무를 통을 가이고예, 그륵 안 깨질라 통을 이래 큰 거 이쁘게 짜가이고예, 대로 가이고 탁 이래 이쁘게 짜가 요래가 통을 가이고 세아갖고 둥그럼해는(둥그런) 그륵 씻으몬(씻으면) 참 좋거든예. 안 받치고 그릇 안 깨지고 하는데. 그런데 이래 통이 커단 커 거뮹통(?)이라 하거든예. 그런데 참, 하루는 저 아가 여남은 살 묵었겠지예. 요만한 뚜꺼비가(두꺼비가) 한 바리(마리)가 기(기어) 오더랍니더.

기이(기어서) 오가지고, 옛날에는 그륵을 씻거몬 여 밥떠꺼리가(밥풀떼기가) 밑에 떨어진다 아입니꺼? 그거로 쪼아 무이, 그 애기가, 참 그 애기가, 그 애가 무라꼬(먹으라고) 자꾸 놔두고 했디이(했더니), 고기(그것이) 또닥또닥 커갖고예 난제는(나중에는) 막 거진 [양손으로 1미터 정도 크기로 벌리며] 이마진, 이만 했던 모냥(모양)이지예. 뚜께비가.

그래 뚜께비가 인자 야가 인자 열 칠팔 살 무운께네(먹으니까) 시접을(시집을) 갈 낀데, 시집을 갈낀데 인자, 신랑이 인자 장가로 오고 시집을 가는데, 그 총각이 팔자에 아주 운명이 안 조안(좋은) 사람이라. 잘몬하몬(잘못하면) 가다가 장가 갔다가 죽을 운명이라꼬 요런 기 있었어예. 근데 인자 처녀가 시집갈 때도 뚜꺼비를예 딱, 옛날에 동굴이라고, 뭣이라 쿠고, 그이까 버들인가 해가이고 똥그라이 예쁘게 해가이고 있습니더 그어(그곳에). 그 옷도 옇을(넣을) 수도 있고 뭐 음식도 옇을 수도, 음식, 옷 옇는 거는 또 틀린데, 그런 데가 탁 옇이가이고 시집을 딱 가는데, 말로 타고 인자 가가, 인자 타고 가고 인자 처이게다(처녀에게) 인자 말로 타고, 처녀는 인자 저 아가씨는 뒤 가마로 타고 가는데, 그 동구 밖에 들어간께네 큰 느티나무 우에서(위에서) 크-은 지렁인가 뱀인가 마 그 요물이 하나 내러 오가지고 질(길)을 막아가이고 신랑을 자아물라(잡아먹으려고) 캐.

'옳거니 안 되겠다.' 싶어, 뚜꺼비를 갖다예, 뚜꺼비를 딱 열어가, 고것도 내가 기억이 납니더. 선생이 말한게네(말하니까). 딱 열어가 딱 놔논께, 동네 밖에서 마 그거 인자 그 요물하고 인자 마 괴물하고 뚜꺼비가 안개를 품었는(피웠는) 기라. [입으로 안개를 피우는 시늉을 하며] 아아 아아. 그 안개를 마주 피운게네(피우니까) 뚜깨비가예 더 세는 기라. 그기 이무기 그기 탁 죽어삐더랍니더. 죽었는데, 그 아가씨가 가가이고 참 부귀영화 잘 살고.

그 뚜꺼비가 참 지금도예 뚜꺼비로 보통 보몬 안 됩니더. 뚜꺼비 전설이 있습니더. 그 뚜꺼비 때민에 그 남편도 살고 그 색시도 가가이고 부자가 돼가 잘 살았다고 그런 전설이 있습니

더.

[영도구 설화 128]

백여우가 된 딸

배용남(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봉래1동 봉래1동경로당]

옛날에 자석이(자식이) 없어가 공을 딜이가이고 인자, 자석이 없이가지고. [조사자를 보고] 그래 자꾸 옛날 기(것이) 기억에 나오에예. 그래 인자 딸로 하나 탁 낳아나났는데, 그기 참 예뻐예. 예쁘고 잘 크더마는 한, 그런께 한 열댓 살 그정 다 무간께네(먹어가니까) 참 마마 백여우가 돼가이고 마 저거 부모고 뭐고 싹 다 마 자아무우삐리고(잡아먹어 버리고).

그래 오빠가 한 사람이 알고 난제는(나중에는) 마, 하 여게 같으몬 마 한양까지 마 도망을 가삐가이고(가버려서). 그래 인자 수십 년이 돼가이고 집이라고 찾아온께네, 집도 참 망가지고 다 어그러지고 뭐 이렇지예. 있는데, 부엌이라고 드다(드려다) 본께네, 옛날에 부뚜막 안 있습니꺼, 시골에. 부엌에. 요새는 주방이지마는. 부엌이 있는데, 바가지가 하나 딱 엎히가(엎어져) 있어예. 바가지를 요래 해딱 디비본께네(뒤집어보니까), 이 여우가 팔딱 뛰이(뛰어) 나옴시로,

"아이고, 오빠!"

쿰시로 마 화해가이고 더 커삤는 기라. 마 요래가 있다가. 그래가 있다 있다가 '이거를 우짜꼬?' 싶어서, 인자 달래가, 뭐 인자 밥이라고 채리주는데 마 지가(즉, 여동생이) 진짜 밥은 못 해놓고 사람 살키 겉은 거 얄궂은 거 이상한 거 막 그런 거를 내놓는데,

"인자 못 먹겄다. 반찬이 없어 못 먹겄다."

우째 저째 요래 샜는데, 하루 이틀 지내고,

"니 옛날에 우리 정구지 밭."

여는 저 경상도는 소풀이라고 하거든예. 표준말은 정구지 말 아입니꺼.

"정구지 밭에 가가 정구지 좀 뜯어다가 반찬을, 나물 좀 해도라."

그기 또 기억에 나옵니더. 그 애가 그걸 해가이고,

"그러몬 오빠, 갈라고?"

쿤께네(하니까),

"그럼 우리 집에 옛날에 실, 엄마 실 그거 커단한 거 굵은 실 그거 바꾸니(바구니) 있는데,

이거 다 팔아가 짜매 묶가(묶어) 놔놓고 가면서 땡길어 보고 가라."
쿠거든예. 그런께 요새 겉으몬(같으면) 밭이 마 여여 미강 요마침 받은 간 모냥이라예. 가인께 호꾼호군 땡기러고. 저거 오빠가 인자 말로 타고 갔는 기라예. 오빠가 말로 타고 갔는데, 말은 저 저 겉으몬 시골 겉으몬 솔밭이 저짜(저쪽) 저짜 좀 요만 야산인데, 솔은 거, 말을 매놓고 그래 가인께, 인자 참 저 오래비가(오라비가),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 '오면 자아묵히겠다' 싶어서 사알(살짝) 빼갖고 어디다가 마 걸, 돌맹이를 걸어가이고 그걸 매놓고 마, 마마 그기 마 천리만가 마 말로 타고 내뺀께네, 집에 오이 그거 때미,

"하이고, 오빠 없네."

쿤께네 마, 고거 마 그러이 인자 요게 또 생각킵니더. 인자 우에 도사가 그래 인자, "니가 이리 하는 일이 있으인께네 내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인자 물배이(물병) 까시배이(가시 병)."

물배이 까시배이, 하나가 뭣인고? [조사자: 불배이(불 병).] 불배이. 불배이 세 개로 딱 차가 와가이고. 한 여서 그란께 마마, 한 문(번) 뛰몬 어데 가기 말하꼬? 마 이십 미더나 삼십 미더나 가서 쫓아가는데, 뒤서 이리 본지(보니까) 이거 야시가 백야우(백여우)가 된께 왓들한께,[145]

"오빠 한, 오빠 한 때, 말 한 때. 두 땟거리."

이러면서 따라오는데 마, 마 물불 불배이를 떤지삔께 불이 환한께 그거 꺼낼 때 또 얼매 뛰이가고, 난제(나중에) 까슬배이 미이 뛰이가고, 또 인자 난제는 인자 물배이 되고, 인자 해가고 밤새도록 인자 그런게. 인자 큰 인자 동네 사람이 인자 마을에 살고 있는데, 느티나무 아닙니꺼? 요새는 정자나무라 하거든예. 시골에는. 골골마징 다 있입니더. 우리 시골에는 앞에 있고예, 뒤에 있고 뒤에 이게 두 개 있는데. 정자나무에 말을 마 매놓고 막 정자나무에 기어올라가가지고 마 망을 보고 있인께로, 고 밑에 샘이가, 샘이가 우물 샘이가 쪼만한(조그만) 기 있는데, 이 여우가 돼나이. 고기 다 기억이 나오네예. 고래 딱 본께네, 도저히 냄새는 나는데 여우가 되, 백여우가 되가, 냄새가 나는데 이리저리 둘러봐도 안을져서('없어서'의 뜻으로 말함) 물로가 이래 넘어다본게(넘겨보니까), 저거 오빠가 거거 샘이 거울에 안 뷔입니꺼. 물에 보입니더 다. 아만(아무리) 짚어도(깊어도) 드다보몬(들여다 보면) 뵈입니더.

"아이고, 오빠요."

쿰시러 이런께네, 그래 그래 먼동이 트고 옛날에는 농사 지을라고 괭이도 매고 새븍에(새벽에) 일찍이 나옵니더. 물꼬 보러 나온다고 나온께네,

"동네사람아 날 좀 살좀 살아."

칸께, 꽹이 든 사람을, 소시래기든 사람 막 들고 나가지고 마 그래 마 뚜디리(두들겨) 패가 잡아가 직이고 그 사람은 잘 살았고는예. 그 전설이 있어.

145) "빠르니까"의 뜻으로 말한 것으로 보임.

[영도구 설화 129]

풀국도 못 먹어 죽은 전처 자식[산비둘기 소리 유래]

배용남(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봉래1동 봉래1동경로당]

이건 전설인데, 옛날에예 인자 본처가 죽고 후처가 들옸는데(들어왔는데), 자식이 있었는데, 본처가 자식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계모가 너무 독해가이고예, 옛날에는 다 이 빨래로 목(면), 숨 목이 되난께 씻거 풀로 안 하모는예 못 입습니더, 히즈부리사서. 풀로 하면서 그 자식을, 지도 자식을 키아면서 그거로 옷을 풀국이라도 멕이가이고 입히몬 빳빳하이 시원코 좋을 긴데, 개로 딱 조삤는(줘 버렸는) 기라예.

이런데 풀꾹풀꾹 하다 게게게게게 이랍니다. 지금도 그라고 있어요. 예. 시골에는 예. [풀국새 우는 소래를 내며]

풀국 풀국
지집 죽고
자식 죽고
내 혼자서
우찌 살고
게게게

이러 쿠고. 글하고도(그렇게 하고도) 인자 그거 하고, 인자 풀 그거에 풀국풀국 게게게게 하고 그랍니다.

[조사자: 그 자식이 그걸 못 얻어 무가(먹어서) 죽어서 안자.] 죽어서 인자 기기(그것이) 전설에 혼이라. 그런 게 있었어예. 지금도 현자에도(현제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볼 수 없어예. 예. 후처 자석 그리 못 시키, 밉어하고(미워하고) 밥도 막 올키(옳게) 막 챙겨주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다 같을까마는, 옛날에는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실지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예.

[영도구 설화 130]

산제당을 훼손했다 죽은 사람[영도 산제당 전설]

배용남(여, 1931년생), 장두호(남,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봉래1동 봉래1동경로당]

[장두호 구술] 그 산지, 산제당, 방금 얘기[146]했지만은, 참 영험한(영험 있는) 그 조그마한 판짓집으로 지은데, 절인데, 거 고개 넘어가는데, 여 봉래산 고개 넘어가는데 제일 첫 번째가 산제당이라.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면 복천암. 상당히 높은 위치에 복천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자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복천암도 지금 유명하이 있고, 산제당도 아적까지(아직까지) 살아있어. 예.

산제당 옆에 그때 영도 할머니가 이이 복,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전설이 있어예. 예. 지금도 산지당이(산제당이), 여 절은 이상해도 영도사람이 산지당을 지금 제일 마이(많이) 가요. 마이 가요. [조사자: 아, 거기 가면 영도할매 상 이렇게 모시놨는교?] 이이 무슨 전에 탑이 하나 전에 있었는데, 아마 저 있을 거예요. 예예.

[배용남 구술] 그예게(그곳에) 굿도 하고 마. [조사자: 굿도 하고.] 예. 그 탑 그거 뿌쑸고(부수고) 그 사람이 죽어삤다 카대. [조사자: 와 그 어째?] 탑예, 탑 그거. [조사자: 탑을 누가 뿌샀는가?] 그거 뭐 젊은 청년이 그랬는데, 탑 그거 뿌코(부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딱 죽어삐더라 안 카더나. [조사자 : 아하, 그 당을 갖다가 허물었다고.] 당이 얼마나 겁납니꺼. [조사자: 겁나지 그걸지.] 그거 저 참 가매(가만히) 거 가매 놔두겠습니꺼? 그 뭐 안에 뭐뭐 금도, 금가락지도 들었고, 뭐 금도 있고 조금 그 좀 마, 그래가이고 모싰는 갑데예. [조사자: 그걸 누가 훔칬는 갑네.] 훔친 게 아이고. 그래 뜯은께네(뜯어보니까) 나오는데, 그 청년이 마 얼마 안 가서 죽어삐더라 하데. [조사자: 아, 그걸. 아, 당을 어째 훼손을 했다고 해서.] 예에. 그 인제 어른이, 영 참 여로 산지당 할매가 참 왕인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예.

[영도구 설화 131]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배용남(여, 1931), 표기학(여, 1930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봉래1동 봉래1동경로당]

[배용남 구술] 그 인자 고래장하고, 질이, 옛날에 질이(길이) 없거든요. 그 뭐, 뭐뭐뭐. [표기학: 가는 데마다 표로 이래 해놨다 카대.] 가는데 솔가지로, 소나무 가지로 꺾어가이고 가

146) 장두호가 구술한 <영도를 나가면 망한다(영도 봉래산할머니 전설).을 말한다.

는 데마장(데마다) 쫄- 찾아가라고. [표기학: 솔가지로 가는 데마다 꺾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요래.] [표기학을 보고] 저 친구가 낫네.

[표기학 구술] 그래야 질로 찾아내러 오지. 그래야 찾아 내려온다꼬 이자. 예. 가다가. [조사자: 가다가 어무이가.] 지고 가다가, 그렇게 인자 그 할매가 엎히가는, 지게 지는 할매가 가지로 찌이가지고 놔두고 또 이자 가다가 이리. 자석이 난제(나중에) 귀가할 때 질 못 찾아 가까(갈까) 봐. [조사자: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는 자식 생각한다.] 예. 그래 하더랍니다. 그러이까네 그 인자 옛날에는 질도 없고 산이 아닙니꺼 그제. 인자 내리오는데 곤란하다고 중간중간에 가지로 가는 데마중 이리 엎어 놔놓이카네 찾기가 수울타(쉽다) 이거지. 예. 그 말은, 그 말은 들었다.

[영도구 설화 132]

영도를 나가면 망한다(영도할매 전설)

장두호(남,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봉래1동 봉래1동경로당]

옛날에는 봉래산 할머니가 있었는데. 저 우에(위에) 무슨 조그마한 탑이 하나 있었는데. 거게서 딱 밑을 쳐다보고, 영도에 사시는 분들이 시내 나가면 전부 다 망해가지고 들오는 기라. 예. 그런 전설이 있어요. 예. 시내 나가면은 무조건 망해가 들온다는 전설이 있어요. 봉래산, 봉래산 할머니가.

[조사자: 아, 봉래산 할머니가 그 노여움을 받아가지고.] 예. 지금 봉래산이 395메타(m)거든 예. 그래서 바로 고 밑에 할무이가 살았는데 옛날에 이거 영도 있는 사람들이 시내 나가면 전부 다 망해가 돌아오니까 함부래 알아서 하라고. 고 봉래산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 있어요. 전설이 있습니다예.

[영도구 설화 133]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표기학(여, 1930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봉래1동 봉래1동경로당]

아니 고래장으로 한다고 저저 아부지로 저저 지게다 지고 갔는데, 그게 인자 산사람을 거기다 나놓고 그래 인자 묻었는 갑디야. 묻어 놓고 난 뒤에, 지게로 거다(그곳에다) 놔둘라 카이께네,

"이래 지게로 가주 가야 또 뒤에 사람으로 지고 올 수 있다고 지게를 가 가라."

칸다 카대예. 그래서 그거 소리로 듣고 그 사람이 그거로 못 했다 하대예. 예.

[영도구 설화 134]

개똥을 씻어 먹은 사람

박순화(여, 1950년생) 구술
2019년 1월 23일 채록
[봉래1동 봉래3동임시경로당]

밀 묵고 밀 그거는 소화가 잘 안 되그덩. 개가 묵어갖고 인자 똥을 싸놔모(싸 놓으면), 밀 고기 토독토독 그양(그냥) 올라오다가, 보리쌀 모리고, 토독토독 올라오만 그거를 바가치로 씻어갖고 그래갖고 묵었다 카는 그런 이야기. 전설이지 그거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마들한테.

[영도구 설화 135]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박순화(여, 1950년생) 구술
2019년 1월 23일 채록
[봉래1동 봉래3동임시경로당]

고래장(고려장)이, 하도 묵을 기 없으이께네, 법적으로 인자 칠십만 되몬 고래장을 시키자, 저 법에서 내러왔는 기라. 이 법에서 내러와갖고 인자 칠십 되몬 고래장, 우리도 우리 동네는 고래장 터가 있다. 많은 웅디(웅덩이)를 파갖고, 그래갖고 고래장을 핸 터가 있거던? 그래 할매들이 그래 쌌대.

그따다가(그곳에다가) 안자, 인자 영감 할마이 인자 고려장을 시기났는데(시켜 놓았는데),

산비틀(산비탈)에다 시기놨는데, 그런데 첨어는(처음에는) 인자 지고 갈 때, 인자 나만(나이 많은) 사람인께, 옛날사람들 눕우몬 마 못 일나잖아요? 못 일나이께네, 인자 아들이, 인자 지게를 지고 인자 업고 갔는 기라.

업고 가갖고 인자 저 산배알(산비탈)에 거 웅디(웅덩이) 파난(파놓은) 데 그따다가 인자, 인자 뚜껑이, 나무해가 뚜껑 딱 해갖고 그 한 달을 묵을 양식을 옇어(넣어) 주는 기라. 옇어(넣어) 주민서러, 그래 인자 아들이, 머시마가 뒤에 쫄쫄쫄쫄 따라오민서러,

"아부지요, 어데 가노?"

카인끼네,

"할무니, 저 어데 그거 하러 간다."

이람서 이라이께, 안자 거 갖다가 그 옇어(넣어) 놓고 보인께네 인자 솥도 있고, 그 보인께, 눕은 데 보인께네 있더라고. 있는데, 그 할, 저 뭐고 인자 지게 지고, 인자 할매 여거 영감할매이 옇어 놓고, 인자 아들이 올라 카이께네, 저거 손자, 아들이, 저거 아들이 [조사자: 손자지만.] 손자가,

"아부지, 와 지게를 놔 뚜고 오노?"

이라이께네,

"놔 두고 오라."

이라이께네,

"아부지, 지고 가자. 그래야 나도 아부지를 갖다가 묻을 거 아이가. 나중에 나 아부지 칠십 되몬 묻을 거 아이가."

카민서러,

"그 지게를 지고 가자."

카더래. 그리께네 그 아들이, '아, 이거는 아무리 법으로 정해 놨지만 이거는 아이다. 이거는 아이다.' 그 아들이 인자 생각하기로, '이거는 아이다.' 싶어서 저거 엄마, 저거 아부지 다부(도로) 들고 집에 옸다 카는, 그런 전설이 있더라고.

[영도구 설화 136]

도깨비를 잡아오려던 사람

박순화(여, 1950년생) 구술
2019년 1월 23일 채록
[봉래1동 봉래3동임시경로당]

우리 동네 사람이 인자 남자들이 막 모이갖고 인자 그걸로 안 하나? 내기를 하거던. 술내기로. 그래갖고 인자 남자들은, 머시마들 마구 멫이 모이갖고,

"니 오늘 지녁(저녁)에, 공동모지(공동묘지)."

토깨비(도깨비)가 난단 소리가 인자 났는 기라.

"공동묘지 가갖고 니 토깨비 잡아오몬 내, 우리 니 술 받아주께."

이렇는 기라. 그래이 멫 놈을 보내도 몬 잡아오는 기라. 그거로 토깨비를 몬 잡아오는 기라. 그래 한 놈이,

"온(오늘) 지녁(저녁) 내 간다."

하면서, 인자 탁 나띠서(나서니) 가이께네, 인자 묘 뒤, 묘 옆에 보만은, 공동모지 보만은 어쨌든 말뚝이 하나썩 박혀가 있는 거로, 그래 뒤에 살살 인자 멫 놈이 인자 망보러 갔는 기라.

저 신나게 올라가디마는 그 토깨비 그기 인자, 토깨비라고 생각핸 그기, 토깨비라 생각한 거 잡고 마마마 막- 마마 죽어도 안 낳고(놓고), 죽어도 지가 마마 목숨을 걸고 해도, 그기 토깨비가, 지 눈에 토깨비로 비는데, 안 넘어가는 기라. 안 넘어가는 기라. 그래갖고, 이기 마 말뚝을 하다가하다가 마 지가 쓰러짔는 기라. 그래갖고 인자 친구들 업사가(업어서) 오이께네, 그 뒤에 인자 가보이끼네, 허깨비 저저 말뚝이 딱- 묘지 옆에 붙이가 있는 기라.

그런께 토깨비가 없다. [조사자: 토깨빈 줄 알고.] 토깨비. 술을 무우갖고 막 그걸 토깨비라고 지가 잡아올 기라꼬 인자 막 쎄리 해논께네, 뒤에 인자 살살 날 새갖고 인자 친구들이 올라가보이께네, 그기 말뚝이 아이고, 뭐 도깨비 말뚝이 돼가 있고, 뭐 또 뭣한 사람들은 막 토깨비가 나타나갖고, 막- 씨름을 하고, 씨름을 하고 이래.

그 뒤에 가보인께네, 빗자리 몽디(몽둥이)가, 여자들 생리 있으만 그 앉을 만한 그기 토깨비같이 빈다(보인다) 카대. 그기 빗자루가 탁 대가 있고 이렇다고 하는, 그거는 전설 이야기다 그거는.

[영도구 설화 137]

여우가 된 딸

박순화(여, 1950년생) 구술
2019년 1월 23일 채록
[봉래1동 봉래3동임시경로당]

옛날에 사또 집에 안 있는교? 그 군, 밀양군이면 밀양군. 그 사또. 옛날에는 지금은 뭐꼬? 뭣이라 카노? [조사자: 부사. 밀양부사.] 그래갖고 인자 낳아만 딸, 낳아만 딸. [말을 바꾸어]

아아, 아들, 낳아만 아들, 낳아만 아들. 낳아만 아들인데, 인자 하나를 딱 낳인카네 딸인 기라.

그거를 갖다 너무 아부지 엄마가 좋아하인끼네. 그래갖고 이기 쫌 처억 이래 컸는데, 하루 지녁(저녁) 나가몬 소가 한 마리 죽어가 있고. 그래 또 하루 지나가몬 개가 한 마리 탁 죽어가 있고. [청중 :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인 기라. 이게 [청중: 나왔다.] 전설의 고향인 기라.

그래갖고 이기 인자 가만, 이기 무슨 일이고, 그거 인자 저거 뭐꼬 사또 집에 인자 그렇게 인자 되이께네 기가 차잖아요. 그래갖고 인자 아부지가 하루 지녁(저녁)에는, 짐승을 다 잡아묵고 나이끼네, 자아묵진(잡아먹지는) 안 해요. 인자 궁디로(궁둥이로) 손 옇어갖고(넣어서) 창자만 빼 묵는 거라. 어어 죽이는 게 아이고, 사람 손으로 직이가 뜯어묵는 기 아이고, 손을 옇어갖고 인자 창자만 꺼내가 묵고, 소는 엎어져 죽어뿌고. 그 대갓집에 소가, 짐승이라 카는 짐승은 다 말랐는, 다 말랐는 기라.

그래가 안자 아부지가 인제 가만히 생각해보니 '무슨 이런 일이 있는공?' 싶어서 생각을 해보이께네, 인자 하루 저녁은 탁 망을 봤는 기라. 망을 본께네, 딸이 여우가 탁 돼갖고, 딸이 여우가 탁 돼갖고, 여우가 탁 돼갖고 딱 나오디만, 저거 아들 멪인데 아들을 하나로 갖다 탁 옇어갖고 자아묵는 기라.

그래갖고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인자 아부지가 큰아들로 갖다가, 내 중간에 잊아뿠다. [조사자: 어데 절에 보냈는교?] 아, 절에 안 보내고, 그지없이 떠나라 카매 떠났는 기라. 그지없이 떠나라 캐서 떠났는 기라.

그래 떠난께, 어떤 이 아들이, 어떤 인자 배낭 메고 그지없이 가이께네, 어떤 중이, 아아 스님이 떡 나타나갖고, 저저 뭐꼬 호로, 호롱병(호리병) 요런 구로(것을) 세낱을(세 개를) 주더랍니더. 세낱을 주민서러 저저 뭐꼬? [다음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아서] 어어 그지없이 떠났다가 생각나만 가보라 카는 기라.

그래갖고 이 인자 아들이 멪 십 년을 흘러갖고, 인자 아부지 생각, 부모 생각 나갖고 인자 가이꺼네, 딱 여동생 하나만 살아있더래요. 커다란 다 자아묵고. 여동생 하나만 딱 살아있는데, 와이구, 신발 벗고 나옴서러,

"오라버니, 오라버니, 어째서 인자 오시냐?"

고 막 그래 막, 그래 막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가마-이 생각해보이 엄마 아부지 다 죽고, 형제간도 다 죽고 아-무도 없고 혼자 있더래요. 그래갖고 인자 '이기 인자 무슨 일인고?' 싶어 가마-이, 그러몬 잠이 옵니까? 가마-히 인자 탁 누워갖고 가마히 엿들어 보이께네, 여동생이 인자 슬슬 밤중 되이 시작하는 거라. 인자 저거 오빠 자아무울라고. 자아무울라 시작을 하는 거라. 하는데, 그때 인자 말커로(말로) 갖다가, 저거 오빠가 타고 간 말을 갖다가 탁 잡아옇어갖고, 손 옇어갖고 창사만(창자만) 딱 꺼내 묵고, 말키(말이) 떡 쓰러져 죽으이께네, 오빠가 인자 그때사 '아! 이기 아이다.' 싶어서 마 그 길 도망을 가는데, 가는데 마,

"오래비 한 때, 말 한 때, 두 땟거리 생겼다."
고 마-악 따라오는데, 그래 하나로 탁 떤지이꺼네 딱 불이 되고, 불 새도(사이도) 날라오더랍니더. 불 새(사이로) 날라오고. 하나 딱, 인자 마 위험할 때 떤지라 캤는데. 스님이. 스님이 그캐갖고는 행방불명되고, 스님이 사라지뿠는 기라. 그래갖고 또 하나로 탁 떤지이꺼네 또 까시 밭길이 확 대도 그거도 날라왔는 기라. 그것도 야시가 돼갖고 인자 날라오는데 마 오래비 한 때, 말 한 때 다 떨가(놓치고), 오래비는 인자, 말은 자아묵고 오래비는 자아무야 되는데, 몬 자아. 그러이까 뭐, 또 하나 되기(매우) 위험할 때 떤지라 캤는데. 스님이. 그 떤지라 캐가 떤지이, 또 하나 던지이께 바다가 확- 되인께네, 그 바다는 못 넘어오더랍니더.

그래갖고 그기 오빠 하나는 건짔다. 그 집에. 그러이께네 여자는, 가시나는 놔나면은(놓으면), 그기 좋다고 공을 들이가 놔나놓으몬 야시(여우)가 된다 안 하나.

[영도구 설화 138]

먹을 것 욕심 부리다 쫓겨난 며느리

박순화(여, 1950년생) 구술
2019년 1월 23일 채록
[봉래1동 봉래3동임시경로당]

메느리가(며느리가) 인자 시집을 왔는데, 고깃국을 인자 이리 낋이는데(끓이는데), 옛날에 고기가 얼마나 귀했어요. 고깃국을 낋이는데, 이놈우 자석 시아바이, [말을 바꾸어] 옛날에는 남자가 장에서 가고, 오일장 육일장까지, 여자는 안 갔거든.

시아부지가 인자 장에 가서 인자 고기를 사고, 소고기를 사오고 국을 낋일라 카몬 건디기가(건더기가) 하나도 없는 거라. 소고기가 없는 거라. 그래, '이상하다. 이상하다.' 인자 할 때마중(때마다) 그러는 거라. [조사자를 보고] 그거 이상하잖아요? 한 모가지(몫) 있어야 될 낀데. 하나도 없어갖고. 인자 신랑이, 인자 한 문(번)은 시아바이가 인자 이상해갖고 시장 가갖고 소 허패(허파) 고놈을 인자 항거썩(많이) 사 오갖고, 그래가 안자,

"오늘 야야, 오늘 미역 옇고 소고기국 낋이라."
캐놓으니께네, 낋이라 캐놓고 인자 창문에다 탁 눈을 돌시고(돌려서) 인자 봤는 기라. 인자 보이끼네, 허패 그기 동동동 뜨거든. 동동 뜨만 지이(집어)먹고, 또 동동 뜨이 하나 지이먹고. [조사자: 메느리가?] 메느리가. 그 다 집어, 다 뜯어 무뿌는(먹어버리는) 기라. 지가 다 건지무이. 그래갖고 인자 국을 낋이갖고 인자 어른한테 보내.

"야야, 고기가 오늘 와 이래 하나도 없노?"

신랑이 알아뿠는 기라. 신랑이 족치이께네(족치니까), 어어 뜨는 것마다 다 집어 무뿌는 기 나중에 지 주딩로(주둥이를) 깔치뜯고(할퀴고 뜯어) 그래갖고 몬 살고 가뿠대요. [일동 웃음]

그래갖고 지가 지 자신을 해갖고, 근데 동 뜨는 그거만 조묵고(주워 먹고) 밑에는 까라앉는(가라앉는) 게 없는가 싶어서 떠(떠서) 무보이께 난장에(나중에) 하나도 없거든. 그래가 지 자신을 못 살고 갔다 안 카나. 그래 내 할매들, [조사자: 너무 욕심을 냈다.] 너무 욕심을 내갖고. 할매들이 얘기를 해쌌대.

[영도구 설화 139]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박순화(여, 1950년생) 구술
2019년 1월 23일 채록
[봉래1동 봉래3동임시경로당]

시접(시집) 와갖고, 너-무 너무 몬(못)사는데, 시어마이가(시어머니가) 눈이 어둡는 기라. 눈이 어둡는데, 너무 인자 몬사이께네, 이 시어마이는 봉양을 몬하는 기라.

몬해갖고 인자 이거로 해주도(해줘도) 안 되고 시어마이가 만날 노라이(노랗게) 애비갖고(야위어서) 마, 이거 마 촌에 고기가 있나. 얼굴도 노라이 노랑병이 들리는 기라. 그래갖고 이 메느리가 인자 '하- 이거' 걱정을, '시어마니 이러다가 세상 베리몬 우짜꼬?' 싶어서 마당에 가만 축, 마루 끈티(끝에) 딱 앉아가 보께네, 꺼시가(지렁이가) 비 와가 꺼시가 살살 기이 올로(올라) 옸거던. 그놈을 딱 잡아갖고 요 요 인자 자리 밑에 딱 요래 놔나몬(놓아두면) 고게 마르는 기라. 마르는 기라. 말르면은 가(가져) 나와갖고 인자 냄비에 딱 참지름(참기름) 덖어갖고 주고- 주고 칸께네, 시어마이가,

"하아, 이기 뭐꼬? 참 무슨 고긴고 이래 맛있다."

하민서러,

"이리 맛있노?"

그래갖고 인자,

"아이구 야야, 니 그거 무슨 고기고 그기?"

그래 인자 메느리가 인자 실토를 했는 기라.

"어머니, 고기가 없어갖고예 꺼시를 잡아가 그리 했다."

하이께, 시어마이 눈을 확 뜨뿌더란다(뜨더란다).

[조사자: 그기 꺼시라고 하고.] 꺼시라 캤는 기라 안자. 메느리가 인자 바른말을 했는 기라.

그래갖고,

"너무 무울 기 없어갖고 그래 했다."

하이께네,

"하이고, 그기 그처러(그렇게) 맛있나?"

카매 눈을 번떡 떠가, 그기 나라 임금님한테까지 그기 상소가 올라갔는 기라. 그래 상, [조사자: 효부상을 받아.] 효부상까지 받았는 기라.

[영도구 설화 140]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서춘화(여, 1945년생) 구술
2019년 1월 23일 채록
[봉래1동 봉래3동임시경로당]

그러이까 메느리가(며느리가) 인자 시집을 갔는데, 뭐 인자 방구는, 집에 있을 직엔(적에는) 자주 마이(많이) 뀌고 해싸이 괜찮았는데, 시집을 가놔노이 인자 마 못 뀐다 아입니까? 어른들 앞이니까. [조사자: 어른들 앞에.] 예. 그래가지고 인자 그거이 있으니까, 인자 얼굴이 노래지고 마 사람이 마 노래지고 인자 자꾸 거하이까, 어른들이,

"니가 와 시집 올 때보다, 올 때보다 얼굴이 와 그렇노?"

이래 하니까, 그 인자 어른들 앞에 인자,

"내가 그래, 이래 인자 방구가, 방구를 몬(못) 뀌서 그렇다."

이래 하니까, 그래 인자 그 어른들이,

"아이구, 그람 방구를 뀌야지."

그래. 그라니까,

"아이구, 내가 지금 이렇게 뀌면어(뀌면) 너무 심할 건데요."

이라니까,

"심해도 뀌라고."

이라니까. 그래 인자 시아부지로, 참 아까 말[147]따나,

"기둥 잡으라. 엄마, 시어머니는 뭐 솥등 잡으라."

인제 이렇게 했답니다. [웃으며] 그래가지고 고 참 고런 얘기 들었어요. [조사자: 방구로 끼

147) 제보자가 이야기를 유도하기 위해 했던 말을 상기하며.

이까 집이 후딱 넘어가던가베.] 예예예. 그래 그러이 그래 합디더.

[영도구 설화 141]

자기 새끼 귀여워하는 줄 아는 호랑이

서춘화(여, 1945년생) 구술
2019년 1월 23일 채록
[봉래1동 봉래3동임시경로당]

나물 캐러 가가지고 그래, 호랑이로, 호랑이 새끼를 봤는데, 보니까 고걸 귀엽다고 막 인자 아줌마들이 앉아가 이래 하다가 보니까, 그래 인자 그거 어미가 돼갖고 인자 구 만지이까 인자 위협을(위협을) 줄 하면서도, 그거 인자 게엽어하니까(귀여워하니까), 그래 어흥 하니까 인제 아줌마들이 놀리갖고(놀래서), [조사자를 보고] 안 놀립니까?

놀리니까 그 아줌마들이 놀래가 인자 나물바구니 겉은 거 다 버리고 왔는데, 그 인자 그 사람, [말을 바꾸어] 그 호랑이는 지 새끼로 곱게 이래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 나물바구를 다 집재마꿈(집집마다) 지재집에(자기 집에) 다 그거를 갖다놨더라 하대예.

그런 얘기를 우리 들었어예. [조사자: 지새끼 이뻐하는 줄 알고?] 예. 만져주고 예쁘다 한다고.

[영도구 설화 142]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서춘화(여, 1945년생) 구술
2019년 1월 23일 채록
[봉래1동 봉래3동임시경로당]

그 인제 애기가 자꾸 울어싸니까, 울어싸니까 엄마가 인자 그 여 뭐고 방 여어 서랍에 이런 데 놔논 꽂감을,

"야야, 내 꽂감 주께 울지 마라이."

이래 하니까, 그래가 곰이 바깥에 와가 들어보니까, '내보다 더 무서운 꽂감이 있는 갑다' 싶어가 도망을 가더라 하대. [웃음]

[조사자: 호랑이 온다 해도 울고.] 예. 호랑이 와도 운다고. [조사자: 꽃감 준다 하이께네.] 꽃감 준다 하니까 아기가 끄쳐서 '내보다 더 무서운 기 있는 갑다' 하고 그래가 도망가더란다.

[영도구 설화 143]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신무정(남, 1940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봉래1동 영도구행정동우회 분회]

그런데 옛날에 나이 많으모(많으면) 어- 인자 지게를, 아버지가 지게 지고, 어 지고 그래 산에 갔다가 어떤 토굴 안에다가 옇어(넣어) 놔나놓고, 인자 메칠 묵을(먹을) 양식을, 음식을 거 놔나놓고, 그래 인자 오면은 내러온답니다.

내러오면은, 손자가 인자, 손자가 따라, 뒤에서 인자 졸졸 따라가지. 그러면 손자 그 지게를 지고, 받아오는 기야.

"이걸 말라(뭐 하려고) 가(가져) 오노?"

카이,

"아부지, 아부지 난중에 그래 되면 내가 지고 가야 될 거 아인가베."

[조사자: 그래가 없어졌는가?] 예. 그거 마 그런 얘기도, [조사자 : 옛날에 들어, 들으셨네.] 예.

[영도구 설화 144]

사람을 도깨비로 오인한 사람

신무정(남, 1940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봉래1동 영도구행정동우회 분회]

그래 내가 쪼깬헐(조그만 할) 직에, 그러니 지금 한 여섯 살이나 일곱 살이나 안 됐을 끼거마는(것이 것만은). 그래 인자 집에 인자 심부름하고, 인자 고때는 집이라고는 없었다고. 전부

다 멧등(묏등)이고. 멧등이고 뭐 이래. 그래 그 밑에 인자 요 시내까지 뭐 뭐 하여튼 심부름하고 인자 거 밤에 타박타박 걸어가.

고 어떤 요런, 요런 요런 무슨 계단 같은 데 이래 둘이, 둘인가 서인가(셋인가) 앉았는 기라, 누가. 딱 앉았는데 보니 내가, 토깨비(도깨비)가 딱 앉았는 기라. 그래 마 내가 기절을 하고 놀래가지고, 그 마 놀리는 표정은 몬(못)하고, 탁- 숨도 안 쉬고 탁- 요래 살 요래 오래 [웃으며] 돌아가지고 도망갈라고.

그래 그, 그래 나중에 보이, 알고 보이카 사람이더라. 그 사람이. [조사자: 아아, 도깨비로 오인했네.] 예, 그렇지예. 그런 소리 자꾸 들으이 뇌에 여기에 입력돼가 있대.

[영도구 설화 145]

조내기고구마를 생산한 일산배기마을

신무정(남, 1940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봉래1동 영도구행정동우회 분회]

봉래동에서, 봉래동에서 그 아리랑고개를 넘어가면은, 그 일삼, 옛날에 일산배기[148]라 캤어. 그 동네를. 지금은 무슨 동넨고? 인자 일산배기 아닐 낀데. 옛날에 그 일산배기 고구마가 유명했습니다. 고구마가. 고구마가 똑 이래 크지, 시장에 나오는 것 큰 것도 아이고, 요래 머 잘잘하이(자잘하니) 쪼, 쪼그만 한데, 그런데 고기, 고렇게 맛있고. 빰, 밤은 저만 나가라 캐. 그기 그래 맛있더라고.

그래 그기가 무가 그거, 어- 그때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존함이 누군데, 누구분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서 그 종자를 가져왔답니다. 가져왔는데, 다 조선 천지 다 심어 봐도 안 되고, 태종대 저 뭐고 동삼동[149] 일산배기에 그걸 심으니까네, 에 그기 [조사자: 아하, 고구마가 제 맛이 난다.] 고게 제 맛이 난다. 고거 맛의 그 진가를, 그 고구마의 진가를. 지금 시장에 가몬 그런 고구마가 없습니다.

[영도구 설화 146]

148) 일산배기는 일산봉(日傘奉)마을을 말함, '일산봉'을 '일산배기'라 했는데, 현 영도구 청학2동 영도자동차학원이 있는 지역 일대에 붙여진 마을 지명이다.
149) 정확한 지명은 동삼동이 아니라 청학2동이다.

여자로 보이는 헛것

신무정(남, 1940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봉래1동 영도구행정동우회 분회]

그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대해가 이성적인 행동을. 그 상대방이 여자로 보이고. 그 여자한테 내가 오만 추태를, 추파를 다 떨고. 그래 나중에 알고 보이카네, 그럼 자기는 몸도 상할 대로 상해 있고.

[조사자: 그래 귀신이네 그라몬. 그럼 도깨비가 귀신인가요?] 그래이 모르지. 인자 토깨빈지(도깨비인지) 뭣인지, 자기 눈에 헛보이는 기지. 자기가. 그래 하여튼 이성적으로 사람이 보여가지고, 상대가. 그리 그기, 그거 아무것도 아인데, 내 눈에 그렇게 씨이는(씌는) 거지. 그래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영도구 설화 147]

장사가 신발 한 짝을 벗어놓고 간 장사바위

신무정(남, 1940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봉래1동 영도구행정동우회 분회]

장사바위. 장사바위 우에 옛날에 이 밑에서 이래 쳐다보면은, 그 옛날에 그 고무신, 껌은 고무신, 그기 한 컬리(켤레) 탁 크-은 하이튼 그것도 돌, 으리으리한 큰 돌멩인데, 밑에서 보몬 고무신 한 쪽이 착 놓이지(놓여) 있는 것 같다고. [조사자: 그거 무슨 바위라고? 그기 내나 장사바위.] 그기 장사바위. 예. [조사자: 아, 고무신처럼.] 예.

그런데 그 장사바위가 옛날에, 한 마디로 말해가지고 주름잡던 도사가, 그 신발을 신고 가다가. 터벅터벅하이 가다가, 그거 뭐 술을 한 잔 했겠대, 거나하게. 그래 뭐 술기운에 그 탁 벗어놓고 가뻐렸다. 마 그런 얘기도 어허,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그거 옛날에 장사가, 장군이, 술 한 잔 하고 거나하이 가다가, [조사자: 아 신발 벗었다고.] 신발 한 짝을 탁 벗어 떨어뜨리 놔놓고 갔다. 그걸 우리가 쳐다보고 있다. [웃음]

근데 그기 뭐 적당한 기 아이고 우리 키보다 더 크고 으리으리한 바위라고. 저 우(위)로 있는데, 내 우에까지는 내 안 올라가봤다고예. 그래 마 그러한 얘기라든지.

[영도구 설화 148]

영도할매 전설

신무정(남, 1940년생) 구술
2019년 1월 21일 채록
[봉래1동 영도구행정동우회 분회]

우리 인제 어릴 적부터 듣는 기가 '영도사람은 밖에 못나간다. 나가면은 뭐 야튼(하여튼) 성공보다는 망한다.', 마 야튼 영도에서, 어 야튼 뭐 '영도 귀신이 되거라.' 야튼 막 그런 그 어떤 얘기라 할까 뭐, 뭐 어- 그런 부분을 좀 자주 귀에 익숙한 편이라고 어-.

그러면 바람, 바람만 이렇게 쫌 세게 불어도 '아 영도할매가 오늘 노발해가지고, 아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바람을 막 불게. 뭐뭐.' [조사자: 바람을 불게 했다, 영도할매가. 어어.] 뭐 감정표시를 한다. 뭐 하여튼 이런 등등으로.

[영도구 설화 149]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이원규(여, 1937년생) 구술
2019년 1월 23일 채록
[봉래2동 봉래동경로당]

선비가 내- 공부만 하이까네, 늘어논 거 다 갱피를(강피를) 다 떠내려갔비고 없고. 그래가지고 남자가 공부해가지고 벼슬 해가 오이까, 저 저기 뭐고 갱피를 훑고 있거든. 주위 여자가.

[노래조로 읊으며]
저가는 저마누래
오나가나 갱피로세

카더란다. 내두룩(내내) 갱피만 훑는다 이 말이지.

[영도구 설화 150]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이원규(여, 1937년생) 구술
2019년 1월 23일 채록
[봉래2동 봉래동경로당]

시어마시가(시어머니가) 하도, 아들 어디 갔부고 없는데,
"고기 안 준다."
캐사서, 봉사가. 마 저 지렁이를 할 수 없어,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인자 한 마리썩 얹어주이, 맛있다고 난리면서 무면서(먹으면서) 자리 밑에다 한 마리썩 옇는 기라. 옇어놨는데, 아들이 오이까네,
"아이구 야야, 내가 야 만날 이거를 무이(먹으니) 내가 얼매나 기운도 좋고 좋으니."
"아이구 엄마! 지렁이 아인교?"
카이까 눈을 퍼뜩 떴다 칸다. [일동 웃음]

[영도구 설화 151]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김금자(여, 1952년생) 구술
2019년 1월 23일 채록
[봉래2동 유림경로당]

손지(손자) 하도 울어싸서 저저저저 뭐,
"호랑이 온다."
캐도 안 끄치고(그치고), 뭐이 온다고 캐도 안 끄치고,
"꽂감(곶감) 주께."
한께 끄친다고 안 하대. 고런 뭐 고런 소리만 알지 잘 몰라요.
[조사자: 그 소리 듣고 호랑이가 어째?] 예? [조사자: 아 그래 꽂감 준다 카이 그쳐서.] 예 꽂감 준다 카니 아가 끄쳐가지고. [청중: '꽂감이 내보다 더 무섭운갑다' 해서 도망갔다 쿠든가.] 호랑이가 인자 들으니까 꽂감이라는 그 소리를 허니까, 그래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마 꽂감 한다 카고 놀래가지고 뭐 도망을 가고 어짜고 그런 소리만 조금 들었지. [조사자: 그래 꽂

감이 내보다 더 무서운갑다 싶어가지고.] 예예. 꽂감이 내보다 더 무서운갑다 싶어가지고 인자 도망을 갔다 이거지.

[영도구 설화 152]

꼬부랑 이야기

한상아(여, 1936년생) 구술
2019년 1월 23일 채록
[봉래2동 유림경로당]

꼬부랑고개를 가다가, 꼬부랑 똥을 눴다가(누었다가), 꼬부랑 개가 오니까, 꼬부랑 짝대기로(작대기로) 갖고 때리주이, 꼬부랑 깽깽 함성(하면서) 죽어삤다.

[영도구 설화 153]

도깨비굴에 치성 드린 사람

한상아(여, 1936년생) 구술
2019년 1월 23일 채록
[봉래2동 유림경로당]

우리가 요 밑에 바닷가처럼 바다로 매아가지고 공장을 한 이백오십 평을 요리 하면서 그리 했거든. 근데 그래 여름이 되며는 마당에다 평상을 내놓고, 나무가, 그거 바다 메운 데나노이(데다 보니) 나무가 없다 아이가. 그다(그곳에다) 평상을 내놓고 신랑은 저짝으로 보고 눕고, 나는 인자 요쪽으로 보고 누우가 있는데, 우리 공장 그 그 우(위)에서 큰 장대가, 뭐 꿀(굴) 껍데기라 카몬 알랑가 모르겄다. [조사자: 굴?] 어. 굴 껍디기. 그래 뭐 커다란 모자를 씨고(쓰고) 가세에다가(가에다가) 뭐 힌철힌철 걷고 비특비특(비틀비틀) 내러오는 기라. 내가, 나는 잠이 안 들고 있고, 신랑은 인자 피곤해노이 자고 있고. 내가,

"아휴! 저 장대가 모자로 씨고 내려오는디 한 번 봐 보소."

헌께,

"여자가 돌았나. 무슨 장대가 뭘 씨고 와."

커면서 머라카더라고(꾸중하더라고).

"아이구 아인디요. 한 번 봐 보소, 봐 보소"
한게, 보도 안 해. 그래 내가 그기 도캐비(도깨비)라. 그 바다 그때 막 사람이 죽으몬 거 막 땅, 공장 앞에, 대문 앞에 막 밀맀더라 커대. 우리는 모르고. 거 들어가서 막 들어매갖고 그걸 했는데.

아이 그래 내가 밖에 나가서 나이 좀 든 노인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거가 도깨비굴이라."
그래.

"와 그렀소?"
긍게,

"거가 바다가, 파도가 밀리몬 그 앞에 그 막 전신에 시체가 죽으몬 떠밀려오고 이랬다."
그러대.

"아이고 저거는 무서워 못 살겄네."

"네를 해치더나?"
헌께,

"어데요. 내가 딱 일라(일어나) 앉아 딱 보니깐, 설렁설렁 비틀비틀비틀 내려오더마는, 우리 거따(그곳에다) 실컷 뭐 포장을 이리 막 채고(치고) 꺼노이(해놓으니) 그래 막 슬 들어보고 없어지대요."

[조사자 : 들어가서 없어지더라.] 없어져. 고마 고래 살 들어가면 사라졌비리, 그래 내,

"아지매들. 그거로 봤는데."
이래 쿤게,

"그걸 봤이몬 보름날, 초하룻날 니 사고 싶은 대로 탁주로 멫(몇) 뱅을(병을) 사가지고 한 바케쓰(일본어. '양동이'를 말함) 안 되걸랑 물도 타가지고 이래갖고 공장 갓으로(가를, 주변을) 허치라(흩어라)."
그러대.

"그럼 너가 재수가 있을 기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한 바케쓰 부어가지고,

"못다 묵은 귀신아! 많이 묵어라. 내 바가치로 마 술 준다."
쿠면서 [조사자: 술을 허칬네.] 예, 술을 뺑 도리(둥글게) 한 달에 두 번썩. [조사자: 한 달에 두 번씩.] 초하룻날하고 보름날하고 인자 그래. 그리고 인자 맹절이(명절이) 오면 인자 특별히 한 상을 채리갖고 저거 우에, 저 우에 포장 밑에다가 갖다 딱- 해놓고, 뭐 절을 엎드리 하도 못하고 고만 정스리(정성스럽게) 하고 이랬지.

"내가 이 정성 채리서 이래 드립니다. 마이(많이) 잡수소. 마이 잡숫고 가소."

커면서 마. [조사자: 도깨비 인자 더 안 나타나라고?] 그렇지. [조사자: 고마 마 잡귀인데 그래 마.] 도깨비굴에는 자기가 정성을 씨몬(쓰면) 괜찮다 아이가. 인제 그런 걸 어리도(어려도) 그걸 인자 귀담아 들어가지고.

그랬다 아이가. 내가. 그래 하니까 [조사자: 어무이 그 저 도깨비가 짱대에 무슨 굴껍질 같은 거 뭐.] 모자로 씨고. 처음에는 그런 걸로 봤고. 그래 밖에 나가는, 예전 다른 데 얘기를 하니깐, 그렇기 그렇기 하라 그라대.

[영도구 설화 154]

시신 묻은 곳에서 나오는 도깨비불

한상아(여, 1936년생) 구술
2019년 1월 23일 채록
[봉래2동 유림경로당]

도깨비불은, 옛날에 저 뭐고 부산에서 저 여수까지 가는 배가 객선이 있었거든. 이름이 그기 하야부사(はやぶさ. 일본어로 매를 의미)라 이랬거든. 그 배 이름이. [조사자: 하야부사. 일본?] 일본 이름이.

한 번은 그래 또 우리 언니가, 가하고(그 언니하고) 딱 그거 그하고 이래 딱 마주보는데, 나를 보고,

"아휴! 상아야 상아야, 빨리 나와가지고 저 좀 도깨비불 좀 봐라."

이래.

"아이구, 춘아. 안 볼 기다. 무섭구마는 말라(뭐 하려고) 그걸 보라 해싸."

아- 끄고 나와서 보라고 해싸. 혼차(혼자) 보기 무섭다고 굼서(그러면서). 크는 여우고 인자 크는 시집가는 해 내가 태어나노이 마 딸매이러(딸처럼) 그래 인자 이래서 사는. 대차 불이 그자, 처음에는 동그렁하이 갔다가 막 초르르륵 올라가몬 또 구슬 구부는 거매로(것처럼) 그리 올라갔다. 거 인제 빗방울이 그 딱 맞으니까 고것들이 쪼가리가 나가 쪼르르륵 올라갔다 졸 내러왔다 이래 노이. 졸 내려갔다가 졸 올라갔다가 [조사자: 배를 타고 가는데?] 으응, 배가 그 하야구사라고 쿠는 기 물에 빠져서.

그걸 장제석(?)을 잘 모르고, 그 꼬랑 이름이 그거 '구진내꼬랑'이라고 막 이리 말을 지이놨다 이래. 거다가 갖다 마 줄줄 묻어삤는(묻어버렸는) 모양이지. [조사자: 아 배가 파선이 돼가지고.] 응. [조사자: 묻었는데 그서(그곳에서) 도깨비불이 나왔던가배.] 그거 도깨비불이 내가 가다가 줄 올라갔다가 줄 내러오다가 막 그러더라고 그기. '아이고 참 이기, 사람 인(燐:

도깨비불)이라 쿠는 기 전부 헛된 기 아이구나.' 속으로 이래 싶우고 그랬다.

[영도구 설화 155]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한상아(여, 1936년생) 구술
2019년 1월 23일 채록
[봉래2동 유림경로당]

거 우리 동네 박씨라 쿠는 노인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몬 사니까, 그 남해 노량. 거게가 조깸(조금) 저 갯촌이라도 좀 잘살았거던. 그러니까 그 만날 인자 저녁, [말을 바꾸어] 낮을로(낮으로) 가이 일하고 밤늦게 인자 올라온다 아이가. 올라오몬 그제 저 뭐꼬? 남해 그, 저 한질로(큰길로) 올라 쿠면은 이상한 논이 쑤욱- 들어가가, 이상한 도깨비굴매러(도깨비굴처럼) 좀 무숩은(무서운) 데가 있어. 우리가 봐도.

거 오니까 웬 사람이 하나 딱 나서 나서만은, 아이 앞을 마르쿰성(막으면서),

"씨름을 한 판 하자."

고 그래.

"뭐 땜에(때문에) 가는 사람을, 바쁜 사람 잡고 씨름 하자 쿠느냐?"

"아이 그래도 한 판하고 보내지, 안 그럼 못 간다."

고 앞을 매부더라요(막더라요). 그 사람 실지로 그랬어. 그 사람. 그라고 거서 죽을 힘을 다해 가지고 막 인자 일 허러 대이노이(다니다 보니) 지게를 지고 바작대기로(지겟작대기로) 이런 거 갖고 대이거든(다니거든) 지가.

"이놈우 새끼가 마 건방지구러 남 일 허구 가는 사람 막는다."

고 막 바작대기를 이래 꼽아가 있으니, 처음에는 손에 없어나노니까, 이걸 빼가지고 막 그놈의 자식을 막 쌔리(강하게) 팼어. 근께 고마 꼼짝도 모르고 들어누웄, 두들겨 패. [조사자: 아아, 도깨비를.]

그래서 '하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싶어 뒷날 또 일하러 가야 안 되는가베. 그래 온 저녁에 가서, 그 사람보고 쌔리 팬 데 거기 가보이 빗자리가 딱 누가(누워서) 있더래. 빗자리 몽댕이(빗자루 몽둥이)가. [조사자: 아, 빗자리 몽댕이가.] 그래 인자 바작대기에다 떡 끼어얹고,

"니가, [말을 바꾸어] 내가 마음이 부실했다. 니를 사람이라고 보고 둘이썩 싸웠으니."

'자기 정신이 희미했다.' 인자 요런 걸 깨달으고(깨닫고).

[영도구 설화 156]

영도를 떠나지 않는 이유

한상아(여, 1936년생) 구술
2019년 1월 23일 채록
[봉래2동 유림경로당]

그래 이사를 가몬 흘(흙)이라도 한 주먹 싸가지고 간다고 안 쿠나. [조사자: 와 와? 와 그라는데?] 그거 흘이, 인자 영도 섬 흘이라고, 인자 가져 가서 인자 가지 나간다 안 쿠나.

그래 앵간하몬(어지간하면) 나도 열아홉 살로 영도 들어가 아죽(아직) 안 나가고 산다. [조사자 : 여 산신할매인데, 저 그 산신할매가 화낼까 싶어가?] 아이 그기 아이고 고마, 고마 젊, 어릴 때 들아가지고 이때꺼정 살았이이. 이 마 고마 뭐 고마 여서(여기서) 고만 내 아들이,

"뭐 우째가 나가까?"

"그런데 내 평상(평생)에는 가지 마라. 내 죽거들랑. 내 인제 얼마 남았거는 죽거들랑 너거 나가라. 나가도 나가라."

[영도구 설화 157]

끝없는 이야기

한상아(여, 1936년생) 구술
2019년 1월 23일 채록
[봉래2동 유림경로당]

"아부지, 이바구(이야기) 해줘. 이바구 해줘."

이러니까, 아부지가 뭐 일하고, 일을 우리 아부지는 촌에서 몬(못) 했어. 그래 매이로 학교 일 뭐 요런 거 쪼깨 이래 짝대기 집고 대이매(다니며) 살살 보고 이랬다.

자꾸 울(우리) 아부지가, 오빠가 얘기 해주라 쿠몬 뭐라 쿠는 기 아이라,

"저 경물에 간게네, 어 도캐비(도깨비)란 놈이 돌을 지고 가다가 퉁 널쭌게(떨어뜨리니까), [웃으며] '부드랑 땡땡' 하더란다."

꼭 얘기, 만날 그 얘기만 하는 기라. 그런께 어제 그제 들은 거매(것처럼) 그 소리, 아부지 한 소리 그래 맨날 그래. [조사자: 도깨비란 놈이.] 어. 돌을 지고 가다가 널추니까 '부드랑

땡땡’ 하면서 구부러지더라 하대. 이 소리뿌이 안 하는 기라. [조사자: 또 그래서, 그래서 어째 됐노? 하몬 또 그 얘기하고.] 어이, 또 뒤에도 또 이바구 해주라 쿠사몬 그 얘기 하고.

[영도구 설화 158]

저승 갔다 살아난 사람

김정임(여, 1948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신선동 산정경로당]

그래 우리 친정어머니도 이틀만에, 딱 인자 내일라고(내려고) 참 묶아가 인자 관에 넣을라니 이틀만에 깨났는데, 그쿠 그 말하몬 인자 꿈을 뀌고 나았더라(나왔더라). 딱 자고 나니깐 배 옆구리 여다(여기에다) 딱 치(治)자[150]를 딱 써져갖고 나오더라.

근데 우리 엄마한테, 옛날에는 치를 많이 냈잖아요. 말리며는. 치를 내(내어) 무라고 인자 그런 표시를 해났다 이거라. 요지없이(여지없이) 치자가 딱 그려져갖고 있더래.

우리 어머니도 이틀만에 깨났다. [조사자: 그랬는가요. 그래 저승 갔다 온 이야기는 안 하던가?] 아, 하대요. 근데 나는 저렇게 저리 조리 있시 이야기를 못해갖고 몬해요. 하대요.

개를 한 마리 딱 주더라 하대.

“이 개를 따라가라고. 아직 올 때가 못 됐다고.”

인자 개를 한 마리 딱 주더라 하대. 개를 따라가는데, 개가 물에 풍덩 들어가는데, 개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 물이라. 그래가 깜짝 놀래서 깼는데, 인자 그때 인자 살아난 기야. 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영도구 설화 159]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김현악(여, 1948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신선동 산정경로당]

150) 이야기의 문맥상 한자로 병이 나을 치(治)자인 듯하나 분명하지 않다. 구술 중에 치를 내어 먹는다는 표현이 있기도 해서 정확하게 어떤 글자인지 알기 어렵다.

우리 작은아버지가, 우리 작은아버지가 앞산에 그게요 옛날에 저 뭐 일본놈들이 들왔다네. 군부라 쿰서(하면서) 이기 해나놓고 세맨(시멘트) 바닥이 이래 돼가 있어.

그런데 새우로 인자 잡아갖고 그따(그곳에다) 널었는데 비가 올라 캐서 걷으러 갔는 기라. 그랑께서 인자 작은아버지가 자꾸 또깨비가(도깨비가) 나와서,

"씨름을 하자."

써서, 인자 씨름을 하자 하는데 허리끈을 딱 끌러가지고, 자기 허리끈을 끌러갖고 모가지를 볼깍 묶어갖고 소나무다 달아놓고 뒷날 간껜 빗자루가 달리가 있대. 빗자리가 그래.

[청중1: 손 많이 가는 물건을, 그래 빗자리 같은 거 함부로 버리지 마라 안 하더나.] 그 여자들 맨스(월경) 있어가지고 깔고 앉아가 피 묻은 기, 스무는(스미는) 거는 다. [조사자: 기이(그것이) 도깨비 된다 하대.] 예. [청중2: 그래가 빗자리 깔고 앉지 마라 안 하나.] [청중1: 그래 빗자리 같은 거 깔고 앉지 마라.]

아이고 그래갖고 작은아버지가 이기갖고 목아지를 뽈깐 달아매갖고, 해갖고 소나무에 딱 달아놓고 뒷날 인자 가본께서 빗자리가 댈롱댈롱 해가 있다 하대.

[영도구 설화 160]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이순심(여, 1949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신선동 산정경로당]

아 시집을 갔는데, 메느리(며느리)가 그래 얼굴이 노래지더랍니다. 그래갖고 인제 그,

"아가."

하면서,

"얼굴이 왜 그렇게 노랗느냐?"

그라니까, 어 그래 이웃사람들이,

"아이고 저 집 메느리가 올 때는 얼굴이 참 좋더마는, 빨래터에 가니깐, 나만, [말을 바꾸어] 날이 갈수록 인제 노, 얼굴이 노렇더라."

하면서 이라니깐, 인자 그 얘기를 듣고 인제는 그 시어머니가,

"얘야 그래 나가니까 그렇는데, 얼굴이 왜 그래 노랗느냐?"

그러니까 인제, 나중에 인제,

"방구를 인제는 못 뀌어서 그렇다."

니까,

"그래 방구를 한 문(번) 실컷 뀌도 괜찮다."

고,

"뀌어 봐라."

그라니까 인제, [웃음] 방구를 하루는 뀌었답니다. 그래,

"어머니, 다아 막 인제, 인제 조심해서 인제 계시라고."

그래.

"아이고 뀌어라."

하면서 그니깐 방구를 퍼-엉 뀌니가 막 기둥이고 뭐고 집이 막, [일동 웃음] [웃으며] 다 터져 벌도록(터져버리도록) 방구를 뀌었답니다.

그래갖고 인제 어이구 그 방구 소리가 그래 인자 크니까, 인제 그라고 인제 모르겠습니다. 그래갖고 인제 시어머니가 어째 해가지고 인제,

"얘야."

그래 인제 이걸 가지고 인제 뭐 비단인가 이래 좄답니다(주었답니다). 그걸 가지고 인제 친정으로 인제 보냈는갑습니다. 그래 인제 친정으로 가다가 인제 배나문가 뭐 과일 나문가 어데, [조사자: 감나무.] 감나문가? 그 밑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 인제 그 감나무 그서 모르겠습니다. 나 더 읽었는데, 잊아버렸는데, 애들 동화를.

그래 인제 그 비단 인제 그거하고(그것과), 인제 인제 감나무랑 뭐 그거 하기로 해가지고, 인제 그러니까 인제 이 메느리가 그서 인자 또 방구를 뀠는 기라. 그러니까 감이 두두둑 널 쩠다든가(떨어졌다든가)? [일동 웃음] 그래갖고 나중에 인제 마 시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 마 그런 이야기. 대략 그렇게 들었습니다. [일동 박수]

[영도구 설화 161]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최계선(여, 1952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신선동 산정경로당]

우리나라 옛날에 너무 먹고, 먹고 사는 기 없어가지고, 그래가 인자 나이 칠십 넘으모는(넘으면) 전부 다 인자 뭐 집에서, 집안에 앉아서 먹기만 하고 일도 몬 한다(못한다) 아입니꺼. 그래서 인자 나라서 고려장을 인자 선포했는 기라요.

그래 인자 전부 다 할머니들 그리 되몬 갖다 버리고 하는데, 한 날 이 집에는 인자 참 효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나라 법이 그러니까 인자, 할머니를 지게 지고 인자 가는데, 손자가 달랑달랑 따라왔어. 따라와 굴에 인자 할머니를 삼일 먹을 거를 주고, 할머니, [말을 바꾸어] 엄마를 내리다 놓고 온게, 엄마는 벌써 알고 있으면서,

"그래 내러가거라. 내러가거라."

하이까, 인제 내러, 지게도 버리고 오니까, 손자가,

"아 지게 지고 가야지요."

"왜?"

이랑께,

"아버지도 좀 있으면 칠십 아니요? 내 갖다 버려야 될 거 아닙입꺼?" [일동 웃음]

그라이까네, 그래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도로 할머니를 등에 지고 와가, 몰래 몰래 인자 동네 사람들 모르게 숨카. 다락에 숨카 놓고 먹을 거 이리 드리고 했는데.

그래 나 많은 사람 지혜가 좋은 거야.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침략, 침략할라고 문제를 딱 냈는대예, 소나무도 앞뒤로 똑같이 깎고, 말도 똑같이 생긴 두 마리 하고, 공작새를 보냈는기라. 그래 인자,

"이걸 죽이지 말고 살리되, 이기 어떤 게 새끼고, 어떤 기 어미고? 어떤 기 소나무가 머리고, 꽁지고(꼬리고)? 공작은 뭘 먹어야 사느냐?"

그 문제를 풀었어. 그런데 마 대신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라요. 그래 나라에서 공, 방을 붙였어. 그라이 인자 이 아저씨가 턱-, 이 아저씨 집에 와서 고민을 탁 하고 있으니가, 하는 말이, 저거 엄마가,

"야야, 니 얼굴에 수심이 이래 가득한데 무슨 일이 있노?"

헌께,

"아아 어머니, 나라에서 사실은 이러이러 이러한 이런 기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잡아먹을라고 쳐들어올라 하는데, 그 문제를 못 풀몬 안 됩니다."

한께,

"아이고 이놈의 손아 그것도 모르나?"

그러더니,

"공작은 거미가 살리고, 거미를 주라, 먹이를. 거미를 주고. 소나무는 물에 띄아보몬(띄워보면) 꼬랑지는 까라앉는다(가라앉는다)."

이기여. [조사자: 밑으로 가고?] 어어, 밑으로 꽁.

"그라고 말은 먹이를 주면은 아무래도 인자 모성애, 보호본능이 생겨 자식을 먼저 멕인다."

이거여. 그래 그 문제를 딱 냈어. 그래 내니깐 중국사람 놀래가지고,

"아! 우리 이 나라도,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이거도, 인자 옛날 중국에, 그거도 인자 천재가들 많구나. 쳐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 인자 보냈는데, 그래 인자 나라에서 상을 줄라고 인자 할머니한, [말을 바꾸어] 인자 그 사람 불렀어. 그래,

"그래 이 젊은 사람이 그런 문제를 어떻게 알았나?"

한께,

"상감마마, 용서해 주세요. 사실은 내가 엄마를 갖다버릴라고 산에 갖다 버렸는데, 손자가 여 지게를 지고 가 도저히 몬(못) 버리고, 엄마를 법을 어기고 다락에 숨카 놓고 키우는데, 어머니가 그 문제를 풀대요."

그래서, '아, 나 많은 사람 이래 지혜가 좋구나.' 그때부터 그 고려장이 폐지됐답니다.

[영도구 설화 162]

혀 짧은 사람의 말

최계선(여, 1952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신선동 산정경로당]

혀가 짧은 사람이 저거 작은 집에, 작은할머니가 솥을 큰, 큰솥을 원했어. 그런데 한날 인자 장에 가서 큰솥을 하나 사았는(사 왔는) 기라. 탁 오더니,

"[약간 혀 짧은 소리로] 아주머니! 큰 좃, 큰 좃 하더니, 큰 좃 사노니 집안이 뿌듯합니다." 그라대. [일동 웃음]

[영도구 설화 163]

말 더듬는 사람의 노래

최계선(여, 1952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신선동 산정경로당]

근데 혀 짧은 사람이 노래는 기차게 잘 불러요. [조사자: 아 그래요?]

그래, 말 더듬고 혀 짜른(짧은) 사람이 인자 배를 이래 탔는데, 갑판에 불이 났어.

"서서서 선장님, 가가가가 갑판에 가가 갑판에."

이란게,

"아이 새끼야 노래 불러."

그러이까,

"[노래로] 선장님 갑판에 불이 났어요."

하더라 안 카나. [일동 웃음]

[영도구 설화 164]

높임말만 쓰는 며느리

최계선(여, 1952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신선동 산정경로당]

[조사자: 어머니 완전 이야기보따리네.]

그란데 인자 저거 아버지가 인자 점심을 먹고 한숨 잘라고 탁 하는데, 개가 막- 밖에서 짖거던. 그라니까,

"야야, 개가 와 저리 짖노?"

이라니까, 하는 말이,

"아버님, 개님이 멍멍 짖으시니 소님이 놀라셔서 도랑님을 뱅뱅 도십니다." [일동 웃음]

[영도구 설화 165]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최계선(여, 1952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신선동 산정경로당]

옛날에 진짜 너무너무 못 살았다 아닌교? 전신에 만신에. 그래 몬(못) 사는데, 인자 시집을 떡 갔는데, 이놈의 영감쟁이라는 게 맨날 선비라. 글만 써. 글만. 내 방에서 내-(계속) 그러

몬.

그래 인자 나락 껍디기(껍데기), 그 옛날 이런 거 그걸 널어놓고 인자 밭 매러 가면서,

"보소. 오늘 비 올 날씨가 비 올라. 비 오몬 이걸 좀 걷아(걷어) 주소."

이랬어. 그라니까,

"어."

했는데, 그래 인자 할마시가 인자 밭에 팥을 팍 매고 오는데, 비가 막 오(와), 장대비가. 그래도 인자 믿고 영감을, '설마 그걸 올 저녁에 먹을 음식인데, 지가 안 걷었겠나.' 딱 오니깐 안 걷고 그기 물에 다 떠내러가뿠는 기라. 근께 할마시가 도저히 안 돼가,

"나 니하고 사느니 차라리 내가 나가서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겠다."

고 나가뿠는 기라.

그래 이 사람은 인자 그래도 이 사람은 피죽을 얻어무우면서 공부를 했는 기라. 공부를 해가 인자 장원급제를 했어. 이 사람이. 장원급제를 해가, 인제 탁 그 고을에 원님, 사또로 오게 됐어. 말로 턱- 타고 오이까, 여자가 딱 보니깐 저거 신랑이거든. '하이구 저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놈의 피 떡가리 날라갔을 때 그냥 같이 살거를.' 그라면서 인자 엎드리갖고,

"아이구 여보, 용서해 줄라고. 당신네 그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다."

하면서 탁 이라니까,

"아, 그래 알았나."

하더니, 종보고,

"그륵(그릇)에, 밥그륵에 물 한 그륵 떠오너라."

그래 물 떠 왔는데, 그래 이 탁 엎어 놓고,

"이 물을 주서갖고 이 그륵에 항거(가득) 채아(채워) 오몬(오면) 내 니하고 같이 살게."

하고 갔부더라 안 하나.

[영도구 설화 166]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최계선(여, 1952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신선동 산정경로당]

인자 이 여자가 인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저거 신랑은 옛날에 봇짐장사 안 있습니까? 그거를 하고. 가멍(가면) 한 막 진짜 열흘에 한 번씩 오고, 막 이래 인제 돈만 갖다 앵깄

대(안겨주었대).

먹을 게 없는데, 시어머니를 공경할라 하니까, 그란게 '씨발놈의 할망구! 저기 어 고기도 없는데.' 맨날 고기 달라고 하니까네, 지렁이를 잡아다 이거 묵고 죽으라고, 인자 죽으라고 그거로 인자 끓이가 줬어.

인자 땅속에 사니까, 이게 무슨 큰 벌거지(벌레)니까, 먹으몬 죽을 기라고 했는데, 이 할마시가 그걸 뭤디(먹었더니), 도롱탕(토룡탕) 아이요? 살이 토동통통통 뽀앟게(뽀얗게) 쳤는(쪘는) 기라.

이 신랑이 인자 장을, 톡 언자 열흘만에 들온데(들어오는데), 저거 할마시 얼굴이 마 뽀얗거든.

"와이고 어머이를 얼마나 이래 잘 걷아가지고(거두어서) 이래 부후나?"

함써 이라니까네, 저게 하는 말이,

"아이구 야야, 너거 안사람이 내를 고기를 이렇게 주서, 이렇게 잘 묵고 내가 이렇게 편하고 속도 편하고, 어 살도 쪘다."

이라 칸께,

"무슨 돈이 뭐가 있어서 무슨 고기를 죴는가(주었는가)?"

항께,

"야야 그럴 줄 알고 내가 돗자리 밑에 이걸 숨가(숨겨) 나, 한 개 숨가." [웃음]

그래 인자, 그래 인자 탁 들은께, 지렁이가 떡- 말라갖고 있거든. 그래 인자 뭐라 하꼬? 먹고 인자 살 쪘으니깐. 그랑께,

"아 그래 엄마 참 맛있는 고기네요."

하고, 그래 인자,

"여보, 당신 욕 봤다."

함서,

"이렇게 우리 어머니를 잘 모시고."

칭찬에 저게 성내는 사람 없고, 칭찬에 안 약한 사람 없어. 그라이깐 그 다음부터 저거 엄마를 그래 잘 모시더라 안 하나. 시어머니를. 칭찬해 줬다고.

[영도구 설화 167]

욕심 많은 영도할매

최계선(여, 1952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신선동 산정경로당]

이월 영동바람이, 내나 우리 신선동에는 그거, 우리 산제당에 그 할매가 말하대. [청중1: 산제당 그짜(그쪽에) 전체 보기 쉬러(쉽게) 글로 써났어예.] [조사자: 그래 여기 거 거 영도할매가 그래 좀 욕심이 많다매?] [청중1: 네.]

그래 뭐 영도에 살다가 다른 데 가모는(가면) 망한다대. [청중1: 그래.] [청중2: 아이 요 마주보는 데 가면 망한다 하대.] [청중1; 마주보는 데 가몬, 안 보이는 데 가야지.] [청중2: 영도가 안 보이는 데, 영도 돌아가는 데.] [청중3: 있는 사람이 이사를 가면은 밤에 몰래 간다 안이라나.] [청중1: 밤에 몰래 가가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살아야.] [청중3: 이 영도가 안 보이는 곳에.] [청중1 : 할매가 처다 보는 데, 안 보이는데 가서.] [청중3: 욕심이 많아서.] [청중2: 안 그러면은 영도에서 벌이고(벌어서) 간 그 재물를 싹 잃어버린다 안 하나. 그런게 밤중에 가지.] [청중3: 영도가 안 보이는 대로 간다 이 말이라.] [청중4: 그런 말이 있더라.] [청중2: 나도 들어봤지.]

[영도구 설화 168]

한쪽 발이 빠지지 않아 죽은 장사[장사바위 전설]

최계선(여, 1952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신선동 산정경로당]

옛날에 왜놈이, 내나 왜놈 우리나라 쳐, 그 전설은 여도 많고 저도 많고 많애. 그 뭐 콩 서 말, 조 서 말을 갖고 와서 자기가 이거를 다 먹을 때까지 저거 엄마 보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 말하지 말라 했는데, 그래 땅속에 있으면서 그걸 다 먹고 올라왔는데, 올라와가 인자 발 하나도 떨어졌는데, 이쪽 발이 안 떨어졌는 거야.

근데 저거 엄마가 왜놈한테 말을 했어. 그래갖고 그서(그곳에서) 죽었다는, 왜놈한테 맞아 죽었는 기라. 그래가 어 그래서 한쪽이 발만 떨어졌이몬 이 장사가 마 진짜 마 조선을 구했을 긴데(것인데).

[영도구 설화 169]

단칸방에서 몰래 나누는 사랑

최계선(여, 1952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신선동 산정경로당]

근데 저검마(자기 엄마) 저가부지(자기 아버지) 같이 잤다 하몬 아를 만드는 기라. [일동 웃음] 아들이 줄줄이 있는데. 그래 후제(나중에) 아들이, '안 되겠다. 허 이라다가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자꾸 엄마가 저래 아를 논께네(낳으니까).' 아를 못 놓게,

"아부지는 이쪽, 엄마는 요쪽 그래 자라."

지가, 저거가 가운데 인자 딱 잤어. 근데 인자 그날 따라 영감도 생각이 있었고, 할매도 생각이 있었는 기라. 그래 인자 하는 말이, 인자 암호를 정했어.

"자네가 생각이 있으몬 울로(위로) 올라서 나한테로 오게. 그럼 내가 생각이 있으면 내가 자네한테로 가게."

이랬어. 근데 그날 따라 둘이 다 있었어. 그래 할마씨는 울로 가고, 영감재이는 밑으로 가고 그래 멫 바퀴를 돌았어. 돌다가 어째 셋째 아들 발을 꽉 밟았서러,

"아야, 어떤 놈이고?"

이라니깐, [웃음] 둘째 놈이 하는 말이,

"시끄럽다, 이 새끼야. 아홉 바퀴 반째다."

딱 그라는 기라. [일동 웃음] 그란께 마 무안해가지고 마 도로 영감 할마이 눕어 잤어. [청중 웃음] 그래 인자 암만 생각해봐도 자식들 때문에 몬(못)하겠거든. 그래 영감이 인자,

"오늘 장날이니까, 여보, 여보!"

"왜?"

"오늘 내 장날이니까, 아들 일찍 재아놓고 내가 '꼬끼오' 하몬 나오나(나온나)."

이랬어. 그라니깐,

"아, 알았다."

그런데, 그기 세, [말을 바꾸어] 넷째 놈이 들었어.

"힝아(형아) 히아(형아)."

"와?"

한께,

"오늘 아버지가 장에 갔다 오면서 엄마 '꼬끼오' 하모, 부르라몬 나온다더라."

"그래, 알았다."

그래 인제 자는 척하고 딱 있어. 그래 영감은 인자 모처럼 한 번 할 끼라고 술을 한잔 탁

묵고 건하게 노래를 슬슬 부르며 집에 탁 왔는 기라. 와가지고 인자 문 밖에서 인자,

"꼬끼오."

그랬어. 그란게 인자 할멈이,

"꼬꼬꼬꼬."

하고 나았는(나왔는) 기라. 그런게 아 새끼들이 막 나오매,

"삐악삐악 삐악삐악." [일동 웃음]

그라면서 하는 말이,

"장닭 암닭 노는데 뼝아리가(병아리가) 없을소냐. 삐악삐악."

하고 따라나오더란다. [일동 웃음]

[영도구 설화 170]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최계선(여, 1952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신선동 산정경로당]

[조사자: 꽂감(곶감) 보고 놀래가지고 뭐 도망갔다고?] 꽂감 보고 도망간 게 아이고예. 인자 아가 억수로 쎄리 우는 기라. 그래,

"야 이놈의 시끼야! 니 그리 울몬 호랑이가 잡아간다."

그래도 안 그치. 근데 호랑이가 나무 우에 턱, 인자 나오몬 한 마리 잡아갈 기라고 떡 이라고 있는데, 인자 방안에서 막 이래 주도 안 달래고, 저래 달래도 안 들고 막 내(계속) 우는 기라. 그래,

"호랑이가 잡아간다."

한께, 호랑이가 인자,

"그래 내가 제일 무섭지."

탁 그런데도 울음을 안 그치는 거라. 근데 저검마가(자기 엄마가) 인제 하는 말이,

"아나 이 새끼야 꽂감 주께."

한게, 울음을 뚝 그치거던. 그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야 저 꽂감이란 게 내보다 더 무섭구나."

하면서 새가(혀가) 빠지게 도망갔다 안 하나.

[영도구 설화 171]

여자 음부 보고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최계선(여, 1952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신선동 산정경로당]

옛날에는 참 시집살이가 댔다(힘들었다) 아인교? 근데 인자 아를 낳아야 되는데, 이 메누리가(며느리가), 근데 하는 말이, 시어머니가, 아 지금 연방 나올라 하는데,

"야야 너거 친정 가서 나라(낳아라)."

하면서 그 밤길에 쫓아내뿠는 기라. 그래 보때기를(보따리를) 들고 인자 산길로 걸어가다가, 인자 배가 틀고 아를 낳았는데,

"응애."

한께, 그런께 호랑이가 피 냄새를 맡고 왔는 기라.

근데 이 여자가 인자 아는 낳았제, 호랑이가 틀림없이 아하고 지하고 묵히게(먹히게) 생깄거던요.

그랑께, 인자 막 아를 탁 엎디리면서 인자, 그라니까 인자 옷은 아 낳았으니까 벗었지, 인자 피는 절절 흘리지, 딱 엎드린게, 또 보통 사람은 입이 이렇게 생깃는데, 야는 이렇기 생깄지. 호랑이 딱 보니깐 막 털도 무섭제, 피도 흘리제, 와이구 입도 이래 생깄지 이라이깐,

"아이구, 저기 무슨 짐승을 져다 먹고 저렇게 있노?"

마 머리는 산발해가 또 대가리가 꺼꿀로(거꾸로) 있자 아요. [청중 웃음] 그래가 놀래가주고 호랑이가 마 새가(혀가) 빠지게 갔부더라 안 하나. 도망 가가. [일동 웃음]

[영도구 설화 172]

도깨비에 홀린 할머니

최계선(여, 1952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신선동 산정경로당]

근데 사실 진짜로 도깨비는 있어요. [조사자: 도깨비 이야기 그래 그거.]

우리 할머니가 내 어렸을 때, 인자 그때 인자 여 부산 탁 오기 다섯 살에서 여섯 살 왔다

갔다 할 고 사인데, 인자 제사를 지내로 갔어. 큰집에. 근데 그는 촌이니까 집도 드문드문 하나씩 있고, 있는데.

할머니가 인자 제사 지내고 오는데, 마 떡 바구니고 아무것도 안 들고. 옛날 와 제사 지내고 하면 저거 친척들 챙기(챙겨) 준다 아입니까. 그래가 오는데, 할마시가 치마도 훌렁 벗고 들왔는(들어왔는) 기라. 놀래가. 할마시가. 그래가 할아버지가,

"와 일노(이렇노)? 와 일노? 당신 와 일노?"

한께,

"아무 말도 하지 마소. 물이나 주소."

그래 물 한 그륵(그릇) 묵고 있더만, 아침에 자고 일나서,

"함 나가 봐라. 내 치마 좀 찾아 오소."

한께, 우리 할머니 치마를 소나무에다 얼마나 꽁꽁 묶어갖고 짜맨는지 몬 끌러겠더랍니더. 그래 낫 갖고 짤랐는데. 인자 그 떡 달래서 떡 준 기, 떡이 똑 똑 똑 그 준 자리에 다 떨어져가 있고, 그 소구리(소쿠리)랑 딱 있더란다.

그 할머니가 [조사자: 그게 도깨빈가?] 예. 도깨비한테 홀리갖고 혼났답니더. 도, 도째비가(도깨비가) 이렀더라대. 이렇게 보몬 지하고 키가 같는데,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돌아보몬 막 장대겉더랍니다.

[영도구 설화 173]

도깨비와 친구했다가 부자 된 사람

최계선(여, 1952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신선동 산정경로당]

그거는 인제예 한날 인제 이 사람이 참 집이 가난하게 살았어. 그래 가난해서, 맨날 이제 술로 좋아하고 이라는데, 한날 도깨비가 인자 동네를 싹 내러와가 밤에 이래 훑어보니까, 저 사람이 제일 만만하거든.

"야, 니 내하고 친구하자."

인제 이리 됐는 기라. 그런게,

"니 내가 니 원 없이 술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고 친구하자."

그래서, 그래 인제 도채비(도깨비)하고 친구가 됐는 거라. 그라니까 인자 먹을 것도 주(줘), 쌀도 갖다 조, 뭐 갖다 주. 이랑께 이 만판지(만 천지) 좋으니까, 인자 또 그래 되몬 인제 동

네에서 왜 시샘하는 것들이 있다 아닌교?

"야 이 새끼야. 니 도깨비하고 그래 친하몬 난주 니도 도깨비 된대. 그라몬 우짤라고?"

이랬더. 그런께 이 사람, 촌사람이 또 순진해가 겁을 턱 내가,

"어우 내 도깨비 되몬 안 되는데."

인자 그래가, 그래 인자 도깨비 친구가 탁 한테,

"여보게."

"왜?"

한께,

"자네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가?"

이라이,

"나는 없네. 이 사람아."

이라거든. 그런게,

"아이구 그래. 나는 제일 무서운 기 있는데."

한게,

"뭐가 무섭노?"

이란게, 이 사람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돈이 제일 무섭네."

인제 이랬어. 그런게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야 이 지만아 돈이 없으니까 친구도 없제, 저 형제들도 떠나제, 돈 없으니까 이래 굶어 죽제. 뭐 어짜고. 그래서 나는 돈이 제일 무섭네."

이란게,

"그래, 참 그래도 자네는 무서운 기 없어서 좋겠네."

핸게,

"나도 있지."

이래.

"친구니까 니만 먼처(먼저) 아고(알고)."

알으키(알려) 주네. 말, 말피. 말피를 제일 무서워한대. 그래서 그날 말을 한 마리 사가지고 마 말을 해가 피를 온 만신에 다 뿌리났는(뿌려 놓았는) 기라. 뿌리 나. 도깨비 탁 들오니까,

"말 저, 아이구, 놀래라. 아 이 친구란 놈이 내가 무서워한다니까 이걸 뿌리났구나. 에라이 이놈아! 니도 맛 좀 봐라."

함서 돈을 팍 뿌리논게, 안에서 막,

"아이구 무서라. 아이구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하니까, 항거(가득) 뿌리고 갔는 기라. [청중 웃음]

그런데 도깨비가 있지요, 도깨비 그 돈으로 이런 거 뭐 이런 물건을 사몬 절대 안 돼. 다 가져간대. 땅을 사몬 몬(못) 가져간대. 그래 이 사람이 마 그 도깨비 돈 갖고 땅을 그날 싹 다 사뿠는 기라. 그래 인자 도깨비가 밤에 와서 가만 본게 땅을 샀거든.

"괘심한 놈!"
하면서 밤에 밤새 땅을 파가이 그 땅이 그냥 있고, 파가도 그냥 있더라.

"에이 이놈 개새끼, 내를 속이고."
이라더니 하는 말이,

"에이 개새끼! 여다(여기다) 돌이나 헝거 부야 밭 못 쓰구로."

자갈밭을, 밭을 항거 인자 돌을 갖다 넣어났는 기라. 도깨비가요. 그래 인자, 이 사람이 탁 나가가지고,

"아이고, 나는 떼부자 됐네."

"인자 돌, 요새 한양에 성을 짓는다는데 돌이 없다는데, 이 돌을 팔몬 돈을 얼마나 많이 받을고?"
하이, 도깨비가 가마(가만히) 들으께 괘심해 죽겠거든.

"에이 씨!"
그라 마 그라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아이고 도깨비 새끼, 빙신. 그것도 모르나. 여다 소똥 말똥 갖다 부 봐라 못 쓰는데."
이라이까, 도깨비가 가만 들어보고,

"에이 씨!"

돌을 싹 치아뿌고 말똥 소똥을 싹 깔아뿠는 기라. [일동 웃음] 그라니깐 거름이 얼마나 잘 돼. [일동 웃음] 그래 인자 씨앗을 뿌린까(뿌리니까) 잘 되는 기라. 그래 도깨비가 심술이 나서 죽는다 아이요. 그래 인자,

"친구야, 우리 합의를 보자."
그란께,

"그 어짤래?"
이라니까,

"내가 인자 땅 우에 나는 거, 인자 뭐 보리 쌀 이런 거 한게, 땅 우에 나는 거 내가 가져 갈게. 땅 밑에 있는 걸 니가 가(가져) 가라."

지가 인자 파보니깐 밑에는 뿌리밖에 없거든. 그래 그 이듬해는 이 아저씨가 고구마, 감자를 싹 다 심어뿠는 기라. 지 우에 다 가 가는. 건디는 아무것도 없거든. 밑에. [일동 웃음] 그

라더니 이라더란다.

"야이구 친구야. 자네 머리 그렇게 좋네. 난 자네하고 안 살라네."

하고 갔부더라. 그래 이 사람 도깨비 덕에 부자 됐다 아이가. [일동 웃음] [청중: 니는 그것을 어데서 다 들었노?]

[영도구 설화 174]

귀신 말을 엿듣고 다친 아이 낫게 한 박문수

최계선(여, 1952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신선동 산정경로당]

옛날 어사 박문수 있죠? 박문수가 안자 어사 보기 전에, 보기 전에 인자 길을 가는데, 너무너무 산골에 길을 잘못 들어가 어둡어가지고 산길을 몬(못) 드는데, 그 인자 옛날에는 무덤에 자몬(자면) 제일 안전하담더. 무덤에. 그렇고 한데, 무덤이 큰 기 있으니까 그 인자 그서(그곳에서) 인자 가운데서 눕어자는데, 한 열두 시나 되니까, 그 무덤에서,

"여보게, 자네 오늘 내 제삿밥 먹으러 가는데 안 갈라나?"

하니까. 그 옆에 친구가,

"아, 오늘 나 피곤해서 안 갈라네, 자네부터 갔다 오게."

이라니께, 그래 가더람더. 그래 가가 쫌 있으니까 마 뭐 얼마 안 됐는데 성을(화를) 푹푹 내면서 귀신이 왔더래. 그래 와가 하는 말이,

"개놈의 새끼들! 어 국에는 구렁이를 넣어놓고, 밥에는 바웃돌(바윗돌)을 넣어놓고, 내가 한 숱갈도 몬(못) 묵고 그냥 왔네. 그래 내가 화가 나서 우리 손자 새끼 그 하나 있는 걸 끓는 물에 퍽 빠자(빠뜨려) 놓고 왔네."

그라더람더. 그래 인자 그런께, 친구가,

"아이구 이 사람아, 그래도 그 하나 있는 손잔데, 그래 빠자 놓고 오몬 어짜나? 그래 어떻게 낫아야 된께?"

"그놈들은 모를 거야, 젊은 놈들이라서."

이라대. 근께,

"그 이야기 해보게. 어째 해야 낫네?"

추춧돌(주춧돌) 있지예? 옛날에 추춧돌.

"추줏돌 그거를 씻어가 그 물 갖고 씻어주면은 싹 낫을 긴데, 저 바보같은 새끼는 모를 거

야.”
이라더란다. 박문수 그 사람이 딱 눕어서 아침에 일나서(일어나서), 일나가 절을 하면서,
“어르신들 잘 자고 갑니다.”
그런께 동네 내려가니깐 진짜 제일 잘 사는 집인데, 그 집에서 난리 났더람더. 아 때문에 마 난리가 났어. 그래가 인자 어사 그 사람, 박문수가,
“실례합시다.”
인자,
“계시나? 여봐라!”
하고, 옛날에는 안 그랬어.
“여봐라!”
하이, 하인이 턱 나와가 그래,
“아이고 저게 선비님, 우리 집에 지금 난리가 나서 손님을 모한다(못 받는다).”
한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대감한테 딜라라(들여보내라).”
이란게, 그래 인자 들어갔어. 그래 대감이,[151]
“어제 제사상 지냈는 걸 한 번 보자고.”
“아이고 당신이 어떻게 우리가 어제 제사 지낸 줄 어째 아느냐?”
한께,
“아,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해라.”
그래 보니까 뉘, 뉘, 밥에는 뉘, 뉘가 들었고, 국에는 머리카락이 들었더라.
“그래, 이렇게 정성을 안 들이갖고 제사를 지내니 아버지가 어떻게 음복을 하고 가겠나?”
한께, 이 사람 깜짝 놀래가,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손자를 물에 빠트맀다 하더라. 끓는 물에.”
그런데, 그래 인자,
“그라몬 어떻게 하몬 좋겠습니까?”
이런게,
“그 추춧돌 물로 씻가, 씻으몬 된다고.”
그라이까, 그래 진짜 추춧돌 물 싹 행가가지고 깨끗이 낫는 기라. 그래 하는 말이, 어사 박문수 되기 전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사는 내가 찬물을 한 그릇 떠놓더라도 정성이라. 정성. 앞으로는 전부 정성스럽게 제사

151) 이야기의 흐름상 ‘박문수가’라고 해야 할 말을 잘못 말함.

를 지내라."
함서,
"그래야 우에 조상들도 도와준다."
함서 그라고. [조사자: 그래 재밌제 그제.]

[영도구 설화 175]

개로 환생한 어머니를 세상구경 시킨 아들

최계선(여, 1952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신선동 산정경로당]

인자 큰집에, 작은집에 야는 이 사람 막내아들이라. 막내아들인데, 엄마가 인자 돌아가셨는데, 인자 큰집에 개 새끼를 낳았어. 개 새끼를 막 낳아 오물오물 낳았는데, 꿈에 탁 자는데, 엄마가 주댕이가(주둥이가) 이만큼 징사발이 돼가지고,
"야야! 내가 주댕이가 아파 죽겠다. 주댕이 아팠다. 내가 너거 형님 집에 가서 태어났더니 너거 형수가 때리가지고 내가 주댕이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겠다."
하더라. 그래 탁 일난께(일어나니까) 꿈이라. 그래서 인자 큰집에 쫓아가니깐, 진짜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한 마리가 주댕이가 이렇게 돼가 있더람더. '아이구! 이거 울 엄마다. 울 엄마가 개로 환생했다. 환생했다.' 그래 인자 옛날에 무당한테 막 물어보고 안 합니까? 그래 인자 가서 물어보니까,
"자네 엄마가 세상 구경을 너무 몬(못)했기 때문에 옥황상제가 너 세상 가서 구경 좀 하고 온나라고 개로 환생시킸다."
하는데, 그래 그 다음부터, 그래 이 사람이, '아 이거 우리 엄마다.' 하고 지게를 탁- 만들어가 등에 지고, 그래가 진짜 우리나라 팔도를 다 밟고 나니까 마지막 딱 코스에 와서 자기 집 딱 들오니까 그라더란다 인자. 개는 말 몬하지만 인자 환시로,
"내가 니 땜에 세상 구경을 너무 너무 잘했다. 내가 가서 인자 편안하게 갈 테니 걱정하지 마라."
하더람더. 그 일나이 개가 죽었더란다.

[영도구 설화 176]

죽었다 살아나서 무당 된 사람

최계선(여, 1952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신선동 산정경로당]

옛날에는 진짜 죽었다가 인제 한 삼일만에 우리 여 저 형님, [청중을 보고] 저 개창수집 앞 있죠? 고 앞에 사는 언니가, 언니가 막내하고 그 딸, 형제간에 남매간에, [말을 바꾸어] 아 둘이가 너무 나이 차가 나서, 딸내미 막내딸은 인자 중학교 다니고, 언니는 인자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처녀고 글는데(그렇는데).

인자 엄마가 죽었어. 죽어갖고요 인자 관을 인자 이래 하잖아요. 이거 인자 태 매잖아. 인자 관에 넣을라고 인자 이래 염을 다해갖고 했는데, 그 사람들 전부 엎드리, 친척들 와가 엎드리 인자 있는데, 절 하고 이렇는데, 꿈틀꿈틀 하니깐, 안 있나 그 당시 그러대. 사람들이 마 서로 살라고 마, 그 옛날에 집도 좁고 창문도 문도 요만해. 서로 나올라고 삐져 나오고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기라.

근데 그 인자 나이 어린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가,

"봐라. 울 엄마 살아 있다. 울 엄마 살아 있다. 빨리빨리."

이라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가 불렀어. 근데 인자 새끼 그기 이래 지나가면서 있지, 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흠이 생깄더라고. 근데,

"휴유!"

일나더니,

"누가 죽었나? 와 이리 울어샀노?"

그라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인자,

"엄마 니가 죽었다."

인게,

"내가 죽기는 뭘 죽아. 잠깐 꿈을 꾸고 났는데."

이라더라. 그랬는데, 그래가 인자,

"와이구 내가, 내가 꿈을."

인자 사람들이 와서,

"당신 죽어갖고 이거 함 보라."

고 이라니까,

"내가 금방 한 십분 꿨는데, 그마이 오래 걸맀더나?"

그래. 자기가 딱 자니깐 마 꽃밭이 쫙- 있더람더. 근데 그 꽃밭에 절이 딱 있는데, 산단 절이

있는데, 그래 탁 들어갈라 하니까, 어떤 할배가 있다가 이리 딱 막으면서,

"너는 아직 이곳에 들어가몬 안 된다. 이승에 내려가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오몬 이(여기) 들어갈 수 있다."

이라더람더. 그래 그러께 깼대. 오는데, 그 할배가 나룻배를 딱 탔는데, 나룻배를 탁 엎어버리대. 그래 물에 빠져갖고 나왔대.

[조사자: 깜짝 놀래가.] 어, 깜짝 놀래가 깼다 하더라. 근데 그 할, 그 아줌마 그라고 무당 돼뿠다 아이요. 점바치. 근데 그때 이 아지매는 뭐 잊어버린 거 잘 맞찼어.

그래 옛날에 저 우리 남도여중 있지 고 옆에 살았거든. 고 인자 이사 가가 고 살아가 맞차가 했는데, 이사 가고 나서 연락을 몰랐는데, 한날 하이까, 남산, 서울 남산 밑에 그 점바치들 꽉- 있다 아이가. 거(그곳에) 있더라, 그 아지매.

[영도구 설화 177]

홍진으로 죽은 아이의 애기장

박덕선(여, 1937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신선동 신선경로당]

삿갓을, 아들이(아이들이) 해악(駭愕)을 마이(많이) 한께나,[152] 아를 보듬고 이래 감서(가면서) 삿갓을 씨고(쓰고) 가가이고. [청중: 보재기도 둘러 쓰고.] 그래 애기장을 해나 놓고 내려오면서 그 삿갓으로 아(아이) 묏등 우에 딱 덮어 놓고 내려왔다대.

[조사자: 그 뭐 어떤 이야기인가?] 아가 해악을 하는데, 아를 마이 논 걸, 아 인제 가만히 본께네,

"아무개 집에 아가 해악하다가 죽었단다."

이란께, [조사자: 해악하다가 무슨 말인교?] 얼굴에 뭐 나몬, 아들이 열 나몬 해악 안 합니까? 그거로 인자 한께, 우리 클 때는 그거를 하는 아를 쓸어다 내삐더라고예. [조사자: 그거 천연두 얘기가?] 야. 그 해악하는데, [청중: 홍진. 홍진.] [조사자: 홍진 하는 거.] 예. 죽었다 헌께나 아바이가 삿갓을 씨고 아를 보듬고 그래 올라가대예. 올라가서 돌로가 애기장을 딱 해서 놓고 삿갓을 옆에다 그따(그곳에다) 놔주고(놓아두고),

"안자 뒤에 아 덱고(데리고) 가지 마라."

152) 해악(駭愕)은 몹시 놀람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아이가 죽는 일을 말하는 것을 말함. "몹시 놀라는 일, 즉 아이들이 죽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의 뜻임.

이람서로 삿갓을 나주고 내려오대예. 그런 거로 봤구만. 실리(실려) 가는구로.

[영도구 설화 178]

떡을 달라는 호랑이

신문임(여, 1947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신선동 신선경로당]

엄마가 떡장사 했대. [조사자: 그렇지.] 엄마가 떡장사 하는데, 떡 이고 가는데, 호랭이 나타져서(나타나서) 그런께,

"떡 하나 주몬 안 잡아묵지."

칸다 아입니까. [조사자: 그래 떡 다 또 주도.]

"또또또또 또 주라."

쿠고. [조사자: 그래 떡 다 뺏깄는가?] [웃으며] 어, 다 뺏긴다 하대.

[영도구 설화 179]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신문임(여, 1947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신선동 신선경로당]

그런께 인자 애기가 자꾸 울어싸니깐,

"울지 마라. 우지 마라. 뭐뭐 똥개야 울지 마라."

카든지,

"개똥아 울지 마라."

카든지,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호랑이 온다. 울지 마라."

이래도 자꾸 아가 우니깐, 그런께,

"꽂감(곶감) 주께 울지 마라."

이랑께, 호랑이가 밖에서 들으니깐, '꽂감이 지보다 더 무섭는가' 싶어서 호랑이 도망갔다. 아가 뚝 끄치니까(그치니까) 도망갔다 안 하던가예.

[영도구 설화 180]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김춘자(여, 1940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신선동 애향경로당]

하도 인자 없어가지고, 고기고 뭐고 해줄 기 없어가지고, 그 지렁이를 갖다 해가지고 반찬을 해준께네, 아이고 눈이 멀은 시어마시가(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뭣이 이리 넝꿀넝꿀 이리 보드랍고 맛있노? 맛있노?"

자꾸 그래싸서, 그래 났더마는(했더니만), 자꾸 그걸 먹고 난께, 아이구 제마질(때마침) 낭시도(?) 눈이 떨어지더랍니다. 몰라 그런 말은 들은 거 같았다.

[영도구 설화 181]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신채이(여, 1942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신선동 애향경로당]

시집을 왔는데, 창이(얼굴이) 자꾸 노래지더랍니다. 그래서,

"와 그리 창이 노랗노?"

그라껜, [웃음]

"방구로 못 뀌서."

"그라면 방구 뀌라."

한께,

"기둥을 잡으라."

하더랍니다. [웃음] 그래 그까지 들었어예.

[영도구 설화 182]

봉사 할아버지의 빚을 못 갚은 할머니의 대처법

강명순(여, 1946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신선동 영로경로당]

옛날에 봉사가 이- 살았는데, 인자 이 남자가 봉사라. 봉사고, 여자는 인자 봉사가 아이고 인자 이런 사람인데. [조사자: 버버리(벙어리). 버버리. 버버리.][153] 버버리더나? 버버리라 하더나?

그리 살았는데, 인자 이기 인자 그 남자가 돈이 좀 있었는가 봐. 돈이. 남자가 돈이 있었는데, 이 할매가, 인자 벙어리 할매가 돈이 인자 그 할배한테 돈을 좀 빌리(빌려) 썼어. 돈을 빌리 썼는데, 그래 인자 돈을 빌리 씨고(쓰고), 인자 돈을 만날 받으러 이 할배가 받으러, 인자 봉사가 받으러 가며는,

"돈이, 돈이 인자 없다."

고 쿠고 이라고, 돈이 오늘은 없다고 이라고, 자꾸 인자 왔다갔다 인자 이리 약속을 어기는 기라. 약속을 어기는데, 한 문(번)은 그라몬 할배, 봉사가 받으러 갔는데,

"그래 오늘도 없다."

쿠거던. 없다 그래 카몬,

"다음에는 꼭 오몬 저저 돈을 꼭 줄 기라.'

쿠거든.

"그라몬 내가 그때, 그때 오면은 돈을 안 주면은, 내가 약속이 있다."

이라거든. 인자 봉사 할배가. 그런게,

"내가 그때 돈을 안 주면은 니하고 내하고 약속을 해야 되겄다."

쿠는 기라. 그래 약속을 한게,

"그라몬 니하고 내하고 인자 함 뽀뽀를 해야겠다."

하는 기라. 이 봉사 할배가 뽀뽀를 해야 되겄다 그란게, 약속을 했는 기라. 인자 할매가. 약속을 해갖고, 그래 그 뒤에 인자 돈을 받으러 간게,

"돈이 없다."

쿠거든. 없다 쿤께,

"그래 그라몬 니하고 내하고 약속한 거를 약속을 지키야 된다."

153) 조사자가 제보자가 동네에 불이 난 소식을 벙어리 할머니가 봉사 할아버지에게 전하는 우스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할머니를 '버버리(벙어리)'로 말한 것이다.

이라이 그런게, 할배가 인자 눈이 어둡은게, 봉사가 돼 놓은게 안 비인다 아이가. 인자 옷을 빤스를 벗어갖고 궁디를 딱 대줬는 기라. 그 봉사 입에다가. [일동 웃음] 봉사 입에다가. 봉사는 안 비인다 아이가. 입인가 똥꼰가 모른다 아입니꺼.

그런게, 그래 궁디를 내갖고 탁 열어 준께, 그 할배가 안 빈께 입인가 싶어가 뽀뽀를 했어. 뽀뽀를 해논께, 그래 뽀뽀를 하고 인자, 입이라도 뽀뽀 해논게, 남자가 혼차 사인게 인자 그거 궁디로 해도 인자 기분이 좋는 거라.

기분이 좋는데, 그래 그 뒤에 인자 돈을 인자 약속은, 돈은 안 주고, 뽀뽀를 핸 거는 약속을 지킸고. 그래 이 다음에 인자 그래 갔어. 할배가 안자 저거 집으로 갔는데, 가갖고 인자 그래 한참 소식이 없어갖고 그래 안자 돈 받으로 간다고, 할배가 또 돈 소식이 없으이까 담방담방 갔는 기라. 간께나, 그래,

"울 아버지 죽었어요. [말을 바꾸어] 어, 울 엄마 죽었어요."

쿤다 쿠네. 인자 딸이. 딸이,

"인자 울 엄마 죽었어요"

쿠거든. 근께, 그래,

"그러면 그렇지. 너검매(너의 엄마) 입에서 그리 꼬랑네가 났는데 어째 사나." [일동 웃음]

[영도구 설화 183]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김수미(여, 1941년생), 김순자(여, 1936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신선동 영로경로당]

[김순자 구술]

자꾸 인자 나오기는 나와. 자꾸 참으니까, 인제 너무 참으니까 자꾸 얼굴이 노래지는 기라요. 그래가지고 인제, [조사자: 인제 누가?] 메느리(며느리). 메느리가 그래서 저게 어르신들 있는 데서는 이거 방구 못 뀌거든요. 그러니깐 인자 자꾸 참거든요. 안 해서 막 그라니깐 인자 얼굴까지 이제 기울어지고 노래지거든요. 그래,

"야야 니 와 그리 저게 이렇게 얼굴이 노랗고 그렇노?"

하니까, 그래 사실대로 이제 이야기 했죠. 하니깐 인제 그니깐, 그렇기 나는 듣기만 그래 들으니깐.

[조사자: 하도 오래 참아가 빵구가(방귀가) 엄청 세다는데.] 예예. 그래서 이렇기 못하고 이

렇기 어른들한테서 몬(못) 하고,

"내가 이렇기 참고 보니깐 이렇기 되었다."

이리 이야기 하니까, [웃음] [조사자: 그래 시아버지, 뀌어야지 방구를 뀌어야지.] 그래 뀌야 돼야 하는데. [웃음]

[김수미 구술]

"아버지는 앞문 잡으이소. 어머니는 저문 잡으소."

그래가지고, [청중(김순자): 니가 해라.] [일동 웃음] [청중: 아이고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 방구를 얼마나 세게 뀌었는지,

"아버지는 앞문 잡으소. 어머니는 요 문 잡으소." [일동 웃음]

[조사자: 집 넘어 간다 그라고.] 네. 인자 집 날라간다고.

[영도구 설화 184]

저승 갔다 살아난 사람

김순자(여, 1936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신선동 영로경로당]

큰어머니가요. 큰집에 큰어머니가 인제 대기(매우) 아팠어요. 그래갖고 인자 다 돌아가시게 됐는데. 인자 꿈을 꾸는데요. 꿈을 꾸는데, 어떤 저게 하얀 백발 노인이가 강아지 한 마리 주더래요. 그래,

"그거 갖고 인제 이 다리를 건너라."

하더래요. 그래 인제 다리를 이제 그걸 안고. [조사자: 안고?]

그래갖고 그런, 이제 말 엑센트가 좀 내가 좀 달, 다르지요? [조사자: 어어 어어.] 그래가지고 이 탁- 안고 이제 다리를 착착 절반쯤 거진 다 가는데 그냥 탁 넘어졌어요. 그때 팍 그냥 깨났대. [조사자: 정신이 들어 깨어나더라. 아하.] 예예. 그래갖고 살아와갖고 그래 저게 거저리서 돌아가셨어. [청중: 아, 거저리에서.]

[영도구 설화 185]

단칸방에서 몰래 나누는 사랑

김순자(여, 1936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신선동 영로경로당]

자식들도 많고, 자식들도 많고 이러는데 한 방에서 그냥 잔다요. 방이 하나라서. 아들은 아홉인데 그냥, 아들만 아홉을 낳았어요.

그래갖고 차-악 이래 눕어가지고, [청중: 참, 별놈의 소리 다 한다 이제.] [일동 웃음] 저거 엄마는 내 요래 뜨신 데 눕고, 아부지는 제일 뒤에다 누었는데. 이 쫍아갖고요(좁아서요) 애들 마누라한테 한 번 갈라몬 참 곤란하거든요. 그래가 다리를 갖다가 요쪽에, 모두 비게 비고 있는데, 다리를 여 이래갖고 [한 쪽 다리를 비스듬히 들고 기어가는 시늉을 하며] 한쪽으로 이래 실실실실 벗고 가니깐, 이래 [웃음] [조사자: 꼬치가 걸렸던 모냥이지?] 꼬치가 걸리가주고.

"우리 밤이몬, 우리 이마가 아부지 그 길이라."

그랬거든. [일동 웃음] [조사자: 요 뭐 이마가 아부지 지나가는.] 지나가는 길이라고. [조사자: 꼬치 지나가는 길이라고, 밤만 되몬.] 예.

[영도구 설화 186]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김필지(여, 1940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신선동 영로경로당]

지금 생각나는 거는, 애기가 되게(매우) 울어서 아무래도 달게도(달래도) 안 되니까,

"뭐 호랭이가 온다."

캐도 안 듣고 이랑께,

"꽂감(곶감) 주꾸마."

쿤께네, 호랭이가 내러왔다가, '꽂감이 내보다 더 무섭구나' 카면서 도망갔다는 그 소리만 들은, 그거밲에.

[영도구 설화 187]

미륵불을 파괴한 뒤에 생긴 우환

김필지(여, 1940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신선동 영로경로당]

그때 박정희 시대 그래 한 거 아입니까? [청중(송호범): 우리는 그 당시만 해도 별로 신경을 안 씨고 했는데, 아는 데까지 말씀해주이소.] 사실은 모르는데. [청중: 그래도 아는 데까지 말씀하이소.]

그거 뽀수고(부수고) 마이(많이) 그래 할난이(환란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뭐 그래 죽었다는 이런 말도 있고 마 그래. [조사자: 아니 그래 산제당 우에(위에) 뭐, 뭐라고 어디?] 부처님이 큰 기. [청중: 미륵이.] [조사자: 미륵불이.] [청중: 미륵불이 큰 기 있었어요.] 저 다리 건너서 보면 다 보이고 그러이께네.

[조사자: 그런데 거 우째 뿌사졌어?] 거 그때 정부에서 박정희 대통령시대 때 그거로 뭐 없애기 됐는가 그리 됐는 거 같는데예. [조사자: 그라고 뿌수고 난 다음에?] 그라고는 뭐 영도가 뭐 할난도 일나고, 그 한 사람이 뭐 다치고 마 좀 거했다고 그런 소리는 난 거 겉는데, 그 이름 모르겠다. [조사자: 그 미륵불 뿌수고 난 다음에 영도가 좀 안 좋아졌다고?] 만 사람 기도터를. 그 부처님을 없애니깐 좋겠습니까?

[영도구 설화 188]

저승 갔다 살아난 사람

김필지(여, 1940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신선동 영로경로당]

친정 모친이, 지 동생이 저저 올개(올해) 칠십 멫고? 세살 내하고 터불(터울)인께. 고기 다 저저 다섯, 세 살 묵는데, 젖먹이를 나두고 어머이가 열병을 하다가 고만 돌아가싰는데. 열병을 하고 돌아가시몬 초상에 누가 가이 디다 봅니까, 옛날에는. 지금도 글치만은(그렇지마는).

아이 그래가 뭐 집안에도 뭐 안 알리고, 우째 지게꾼 사가지고 초상을 칠라고 이래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인자 뭐 할맘을(할머니를) 염을 하싰는가 봐요. 그때 나는 뭐 일곱 살인가? 일본서 낳아가 일곱 살인게 아무것도 모르지 뭐. 한국말도 모르고. 그렇는데, 막 울어샀건데 따라 울기만 울은 그 기억밲이 지금 없는 기라요. 없는데, 삼일만에 인자 마 입관을 해가지고

염을 해낳은게, 비만 올라 카몬 우리 어머니가 손에 이런 데 멍 자국이 나타나고 그래 그렇대.

그래가 돌아, 인자 막 기물밥까지 해서 내놓고 인자 짐꾼을 사가 나갈라 쿠는데, 막내이 울음소리에 엄마가 깨났어. 삼 일만에. 삼 일만에 깨났는데,

"막 끌리서 가는데, 막 아주 험한 데로 가는데, 막 어띠키(어찌나) 마 재촉을 하고 막 그래가 갔는데, 가가지고 이래 간께 집이 아주 거창하게 있고, 막 책이 앞에 이래 짜다라 있고, 막 옆에서 그거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영화맨치로 그렇더라."

고 그런 얘기를 우리 커서 많이 하대요. 하는데, 거 가서는,

"고만 들어가라."

쿠고, 안 열어 주니깐 겁이 나가지고 빼꼼 디다보고 나오고 빼꼼 디다보고 나오고 이란께, 막 안에서 호령을 하면서 막,

"들어오라."

고 이라대. 그래 들어간께네, 또 마다서(마당에서) 이래 덕석을 패놨는데(펴 놓았는데),

"이래 꿇어 앉으라."

캐서,

"나 아무 죄도 없이 왔는데, 왜 꿇어앉이라 카느냐?"

고. 꿇어앉으라 캐서, 그래 인자 앉았는데,

"그래 이름이 뭐냐고?"

이런게,

"이름이 아무거시라고."

이란게,

"아이고 올 때도 멀었는데, 누가 이래 덱고(데리고) 오느냐고. 씨기(싸게, 재빠르게) 가라고."

막 대문 밖에꺼정 내보내더라대. 그래가 오다가 하도 베 짜는 소리가, 기계, 이래 밍지(명지) 베 짜는 소리가 나싸서 디다보니까(들여다보니까), 죽은 딸이 열일곱 살 먹어 죽은 딸이 거서 일을 하고 있더랍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이래 빼꼼 디다본께, 보고 안에서 마,

"아이고 여 엄마가 어데 올 데라고 왔느냐."

함서, 막 딸이 끄꼬(끌고) 이래 오는데, 자갈이 환한데, 물은 맑고 다리가 이리 하나 있는데, 거 서너 발꺼지 떼두록 딸이 한 데서(바깥에서) 독촉을 하더랍니더.

"빨리 뒤도 돌아보지 마고 가라."

고. 돌아볼라 카다 떨어졌는데 그 질로 깨어났다 쿰서, 곽을 들러 들온(들어온) 사람에 인자 깨나이, 곽이 거하니까, 소리가 나니, 그래 우리 어머이 그래가 갤국(결국) 그때 한 사십도 못

됐든가 그랬다 하던데, 오십 일곱에 돌아가싰어예.

[영도구 설화 189]

욕심이 많은 영도할매

송호범(남, 1938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신선동 영로경로당]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우리가 봉래산이라고 이야기하지예. 그기 일정시대에는 고갈산이라고 이야기, 고갈산 그 언어는 안 좋은 거 아입니까? 그래서 그 '영도의 그 할머니가, 미륵불 할머니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영도를, 영도를 떠나며는 안 좋다. 인자 영도에 살다가 다른 데 나가면은 망한다.' 그런 전설이 있더라고예.

[손님이 와서 제보자가 잠시 응대하는 사이 이야기가 멈춤] [조사자: 아까 우리 어르신 그 영도 할매 이야기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영도에 떠나며는 영도에 살다가 다른 데 이사 가면은 잘 몬(못) 산다, 그런 전설이 있더라고예. 그래 영도, 영도에 한 번 들어온 사람은 종말 전까지 영도에 살아야 부자로 산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예. [웃음]

[영도구 설화 190]

친정 묏자리를 망가뜨린 딸

송호범(남, 1938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신선동 영로경로당]

인자 메느리가(며느리가)[154] 밤중에 아무도 모를 적에 있습니까? 물도오(물동이) 이고 가가지고 물도오, 물바가지로 한 기 아이고 물도오를 이고 가가지고 그래 부었는 기라. 그런께 한 동이 부으니깐 안 되니깐 멫 동이 갖다 부었다고예.

그거 이고 가가지고, 그건께 뭣을 이래 물이 갭히(고여) 있으니까, 이거 못자리(묏자리) 안

154) 이야기의 문맥상 시집을 간 딸이라고 해야 하는데, 제보자는 며느리라고 말했다.

좋다. 고거는 옛날부터 전설이 있더라고. 그런 전설이예.

[영도구 설화 191]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송호범(남, 1938년생) 구술
2019년 1월 24일 채록
[신선동 영로경로당]

옛날에 인제 법적으로, 법이 고래장을(고래장을) 안 시기몬(시키면) 안 되니까, 어머닐(어머니를) 지겔(지게를) 지고 저 먼, 이렇게 산을 쫘-악 가니까, 어데 가몬 어떻게, 어머니가 오면서 그 길에다 솔잎 안 있습니까? 고걸 따가지고 늘 이렇게 뿌맀어예. 오몬 뿌리고, 뿌리고 인자 고려장을,

"어머니 인자 저는 갑니다. 어머이 여기 잘 계시이소."

갈라 쿠이,

"야야, 이 산골에 니가 집을 몬(못) 찾아 갈 끼다. 몬 찾아 갈 끼니 니가 집을 찾아 갈라 쿠몬, 내가 내려오면서 솔잎을 따가지고 어머니, 내가 뿌리났으까, 솔잎을 놓은 데마정 그 길로 찾아가라."

그래서 옛날에 그 부모님은 죽을, 아들이 죽일라고 죽는 날까지 가도, 부모님은 아 자식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기라. 그래서 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 인자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를 차마 고래장을 몬 시기고 도로 지고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인자, 그 고을 원에,

"내가 사실 이래가지고 부모님은 내가 고래장을 시이로 갔는데, 부모님이 죽는 날 그 날까지 집을 몬 찾아갈까 싶어서 이렇게 솔잎을 뿌맀다 해서 어머니를 집을 모시고 왔습니다. 저를 죽이, 저를 죽이주십시오. 우리 어머니를 살리주시고."

그래가지고 상서를 올리니까, 임금이 보시 보고, 아 고려장 이래 된 기 아이고, 그래가 인자 옛날에 고래장이 없어졌다 그어 전설이 있습니다.

[영도구 설화 192]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문말순(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영선1동 동부산아이쥬빌경로당]

그거는 인자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지고 갔다 고래장에(고려장에) 옇어(넣어) 놓고 오니까, 아들이 자기 아들이 따라가가지고 지게를 버리고 오니까,

"아버지, 와 지게를 가져갑시다."

이라이까네,

"왜?"

이라이까네,

"아버지 또 싣고 와야 될 거 아니요. 지고 와야 될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인자 고래장이 없어졌다는 그런 전설이 있대요.

[영도구 설화 193]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문말순(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영선1동 동부산아이쥬빌경로당]

그거도 애기가 마이(많이) 울어서,

"꽂감(곶감) 주께."

호랑이가, 뭐 꽂감을 가지고 온다, 머 이런 설이 있고. 그 자세히는 모르는데. [조사자: 자세히는 모르겠고. 호랑이 온다 해도 울고.] 예예,

"호랑이 온다."

캐도 울고. 호랑이 온다, 호랑이 온다, 꽂감 주께 뭐 거. [조사자: 그러니까 애가 울음을 끄치든가?] 뭐 그렇다 카대예.

[영도구 설화 194]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문말순(여, 1935년생), 이충림(여, 1941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영선1동 동부산아이쥬빌경로당]

[문말순 구술] 아들이 저 뭐 요새겉으몬 출장을 갔다 하든강? 출장을 가면서,

"어머이를 잘 보살피라. 어머니 눈이 멀고 이라이까 니가 잘 보살피라."

이라이까네, 그래 인자 대답을 해가지고 아들이 가고 없었는데, 인자 시어마이가 어짜든간에 봉양 잘한다고, 인자 봉양 잘한다고 그랬는지 어째 그랬는지, 하이 지렁이를 갖다가 줃어다가 해믹있다(해 먹였다), 할머니를. 그라이까네, 그 할머니가 얼굴이 살이 찌고 복실복실하이 좋아지더랍니다. 그래가 안자 이들이 와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좋아졌거든.

"어째서 이래 어머니가 좋아졌느냐?"

이라이까네, 자리 밑에다 한 마리썩 옇어낳더랍니다. 지렁이를 잡수면서 한 마리 옇어놓고 옇어놓고 이래. 그거를 내미면서(내밀면서),

"야야 내가 이거를 메느리가 해줘서 먹고 이리 좋아졌다."

이라이까네, 그래 그 그런 설이 나왔다 이랍디다.

[조사자: 그 아들이 보이카네, 그게 인자 지렁이.] 지렁이. [조사자: 그래 우째 눈을 떳다 그러?]

[이충림 구술] 놀래갖고, 인자 그 보께 거생이(지렁이)인께 놀래갖고,

"아이고 거생이네."

이라니까는, 고만 할머니가 놀래갖고 그래 눈을 벌떡 떴다 하대요. [조사자: 어어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어무이. 그래 자리 밑에 인자 하도 맛있어가지고.] 예. 하도 맛있어갖고 하나썩 하나썩 옇어난 거 빼, '아들 오몬 뵈이야 되겠다' 이라고는 하나썩 메느리 몰래 넣어놨다가 안자 뵈니까는, 아들이,

"아우 이거 거생이다."

고 이라니까는, 그냥 할머니가 깜짝 놀래갖고 눈을 벌떡 떴다.

[영도구 설화 195]

욕심 많은 영도할배와 영도할매

문말순(여, 1935년생), 장경렬(여, 1941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영선1동 동부산아이쥬빌경로당]

[장경렬 구술] 영도 영도할배. [조사자: 영도할매.] 할아부지 할무니. [조사자: 아, 할매도 있고, 할배도 있고?] 예예. 여서 벌아갖고(벌어서)예 저 나가몬 잘 안 된답니다. [조사자: 와 글는고?] 그거는 와 글는고 모리지.]

[문말순 구술] 영도할매 할배가 도와주갖고 그만끔 잘됐는데, 여 벌이갖고 나가몬 안 된다, 이런 설이 있심더(있습니다). [청중: 그런 말이 있대예.] [조사자: 그라이까 여기 영도할매나 할배가 안자 여서 있을 때는 잘 해줐는데 뭐 나가면.] 와 우리 도와줐는데, 잘 돼 놓으니까 와 바껕으로(바깥으로) 나가노. [조사자: 그러이까 영도할매 할배 용심을.] 그래 할배가 용심을 지이가지고 다부(도로) 불러들인다 카는 그런 말도 있고 그렇데요.

[장결렬 구술] 그라고 이 산, 산 안 보이는 데 가몬 된답니다. [조사자: 어, 산 안 보이는 데로.]

[영도구 설화 196]

단칸방에서 몰래 나누는 사랑

강한순(여, 1941년생) 구술
2019년 1월 26일 채록
[영선2동 대원아파트경로당]

단칸방에서 인제 그러이께네 참 그 기회가 없는 기라요. 그러이 내가 이래 약속을 했은께네, 선생님 말씀[155]캉 같에요. 내나 그래,

"내가 거기 저저저 아들이 자는가 이래 보고, 잔다 싶으면은 내가 신호를 보낼 테니까, 내 꼬꼬꼬꼬 하거들랑 꼬꼭 카고 나온나이."

이래 캤거든. 그래 하기로 했다 아입니꺼. 해논께네 그 쪼매(조금) 있으이께네, 아유 한참 자다가 본께네, 저거 아부지가 뜬금없이,

"꼬꼬꼬꼭."

캐샀거든. 그란께네 아들이 고만 잠을 깼어. 그래가 가마이(가만히),

"그 아부지 와 저라노."

카고, 이래 이래 자는 척 하고 있은께네, 아이구 엄마가 쪼매 있다가,

"꼬꼬댁 꼬꼬댁 꼬꼬댁."

해서 나오이, 아이고 고만 아들이 마,

"삐약 삐약 삐약."

155) 조사자가 이야기를 유도하기 위해 대강의 이야기를 해준 것을 두고 제보자가 말한 것이다.

카면서 따라 나가더래. [일동 웃음] 아들이, 그래 한 아들이 '삐약 삐약' 하이께네, 작은 것들 따라갖고 전부 '삐약 삐약' 커이 따라 나오더라 카대.

[영도구 설화 197]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권경순(여, 1929년생) 구술
2019년 1월 26일 채록
[영선2동 대원아파트경로당]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인자 모든 것을 우리가 지배를 받고, 저자(저쪽에서)서 뭣이 오면은 우리가 답변을 해주야 이래 되는 기라. 근데 인자 그 중국에서 인자 오기로,

"어, 당신 나라에서 재를 가지고 새끼를 고아가(꼬아서) 오너라. [조사자: 재를 가지고?] 재를 가(가지고) 새끼를 고아가 오너라."

함서, 그래 인자 아들이 인자 그 고래장(고려장) 할 때가 됐어.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를 갖다 구둘로 파가 밑에다가 놔두고 안 비기로(보이도록) 이랬어요. 그래서 인자 아들이 와가지고,

"와이고 재로 갖고 새끼를 꼬다이, 재로 가 새끼로 꼬다이."

"야야, 무슨 소리로 그렇게 하노? 걱정을 하노?"

"어머이예, 중국 나라에서 재를 가지고 새끼를 꼬아가 오라 카는데, 그 어떻게 해야돼서 그래서 걱정을 합니더."

"야야, 거 걱정할 기 뭐 있노."

"어머이, 어떻게 해야 됩니꺼?."

"야야, 짚을 가져 오너라."

와가지고 인자 새끼를 야무치게 고아가지고 불로 탁 싸가지고 고대로 놓으몬, 새끼가 고대로 재가 채기(채워져서) 꼬아져가 있는 기라. 그리 그거를 가지 가가지고 인자 나라에 바쳤는 기라. 그나께(그러니까) 나라에서 마 놀래서, 온 대신들로 도(동원해도) 해도 재를 가지고 해가 온 사람 안 오는데,

"이 사람은, 이 어떻게 해서 이 재를 갖고 했노? 이거를 안(案)을 갖다 누가 냈노?"

한께, 그래,

"실은 우리 어머니가 칠순이 넘어서 고래장 할 긴데 집에다."

"아! 나가 많으몬 이런 지혜도 있구나."

그때부텀 해제를 했답니다. 고래장 해제를.

[영도구 설화 198]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김정선(여, 1938년생) 구술
2019년 1월 26일 채록
[영선2동 대원아파트경로당]

옛날에 어떤 아가씨가 시집을 와가지고 얼굴이가 창백하이 노래지거든요. 그러이께네 시아버지가 있다가,

"아가, 니 시집 와가지고 왜 그리 무엇이 어째 가지고 그래 얼굴이가 창백하이 노라이 그래 되노?"

카이,

"아버님, 내가 방구를 마음대로 끼다가(뀌다가) 요 와가 방구로 몬(못) 끼가지고 글타(그렇다)."

시아버지가,

"그기 무슨 일이라고! 아가, 마음 놓고 끼라."

이라거든. 그러니까 마 복판에, 집 복판에 마당에 떡 서가 한 자리 푸웅! 끼이까네 마 집이 마 뒤로 마 실렁 넘어가고,

"아이고, 이 큰일났다 이거."

"아이구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바로 하끼요."

카디마는,

"우째 하몬 되노? 바로 해라."

카이, 뒤에 가가지고 한 자리 푸웅! 끼이까네 마 집이 마 딱 본대대로 서뿌더라 하대요. 그래 그 말은 옛날부터 들었어요.

[영도구 설화 199]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정선(여, 1938년생) 구술
2019년 1월 26일 채록
[영선2동 대원아파트경로당]

고래장(고려장) 하러 가도 부모는 부모니까. 나는 이미 고래장(고려장) 해가 가는데, 자석이 온 길로 몬(못) 찾아 가까(갈까) 봐 올라가맨서러 엄마가 뒤에서 나무에다가 전부 다 이래 끈을 이래 묶아(묶어) 놓는 기라. 요걸 돌아올 때 길을 찾아가라고.

그래 자기는 이미 고래장을 하러 가는데, 우리 아들이 내 고래장 시기러(시키려고) 가다가 돌아가맨시(돌아가면서) 가던 길로 몬 찾을 기니까, 그래 요래, 오래 빨간 댕기로 나무마다가 매번 올라가면시러 걸어놓더라 카대. 그래 아들이 엄마 고래장을 시기고 내려오면시러, 그거 보라고, 보고 찾아가 집을 내러갔다 카대. 그래께, 부모는 부모고.

[영도구 설화 200]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김정선(여, 1938년생) 구술
2019년 1월 26일 채록
[영선2동 대원아파트경로당]

돈이 없어 가난해가 생선을 몬(못) 사주고, 생선 살 돈이 없어 생선을 몬 사주고, 메느리(며느리)가 항상 나와가 지렁이로 파가 와가지고 꿉아가지고(구워서) 할매로 디리이까네(드리니까), 할매가 어-찌 얼굴도 좋고 살이 찌고 좋더랍니다. 그래 모두 이웃 사람들이,

"아이고, 저 집에는 메늘 와가지고 우째서 저래 메늘, [말을 바꾸어] 시아마시가(시어머니가) 얼굴도 저래 좋아지고 복시랍으지(복스럽지)."

카이께, 그래 낸중에 알고 보이께네,

"사실은 생선을 사 드릴라 카이 돈은 없고, 그래 이 지렁이를 꿉아드린께네 우리 어머이가 잘 자시고, 그래 저 얼굴이 좋다."

캐. 그래 카더라 하대요. 그래 놔노이(놓으니) 동네서 상 받았다 카대.

[영도구 설화 201]

며느리 방귀는 복 방귀

김창자(여, 1944년생) 구술
2019년 1월 26일 채록
[영선2동 대원아파트경로당]

메느리(며느리)가 방구(방귀)를 하도 끼사서(뀌어서) 친정을 보냈는데, 가다게(가다가) 대서(힘들어서) 인자 서로 방구 잘 끼기(뀌기), '배따기' 했는데, 그래 방구 끼가 배가 뚜루룩 떨어져버렸어. [조사자: 아, 그 그것도 유명한 이야긴데.] 그래가지고 소를 타가 오이께네,

"우리 메느리 방구 복 방구."

라 카더란다. [일동 웃음]

[영도구 설화 202]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김창자(여, 1944년생) 구술
2019년 1월 26일 채록
[영선2동 대원아파트경로당]

내나 메느리(며느리)가 하루 눈 먼 할매가 이래 있는데, 아들은 과거(科擧) 어데로 가고. 그래갖고 인자 하도 뭐 맛있어가지고, 할매가 또 너무 맛있고 이래갖고, 고걸 한 마리썩 자리 밑에 감촸는, 말랐는 기라. 하도 맛있어, 얼굴도 좋고 맛있어갖고.

"야야, 내가 저거 뭐, 마누래 해주는 거 이기 뭔지 모르는데, 이거 먹고 내가 이제 이렇기 좋고 맛있어갖고 요오(여기) 넣어놨다."

카께, 그래 아들 오디이, 그 지렁이 말란 거, 지렁이더란다. 나 그래 들었다 또.

[조사자: 그래 그래. 그러이카네 지렁이이카(지렁이니까) 눈은 어째 떴는고?] [청중: 눈이 파딱 떴지.] 눈이 그래 건강하이 놀래가지고. [조사자: 아아, 지렁이라 카이.] 아들이 와가,

"엄마, 이거 지렁이다."

카께, 그 질로 눈을 탁 떴어예. [웃음] 그 자리 밑에 하도 맛있어가 아들 오몬 보이준다고 하나썩 인제 감촤 자리 밑에 말라가 있어가지고. 아들이 오몬 앤다(알려준다) 아입니꺼? 지렁이가. 그러께네. [청중: 눈을 떴다 하대.] [조사자: 맞어. 맞어.]

[영도구 설화 203]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창자(여, 1944년생) 구술
2019년 1월 26일 채록

[영선2동 대원아파트경로당]

아들이 저게 고래장(고려장) 하께더이 먹을 양식은 없고, 갖다 버리던 데, 산에 가이, 지고 갔는데, 요 할매가 가마이 끈을 갖다 요래, 요래 맺는데, 그래가 산에 가가 얹어노이께네, 아들 [말을 바꾸어] 손자가 따라갔는 거라.

"우리 버리고 가자."

카이께네,

"아부지, 난쟁에(나중에) 나도 이랄 겁니다."

카더라. [웃으며] 고거 끝이라.

[조사자: 아아. 지게.] 지게. 할매 버리끼네,

"난도 낸중에 아부지 여어 갖다 버린다."

이래. 그래 다부(도로) 지고 왔대요.

[영도구 설화 204]

제삿밥을 못 먹은 혼령

김창자(여, 1944년생) 구술
2019년 1월 26일 채록
[영선2동 대원아파트경로당]

제삿밥, 그 시간 안 돼가 지내뿌고 다 치아뿌끼네(치워버리니까), 친구들 한-거(많이) 산에서 덱고(데리고), 저 하늘에 덱고 오이끼네, 제사라 해도 밥도 없고 친구도 하고 뭐 어째 카는 그거빽에 못 들었는데.

[조사자: 그래 못 얻어묵고 다.] 예. 모(못) 얻어묵고 여 와가 그렇지. 그 사람, 고까지빽에 모른대. [조사자: 모르고. 어어.] 그 뒤에 따라하겠지 뭐.

[영도구 설화 205]

구렁이를 물리치고 처녀를 구한 박문수

김창자(여, 1944년생) 구술
2019년 1월 26일 채록

[영선2동 대원아파트경로당]

[조사자: 옛날에, 바닷가 쪽이 되어가지고 처녀를 한 명씩 바치야 돼.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이래 움막은 쳐져가 있는데, 매년 처녀를 한 명씩 바쳐야 되는데, 이거 인자.]

제주도 이야기다. [조사자: 그런가? 그 들은 이야기, 그 어머이 이야기 들은 대로 말씀하이소.]

자체히(자세히) 모르는데, 그래가 바우, 일년에 하나썩 바쳐야 되는데, 과거 보는데 무슨 그거 뭐고 암행어사가 내러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변장을 해가지고 드가가지고, 그래,

"색시는 인제 가지 마라."

카고, 자기가 변장해가지고 있는데, 그도 뭐가 구렁인가 그 뭐가 큰 기가 와가지고 잡아머얼라(잡아먹으려고) 입 벌리께네, 박문수가 뭐어 배에 드가갖고 칼로 찔러 죽있다. 이 소리까지 들었다.

[영도구 설화 206]

뱀과 지네에게 처녀를 바친 제주도

김창자(여, 1944년생) 구술
2019년 1월 26일 채록
[영선2동 대원아파트경로당]

몰라 제주도에는 일년에 하나썩 바쳤다 하대요. 옛날에는. 뱀이 많고 이래 놔노이. 지네하고. 지네 원체 제주도서 나거든예. 그래 놔노이, 뱀도 그 섬에, 무슨 섬에 거 가몬 전부 뱀이라 하대.

[조사자: 제주도 이야기 첨부터 다시 해보이소. 옛날에 제주도.] 나 고거빾에 모르는데.

[조사자: 아니 그래 제주도에는 뭐 어떻게 일년에?] 지네 많고, 뱀도 많고, 무슨 섬엔가 거는 가몬 전부 뱀이라 하대. 지금도 많다 하더라. [조사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일년에 한 번씩.] 그거는 큰 용이, 뭐 내나 이무긴갑다. 이무기 첨 나타나가지고,

"내가 오늘 저녁은 내가 지킬 챔이(참이니)."

처녀는 인제 나놓고(놓아두고). 그래가지 고 처녀 그거 이무기가 와가 지키고 낸중(나중) 거 해노이까, 그래갖고 자기하고 싸워갖고 뭐 이겼다 하대. 그 소리라. [조사자: 아까 박문수라 안 그랬나?] 이무기 그거 안자 뱀이 이무기고. 이무기. [조사자: 아, 뱀이 이무기고.] 예. [조사자: 그래, 박문수가 안자 변장을 해가지고, 여자를 변장해서.] 처녀 그라고. 그로부터 그 동네는 인제 안 나타났지. 잡았인께.

이게 본디 옛날에는 하나썩 바쳤다 카대. 섬이래가 뱀도 많고, 지네도. 지네는 지금 집을 지이 그렇지, 옛날에 제주도밲에 지네 없어예. 지네 일년 되몬 마이(많이) 잡아오거든예. 돌만 들시몬(들추면) 지네 있답니다.

[영도구 설화 207]

단칸방에서 몰래 나누는 사랑

김창자(여, 1944년생) 구술
2019년 1월 26일 채록
[영선2동 대원아파트경로당]

진짜 아들이, 옛날에 어른들 저게 엄마 아버지만 해도,

"엄마 배 우에 올라갔는데 와 그래 있나?"

카이,

"너 엄마 배가 아파갖고 그래 올라갔다. [일동 웃음] 너 엄마 배 아프가지 그러겠다."

그거는 우리 조카 아들이 그랬어. 집안, 먼 집안 아들. 할매 동네 심심하다고, 아들 보몬 저게,

"엄마 아부지 어떻게 자더나?"

카이께네, 그래 엄마하고 배 우에 올라가 있는데,

"와 그래가 있노?"

카이께네,

"엄마가 배가 아파가지고 내가 배 뜨사준다(따뜻하게 해준다)." [일동 웃음]

진짜 아들 그랬어. [조사자: 아들 눈에 그래 비지(보이지) 뭐.] 옛날에 우리 먼 조카가 그랬어. [조사자: 자꾸 밑에서 아프다 카이께 그랬어.] [일동 웃음] 그러께, 와 그래 있노 싶어가지고, 엄마 배 아프다 캐가지고 그래가 있다. 할매도 심심하몬 아들이 할 일 없이 덱고(데리고) 인제 마을에 놀러 가거든예. 그라몬 심심하몬 할매들이,

"너 엄마 아빠 어떻게 자더노?"

카모, 그래 인자 아들이 그래.

[영도구 설화 208]

시어머니를 미워한 부인을 고친 남편

김창자(여, 1944년생) 구술
2019년 1월 26일 채록
[영선2동 대원아파트경로당]

시어마이 팔아묵은 거, 밤 묵게 했는 거 하나만 해주까? [조사자: 아, 예. 해주이소.]

메느리(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사는데, 하도 메느리하고 저게 사이가 안 좋아. 할마이 빼짝 말라가 있는데, 팔러 갔는 기라. 지게 지고 팔러 가이께네, 그래가 하도 말라가, 저 아들이 지혜가 좋아가지고, 집에 와가 마누래한테,

"하도 말라가지고 살을 찌아야(찌워야) 사겠다."

카이,

"살 사람이 없다."

캐노이, 그래가 이 메느리가 그때부터 밤을 막 믹있는, 밤 살찌는 기거든예. 그래 낸중에 팔러 가이께네, 암 저게 일을 팔러 가이께네 일을 잘 하거든. 힘이 좋으이께네. 아(아이) 봐주고, 살림 잘 살고 이러노이,

"아이고, 우리 시엄마 인제는 안 팔란다."

카더라. [웃음]

[영도구 설화 209]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무연(여, 1930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영선2동 영선2동경로당]

지게 지고 자기 아부지로 그래 갖다가 안자 고래장(고려장)하고, 지게를 내삐리고 가니까네, 손자가 따라갔는데,

"아부지, 지게를 와 버리고 갑니까? 가주(가져) 가야 내가 다음에 아부지를 짊어지고 오서(와서) 고래장을 하지요."

카이, 그때 그렇게 나오대요. 그래 듣고, 그 외에는 몬(못) 들어봤어.

[영도구 설화 210]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이정순(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영선2동 영선2동경로당]

[조사자: 옛날에 시집을 갔는데, 하-도 못 살아가지고 갱피(강피)로 훑어가지고 널어나 놓고 그래 묵고 살고 이래 하는데, 하루는 인자 비가 올 듯 하이께네, 영감보고 비 오몬 저 갱피라도 좀 훑어 늘어놓은 거 훑어라고,[156] 그래 이야기 하는데, 이 영감쟁이는 마 공부만 하는 기라요.]

공부만 만날, [청중: 그 소리는 들었다.] 그 소리는 들었다. [조사자: 그래 그 이야기 어짜는공?] 거는 어짜는공 모르겠십니더. [조사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과거 급제해가 그 사람 했는가? 공부만 해서.] [청중: 공부만 하고 급제했다 그 소리는 못 들었어예.] 장원급제 한다고 가인께네, 여자도, 공부만 한다고 이혼했부고. 갔는데, 그래 인자 과게로(과거를) 해갖고 덜렁덜렁 인제 그거 말 타고 오이께네, 여자가 여전히 곰피 그거로 [조사자: 갱피를.] 갱피로 훑더란다.

"그래, 저기 있는 저 마누래야, 내 마다고 가디마는 거 가서도 곰피 그거 훑나."
이라대. [조사자: 갱피 훑네.] 어. 그래 그 소리는 들었어.

[영도구 설화 211]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이정순(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영선2동 영선2동경로당]

어떤 사람이 술을 대기(매우 많이) 묵고(먹고) 어데 갔다 오는데, 도깨비가 참 나와서, 나와 갖고 막 둘이 막 씨름을 하다가 하다가 안 돼서, 이거로 나무에다 탁 집어떤지(집어던져) 놓고 칼로 빼갖고 딱 꼽아놓고 왔는데, 그 뒷날 아침에 가인께 빗자루 몽댕이(몽둥이)더라.

그래 빗자루 몽댕이로, 와 그렇나 하몬, 여자들 맨스(월경) 있을 때, 거 앉으몬 그기 도깨비 된다더라.

156) '걷으라고'라고 해야 할 말을 실수로 잘못 말함.

[영도구 설화 212]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이정순(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영선2동 영선2동경로당]

어찌 들었노 하모요, 그래 메느리(며느리)가 상이 만날 노-래서 시아바시(시아버지),
"야야, 니는 얼굴이가 와 만날 그래 노라노?"
하이께, 아버님 카든가, 뭔님 하든가.
"그래 방구를 몬(못) 끼서(뀌어서)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가,
"그라몬 뀌라. 뀌야지, 사람이 노라이해가 어째 사노."
이러대. 그래 끼인께 뭐 집이 다 넘어가고 참 그라더란다.
"어머님은 뚜껑 잡으이소,"
카고,
"아버님은 지동(기둥) 잡으라."
카고. [청중: 옛날.] [조사자: 옛날얘기다 그제.] [청중: 옛날얘기.]

[영도구 설화 213]

여우가 된 딸

이정순(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영선2동 영선2동경로당]

어느 고을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이구 뭐라 카더라, 뭐 어째갖고, 그것도 옳기 모르겠다. 그랬는데, 하룻밤 자고나만 개가 없어지고, 하룻밤 자몬 뭣이 없이, 저녁마다 없어져. 그런께 저거 친정에서, 누가 엄마하고 아부지하고 오더라. 오이께,
"엄마 한 때 말 한 때. 엄마 한 때 말 한 때."
이러더라. 말 한 때 묵고, 엄마 한 때 묵고 그란다고.
"엄마 한 때 말 한 때. 엄마 한 때 말 한 때."

이러더랍니더. 그래 거기 그 소리라. [조사자: 그 소리라. 그래 다 자아묵고(잡아먹고).] 다 자아묵고. [조사자: 다 자아묵고.] 엄마도 자아묵고, 오빠도 자아묵고.

"오빠 한 때, [말을 바꾸어] 엄마 한 때 오빠 한 때. 엄마 한 때 오빠 한 때."

[영도구 설화 214]

제삿밥을 못 먹은 혼령

이정순(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영선2동 영선2동경로당]

제사를 지내는데, 열한 시 넘어가 열두 시 다 돼서 지내야 되는데, 이 사람 초저녁에 지냈어. 그 집에 제사를 지내고, 그 아침에 일나갖고 아가 소죽 낋인다고(끓인다고) 거(그곳에) 있는데, 소죽 낋이싸. 소죽은 펄펄 끓어쌌는데, 우연히 막 가마솥에 디뿠어(데어버렸어), 아가. 그래 그래노이 그 얘기가 낳는가베.

[조사자가 소금장사가 어느 날 저녁에 무덤 위에서 자다가, 혼령이 제삿날 제삿밥을 먹으러 갔다가 제사를 너무 일찍 지내는 바람에 제삿밥을 먹지 못해서 화풀이로 그 집 손자를 불에 데게 했다는 이야기를 한 후에]

소금장시 이라더라. 소금장시가 밤에 가다가 늦이갖고(늦어서), 뫼가 쌍뫼가 요래 있는데, 그래,

"영감, 영감. 제사 안 갈라요?"

카면서,

"그래 안 가몬 내 혼차(혼자) 가끼요(갈게요)."

카이,

"그래 같이 가자."

이라는데, 그래 영감 몬(못) 가고 할마이만 갔어. 갔는데 그래 인자 제사로 일찍 지냈어. 일찍 지냈부고 나이 제삿밥 몬 얻어 뭈지요. 제삿밥 몬 얻어 묵고 왔는데, 그래 또 새복(새벽)된께 인제 그런 얘기 하더라. 새복에 와갖고,

"에이, 제삿밥도 몬 뭈다. 밥에는 구리이(구렁이)가 들었고, [말을 바꾸어] 밥에는 방구(바위)가 들었고, 나물에는 구리이가 들었고, 그래서 밥을 몬 무서(먹어서) 그래 나오다가 마 아로 소죽 솥에 밀어뿠다."

그래 뭐,

"아이구, 이 사람아. 그래가 되나?"
카민서 영감이. 그래,
"무슨 약을 해야 되는데, 그거로 저거가 할 중을(줄을) 아는가? 어짜는고?"
이래 걱정을 하더랍니다. 그 소리는 대강 들어. 쪼깬 헐(조그만 할) 때 들어노이 모르겠다.
[조사자: 그래 그거 소금장사가 안자 내려가보이 어떻든공?] 그래 내러가인께, 그 참 제사 지냈다고 막 사람들이 웍(부엌)에 우글우글 하고 이웃사람 불러가 묵고 이라는데, 아주 대갓집이더라 그래. 그래가지고 저 소금장시 그런 얘길 했어.
"주인장이, 주인장이 누구야."
카이께,
"그래 있다."
그라더라. 그래,
"주인장, 뭐 무슨 나무를 뭐 어째갖고 삶아갖고 바르만(바르면) 금, 직시로(즉시로) 낫는다. 그래 한 먼(번) 해보소."
이라더라. 그래 그 말 듣고 그 나무를 해갖고 하이 참 아가 직시로 낫더랍니더.

[영도구 설화 215]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이정순(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영선2동 영선2동경로당]

그 옛날에 과게(과거)하러 갔는데, 인자 물(먹을) 것도 없고, 나만은(나이 많은) 할머니가 봉사라. 봉산데, 마 밥을 해주몬 밥만 뚝 자시고 이래서,
"아이고, 내 갔다 오거들랑 우리 엄마 잘 모시라."
카며 갔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가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호메이를 갖고 지렁이로 파갖고, 지름에(기름에) 덖어가 낋이몬(끓이면) 보할거든. 그래 국물 주몬,
"야야, 이기 무슨 국인데 이래 맛있노."
하민서, 그 한 마리 껀지가(건져서) 자리 밑에 딱 옇고(넣고), 그래 먹고. 그래 나중에 저거 아들이 와갖고,
"그래 엄마를 뭘 자시서(잡수셔서) 이렇기 좋소? 얼굴이가."

"그래 야야, 저 아기가 만날 때마당 국을 그래 맛있구로 낋이가 갖다 준다."

그래갖고 자리 밑에 들치갖고(들추어서) 그 지렁이 그거 주더란다. 그런 소리는 들었어.

[조사자: 그래이 눈을 떴는가?] 예? 그래갖고 엄마가 인제 그란께, 그때 인제 엄마가 눈을 퍼뜩 떴답니다. 아이구 지렁이라 카이. [청중: 놀래가지고 그래.]

[영도구 설화 216]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이정순(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영선2동 영선2동경로당]

애기가 하도 밤새도록 울어싸서, 하도 달개도 암만 달개도 울어싸.

"뭐 주까."

해도 울고.

"뭐 주까."

해도 울고. 오만 걸 다 주까 해도 다 우는데,

"아히구 저 꽂감, 꽂감 온다. 꽂감재이! 꽂감(곶감) 주까."

이란께, 그래 아가 덜컥 그치더랍니다. 그라이께네 호랭이가 밖에 와가 있다가,

"아이구, 내보다 더 겁나는 기 있구나."

하매 막 도망가더랍니다.

[영도구 설화 217]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손재옥(여,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26일 채록
[영선2동 영선반도경로당]

시아부지(시아버지) 밥상을 가이(가지고) 가맨서(가면서), 아가, 메느리(며느리)가 얼굴이가 노랑께,

"아가야, 얼굴이가 왜 그렇게 노르나(노랗느냐)?"
이래.
"방구(방귀)를 못 끼가지고(뀌어서) 그래 노리다(노랗다)."
한께,
"그라만 한 번 시기(세게) 끼 보라."
한께, 막 저저 지동(기둥) 저걸 붙잡고 상지동(상기둥) 옛날에 있잖아요 마리에(마루에). 그걸 붙잡고 막 집한테 온 정신에, 시아부지고 시엄마이고,
"지둥 다 붙잡아라."
캐놓고, 인제 방구를 가서 시작을 해가이 낀께, 온 집이 지동에 헐러당헐러당 집이 날라갈 것 같이 그렇게 민이가(며느리가) 끼더라요.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병이, 그 얼굴이가 화색이 변해가이고 그래서 본색으로 돌아왔다 카대.
그런 말이 있대예. 옛날에.

[영도구 설화 218]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손재옥(여,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26일 채록
[영선2동 영선반도경로당]

옛날에 인제 저 그 하도 인제 저 어마이를, 인제 옛날에 연세가 많으몬 고래장(고려장)한 낀게(것이니까), 지게를 져가이고, 저 고래장한다 짊어지고 인제 어마이를 지고 간께, 그 아들의 아들이, [조사자: 손지지, 말하자몬.] 예. 그래 인제,
"아부지, 할매를 지게 지고 가는 걸 따라 가보인께, 그래 왜 할무이를 지게 가나?"
한께,
"연세가 많으만 인제 그래 고래장을 한다."
인제 이렇게 해가고. 갔다가 갔다 인제 고래장 해놓고 인제 빈 지게만 지고 오더라. 져 올라 칸께, 이 올라 칸께, 손자가 있다가 그 지게를 내비리고 아바이가, 아들이, 저거 아부지가 올라 칸께, 아들이, 그 사람한테는 아들이제. 아들이,
"아부지, 저 지게를 가주 가야지, 왜 기양(그냥) 갈랍니까?"
이런께,
"그 지게 인자 할머니를 갖다 모싰는데 뭐 주워갈 필요 없다."

이런께,

"내주(나중에) 내가 아부지를 또 걸머지고 또 거 갖다가 모시야 된께 지게를 가(가져) 가이(가야) 됩니다."

인자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옛날에. 그렇게 해가이 인제 내주 안되서러(안되어서) 고래 장이라 카던 걸 없애 치았다 카대요.

[영도구 설화 219]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손재옥(여,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26일 채록
[영선2동 영선반도경로당]

아기가 인자 많이 울어쌓고, 하도 무슨 소리 해도 안 달개진께(달래지니까),

"꼿감(곶감)을 주까?"

물은께, 저저 아가 떨꺽 그치더랍니다. 울음을. 그런께 인제 그 꼿감, 호랭이가 꼿감보고 제일 무서운 걸 아는 거 같더라고.

[조사자: 그래 도망갔나?] [청중: 그래가 호랑이가 도망갔다. 그자?] 어, 그래가이고 여 인자 꼿감만 주만(주면) 아가, 호랭이 꼿감 물고 온다 카몬 아가 울음을 떨꺽떨꺽 그친다 하대요 그래. 꼿감을 주만. 그래, 꼿감이 그래. [웃음]

[영도구 설화 220]

도깨비에게 홀린 사람

손재옥(여,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26일 채록
[영선2동 영선반도경로당]

옛날에는 우리는 고향이 골짜기거든요. 그런께 시가가 골짜긴데, 그 시장을 이래, 옛날엔 촌길이 막 소 방아 절루 논두렁길이거든. 그래 인제 술을 잔뜩 장에 갔다 오매 먹고 이래 오다가 비틀거리고 막 술이 취해가 오다 보만, 그 들밤에 그 골짝에 도랑이 봇도랑인데 막 풀

섶이 막 우거가(우거져) 있어요. 그만(그곳에만) 왔다 카만, 막 까시장(가시덤불) 덤불로 막 이런 데로 끌고 댕긴대요. [조사자: 도깨비가?] 예, 도깨비가. 그 눈에 도깨비가 그래 비인대(보인대). 도깨비가 막 끌고 댕기매,

"저리 가자."

카몬, 가보몬 까시장 나무 밑에고, 또 저 가만, 물 거,

"다리 걷어라."

캤다 보몬 물 건너야 되고. 오만데(온갖 곳에) 끌리(끌려서) 돌아댕기다, 돌아댕기다 날이 새가 집에 오만요 그거 아무것도 없고, 그거 헛 도깨비 그것만 그래가 나타나더라 카대.

[조사자: 도깨비한테 홀린 이야기다.] 야. 그거 도깨비한테 홀리가 밤새도록 술이 취핸께. 허깨비 가이고. 그래 끌리 돌아댕기다 집에 날만 새만 인자 들온다. 그러몬 인제 술이 깨지몬 인자 괜않은(괜찮은) 모양이다 그래. 우리 그 골짜긴 그래 마이(많이) 그랬어, 옛날에.

[영도구 설화 221]

제삿밥을 못 먹은 혼령

손재옥(여,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26일 채록
[영선2동 영선반도경로당]

제삿날 제삿밥을 먹으러 가이께, 막 지 저저 아들 메느리가(며느리가) 막 싸우고 난동을 직이더라요, 가인께.

제삿날. 대개 제삿날은 하이튼(여하튼) 큰소리로 못 내구로 하잖아. 시방도. 막 싸우고 그래서, 하도 마 속이 상해가이고 제삿밥인지 뭔지 고마 먹도 안 하고 마, 그래 돌아왔다 카는 그런 전설이 있대요. [청중: 그래 제삿날은 조용하이 해야.]

[영도구 설화 222]

체에 밀가루를 쳐서 조상의 환생을 알기

손재옥(여,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26일 채록
[영선2동 영선반도경로당]

옛날에는 부모가 죽든지 자식이 죽든지 이래몬, 그 혼인을(혼령을) 보구시면은(보고싶으면) 제삿날 그 가루를 여렇게 갖다 요래 체에다 해놓고, 치(체)로 가지고 여래여래 여렇게 쳐놓고 제사지내고 간 뒤에 보몬 고 발자구가(발자국이) 있, 있다요.

고 발자국 보만 새가 됐으만, 죽어서 새가 됐으면은 새 발자구 있고. 예, 고렇게 인지 짐승 발자구가 딱딱 고래 있답니다. 고거 보고, '아 우리 부모가 뭐가 돼 갔다. 뭐가 돼 갔다.' 그래 전설이 있대요.

[영도구 설화 223]

저승에 갔다 살아난 사람

안정순(여,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26일 채록
[영선2동 영선반도경로당]

저게 죽었는데, 저승을 가이께네,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은께, 가서 나중에 온나."

그면서 강아지를 한 바리(마리) 주더래요. 그래 외나무 다리 건너오다가 강아지가 빠트맀다 카대. 그래도 살았다. [조사자: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예. [청중: 그래 깼습니다.]

[영도구 설화 224]

제사떡을 먼저 먹다 혼난 손자

안정순(여,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26일 채록
[영선2동 영선반도경로당]

우리 시부모가 돌아가싰는데, 제사를 지냈는데, 인제 떡을 이래 이래 채리났어(차려놓았어).

그런데 고 인자 증손자지. 손자가 쪼마난(조그만 한) 기 서너 살 먹은 기 쫓아 개어 논(놓은) 걸 하나 뺐어. 실제로 그랬거든. 하나 빼가지고 저 할바이 입에다 갖다 옇어께로 각중(갑자기) 아가 아파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입에 드간 할배가,

"엄마, 그 철 모르고 그러이께네 좀 용서하라."

고, 그래 비께(비니까) 괜찮더래(괜찮더래). 실제로 그거 실제로요. 큰집에.

[조사자: 아, 애는 모르고 음식을 빼이카네.] 그러께 귀신 없다 소리를 못해.

[영도구 설화 225]

길을 안내해준 호랑이

안정순(여,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26일 채록
[영선2동 영선반도경로당]

나는 실제로 겪은 기 있어. 옛날에 우리 저 경북이거든, 고향이. [조사자: 경북 어데?] 예천군 용문면. [조사자: 아 예천. 경북 예천.] 그래 그 금당마찔(금당마을)[157]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우리 삼촌이 거(거기) 살아. 거 사는데 그 가이께 우리 할머니가 거 가 계신대, 친정에. 할머니가 마이, 돌아가싰어. 그래가주고 날 막,

"니가 말은(무엇할려고) 엄마 아부지가 와야 돼지."

고마 지키대(지키다가), 그래가지고 부애가(부화가) 나 왔부맀어(와버렸어). 어둑어둑한데 오는데, 물을 건네가지고 이제 고향에 다 와가는데, 큰 그기 있어. 저게 거 공동묘지가 있어. 그래 비가 부실부실 오고 그 길 아이몬(아니면) 안 댕기봐가지고 몰라. 그래 걸어오는데, 산길을 오는데 훤한 기 비가 부실부실 오고 미(묘)가 다 보이는 기라. [청중: 그런데 우째 왔노?] 그래도 무서운 것도 몰랐어. 그래가지고 딱 내려서 신작로 내리서이께네(내려서니까), 그 동네 개가 짖은께, 고마 앞이 하나도 안 보이대. 그거는 완전히 홀킨(홀린) 기라.

뭐 호랭이가 도아줬어(도와줬어). 거 가지고 한 개도 길이 안 보이 고만에. 그래가 한참 있다가 신작로 뭐 환한데도, 신작로는 훤하찮아. 그래도 안 보이. 그래 한참 막 정신을 채리가지고 그래 억지로 그걸, 집엘 왔어. 그런 걸 겪었어. 홀킸어. [조사자: 중간에 어데 구신(귀신)이 좀 뭐뭐 홀킷….] 구신 홀킨 게 아이고, 그거는 호랑이가 도와죴어. [조사자: 아- 도와주. 호랑이가 도와줬어?] 도와죴어. [청중: 호랑이가 산신이거든.] [조사자: 산신이다.] 도와죴어. 그래, 공동묘지 그 길을 오는데, 길도 요래 쫍은데(좁은데), 길도 다 보이고 비도 부실부실 내리는데 미가 다 보이오. [조사자: 아, 호랑이가 불을 켜가 인자 길을 가도록 도와줬네.] 예, 하얘요.

그래가지고 딱 내려서 신작로를 내리서이께네 개가 막 짖더라고. 그래이 고만 마 앞이 안 보여 마. 캄캄해. [청중: 그때는, 그때는 떨어져 가뻐맀어.] 캄캄하더라고 갑자기. [조사자: 옛

157)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에 있는 '금당실마을'을 말한다.

날에는 호랑이보고 산신이라 안 하는교.] [청중: 지금도 산신이라 하지.] 거기 지금도. [조사자: 그래 그 효도하는 사람은 호랑이가 그래 도와준다 그라대.] 몰라 어예 됐는가 모르고. [조사자: 효도를 잘 했는갑다.] 효도 안 것도 뭐, 그때 뭐 인제. [조사자: 착한 일을 하몬 도와준다.] 그때 뭐 아홉 살인가 그래요. [청중: 호랑이 그림 붙이놓고 산신당이거든 거기.] 아, 나이도 쪼매, 아홉 살인가 그랬어. 그런데 걸어오다가, 직히께네(지키니까) 뭐러한께(나무라니까) [청중: 그 어째 왔시까?] 삐끼가지고(삐쳐서. 토라져서), 그래 사뭇 걸어가지고 그래 왔어.

[영도구 설화 226]

객귀 물리는 이야기

안정순(여, 1934년생), 윤갑술(여, 1938년생) 구술
2019년 1월 26일 채록
[영선2동 영선반도경로당]

[안정순 구술]
밥을 타가지고 칼을 여다지 꽂아가지고, 칼로 가지고 막,
"허세!"
해싸미(하면서) 막 칼로 가이고,
"대바아(대번에) 막 썩 안 물러나가몬. 칼로 배질치기[158] 직인다."
카매, 그렇기 막 물리잖아.

[윤갑술 구술]
나도 물리는데, 시부모가 한날 촌에 큰집에 갔더니 시부모가,
"하이고, 객구거네(객귀 같네). 자네 객구 물릴 줄 아는가?"
이러더라고.
"그 물리면 되지요."
그래 물 한 바가치 받아,
"그래 해보게, 해보게."
그래 물을 떠 가져 가서, 그래 칼 가지고 머리맡에 [칼로 머리를 살짝 가르면서] 이래이래 하면서,

158) 배를 치기. 또는 배를 가르기.

"객구야, 들어봐라. 안 나가몬 칼로 베줄 기로고(것이라고)."
이러고,
"무쇠 가매를(가마를) 덮어씨서 엄(가시?) 난 말뚝을 쳐서 오도가도 못 하구로 한다. 오도가도 못 하구로 한다. 썩 나가거라."
이카이케네,
"음 그래 그걸 할 줄 아는고."
이카잖애(이렇게 하잖아). 그거 어른들한테 들은 소리지요 뭐.

[영도구 설화 227]

며느리 흉보는 시어머니

윤갑술(여, 1938년생) 구술
2019년 1월 26일 채록
[영선2동 영선반도경로당]

메느리(며느리) 숭(흉) 볼 기, 흠 잡을 기 없은께, 우리 메느리 발뒤꿈치 달걀겉다고 이런다고. [조사자: 발뒤꿈치가 달걀같다고.] 달걀같다고 그 말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조사자: 메느리 흠 잡는 이야긴가?] 그기 흠 잡는 기지.

흠 잡을 일이 없으니까. 그기라도 잡는 거야. [조사자 : 아, 메누리 뒤꿈치가 달걀같다고.] [조사자 웃음] 우리 메느리는 발뒤꿈치가 달걀겉이 생깄다고 그라더래. [조사자: 달걀겉이 생기몬 예쁜 거 아이가.] 그 예뿐긴가 마. [청중: 뒤꿈치가 동글동글하몬 걸음도 못 걷고 그게 숭(흉)이지. 큰 숭이지, 옛날에는.] [조사자: 아, 옛날에는.] [청중: 넓어야지 잘 걷지. 그런께 그래 흉이라, 흉. 그래서 이래.]

[영도구 설화 228]

세상에서 제일 좋은 새

윤갑술(여, 1938년생) 구술
2019년 1월 26일 채록
[영선2동 영선반도경로당]

메느리(며느리) 멫(몇)이 봤는데, 메느리를 딱 데리(데려서) 놓고,

"새 중에 무슨 새가 제일 좋노?"

이런께, 거 메느리는 거 시아바시 말씀 따라서 이야기라 카는 기, 말이라 카는 기, 마 무신(무슨) 새가, 아 [말을 바꾸어] 뭐꼬, 그 새 이름을 다 들먹이면서,

"참새가 이쁘지요. 까마귀도 안 이쁩니꺼."

뭐 우짜고, 뭐 우짜고 이라니까, 어떤 막내며느리가 하는 말이, 뭐라는 기 아이라,

"새 중에 제일 고는 먹새지요."

먹새는 음석(음식) 잘하는 그 새가 제 일등이라. 그래 막내며느리가 그라더랍니더. [조사자: 그래, 똑똑하네. 막내며느리가 제일 똑똑하네.] 야. 새 중에 제일 멋있는 기 먹새다 이라이께, 먹는 새, 먹는 거를 잘하는 새가 먹새, 먹새다 이 말이. [웃음] 그래가 그 사람을 덱고(데리고) 살았답니다. 먹새 잘한다고. 잘 먹을라고.

[영도구 설화 229]

도깨비에게 홀린 사람

윤갑술(여, 1938년생) 구술
2019년 1월 26일 채록
[영선2동 영선반도경로당]

거제도 그 내가 두갠데, 첫 내 건너고 하는데, 마 겁을 먹고 뭐가 나타난께, 오다가 어찌 마 엎어졌는데, 이빨이 다 빠져뿠어.

이빨이 마 내려앉아뿌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인고 싶어서 그 안날(다음날) 그 자리에 가본께, 빗자루 다 닳아진 빗자루 못 씨는 기이(것이) 거기 있더래요. 몽당빗자루가 있더란다.

[영도구 설화 230]

갈라졌다 다시 닫힌 묘

윤갑술(여, 1938년생) 구술
2019년 1월 26일 채록
[영선2동 영선반도경로당]

우리 동네는 실제로 있었는데. 우리 동네 바로 옆에 사람이 시집을 갔는데, 신랑이 죽었는거라. 오누이 딱 낳아놓고. 그래 죽었는데, 그날 묻었는데, 그 마누라 꿈에,

"빨리 지 무덤에 좀 올라가보라."

하더래.

"올라가보몬 무슨 일이 있이인께 그 올라가보라."

카더라. 그래서 아침 딱 올라간께 메(묘)가 턱 갈라져가 있더래. 그때 팠이몬 살았을 긴데. 그래가 마 내러와뿠어. 그래 낸주(나중에) 가보이 딱 옴으라(오므려) 붙어뿠는 기라.

그래가 그 오누이가 딸 하나 아들 하나 놔놓고 그랬거든. 그 저거 그 사람이 우리 이우지(이웃에) 살았는데, 그 어마이가.

[영도구 설화 231]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윤갑술(여, 1938년생) 구술
2019년 1월 26일 채록
[영선2동 영선반도경로당]

[조사자의 구술 요청에] 나는 들으이까, 너무너무 가난해가이 시집을 가니까, 쟁피(강피)를 훑어가이고, 뭐 쟁비가, 피가 뭐꼬? 쟁피라 카대. 거 쟁피로 훑어가 물라고 밭에 가서 쟁피를 훑었는데, 그래 하다가, 그래 하다가 하다가 시집을 살다가 고마 못 살고 신랑이 죽었나? 그거는 모르겠어. 또 시집을 갔는 거라.

또 가가이고 또 쟁피를 훑어야 되는 기라. 그런께 저 사람 팔자는 쟁피 훑어 무라 카는 팔자다. 먼저 시집 갔는 데도 쟁피 훑으러 댕기고, 또 시집 갔는 데도 또 쟁피를 훑으니. [조사자: 못 살아가 가도 또.] 야. 또 간 데도 또 그래 묵는 거야.

그런께 저 사람 사주팔자가 쟁피 훑어가 묵고 사라 카는 팔자다. 그래 말이 있대요. 그 들었어 내도.

[영도구 설화 232]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이정자(여,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영선2동 이송도경로당]

인제 엄마를 지게다 짊어지고, 다리가 아프께 인제 가서 걷는데, 아들이 따라갔는 기라. 아들이 같이 갔는 기라. 가논께네, 가갖고서 인자 할머니로 갖다 굴속에다 옇어삐께네(넣어버리니까), 아들이 한단 말이,

"아부지, 와 할무니 굴속에 옇느냐?"

고, 그런다고 마 그런. [조사자: 아, 지게를 거 뭐 나두고.] 지게를 짊어지고 인자 갔다가, 인자 갔다가 어머니 굴속에다 옇어 놓고 오면서 인자 아들이 얘기를 허는 기라.

"왜 할머니로 굴속에 갖다 저저 옇어 놓고 우리는 그냥 가느냐고? 같이 안 가고. 그러몬 나도 커갖고 아버지를 짊어지고 내중에(나중에) 할머이겉이 굴속에 갖다 옇을 낍니다."

그래갖고 그기 인자 고래장(고려장)이 없어졌다 하대예.

[영도구 설화 233]

도깨비로 변하는 빗자루

이정자(여,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영선2동 이송도경로당]

도깨비가 이 나, 빗자리 그기 이 씨리싸께(쓸고 하니까), 거서 인자 그기 나오는 모양이다. [청중: 헛기 나았겠지(나왔겠지).]

둘이가 싸움을 볶고 막 이리 싸께네(하니까) 말깄는(말렸는. 만류했는) 기라. 말기서 떼서 인제 개논께, 뒷날 자고난께 빗자리 두 개가 나란히 서가 있더라. 가니까.

옛날에는 손에서 만지는 건 전부다 그기 나왔어. [청중: 불이 빤작빤작 나이.] 불이, 그거 뭐라 하노 그거? 뭐라 하노 그거? [조사자: 인.] 도깨비 인이. 인이 배기갖고(배어서) 그기 도깨비로 다 변하는 기라예.

[영도구 설화 234]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이정자(여,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영선2동 이송도경로당]

옛날에는 방구로(방귀를) 맘대로 몬(못) 낐어예(뀌었어요). [조사자: 그래가지고 그 방구로 못 끼가 참아서 어디 방구가 억수로 시가지고(세어서) 뭐.] 이 몸속에 배이갖고. [웃음] [청중: 배출을 몬 하니까는.] 옛날에는 그리 했어. 그리 살았어예.

[조사자: 그래서 우예(어찌) 됐는고? 어머이, 어머이 그 옛날에 아는 이야기로 한 분(번) 해 보이소. 그래가 어디 집이 날아가더라 하던가?] [청중: 기둥을 잡고 있으이 방구로.] [일동 웃음]

"아버님, 지둥(기둥) 잡으세요."

그램서,

"방구 낍니다."

한께, [청중: 듣던 얘기네.] [웃으며] 집이, 지붕이 히떡 날아가. 올매나(얼마나) 방구를 참았던가. [조사자: 그 메느리 하도 참아서.] 예. 참아갖고 인자 이제 차고 나오이께 할 수 없이,

"아버님, 미안함더. [웃으며] 방구 나와서."

[조사자: 방구가 나와서 미안하다.] 그래 방구로 끼이 집이 웃딱가리가 날라가뿌더란다. [청중: 그럴 수밖에 없지.] [웃음] 한달에[159] 그런 얘기도 있었어.

[영도구 설화 235]

욕심 많은 영도할매

이정자(여,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영선2동 이송도경로당]

요 요 요 저 저 저, 고갈산의 할매. [조사자: 그 할매가 어떻는공?] [청중: 모르겠다.] 그 할매가 그리 영검(영험)이 있다 하대예. 예, 마이(많이) 도와준다 하대예. 우리 여어.

그런께 욕심이 많아갖고, 이게 영도 사는 사람을 밖에 안 내보내는 기라예. [조사자: 나가면 우째 되노?] 나갈라 쿠모 영 멀리 이 우리 영도가 안 보이는 데로 이사를 가삐리야 돼. 그리 안 하몬 다시 돌아와예. [조사자: 다시 돌아오고.] 예. 이사 갔다 다시 돌아와예. 그만치

159) '옛날에'의 뜻으로 말한 듯함.

인자 할매가 [청중: 용하고 좋다.] 욕심이 많아.

[영도구 설화 236]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장광자(여, 1941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영선2동 이송도경로당]

딴 걸로 다 주끼라 해도 안 묵을라고 내- 울더랍니다. 그러께,

"아이고, 꽂감(곶감) 주께. 울지 마라."

한께, 울음을 뚝! 그치더라 하대. [청중: 우리가 볼 때는 호랑이가 더 무섭운데.] 그래. 꽂감이 더 무섭었는 기라. 그 아는. 호랑이보다. [조사자: 그런께 호랑이가, '이기 내보다 더 무섭운 기, 꽂감이란 게.] 그래갖고서 호랑이 옆에 앉았다가 그 소리를 듣고서 도망을 갔어.

[영도구 설화 237]

높임말만 쓰는 며느리

고필전(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시집을 갈 때 이야기로 어른들이,

"시집을 가면 아도 위해 주고 어른도 위해 주고, 다 존댓말 하지 아무따나 나(나이) 작다고 놔 하지 마라."

인제 이런 교육을 받았는 기라. 받았는데, 그 시집을 갔는데, 그래 하도 개가 지싸서(짖어서), 시아버지가 인자,

"메늘아기야. 저 밖에 와 저래 개가 지쌌느노?."

이란께네, 시집 가갖고 그래,

"아버님요. 개씨가 소씨를, 소씨가 거씨를 씨씨께, 개씨가 보씨고 지씨네요(짖으시네요)."

커더란다. [웃음]

[영도구 설화 238]

떡 장사 할머니와 호랑이

고필전(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어는 할머니가, 옛날에 할머니가, 떡을, 마을에서 떡을 한 방티[160] 이고. 한 산 고개를 넘어가니까, 호랭이가 하나 나와가지고,

"할머니, 할머니, 그 떡 한 개 내 주면 할머니 안 잡아묵제."

카는, 그래 하더란다. 그거밲에(그것밖에) 모른다. [일동 웃음] [조사자: 그래갖고 다 줬는가 예?] 줬는가 안 줬는가 그건 모르겠다. [웃음]

[영도구 설화 239]

여자 음부가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고필전(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할매 잡아물라고,

"왕-, 왕-."

하니까, [웃음]

"날 잡아물라 쿠거든 날 따라온나."

캐가, 할매가 옷을 벗고 꺼꾸로 누우니까, '내카마(나보다) 더 겁나는.' 호랭이가 있다고, 달아나삐더란다. [조사자: 입이 째지가. 그지예.] 응. [조사자: 할머니. 옛날에 호랑이, 나무하러 가면, 호랑이 새끼 이쁘다면서.]

그거는, 입이 가로 째짔다 쿠는 그거는, 옛날에 뭐 사람이 이래 가라진(갈라진) 바지, 단주(단속곳)[161]를 입었는 기라. 엎드리면 궁디가 다 나와뿌고(나오고) 째지뿐다 아이가? 입(여자 음부를 말함)이 거꾸로 올라간다 아이가 밑(여자 음부를 말함)에가.

그 올라가고, 맨스가 있었어. 맨수가(맨수가) 있어가 그게 그 뭐꼬? 벌끄데이가(바지 끝에)

160) '방티'는 '함지'의 방언.
161) '단속곳'은 '고쟁이'의 방언.

피가 벌게 묻어가 있는데, 호랭이가 까재 잡아물라고 와갖고 보이께네 무습다 아이가? 무습운께(무서우니까) 그 할매가 마 꺼꾸리 인자 기 올라갔는 기라. 호래이는 이리 내려오는데. 산에서 내려오는데 할매는 옷을 쭉- 갈아입고 가래이 벌리고 거꾸로 올라가이께네,

'아이고, 무시라 내카마 입이. 나는 가리(가로) 째짔는데, 치째진[162] 입이 있어 무섭다.' 고 도망을 갔대. [웃음]

[영도구 설화 240]

곶감과 호랑이

고필전(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아가 하도 울어싸서 방에서, 아가 하도 울어쌌고 엄마가 달개도 달개도(달래도 달래도) 안, 저저, 안 그치는 기라. 그래가 엄마가 밖에 나가뿠어(나가버렸어). 나가뿌는데 호랑이가 한 바리 옸다 캐나. 그래가지고 그래,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와 우노 와 우노?"

카면서 그래가지고,

"호랑아, 가라."

캄서, 꽂감을 하나 준케네 꽂감을, 그거를 뭐 호랑이를 줬다 카나. [청중: 아이요.] 아이가. [웃음]

[영도구 설화 241]

흘레질 하는 개 떼어냈다 벌 받은 신혼부부

고필전(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옛날에 신부 신랑이 결혼을 하고 참 어데 신혼여행을 간다고 큰 길에다 가니까, 개 두 마리가 이래 상대를 붙이가 하더라 카네. 그래가지고, 참 그 엄마 한 말마따나 물로 뿌맀다 카

162)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여 째졌다는 의미.

나, 뭐 작대기로 때릿더만은 그래가 그 질(길)로 그래, 그래가 그래 하니까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그리 그날 밤에, 첫날밤에 가서 신부 신랑이 잤는데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기라. 맨날 메칠 가도 안 떨어져서 겔국 벵원(병원)에 가서 한 쪽을 끊었다 카는 소문이 났더라고. 한 사람이 그래 죽었다 카는 것 같더라.

[영도구 설화 242]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김두성(여, 1941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지녁으로(저녁으로) 하는데, 아가 하도 울어서 달개도(달래도) 달개도 안 돼가지고,
"이만 무지[163] 꽂감을 주꾸마, 묵고 우지 마라."
이 카이께네, 응. 밲에 호랑이는 와 여 듣고 있는데, 호랑이가 제 생각에,
"아, 내보다가 더 무서븐 게 꽂감이구나."
응, 응. 그래 호랑이가 도망을 가고 아도 그치뿌고. 그랬다 카는 소리를 들었어.

[영도구 설화 243]

수숫대가 빨간 이유

김두성(여, 1941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듣기로 그거로 호랑이가,
"문을 열어라. 문 열어라, 엄마 왔다."
이카이께네 문을 열고 안 하고,
"문픙지에 손을 넣어라."
칸께, 털이가 숭덕숭덕 나서,
"울 엄마 손 아이네."

163) 무더기로 쌓여 있는 더미.

이카이,

“내가 베를 매다보이 손이 거칠어져가지고 이래 됐다. 그 문 열어라. 내가 너거 엄마다.”

카이,

“아무리 들어도 우리 엄마가 아니다.”

이캤다는데, 소리가 이거를 들어도, 소리도 잊어뿌러서 글치(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청중1: 나무 위로 올라가부렀어. 그 밑에가 우물이 있었어. 그란께 거렁지가 있거든. 긍께 막 호래이가 막 푸도 안 나와. 그래갖고 뭐 우쨌다 하더만 잊어뿠다.] [일동 웃음] 생각이 잘 안 난다. 그래갖고 이 아가 응. 생각이 났다가 안 났다가.

아가 밖에서, 호랑이는 기다리고 아는 밖에,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인제 들어 올까봐 아가 부엌을 나가가지고, 밖으로 뛰나가가지고 인제 그래 마당에 우물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나무 우로 아가 막- 올라갔어. 올라가뿌고 나이께네, 인제 아는, 호랑이는 밖에서,

“엄마 왔다.”

고,

“문 열라.”

카도, 안 온께네, 문을 열고 간께네 아는 그 나무에 올라가뿌고 없고, 그래 호랑이가 우예 우물로 이래 들봐다본께네(들여다보니) 아가 나무 우에 올라갔는, 이래 물에 그렁지가(그림자가) 비치가지고,

“그리 니가 우찌 거기 올라갔노?”

이카이께네 그래,

“엄마, 뒷집에 가 참지름하고 썩은 새끼 밧줄하고, [청중1: 맞다.] 가주고 그래 내가 올라왔다. 엄마도 올라오고 싶으면 뒷집에 가 참지름 한 병 얻고 썩은 밧줄로 날 도. 내가 우에서 땡기주꾸마.”

이래가, 호랑이가 그래가지구 참지름을 얻어가지고 나무에 발라가지고 인제,

“엄마 새끼줄로 올리라.”

이칸께네, 우에서러 아가 인제 새끼줄로 올려주이께네 받아 쥐고, 이 호랑이는 인제 타고 올라가 이 썩은 밧줄이다 아입니꺼. 그런께네 쪼끔 올라가다 썩은 밧줄이 떨어져가, 그 밑에 수수밭이었는데 수수에 떨어져가지고, 그래, [청중2: 하늘로 올라가 하느님이 줄을 내려줬어. 하늘로 올라가서 옥황상제 돼가 잘 살아.] [청중1: 피가 묻어갖고.] 응. 수숫대가 벌겋다.

[영도구 설화 244]

구렁이로 환생한 어머니를 세상구경 시킨 아들

김두성(여, 1941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하도 저거 할매가 구두쇠라 가지고 놀러가도 안 가고, 집에만, 집만 보고 있다가 이 할머니가 죽어가지고 구렁이가 됐다 소리는 들었어. 개가 됐다는 소리는. 구렁이가 돼가지고 이 할매가 집을 몬 잊어가지고 집에 도장에, 쌀단지에 와가지고, 이래 저 밥을 할라고 쌀단지를 들치이 구렁이가 커다란 게 앉아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구렁이가 우째서 이래 와 있노?"

카이, 눈물을 뚜덕뚜덕 흘리니깐 인제 물었답니다, 물으니까 구렁이는 말을 몬 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우째 그거를 발견을 해가 누가 물으니까,

"엄마 죽은 영혼이다."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저게 없고, 저거 뭐고? 짚으로 가지고 봉태기[164]로 매가지고 아들이 그거를 짊어, 뱀을 담아 짊어지고 팔도강산 유람을 하고 나이께네, 집이, 갓 죽어 와가지고 하이께네, 뱀이 어디 간 데가 없다. 그 소리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영도구 설화 245]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두성(여, 1941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아버지가 산에 지게를 지고 가가지고, 지게를 내삘라 카이 손자가,

"아버지 죽으몬 나도 이 지게를 가주고."

아, 아들이 지게를 짊어지고 나오니께네, 아버지가 ,

"야야 지게를 왜 지고 오노?"

이카이,

"나도 아버지 죽으몬 이 지게로 갖다가 져다 내삐릴라꼬 지고 온다."

이까이, 다시 그 뒤로 안 하더랍니다.

[영도구 설화 246]

164) '봉태기'는 '소쿠리'의 경상도 방언.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박부자(여, 1941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꽂감을 주이까네,
"꽂감을 인자 주꾸마 끈치라(그쳐라)"
카이까네, 아가. 호랑이가 가마이 들으이까네, '아이고, 내보다 더 무섭은(무서운) 꽂감이 있구나.' 그래 마 호랑이가 마 도망을 가삐더라네. 그래 아하고 엄마하고 살았는 기라. 그래 잘 묵고 잘 살더라요.

[영도구 설화 247]

구십 아홉 구비가 있는 대관령

이문자(여, 1941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대관령 구비[165]가, 구십 아홉 구빈데, 대관령 구비가. 굽이굽이 돌아가는 구비가 구십 아홉 갠데, 그걸 어떻게 세아맀노(헤아렸냐) 하면, 어떤 사람이 꽂감을 한 접 사가지고 가면서 구비, 한 구비마다 하나씩 빼 먹고나이까 한 개가 남더란다. 그래서 그게 구십 아홉 구빈 줄 안대.

[영도구 설화 248]

도깨비불

이문자(여, 1941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165) '구비'는 구부러진 곳을 말함.

저녁에 비가 실실 오는데, 밥을 해가 저녁에 먹고, 물로 그 부엌에서 못 붓고 밖을 갖고 나가니깐, 나갈라고 그 설거지물을 들고 나가니까 밖에 불이 요만한 게 마당에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는 '엄마야.' 깜짝 놀래가 물을 들고 도로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안에서 보니까 또 요만한 게 하나 마당에 있어. '이 이상하다. 저게 뭐신고?' 싶어서 물로 들고, 그래도 내가 간이 좀 컸는가 봐. 물을 들고, 이건 전설이 아이고 내가 직접 당핸 일이라.

그래가지고 들고 밖으로 나가니까 나무뿌리가 썩은 게 탁- 하나가,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아이지. 뗄라고 마당에 갖다놘 게 있었어. 그기서 불이 나는가 봐. 그래가 도로 왔어. 도로 와가지고는 인자 있으면서 가마이 안에서 보니까, 잩에(옆에) 가서 본께 불이 없어. 가까이 가니까 불이 없는데 먼데서 보니까 불이 있어서, 글로(그곳으로) 들고 부엌에 왔어. 내가 부엌에 갖다 놓고. 저녁에 인자 할아버지보고 그때는 일로 해가 인자 사람들이 방에 밥을 먹고 인자 다 가고난 뒤에 인자 들어와가지고 저녁에 내가 물었어.

"나무뿌리에서도 불이 나요?"

이래니까,

"왜?"

이라는 기라. 그라니깐,

"아니, 마당에 나무뿌리가 있는데 내가 보니까 불이 나대요. 그래서 내가 주아다가(주워서) 들야놨다."

함시러, 갖다 비이니깐(보여 주니깐), 불이 난다 하는 기라.

"비가 부실부실 오면 그 썩은 나무에는 불이 난다."

하는 기라. 그래서 내가 내 생각엔 산에 이래 댕기는 사람이 밤에 댕기면 도깨비불이라 하는 게 그기 도깨비불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

[영도구 설화 249]

할미꽃의 유래

이문자(여, 1941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옛날에, 할머니가 혼자 살았는데, 혼자 사는데, 딸 서이를 낳았는데, 시집을 다 보냈어. 보냈는데 할머니가 혼자 사니까, 너무 그거 하니까, 큰 딸네 집에 가니까, 며칠 살다가 보니까 큰딸이 또, 저 뭣이고 싫어하는 기라.

그래가지고 둘째 딸네 집에 갔는 거라. 둘째 집에 가가 있어도 또 딸이 싫어해가, 셋째 집

에 가다가 고개를 넘어 셋째 딸 집에 가는데, 가다가 할머니가 딸네 집까지 못 가고 할머니가 돌아가싰는 기라. 그서 막내이 딸로 이름을 부르다가 부르다가 거는 멀어놓으니까 듣기지 않으니까, 거기서러(거기서) 할미꽃이 생깄대.

[영도구 설화 250]

수숫대가 빨간 이유

이을순(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엄마가 뭐를 장사하러 가고 없는데, 집 보라 카니까 딸아가 말이지 집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인제 장사하고 다 오는 줄 알고 말이지, 그래 함부로 문을 열지 마라 캤어요.

"함부로 열지 마라. 내 오도록은 문 열지 말고 있어라."

이래 했는데 이 해가 다 져간께 말이지.

"엄마 왔다. 인자 문 열어라."

이라 하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청중: 어데, 문구멍으로 보지.] 응. 문구멍으로 이리 보니까, 여기 마 새까마이 털이 나가 있거든. 그래 놓니까,

"이상하다. 엄마가 와 [청중: 울엄마 손이 아이네.] 응. 손이 아이네."

이래 카니까,

"와 아이라(아니라). 기다.(맞다는 의미.)"

이래 카면서,

"아나 떡 주꾸마. 문 쫌 열어라."

이러 칸단다. 그래 가마 생각, 이 아가 막 놀래갖고 말이지.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마 수수밭으로 뛰갔는 기라. 뛰가갖고 응, 수수밭에 가갖고 말이지, 마 수수나무를, 그놈을 잡고 올라갔는 기라. 올라가니까 호랑이도 인제 따라 올라왔어. [청중: 나무로?] 응.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올라가다 이래 아이가 말이지, 하늘에서 그래도 또 이 아를 살리줘갖고, 줄로 갖고 말이지 어데 마 올맀는 기라. 올리고. 그 가다가 말이지, 호랑이는 중간에 가다가 딱 떨어졌는 기라. 떨어졌는디 그기 피가 수수 속에 들어가갖고 그리. [청중: 수숫대가. 호래이(호랑이) 죽었는 피가 수숫대가 묻어가지고 그래 수숫대가 뻘겋다 카대.]

[영도구 설화 251]

자신을 좋아한 오빠를 피해 죽은 여동생

이을순(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동생이라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
"아무 때에 오빠 그럼 나오라."
이래 캐놓고, 오빠가 가니까 동생이 죽어가 있더랍니다. 그거 오빠한테 희생 안 될라꼬. 그러이 지가 인제 희생되어 마 가뿌맀다.

[영도구 설화 252]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이을순(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우리 집에 아무 동냥 줄 게 없다."
이라니까,
"아무끼라도(아무것이나) 주세요."
이래 하이까네,
"준다 캐봐야 내 딸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래 하이께, 딸을 누가 주라 카겠나. 그런께네,
"그거따나(그거라도) 주세요."
이래 해갖고. 그래 그 아로 갖다가 가(가져) 가갖고 쇠 녹는 데, 녹카갖고(녹여가지고) 말이지요, 종을 맨들어논께네(만들어 놓으니까), 에밀레종이 됐는 기라. 그래갖고 종을 치면 항상,
"에밀레~, 에밀레~,"
엄마가 그 쇠 했다고,
"에밀레~."
카더란다.[웃음]

[영도구 설화 253]

도깨비불

이을순(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아니 도깨비가 나무뿌리가 이래 썩거나, 여자들이 오데 말이지, 이래 하매 나무에 이래 앉으면 말이지, 여자들이 맨스가 있거든. 그라면 피가 나온다 아이가. 그 피가, 그기 그냥 놔두면 안 되는데. 비가 오거나 이래 하면 그래 마 불이 나는 기라. 새-파래이 불이 올라오는 기라.

고기도, 바다고기도, 고기도 말이지 사갖고 말이지 집에 갖다 싰거갖고(씻어서) 말이지 놔 놓으면 어둡으면 불이 나요. 쌔파래지요. 내나 그거와 똑같애요. 거 도깨비. [웃음]

[영도구 설화 254]

꼬부랑 이야기

이찬희(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꼬꾸랑 할머니가 꼬꾸랑 작대기를 짚고, 꼬꾸랑 똥을 누니까 꼬꾸랑 개가 와서, 주우 문께(주워 먹으니까), 꼬부랑 작대기가 탁 때린께(때리니까),

"꼬꾸랑 깽깽, 꼬꾸랑 깽깽."

[일동 웃음]

[영도구 설화 255]

며느리 방귀 힘

이찬희(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저 메느리가 하도 방구를 끼싸서, 더부다주러(데려다주러), 친정 더부다주러 가는데, 더부다주러 간께네, 저 산에 배가 마이(많이) 열리가 있는 기라. 그래,

"아버님, 저 배가 와 저리 마이 열맀어요."

"그 배, 배가 몬(못) 따 무우서 몬 한다. 키가 안 자라서 몬 따 무우서(먹어) 있다."

쿤께네,

"그람 작대기 하나 가 오이소."

쿠더란다. 도굿대를 하나 갖다 주놓이께네 도굿대를 배 한 개에 딱 걸치놓고 방구를 끼댄께, 그 배가 다 떨어짔삐 다 무읐다 안 하나. [웃음] [조사자: 그래 우째 됐는가예? 다부 데리고 왔는가?] 메느리를 다부(다시) 덱고(데리고) 오고.

[영도구 설화 256]

여자를 원했던 동냥 온 스님

이찬희(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뭐 스님이 동냥하러 왔는데, 그 몰라. 나도 자세히 모리는데(모르는데), [조사자: 아시는 데까지만.] 동냥하러 왔는데 아무 줄 끼 없는 기라. 줄 끼 없어서,

"아무것도 줄 끼 없다."

이란께네,

"줄 끼 없는데 스님 내가 뭐를 좀 드릴꼬요."

한께네,

"아무 드릴 게 없어서 못 주겄다."

한께네, 중이 작대기로가 여자 꼬장주를 씻거가 있다 벌치논께(펼쳐놓으니),

"그 붙은 것 좀 주라."

카더란다. 가운데 거 붙은 거로. [웃음] [조사자: 그래갖고요?] 그란께네,

"그 붙은 거를 줄라 쿠모 어째가 주노?"

카이,

"안방을 가자."

쿠더라 카네. [웃음]

"안방은 몬 들어간다."

고 스님을 돌려보냈단다. [조사자: 스님들, 옛날에 그런 스님들 많았다.] 응. 그런 스님이 있

었더랜다. 그 스님도 여자를 모르는 게 아이라. 아는 기라.

[영도구 설화 257]

공들여 놓은 아들이 모두 스님의 아들

이찬희(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산골짝 중이 인자 애기를 몬 낳아서 절에, 절에 마 시주하러 댕긴다 아이가. 인자 시주하러 댕기까네, 시주하러 댕기니까, 공 들이러 댕긴다 아이가. 공 들이러 댕기이께네, 공을 들이러 가갖고 천연적으로 스님이 자기한테, 이 아들 놓을라꼬 공 들이러 간 사람이 내한테 마음이 오도록 맹글었는 기라. 스님이 맹글고 나이께 참 절에 댕기고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아갖고 인자 스님한테 또,

"아 이름을 뭐로 지으꼬?"

하이까네,

"이름을 돌띠라고 지어라."

캤는 기라. 이제 이름을. 옛날에는 아기 낳으면 이 맞고름을 이리 해가 돌띠[166]로 만들었는 기라. 돌띠로 만들어갖고 돌띠라고 이름을 지라 캤는데, 그래 돌띠라고 지어놓고 또 산골에 서당 공부하러 갔다 아이가 가가(그 애가) 커지니까. 가가 서당 공부하러 가이께네 중이 가가 작대기를 짚고,

"요놈도 내 새끼고, 돌띠이. 요놈도 내 새끼, 요놈도 내 새끼."

말키[167] 스님 자식이더란다. 그래 스님이라고 그걸 모르는 게 아이라.

[영도구 설화 258]

누나에게 욕정을 느껴 죽은 남동생

이찬희(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166) 어린아이의 저고리에 달린 긴 옷고름을 말하는 것으로 한 가닥을 등 뒤로 돌려 가슴 앞에서 맨다.
167) '말키'는 '모두' '싹다'의 경상도 방언.

비 오는 날에 형제가 가다가 옷이 젖으니까, 살이 붙으니까 동생은 뒤에 오고 누님은 앞에 갔는데, 그래 인자 참 그거로 몬 해서, 내가 누님을 보고 도라(달라) 소리를 몬 해서, 동생이 끙꺼삤는(끊어버렸는) 기라. 끙꺼삐고 난께네 또 누님이 서서,

"니 죽을 줄 알았시면 내가 줄꺼로. 니 죽을 줄 알았시면 내가 줄꺼로."

쿤다. 소리를 들어도. 잘 모르겠지?.

[영도구 설화 259]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이찬희(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아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메느리가 저 지렁이 나오는 데, 고랑 같은 데 가서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삶아가지고 할매를 준께, 시원하이 맛있게 잘 자싰는 기라. 그래서 잘 자시니께, 하도 잘 씻어서 참 아까 자리 밑에다 숨가(숨겨) 놨다가, 말라진 걸 아들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메느리가 해 주더라. 이렇게 무운께 내가 참 맛있게 잘 뭈다."

얼굴에 살이 뽀야이 쪄가 있어. 아들이 본께 겁이 난다 아이가.

"엄마, 지레이네요(지렁이네요)."

건께네, 엄마가 눈을 떠더란다. 그래 그 메느리가 호부가(효부가) 됐는 기라.

[영도구 설화 260]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이찬희(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아들이 엄마를 업고 고래장을 하러 갔는데, 아들은, 엄마는, 아들은 지고 가는데, 엄마는 아들 몬 찾아갈까 싶어서 풀이파리 껑꺼서(끊어서) 떤지는 기라. 아들 찾아가라꼬. 떤짔는데 그래서 인자 그 아들이 풀이파리를 보고 찾아왔는 기라. 인제 엄마는 갖다 내삐고(갔다 내버

리고), 저 인자 산에다가, 좀 뭐라할꼬? 바구 밑에 비 좀 덜 맞고 요런 데다 엄마를 버리고 왔는데, 지게를 갖다 딱 치아 놘께네, 세워놨다가 자기 아들로 보고,

"지게 갖다 버리라."

캤는 기라. 긍께네,

"아버지 왜 그 지게를 버리요? 후제 그 지게 나놨다가 나도 아버지 버리야 안돼요?"

쿤께네, 그라고부터 고래장이 없어졌단다.

[영도구 설화 261]

신식으로 하다 낭패 본 부부

이찬희(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옛날에는 농에다 마 그릇을 얹어놓는다 아이가, 솥이야 냄비야. 찬장도 없고 농 우에다 얹어 놔놓고. 인자 참 벗고 둘이서 했는 기라. 한께 농 우에 턱턱 닿으니께, 마 그기 워글워글 하거든. 신식. 긍께(그러니) 아들이 턱 나오디,

"신식 두 번만 했씨면 집딱까리 넘어가겠다."

카더란다. [웃음]

[영도구 설화 262]

도둑을 남편인 줄 알았던 부인

이찬희(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갔는데, 가(가져) 올 게 아무것도 없는 기라. 가 올 게 아무것도 없어 둘러본께 솥뿌이(솥밖에) 없는 기라. 그래서 탁- 들고 있으이께네, 솥을 떼가 올 수가 없는 기라. 솥을 떼서 걸어 놔놓고, 받치나 놓고. 인자 그 집 안주인을 한 번 따 무야(먹어야) 되겠는데, 따 물 여가가 없어.

그래서 가마이 담 밑에 있으께네, 남자가 소변 하러 가는 기라. 소변 하러 드가서 자기 남

편처럼 해난께네, 가삐맀는 기라. 자기 부인은 몰라. 모르는데 아침에 자고난께네, 전신에 마누래 거도(거기도) 숯껌정, 거도 숯껌정, 전신에 숯껌정이 들어갖고, 그 넘어(남의) 남자가 와서 한 줄 알았다 하더라고. 그런 소리 듣기대.

[영도구 설화 263]

바람기 많은 여자

이찬희(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이 여자가 바람기가 많았어. 바람기가 많은께네, 저 남자가 하나 자기 맘에 들어가 있다가 둘이서 자꾸 만내는 기라. 옛날 마루는 이 뭐뭐 갱이[168]가 있어가 그 구녕이(구멍이) 떨어져 삤는 기라. 구녕이 떨어져삔께 인자,

"우리 남편이 나가고 나면 온나."

하는 신호가 시골에 대나무 간짓대[169]로 인자 시우면은(세우면) 남자가 없고, 닙히면(눕히면) 남자가 있는 기라.

그러면 인제 새서방이 시우는 날 오는 기라. 시우는 날 인자 새서방이 오는데, 그래 시아서 왔는데, 남자가 곧 들어오거든. 들어온께 할 수 없어서 마루 밑에 들어가삤는 기라. 새서방 거기. 마루 밑에 들어갔비고난께네, 본 남편이 온께네 마루 밑에 숨어있는데, 맨날 벌어진 바지를 입고 있으니까, 마루 밑에 여자가 따악 앉았응께네, 구녕, 마루 밑에 그 솔키 구녕에서 요리 내놓고 한께, 여자가 신랑이 들어온께, [웃음] [조사자: 그래 들켰는가예?] 그래 들키지 않고 잘 하고 나갔단다. 그래도. [웃음]

[영도구 설화 264]

첫날밤에 소박 맞은 신부

이찬희(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168) '갱이'는 '고양이'의 방언.
169) 대나무로 된 긴 장대를 말함.

소박을 맞는데, 그 첫 장개를 가가지고, 첫 장개를 가가지고 참 아까 말과 같이 그래 했는 기라. 인자 사하고 갈라 한께네 여자가 마음이 있어서 참 땡기서 남편을 잡아놘께네, 잡아놘께네 인자 그거 가삤는 기라.

남자가 인자, 여자가 참 색이 많다고. 가삐고 나서 아무리 살아도 안 팬은(안 편한) 기라. 그 남자가 그래서 인자 살다가 십 몇 년 만에 돌아온께네, 탁- 여자가 그 방에서 죽어갖고 뻬(뼈)가 돼서 싹- 사라져가 있더래. 그런께 그 남자가 벨수가(별수가) 있나. 그런 말은 들었지.

[영도구 설화 265]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이찬희(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옛날에 여자가 시집을 간께네, 하도하도 못 살아서 갱피만 만날 훑어다 밥을 해 묵고, 시부모로 살았는 기라. 남자는 만날 서당공부 한다고 공부만 하고. 그래 서울 과게(과거) 하러 가삤는 기라.

갔다가 왔다가 하는데, 마당에 비가 와서 그 뭘, 갱피를 널어 놘 우케덕석[170] 그기 떠내려가도 남자가 안 치놓고(안 치워놓고) 이래 해서 하도 할 수가 없는 기라. 살 수가 없는 거라. 너무 공부만 하고, 그 갱피만 훑어다가 묵는데, 그래갖고 참 갱피 덕석도 덮어 주도 안 하고 갱피만 뜯어가 이 깨를 살다가, 참다 참다 못 참아서 고마 마 가삤는 기라.

여자가 가뻐렸는데, 그래 이 남자가 서울 과게로 해갖고 말로 차고 막 떵떵거리고 온께네, 그 훑고 있는 게 보이거든. 보이니까 그래 인자 저게 그거 남자가 과게 해가 옴서(오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저게 저게 있는 저 할마씨 저 마누래는 오나가나 갱피만 훑네."

그러더라 칸다 안 하나. 인자 그런 걸 몬 참고 가삐맀는데, 딴 데 가봐도 소용없고 갱피만 훑어 묵고 사나 하는 이 뜻으로, 그래 노래를 부르더란다. 갱피만 훑는다고.

[영도구 설화 266]

170) '우케'는 찧기 위해 말리는 벼. 우케덕석'은 벼를 말리는 덕석을 말함.

딸을 탐한 아버지[고성 솔섬의 유래-]

이찬희(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고성 가면 솔섬이라고 있어요. 솔섬이라고 있는데, 그 솔섬에 아버지가 딸을 좋아했는 기라. 아버지가 딸을 좋아했는데, 딸이, 아버지가 자꾸 그 딸을 자꾸 덮칠라 하니까 딸이 솔섬에 갔는 기라. 솔섬에 가서 있으께네, 솔섬을 갔는데 또 그래도 아버지가 또 딸을 좋아하는 기라. 그런께네 딸이,

"아버지 나를 그랄라 카거든 소 꺼저기[171]를 둘러씨고(둘러쓰고) 오시오. 내가 솔섬에, 저 섬에 서가 있으니께네."

이란께네 그 아버지가 딸을 따물라꼬 참 소 꺼저기를 씨고 물을 건너가거든. 그래 딸이 빠져죽어삣는 기라. 그래 아버지한테 안 해일라고. 그래 섬이 솔섬이라.

[영도구 설화 267]

혀 짧은 소리로 부르는 보리타작 노래

이찬희(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보리타작을 하면은,

"엥이야 때리라, 엥이야 때리라. 행수님 앞에도 낱보지가 있고, 제수씨 앞에도 낱보지가 있고." [웃음]

쎄(혀)가 짤라서(짧아서).

"엥이야 때리라. 엥이야 때리라. 형수님 앞에서도 내 좃만 바라고, 제주씨도 내 좃만 바래고."

[웃음] 지 손만 바란다 카는 기. [청중: 지 손만 바란다 카는 기. 내 좃만 바라고.] 응.

"내 좃만 바래고, 행수씨도 내 존만 바라고. 엥이야 때리라."

칸다, 안 하나 그거는.[웃음]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조사자: 그런, 그런 이야기가 너무 재밌다.] [청중: 내 손이라 카는데 내 좃이라 카더나.] 응, 내 손만 바랜다 소리로, 행수님도 성

171) '거지기'는 '거적'의 방언.

찮고(시원찮고) 제수도 성찮은데, 자기 도래깨 가야 맞는 기라. 옛날에 보리타작할 때 노래. 그런께,

"행수씨도 내 좃만 바라고 제수씨도 내 좃만 바라고. 어 기가 차이, 엥이야 때리라". [웃음]

[영도구 설화 268]

여자 음부를 문 게를 떼어주다 입을 물린 스님

이찬희(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옛날에 논에 인자 그거 인자 그거 밥을, 점심밥을 해가 메느리가 이고 가다가 오줌이 매럽아서러 냇가에 가가, 이고 소변을 누고, 소변을 하는데 끼가(게가) 고를 딱 물어삤는 기라. 그래 가마 중이 지나가다가 보이께네 가마,

"밥을 이고 가는 사람이 왜 그래 있느냐? 와 그러냐?"

카이께네,

"요 밑에 쫌 이거 좀 띠 돌라(떼어 달라)."

카이께네, 스님이 이래- 치다보고 띨라 카는데, 고 스님 입을 딱 물어삐갖고. [웃음] 그래 갖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요.

[영도구 설화 269]

연인을 죽인 상사뱀

이찬희(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내가 좋아해가지고, 내가 결혼을 안 하고 딴 데 갔으면은, 그 사람을 몬 잊어서 상사뱀이가 됐는 기라 남자가. 뱀이 돼가 여자 화장실만 가면 따라댕긴다 카대. 그래 결국에는 그 구녕으로 들가갖고 여자가 마 배가 퉁퉁 붓어가 죽더라대. [조사자: 그래 상사병은 못 고친다대예?] 그래 못 고친께 그래 죽는 기라. 그런 말을 들었어, 우리도.

[영도구 설화 270]

도둑질하는 시아버지 버릇을 고친 며느리

이찬희(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지가 하도 도둑질을 해사서, 동네 사람이 지멩을(지명을) 해도 도둑을 못 잡는 기라. 시아버지 그 도둑 한 거를 그래 말릴 수가 없더래. 메느리가. 그래서 인자 마 그 집을 지명을 하고 동네 사람이 치는 기라. 인제 그 집을. 명지 베를(명주 베를) 훔치가 왔어, 이우지 명지 베라. 옛날에 길쌈하는 명지 베를 시아버지가 훔치가 왔어. 동네서 치러 오니까 감당을 몬 하는 기라. 감당을 몬 한께네 메느리가,

"아버님. 또 할랍니까? 안 할랍니꺼?"

건께네,

"요걸 숨키(숨겨) 줄끼니까 할랍니까? 안 할랍니까?"

컨께,

"안 할라 카면 숨키 줄 끼고, 할라 쿠면 안 숨키 줄끼요."

이래 됐는 기라. 그런께네,

"안 하꾸마."

메느리를 보고,

"내가 인자 도둑질은 안 할 낀께 명지 베 한 필로 숨키라."

한께네, 메느리가 명지 베 한 필로, 밥을 한 솥 딱 하더란다. 명지 베 한 필을 물에 딱 담구더이 볼끈 짜가지고, 옛날에는 놋, 이래 밥을 푸는 그릇이 있었거든. 밑에다 딱 담아놓고 밥을 한 그릇 딱 담아논께네, 아무도 그 밥상을 몬 치고.

메느리, 시아버지 행사를 메느리가 고치더란다. 그런 말도 있대.

[영도구 설화 271]

소금 한 배를 다 먹은 구멍

이찬희(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소금장사가 배를 타고 소금을 한- 배를 싣고 왔는데, 소금 한 배를 싣고 와갖고 저 부둣가 대놓고 자꾸 술집에 소금 한 가마 갖다 주고 하릿밤 자고, 소금 한 자루 퍼다 주고 하릿밤 자고 한께, 나중에 소금 한 배가 다 없어져삤어. 다 없어졌삐고난께네 마지막 날에는 오가,

"이놈 구녕이 무신(무슨) 구녕인고 소금 한 배를 다 뭈다."

쿤다. [일동 웃음]

[영도구 설화 272]

손님을 못 오게 해서 망한 집

이찬희(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하도 손님이 와싸서, 너무 지루하고 너무 구찬애서(귀찮아서) 시아버지를 보고,

"우짜면 손님이 안 오것노?"

한께,

"야야. 손님이 와야 된다. 귀찮지만은 해라."

이라고 있는데, 도사가 내려왔는 기라. 산에서.

"아이고 도사님요. 우리 집에 손님 와서 몬 살겄어요. 우짜면 손님이 안 오겠습니꺼?"

이래 물은께네,

"그러면은 숯을 세 가마이를 갖다가 마당에 깔아라."

카더래.

"숯을 세 가마이로 깔아노면 손님이 안 온다."

꼬, 그랬디 숯을 밟으몬 안 좋다고 옛날 어른들이 숯을 못 밟으라 하거든. 시골에 숯을 못 밟으라 한다꼬예. 숯을 떠가 주 내라 카지 못 밟으라 하거든.

그래 숯을, 숯을 세 가마이를 갖다 깔아라 칸께, 세 가마이를 갖다 깔았는 기라. 깔아난께네, 그 숯이 다 뿌사지고난께네 손님이 아무도 안 오고 난께, 살림이 싹- 가삐더래. 그래 베풀고 살아라 이 말이라.

[영도구 설화 273]

삼천갑자 동방삭이 붙잡힌 까닭

이찬희(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삼천갑자 동방석이도 잡아갈 길이 없는기라. 삼천갑자 동방석이도 살아도 뭐 그것도 없고 무세[172]에 빠졌시니까 몬 잡아가는 거라. 무세가 없어서 몬 잡아간께네. 그래 어떤 도인이 하나 오디만은 인자,

"숯을 세 가마이로, 숯을 뭐 열 가마인가 저 냇가에 갖다놓고 씻거라."

하거든. 그래 어떤 도인이 씻거니까, 자꾸 세 가마이만, 열 가마이를 씻거라 캤는데, 마지막에 씻은께 도인이 오더래. 어떤 사람이 오더니,

"왜 숯을 씻느냐?"

이란께네,

"이라몬(이라면) 숯이, 검은 숯이 히이진다 캐서(하얘진다 해서) 숯을 요리 씻는데 몇 가마이를 씻어도 숯이 안 희지네요."

쿤케네, 그기 인자 삼천갑자 동방석이라.

"내가 삼천갑자 동방석이로 살아도 숯 씻거가 희진단 말은 처음 봤다."

칸다.

"이 소리는 처음 들었다."

칸께.

"그래, 니가 삼천갑자 동방석이가?"

쿠고, 잡아가더라 안 하나. 그래가 잡아갔대.

[영도구 설화 274]

며느리의 입방정으로 승천 못한 시아버지

이찬희(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물, 샘이가 명산이 됐는데, 샘이가 명산인데 그 아들 서이서 인자 그 동네 샘이가 명산이니까, 아들이 서이서 아버지 세상을 베리몬(버리니까) 그따 갖다가 시체는 못 빠줄망정 두룩[173] 우에다가 갖다 빠주기로 했는데, 의논을 하는데 메느리가 딱 들어오거든.

172)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음. 저승 명부에 없다는 의미로 추정됨.
173) '두룩'은 '두둑'의 방언.

그래 메느리가 넘이라고 못 들어오게 했는 기라. 못 들어오게 했는데 큰 메느린가, 작은 메느린가 얏들었어(엿들었어). 얏들었는데 그래 아버지가 세상을 버리고난께네 명주로 세 필로 갖고 목을 베갖고, 인자 참 그거 물에다가 갖다 넣은 거 그거 메느리가 알았어. 그래가 마 동네 물이 디비진께 샘이 물도 못 먹고 마 이래 하는데,

"이 무신 일이고? 무신 일이고?"

했는데, 사흘만 참았시면 될 낀데, 사흘을 몬 참아서,

"저거 아버지, 시아버지 두룩 우에 거따 갖다 옇었다."

고. 메느리가 말을 해놘께네, 그래 동네 사람이 일났어, 딱 일어난께네 고 용이 돼가 올라가더라 안 하나. 올라갈라꼬 용이 됐는데, 고날만 참았이면 될 낀데, 그런께 그래 여자 입이 방정이라. 그런께 '메느리는 남이다.' 이기라.

[영도구 설화 275]

영험한 영동할매

이찬희(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농사를 지면 영동할매 나락을 별도로 한 섬 딱 먼저 담아놓는다 아이가. 그런 문제 그거 찌갖고 날 밥 해 묵고, 떠 가고. 고래갖고 인자 옛날에는 두루막을 입으니까 두루막도 만들어 갖고 반은 인자 크는 아들 비알(보일) 끼라꼬 바느질도 해갖고 걸고, 요런 골미도 집어갖고 거 달고, 저고리도 집어가 달고, 우리들 어릴 때는 그랬어. 그라면 또 공부하는 사람 글도 써가 거 달고. 그라면 9월 초하룻날 여드레 날 초, 아흐레 날. 요래 이름이 있어 또. 세 번, 여덟 번, 그러니까 네 번을 올리는가배. 그럼 마지막 날이 이월 스무 나흗날 마지막 올라가는 기라. 마지막 올라가는 기라.

[조사자: 할머니, 영동할미 올 때 바람 불면 딸 덱고 옵니까?] 딸 덱고 오고, 비가 오면 메느리 덱고 온다 하는데, 메느리 덱고 오면 그래도 재수가 있고 풍년이 지고, 딸로 덱고 오면 숭년이 진댄다. 숭년이(흉년이) 지고.

그래 옛날 어른들은 딸을 좋아하고 메느리로 싫어했던갑대. 베 짜는 메느리는 찰밥을 해가 주고, 들어봐, 잘 짜는 메느리는 찰밥이 올라 붙어갖고 베 몬 짜라고 찰밥을 해가지고 주고. 또 딸은 콩 볶아가 주는 기라. 삼 삼는 딸은, 삼 삼는 딸은 콩을 볶아가 준께네, 이놈우 콩은, 여문 콩을 씹어 묵을라 쿤께네, 이 맞차가 이 가르메(가르마)를 타야 요래 비비는데, 삼도 삼지도 몬 하고. 메느리는 마 그놈의 물에다 손을 풍덩 담가가 찰밥 한 덩거리 뭉쳐가 묵고,

마 힘이 세서 마 베를 잘 짜더란다. 그리 부모도 그만큼 심기도 그렇더라고. 그런 말도 있대요.

[영도구 설화 276]

부부가 된 남매 [성씨 유래담]

이찬희(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그래갖고 인자, 김씨 성 갖고, 성을 만들 때, 남매가 살았인께 한 핏줄인데 그기 되나? 그래 인제 김씨 성 갖고, 허씨 성 갖고 그리 만들었다 하대. 그래갖고. 그런 소리도 우리도 들었어. [조사자: 그 남매가.] 촌을 이랐는 기라. [조사자: 둘이만 남았지예?] 응. 둘이만 남아가, 손이 없었는데 그래갖고 인자 일바시갖고(일으켜서) 인자 거서 또 자손이 낳아갖고 요리 가고 조리 가고, 그래 문중으로 만들어갖고 김씨 성가라 니는. 그 인자 내가 아들로 낳고, 또 딸로 낳고, 또 딸이 딸 낳고 아들이 낳고 해가, 그래 해가 손을 퍼주이(퍼뜨려) 김씨 성, 허씨 성, 뭐 이씨 성 고래 맞챠냈다 하대.

[영도구 설화 277]

부엌에 고양이 매달아 도둑 잡는 양밥

한숙자(여, 1946년생) 구술
2019년 1월 25일 채록
[청학1동 청송경로당]

우리는 또 듣기는, 저거 집, 뭐고? 부엌에다가, 천장에다 밧줄로 매놓고 고양이로 거다가 매가지고 부엌에 한 번썩, 누구를 지명을 몬 하이께네, 인제 훔쳐 갔는 사람이고, 동네사람을 불러들어가 부엌에다가 불로 한 번썩 옇으면은, 훔쳐 갔는 사람이 고양이가 이래 하뿐다꼬(할퀸다는 의미) 그래 불로 옇어라 칸다 카대.

[영도구 설화 278]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배태순(여, 1929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청학2동 조내기경로당]

옛날에는 칠십에 고래장 했다 카대. 칠십에. 칠십에 고래장하는데, 인자 고래장 할 때 쌀을 그릇에다 한 그릇 담고 물을 좀 담고 해가지고, 인자 무슨 이래 땅을 파가지고 거다 옇어가지고 그 쌀 옇어주고 그릇 옇어주고, 옇어줘놓고는 그냥 덮었는 갑대. 나 보진 안했어. 얘기만 들었지.

그래 덮어놨는데 그 쌀만 씹어먹다가, 씹어먹고, 물 마시고 씹어먹다가 그거 떨어지면 죽는 거야. 그렇게 죽었는데. 지금도 파면 고래장하는 데 더러 나온다 카대. [청중: 그 어두워가지고 뭐 찾아먹기나 하겠나?] 그 깜깜한 데서 뭐 묵겄노? [청중: 어찌 찾아 묵겠노 그거를? 그냥 있다가 죽지.]

고래장하러 갈 때 인자 아들이 업고 가는 거라. 인자 엄마나 아버지나. 아들이 업고 가면은 아들이 인자. [청중: 지게다 지고 간다. 안 하대요?] 지게를 지다가 고래장하고 오면은,

"지게를 내삐리고 오지. 지게를 왜 지고 오노?"

"아이요. 이거 아버지 죽으면 또 지고 가야 돼요."

그래가 저거 엄마를 파가 오라 카대. [웃음] 자기 안 갈라꼬. 그래가 그 파가와가 그 고래장 그로부터 고래장을 면했단다.

[영도구 설화 279]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배태순(여, 1929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청학2동 조내기경로당]

아가씨가 인자 시집가기 전에 방구를 뀌고 살았는 거라. 그 인자 시집을 가니까 방구를 뀔 수 없지. 그래가 인제 메느리가 노라이 병이 들었는지 노래.

"그래 야 야, 니가 와 그리 얼굴이가 노라노(노랗느냐)?"

시아바씨가 그래싸이까네,

"아버님, 저 내 노란병을 곤칠라면 뒤에 가 기둥을 잡아주세요"

그라더란다. 그래가 앞에서러 방구를,

"뿡, 뿡."
뀌는데, 집이 실- 넘어가.
"어! 고만. 고만." [일동 웃음]
[청중: 다 그짓말이다.] 다 그짓말이지 그지?

[영도구 설화 280]

배고프다는 말은 거짓말

배태순(여, 1929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청학2동 조내기경로당]

처음에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이 억수로 부자라. 부잔데도 밥을 그렇게 작게 주더란다. 작게 줘가 친정아버지한테,
"아버지 배가 고파 몬 살게심더. 몬 살게심더."
계속 그래가 마 몇 년을 살았어요. 살다가 지래 몬 살겠다고 친정에로 갔어. 가이까네 친정아버지가,
"배가 정 그리 고프면, 화장실을 몇 번을 가노?"
이렇게 딸한테 물었어요. 그라께네,
"아버지, 화장실 내 하루에 세 번 갑니다."
그라께네,
"그라면 배 안 고프다. 가라." [일동 웃음]
카더란다. 화장실 세 번 가면은 배 안 고픈 기라고 딸한테 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집을 살고 살았어예. 옛날에는.

[영도구 설화 281]

구렁이가 되어 빌려준 돈 받게 한 어머니

배태순(여, 1929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청학2동 조내기경로당]

그때 어데고? 테레빈가 언제 보이까네, 그 돈을 이자를 착- 피가지고 이자를 마이 놨는데 그 이자를 받기 전에 그거 할매가 죽었어. 죽었는데, 딸하고 어마이하고 둘이가 사는데, 돈을 이자를 놔났다가 그 할매가 돈을 다 몬 받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돈 썼는 사람이 한 개도 돈을 안 주는 기라. 그라니까네 인자 그 할매가 구렁이가 돼가지고 그 딸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야, 내 따라가자. 내 돈 받아주께."

그라면, 그 할매따라 설래설래 구렁이 따라 가면은, 어느 집에 가가 구렁이가 마 덕질거리고, 바앙(방) 둘렁거리고 그라면은 마,

"누고?"

카면,

"엄마다."

캐서, 돈 많이 받는 그 얘기 들었어. 잠깐 들었어요. 그런 것도 있단다.

[영도구 설화 282]

구렁이 죽이고 벌 받은 할머니

배태순(여, 1929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청학2동 조내기경로당]

양산 철마. 그게 할맨가 한 사람이 산에 나물로 캐러 갔는데 독새(독사)가 한 마리 있더란다. 있어갖고 직일라꼬 때맀는데 그기 안 죽고 도망을 쳐뿠어. 가뿠어. 그런데 독사가 눈에 심기. 집에를 왔는 기라. 집에를 왔는데 그 독새가 따라왔어. 그래 밤에 와가지고 마루바닥에 턱- 누버(눕어)가지고 가지도 안 하고.

그래가 누워가 있으니 그거를 때리 죽있어(때려 죽였어), 집에 온 거로. 때리 직있는데, 때리 직이고나이께네 고마 그 할매가 아프더란다. 그 할매가 아파가 물으니까네, 구렁이 굿, 독새 굿을 해주라 카더란다. 그래 그 굿 해줬다 그거. 우리 귀경하러(구경하러) 갔다 거. [조사자: 그래가 나았어요?] 응. 그래가 낫았어.

[영도구 설화 283]

구렁이를 죽여 뱀 눈으로 태어나게 된 아이

배태순(여, 1929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청학2동 조내기경로당]

또 한 집에는 보니까네, 그 아를 가져가지고 놓을 때가 다 다돼 가는데, 배가 이래 부른데, 아즉에(아침에) 쌀로 내러 바가치로가(바가지로 가지고) 도장에 가니까, 쌀단지 안에 요래가 구렁이가 요래 붙어가 있더란다, 조디에. 그래 붙어가 있었어,

"이게 와 이리 여 붙어가 있노?"

밖에 나가가 꼬쟁이를 하나 가가와가가(가져와서) 마당에 떤져내삐리고 돌로가 때리 직이삣어(죽여버렸어). 그 직이고 나이께, 낳은 게 가시나를 낳았어. 그 여자가 가시나를 낳았는데, 뱀이, 눈이 고마 구렁이 눈이라. [청중: 그걸 안 직이야 되는데.] 쪼맨-하이(조금한) 눈이 요만해가지고 알이 똑- 뱀이 눈맨키로(눈처럼) 그렇더라고. 그래가 시집도 몬 하고 친정에서 살았다.

[영도구 설화 284]

임신 중 오리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

배태순(여, 1929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청학2동 조내기경로당]

우리 여 해동수원지 지금 장사하는 그 아줌마도 우리는 우에 집 살고 저거는 밑에 집 살았는데, 아를 낳아놓니까네 요 손이 고마, 오른손이 요리 붙어삤어. 내가 집에 한 번 있으니께.

"대구댁이야, 대구댁이야."

그라대.

"와."

그라께.

"요 좀 와봐라. 우리 아는 어제아래 낳는데, 아이 안가(아이인가) 짐승인가 함 와봐라."

하더라고. 그래 떡 가니께 손을 이래 시키이끼네(씻기니) 목욕 시키이는데, 요거는 괘안는데(괜찮은데) 요게 요리 붙어있어. 요래갖고. 그래가,

"와 이렇노? 와 이렇노?"

인자 그래 물으이까네, 아무것도 저지리한[174] 게 없는데, 저 시어마씨가 옛날 돈 있제? 옛

174) '저지리'는 저지르다의 방언. 이야기에서는 특별히 나쁜 일을 안 적이 없었다는 의미.

날 엽전 돈 같은 거, 그런 거로 한 삐리 모아놨다가 엿장사가 한 번 왔는 거로 왔더란다. 그런 거로,

"할매 옛날 돈 있거던 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그래 했어. 그 할매 보고. 그러니까 그 할매가 그 엽전을 한 보따리 이리 줬어. 주니까 마 요새 돈으로 엄청 많이 주더란다. 그래 할매가 그 놀래뿠어. 놀랜 할매가 미친듯이 돌아댕기더라고. 그래 결국은 미쳐가 돌아댕기다가 '무섭다.' 카면서 농약 묵고 어디 엉뚱한 데 가서 죽었어. 할매가.

죽었는데, 그 할매 좀 아플 때 그 돈 따문에(돈 때문에) 미쳐가 댕길 때, 누가 오리고기 해 믹이라 캐가 오리고기를 해드리니까 안 잡수더란다. 그래서 지가 묵었다 캐. 봉녕이 그 배가(배어서) 지가 묵었다 캐.

그래 손이 요래 붙어 오리맨키로(오리처럼) 붙어. 붙어뿠어. 그거 띠는데 1년 걸렸어. 요래 째가지고 그 1년 막후고 또 요래 째 요 놨두고, 요래 째가 요 놨두고 이래 했는데, 그 손이 크지를 안 해. 좀 작아. 작고 요 볼록하게 이래. 그래도 일 몬하는 거 없어. 일을 몬하는 거 없어.

[영도구 설화 285]

호식을 면하게 한 청년

배태순(여, 1929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청학2동 조내기경로당]

철마 그게 저 칼치재라 카는 데가 있어. 칼치재라 카면은 그 재가 억수로 멀어. 멀고 질어(길어). 칼치처럼 질다꼬 칼치재라고 짔는데, 이렇게 가가 이렇게 옆길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 버스를 타고 가면 옛날에.

그래 한 날 지녁에 버스를, 마지막 버슨데, 하루에 세 번썩 인제 댕깄어. 고때. 댕깄는데 마지막 버스를 타고 한 차 타고 올라가는데, 앞에 버스가 오는데 호랑이가 앞에 딱 매쿠더란다(막더란다) 버스 앞에. 그래갖고 그 호랑이가 길을 안 비켜주는 기라. 그러니께네 인자,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물건이든지 저 호랭이로 한 번 떤져주바라. 그 호랭이가 그거를, 연장을 물고 가는 그 사람은 내리라. 그래야 우리가 통과한다."

이래 됐는 기라. 그래갖고 사람마다 다 소수건이든지 뭣이든지 하나 떤져주이 아무도 안 물고가. 고등학교 학생이 모자를 벗어 훌쩍 떤지이 그거를 물고 나가더란다. 비키주더란다. 그래 그거를 니리라 캤대. 갸로(그 아이를).

"니리라(내려라). 니는 니리라. 니는 호석할(호식할) 사람이니까 니리가지고 범한테 따라가라."

인자 이래가지고 내라뿌고 하이께네 버스가 가다가, 가다가 조금 가다가 넘어졌어. 조금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갸는 피했는 기라. 하나도 안 다치고. 외갓깁 사람이라 그기. 그때 사람이 마이 죽었어. 마이 죽고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 철마 살았거든.

[영도구 설화 286]

고려장 풍속

이화자(여, 1940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청학2동 조내기경로당]

칠십 고래장 얘기는 들어봤어. 옛날에 그래 업고 가더라 하대. 업고 가 칠십 무우면은(먹으면), 자석이 뭐뭐 어마이를 그걸 업고 가가지고 굴로 딱- 파가지고, 이런 딱- 요래 집을 지어 갖고 그 안에 쌀이랑 또 물하고 그거 무우라꼬(먹으라고) 또 옇어놔놓고, 그래 인자 그기 인자 다 떨어지면, 그래도 마 어둠 구석에서 주우 묵었는(주워 먹은) 모양이지. 묵고. 그 묵을 끼(먹을 것이) 다 끊어져뿌리고나이(끊어져버리니) 할매도 죽고 그렇더라 하대.

[영도구 설화 287]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이화자(여, 1940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청학2동 조내기경로당]

할매가 그래 처음에 그라더라 하대. 그래 고래장 간다고 지게에다가 탁 어마이를 짊어지고 그래 가이께네, 손자가, 그 집 지고 간 아들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지게 그거로, 지게 그거 내 주이소."

칸께네,

"그래, 말라꼬(뭐하려고)?"

칸께네,

"놔놨다가 난중에(나중에) 나도 아버지 지다가 그래 갖다가 내삐리야지. 할매맨치로(할머니처럼)."

그렇다 하더라 안 카나? 그 내 들었어.

[영도구 설화 288]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이화자(여, 1940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청학2동 조내기경로당]

옛날에 그 집에 아들이 어딘가, 배 타러 갔다 카든가, 어디 갔어. 갔는데 할매가 눈이 감겨 봉사더라하대.

그래 앉아갖고 방에 이래 누웠는데 고마 그것도 내 수발할라 카면 얼마나 구찮노, 그자? 그래 지차면서사로 이 할매 옴마가 뭘 빨리 하면 죽는다 이랬는 모양이지.

"배깥에 가가지고 지렁이를 좀 세가지고 구해가지고 삶아가 미봐라."

이래 카더란다. 그래 이제 참말로 지렁이를 그래갖고 해가 무께네, 아들이 배 타고 오이께네, 뭐 어머니가 막 이렇거든, 살이 쪄가지고. 그렇더라. 그래 할매가,

"이상하다. 뭣이 이래, 야야, 야야, 이게 뭣이 이게 내가 그거하는고."

한 개 주서가지고 장판 밑에 옇어놨다가 그래 그걸 아들 오면 보있다 카대.

"아나, 야야, 내가 이거를 먹고 이래 건강하고 참 잘 이래 있다."

하고, 보니까 지렁이 참 밌다(먹였다) 하대. 그 얘기 들어봤어. [청중: 시엄마 죽으라고 밌단다.] 죽으라꼬, 처음에는 인자. 내나 그 죽으라고 지렁이 그거를 믹있다 안 하나. 그래. 민게 큰 보약이 됐는 기라. 할매가 건강하고 신체가 더 좋기 이래 있더라 카나.

[영도구 설화 289]

떡을 주고 호식 면한 할머니

이화자(여, 1940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청학2동 조내기경로당]

옛날에 할매가 떡 장사를 하는데, 떡을 팔러 인제 고개로 고개로 이래 넘어서 이래 가니까, 그래 호랭이가 이래 마 그거 하더라.

"응."

하고 달려든다 카더나? 뭐 우째.

"니 그러지 마라. 내 떡 주꾸마, 떡 주꾸마."

카면서로,

"내 잡아묵지 마래이(마라)."

떡을 훌쩍훌쩍 떤지주더란다(던져주더란다). 그런께 안 하더란다. 안 잡아묵더란다.

[영도구 설화 290]

선녀와 나무꾼

이화자(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청학2동 조내기경로당]

아들이 쪼금 모지래(모자라). [조사자: 모지래.] 모지랬는데 턱 걸려가 산에 어디 뭐 산에 그거 하는 데 가서로 이래 있으니까, 그래 마 참 장개도(장가도) 몬 가고 있은께,

"니 그래 하지 말고, 저저저 가갖고 기다리고 있어바봐라.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오거들랑 그래 우째하든지."

그래, 그 옷을. 탁 옷을 벗어놓고 목욕을 막- 하는 기라. 옷을 그거를 뚱칬어(훔쳤어).

"뚱치가 집엘 갖고 온나."

이래 됐어. 그래 참 그 사람이 역시나 가가지고 선녀가 목욕을 하더란다. 옷 그거를 뚱치 갖고 왔어. 선녀가 하늘을 못 올라간다 아이가? 그 옷이 없으니까. 그래 그 선녀를 덱고 왔어.

그래 인자 사는 기라. 사이께, 참 아들, 딸. 아들, 딸로 놓고 이래 놓고 사는데, 그래 인자 참 난중에 보이까네, 사는 게 좀 그거하고 이래 놔낳이 올라가지는 몬 하고 옷 그거를 갖다가 아무리 돌라 캐도 신랑이 안 주는 기라, 딱 옇어놔놓고. 안 주이까네,

"저 옷을, 그거를 우찌 갖다가 내가 그거를 받아가 입고, 내가."

그것만 입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기라. 그래 우째우째 해갖고 내가 그거 하이께네 신랑이 옷을 주더라대. 준께네 그 옷을 입고 마 아를 양쪽에 하내이(한 명) 하나썩 끼고 마 하늘에 올라가더란다. 그거 들었어.

[영도구 설화 291]

영동할매 바람 올리기[이월 영동제]

이화자(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청학2동 조내기경로당]

지금어는 아닌데 우리 어릴 적에 보면, 우리 친정에 보면, 요 산에 가서 파란 황토를 파가와. 파가 와가지고 이 삽짝에, 대문밖에 또 금구줄(금줄)을 쳐. 그거 한 사람들 들어오지 마라꼬. 탁 치나나 놓고 지금질(제각기) 몽땅몽땅하이 딱 놔나놓으면, '아, 저 집에는 지금 바람 올리는 갑다.' 싶으니 딴 사람들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이께, 바람 올리면 오만 잡곡밥을 다 한다 아이가? 뭐. 잡곡밥을 해가지고 도장에도 갖다놓고, 장독간에도 떠갖고 갖다놓고, 온 천지 갖다놓고 그것 가(가지고) 갈라 묵고. 이웃 사람들 하고도 갈라묵고.

[조사자: 그래, 할머니, 비 오면 메느리 덱고 오는가?] 그래, 비가 오면 메느리를 덱고 온다 하대. 인자 옷 젖으라꼬. 할매가 심청이 굳는 갑더마는. 그리고 딸로 덱고 오면 하, 또 바람을 일바시는(일게 하는) 기라. 막 이라먼 딸 치마가 팔랑팔랑팔랑 이쁘라꼬. 그래 그래 쌌대.

[영도구 설화 292]

도깨비불

최두남(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청학2동 조내기경로당]

도깨비 인자 그거는 나타나도 모르는 기고. 불, 밤 되면 불이 인자 마 죽- 하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휘휘' 소리 내고 그란다 카대. [조사자: 도깨비한테 홀리면 혼이 빠진다 하던데.]

[청중: 그래갖고 마 이래가 간다 안 하나?] [조사자: 누가 간다고예?)] [청중: 껄키갖고(끌려서) 오더라. 아가. 아나(아이나) 어른이나 가고 있으면. 그래 이놈이 아무리 해도 몬 이기겠고 아침에 자고나서 보면 뭐뭐뭐 빗자루 몽댕이가 있고. 그기 인자 그래 되더라 하대. 도깨비 돼서 댕기고 그라더란다.]

[영도구 설화 293]

달래고개 이야기

최두남(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청학2동 조내기경로당]

[조사자가 달래강, 달래고개 이야기를 알려준 뒤 이야기를 청하자 구술함.]

오빠하고 동생하고 길로 가는데 비가 막 갑자기 오더란다. 비가 막 갑자기 온께네, 동생은 앞에 서고 오빠는 뒤따라오는데, 옷이 착- 달라붙어가 궁디가 탁- 그 옷에 붙어갖고 튀나오고 이라니까, 고마 오빠가 고마 마음이 달라져삤는 기라.

그래 그 동생을 건드랐다 카네(동생을 범했다는 의미). 그라고나서는 고마 지 자지로 마 끊어삐더란다. 그래가 뭐 죽었다 카든가 그라대. 동생을 거 했기 때문에 지가 인자, 그 마음을 몬 이겨서 그랬단다.

[영도구 설화 294]

저승 갔다 살아난 사람

최두남(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청학2동 조내기경로당]

저승 갔다 뭐 오는 꿈도 뭐 강물에다가 뭐 꼬쟁이를 하나 띄아갖고, 그따다가(그기에) 인자 올라서서 가라 쿠면, 그래 뭐 폭- 그기 꼬쟁이가 뒤집어지삐면 고마 깨면, 캐고 그란다 쌌대. 강아지를 또 덱고 온다 카더나? 흰 강아지로.

[영도구 설화 295]

삼천갑자 동방삭이 붙잡힌 이유

최두남(여, 1935년생), 배태순(여, 1929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청학2동 조내기경로당]

[최두남]
삼천갑자 동방석이가 인제 어디 갔다가 오다가, 그 뭐 길가에 어디 냇물이 있든가? 앉아서 숯을 씻더라 하네, 숯을. 숯을 살살 씻거싸면서 뭐라 쿤다 쿠더노?.

[배태순]
"삼천갑자 동방석이랑 살아도 껌은 숯 씻는 거는 못 봤다. 니가 동방석이가."
하고 잡아갔다 아이가. 그래 오래 살아도 참 숱 씻는 거는 몰랐다 카더란다.
그 사람이 백년 살고 나이까네 자꾸 잡으러 오는 기라 저승서. 그래가지고 구들 밑에 가가지고 한 십년 살고, 또 천장에 올라가가지고 한 십년 살고, 온데 댕기며 독 안에 드가가 십년 살고, 이 사람이 삼천 년을 피했어. 삼천 년을 피해다가 잡으러 댕기다, 잡으러 댕기다 그거를 몬 잡았는 거야.
아무리 못 찾아도 못 찾아서 있었는데 저승사자가 서이 쭉- 오이까네, 그 인자 껌은 숯을 동방석이가 씻고 있는, 길에 길에 가다가 길에 앉아갖고 저승사자가 숯을 부들부들 씻고 앉아가 있었어 들에. 그러이까네 동방석이 보이 좀 이상하거든. 그런 거는 몬 봤는 기라, 그래 갖고,
"야들아, 숯을 왜 그래 씻노?"
인제 그러이까,
"아입니다. 검은 숯을 희도록 씼심더."
그라거든.
"아이고야, 내 동방석으로서 삼천 년이나 살아도 껌은 숯 희도록 씻는 건 처음 봤네."
그래가 잡히갔어예. [조사자: 안 그럼 안 잡혔을 낀데.] 그렇지. 암말도(아무말) 안 하고 지나갔으면 몬 잡았지.

[영도구 설화 296]

높임말만 쓰는 며느리

최두남(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청학2동 조내기경로당]

며느리가 뭐, 개가 짖으면,
"개-씨가 보-시고 지-시네요." [웃음]
'개가 보고 짖는다.' 이 소리를 존댓말로 해가,

"개씨가 보시고 지시네요."
칸다 카대.

[영도구 설화 297]

애장터 도깨비불

고순덕(여, 1932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청학2동 학수경로당]

누가 옛날에 막- 그래 쌌대. 김치를 담으마. 동네 드려다보고 애장터에서 김치를 담으마, 막 불이 시퍼런 기 퍼뜩퍼뜩 그렇고, 확실히 애장터가 귀신이 있긴 있는갑더마.

[영도구 설화 298]

도깨비에게 홀린 사람

고순덕(여, 1932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청학2동 학수경로당]

옛날에 우리 친구 하나는, 합천 그 우리 친구 하나는 한 열한 시나 되서 막- 이름만 불러 쌌더란다. 그래서 나갔어. 나간께는 세상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를 얼마나 와가 우리 친구를 끌고 돌아댕깄는지, 저거 엄마는 금방 불러싸서 나갔는데 찾아도 엄써(없어).

시상(세상) 이튿날 아즉에(아침에) 저 거름 버리고 하는 그 이름이 뭐꼬? [청중: 거름 빼까리.] 거름 빼까리인데 그 재로 부놨는데 재 거다 처박아났다 안 카나. 아 혼을 빼갔고, 그래 갖고 정신을 잃었다 그때.

토깨비 그기. 토깨비 그기 혼을 빼는 기라 사람을. 그래 지금은 그런 거 없더라고. [청중: 지금은 그런 거 없다.] 옛날에 그랬어. 그 진짜라.

[영도구 설화 299]

주인 구한 개

김기성(여, 1929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청학2동 학수경로당]

그 저 전라도 그 남원 가는데 그거, 저게 사람이 누워가 있으이, 개가 그 물로 적셔가지고 전신에 그거 했다고 소문이 나대 그. [조사자: 아, 술 취해가 자는데.] 자는데, 개가 저 물로 적셔가 살랐다(살렸다) 안 카더나? 이전에 전설에.

[조사자: 그 자세히 이야기 해 보이소. 어디서?] 어데? 남원에 가는데 그 딱 표가 나대. 우리 관광 가면서로. [조사자: 어짜다가 불 났는교?] 누우(누워) 자다가 불이 났는데, 개가 그래 일나가 적시갖고 사람을 살랐다 그런 전설이 나대.

[영도구 설화 300]

창원 대산면의 장사바위와 칼바위

김기성(여, 1929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청학2동 학수경로당]

우리 고향에는 그 장사바우가 있는데, 장사바우, 바우 것다가(그기에) 돌을 떤지면 아들을 낳는다꼬. 그래 그거 하대 보이까네. 칼바우가 있고 그렇대. 안즉(아직) 있어 그 바우가. [조사자: 그 칼바우한테는 뭐 하는대예?]

이전에 장사가 칼로 바위를 베서로 칼이 돼서로 째삣하이 바우가 있는 기라. 그래서 머리를 해서로 머리도 있고 말도 댕기다가 말 재죽도(발자국도) 있고 이렇대 산에. [조사자: 어데 장사바위예요?] 저 우리 고향에 그 바우라고 있다. 그 바우. [조사자: 할머니고향이 어덴데예?] 대산면. [조사자: 어데 대산면?] 창원 대산면.

[영도구 설화 301]

춘향과 이몽룡

김기성(여, 1929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청학2동 학수경로당]

예전에 춘앵이가(춘향이가), 뭐 말이 안 있나?
"사또께서 도령님이, 글공부 아니 하고 유서는 할지라도 정기는 와 하느냐."
카이께네, 그래 춘앵이 그거 했거던. 예전에 그거 오월 단옷날 그네 뛰다 말이다. 그러니께네, 잡아서니께네, 이도령이 떡 서가 있으니, 춘향이가 벌럼벌럼하이 궁댕이를 들거든. 그래,
"방자야, 저기 언덕 건너 저게 뭐냐?"
하이께네,
"소인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더."
커이,
"야, 이놈아, 부채만 붙은 보리밥."
"미륵님 밥에 보도(봐도) 안 보입니다."
"야 이놈아, 양반의 비듬만도 몬 하구나."
카더란다. [일동 웃음]
"춘앵이 잡아오라."
칸께, 쫓아갔거든. 가이께네 춘앵이 놀래가,
"아, 이 자석아, 낙석할 뻔 봤다."
카이, 쪼깨난 열 여섯 살 묵은 기,
"낙석이, 낙태가 뭐꼬?"

[영도구 설화 302]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김기성(여, 1929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청학2동 학수경로당]

애기가 너무 울어갖고 날 때부터 계속 돌 때까지 우는 거라. 그래 계-속 울어싸. 젖을 주도 안 되고, 밥을 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주고. 호랑이가 이제 애 잡아물라꼬 문 앞에 딱. 옛날에는 저 뭐 문도 얄궂은 거 아이가? 달라들면 마 잡아묵고 이럴 때라.
그래가 가만이 보이까 호랑이가, '아를 울어쌓는 저거를 잡아가서 내가 잡아 무야 될 낀데.' 싶어가, 저거 엄마가 오만 걸 준다 캐도 울고 울고 또 울고 하이. 호랑이가 인자 마 우는 거 그쳐야 마 안 잡아묵고 '지보다 무서운 사람이 있는가?' 싶어갖고 있는데, 저거 엄마 꽂감을 내가 오는 거라. 꽂감을 내가,
"꽂감 그래 묵어라. 아이고, 우리 애기 울지 말고 꽂감 묵어라."

하이, 떨꺽 그치거든. ‘와이고.’ 호랑이가 마, ‘내보다 더, 내가 오도(와도) 울어쌌던 아가, 내가 오이께 안 우는 거 보이, 꽂감이 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인가?’ 여기가 그래 가삤단다. 옛날에 그래 할머니들이 얘기 해쌌대.

[영도구 설화 303]

호랑이 목에 걸린 비녀를 빼준 사람

김기성(여, 1929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청학2동 학수경로당]

그래 뭐 산등성이에 뭣이기 뭣이 있더라. 그래 호랑이가,
“어흥.”
울어싸서,
“와 우노?”
하이께네, 모가지 비녀가 걸리서로 그렇다. 그래 비녀를 빼줬다 안 카나. 사람을 잡아묵고. 그 안에 뭣이 다 사람이 들어가께네 비녀가 그런 기. 이야기가 그렇다 안 카더나.

[영도구 설화 304]

수숫대가 빨간 이유

김기성(여, 1929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청학2동 학수경로당]

그래 저저 전에 호랭이 그기, 사람이 낭개에(나무에) 올라가 있으이께네, 호랭이가 올라오더라 안 카더나. 그래.

“우째 니는 올라갔노?”
카께,
“참지름을 발라 올라왔다.”
카이, 미끄럽아가 올라갈 수가 있나? 그래 마 몬 올라가더란다. 그 널찐 자리 피가 나오이

께네, 그 우신에(우선에) 쑤시에(수수에) 전에, 쑤시에 뺄가이(빨갛게) 피가 묻었다 카대. 뺄가이 나와가지고.

[영도구 설화 305]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김기성(여, 1929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청학2동 학수경로당]

여자가 만날 저 갱피 뜯으러 가. 피. 피를 훑으러 가는데 남자는 상투를 매 놓고 이래 쿨쿨하고 잠을 자고 해도. 그래 갔다 오이께네, 피 덕식이(덕석이) 떠내려가뿠더란다. 그 여자가 마 도망을 가뿠는 기라.

도망을 가뿠더만은 남자가 인자 벼실하고(벼슬하고) 닐리리 쿵덕쿵하고 마 이래 오거든. 말로 타고 오이께네, 여자가 그래 갱피를 훑거든.

"날마다 고 가더니 훑던 갱피 다시 훑네."

그래. 떡 채리보더란다.

"천리라도 따라가고 멀리 가도 따라갈라 카면, 니가 따라올라 카거들랑, 나막신에다 물로 한 동 이고 따라오라."

카더라네. 몬 오구로 하는 거 아이가 그거는. 그래 그거를 참고 살아야 되는데 갔다 카는 거 아이가? 그런 때민에(때문에) 그렇다는 그거라요.

[영도구 설화 306]

학을 살려줘 정승 집 딸과 결혼한 나무꾼

김기성(여, 1929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청학2동 학수경로당]

이전에 남자가 나무를 떡- 하고나니, 학이 탁 지 살리돌라 카거든. 그래 나무꾼이 나무 그거를 탁 꼽아놔놓으니께네, 그래 인자 가면서로 저저 포수가 지내가뿌거든. 지내가고 나이께네, 그거를 꼬쟁이를 빼가지고 처이를(처녀를) 주더란다.

"처이를 어디 아무 데나, 정승의 딸네집에 가면 오줌을 눌 낀께네, 꼬쟁이를 세 군데를 꼽아라."

카는 기라. 꼽아놔놓고 나니께네 이놈의 자석 오줌을,

"칠봉팔봉 고알봉, 칠봉팔봉 고알봉, 칠봉팔봉 고알봉."

이놈의 소리가 나거든. 그런데 몬 고친단 말이다. 이래 놓으이 아무래도 몬 고쳐서 그래 있으니께네, 그래 이제 총각이,

"내 마 하나 고쳐주꾸마."

카이, 한 개를 빼고 나이께네 마,

"칠봉팔봉, 칠봉팔봉."

밲에(밖에) 안 하더란다. [웃음] 그래 두 개 빼고나이,

"칠봉 칠봉."

그래 빼고나이께네,

"니가 좋은 인연인께네 저 우리 딸하고 결혼하라."

카더란다. 그래 그 이전에 전설에 그 이야기라. [조사자: 그래갖고 둘이 결혼했어예?] 그래 결혼했지 뭐.

[영도구 설화 307]

여동생을 마음에 품다 죽은 오빠

김기성(여, 1929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청학2동 학수경로당]

그래 인자 옷을 얕게(얇게) 입어놓이께네 인자 배이거든(보이거든), 배이께네. 그래 인자 남자가 그래,

"오빠 그 살러났는데, 그래 니 때민시(때문에) 죽었다."

카면서, 끊어내비리고 하이까 동생이,

"오빠 좋고 내 좋으면 좋을 낀데 와 그랬노?"

카더라 안 카더나. 이면이 그렇는 기라.

[영도구 설화 308]

제삿밥을 먼저 먹는 영감

김기성(여, 1929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청학2동 학수경로당]

이전에 그 정성이(정승이) 저거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께네, 자식이 없어서 맹근쟁이[175] 영감을 갖다가 친해가지고 누우잤는데, 아로 낳았는데, 그래가 인자 그기 이제 제사를 지내거든. 지내이께네, 저거 아버지는 안 오고 맹근쟁이 영감쟁이가 머이(먼저) 오더란다.

"자불땅, 자불땅."

그래 앉더란다. 아이고 마 아들이,

"우리 옴마(엄마), 우리 대감집에 이런 일 있느냐?"

라이께네 그래 그래 되고, 사실은 사정이 그래 했고, 그래 됐고,

"꾸다(꿔서)옇어서 영감쟁이 그렇다."

하이. 낸중에 저거 아버지는, 큰 대감이 허-여이 옷을 입고 오더란다. 그 저거 아배는(아버지는) 뒤에 오고, 영감쟁이 착- 앉아서 응감을 하더라 그래.

이전에 자식이 없으면 영감쟁이를 꾸다 옇더란다. 꾸다 옇어가 자식을 두도 죽더란다. 맹근쟁이 영감이라꼬 자불단장 저거 집에 종이라. 그래 노이 자식을 인자 둤는데, 저거 모르게 해도 그거는 자식을 잘 두놓이(둬서) 있으이께네, 저거 아버지는 안 오고 머이(먼저) 오서(와서) 응감을 하더라 그기라.

[영도구 설화 309]

사람 혼이 변한 흰 쥐

김기성(여, 1929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청학2동 학수경로당]

사람 혼이 돼가지고 밤에 점도록 기이(기어) 댕긴단다. 근데 [조사자: 뭐? 흰 쥐가 나와가지고.] 그래 없으면은, 혼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그거 해가지고 지질로(저절로) 간단다.('죽는다'는 의미). 그래 그거를 잡아뿌면 사람이 죽어뿐단다.

[영도구 설화 310]

175) '맹근쟁이'는 망건장사의 방언. 이야기 속에서는 대를 잇기 위해 씨내림을 받는 서방을 말함.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기호(여, 1944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청학2동 학수경로당]

옛날에 할머니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또 이제 손주하고 이래 살았는데. 할머니가 좀 나이가, 연세가 많아. 그래가 할머니가 돌아갈 때가 됐는데, 안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지게를 어디서 하나 주문해가지고,

"지게를 지라."

고 그라더라네. 그래서 지게를 짔더만은, 자꾸자꾸 지고 가는데, 아버지가 산 골짝으로, 골짝으로, 골짝으로 가더라네. 그 가더만은 내려올 때 거기 가가지고 내리놓고는 거기다가 마 내삐리고 오니까네, 그 아들이, 아버지 그 지게를 내삐리고 오이까네,

"아버지, 그 지게 가져 가세요."

이래.

"왜 가져 가냐?"

이러이께,

"내중에 아버지도 늙으면 내가 갖다가 거기다 갖다버려야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가르켜 준대로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 지게를 내삐리고 오이까 지고 가자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 지게를 지고 집에 왔단다. [청중: 집으로 다부(도로) 가왔다.]

[영도구 설화 311]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김기호(여, 1944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청학2동 학수경로당]

옛날에 그래 할머니가 눈을 몬 뜨는 봉사래. 봉산데 눈을 몬 뜨고 맨날 뭐 며느린가 아들인가 해다주는 것만 먹고 그랬는데, 내중에 그 곰국이 너무너무 맛있더라네. 곰국이 뭐 뽀-야 가지고(뽀얗게) 뭐 맛있어서 그냥 소금 타가지고 먹고 먹고 이러면은, 그래 먹고 마 살이 포동포동포동 쪘는데, 내중에 누가 손님이 와가지고서,

"그게 뭔 고긴데 그래 살이 포동포동 찌냐?"

고, 그러이께네,
"모르겠다."
고, 그러더만은. 누가 살쨕이(살짝) 인자,
"그기 바로 지렁이라."
그랬다만은,
"어이구!"
놀래가지고, 눈을 번-쩍 뜨더라네. [일동 웃음]

[영도구 설화 312]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김기호(여, 1944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청학2동 학수경로당]

옛날에 어떤 인제 어떤 집에 시집을 갔는데, 메느리가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그런데, 이 메느리가 얼굴이 매-얘이 지는 기라. 그래서,
"야야, 니 얼굴이 와 어디가 아프냐. 얼굴이 왜 노랗냐?"
이러니까.
"아이고. 아버님. 내는 방구를 뀌야 되는데 방귀를 못 껴서 얼굴이 노랗습니다." [웃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버님은 솥단지 뚜껑을 꼭- 잡고 있고, 할머니는 문고리를 꼭- 잡고 있고." [일동 웃음] 그래가지고 방귀를 꾸면은 '우두둑' 솥단지 뚜껑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웃음] 문고리가 또 들었다 놨다. 그래가지고 좀 지나갔는데 얼굴이가 좀 노란 게 좀 낫아졌더라네. 그래,
"시원하나?"
그래도 또 다음에 며칠 있다가,
"아버님, 그래도 아직 속이 안 시원합니다."
하니까, [웃음] 그래도 아버님, 시어머니 요런 상투를 잡고 있으라나 뭐 어쨌다가 그래 잡고 있으니께, 이놈의 머리가 왔다 갔다. [웃음] 그런 이야기가 있대. [웃음]

[영도구 설화 313]

생부에게 밀려 제삿밥을 못 먹은 사람

박갑선(여,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청학2동 학수경로당]

옛날에 저 우리 외할매가 얘기를, 우리 쪼깬 할 때. 거는 겨울 되만(되면) 뜨신 방에 얘기 듣는다고 간다 아이가? 그래 그 정승이 집에 억수로 돈이 많는데, 정승이 자식을 볼라꼬. 아무리 해도 본처가 애기도 몬 놓고. 그래갖고 인자 세월로 냄기고(넘기고) 이래갖고, 보이께네, 정승 아들이 뭐시기 좀 문제가 있든가 봐. 그래갖고 사는데.

어느 백장이(백정이), 누가 소 잡는 백장을 옇었는 거라 인자. 아무도 모르게 옇었더만은 아들을 하나 낳았어. 그래 백정은 마 떠나삐리고. 정승이 지 새끼라꼬 억수로 잘 키았는 기라. 웃대 마 너무 큰 마 부잣집인데.

그래가는 다 웃대 죽어삐리고, 정승도 죽고 백정도 죽고 다 죽어갖고 할마시가 마, 평생에 포은이 지갖고. 너무너무 아들로 정승하고 낳았으면 내가 떳떳이 제삿밥을 먹을 낀데, 백장하고 그래 낳아노이 백장하고는 너무너무 그거 해가, 빼뿌쟁이[176]로 석달 열흘로 훑었다 하대. 빼뿌쟁이 그거로 씨. [청중: 빼뿌쟁이 그거 지름(기름) 짜면 영감이 비인다 안 카더나.]

석달 열흘로 훑어가지고 그래 아무도 모르게 기름을 짜가 접시에다 요래갖고 제삿날 인자 심지로 해가 그때 그랬다 아이가? 심지를 해가 불로 양쪽에다 딱- 해가, 그래 제삿날 인자 판 밑에다가 탁- 불로 탁 비챠놓이께네, 그 제사를 열두 시 돼서 지내는데, 아들이 마 아들은 모르지. 엄마만 혼차(혼자) 아는 거라.

그래 인자 '우리 영감이 와서 밥이나 얻어먹고 가는가?' 싶어갖고 있으니까, 영감이 옷을 입고 쩌적거리고 오더라네. 오더만은 가마이 보더만은 뭐로 먹을라고. 할마시가 심지 불로 켜 놓고 이래 보이, 할마씨가 마, 영감이 딱- 오더만은, 옛날에 정승 옷을 입고 오더만은 앉을 자리가 없는가 이래저래 쌌더만은. 어이구, 백정이 말로 타고 막- 이래 오더라 카네. 그래갖고 마 말 그거를 갖다가 저짝에다 세아놓고 탁 오더만은 영감쟁이 그것도 막 밀어뻐리고 그래갖고 마 지가 마 제일 높은 상에 앉아가지고 마, 이거 묵고 저거 묵고 막 탁- 묵고나디 배가 부르니까, 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자식한테 절을 받고. 영감은 뭐 자식 아니니까 절도 받아도 가짜고. 백장한테 절 받고. 그래갖고 마 딱- 백장이 말로 타고 갔비더란다.

그래갖고 할마씨가 죽을 때까지 그거 말로 못하고, 그래 자기 영감이 불쌍하다 하는 그 옛날 전설의 얘기지 뭐.

[영도구 설화 314]

아이들이 무서워했던 넝마주이

176) '빼뿌쟁이'는 질경이의 방언.

설금자(여,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청학2동 학수경로당]

우리는 옛날에 가구쟁이[177] 있었대이 가구쟁이. 가구('망태기를 말함') 짊어지고, 가구 댕기는, 그런 거 짊어지고 오만, 막 할매들이,

"울지 말고. 말 안 들으만 가구 그 잡아옇어 간다."

해갖고. 우리는 가구쟁이만 보면 겁을 그리 냈다. 가구쟁이. 옛날에 가구 옇어갖고 간다 쿠대. [청중: 무서워. 이따만 해가지고.] 어, 무서워.

옛날에 가구를 이 집게가지고 집어가 뭐 집어가 던지고 이랬거든. [조사자: 이 바구니, 광주에. 그지요. 넝마주이네, 피지 줍고 이라는 거.] 그리고 또 옛날에는 잔치를 하면 막 가구쟁이들이 마 술하고, 잔치집에 오가지고 마 깡패를 부리고 안 주만. 그래가 막 술도 주고, 한 말 주고, 떡도 주고. 그래가 가고 이랬다.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랬다 참.

[영도구 설화 315]

뱀을 넣은 쑥국으로 시어미니를 봉양한 며느리

설금자(여,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청학2동 학수경로당]

옛날에 나물로 캐갖고, 쑥을 뜯어갖고 부뚜막에다 딱- 놔나놓고, 메느리가 하- 생전에 뭐를 해도 국을 낋이도 맛이 없더라 카대. 그래갖고 한 번은 쑥 그거, 옛날에는 촌에 배암이가(뱀이) 많이 있었어. 배암이 그기 소쿠리, 쑥 소쿠리 안에 들어갔다대. 팔팔 끓이는데 배암 그거하고 옇어서 푹- 고아가 국을 끓이는데,

"오늘 무슨 국이 이리 맛있노?"

카더라 쿠대. 그래가, 배암국(뱀국) 그거 옇으니까 그리 맛있더라대. 지름이(기름) 동동 뜨는 기. 그런 말이 있더라. [청중: 그래, 그 장어국하고 똑 같은 거야.] 응. [조사자: 그래갖고 보신했겠다.] 보신하고 맛있더라고. 하다(하도) '맛 없다.'고 잔소리 하더만 하루 저녁에는 '그래 맛있다' 안 그라던고.

177) 이야기 속 '가구쟁이'는 넝마주이를 말함, 넝마주이는 등에 큰 망태기를 지고 폐품을 수거해 판매해 살았던 이들로 집단생활을 했다. 달리 넝마꾼이라 했는데, 1920년대에 등장 해 1970년대 까지 있었다.

[영도구 설화 316]

영도를 벗어나면 망하게 하는 봉래산 산신

설금자(여,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청학2동 학수경로당]

여서 돈을 벌이가 나가면 안 된다. [조사자: 어딘데, 어디에 사는데예?] 여 위에. [조사자: 여 위에가 어딘데예? 봉래산에?] 봉래산 먼댕이에(꼭대기에) 그 있어. [조사자: 먼댕이에 그 누가 사는데예?] 할매당이라고 있어. [조사자: 영도 사람이 이사 나가면 안 된다고?] 영도 사람이 돈을 벌이가 나가면 그 집이 안 된다. [조사자: 다시 들어오면?] 처음부터 여 있어야 돼지. [조사자: 어떤 사람은,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사 나가면 안 된다고.]

봉래산 할아버지가 욕심이 많애갖고. 욕심이 많애가 돈 벌이가 나가는 사람은 안 된대. [조사자: 할밴가예?] 할배당. 할배당이 있고 그렇거든. [조사자: 할배당이 어디 있는데예?] 그 있어. [조사자: 할매는?] 할배당 같이. 할매도 모시놨어. 우리 앞집 아줌마는 만날 그 할배당 간다.

[영도구 설화 317]

말 못하는 며느리와 바느질 못하는 며느리

설금자(여,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청학2동 학수경로당]

옛날에 쭝찡이하고 버버리(벙어리)하고 [조사자: 쭝찡이?] 저 메느리 봐난께네, 만날 이래 쭝쭝 하는 사람하고. 버버리카마 쭝찌이가 낫다 칸다, 그래 며느리는. 그제? [청중: 예.] 쭝쭝하도 손을 가 이래가 바느질하는데, [청중: 우리 쭝찡이가 낫다 한다.]

"우리 쭝찌이 어디 갔노?"

칸다 카대. 버버리는 [조사자: 쭝찌이가 뭔데예?] [청중: 삼 이래 꼬아가이고.] 쭝쭝 는다고 한다고. 바느질로 하라고 캐냐면 만날 쭝쭝하. 감치고, 뭐 뭐 감치고 그걸 모르고 쭝쭝 한다고. 그래가 아이고이, 버버리는 평생 말도 몬 하고 이런께,

"우리 쭝찌이 어디 갔노?"

카더라 카대. 며느리, 시어마이. [청중: 우리 쭝찌이가 낫다 한다.] 쭝찌이가 낫다 캐. [웃

음]

[영도구 설화 318]

애장터 도깨비불

설금자(여,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청학2동 학수경로당]

전부 우에 돌이고, 전-부 애장터. 애장터. 애정터 말하면, 날이 꾸무리하면(끄무레하면) [조사자: 애장터에서.] 도깨비가 불이 뻔쩍 뻔쩍 그러면서 도깨비가 그러대.

[영도구 설화 319]

도깨비로 변하는 빗자루

설금자(여,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청학2동 학수경로당]

빗자루 깔고 앉지 마라 캐. 그거 깔고 않으면 그기 묻어지면,[178] 그 줄- 세가 오면(세어 나오면), 그 빗자루 그기 허재비 돼가 아무나 붙잡고 이래, 그래 홀리가지고 첨에 뛰고 그래 죽고 한다 안 합디까.

[영도구 설화 320]

도깨비에 홀린 사람

설금자(여,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청학2동 학수경로당]

178) 여자가 월경 있을 때 빗자루를 깔고 앉으면, 월경 피가 빗자루에 묻어 빗자루가 도깨비가 된다는 의미.

거는 저 된재재가 있거든. 재 거서 군인이 휴가를 가갖고 밤에 인자 간다고 갔는데, 세상 암만 봐도 사람은 없는데 이 군인을 갖다가 토깨비가 세상, 된재재 그게. [조사자: 된재재?] 응. 재가 된재재라. 복쇠로[179] 고마 군인을 세 번을 넘갔다 하더란다. 그래가 마마 아무리 찾아가서 팰라 캐도 없더란다. 없어가 땀을 짤짤 흘리고 산 넘어로 넘어간께 집이, 할배하고 둘이 살던 영감 할멈 집이 있어.

거 드가가지고 아이고 콧물 흘리고 그란께네, 군인이 막 넘어갈 정도라. 마 땀을 흘리갖고, 혼이 빠지갖고 [청중: 홀리가. 홀리가.] 그래갖고,

"물로 한 그릇 주이소."

물 한 그릇 주는데, 그거를 마시고. 자고 새벽에, 자기가 새벽 넘어도록 갔든가 봐. 군이 간께 시상(세상에) 빗자루 몽둥이밲에 없더란다. [청중: 그래.] 그기 토깨비가 돼. 옛날에 토깨비가 많았다.

[영도구 설화 321]

고려장 가면서도 자식 걱정하는 부모

윤옥춘(여, 1926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청학2동 학수경로당]

[조사자: 할머니, 어떤 데는 고래장하러 가는데 엄마가 아들 길 잃을까봐, 나무를 똑똑 끊어가지고. 길에 뿌려놓고 그렇다던데.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예? 그 있지예?]

고래장하러 갔는데, 가면서로 인자 솔잎을 끊어다가,

"아버지, 와 그럽니까?."

하께, [조사자: 누가예?] 아버지가 인자 지고 가면,

"니가 올 때 길잦아 오라꼬 그란다."

그래. [조사자: 아버지가.] 응. 아들이 그래,

"왜 아버지 솔잎을 거 하느냐?"

그라이,

"니가 내를 내삐리고 올 때, 길 찾아오라꼬."

부모는 자석을 그만큼 생각하는 기라.

179) 귀신이 사람의 혼을 빼기 위기 사람 위로 뛰어넘는 것을 말함.

[영도구 설화 322]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윤옥춘(여, 1926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청학2동 학수경로당]

어느 집에 시주하러 오이까네, [조사자: 어느 집에 누가 시주 하러 왔는데예?] 시님이 왔겠지. 그래가 오이까네,

"그래, 줄 거는 없고 뭐로, 우리 봉덕이를 줄까?"

이래 됐어. 그래가 그 아를. 종을 아무리 해도 소리가 안 나가지고 그래 그 아로 갖다 넣어가 하이 소리가 났다. 그래, 에밀레종, 에밀레종, 경주가면 에밀레종이 있어. [조사자: 여자 입이 보살이다.] 여자 입이 보살이다.

[영도구 설화 323]

죽어 뱀이 된 구두쇠 할머니

윤옥춘(여, 1926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청학2동 학수경로당]

옛날에 할머니가 메늘로(며느리를) 봐놓이 너무너무 숭악해가. 메늘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무리 쌀 쫌 주라 해도 안 주고. 그래가 그 할매 죽고나이까, 죽고나이까 구렁이가 돼가지고. 쌀 뜬 자리 딱- 꼽히가 있더래. [조사자: 그래갖고예? 쌀만 퍼면 쪼깨만, 쪼깨만 그랬지예 그지예?]

[영도구 설화 324]

오줌 누다 뱀에 음부 물린 사람

윤옥춘(여, 1926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청학2동 학수경로당]

인자 점슴참(점심참)을, 점슴 이고 가는데 오줌이 매려워가지고, 내리도 몬 하고, 올리도 몬 하고, 인제 궁디 까내려가 오줌을 누니까네, 독새가(독사가) 나와가지고 장기를 꽉 물어삤어. [조사자: 아이구 세상에. 그래가 어쨌는가예?] 그래가 모르겠다. [일동 웃음]

[영도구 설화 325]

도깨비불

윤옥춘(여, 1926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청학2동 학수경로당]

옛날에 우리 시골에 클 때, 도깨비가 불이 칠칠칠 흘리가 한 10시만 되면는 왔다 갔다 하는 거 마이 봤다. 그 산 위에. 도깨비 우리 여 골(마을) 산에 도깨비가 많앴다. 내 시집와갖고, 내 수무 살 시집온께.

[영도구 설화 326]

도깨비에게 홀린 사람

윤옥춘(여, 1926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청학2동 학수경로당]

술 채가(취해) 오면, 그래 홀리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갔다' 자꾸 이래가지고 홀리가 그래 낸중에 그 뭐 쓰러져.

한 분은 할배가 저 자앙(장에) 갔다가 술로 잡숫고 늦가 오면은 호랭이가 마 덱고 마 가시나덤불 밑으로 어디로 마 돌아 댕긴다.

온 전신이 글키고 옷 다 뜯기고 그래가, 못에 수원에는 못이 있거든. 못에 데꼬 들어가가지고 죽고 이랬어. 옛날에 그래 우리 애 때 그래. 옛날에는 빗자루, 전기 빗자루 이거.

[영도구 설화 327]

개로 환생한 어머니를 세상구경 시킨 아들

윤옥춘(여, 1926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청학2동 학수경로당]

죽어서 저승 가이까네, 오라해가지고. 구경을 몬 해가지고 그래가 개를 업고 온-데, 개 그 한 바리 들어와가 죽고도 안 나가더라 카대. 거거 엄마 죽고나이.

그래가 지게다 짊어지고 그래 온- 사방을 댕기까네, 그래 그 엄마가 화해가지고 날아갔다 안 카나. 다 잊아뿌고 모르겠다 인자.

[영도구 설화 328]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윤순옥(여, 1943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청학2동 한라청학아파트경로당]

옛날에 옛날에 아기가 하도, 인제 엄마가 어데 갔는데, 뭐 장사하러 갔는가? 하여튼 뭐 하러 갔는데, 아기가 운께네, 아기가 운께네 하도 달개도(달래도) 안 되이께네, 우니까,

"저게 호랑이 온대이, 호랑이."

호랑이 온다 캤나? 뭐라 캤노? 하마 잊아뿠어.

"호랑이가 저 온다."

이카이까네, 아기가 그래도 우니까, 우니까 뭐라 캤노? [청중: "아나 꼿감. "쿤께 호랑이가 도망갔다 했제.] 뭔 소리 들어도 잊아뿠어. 듣긴 마이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뭐,

"꼿감."

쿤께, 아가 그치니, '와, 이거 저 내보다 더 무섭은 사람이 있다.' 카면서 호랑이 내빼뿐다(도망간다) 카는 이야기가 옛날에 어디서 들었는데.

[영도구 설화 329]

호랑이와 떡 장사 어머니

윤순옥(여, 1943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청학2동 한라청학아파트경로당]

옛날에 저 엄마가 인자 떡 팔러 갔는데, 생전에 엄마가 안 오니까. 엄마가 인자 떡 팔러가가 오는데, 세가 빠졌는데, 호랑이가 와가지고. 듣긴 들어도 잊아뿠다. [조사자: 그래가지고예.]

호랑이가 아니다, 아니다. 할매가 떡을 팔러 갔는데, 산 넘어 저래 저 팔러갔는데, 호랑이가 잡아먹을라 카이께네, 할마이를 잡아먹을라 카이께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제."

이카이께네, 고마 안 잡아묵힐라고 떡 던져주고 호랑이 잡아먹었거든. 또 가다가 호랑이가 또 글케(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그카다 보이께네, 떡 다 호랑이한테 다 뺏겨뿌고. [웃음] 할마이는 잡아믹힜다 카든가 우옛뿌고. 잡아믹힜제?

그래가지고 인제 호랑이가 아들 집으로 왔어. 와가지고 아들이 자꾸 방안에서,

"엄마, 왜 안 오노?"

하고, 기다리고 울고 있으니까, 호랑이가 인자 내리와가지고 인자, [청중: 햇님과 달님 이야기 아이가.] 그래가 호랑이가 내리와가지고 인자,

"내가 너 엄마다."

캤다 카나? 뭐 카매.

"그럼 울 엄마면 손 한번 보자."

카면서, 손을 문에다 이리 내미께네, 이래 보이께네 저저 아들이 보이께 털이 있단 말이지. 그래놓이,

"울 엄마 손으는 털이 없는데 왜 털이 있노? 엄마 손 아이다."

카고, 이라이까네, 또 뭐한다 하든가 들어도 잊아뿠다. [조사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예?] 그것도 들었는데 말캉 잊아뿠다. [웃음]

[영도구 설화 330]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윤순옥(여, 1943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청학2동 한라청학아파트경로당]

옛날에 그 뭐 그 집에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한 집에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인제 손자가 볼 때 자기 아버지가 저 할아버지를, 인제 칠십 육십 되면 옛날 고래장 했잖아

요. 지게다 짊어지고 할아버지를 돌아가셨는데, 산으로 자꾸 가가 산으로 지게하고 고 갖다 할아버지를 고래장 하는 기라. 그래 하고 내려오니 아들이 가만 보디, 손자 아니가? 그리 되면. 손자가 보이께네,

"야, 울 아버지도 돌아가시믄 저렇게 지게 져다가 갖다가 고려장 해야겠다."

그런 말이 있대요.

[영도구 설화 331]

단칸방에서 몰래 나누는 사랑

이정숙(여, 19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청학2동 학수경로당]

방이 하나뿐이고 그래갖고 막- 옛날에 이불이 우숭우숭하이 누우자면,

"좋나? 좋나?"

커면,

"좋다 캐라." [일동 웃음]

그라거든 옛날에. 옛날에 그쟈? 그 소리를 어른들이 막 듣고. 들었다 안 하더나.

[영도구 설화 332]

호랑이 목에 걸린 비녀를 빼준 사람

황순란(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청학2동 한라청학아파트경로당]

그것도 어떤 사람이 뭐 어디 가다가 그랬나 우예가지고. 그래 산에 바위가 큰 바위가 있는데, 호랑이가 그 탁 앉아서 입을 딱 벌리고 이랬거든. 그래 나무하러, 나물 캐러 가는 아주마들이 올라가니까 그 호랑이 있으니 나물도 못 뜯고 내려왔단 말이다.

내려와가이고 그 나무하는 아저씨가 겁이 없어서 그 올라가니까, 호랑이가 입을 탁- 벌리가 있는데, 잡아물라꼬 입을 벌린 게 아이고, 입안에 뭣이 들었다 이런 뜻으로 입을 벌리고 있더라 캐.

그란께 이 나무꾼이 다시 쳐다본께, 호랑이 입에 비녀가 이래 탁- 가로질러가 있거든. 목에. 그라니까 '아, 저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묵었구나.' 그래 싶어서 비녀 그거를 싹- 빼줬다 캐. 빼주이까네,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진 안 하고 이리 목을 끄떡끄떡 함서 고맙다고 그래가 지고 가더래요.

호랑이 밥이 되면 호랑이한테는 짐승이 보이는 기라. 사람이. 그렇고. 그기 호랑이가 잡아 물 사람이 아이몬 절대로 안 잡아무. 사람은 안 잡아무. 짐승이 보이면. 개가 보이든지. 그 무슨 짐승이, 지 잡아묵는 짐승이 보이면 그 사람을 잡아묵는다 캐.

[영도구 설화 333]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황순란(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청학2동 한라청학아파트경로당]

그런 얘기가 있어. 배 타러 저- 원양선을 타러 몇 년을 갔는데, 돈은 내 인자 집으로 와. 집으로 오는 그 돈을 가지고 메느리가, 시엄마가 봉사라. 봉산데 죽을 판이라 봉사가. 막- 이래 몬 뭈어(먹어서).

근데 이 메느리가 저 물 꼬랑에 가면 물 없는 꼬랑을 파면 지렁이가 기다라이(긴 게) 많이 나와. 촌에는 옛날 지렁이 천지거던. 그래 지렁이를 파다가 약단지 촌에 또 약단지 이런 거 항아리 쪼매난 게 있었어. 그따다가 삶아가지고 내 조석으로 그 국을 드리.

그 국을 이래 딱 한 번씩썩 해 주께네 이 봉사가 되노이 뭐를 뭣인지도 모르고 무보니 고참 맛있거든. 그래 그거를 멫 년을 먹었어요. 아들 오도록까지 묵었는데. 아들이 멫 년 있다 왔는데, 아들이 오는데 그 인자 지렁이국을 이제 아들 올 때 몬해줘. 살짝 해줬으니까. 그래 몬해주고 딴 국을 준께, 시어마이가 인자 이 봉사가,

"내 묵던 국이 아이네. 이거 안 물란다. 묵던 국을 가오이라. 어제 내 묵던 국이 맛있는데. 와 이거를 주노?"

자기는 입에 딱 맞았어.

"그래, 국이 무슨 국인고? 엄마 자시던 거 그거를 드리지. 와 요 국을 드렸노?"

이래 쿤께네,

"아이, 그 국이 없어서 그란다. 그 국을 해가 난중에 드릴게요."

이래 캤더니만, 그래,

"그 국이 뭣이냐?"

꼬, 신랑이 묻거든. 물은께네, 이제 거짓말도 몬 하고, 그래 지렁이를. 그래 그 영감 그 국 묵기 전에 할매가 몸이 불었고 눈이 마 탁 안 보이도 참 얼굴이 좋아졌어. 죽기가 된 사람이.

그래 '마누라가 뭘 해줘서 저래 울 엄마를 살려놨을꼬?' 싶어서 이 배 타러 갔다 온 사람이, 아들이 걱정이라. 가마이. '그래 엄마가 무슨 국을 먹건대 그 국을 또 가오라 쿠시고 저 마누라 문 닫고 나중에 해주꾸마 쿠고.' 오면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본께, 그래 마누라가,

"가고난 뒤 하도 해줄 게 없어서, 그래 누가 동네 어른들한테 들으니까, 지렁이가 그래 사람한테 좋다꼬. 그래서 그거를 삶아가이고, 잡아다가 내- 삶아 믹있다. 그랬다."

꼬. 그래,

"약단지 요래 갖다 놓은 거 요 삶아 먹있다."

이래 그러께네, 영감이 알고 뭐라 쿠는 기 아니고 그 사람을 상을 주더래요. 엄마이 참 공경을 잘하고 그래 했다꼬. 그래 그런 얘기가 있대 옛날에.

[영도구 설화 334]

치매로 아버지를 죽인 사람

황순란(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청학2동 한라청학아파트경로당]

치매가 있는 사람이, 옛날에 치매가 있으면 정신병 환자거든. 정신병 환자다. 그래 저저 그 아즈매(아주머니)가 아들이 인자 치매가 와서 정신병 환자라. 지금 말로 하자면. 옛날에는 정신병 환자라꼬 안 하고 미친병이라 했거던. 미친게이라 안 했나.

미친개이인데, 그 어마이가 이우지(이웃에) 놀러갔다가 뭐 점섬(점심)을 잡숬고 실컷 잡숬고 방에 누워가 있으께네, 아, 어마이가 누워가 있는 게 아이다. 아버지가 누워가 있고 엄마는 이우지 가서 놀다가, 실컷 놀다가 온께네, 저 어매를 보고 탁 뛰 나옴시러, 도끼를 가지고 탁 나옴시러,

"방에 개가 한 마리 있어서 잡아놨다. 뭐 개 잡아놨다."

아이고 어마이가 머리가 똥금하거든(뜨금하거던). 이 아들이 병이 그런 병이 있는데 '아버지를 우째 했는 갑다.' 싶어서 도끼를 가 나오니까, 그래 방아(방에) 들어가 보니까 직이놨더래요. 개라고 자기 눈에는 개로 보있는 기라. 그래 그리한 것도 옛날에 있었던 갑다.

4. 중구 설화

[중구 설화 1]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금자(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대청동 대청공원원로의집]

그래 손지가, 아들이 손지를 덱고(데리고) 할배로 모시고 갔는데, 거서 인자 아버지를 거다(그곳에) 내삐리고(내버리고), 지게를 버리고 가이께, 그래 손지가,

"아버지, 그 지게 와 내삐리고 갑니까? 나도 난중에(나중에) 아버지를 버리야지요. [웃음] 집에 가서 버리야지."

카이께, 그래가 그때부터 지 고래장(고려장)이 없어졌다대.

[중구 설화 2]

개로 환생한 어머니를 세상구경 시킨 아들

김금자(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대청동 대청공원원로의집]

항상 집을 몬(못) 잊어가지고 이 할매가, 만날 집만 지키는, 어디 놀러도 몬(못) 가고, 안 가고. 만날 집만 지키고, 집만 지키고. [청중: 개라 하겠다. 개.] 응. 어디로 가도 몬 가고, 딴 사람 다 가도 자기는 안 가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할매가 돌아가시고 나이께, 그 집에 개로 태어난 기라. 개 새끼로.

그래 개, 할매가 개로 태어나가 그 인자 밥을 채리노몬(차려놓으면), 개를 갖다 주나노몬(주어 놓으면) 할매가 또 밥, 개가 밥을 다 묵어갔부고, 또 채리주몬 또 몄부고 이래.

그래 어데 누가 물어보이께,

"어머이가 집을 몬 잊어서 개로, 그 집, 집 지키준다고 개로 태어, 개로 개 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부모로 모시고, 개로 인자, 자기 엄마로, 만날 구경도 몬 댕기고 핸께네(했으니까), 개를 덱고(데리고) 인자 어더어더로 유람시키고. [청중: 돌아댕긴다.]

[중구 설화 3]

후처가 와서 자꾸 말라가는 본처 아들

이공자(여, 1936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대청동 대청공원원로의집]

나는 옛날에 메느리(며느리)가 인자 죽고 딴 사람이 들어왔는데, 아가 한나(하나), 머시매 한나 있는데, 머시마가 이쁜 머시마가 자꾸 말라. [조사자: 말라. 아바이가(아버지가), '아하 왜 이렇게 아가 말르까(마르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되다.

옷을, 이래 옷을 옛말에 소캐(솜) 놔서(놓아서) 입힌다 아입니까. 소캐 놨는데 있다. 입응께 옷을 한 번 소캐를 인자, 암만 다 입어도 소캐를 한 번 뜯어가 본께, 그 옛날에 그, 삐비(삘기) 안 있입니까. 우리 뽑아 보드랍우몬(부드러우면) 뽑아 먹는다 아입니까. 그 삐비 뽑아 무몬. [조사자: 아, 필기(삘기).] 예, 예. 그 삐비꽃을 피몬, 그게 꽃이 핍니다, 피고. 예. 그 꽃을 뜯어갖고 여어 소금에다, [말을 바꾸어] 솜에다 놔논께, 아가 그게 말라가지고 그래가 발견이 돼갖고.

'아휴 아가 어마이 버려야 되겠다.' 아(아이) 이거 삐비를 훑었다고 해서 옷을 갖다 소캐다 나가(넣어서) 놔논께 아가 그 말라가. 그기 마래이 말로,[180] 우리가 논에 들어가며는 거머리가 문다 아입니까. 물에서 피가 나며는, 피가 나며는 그 삐비꽃을 갖다 떠다 붙이면 피가 딱 끄칩니다(그칩니다). 예. 피가 딱 그칩니다. 그래 그런 꼴을, 그런 얘기를 한 분(번) 들어봤어요.

[중구 설화 4]

자기 새끼 귀여워하는 것을 아는 호랑이

이공자(여, 1936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180) '마래이 말로'는 '흔한 말로' 또는 '말하자면'의 뜻인 듯하나,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대청동 대청공원원로의집]

나무바구니를 집어떤지고(집어던지고) 도망을 도망, 밤에 싸악 갖다 그 집에, 신발 그것도, 신발도 벗구 막 도망을 오몬, 신발이랑 나무바구니랑 그 집에 따악 갖다 놔 도이(놓아두어).

[조사자: 옛날에 어데, 어데, 어디 산에 뭐 하러 가가지고.]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 옛날도 아인데, 저 대흥사,[181] 대흥사 산에 나물을 하러 갔어예. 나물을 하러 갔는데 인자, 금방 호랑인 줄도 모르고, 똑 고양이말로(고양이처럼) 커갖고 꼬랑지가 치렁해갖고 나무에서 철철철철철 내려오는 거라서.

"아이고, 돌산댁. 고양이가 저럼 저러케 내러와이 하는데."

"아이고, 거 큰일났다. 아무개 메느리 인자 잡아갔다."

내러갔다 그라고, 큰일났다 하고 이런데, 그래도 그거 내 밥이 안 될랑께, 자기가 자다 안 될라 안 잡아가고 찰찰찰찰 해갖고 마 도망가뿠는 기라.

[중구 설화 5]

제삿날 정성 들인 아들 집을 찾는 아버지 혼령

이공자(여, 1936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대청동 대청공원원로의집]

그게 소 잡고 돼지 잡아도 못 먹고, 음밥만 못하(못해) 오몬(오면). 거기 멀크댕이(머리카락) 들어가서. 그 집에 소 잡고 돼지 잡아도 음밥도 못 했는데.

작은아들 집에 몬(못) 살아가지고, 맨날 죽을 쒀갖고 먹는데, 만날 제사를 모시러 가는데, 여자도 마음이 죽 한 그릇 더 떠들라(떠드리려고) 하더라네. 하도 상에 딱 낳아,

"아부지는, 나는 제사 지내러 못 가니까 메밀 죽이나 이놈 잡수고 가이소."

하고 간께, 그 메밀 죽을 잘 먹었다고. 그 집에 와서는 소 잡고 돼지 잡아도 큰아들이니까 몬 먹고, 구렁이 뜬다 해가 몬 먹고 왔다고 그런 말도 있었어예.

[중구 설화 6]

혼령의 환생을 알게 하는 멥쌀 표식

181) 대흥사는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유명 사찰이다.

이공자(여, 1936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대청동 대청공원원로의집]

저녁에 밥을 할라 하면은 멥쌀을 일찍이 딱 물에 넣어 노은다(놓는다) 아입니까. 놔두고 안직(아직) 멥쌀을 안 하고 있으몬. [청중: 거기에 발자구가(발자국이) 딱 찍히가 있습니다.] 따악 이래 놔두고 있으몬, 발자구가 딱 찍히가 있습니다.

"아, 이걸 개가 됐구나."

요래가, 그래서 개처럼 발자구가 찍혀졌다고 그렇게 말이 있었어예. 밥그릇에다는 안 하고, [청중: 밥솥 안에.] 밥솥 안에가 아이고. [청중: 밥 펄라몬.] 멥쌀에도 저녁에 밥을 할라고, 거 멥쌀을 할라고 마 미리 딱 놔둔다 아입니까. 그 밤 씻고, 요 밥자리에 요 한 솥 딱 주빈 자리 깔아놓고 멥쌀 놔 둔다 아입니까. 멥쌀에다 그 발자구가 딱 찍힜다고 그라더라. 그래 '개가 되었는갑다.' 그래. 예.

[중구 설화 7]

저승 가서 남편 보고 살아온 부인

정동민(여, 1937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대청동 대청공원원로의집]

아니 이거는 내 실지(실제) 이야긴데. 우리 제종 시누가 시집을 갔는데, 시어무이(시어머니) 시아버지, [갑자기 생각나서] 아, 시어무이가 돌아가싰다대.

돌아가시가지구 그래도 요거는 빠딱빠딱 하이까 팽풍(병풍) 뒤에 나둤는 기라. 팽풍은 쳐 놓고. 놔둤더마는(놓아두었더니만) 삼 일 만에 깨나더라든가, 깨났는데. 허우, 그래 팽풍이 뭐 일렁 해서, 들시(들추어) 보이까 깼더래요, 할매가. 할매 깨서,

"허이구! 우리 엄마 깼다."

고 모두 난리 직이다이까, 그래 할매 하는 말이,

"내가 저승인가 뭔가 어데 가긴 갔는데, 응 너거 아부지로 봤다. 너거 아부지를 봤는데, 너거 아부지는 장가 갔더라." [일동 웃음]

장가로 갔는데, 응 마누래가 요는 억수가 한치고,[182] 쫄쫄쫄쫄 불로 때다가 부엌에 밥을

182) "억장이 무너지고"의 뜻으로 말한 듯하다.

하다가 내도(내다) 보더마는,

"저 사람이 누고?"

이라이까, 염라대왕 한단 말이,

"아, 옛날에 우리 집 밥해주던 사람이다."

[웃음] 그래, 그래뿠다 하대예.

[중구 설화 8]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정동민(여, 1937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대청동 대청공원원로의집]

그 메느리(며느리)가 참 그게, 그거 해서, 그래가 그 지렁이를 잡아갖고 그 시어마이(시어머니)한테 그래 대접을 했다 카대.

그래가 그 지렁이를 문께네(먹으니까) 마,

"그 뭐든지 좋다."

카대. 다 좋다 카더라고. 그걸, 그 지렁이 잡숫고. 그래갖고,

"이기 뭣인지 이거를 해주는데, 이렇게 저 내가 먹고난께 좋다."

카매 내비는데(내보이는데) [웃으며] 지렁이더라 카대.

[중구 설화 9]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정동민(여, 1937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대청동 대청공원원로의집]

애가 하도 울어싸서, 아무리 달래도 안 되는 기라. 안 되이니까, 저거 엄마가 있다가,

"저, 니 마이(많이) 울모(울면) 호라이(호랑이) 온대이."

이라이고. 그래도 안 그치거든. 안 그치고 암만 달래도 안 되니까,

"어이, 그럼 꽂감(곶감) 무까?"
하이께, 아가 뚝 그치더래요. 그러이, 그래 호래이가,
"[웃으며] 꽂감이 무서워서, 꽂감이 내보다 더 무섭운(무서운) 사람이 있구나."
해가지고 그래 도망가더래요.

[중구 설화 10]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한상경(여, 1936년생) 구술
2019년 1월 2일 채록
[대청동 대청공원원로의집]

그거를 잡수니까 살이 찌더래요. [조사자: 응, 살이 쪄.] 지러이(지렁이). 그래서 아들이 오니까,
"야야, 이기 뭔고?"
자리 밑에 들시이(들추니),
"이기 뭔고? 이거를 무이카(먹으니까) 내가 살이 찐다."
이런께,
"그래, 뭔고 한 번 봅시다."
캐가, 자리 밑을 들시(들쳐서) 척 보이주는데 지러이더래.
그래 메느리가 그래 해주더래요.

[중구 설화 11]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강숙자(여, 1937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대청동 대청만우원로의집]

제가 듣기로는, 거 고래장(고려장) 얘긴데, 나이 칠십만 되면 원래 고래장을 한답니다. 하이튼 옛날에는 그때는 풍속이 그랬는가배(그랬는가봐). 그건 잘 모르지만. 그래 하는데, 그 하이

튼 참, 한 노인이 진짜 칠십이 됐어. 인자 아들이 인자 갖다 버리야 되잖아요. 고래장을 갖다가 어딜, 산으로 버리야 되는데, 그래 인자 참 진짜,

"어머니, 오늘 갑시다."

이래가지고 지게를 지고 마 이래 갔, 산쪽으로 어더, 어더로 고래장 하는 쪽으로 갔다고 얘기하대예. 하민성(하면서), 가민성(가면서) 그래 인자 그 업고, 업히 가는 엄마가 솔잎을 뜯어가지고, 솔잎을 뜯어가지고 인자 가는 길에 이렇게 흩쳐, 흩쳐놨다 하대예. 흩처남성(흩어놓으면서) 거기서 인자 그 올라감성(올라가면서), 그 올라감성,

"너무 힘든다. 으엉."

아들 보고 너무 힘들제 함성 그래갖고 얘기함성 올라가가지고 인자 참 고따다(그곳에다가) 갖다 고래장터다 갖다, 갖다 놓고 인자 내러오는데, 그리 저저 뭐꼬, 그래 가가지고는 인자,

"내가 니 길 잃을까 싶어갖고 솔잎을 내가 뜯어갖고 이렇게 길에다 흩처 놨으니까 그거 보고 바로 잘 찾아가라."

고 엄마가 그렇게, 그렇게 부탁이로 했는갑디예. 하니까 아이구, 그래갖고 그래 마 거서 인자, 사별을 한다 아입니까. 진짜 [웃으며] 하이튼 그렇게 해갖고 내러오는데, 그래 인자 저저 뭐꼬, 아들이 뭐 따라갔는가, 뭐 누가 따라갔는가 마 아들이 그래, 손자가 따라갔는가 [웃으며] 아, 손자가 따라왔겠지요. 따라가가지고 그래 인자 아버지가 그 지게를 버릴라고 올라고 하니까, 그 손자가, 따라간 손자가,

"가주 가야지, 왜 버리고 갑니까?"

그렇게 했어. 그런께,

"인자 뭐, 이거 필요 없으니까, 가면 힘들고 하니까 마 그냥 가자."

이래 하니까,

"아이, 아부지도 저저 연세가 많으몬, 나이 그만 하면은 아부지도 갖다 버리야 되는데, 그 지게를 왜 버리고 갈라 하느냐? 그 지게를 갖다 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갖고 내려갔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 있는 갑더만은. [웃음] [일동 박수]

[중구 설화 12]

애장터 도깨비불

강숙자(여, 1937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대청동 대청만우원로의집]

그래 인자 내가 어렸을 때지. 그래 인자 오줌 누러, 전에는 오강을(요강을) 갖다가 저저 뭐꼬 마루청에다 갖다 놔 놓고, 마루청에다 놔 놓고 인자, [조사자: 볼 일 봤지.] 예. 오줌 누구 이러길래, 그거 뭐꼬 그 방에도 밤에 자고 화장실을 못 가고 요강을 갖다 놓고 눴는데.

그래 밤에 그때 한, 내가 생각할 때 누우 잘 때쯤 됐나 봐요. 잘 때쯤 됐나 봐요. 근데 인자 오줌 누러 나왔는 거라. 오줌 누러 인자, 마루청에 오줌 누러 나와서 인자, 이래 앉으몬 저 허어던(하여튼) 저쪽 동네가 환히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인제 불이, 그때만 해도 호롱불 아입니꺼. [조사자: 그렇지요.] 깜빡깜빡하이, 약간 보일 동 말 동 막 이렇거든. 이런데 그거 산, 그 인자 동네는 요만치 있으몬, 이마치 산 우에, 산 우에 인자 밭도 있고 논도 있고 뭐 하이튼 밭이 이래 쭉 있어. 그 산, 산 쪽으로 밭이 있는데, 밭 있는 우에 보면은 이, 지금은 머들 같은 거 그냥 돌을 착착 있는 그런 산이 있어예. 근데 돌이 인자, 큰 돌도 있지만도 자잔한 돌도 있고 마, 돌이 이리이리 쫘악, 돌이 이거는 산 쪽으로 이리 하연(하여튼) 그거 산이 있거든예.

근데 요쪽 밑에 그쯤 돼서 인자 오줌 누고 짚어(싶어) 앉아 있는데, 불이 커다란 불이 그때부터 인자, 호롱불이 요만한데, 그거도 불이 멀거든예. 불이 하이튼 요만해. 불이. 요만 등거리불, 응 등거리불 겉은 기 딱 있더라고. 있는데, 이래 이런께,

"할매, 할매. 저 불 있다. 불 있다."

내가 그랬거든. 불 있다 이랬더마는, 그래고 인자 쫌 있다 보니까, 불이 그기 마 이리 짝 한 줄 가고, 저리 쭉 한 줄 가고 이런데, 이래 짜악 해지. 이래 흩어지더라고예, 불이. 그래 흩어지더만은 마악 흩어짐서(흩어지면서) 저리 가는 거라 불이. 파바박 가더라고. 막 그냥 요새 불꽃놀이하는, 그런 그런 식으로 불이 쫘악 헤어져서 가더마는, 아이고 쫌 있으니까 어딨더노 또 요래 짝 모이드는 기라예. 모이 뒀다 가는 긴데,

"할매, 저게 무슨 불이야? 무슨 불이야?"

내가 그랬거든. 그런께네,

"도깨비불이다."

이라더라고.

"거는(그곳에는) 인자 애장터가 있다."

함서, 그때만 해도 애장터가 있는데, 그 도깨비불이다, 불이 있다 함성, 그런, 그런 얘기도 듣고.

[중구 설화 13]

도깨비에게 홀린 사람

강숙자(여, 1937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대청동 대청만우원로의집]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 한 다섯 살? 다섯 살, 여섯 살 정도 됐다 하더라고. 됐는데, 그 인자 외갓집이 인자, 그 우리는 이쪽 동네에 있으몬, 외갓집 동네는 저 밑에 동네거든예. 저쪽에 건넷 동넨데. 근데 외갓집에 인자 가가지고 인자 여름인데, 평상 이러게 놔놓고, 저 마루에서, 막 누우자고, 잠을 자고 이라는 갑데예. 평상에서도 자는 사람도 있고 또 마루청에서 자는 사람도 있고, 인자 여름인데, 누우자면 자는데, 인자 그때만 해도 사립문, 그때는 저 외갓집 거 보면은 우리, 인자 아버지 외갓집이지. 사립문이 인자 이렇기 문이 있어예. 사립문을 갖다 찍 이래 해 낳고 이래 열어놓고 이라거든. 이 인자 밤 되몬 그 사립문은 닫아버리고. 그 그, 저 뭐꼬 인자 아침에 일어나몬 열어놓고 이라거든. 이 엮어갖고 달아 그 문을.

근데 인자 그 그날 지녁(저녁) 주무시는, 누우잤는데, 하이구 밤에 인자 한, 그랑게네 지금 겉으몬 한 다섯 시나 되겠지. 날도 안 새고 마, 날 샐 동 말 동 하고. 날이 그 안주 안 샜을 땐데, 마 밖에서 마악 인자,

"삼촌, 삼촌."

하고 부르는 소리 나더래예. 누우자매 아침 새복(새벽)인데, 마악 부르는 소리가 나서 아이 나가보니까, 아부지가, 우리 아부지 인자 우리 아부지지. 그 사립문도 나갈 틈도 없는데, 그 밖에 나갔다가 옷이 홈빡 젖어가지고 들어오더, 들왔다 하대예. 들어와서, 인자 들왔는데, 그래 보니까 아가 마 완전히 고마 파짐치(파김치)가 돼갖고 돌왔는 기라. 막 버벌벌 기갖고 옷이고 뭐고 물이고 뭣이고 엉망진창이 돼갖고 들왔답니다. 벌벌 기갖고. 그래 들어왔는데, 그래 그 그래,

"우예, 어데 갔다 오나?"

그런게네,

"하이튼 어찌 간 지 모르지만."

그 인자, 그 동네 가운데 올라갈라 카면은 이 저, 이런 지금겉으모 뭐고? 이거이 뭣이고? 이렇게 돌하고 싸가, 싸가지고(쌓아서) 맨들어난 기 있어. 나뭇단, 큰 나뭇단 탑겉이, 탑겉이, 돌탑겉이 인자 이렇게 맨들어 놓오몬. [웃음] 돌무더기로 모아놔, 그 어째서 뜻이 있어. 그기 인자 모아 놨는데, 그 쪽에 꼬랑이(도랑이) 물이 졸졸졸졸졸 동네서 내려오는 물이, 꼬랑이 있었거든. 물이 졸졸 내려오는 고랑이 있고, 그때만 해도 인자 농사 지이갖고 그 모심기 해나 놓고 그랬다 하더라고.

근데 인자 아이고 거 인자 가서 콕 처박히가 있었는가봐. 그래갖고 정신을 채리갖고 일어나이까 아홉 살 때라 카더라. 아홉 살 때. 정신을 채리고 일어나니까 물은 쫄쫄쫄쫄 내려가고 거 가가 있더랍니더. 그래 가가 있어예. 그래갖고 마 허둥지둥하고 막 부랴부랴하고 딱 쫓아

와가 집으로 찾아가긴 찾아갔어. 찾아갔는데, 그래 찾아갔는데 세사(세상에) 옷이고 뭣이고 마 엉망이 되어가 있더란다. 물에 빠져가지고 마. 물 뭐 포옥 빠지가지고 그 구녕에 콕 쳐박히, 이런 틈에 콕 처박히갖고.

[조사자: 도깨비한테 홀맀는가배.] 예. 홀리가 마 어쨌는고 그건 모르겠어 하이튼. 그래갖고 가가지고,

"응, 그래 가가지고, 그래 거 갔다가 왔다."

캐. 우리 집에 와서 기억을 하니까,

"거 있어서 내가 찾아왔다."

이렇기 말하더라대예.

[중구 설화 14]

개똥을 씻어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강숙자(여, 1937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대청동 대청만우원로의집]

참 때가, 땟거리가 없어가지고, 참 진짜 시어머니가, 옛날에 뭐, 이래 몸이 안 좋아갖고, 아파갖고 누워가 있었는데. 땟거리 할 기 없어가지고, 그 왜 옛날에는 개가 보쌀(보리쌀), 보쌀 [조사자: 보리쌀.] 보리쌀을 묵고. 보리쌀을 그 담에 내놓는갑대.

이런데 방, 보는데 보리쌀을 먹디마는 그대로 나오는 기라. 그 보리쌀 거 갖다가 건지가지고 그놈을 싸악 씻거가지고(씻어가지고) 그 죽을 끓이갖고 저저 뭐꼬 시어머니 믹있더마는(먹였더니만). 그런 말도 있더라대예.

[중구 설화 15]

단칸방에서 몰래 나누는 사랑(1)

강숙자(여, 1937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대청동 대청만우원로의집]

저저 뭐꼬, 참 단칸방에 옛날 이만한 방에 참 자는 식구 많다 아입니꺼. 식구 마이(많이) 이래 자는데, 인자 딸이 보고 싶어서 딸네집에 인자 할매가 갔다 하더라고.

갔는데, 근데 딸이, 딸네집에 갔는데 인자 장모가 있을 땐 좀 참으면 되잖아요. 참을 수 없는가봐. [조사자 웃음] 그래갖고, 저 저 뭐꼬 저 밖에서, 저쪽에서 인자 저 인자 딸이 자고, 사우는(사위는) 인자 참, 요 안에는 저 아들이 인자, 참 저저 뭐꼬, 여자가 아마 아, 저거 딸이 자고 저 밖에서는, 저 바깥쪽에서는 인자 사위가 자고 이랬는가 봐.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생각나모는, 그래 인자 생각난께네, 아들 복판에 쪼옥 재아놨잖아요, 재아나서 못 가몬 인자 그 생각이 나갖고 막 이렇게 더듬어 더듬어, 더듬어가지고 캄캄, 온 밤에, 밤에 억수로 캄캄하지예 진짜. 불도 없고 마 시골이 되난께 불도 없고 그렇다 아입니꺼. 어두워서 갖고 인자 살살 더듬어서 이리 이렇게 밑으로 인제 가서 봐요.

인자 발자죽 저 뭐꼬 발 쪽으로 살살 갔는데, 그런데 또 참 일로 보몬, 또 인자 살살 돌아오는,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갖고 사우가, 참 저저 장모가 인자 혹시 일나가지고 인자 벽에다 이래 타악 붙어 앉아 있었는가 봐. 또 인제 저리 오지 싶어갖고. [일동 웃음] 거 딱 붙어 있으니까 인자 갈 때는 이래 가다가, 사우가 올 때는 또 일로(이리로) 오노. [일동 웃음] 그래 일로 오면서 그냥 마 바지도 올리도(올리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더듬어서 일로 오니까, 진짜 장모 입 실쩍(슬쩍) 거치가지고(거쳐서), 거치 가가지고 저 뭐꼬, 사우 거, 사우 것도 자기가 한 분(번) 입으로 빨았다 카더란다. [일동 웃음]

[중구 설화 16]

단칸방에서 몰래 나누는 사랑(2)

강숙자(여, 1937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대청동 대청만우원로의집]

또 옛날에 그래갖고 자는데, 여럿이, 여러 분 자는데 인자, 그 아 둘인데,

"일나서(일어나서) 방이 추워서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군불 때라."

아침 일찍 깨아갖고(깨워서) 아들을 군불 때러 내보냈는가 봐, 아부지가. 그래 아부지 시기니까(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아입니꺼. 그래 아부지 시기니까 가서 군불 땐다고 인자 밖에서 나갔어, 둘이.

"그냥 같이 가서 불 때러 가자."

이래 보냈는데, 그동안에 인자 일을 보는 기라. 일로 보는데, 그렇게 군불 한참 때다가 문을 열고 들와보니까, 저거 아부지가 저거 엄마 우에가 올라와 있거던. [일동 웃음] 그런께네,

"행님, 행님. 불 고만 때라. 지금 방이 뜨거와갖고 엄마가 아부지 우에 올라갔다." [일동 웃음]

[중구 설화 17]

도깨비에게 홀린 사람

김애자(여, 1942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대청동 대청만우원로의집]

아이고, 우리 사촌 오빠는 거기, 날만 궂으면 고기(그곳에) 오기가 그렇게 험해. 험하니까, 고기서 그래 씨름을 다 해서 그거 하고, 그 불 키고(켜고), 불을 퍼썩퍼썩퍼썩 펴서 앞으로 간다네. 그거한테 지면은 고마 그 산을 끌고 간 거 아침에 일어나 보몬 산에 가다가 거 까시덤불 고기다가 처박아 놓고 갔대.

우리 사촌오빠가 그런 거를 많이 겪어요. 우리 쬐꺼말(조그만 할) 때. 그래 얘기를. [조사자: 홀맀네.] 예, 홀려가지고. [청중: 그랬구나.] 또깨비 홀린 적이 참 많아요. 우리 사촌오빠가. 그 공, 저기 어디 일하러 갔다가 밤 좀 늦게 와요, 저녁에. 그니까 그때, 인제 날이 궂으며는 그냥 앞에서 알랑알랑알랑 간대요. 그래 그런 얘기를 마이(많이) 듣고.

우리 또 큰오빠가, 우리 큰오빠는 아주 그러는 사람하고 살다시피, 뭐 앞에 갈라 하몬 하-얀 소복을 입고 아줌마가 살래살래 설 간다. 확 담뱃불을 들고 기침을 하고 이래 가모 언제 사라졌는지 없대. 없대요.

그 왜 글냐고, 우린 이쪽에서 사는데, 산을 하나 넘어가몬 바닷가 쪽에 논이 있어. 그래 수문을 봐야 되는 거라. 우리 오빠가. 물이, 물이 마이 들오몬, 그 밀물이 심할 때몬 그 수문을 차고 들오니까 수문을 열어놓지 못해. 농사를 지어가, 그걸 열어서 물을 빼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요. 그니까 인자 밤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그 수문, 수문 땜에. [조사자: 거서 또깨비를 봤다.] 예, 수문 땜에.

그래모 가다 보면은 여자가 하아얀 소복을 입고 카-악 간대 그냥. 막 가고 우리 오빠는 머리가 힛죽 선다 그래 얘기를 해. 그러면은 막 담뱃불을 피고, 또 기침을 확 해가면서 그래 간대요. 그러면은 언제든 없어지는지 없어진대. 그 여자가.

[중구 설화 18]

저승 갔다 살아난 사람

김애자(여, 1942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대청동 대청만우원로의집]

아들이 뭐 뭐 어쨌다더라? 하이고, 그것도 하도 오래 되몬, 멫 수저(수년) 되나이 잊어삤어요. 근데 아들만 덱고(데리고) 사는데, 그렇게 아들 덱고 사니까, 그 아저씨는 없고, 아들 덱고 사는데 그 아들을 데려달라고,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해도 나중에는 그래 갖고 그 아줌마가 정신을 채려갖고 사람을 불러댔대. 그래갖고 같이 살고. 이래서 괜찮았다면서 그런 얘기.

자기네는 실제로, 저기 저승까지 갔다 왔다 하더라고. [조사자: 그래 가니까 어떻던고?] 가니까 진짜 저승같이 사람이 죽어 있고. 죽어서 이렇게 있는데, 옹기옹기옹기 이렇기 있더라 하면서. 그래 자기를 끌어안고,

"아직 올 날이 멀었단다."

하든가, 그래가지구 자기가 어떻기 살아 나왔는데, 그 얘기를 아주 심각하이 해주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워낙 오래 되이.

[중구 설화 19]

죽은 사람들의 혼불

김애자(여, 1942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대청동 대청만우원로의집]

산이 하나 있어요. 산이 있는데, 고 우리 거기는 배 댕기는 데가 아닌데, 배가 한 분(번) 오다가 그 어디로 간다고 지나갔던가 봐 글로(그리로). 근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마 이 배가 엎어져버렸어. 엎어지이까 그 산에 칡넝쿨을 잡아땡겨가지고 살아난 거야.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 죽고 살은 사람 살았는데, 그 강변에 가몬 죽었다 해도, 사람이 죽어나이까 밤에 가몬, 우리 같은 사람 모르는데, 우리 아빠는 오면 거기 논이 있기 때문에 수문을 보러 가. 밤중에고 마 새복이고(새벽에도) 막 가는 거를. 그 사람들 죽은 지는(데에는) 불이 퍼쩍퍼쩍퍼쩍 한대요. 그래 사람 소리가 우르르르, 사람도 안 사는데, 바닷속에서. 바닷속에 산이 하나 있어요. 어, 이케(이렇게) 강변하고 얼마 안 떨어지게 산이 있는데, 고기서 딱 떨어졌는

데 찌거리 쪼르락 이렇기 그 있다 해. 고 저기 죽은 사람이. 그래 가면은 저이끼리 얘기를 한대요.

[중구 설화 20]

집지킴이 구렁이에게 물려죽은 사람

김애자(여, 1942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대청동 대청만우원로의집]

우리 큰집에가 ○○[청취 불능] 사는데, 그 인천서 사는 사람이, 우리 시골에는 월세도 안 받잖아, 그냥 와서 살고 싶음 사는 거고. 거기는 집세 받아먹고 그런 걸 안 해. 옛날에는. 지금은 인자 그렇지만.

그 인천에서 사람, 저거 아들하고 멫이서 이사 와서, 생전 이 뱀이 눈에 안 띄었는데, 그 사람이 이사를 오니까 집구렁이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 방에다 불을 땔라 하니까, 사랑방에 들오는데 불을 때는데, 구레이(구렁이)가 막, 철썩 떨어지더만 막 방으로 딱 들어가디 그 집 아들이 죽어삤대. 이사 온 아들이. 그게 이사 온 자리가.

[중구 설화 21]

혼이 빠져나가 죽은 할머니

김애자(여, 1942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대청동 대청만우원로의집]

할머니가 사시는데, 대게 아파서 그랬는가,

"못 사시겠다."

이래 하는데, 나는 나이가 적었지. 근데 엄마가,

"야야, 일나(얼어나) 봐라. 저 저 할머니 돌아가신다. 저 저거 불 나간다."

고. 이렇더라고요 빠알간 긴데.

"그래 무슨 사람 죽었는데?"

그런게 사람 죽었다고 그래. 그러이까,

“저거 혼이 나가서 그렇다.”

그때 그날 갔, 그날 아침에 갔어. 가니까 죽어버렸어. 음, 할매가 죽었어.

[중구 설화 22]

일 년 뒤 죽을 운명의 사람

송화자(여, 1943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대청동 대청만우원로의집]

근데 그 촌에는, 그 충청도에는 보통 부인을 두 명을 둬요. [조사자: 와?] 큰부인 한 명 있고, 또 작은부인 한 명 있고, 둘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안 와도 큰부인은 ‘아, 저기 작은부인네 집에 가 자고 있는 갑다.’ 하고, 인제 기다리지 않고, 또 작은부인은 ‘큰부인네 집에 가 자는 갑다.’ 하고 안 오는 거라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술을 진짜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술을 먹고는, ‘아이구 내가 살을 빼야 되니까 막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마 그 부엌에 거다가 목을 맸다네요. 그래 그 남편이 마 목을 매가지고 마 인제 마 죽어삤어.

그러이까 그 작은부인이 떡 와보니까 머리가 매달맀더란다, 언니. 그래 막 쫓아가니까 자기 남편이 고 매달맀더래요. 그랬는데, 그 인제 그 남, 딱 안 짜른다네요. 그래가지고 그 끈을 이제 끌러가지고 탁 널짜가지고(떨어뜨려서) 방에다 갖다 나놨는데, 인제 우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인제 물을 떠 믹이고(먹이고) 마, 촌에 마 그 침 놓는 사람이 와 가지고, 이 사람이 깨났어. 그래 깨났는데, 그 사람이 딱 깨나더만은 이러더라네.

“허이구, 내가 인제 죽어서 자기 집에서 나갈라 하니까, 나갈라 하니까 막 그 조상 할아버지가 ‘니는 지금 오몬 안 된다.’.”

막 일로(이리로) 갈라 하몬 일로 막고, 절로(저리로) 갈라 하몬 절로 막고, 몬(못) 나오게 하더래요.

“이, 암만 그래도 일 년을 더 살다 죽어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인제 그 깨났어.

그래가지구 일 년을 딱 살았는데, 일 년 되도록 그 날에, 언니야, 또 인제 이 남편이 안 왔어. 그러이까 안 오니까, 큰부인은 ‘아, 작은부인네 집에 가 자고 오는 갑다.’ 싶고, 또 작은부인은 인제 또 ‘큰부인네 집에 가 자는 갑다.’ 하고 이래 인제 안 기다리는 거라.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시골에 날이 얼마나 추워 언니? 근데, 가다가 그 돌다리, 인제 돌다리 이래 자박자박 걸어서 가는데, 고 가다가 탁 넘어졌는가 봐요. 술을 마이 먹고. 그랬는데 이 반은 물에 빠지고 반은 안 빠졌더라네요. 근데 딱 그날 죽었더란다. [조사자: 하이구야.]

근데 그건 진짜라. 아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 근데 거 있잖아. [조사자: 참 재밌다.] 그거 재미있죠? 근데 그 할아버지보고 막 그 사람들이,

"안 된다. 지금 가몬 안 된다."

이라면서 마악 이래 막더래. 그런데 뭐,

"일 년 더 살아야 된다. 일 년 있다가 인제 가야 된다."

그러더라네요. 일 년 되던 그 날에 딱 죽었대.

[중구 설화 23]

느티나무를 옮겼다가 죽은 사람들

송화자(여, 1943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대청동 대청만우원로의집]

그랬는데 있잖아요. 그 중앙고속도로가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충청도 금매야(?) 가지고 나갔어. 그런데 크-은 느티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 느티나무가 있는데, 이 느티나무를 옮기야지만 고속도로가 나가.

그래 이 나라에서는 다 인제 떨어졌어. 이거를 인제, 고속도로를 할라몬 느티나무를 딱 뽑아가지고 옮기야 된다. 근데 느티나무가 삼일을 울더래요. 그 고랑이 짜랑짜랑하게 울더라네. 그래가지고 그 인제 동네 어른들이 떡도 좀 하고, 막 물도 뜨고 마 돼지를 잡았다나. 이래가주 그 느티나무 밑에다가 갖다 놓고 막 빌었어. 그 중앙고속도로 나갈 때 그랬대요.

그래 막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막 그랬대. 그기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 느티나무를 갖다가 우에 순을 싸악 쳐뿌렀대 그래. 동네 어른들이 그래. 그래 이카다가(이렇게 하다가) 포크레인 와가지고 쏙 빼가지고 고마 그 언덕에서 쫌 인제 옆으로 살짝, 인제 고속도로 나가는 데는 내 놓고, 살짝 앰겼어(옮겼어). 근데 그 옮긴 사람하고, 주선한 사람하고 기사하고 다 죽었대요. 그기 삼일을 울더래. [조사자: 삼일을.] 그거 중앙고속도로 나갈 때 그랬어요. 그 충청도에.

[중구 설화 24]

개가 구덩이를 파면 나쁜 일이 생긴다

송화자(여, 1943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대청동 대청만우원로의집]

근데 우리 인제 시가집에 식구가 한 열여섯 명 됐어요. 내가 시집가니까, 우리 십 남매, 승기 아버지하고 시어머이, 시아버지하고, 또 인제 모섬이(머슴이) 한 둘이 됐어. 이제 소 풀도 비고 이런 아들을 인제 둬요.

그래 인제 동짓달 이럴 때 되몬 지 집에 가거든. 그리고 이제 봄에 되몬 인제 데리와가지고(데려와서) 일 시키는 거라. 그래 일 시키는데, 그 시골에는 마루가 언니, 이렇게 이층이야. 여기 한 칸, 여기 한 칸 이래도, 툭 터져가지고 이렇게 마리(마루)에요. 근데 그 마리 밑에가 흙이라. 그래 인제 이렇게, 마루에다 이렇게 뭐 나무를 똑똑똑똑 박어가지고 인제 의지를 해가지고 마루를 놨어요. 그런데 그 개, 우리 키우는 개가, 우리 시어무이가 이러는 거라.

"아유, 저 개가 와 저리 구덩이를 파느냐? 저 개가 아무래도 뭐 주인을 끌어 묻을라나."

이래도, 개가 있잖아요, 날만 새면 그 마루 밑에 가서 구뎅이를 파는 거라. 이만큼씩 몇 개를. 쿠-욱 파이 파고 마 입으로 끌어내고 이래가지고 구뎅이를 이만큼씩 파놨거든요. 그래 우리 시어머이가,

"하이구 이상하다. 저 개가 영물인데 와 저래 구댕이를 파노? 주인 아주머이 끌어 묻을 일이 있나?"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시어마이가 아예 죽을, 죽을 만큼 해가지고 마 집을 나갔어. [조사자: 그래요.] 그 구뎅이 파는 거가 안 좋대요. 개가. 개가 어떻게 그래 구탱이를 파겠노? [조사자: 시어머니가 그래 집을 나갔는가 그래?] 예. 그래 시어머이가 아예 마 죽을, 죽을 거 만치 아주 애를 먹고 나갔어, 집을. 그래 얼마 안 돼가지고 이라대요. 그 봄 중 그래 팠는데, 가을쯤에 나가뿌더라고.

[중구 설화 25]

술 나오는 구멍

송화자(여, 1943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대청동 대청만우원로의집]

거 우리 시가집 있는데, 거 있잖아요, 산이 이래 뽈록한 기 있어. 그런데 거 동강이 타악 싸고 돌거던.

근데 고거는 그 산을 올라가면 상놈이 가면 인제 탁주가 나오고, 양반이 들어가면 그마 인제 맑은 술이 나고 이런다네요. [조사자: 거기 어디?] 그래 산에서. 그 구멍이 있는데 쌀 나오듯이.

그니까 양반이, 양반은 괜찮겠지, 청주가 나오니까. 상놈이 가마히(가만히) 생각하니까 부애가(부아가) 억수로 나더란다. 꼬쟁이 하나 해가지고 마 구멍을 막 쑤시뿠어. '우째서 상놈은 막걸리 주고, 양반놈은 청주를 주느냐.' 싶어서 그래가 마 물이 돼뿠다 그래. [일동 웃음] 술이 안 나오고.

[중구 설화 26]

도깨비불(1)

송화자(여, 1943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대청동 대청만우원로의집]

내가 시집을, 한 열일곱에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제 그 군사혁명 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63년에 내가 결혼해가지고 강원도로 갔어요. 인제 요 경상도 사람들은 못 쓴다, 이라이까 강원도 사람을 골라서 결혼을 해야 된다 해가 갔거든요. 그래 인제 우리 남편은 나보다 세 살이 더 먹었어. 그래가지고 글 때가 내가 열아홉에 시집갔거든요. 그래 인제 절대 여 여자들은 충청도 사람은 공장에를 가몬 안 돼. 버린다.

그래 갔는데, 그 강원도에 인제 결혼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 동강, 거이 마이 흐르잖아요 거기는. 그래 흐르는데, 그때는 뭐 나이도 어리니까 철도 없지 뭐, 이래 아가씨가. 그래 있으몬, 인제 밤이 어두워지면 그런 데는 인제 전기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인제 보리 같은 거 이렇게 떨어가지고 이래 놔두고 이라모, 그 강 건너, 강 건너 그냥 큰 그냥 그 갱변에(강변에) 불이 막 추우욱 캐이 갔다가 쭈욱 만냈다가 헤어졌다가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그기 뭔지 모르지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시어머니보고,

"아유 어머니, 저게 뭐야?"

이래. 이래니까 우리 시어머이 하는 말이,

"그 도깨비불이다. 하이고, 오늘 도깨비불 나왔는 거 보니까 비 오겠네."

그럼 진짜 비가 와.

[중구 설화 27]

도깨비불(2)

송화자(여, 1943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대청동 대청만우원로의집]

아니 아니 내가 시집을 갔는데, 그때 열아홉에 갔잖어. 그래 어리잖아. 그래 보리죽을 탁 떨어가지고 이래 맞는데, 거어 동강 그 건너 그 바닥에 막 불이 쭉 갔다가, 쭉 갔다가 칙 벌어졌다가 마 세 갈래로 됐다 이러는 거라. 그래 내가 하도 불이 번쩍거려가지고,

"어머니, 전기도 없는데 저 왜 저래 번쩍거려요?"

이러께,

"그 도깨비불이다."

이라는 거라. [조사자: 그래, 그 이야기. 그런 이야기.] 야.

"오늘 비 오겠다."

이라께, 비가 진짜 오는 거라.

[중구 설화 28]

도깨비와 싸운 사람

송화자(여, 1943년생) 구술
2019년 1월 28일 채록
[대청동 대청만우원로의집]

우리 그 촌에 오촌 아저씨가 있는데, 그때 나이가 한 뭔, 육십은 됐는가 봐요. 그래 인제 장에 갔다 오다가 저물었대. 그리 저물으니까 뭔 사람이 나왔는가배, 도깨비가.

그러니까 막 인자 그 싸웠는가 봐요 둘이. 그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니를 잡아야지.' 그래가지고 자기 두루개비(두루마기) 옷고름을 뚝 띠가지고 그 도깨비를 탁 잡아가지고 나무에다 딱 묶어놨다네요.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오촌 아저씨가 집에 왔어.

“너거 내일 가 봐라. 고 인제 고 오다가 그 길뜨에, 강가에 내가 도깨비를 코옥 잡아가지고 묶어놓고 왔다.”

그래가지구 인제, 그래가지구 가니까 자기 담붓대(담뱃대)를 갖다가 쑥 빼가지고 달개 두루개비로 꼬옥 묶어놓고 왔더래요.

[중구 설화 29]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은순(여, 1930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동광동 동광동할머니원로의집]

그래 인제 고려장을 하러 가는데, 산에를 인자 깊은 산에를 올라가는데, 인자 아들이 지고 근데 인자 올라가 갔는 거라. 먹을 거를 인자 그 지게에 담고, 걸고. 그러이까 어데까징 가나 함께는(하니까는),

“어머니, 저 위에 조금만 더 참으몬 가서, 팽지(평지)라 욱에(위에) 올라가서, 하늘도 보이고 동네도 보이고 하는데 그거 갖다 드릴게요.”

그런께,

“그러모 어서 가자.”

그래 해가지고 인자 지게를 지고 인자 그 가는데, 엄마가 안자 아들이 해가 지도록 올라가거든. 그런께 내려올라 하면은, 그러자 인자 천막을 인자 이리 지게를 이리 막을 지(지어) 놨대요. 집을 딱 지어가지고 이래 집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래갖고 딱 이 막후거든. 그리 해가지고 너나(넣어놓아) 놓고 인자,

“어머니, 나 난중에 올게요.”

허고,

“그러몬 니 길 잘 찾아가라. 그래 니.”

[조사자: 그러이까 올라갈 때 그 나무를 꺾어놨는가?] 예. 올라갈 때게 하고.

[중구 설화 30]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박임화(여, 1928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동광동 동광동할머니원로의집]

저, 고래장(고려장) 하는데, 고래장이 있었는데, 한 번은 아들이 아바이 덕고(데리고) 고래장 하러 갔는데, 자식이 따라가가지고, [청중: 지게를 지고 간다.] 어, 지게 지고. 지게, 저거 아부지가,

"내삐리라."

해가,

"이부지 가져 갑시다."

"그래 왜?"

카이까네,

"아부지 돌아가시도 이 집."

그런 이야기 듣기는 들었어예. [조사자: 그래 그런 이야기라. 어어어. 그래 인제 다시 또.] 그래가이고 없어졌다 카대예. 그래서 고려장이 없어졌다 카던데. 그런 말 들었어예. 그때가 언젭니꺼(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도 오래 살아서.

[중구 설화 31]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박임화(여, 1928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동광동 동광동할머니원로의집]

지렁이를 어무이로(어머니를) 돌아가시라고 준 게 아이고, 어미(어머니) 물 기 없어서 해 준 기. 아들어는(아들은) 돈 벌러 갔는가, 어디 객지 갔는가 가고. 어머이 모시는데, 어머이 줄 기 없어서 그 지렁이를 파다가 국을 끼리죴더마는(끓여 주었더니만), 죽을 그 참 죴는데 묵고마 보약이 돼, 살이 져가 어머이가 볼을 막, 억수로 좋아시니까네, 아들어가(아들이) 참 고맙던 생각을 묵고 있다 이런 말 한문(한 번) 들았어예.

[조사자: 그래가지고 어데 뭘 이래, 무슨 국이 이래 맛이 있는고 싶어가지고 자리 밑에 어데 뭐.] 모르지. 눈 떳, 눈 떳, 깜았다 말은 몰라. 몰랐고 옛날에 할무니가 너무 나가 많고 하이 돌아가시라고, 신랑 없는 새 돌아가시라고 [조사자: 아, 메느리가?] 어, 메느리가 꺼시이를(지렁이를) 파다가 할매를 믹있는데(먹였는데), 그기 보약이 돼가 할매 묵고 살이 찌가 있으

이, 아들이 뭐 몇 달만인가 메칠만에 와가지고 어무이 좋으이 참 마, 여자를 보고 칭찬하고,
"아이, 잘 모싰노."
칭찬하더란다. 예, 그래 그런 말 들었어예.

[중구 설화 32]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홍성옥(여, 1943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동광동 동광동할머니원로의집]

종을, 내가 들었는데, 종을 갖다가 만드는데, 하도 종이 안 돼가지고 그 자기 아들을 갖다가 넣고 다시 끼리가지고(끓여서) [조사자: 종을 만들었는가?] 네. 그랬다 하대.
[조사자: 그래가지고 안자 자기 엄마가 원망스럽어서 에밀렐레~.] 예, 예. 그래 인제 종을 딱 할 때 에밀레~ 에밀레~ 한 대. [청중; 에밀레종이라 카몬 알지.] 자식을 거기에다가 종을 만드는 데다가 같이 합쳐가지고 그래 만들었다 하더라. 그래 땜에(때문에) 종 칠 때마다 에밀레~ 에밀레~ 이래. 어미 찾는다고. 예, 그 소리 들었어.

[중구 설화 33]

개로 환생한 어머니를 세상구경 시킨 아들

김임덕(여, 1933년생) 구술
2019년 1월 30일 채록
[보수동 새마을경로당]

어마이가 죽어가지고, 몬 살아 죽어. 구경을 한 번도 안 갔어. 경상남도 팔도강산 구경 가. 그래 어느날 개로 바로 태어났어. 개로 태어나가 그래 인자 마루 밑에 음지에. 그래 아들이 개를 업고 팔도강산,
"아 여는 어딥니다. 여기는 무슨 마을입니다. 무슨 마을입니다."
카고. 그래 개가 오래 되이 죽고. 그게 전설이 남았단다.

[중구 설화 34]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김임덕(여, 1933년생) 구술
2019년 1월 30일 채록
[보수동 새마을경로당]

옛날에 선비가 없는 집에, 인자 너무 너무 없는 집에로 시집을 가니께. 선비가 책만 보고 마 죽으나 사나 책만 들다보고 있어. 그래가 '아이고 씨발 팔자 한 번 고치나 두 번 고치나.' 해쌈서, 마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가 남자를 얻어놘께 거는 더 몬 살아. 그래 벌판에 갱피를 훑는 기라. 그래 본남자, 내삐리고 간 남자 암행어사 돼가지고 그래,

"저 허허들판에, 벌판에 갱피 훑는 저 여자 얼마나 팔자 기박해가지고 훑던 쟁피 다시 훑노?"

하더란다.

[중구 설화 35]

시집가서 지켜야 할 일

김임덕(여, 1933년생) 구술
2019년 1월 30일 채록
[보수동 새마을경로당]

여자는, 그 옛날 우리 친정아버지가, 여자는 시집가서 벙어리 삼 년, 귀머거리 삼 년, 석 삼 년을 지내야, 여자는 말소리가 방문을 넘어가면 집구석이 망한다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래 살은 기라.

[중구 설화 36]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김임덕(여, 1933년생) 구술
2019년 1월 30일 채록

[보수동 새마을경로당]

그거는 옛날에 메느리로 하나 봤어. 마 얼굴이가 노래-이, 그래 마 밥도 잘 안 묵고 얄궂어서러 시아바씨가 물었어.

“아가, 니가 뭐로, 무엇이 근심이 있노?”

카이까네, 그래,

“그럼 아버님,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

“해봐라.”

카이,

“방구를 뀌면 날아간다.”

하는 기라.

“집이 날라간다.”

하는 기라. 그런께 그래,

“몬 낀다.”

하는 기라. 그래 마 참말로 방귀를 끼라 해놓이끼네 막 집이 날아가는 기라. 막 날라가이께 마,

“고마 끼라.”

하고, 그래서 전설이라 그기.

[중구 설화 37]

선녀와 나무꾼

김임덕(여, 1933년생) 구술
2019년 1월 30일 채록
[보수동 새마을경로당]

선녀를 만냈는데, 삼천궁녀 선녀가 서이 왔는데, 옷을 숨카뿠어. 옷을 숨카뿌놓이까네, 아하나 나면(낳으면), 둘이 나면 날리가(날려) 가고, 서이 나면 아를 몬 싣고 천상에 몬 가는 기라. 그래가 살았다대요.

[중구 설화 38]

심봉사와 심청이

김임덕(여, 1933년생) 구술
2019년 1월 30일 채록
[보수동 새마을경로당]

심청이가 저거 엄마가 마 죽었어. 젖동냥을 해가지고, 심봉사가 젖동냥을 해가 믹있는 기라. 그래가 인자 마 다 그 할라 하이께 할 수가 인제 없는 기라. 그래 나라에서 공양미 삼백 석을 주면 심청이로 사가지고 정당수 해마정(해마다) 못에 옇어야 되는 기라. 빠쟈가.

그래 삼청이가 갈라고 말로 해는 기라. 삼백 석 하면 아바이 먹고 산다고. 그래 인제 심청이가 갔는데, 그 물 밑에 가가지고 물 왕의 아들캉 결혼을 했어. 심청이가. 그래가 인자 왕자 그 하고 결혼 해놓이께네 심봉사 잔치를 했어.

"팔도 심봉사로 다 덱고(데리고) 오라."

그러니께 마침 마지막 날 저거 아버지가 왔어. 심청이 인자 그 젖동냥 믹있다고 거 하고 그 한께네, 그래 저거 아버지하고 그거 심청이하고 딱 만나이께 눈을, 심봉사가 눈을 떴는 기라. 그래 그래가 아랑 그 잘 살았어. 초가집도 마 잘 짊어지고.

[중구 설화 39]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김임덕(여, 1933년생) 구술
2019년 1월 30일 채록
[보수동 새마을경로당]

옛날에 스님이 동냥하러 왔는 기라.

"은자동아 금자동아 금을 주면 너를 살까? 은을 주면 너를 살까?"

그런께,

"그 동자로, 아로 준다."

캤어. 그러니께 에밀레종을 가서 만들았는데, 종이 안 울리는 기라. 그래 대사가 그래 물었어.

"여 시주 간, 동냥할 때 어려울 제 무슨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그 한 스님이 나서,

"아무 말 아무 말을 하이께네, 아를 어루면서 은자동아 금자동아 금을 주면 너를 살까? 은을 주면 너를 살까? 그래 우리 아무것이나, 봉덕이를 주면 주지, 시주할 끼 없다."

캐. 그래 그 아로 저 경주 거 가가(가서) 종 안에 고우는데 옇었어. 그 치이께네 종이 울리는 기라.

[중구 설화 40]

우렁각시

김임덕(여, 1933년생) 구술
2019년 1월 30일 채록
[보수동 새마을경로당]

우렁각시는, 그 총각이 장개로(장가를) 몬 가고 어느 마을에 있었어. 하루는 자고나면 밥을 해놨고, 다 밥상을 차려놨고, 또 있고, 또 하루 있고. 메칠로(며칠을) 그랬어.

그래 인자 하루는 총각이, 그 나무꾼이, 그거 노동자가 딱 숨었어. 딱 보이 마 예쁜 우렁이 속에서 각시가 나와가가지고, 나와가 밥을 지놨고 드갈라 카는 거 첨에는(처음에는) 딱 잡았어. 잡은께 그래,

"때가 돼야 당신캉 결혼하고 백년을 살고. 때가 안 되서 몬 산다고."

사흘이 남았어 기한이. 삼년 그거 때가 있는데, 그래가 부부가 몬 되고 이별을 했어.

[중구 설화 41]

은도끼 금도끼

김임덕(여, 1933년생) 구술
2019년 1월 30일 채록
[보수동 새마을경로당]

나무꾼 그거는, 나무꾼이 은도끼가, 도끼로 마 도끼가 참 이미 들었어.

"이거 니꺼가?"

카이,

"아니다."

또 금도끼를 줘도,

"아이다."

그래, 옛날에 요 도치(도끼), 그거로 주미(주며)

"집 지어라."

카고. [조사자: 하던 이야기 마저 해주이소 웅덩이 빠쟈갖고(빠트려) 어찌됐는데예.] 그래 그 금도끼 아니고, 은도끼도 아니고, 녹도끼(녹 쓴 도끼)를 쥐이까,

"니가 양심이 바르다."

그기. [조사자: 그래갖고 잘 살았네예.] 응. 잘 살았어.

[중구 설화 42]

저승에 갔다 살아난 사람

김임덕(여, 1933년생) 구술
2019년 1월 30일 채록
[보수동 새마을경로당]

우리 아파트 할매가, 여게 환갑 때 집을 곤칬거든(고쳤거든). 집을 곤칬는데, 마 신랑이 다락에 올라간다고, 사다리를 놔놔이 마 널찌서(떨어져) 기절을 해뿠어. 두 시간을.

그래가께 두 시간을 자고 나이께네, 하 어딘가 가이 하염없이 가이까네, 다리를 건니가이끼네, 하얀 쥐가 한 마리가 톡 뛰어 나와. 그 때린다고 탁 때리 깨어났어. 그래 그래가 참말로 그랬어.

[조사자: 쥐를 때리면?] 쥐가 지내가는 거 저승 다리야. 외나무다리 쥐가, 묘한 쥐가 가이 탁 때리니께 쥐가 떨어지고 깨어났어. 참말로 깨어났어. 한 삼십 년, 이십 년 전인가? 그건 실화라. 그래 깨어났어. 그래 저승 갔다가 왔어.

[중구 설화 43]

제삿밥을 먼저 먹는 생부

김임덕(여, 1933년생) 구술
2019년 1월 30일 채록
[보수동 새마을경로당]

그래 또 옛날 정승이, 저 정승이 아이고,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세왔어. 그래논께 제사를 지내면 양제(양자) 부모를 제사를 먼저 지내께, 저거 조상이 먼저 먹어. 말로 타고, 막 저거 말로 타고 와가지고 먹고 나면, 그 인자 양제는 뒤에 먹는 기라. 다 먹고 가고

나면. 그런 전에 이야기가 있어.

[중구 설화 44]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김임덕(여, 1933년생) 구술
2019년 1월 30일 채록
[보수동 새마을경로당]

옛날에 영감이 눈이 멀었어. 눈이 멀었는데 뭐 해줄 껀 없고, 돈은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지렁이로 막 잡았어. 잡아가 폭- 고아가지고 줬어. 영감을 줬어. 아, 시오마씨. 시오마씨 줬어. 그래 인자 아들이 하리(하루) 어데 갔다오이,

"야야, 니가, 이 메느리가 날로 곰을 해줬어 먹었는데, 자리 밑에 한 번 뒤다 봐라(들여다 봐라)"

카이, 자리 밑에 지렁이가 죽어가지고 말라 붙어가 오글오글 해가 있어. 그래 눈이 번떡 떨어졌어. [조사자: 눈이 떨어졌구나.] [청중: 지렁이라 칸께네 눈을 퍼뜩 떴다 하더만.] 그래. 지렁이라 카이까네, 눈이, 그래 심봉사 눈이 떨어졌어.

[중구 설화 45]

콩나물죽을 삼년 먹어야 부자가 된다는 사람

김임덕(여, 1933년생) 구술
2019년 1월 30일 채록
[보수동 새마을경로당]

옛날에 아주 아주 몬 사는 사람이 콩나물죽을 삼년을 낋이 묵었어. 그래 친정 오빠가, 내일이 삼년인데, 와서 '하루 상하면 어떻겠노?' 싶어가, 오빠 온데 밥을 해주노이 허사가 되고. [조사자: 콩, 왜 콩만 먹었는데요?] 죽, 죽, 콩나물죽. 몬 살 때가 돼가나이. 그래서 삼년을 먹으면 부자가 된다 했어.

[조사자: 누가?] 스님이. [조사자: 그 스님이 언제 그런 이야기 했던고예?] 그래, 옛날 내가 들은 이야기라. [조사자: 스님이.] 그래. 삼년을 콩나물죽을 낋이 묵으면 부자가 된다고 이랬는데, 내일이 삼년인데 오늘 오빠가 와가지고, 친정오빠가 와서 죽을 낋이다가 밥을 해줬

어. 마 망했어. 삼년 공이 넘어가뿠어.

[중구 설화 46]

콩쥐와 팥쥐

김임덕(여, 1933년생) 구술
2019년 1월 30일 채록
[보수동 새마을경로당]

콩쥐팥쥐는, 콩쥐가, 콩쥐가 언니지. 팥쥐는 동상(동생)이고.

그런데 콩쥐 나낳고(낳고) 어마이가 죽었어. 계모가 들어와 팥쥐를 낳았어. 그러께 어떻게 계모가 독한지, 밑 없는 도구(독)에 물로 부어라 카는 기라. 깨진 거다가. 그래 뚜깨비가, 저거 엄마 죽은 혼신이 나와가지고 뚜깨비가 도와주면서 딱 받치가 허물로 딱 붙이께, 물이 마 딱 옇어대는 기라.

그라고 이제 콩쥐를 갖다가 또 목욕을 갔는데, 못에다가 마 콩쥐를 밀어옇어뿠어. 밀어옇뿌어나이, 귀신이 나타나가 안 나왔나 와. 여름에 연속극도 하고 해샀디.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그래 계모한테 복수를 했어. 복수하고 인자 지는 마 이미 죽었고, 동상은 저거 어미하고 죄를, 형을 받고.

[중구 설화 47]

흥부와 놀부

김인덕(여, 1933년생) 구술
2019년 1월 30일 채록
[보수동 새마을경로당]

흥부 놀부는, 저 뭐 어는 기, [조사자 : 놀부가 형.] 놀부네. 놀부 그 욕심이 많애. 심술쟁이라. 하이고 그 놀부, 작은 거는 아가 마 이런 거 여섯을 주렁주렁 나놔가,

"밥 좀, 돈 좀 달라,"

고 그 한께, 막 저거를 형수가 뺌말때기[183]를 쌔리주이, 밥을 뜯어가 먹고.

그래 인자 강남 갔던 제비가 항아리에, 이래 천장에 제비집을 짔는데 떨어져가 다리가 뿌아

183) '뺌말때기'는 '빰따귀'의 방언.

졌어(부서졌어). 그래 실로 마 매가지고 탁- 날리 보냈어. 그랬는데 그래 마 부자가 됐어. 동상이. 그래 인자 놀부 그기,
"야야, 니는 우째서 부자가 됐노?"
카이, 제비로 그래 거 해서 그래 사는 제비를 갖다가 다리로 뿌아가지고 심술을 지기노이 심술쟁이가 돼노이, 그래가 남애(남자)로, 놀부 그거 동생은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요거는 망조가 드는 기라.

[중구 설화 48]

까치와 까마귀

김종실(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30일 채록
[보수동 새마을경로당]

까치도는 알록알록하고 까마귀는 왕창 탔고. 그래가 까마귀는 남자 딸이고, 까치는 여자, 저 남자 딸이고, 까마귀는 여자 딸이고. 그래 내외 사는데, 영감이 어데 갔는데 인자 딸을 갖다가 불꾸덩이에 잡아옇어삤어.

그러니깐 인자 아바이가 좀 이상해서 왔어. 오니까 저거 딸을 불꾸덩이에서 꺼내고, 할마이 아들을, 딸을 갖다가 불꾸덩이에 잡아옇어가 까마귀는 새까맣고, 까치는 알록알록하고.

[중구 설화 49]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김종실(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30일 채록
[보수동 새마을경로당]

[조사자: 시집을 갔는데 얼굴이 노래가지고.] 노래가지고, 시아바이가,
"니 얼굴이 와 그래 노랗냐?"
한께네,
"아버님, 내가 한 가지 그거를 못해서."
그래,

"뭘 못하노?"
한께네,
"방구를 잘 못 뀌가지고 그런데"
"방구야 잘 뀌지, 뀌면 되지 와 못 뀌노?"
한께네,
"아버님이 그래 문고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
"문고리 잡는 사람 잡고, 기둥 잡는 사람은 잡아야 됩니다."
한께네, 그래 뭐,
"뀌라."
한께, 그 부릉부릉 뀌니께 마 지붕 흔들흔들 하고, 마 마 문고리가 쑥쑥 빠지고 하니까네,
"야, 고만 뀌라."
캤다고 그래.

[중구 설화 50]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신소숙(여, 1933년생) 구술
2019년 1월 30일 채록
[보수동 새마을경로당]

아 우는데,
"꽂감 준다."
고 카면 울다가 뚝 끈친다고. [조사자: 호랑이가.] 호랑이가 온다 카이, 호랑이가 온다 캐도 울고, 꽂감 준다 카이까네, 그러이 호랑이가 놀래가 막 달라빼뿐다 카대.

[중구 설화 51]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강옥수(여, 1938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부평동 부평동원로의집]

옛날에 시골에서 인자 봉사 시어머씨를, 눈 못 뜨는 봉사 시어마씨하고 메느리하고 아들하고 사는데, 아들이 인자 돈 벌러 갔어. 가면 서너 달, 두 달 있다가 돈을 벌고 오는 모양이지. 소금을 짊어지고 소금 팔라고, 방방곡곡 댕겨 팔고 오는데.

묵을 게 없으니까네, 묵을 게 없으니까네, 메느리가 하수도에 가서로 옛날에는 마 돌이 이리 수북이 재놓고 거기다 구중물 붓는다 하더라고. 거기 인제 꺼시이가, 지렁이, 지렁이, 그 꾸중물 내려가는데 지렁이가 막 벌개이 이래 큰 기 나오거든. 그러께 메느리가 지렁이를 잡아다가 씻거가가는 다글다글 뽂아가 물을 푹 부아 고아갖고 그 국을 해가지고 밥을 주는 기라. 그걸 갖고. 지렁이이로 가 해주는 기라.

그러께 이 봉사 할매가 그거를 만날, 지렁이를 만날, 시어마이 주면서 메느리가 한 숟갈씩 떠 묵고, 지가 먼저 떠 묵고 시어마이를 주고. 할매를 그래 몇 년을 보양하고 살았어. 참 멫 년만에 보니 저 엄마가 너무 풍골도 좋고, 피부도 희고 깨끗하이, 얼굴도 그 하이까네,

"엄마야, 엄마야. 무엇을 잡솼는데, 이래 풍골도 좋고 이래 얼굴도 훤하고 체력도 좋습니까?"

그라이까네,

"야야, 메늘아가가."

그래가 인자 그 할매가 인자 그 먹으면서로,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씩 빼가, 자리, 옛날에 이런 기 아이고 갈대, 갈대 같은 그런 거 그 밑에다가 한 마리씩 옇어놨어. 먹으면서로 한 마리씩. 보면 생각나면 한 마리씩 옇고, 고게 그 안에서 빠짝 말라가지고, 멫 년 있으이 말라가 있는 거라. 그래,

"뭐를 잡숴서 이래 얼굴도 좋고 풍골도 좋고, 어머이 그래 잡술 것도 없는데 어찌 이래 잡숫고, 뭘 잡숫고."

이러이께네,

"아이고, 야야, 메늘아기가 이래 만날 이렇게 맛있는 걸 해서 구숨하이 해가 묵고 내가 이래 살이 좋다. 뭣이 함 봐봐라."

함서, 이래 떡 비이(보이니), 지렁이가 마 말라있거든. 아들이 깜짝 놀라이,

"아이구야!"

이러이께네, 아들이 깜짝 놀라

"아이구야!"

하이께네, 엄마도 깜짝 놀래가 봉사가 눈을 탁 뜨더라네. [웃음] [청중: "엄마. 지렁이네요." 칸께, 깜짝 놀래가 눈을 떴다더만.]

"엄마, 이 꺼시이(지렁이)네요!"

하니까, 눈을 퍼뜩 뜨더라네."

[중구 설화 52]

폐백 때 방귀 뀌어 자살한 신부

강옥수(여, 1938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부평동 부평동원로의집]

시집 장개 간데, 시집을 가갖고 인자 처갓집에 하룻밤 자고 인자 그 이튿날 시갓집에 오면, 인자 어른들은 예단, 절 한다 아입니까. 청에다가 부모님들은 방에 앉고 신랑각시들은 폐백 한다. 절 한다 아입니까.

근데 밑에는 마 머슴들이, 다른 식구들이 밑에 마당에 줄줄이 서서 새색씨 귀경(구경)하고 있고, 인자 폐백하고 있는데, 이 색시가 이래 앉아, 쪼끌시(쪼그려) 앉아 이래 절로 하고 일날라 카는데, 마 빵구를 참았겠지, 참는다고 참았겠지, 그러께 이기 '뺑~' 하고 나오거든.

그러께 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마 딸 모른 체 했으면 될 건데. 마 안 낄라꼬 요렇게 서다보이 '뺑~' 소리가 났던 모양이야. 그래 마 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하인들이고 이웃들이고 마 낄낄거리고 웃으이,

"아이고야, 새댁이 방구 뀠다."

고. 그래갖고는 절을 하고 딱 엎더리가 있는데 고대로 앉아갖고, 빵구, 요래 일나설라 하다가(일어나려다) 빵구가 나오니 고대로 엎드려가 쎄를 콱 물고 죽어뿠더란다. 새색시가. [청중: 생리적 작용인데 그거로 따지고.]

그래도 옛날 같으면 얼매나 챙피할 껍니까? 쎄를 요 탁 물고 피를 흘리갖고. 안 일나서 인자 신랑이 일바시[184]니까네 쎄를 물고 그렇게. [조사자: 얼마나 챙피했겠어요.] 그러니까. 새색씨가 빵구 낀다고 막- 웃었을 꺼 아입니까. 우째 일나설 껍니까 그래.

[중구 설화 53]

힘이 센 아들

강옥수(여, 1938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부평동 부평동원로의집]

아들이 장사로 태어났어. 쪼맨한 일곱 살 묵은 아가. 그 대감이 엄마로 인제 시장 나갔는데, 장에 나갔는데 엄마를 희롱을 했어. 희롱을 했는데 인제 이 아들이 봤어. 그래갖고 이 아

184) '일바시다'는 '일으키다'의 경상도 방언.

들이 인자 대감인데, 엄마를 희롱한 남자를 갖다가 이런 돌빵이를 들더라고, 쪼맨 일곱 살 난 아가 이런 돌빵이를 들로 '획-' 난께(날리니) 그 대감인데 탁 맞아가 대감이 탁 꾸부러지더라고. 그래 우째우째 수소문해 알아보니까, 그 집 아들이 자기한테 떤짔다고 딱 말이 났어. 그래.

"그 아들 직이야 된다."

이래갖고는 아버지가 이 아들로. 그래갖고 엄마가 인자 탁 넘어가는 바람에 엄마가, 임신핸 엄마가 애를 떨키뿠는(떨어졌는, 유산되었다는 의미) 기라. 그래 그 길로 엄마가 죽어뿌맀어. 그래 인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사는데 수소문해가지고,

"야가 돌로 떤지(던져서) 그 대감 직있다."

이래갖고, 말이 나와갖고 아들을 덱고 인자 이 마을을 떠나대. 떠나면서러 절대로 아버지가 힘을 몬 쓰구로 만들더란다.

"니는 힘 쓰면 안 된다."

무조건 힘을 몬 쓰게 해갖고는 그래 마을을 떠나더라고.

[중구 설화 54]

아무나 하면 안 되는 해몽

강옥수(여, 1938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부평동 부평동원로의집]

옛날에, 요새는 과거 볼라면 서울에 금방 기차 타고 뭐 하러 가고, 고마 시험 치러 간다 아입니까. 옛날에 과거 볼라면 석달 열흘로 걸어가야 된답니다. 주막 하룻밤 자고, 또 가고. 짚신 이래 매고 석 달 열흘로 가는데, 과거장 갈라면 한 고개를 더 넘어가야 되는데, 그날 또 주막에 또 자야하는 기라.

주막에 자는데, 그 선비 주막에 자는데 꿈에 꿈을 꾸이까네, 술병이 호리병 안 있습니까? 호리병 그게 대가리가 똑 뿌러지더래요. 대가리 여기 손잽이가 여 있는데, 여기 손잽이가 딱 뿌러지더대요. 그래서 이 과거하러 가는 사람이,

"내가 이 과거를 하러 가면 떨어지겠다. 모가지 떨어지니까 이 떨어질 꿈이다."

하고는, 그 이튿날 일나가지고 주모 보고,

"내가 이래 꿈이 이런데 한양까지 가봐야, 한양 가 시험을 치봐야 암만 떨어질 거 같는데, 마 집으로 내리가까? 한양을 가까?"

인제 주모 보고 물어보이께네, 거서 하는 사람이,

"요 산 요 고개만 딱 넘어가면 그 저 꿈 해석을 잘하는 할머니가 있다."

그라는 기라.

"그 꿈 해설을 듣고는 집에 가라 하든지 과거하러 가든지 말을 할 꺼니까, 거로 가서 물어라."

그래가 인자 고개를 올라 중턱에 딱 올라서니께네, 그 딸이 딱 내려오고, 중턱을 내려오고 물어보러 가는 사람이 올라가고, 고 중간에서 만난 거라. 고서 딸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꿈 잘 푸는 할머니가 계신다는데 그 찾아간다. 어디쯤 됩니까?"

하께, 자기 엄마라 카더랍니다. 처녀가. 그러면서,

"엄마가 지금 장에 가갖고 집에 안 계신다꼬. 그래 꿈 이야기하면 지가 해석해 준다."

딸이. 그래 그 사람이 인자 꿈을 이야기하께네,

"아이고, 함부래 마 집으로 가라고. 시험 치러 가봐야 과거 안 붙는다. 집에 가라."

하더란다. 그래서, '아이, 모르겠다. 마 가야 되겠다.' 싶어서 산길을 덜렁덜렁 내려와. 다 내려오니까네, 엄마가 시장 가서 뭘로 사가 오는 기라. 올라오는 기라. 그래 그 선비가 꿈 해석하는 할매를 만나갖고,

"내가 올라가니까 모친이 안 계시고 따님이 해석을 해준대서러, 이래 해석을 해줐어러 마 집에 가라고. 한양 가지 말고 집에 가라 해서로 옵니더."

이러 카이까네, 그 해석하는 할매가 하는 말이,

"내 딸이 요망하다."

자기 딸이 요망스럽다.

"꿈을 함부로 그래 해석하는 기 아니다."

하면서,

"절대로 선비는 집에 가지 말고 한양을 가라."

하더랍니다.

"왜 그 꼭대기가 떨어져서 과거가 떨어진다 카는데 가면 뭐하겠습니꺼?"

이래 카께네,

"병이가 안 떨어지면 한 손으로가 술로 따를라고 한 손으로 잡는데, 꼭대기가 떨어짔으니까 두 손으로 받든다."

그 기라. 꿈을 해석하면은 그 할매 말이.

"꼭대기가 똑 떨어졌으니까네, 꼭대기가 딱 붙었으면 술뱅을(술병을) 한 손으로가 술로 따르는데, 꼭대기가 떨어졌으니 밑에 받들고 우에 받들고 두 손을 이래 받들어갖고 이래 따르니까네, 가면 틀림없이 붙는다. 가라."

자기 딸이 요망스럽다 함서 아무따나(아무렇게나) 꿈 해설한다고 뭐라 카더래요. 그래 그 할매 말 듣고 참 서울 가서 과거를 치니까네 붙었대요. 그래갖고 자기가 인자 그 할매한테 가서 큰 은혜를 입었다고, 인사까지 하러 가더라 카대.

[중구 설화 55]

손님 못 오게 해 망한 집

강옥수(여, 1938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부평동 부평동원로의집]

스님이 참 '똑딱, 똑딱.' 하면서 인제 시주하라고 왔는데, 그래 인자 마 구찮아서 그 스님보고,

"우리 집은 너무 손님이 와싸서러 너무 거 하다."

하면서,

"이 손님 안 하고 집이 쪼금 기울게, 이렇게 잘 사니까네네 쪼금 기울게 해달라. 기울게 해달라."

카이까네, 스님이,

"아침마다 부엌에 숯, 나무 때고 나면 숯이 나온다 아입니까. 숯 재. 그거 숯을, 재를 한 소쿠리썩 옛날에 숯 때거리가(숯으로 불을 땐 후) 밭에 갖다 붓고 한다대. 그거로 아침마당 대문 앞에 부우놓고, 문 열고 대문 앞에 부우놓고는 볿아래, 자근자근 볿으래. 석달을 해노이 집이 폭삭 망해 뿌더라는데.

[조사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예?] 숯이 그거 깨면 안 돼. 부엌에 조왕, 부엌에 가면 집 주인이거든. 조왕이거든. [청중: 숯 밟으면 재수 없다고 옛날 사람들 몬 밟게 했다.]

[중구 설화 56]

여자 항문에서 나는 호루라기 소리

강옥수(여, 1938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부평동 부평동원로의집]

누가 뭐뭐뭐, 하도 빵구를 잘 뀌사서러, 남자가 교통순경이랐다대. 교통순경이었는데 어데 가도 빵구를 자주 뀌싸서러, 그거 해쌌서러, 마 눕어자면서러 자기가 근무 나가는 시간이 되니까네, 고때 되면 나가 일나서면, 일나서면 빵구가 나오는 기라.

그래서로 여자 거기에다가 호랙이(호루라기)를 옇어줘삐맀어. 자기는 마 출근할 시간에 잠자면 안 된다꼬. 그래갖고 여자 거기가 탁 끼아주니께네, 여자가 출근할 시간이 되니께, 벌떡

일어나니까 '팍 팍 팍', 나팔이' 삐리 삐리 삐리' 불거든. 교통순경이 나팔을 부니까, 순경이 자다 일나갖고 지 혼자서 '삐리, 삐리, 삐리' 하더라 안 하나. [웃음]

그래가 자다 일어나가 교통순경 짓을 하더라대. 여자 거기서러 나팔, 나발 그거 소리가 나갖고.

[중구 설화 57]

불이 나도 걱정 없는 사람

강옥수(여, 1938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부평동 부평동원로의집]

그래 영감이 봉사로, 버버린데(벙어린데). 거 인제 사는데, 저 다리 밑에 살고 있는데, 아들하고 산다 하더나? 뭐 하튼 그래. 그래 그래갖고 사는데, 저저 만석군 집에서 불나서로 야단이 났는 기라. 마 불이 나서 마 하인들이 마 들어낸다꼬, 쌀자리(쌀자루) 드러낸다고.

"아이고, 야야, 불났는데, 어데서 불났는지 보고 온나."

이런께, 아버지 그런께 아들이 갔어. 가서 눈을 떠서 봤는데 벙어리라 말로 몬 하이께네, 그래,

"천석꾼 집에서 불이 났는데, 아버지요, 천석꾼 집에서 불이 났는데, 마 하인들이 마마 뭐 내고 뭐 내고 살림 들어낸다고 야단났어요."

하이께네, 그래 봉사가 하는 말이, 봉사가 하는 말이,

"우리는 아-무 것도 탈 게 없으이 걱정하지 마라."

하더란다. 아무 것도 탈 게 없으이.

[중구 설화 58]

단칸방에서 몰래 나누는 사랑

강옥수(여, 1938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부평동 부평동원로의집]

옛날에는 저저저 뭐꼬, 자식들이 많으니까네, 인자 이불, 옛날 시골에는 마 옛날에는 이불

을 많이 해가 크게, 요새는 다 따로 따로 자잖아. 옛날에는 마 크게 해가지고 아 어른 없이 거 다 들어가 자거든.

그래 제일 작은 아로 인자 엄마 얖에(옆에) 재우고, 남편이 얖에 자고. 그래 둘이가 부부가 있으니께네, 부부생활을 할 낀까네, 하지. 하이께네 아이 얖에 놓고 신랑 각시 그러이까네 부부생활하면 남자가 올라가서 하겠지. 하이께네 마 이 이불로 들썩들썩 하거든. 그러니까네, 남자가 가마이 하면(조용히 하면) 될 낀데,

"좋나? 좋으면 좋다 캐라. 좋나? 좋으면 좋다 캐라."

하면서, 자꾸 하거든. 아가 이 춥은데 그 이불이 들썩거리이 춥거든. 그러께네,

"엄마, 얼른 좋다 캐라." [일동 웃음]

이래 카더라요. [일동 웃음] 들썩거리까네,

"엄마, 얼른 좋다 캐라."

이라더래요.

[중구 설화 59]

어느 노부부의 사랑

강옥수(여, 1938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부평동 부평동원로의집]

옛날에 그 할아버지 할매들이 연세가 많고, 메느리도 보고 연세가 많고 하이께, 그래도 할배들이 한 번씩 할멈이 인제 생각나 잘라 카이까네, 여자들이 마 나이가 많으께 아무리 여물기가 없다 아이가. 꺼칠거칠 하이 그게 잘 안 되거든.

그러이까 메느리가 만날 집 뒤에 보몬 참기름을 짜갖고 이래 달아놓고, 이래 두 병썩 달아놓고 이러이께네, 또 아들이 인자 새오지름(휘발유)을 사갖고 라이타 할라꼬. 라이타 기름 옇을라꼬 이 병에다가 새오지름을 갖다 걸어난 데도 있고, 참기름 걸어난 데도 있는데, 이 할배가 인제 마 참기름인 줄 알고 새오지름을 갖다가, 라이터 넣는 새오지름을 그걸 갖다가 종발에(종지에) 조금 따라와갖고 할머니한테 할라꼬 기름을 이래 볼랐어(발랐어). 볼라가 할라 카이께 할매가 새오지름 보르니까(바르니까) 따갑거든.

"와 이리 따갑노? 따갑노?"

하이께네, 할배가 라이타 불로 켜갖고,

"왜 따가바?"

하면서, 탁 보이께 불이 나가 다 탔대요. 불이 나 여 다 탔대요. 그 대학병원에 가니까.

[중구 설화 60]

쓸모 있는 며느리의 방귀

김정자(여, 1940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부평동 부평동원로의집]

이 여자가 방구를 그리 잘 뀠는갑대, 빵구를. 그래 방구를 잘 귀께네, 이 저기 시집을 와가지고 노라이, 얼굴이 노라이 자꾸 마르는 거라. 사람이 자꾸 마르는 거라. 그래,

"왜 마르노? 니 왜 자꾸 마르노?"

칸께네, 그래,

"방구를 내가 몬 귀가 그렇다."

카거든.

"방구를 귀라."

이라이까네.

"내가 방구를 귀면 시아버지는 기둥을 잡고."

남편은 뭐 어디 어디 뭐 대들보를 잡으라 하더라나. 뭘 잡고 뭐, 누구는 뭘 잡고 뭐, 잡으라 하더란다. 그래가 인제 잡고 있으이께네, 방구를 뀌기 시작하는데 마 막 '벌벌벌벌벌벌' 하이 마 '풀풀풀풀' 날리는 거라. 기둥을 잡았는 것도 다 날리고. 전부 다 날리께,

"고마(그만). 고마." [웃음]

그래. 그래가 인제 도저히 시아버지가,

"아이고, 니를 데리고 못 살겠다. 내가 너 친정을 보내야 되겠다."

친정을 갔어. 친정을 가는데, 이래 가다 보이께 배나무 밑엔가? 뭐 나무 밑에 앉아서 쉬는데, 나무에서 뭐 밴가? 과일이 막 주렁주렁 있는데 뭐 먹음직스럽거든.

"허, 그참 하나 따먹었으면 참 좋겠다."

이러이께,

"아버님, 그게 잡시고 싶습니까?"

그러이,

"그래. 내가 저거 한 개 따 먹었으면 좋겠다."

이러이께,

"그러면 기다려 보이소."

쿠며, 나무에다 대갖고 고마 빵구를 막 귀댄께네 마 '줄줄줄줄'. 그래가,

"아, 니 방구도 쓸모가 있다."

카면서, 다부 데리고 오더란다. 그래서 인제 다부 집에 와가지고 데리고 살더란다. 방구가

쓸모가 있단다.

[중구 설화 61]

달래강 유래

김정자(여, 1940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부평동 부평동원로의집]

사촌 동생인데, 사촌 동생인데, 처갓집에 친정에 데리고 가잖아. 옛날에는 하나이 따라갔잖아. 그래 인제 사촌동생이 떡을 해가지고 짊어지고 사촌동생은 가고, 그 여자는 인제 그냥 가고 이래 가는데, 냇물을 건너야 되는 거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냇물 건넜어요. 냇물을 건너가지고 학교 다녔는데, 비가 오면 남대천 다리를 저- 우로 가야 되고. 질러갈라면 논두렁을 갔는데.

그래 이제 건너이께네, 이 다리가 인제 육체가 보이잖아. 옷이 뭐 비단옷 딱 붙어놔놓이께네, 그러이께네 이 남동생이, 사촌이, 남동생인가? 사촌이라 하더라. 남동생인가 오라바인가, 사촌이 가마 보이, 마마 그때 한참 시절에 정신을 몬 차리겠는 거라. 정신을 몬 차리가 마 죽을 판인 거라. 그래도 차마 형제간이께네 남매간이께네 뭐 하자 소리는 몬 하고, 저 건너 가 가이고, 물 건너 가가지고 돌멩이 있는데 이래 놓고 마, 이게 마 연장이다 마 이래 놓고 '퐁퐁' 뚜드리뿠는 거라. 그래가 고마 죽어뿌이께네 그 동생이, 누나가,

"한 번만 달라 해보지 와. 한 번만 달래 보지 왜 그래."

그 강 이름이 달래강이란다. 달래강.

"한 번만 달라해 보지."

커더란다. 결국 그 죽었단다.

[중구 설화 62]

손님을 못 오게 해서 망한 집

김정자(여, 1940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부평동 부평동원로의집]

그 한 스님이 올 때, [조사자: 그기 어느 마을인데예?] 어느 마을인지는 모르겠다.

"어짜면, 스님요 손님이 쫌 안 오겠느냐?"

고,

"어짜면 손님이 안 오겠냐고?"

너무 손님 많애서(많아). 잘 살아. 그러께,

"손님이 와서 못 살겠다."

칸께,

"그러면 내 말대로 해라."

이러께,

"아침마다 머리를 풀고 뭐 곡을 해라. 아침마다 머리 풀고 곡을 해라."

그런께, 손님이 들어오다가도 나가고, 손님이 들어오다가 나가고, 멫 달이 안 가가 망하더란다. 그기 온 복을 자기가 차는 거야.

[중구 설화 63]

할미꽃의 유래

김정자(여, 1940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부평동 부평동원로의집]

할미꽃이 그래 셋째딸을 부르다 부르다, 거서 꼬부라져 죽었거든. 그 할머니가 원한이 돼가지고 할미꽃이 됐단다.

할미꽃이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이고, 셋째딸 부르다 부르다, 안 돼가 고마 그 자리에 엎어가 죽었는데, 그게 한이 되어가 할미꽃이 됐다 카대.

[중구 설화 64]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김정자(여, 1940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부평동 부평동원로의집]

그래 인제 옛날에 인제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계시는가 모르겠다. 할머니하고 이래 계시는데, 하도 아가 울어. 울으면 밤에 인제 잠을 안 자고 우니까, 뭐 묵을 게 있어야 주제. 시골에 뭐 묵을 게 있나, 밥 아이고 군것질이 어딨나. 먹을 끼 없어. 달래다 달래다, 업고 달래다 안 되고, 안고 달래도 안 되고. 이래가,

"먹을 꺼 주지. 먹을 꺼 주지."

해도 안 된다.

"이거 주지."

안 된다.

"호랑이가 온다. 호랑이 온다."

해도, 안 달래고 울어.

"아, 그러면 저 벽장 안에 꽂감 주께."

뚝 그치는 거라. 그래 그 호랑이는 이제 문 앞에서 탁- 대기하고 있다가, 니가 울어가 쫓가내면(쫓아내면) 잡아먹을 껀데, 얼른 업고 갈 껀데, 아가 안 내놓거든. 그런께 할머니가 업고, 그러면 저 호랑이 온다 해도 안 되고, 아무 것도 해도 안 돼서,

"그러면 꽂감 줄게."

카이께, 아가 뚝 그치거든.

아, 호랑이가 생각하다가, '아! 저게 내가 쫓아내면 잡아먹을 건데 내보다 더 무서운 꽂감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꽂감이 이거, 호랑이가 자기 옛날에는 최고랬는데, 산신령이라 하고 최고라 했는데.' 그거를 인제 그거를 꽂감이 마 줄줄이 놓고 배가고파, 이거 뭐야꼬? 호랑이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아를 잡아먹겠는데, 아가 고마 뚝 그치니께네,

"내보다 더 무서운 꽂감이 있는갑다."

싶어서. 그래 애를 꽂감을 주고서 달래더란다.

[중구 설화 65]

세 딸 집을 찾아간 할머니

김정자(여, 1940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부평동 부평동원로의집]

할머니가 저 시골에 아주 산골에 사는데, 자식을 딸 삼형제만 낳았어. 딸 삼형제만 놓고 아들을 못 낳는 거라. 옛날엔 아들을 못 낳으면 칠거지악이라 했는데, 아들을 못 놓으면. 그래 인자 쫓기날 판인데, 할머니 혼자 나이가 들어가 있다 보이, 우리보다 더 나이가 많았겠

지. 혼자서 이래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큰딸네 집에 갔다. 얻어먹으러.

오늘 큰딸네 집에 갔다. 딸네 집에 가니까 문밖 대접을 하는 거라. 오든가 말든가 마, 엄마를 그거 할 그게 없는 거라. 그래서 또,

"안 되겠다. 오늘은 둘째 딸네 집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둘째딸네 집에로 또 고개를 몇 개 넘었어. 그 지팡이를 짚고 고개를 넘어가 둘째 딸네 집에 가이까, 역시 둘째딸 집에도 엄마를 문밖 출입을 시키고 안 딜라주는 기라.

"아, 인제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인제 갈 곳이 없으니 막내딸네 집에만 가야 되겠다."

그 밖에 갈 데가 없어. 그래 저 고개를 넘어 넘어가다 해가 넘어지는 거라. 해가 넘어지면 인제 어두워지니까네, 고개를 넘으면 막내딸 집인데, 그 고개를 못 넘고 거기서 막내딸 이름을 부르면서, 막내딸 이름을 잊어버렸다.

"막내딸, 막내딸."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옆에 사람은 못 듣기는 기라. 배가 고프니까.

"막내딸, 막내딸."

하다가. 고마 거서 쓰러져뿠는 기라. 이 막내딸은 항상 엄마를 그리워 했는 거야. 효녀다. 그래 엄마를 그리워하다가,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설랑, 그 고개를 뛰어넘어 간께네, 엄마가 거서 쓰러져 죽었어. 거기서 쓰러져 숨을 거뒀어(거두었어). 그래서 초상을 치고. 우리가 마 그 책을 보면서 울었다. 삼학년 땐가 교과서에 나와서.

[중구 설화 66]

찔레꽃이 필 때 찾아온 아버지

김정자(여, 1940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부평동 부평동원로의집]

배가 고파가지고 옛날에 먹을 게 없는 거라. 옛날에는, 옛날 시절에는 먹을 게 없으이, 이 농사만 짓고 살았거던 우리나라가. 농사 그것만 살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아버지가 딸네 집에를 가서로 밥을 좀 얻어먹을라꼬.

그래 갔으니까네, 아무리 기다리고 방에 앉아있어도 밥을 안 가져오는 거라. 부엌에서 뭐 딸각딸각 소리만 나고 밥을 안 가져와. 그러니 아버지가 이상하다 생각하고설랑 있었는데, 나중에 본께네 밥상을 채리가 왔더래. 상을 채리가 왔는 거로 아버지가 인자 이렇게 밥그릇 뚜껑을 뚝, 옛날에는 뚜껑을 덮었는데, 가에를 덮었잖아. 딱 물만 한 그릇 팔팔 끓여가지고 거기 담아가 왔더래. 딸네도 너무 없으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얼마나 섭섭했겠노?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오시는데, 무슨 고개 넘어 오시는데 보이 찔레꽃이 안 핐습디까?"

이러이께네,

"찔레꽃이 핐더라."

이러이께네, 찔레꽃 필 때가 보리도 아직 몬 묵고, 보리도 아직 파래가 몬 묵고 논농사 밭농사는 안죽(아직) 할 그것도 아이고 그게 보릿고갠 거라. 그래가,

"찔레꽃이 핐더라."

"찔레꽃이 필 적에는 딴 데 가지 말고 바닷가로 가세요. 거기 가시면 잡술 거 있습니다."

봄에 이제 파도가 치면 저게 뭐야? 뭐라 카더라? 미역, 미역 말고 뭐뭐 파래니 뭐 얄궂은 그런 거 파도 치면 이렇게 밖에 나온단대. 그거를 줏어먹으면. 바닷가에는 가면 먹을 게 있어도 그 외에는 먹을 게 없다고.

"어버지, 찔레꽃이 안 핐습디까?"

그래이,

"찔레꽃이 핐더라."

"바닷가로 가세요."

하더란다. 너무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중구 설화 67]

은혜 갚은 까치

김정자(여, 1940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부평동 부평동원로의집]

나그네가 인자 과거하러 이래 배낭을 걸머지고, 짚신을 한 짹이(짝이), 한 컬레 넣고 배낭을 걸머지고 간다. 가다 가다 어느 고개를 넘어 옛날에는 경상도에서 서울로 가자면 문경새재를 넘어야 된대. 다 문경새재를 넘어야 경성으로 가는 거라. [조사자: 한양으로.] 경성으로 가는데, 그 문경새제를 안 넘으면 못 간다 하대.

그 문경새제는 그래 도둑놈이 많았대. 그 문경새재를 그 아저씨가 넘어간다고 인제 갔는 모양이라. 거는 마 도둑놈이 소굴인 기라. 무조건 가면 잡으면 마 다 뺏기고 죽고 이래 하는데, 문경새재를 넘어서 가다 가다가, 어땠다 하더라? [조사자: 주막에서.] 문경새재 넘어가가 주막에서 인제 잠을 자게 됐는데, 뭐 방에서 이래 들어보니까, 무슨 칼 가는 소리가,

"쓱싹, 쓱싹."

나더라네. 그래가이고 '아이고, 무서라. 이기 무슨 소린고?' 하고 이래 들으니까,

"오늘 이제 한 놈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살 그게 된다."

그때만 해도 인(人)고기도 먹고, 별로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먹었는 모양이라. 칼을 '쓱싹 쓱싹' 갈더래요.

"저 놈을 오늘 저녁에 잡아먹어야겠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알아채리고, 뭐 어디 밤중으로 어디로 도망을 갔던가? 우리 애릴 때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조사자: 지나가다가 까치를 살려주고.]

아, 그래. 그 사람이 가이까 어느 고개를 넘는데 하-도 까치가 울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구렁이가 큰- 놈이 이래 나무에 이렇게 감아가면서 올라가더래. 근데 보니까 그 위에는 까치 집이 하나 있는데, 까치 새끼들이, 낳은 지 얼마 안된 것들이 '쪽 쪽 쪽 쪽' 입을 내고. 이래 보이까, 구렁이가 한 마리 잡아먹으러 올라가는 거라. 그래 이 사람이,

"내가 물론 과거는 봐야 되는데 저 나놓으면 생명이 다 죽겠다."

싶어서, 고마 이 사람이 고마 활을 고마, 옛날에는 항상 이래 총 대신 활을 쓴께, 활을 가이고 땡깄다. 활을 고마 댕기니까 구렁이가 고마 거기서 떨어져 죽어버렸어. 죽고난 다음에 까치는 살았을 거 아이가.

그래가 인제 이 사람이 간다. 가다 가다 어디 고개를 가다가 또 잠을 자. 자야 되는 거라. 수백 리를 가야 되잖아. 하룻밤을 자고 가겠어? 가다가 어느 집에 불이 빤-한데, 산중에 한 집에 불이 비치더란다. 그 집에 가가,

"에헴, 주인장 계세요."

이러이께네, 예-쁜 색시가 나오더란다. 그래 들어가니까,

"그래 하룻밤 여 묵어갈 수 있느냐?"

이라이께,

"묵어가시라."

그러더란다. 그래 들어가니까 그 집에서 자는데, 한-참 그 얼마나 피곤하노? 굶고 뭐 걸음을 마이 걷고 이래놓이. 피곤해가 이래 자고 일어나이께네 갑갑하이 올라오더래. 자기가 막 숨이 콱- 차이가 올라오더래. 눈을 딱 뜨니까, 뱀이가 착- 자기 몸을 감았더래. 감아가지고 입을 딱- 벌려 가지고 요 얼굴을 쳐다보고,

"니가 저 뒷동산 저 절에, 그 절이 있었다 하대. 뒷동산 절에 종을 세 번을 울리라. 종을 세 번을 울리면 내가 하늘 등천을 해가, 용이 돼가지고 하늘로 등천을 할 낀데, 그래갖고 내가 이 세상에 이태까지 태어나 이렇게 살았는데, 니가 내 부인을 활을 쏴가 죽였으니까,"

죽인 놈이 암놈이랬는가 봐.

"내 부인을 쏴 죽였으니까. 니 와 종소리 세 번을 못 울리면, 니 내 아내의 원수나 갚자. 종소리 세 번 울리라. 안 그러면 내가 닐 잡아물끼다."

그래 뭐 이 사람이 인자 꼼짝도 몬 하지. 꼼짝도 못하고 있다. 아, 생각지도 안했는데,

"땡-, 땡-, 땡-."

세 번 종이, 종소리 세 번 울리더란다. 그런께네 얼른 풀고 나가가 하늘 등천에 용이 되어가 올라가뿠는 거라. 그래가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종소리 나는 절간 앞에 가니까, 까치 세 마리가 여 머리에, 이거 박(머리를 말함)이 다 깨져가지고 거서 죽었더란다. 은혜를 갚는다고.

[중구 설화 68]

엄마로 변장한 호랑이

김정자(여, 1940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부평동 부평동원로의집]

옛날에 인제 없이 사이까 인제 딸네집인가 이웃집인가 떡 해주러, 품삵 팔러 갔겠지. 품팔러 가가지고 인제 하루 종일 떡 방앗가를 찌주고(찧어주고). 밤에 인제 아들은 올망쫄망 이 집에서 할머니 떡 오도록만 기다리고 이래 있는데, 뭣이 있다이께네,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이라더란다. 문을 잠가놓고 있은께.

"엄마 목소리가 아인데예."

이래 있으께,

"일을 마이 하다보니 목이 잠기가 그렇다."

"아닙니다."

그런께, 그러면 엄마를 확인할라면,

"손을 보자."

이랬는 갑대. 옛날에는 전부 문종이를 가지고 문을 발랐거든. 유리가 없고, 그래 우리 클때도 다 문종이를 발랐는데.

"문종이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엄마 손인가 손을 보자."

손을 보자 칸께, 손가락을 싹- 넣이 보이, 호랑이가 마 털이가 숭게숭게한 게 마 호랑이 손인 거라. 그러이 아들이 문을 안 열어줬다 하대. 끝에는 몰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옛날에는 뭐 우리 쪼깨날 때는 앉으면 고런 얘기 했잖아.

[중구 설화 69]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김정자(여, 1940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부평동 부평동원로의집]

그래 없이 살아가지고, 너무너무 없이 살아. 남편은 군에 갔는가 어디 갔는가 없고. 하도 배가 고파 할머니는 장님이라. 시어머이가 장님이라. 그래 없이 살으이 뭐 먹을 게 있어야 드리제.

그래 하루는 인제 저 시골에 가면 개가 보리를 묵어가, 디들방아(디딜방아)를 보리를 찧이 놓는다 아이가. 보리를 찧어놓으면 그 개가 저도 배가 고프다 아이가. 우리도 배가 고프는데, 보리 찧어가 널어놓으면 그 보리쌀을 먹었는 거라, 그 개가. 소화도 안 되는 걸 그대로 내 놓는 거라.

메느리가 가다가 이래 보이께 보리쌀이거든. 똥은 똥인데 보리쌀이거든.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인제 담아가지고 열불 나도록 씻는 거라. 그 효부 아이가. 그 시어머니 봉양할라고 남편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자기부터 한 숟가락 딱- 떠먹어보는 거라. 죄 안 받을라고. 안 그러면 죄 받는다 아이가? 그래서 시어머니 봉양을 하고.

그리고 그 품삯도 버릴(벌) 게 있어야 품삯도 버리제. 그래 하루는 하다 하다 생각할 게 없어가지고 땅을 팠단다. 또랑 같은 데 파이께 지렁이가 항거(많이), 지렁이가 있잖아. 그걸 잡아가지고 살아있잖아. 잡아가지고 탁 장물에 씻거가지고 그걸 삶아가지고 할머니 내- 드맀어. 그 보신 아이가? 보신은.

이 할매가 마 눈은 장님인데도 마 먹어보이 너무 맛있는 거라. 마 쫀득쫀득한 기 구수-하이 너무 맛있는 거라. '아, 이렇게 우리 메느리가 효부가, 나를 이래 좋은 걸 갖다가 음식을 해주는데, 내가 혼자만 먹고 있을 수가 있나.' 싶어서, 한 마리를 딱- 가지고 자리 밑에다 숨가났어(숨겨 두었어). 숨가놔나놓고 아들이 그래 인제 징역을 갔든지, 어디를 의용군을 갔든지 어데 갔다 와가지고 엄마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야, 내가 어느 시절에 배가 고파가 이래가 있는데, 너거 처가 나를 이거를 고아가지고 줘가지고 이 보신이 되고 이걸 먹고 내가 살았다. 이거 한 번 봐라."

이라면서, 자리 밑에다 딱 들쳐가 아들을 보이니까,

"엄마나! 엄마, 지렁이네요!"

카면서, 가암을(고함을) 지르더란다.

"엄마, 그 지렁입니다."

카이, 시어머니가, 할머니가 기가 차가지고,

"뭐어?"

카면서, 눈을 번쩍 뜨더란다. [일동 웃음] 그 만큼 그 효부가 되니까 눈을 번쩍 떴다 하더라고.

[중구 설화 70]

자식 죽여 부모 살린 효자[산삼동자]

김정자(여, 1940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부평동 부평동원로의집]

엄마하고 부부간에 살았는데, 부부간에 살았는데 하-도 먹을 게 없고 이러이께, 엄마가 아팠어. 마이 아파가지고, 촌에는 어디 갈 수가 있나. 아파가 죽게 됐으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들 메느리보고,

"야야, 아무 것아. 내가 무엇이 먹고 싶으다."

무슨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겠지.

"무슨 고기가 먹고 싶으다. 먹고 싶으다."

해줄 게 있나. 아무 것도 해줄 게 없는데 뭐를 뭐 고기고 뭐 닭이고 뭐고 있어야 해주지. 이제 부부가 의논을 했어.

"우리 또 놓으면 자식이니까, 아를 저거를 고아가지고 어머니를 드리자."

부부가 의논이 맞아가지고. 그 참 인제 그게 진짜 효부겠지. 아를 큰 가마솥에다가 물을 펄펄 끓는 걸. 뎃 살(서너 살) 먹은 모양이야 아가. 해서 먹었는 모양이라. 어린놈을 잡아옇어가 푹- 고았어. 푹- 고아가지고 그거를 엄마를 대접을 했어. 하이께, 할매가 얼마나 맛있게 잡숬고, 묵으께네 얼마나 맛이 있노? 고긴데. 그래 먹고 일어났어, 할매가. 일어나가지고 살았어. 다 죽어가는 목숨이 살았는데 일어나가지고는 또 손자가 보고 싶어. 눈만 뜨면 아 이름을 부르며,

"아무 것이 보고 싶다. 아무 것이 보고 싶다. 야들아, 아무 것이 어디 갔노? 아무 것이 덱고(데리고) 온나, 보고 싶다."

내 인제 그래 소원을 하니까, 솥에 고았을 때는, 아를 넣었을 때는 솥뚜껑을 들쳐가지고 할매 드릴라고 딱 보니까 산에 산삼 있제? 산삼 한 뿌리가 동동 뜨더란다. 아무것도 없고, 아도 없고, 산삼 한 뿌리가 동동 떠서 그걸 잡수고 할매가 일나가 살았는데, 할매가 자꾸 아를 보고 싶다하께네, 아들 메느리는 자식을 잡아가 삶아가 줬으니까 없잖아. '아 보고 싶다.'고 내- 그래싸이께네 아를 어디서 이름을 딱 부르이께네,

"할머니."

하고, 뛰 들어오더란다. 그러이께네 너-무 효자 효부가 되니까 신령님이 돌보셔가지고, 하느님이 돌보셔가지고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

[중구 설화 71]

사람 뼈로 나병에 걸린 남편을 살린 부인

김정자(여, 1940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부평동 부평동원로의집]

우리는 틀 적에 6·25가, 우리 열 살 때 6·25가 났거든. 근데 우리 이웃 동네 거는 이웃 동네라. 이웃 동네 아는 사람이라. 아는 사람인데 시아버지가 풍병[185]이 걸렸어. 손이 요렇대, 풍병에 걸리놓이 손이 요렇더라고. 미산댁이라고 각씨다. 영감이 만날 물께를 이래 여름이면 논에 물 이래 하잖아. 만날 손 이래가지고 물끼를 뒤에 짚고 가는 걸 우리가 봤어. 학교 다니면서.

그 집에서 인제 사람 인(人고)기를 먹으면 문디가 낫는다 이래 나노이께네, 그 사람을 잡아먹을 수는 없잖아. 그래 이 메느리, 어디냐면 안동에서 거서 일월산이라 하는데, 우리 안동 거기서도 일월산 가자면 멀어. 굉장히 깊으고 높으다. 일월산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거 가면 거 산 골짜기에 이 메느리가, 우리 큰오빠하고 자기 남편하고 그때 의용군, 군인 시대를 그때 이제 아직 빨갱이가 안 들어왔고. 군인 시댄데 아군들이 있을 때 와갖고 잡아갔어. 청년 있으면 무조건 다 잡아가 갔거든. 그래가 우리 오빠하고 그 집 아들하고 둘이 잡히가 갔는데, 우리 엄마는 우리 큰오빠가 그러니까 환장을 하는 거라. 내가 열 살 될 때니까네 우리 오빠는 스무 살 안 됐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여자가, 아들 머스마 하나 저기 나놔놓고 아들이 군대 가삐니까, 그래가지고 그 여자 산골에, 일월산 굉장히 산이 높아. 골이 말도, 거기에는 어느 골인지 들어가면 사람이 못 나오는 거라. 찾지를 못하는 거라. 그래 거 드가이께네, 세상에 인민군이 우리 아군들하고 전투를 거기서 했는데, 하다가 어느 사람인지 모르지. 인민군인지 아군인지도 모르는데, 전투를 하다가 마 이렇게 마 이렇게 송장이 마 누븄더란다. 온 전신에 누븄는데 그 여자가 얼마나 악종이라 악종.

그래 가가 마 이렇게 마 살이 상했더란다. 그런 걸 손으로 마 다 뜯었단다. 다 뜯어내고 그 뼈를 가마이를 가져가가지고 가마이에다 옇어가지고 누구를 덱고(데리고) 갔겠지. 한 짐 지고 와가지고 저 어데 산 골짜기, 자기 동네에서도 저 어디 골짜기 숨가 옇놔놓고 동네 소문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그런께 매일 저녁마다 가가지고 칼 가져가가 마 빼가(뼈가) 그래 야물더란다. 젊은 사람 뺀데 안 그랬겠나. 아직 살이 썩어가지고 다 내려앉지도 않았는데. 그래 매일 칼로 긁어. 칼로 긁으께 불이 반짝 반짝 나더란다. 새파란 불이 반짝 반짝 반짝 나더란다. 긁어가, 그래 매일 긁어가이고 그거를 얼마씩 갖다 믹이가(먹여) 그 영감 고칬다. 풍

185) '풍병'은 중추 신경에 탈이 나 생기는 병을 통칭하는 것이나, 이야기에서는 나병을 말한다.

병 고쳐가지고. [조사자: 할머니, 이 풍병은 나병 환자.] 응, 나병 환자. 그래 곤치가(고쳐서) 그 살다 죽었다야. 그래 우리 만날 그란다.

"아, 니 새댁이만치 지독한 여자 이 세상에 없다."

컨대(한대). 자기 남편은 죽고 시아버지 데리고 시동생 데리고 그래 아들 데리고 그래 살았다. 그때 6.25때 말 마라.

[중구 설화 72]

고동 각시

김정자(여, 1940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부평동 부평동원로의집]

너무너무 못 살았잖아 옛날에는. 지 땅이 없으면 어떻게 사노? 자기 땅이 없으면. 못 살아가지고 인제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 살았어. 그런데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아들 혼자 엄드렁 노총각이, 나이 많은 총각이 혼자서 살았어. 그래 살면서 땅이 없은께, 매일 산에 가가 산을 쪼싸가지고 거다 씨를 숨아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고 사는 거라. 그래 하루는 이래 밭을 쫏다가 하도 서글프니까 자기 인생이 처량하니까,

"이 팔밭을 쪼싸갖고 누구하고 내하고 먹고 사-노?"

이러이께네, 저 쪽에서,

"니하고 내하고 먹고 살-지."

하는 소리가 듣기더라네. 그래가 '이상하다.' 싶어가 또,

"이 팔밭을 쪼싸가지고 누구하고 내하고 먹고 사-노?"

이러께,

"니하고 내하고 먹고 살-지."

하더란다. '이상하다.' 싶어가 그 소리 나는 쪽으로 가봤다네. 가보니까 누구냐 하모 요런 웅덩이가 있는데, 물 웅덩이가 이래, 샘 웅덩이가 있는데 고동이 요만하이 하나 있더라네. 그래가 '이상하다.' 싶어가 고동을 줏었어. 자기 집에 물덤벙,[186] 우리 시골에는 물 이래 독아지(독)에 먹었거든. 물동이 안에 갖다 옇어놓고 자기는 맨날 팔밭 쫓고 이랬는데 기분이 좀 이상했겠지.

갔다 오면, 저녁에 오면 밥을 탁- 한상 채리놓고 마 반찬하고 채리놓고 사람도 없고 기다려도 없고 고것만 있고, 밥이 있는 거라. '이상하다.' 싶어서, 며칠 계속 그래 있는 거라.

186) '덤벙'은 '못'의 방언. 이야기 속 물덤벙은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를 말함.

그래가 하루는 탁 숨어가지고 누가 하는고 보기는 본다고 숨어서 봤어. 보니까 저녁때가 되니까 탁- 예쁜 한복을 입고 그 덤벙에서 싹 나오더란다. 고동이. 덤벙 밖으로 살- 나오더니 밥을 하더란다. 부엌에서 밥을 짓고 탁 잘하디만은 탁 차리놓고 다시 구멍에 들어가더라네. 물덤벙에 들어가는 걸 탁 잡았대. 잡으면서,

"내하고 살자. 당신이 그래 할 수가 있나. 내하고 살자. 왜 덤벙에 들어가느냐. 고마 여 같이 살자."

이러이께,

"아직 때가 덜 됐다. 잠깐만 기다려라. 얼마만 기다리면 내가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당신하고 산다."

아, 이 사람이 너무 순진하고 참 효자고, 사람이 그러이께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같이 잘 살더란다. 옛날에는 다 그런 것도 있었나 봐. [조사자: 고동각시다, 그지요?] 그렇지.

[중구 설화 73]

도둑으로 키운 엄마를 원망한 아들

김정자(여, 1940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부평동 부평동원로의집]

어릴 때,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그 말이 있제. 어릴 때 어디 가가지고 이놈이 마음에 좀 그거 하이께네, 그기 마음이 있으면 고마 가져와서 지가 뚱치[187] 오가 집에 가져왔어. 가져와서 엄마를 주니까, 옛날 시절에 이런 거 하나 주면 얼마나 좋았겠노? 그래 주니께 엄마가 억수로[188] 반가워하는 거라.

"야야, 그게 어디 있더노? 하이고 야야, 그기 어딨는데(어디에 있느데) 니가 가왔더노?"

"엄마, 어디 보니 이게 있어서 내가 줐어왔다."

이랬어. 그래서 또 그러고, 그 다음에도 또 그러고. 어디 가서 뭐 또 있으면 그거 뚱치가지고 엄마 갖다주면 그래 반가워하고, 반가워하더라대. 그래 한 번에는 어디 장에 갔다. 아, 이 아가 컸어. 커가지고 어른이 다 되어가는 데도 광목을 어디 가서 한통 가 왔더라네, 광목을. 그래가,

"아이고, 야야, 이 어데서 광목을 이래 났노?"

이러이께네, 장에서 뭐 끈이 이래 있길래 땡기가지고 나오이께네 광목이 딸리오더란다.

187) '뚱치다'는 '훔치다'의 경상도 방언.
188) '억수로'는 '굉장히'의 경상도 방언.

"광목이 딸리와가지고 즜었다."
고. 그래가 마 가져와가 주니께, 엄마가 좋아하는 거라. 광목을. 그런께 소 도둑이 바늘 도둑 된다꼬.

그래가 이놈이 나중에 자꾸 도둑질하다보니 잡힜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잡히잖아. 잡히가 어디를 갔냐 하면 형무소로 갔는 거라. 형무소로 가가지고 우찌 됐노 하면 엄마가 면회를 갔는 거라.

"엄마, 보고 싶다."

이러이께,

"엄마, 내가 엄마인데 소원이 한 가지 있다."

이런께,

"뭐가 소원이고?"

이러이께,

"내가 엄마 젖 한 번 빨아먹어보는 게 소원이다."

이제 죽길,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엄마가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젖 한 번 달라는 기 어렵지 않잖아? 지 새끼가 달라 한께, 그래 젖을 꺼내가 주께네, 꽉- 물어가 젖꼭다리(젖꼭지)를 싹 빼뿌리. 어마이도 죽고, 아들도 죽더란다.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맨들었다."

그러께, 어릴 때부터 뭐 가 오면 좋아하면 안 돼, 절대로. '절대로 이런 짓 하지 마라.' 이래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하나 갖다주이 '아이고, 야야, 이 어디서 났노. 이 귀한 게 어디서 났노.' '어디 가서 오다보이 이게 있더라. 즜어왔다.' 재미를 내 자꾸 하다 보이께. [조사자: 엄마한테 원한이 있었다. 그지요?] 그런께, 그래가지고 결국 아들이 죽이더란다. 그놈이 그러께,

"엄마 때문에 내가 죽것다."

하고, 젖을 깡 물어가지고 뜯어삤다. 죽어뿌더란다.

클 때 마이 그러잖아? 그 지가 타고나야 되지, 억지로 효자를 만들면 안 되는 거라.

[중구 설화 74]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정자(여, 1940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부평동 부평동원로의집]

옛날에는 칠십이 고려장이라 안 캤나. 근데 이제 엄마가 나이 많으이께네, 이 집에든지 법대로 해야 되니까, 칠십 되이께네 업고 산에 고래장하러 갔는 거라. 가는데 아들을 덱고(데리고) 갔어. 엄마를 업고 아들을 덱고 산에 가가지고 구뎅이(구덩이)를 파가지고 엄마를 거 옇어놓고 일주일인가 먹을 양식을 넣어놓고 온다대. 그 다 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야. 그래 인제 다 해나놓고 엄마를 옇어놓고 오는데 지게를 내삐리고 오거든. 지게를 버리뿌고 오는 거라. 그래 버리뿌고 오께네,

"아버지, 지게를 와 버리노? 가져 가자."

이러이께네,

"나도 아버지 나중에 나이 많으면 져다가 이 해야 되니까 지게를 가 갑시다."

이러께네, 다시 지게를 짊어지고 엄마를 꺼내가 오더란다. 지는 안 죽을라고. [조사자 웃음]

[중구 설화 75]

며느리를 길들인 시아버지

김정자(여, 1940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부평동 부평동원로의집]

그래 이 시아바이가, 하도 메느리 밥을 안 줘, 작게 줘 죽을 판이라. 그런께 매일마다 소죽 끓이는, 할아버지가 소죽 끓이는 걸 자기 담당인 갑다. 소죽을 끓이는데, 시골에는 와 촌에 왜 삼 비고 왜 그기다 무시(무우)를 심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김장을 했잖아. 그래 짠짠한 무 요런 거를 매일마다 한 개씩 그 소죽 불에다가 꿉었어. 꿉어가 매일 배 고프니까 그거를 잡샀는 거라. 한 해 겨울을 그러고 나니 허옇는 거라, 살이 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하이고, 저 집에는 저 집 할아버지는 우째 얼굴이 저래 좋고. 살이 저래 쪘는고?"

옛날에 저기 무우가 인삼이라 캤잖아. 그래가,

"아이고 우리 며느리, 나를 얼마나 잘 거다가지고(거두어서) 내가 이래 먹고 이래 됐다."

이런께네. 동네 사람마다 나가면 인사하거든.

"와, 당신은 우예 시아바지를 저래 잘 거돠가지고 그렇노?"

그래 후부텀은(후부터는) 잘 거두더란다. 메느리 길을 들이더란다.

[중구 설화 76]

개똥을 씻어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조학임(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영주1동 대명원로의집]

옛날에 들어봤는데, 배가 고프고 그래도 어떻기 시어머니를 봉양할 그것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디 인자 지나가다 보니까 개가 토했어요.

그래 인제 바로 그걸 씻어가지고 그 시어머니 드리기가 좀 죄스러워가지고 자기가 일단은 한 번 먹고, 쪼금 먹고, 그래 시어머니를 그래 갖다가 다시 끓이가지고(끓여가지고) 그래 드려가지고 시어머니가 일어났답니다.

[중구 설화 77]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조학임(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영주1동 대명원로의집]

옛날에는 저 나이 많어, 너무 많으몬 안 좋으니까, 그 지게에다가, 지게에다 할머니를 저저거하고, 저 인자 굴을 파가지고 거기 다 인제 먹을 것 좀 넣어주고, 그래 인제 다 자시면(드시면) 돌아가시라고.

옛날에는 나라에서 그래 오래 살면 그냥 놔두고 하면 벌 받거든. 그랬대. 그랬다 하대예. 그러이까 인제 무서운까는 숨쿠고 숨쿠다가(숨기고 숨기다가) 할 수 없이 인자 어머니 저저 할머니가 하도 나이가 많으니까는, 그 자기 어머니를 인자 지게에다 짊어지고, 갖다 그 굴 파가지고 그래 고래장을 해놓고 인자, 아직 그 더 이상 못 사는 기라 인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굴 안에 딱 그래가 넣었으니까. 그래가 지게를 가져 왔어.

가져 와가지고 인제 집에, 인자 쓸라고, 집에 써야 되니까 나무 할라몬. 그래서 그 지게를 갖다가 인자 헛간에다가 인자 딱 넣고 그 앉아 들어갔는 기라. 들어갔는데, [청중: 손주가 집에 오고.] 어, 그래 인자 [조사자: 손주가 따라가고.] 손지가 따라 갔어. 둘이 인자 몰래 갔는데도, 불이 저저 뭐야 달이 밝은 보름달인 기라. 그런데 인자 손주가 따라 갔어. 따라 갔어. 따라갔어.

그런데 가서, '왜 할머니를 저기에 저래 지고 가는가?' 궁금하거든. 그래서 몰래몰래 가면서 인제 자갈 돌, 반짝반짝하는 돌. 무슨 돌이더라? 그 가지고 올 적에 그 갈려고 하나씩 하나씩 떤져놓고, 그 가서 보니까는 그 자기 엄마를 갖다가 굴속에 집어옇고(집어넣고) 그러면

서 탁 문을 닫고서리(닫고서는) 그리 지게 지고 오거든. 와가 지게를 갖다가 헛간에 딱 놔뒀어. 저거 아버지가. 그랬는데, 그 지게를 어째서 인제 그거 없앨라 하니까,

"아버지 그 지게 놔두소."

그러니까,

"그 다 부서진 지게를 뭐 할라고?"

그러니까나,

"아 놔둬야 이 담에 아버지, 아버지 지가, 아버지 나이 많으몬 그거를 갖다가 할머니 같이 그래 해야 될 거 아입니까?"

인자 그랬다는 소리 들은 거 같에여.

[중구 설화 78]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조학임(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영주1동 대명원로의집]

애기가 밤에 그래(그렇게) 울어 싸서, 아무리 달래도 안 되고, 인자 호랭이가(호랑이가) 안자 왔는데. 호랭이가 밖 안에서, 옛날 집에 마 울타리도 없고 이런 집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께 호랭이가 잘 산 밑에 사니까, 호랭이가 인자 자주 내러오는데, 마침 인제 애가 하도 울어 싸니까나, 달래도 안 되고 업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나, 저 인제 [조사자: 호랭이 온다.] 예 예. 꽂감(곶감)을 줘도 안 되고, 그래서 인제,

"호랭이가 온다. 호랭이가 온다."

하니까는 애가 무서워가지고 진짠(진짜인) 줄 알고, 그래 인제 울음을 뚝 그쳤다고. 그런 소린 들은 것 같애.

[조사자: 호랭이 온다 해도 울어 싸서.] [청중: 꽂감 준다.] 아! 꽂감 준다 하니까는 애가 울음을 뚝 그쳤어. 그러니까 호랭이가 이제, '아이고 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가 보다.' [웃음] 애기가 그래 울더마는 인자 꽂감 준다 하니까 뚝 그칬거든요. 그러이까는 '나보다 더 무서운가보다' 싶어서 그래 도망갔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예.

[중구 설화 79]

몽당빗자루에서 생기는 도깨비불

조학임(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영주1동 대명원로의집]

어떤 할배가 인제 술 한 잔 자시고, 그래 인제 비틀비틀 해가고 큰 고갤, 인자 밤이가 됐어. 인자 술 먹다 보니까. 그래서 인자 산길을 가는데, 이게 길을 못 찾을 텐데 이상하게 마자기 가는 길이 다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인자 그 불길만 따라서 어디까지 가니까는, 거게 인자 저 몽당 빗자라데.

저 여자들이 부엌에서 밥 먹는다고 이렇게 깔고 앉아가지고, 이제 밥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옷이 인제 헌, 그런 옷을 입으니깐 그게[189] 묻었어. 머시기가. 그래 인제 그래가지고 그 몽당 빗자리가 다 됐다 버렸어. 버리니까 그게 인제 그 도깨비불이 됐비린 기라. 그래가지고 그거 빛만 가다 보니깐, 어딘가 가가지고, 그리고 또 잊어버렸어요.

[중구 설화 80]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조학임(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영주1동 대명원로의집]

에밀레종을 만들었는데, 나라에서. 저기 해도 안 울리는 기라. 소리가 안 나는 기라. 그러니까는 저 저 그래가지고 인제 수소문해가지고 인제,

"이 종이 울리게 하면은 뭐 뭐뭐 보상을 주겠다."

뭔가 어쩐가 해가지고, 저 [말을 바꾸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조사자: 애 어르면서.] 애 어르면서, [조사자: 스님이 안자 동냥하러 가이까.] 어, 동냥하러 가니까는 줄 거 없는데, 우리 애 [조사자: 봉덕이 봉덕이.] 아, 애 봉덕이.

"봉덕이 주까?"

인자 이 애, 인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말이 나왔던가 봐요. 그래 인자 그랬는데 인자 종을 만들, 그 받아가지고 그 뭐야? 그거 부적, 뭐라 하나, 그 받아가지고 에밀레종을 만들었는데도, 아무리 해도 안 울어니까는 나중에 인제. [청중: 에밀레~ 소리가 난다 안 하

189) 월경을 직접 말하지 못하고 '그게'라고 했다..

나.]

[중구 설화 81]

도깨비 방아 찧는 소리

허정숙(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영주1동 대명원로의집]

우리 어무이(어머니)는 인자 어디 잔치에 가고, 우리 오빠 둘이는 인자 우리 어무이 데리러, 밤인데 데리고 갔비고, 우리 조카하고 내하고 방에 방에서 누우잔게(누워자니까) 노래를 불렀는 거야.

우리 집 옆에는 빈집이라. 빈 집인데, 아예 방아를 찧는데, 서이서(셋이서) 찧는데, 한 애기(아이) 방에 찧이갖고 도굿대에 탁 때리고, 또 한 애기 찍어가(찧어서) 도굿대다 딱 때리고, 또 한 애기 찍어 도굿대에 탁 때리는데, 무서워가지고 노래를 어디로 가삤는지 모르고, 이불로 덮어씨고(덮어쓰고) 땀을 얼마나 흘리고 있으니까, 인자 우리 오빠하고 엄마하고 오셨는데,

"너거 와 이래가 있노?"

"엄마! 도깨비다. 도깨비."

칸게,

"도깨비가 뭐 어데서 도깨비."

"엄마 방아 찍었다. 방아 찍었다."

인자 그랬거든. 그러니까 인자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니 그 집에, 빈 집에 가가지고 불만 때라. 내 그 집에 내 가 누우자꺼마."

카는 기라. 그래서 내가,

"무섭아서 꼼짝도 못하는 내가 거 가서 무슨 불을 때요?"

카인께네,

"바알(바깥)에 가서러 부엌에 가서 물 한 그릇 떠가 온나."

카는 기라. 내가 무섭아 몬(못) 나서 있는데, 우리 작은오빠가 인자 소변 보러 갔는 기라. 그때 따라가지고는 물로 떠가지고 우리 오빠는 방으로 쏙 들어가, 내가 방을 몬 들어갔거든요. 그래가 배기미(바가지)로 받들고 오다가 널짜가(떨어뜨려서) 깨삐맀어요. 깨삐리고,

"엄마야!"

카면서 고함을 지르고 들어갔거든요. 그걸로 끝입니다.

[중구 설화 82]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허정숙(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영주1동 대명원로의집]

메느리(며느리)가 얼굴이 시집 와가지고 노래져가지고, 동래 사람들이,
"아이구 저 집 메느리는 왜 저래 얼굴이 노라노(노랗노)?"
이래 인자 쑥덕거리니까, 시아버지가 그거로 듣고,
"아이고 왜 저, 니는 왜 얼굴이 그리 노라노(노랗노)?"
이러니까,
"아버님, 결혼해가지고 '참아라 참아라' 해서, 그래 내가 방구(방귀)를 참아서 그래 얼굴이 노랍니다."
이래니까,
"아이구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아이구 뀌라. 방구로 뀌라."
한께,
"아이구! 방구가 너무 참아가 크겠습니더."
그러니까,
"그래도 뀌라."
카이까,
"아버님 기동(기둥)을 잡으이소."
카더라네. 그래서 기동을 잡으니꺼네 방구를 얼매나 크게 뀠던지 기동이 넘어가더랍니다. [일동 웃음]

[중구 설화 83]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허정숙(여, 1935년생) 구술
2019년 1월 29일 채록
[영주1동 대명원로의집]

옛날에, 신랑은 없고, 돈이 없어서 고기로 사다가 시어머니 대접을 몬(못)해가지고, 인제 껍데기 그거를 갖다가 마 잡아가지고, 막 빨아가지고 그래갖고 인자 시어머이로 인자 그거를 삶아서 인자 디맀는(드렸는) 기라. 한 번을 디리니까는,

"아이고 야야, 참 맛있다."

그런께, 인자 메느리가 계속 잡아가지고 빨아가지고 인자, 그거를 인자 삶아서 볶아서 이래가 인자 디맀는 기라. 그거를 계속 이래 이거 디리니까는,

"야야 내 눈이 우째 조금 밝아진 거 같다."

이랬는 기라. 그래니 시어마시가 그러니까 메느리가 그 얼마나 좋을 거야. 마 내- 눈을 감고 있다가. 그래서 그거를 계속 잡았는 거라. 계속 잡아 계속 믹있는(먹였는) 거라. 그러니깐 살도 찌고 눈도 인자 밝아지고, 그러이까 신랑이 오니까는 저거 어머니가 마 살이 쪄가 이래갖고 있거든. 이래가 있고 마 눈도 밝아지고 그래.

"니 어머니 대접을 뭐로 어쨌는데 저렇게 살이 쪘노?"

카이께네,

"그래 그걸 잡아가지고 이때까지 인자 해 드맀다."

이라는 기라. 이러니까는 다보(도로) 신랑이 마누래 머라하는(나무라는) 기라 인자. 머라하면서, 우리 엄마를 쑤안(흉한) 거 때리 잡아가지고 우리 어머이로 믹있다 카면서 머라 하거든. 그래인께나 인자,

"어머이 그거 잡샀습니?"

커이,

"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그거를 잡아서 날로 해줘서 먹고 눈도 좋아졌고, 얼굴도 좋아졌고, 나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함부로 뭐라 하지 마라."

그래 좋아졌대예.

[중구 설화 84]

시어머니가 미워 지렁이를 구워 먹인 며느리

서경자(여, 1951년생) 구술
2019년 1월 30일 채록
[영주1동 영주1동원로의집]

신랑이 인제 과거든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보러가면서,

"니 당신 어머니 밉제?"

"예."

"그람 빨리 죽구로 냇가 가서 지렁이 잡아가 꾸와 믹이라(먹이라)."

이라더라네. 그람서 밑에는 와 돗자리 같은 거 있제. 저 뭐라 하노 새끼 겉은 거 묶안 거 놓고. [조사자: 삽자리(돗자리).] 예. 그걸 깔아주고 이라더랍니다. 그러니깐 깔아주니깐 세상 그거 자아무께(잡아먹으니까) 살이 쪄갖고 멫(몇) 개월 있으니까 할머이 이렇더라네.

그 지렁이 기거(그것이) 보약이 된다면서 이라더라고. 나 그거 들은 이야기라고.

[중구 설화 85]

여자 음부 보고 놀라 도망간 호랑이

이강수(남, 1936년생) 구술
2019년 1월 30일 채록
[영주1동 영주1동원로의집]

인제 신랑이 급체가 되가지고, 급체가 돼서 마 뚜굴뚜굴 구부니까(구르니까), 부인이 뭐 대책을 세야(세워야) 되는데, 대책 속수무책이거든. 그러이 의사한테 갈라 카니까 등(산등)을 넘어야 가고, 그래 머니까 할 수 없이 인제 신랑을 둘러업었어.

업고 고개를 넘어가는데, 고개를 넘어서 막 니러가니까(내려가니까) 호랑이가 앞에 떡 버티고 있거든.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 신랑이 자기 남편을 죽일 수 없거든. 남편 저거 죽으몬 어떻기 ○○인 사람이니까.

그래 이 부인이 호랑이한테 떡 버텨가 서가지고 뒤로 속곳(속옷)을 내루코(내리고), 뒤로 호랑이 앞에다가 자기 히프를 갖다가 들이댔거든. 대니까 호랑이가 가마(가만히) 보니까, 인마 벌건데다가 뭘 자아머은(잡아먹은) 같이 벌건 데다가 자기 앞에다 겁댕이 들이대니까,

"이 틀림없이 내 힘 센 내보다는 센갑다."

카니까, 이 여자가 도로 그 앞에 들이대면서,

"이게 하룻밤에 배도 한 채 저 잡아 넘기고, 기와집도 한 집, 한 멫(몇) 집도 넘긴다. 니가 덤빌려면 덤벼봐라."

그만 도로 들이대니까, 그래 호랑이가 도망을 갔다 카는 얘기가 있지.

[중구 설화 86]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이소순(여, 1937년생) 구술
2019년 1월 30일 채록
[영주1동 영주1동원로의집]

옛날에 그라시대요 어르신들이. 나이 먹고 오래, 옛날에 환갑을 했잖아요. 오래 못 살으니까. 그래 인제 오래 살몬 고래장(고려장)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래장이 뭐냐 하니까, 연세가 많으몬, 우리가 시골에다가 살았거든요. 저 계룡산 밑에. 그래 인제 산에 가몬 밥그릇 같은 거도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이 그게 뭐냐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래장을 할 때, 굴을 파갖고 어르신 갖다 거기다 모셔놓을 때 인자 밥이고 뭐고 해다 놓고 고거 잡숫고 나몬, 떨어지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라몬 인제 돌아가시라고 그래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 고래장을 어째 했냐 하니까, 할머니를 아버지가 지게에 업고 가니까, 손자가 따라갔답니다. 인자 저는 그리 들었어요. 안자 따라가니까 안자 아버지가 고래장을 할머니를 해놓고 지게를 버리니까,

"아버지 왜 지게를 버리냐?"

고 그란게,

"필요가 없다."

한게,

"가주 가자."

하더랍니다. 그래,

"왜 가주 가냐?"

하니까,

"나도 아버지가 나이 먹으몬 나도 해야 된게 가주 가자."

하더라.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어렸을 때. [조사자: 그래갖고 없어졌구나.] 예. 그래 했다 소릴 들었어요. 어려서 인제 애, 꼬마 적에 그래 들었지요. [청중 웃으며 박수] 그래서 고래장이 그 뒤로 없어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중구 설화 87]

밀가루를 걸러 알아맞히는 혼령의 환생

이소순(여, 1937년생) 구술
2019년 1월 30일 채록

[영주1동 영주1동원로의집]

저 내 어려서 그걸 봤는데, 한 집에 아들이 인자 일찍 갔어. 그런게 부모가 저게하니까 억울하니까 굿을 해갖고 하는데, 밀가루에다 이렇게 해놓고 막 이 대를 잡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인제 나중에 보니까,

"새 발짝(발자국)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게,

"죽어서 새가 됐는가베."

이라더라고. [웃으며] 그 소리는 들었어요.

그건 내가 봤고요. 근데 새 발짝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니까. 인제 뒤에서 이래 본게 어른들이 새 발짝이라고 하대요. 그러니까 죽어서 새 됐는가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중구 설화 88]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이소순(여, 1937년생) 구술
2019년 1월 30일 채록
[영주1동 영주1동원로의집]

옛날에 저희 증조할아버지가, 소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우리는 이 동네면 산을 넘어 와야 되거든. 그런데 인자 밤에 자는데 막 뭔 소리가 들려. 그래 일어나본께 우리 할아버지도 계시고 다 계셨거든요. 그런데 술을 많이 잡숫고 오셨어. 그래 하는 말씀이,

"내가 오는데 어떤 키가 막 장군같이 큰 사람이 씨름을 하자."

하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도 억수로 크고 막 몸이 체격이 좋았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이겨갖고, 내가 거기다 묶어놓고 왔다. 내가 낼 아침에 가볼 거다."

하고, 아침에 그 솔이라는 산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가서 본게, 빗자루 몽둥이 그걸 갖다가, 잊어 버렸어 내가. 풀이, 그거 무슨 풀인가 있거든. 애들 각시풀 맨든다고 거 있어요. 그거 뜯어서 여다 해서 묶어갖고, 각시 맨들어 각시풀이라고 거기다 잔뜩 매놓고 왔더랍니다. 그 빗자루 뭉댕이를.

그랬다고 할아버지가 와서 인제 아침 일찍 갔다 오시더니,

"내가 헛봤다."

하면서 그래하시더라. 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옛날에.

[중구 설화 89]

개똥을 씻어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이순옥(여, 1942년생) 구술
2019년 1월 30일 채록
[영주1동 영주1동원로의집]

개가 안자 보리쌀로 묵고, 보리밥을 묵고 안자 소복하이 싸놨는데, 메느리가 거 가서 거해 갖고 그거를 가주와서(가져와서) 씻거갖고(씻어서), 그래 그거를 다시 밥을 해갖고 저 시어머니를 드맀다 하는 그거밖에는 모르겠어예.

[중구 설화 90]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이순옥(여, 1942년생) 구술
2019년 1월 30일 채록
[영주1동 영주1동원로의집]

시어머니가 하도 뭐를 묵고(먹고) 집다(싶다) 하고 애를 믹이싸니까(먹이니까). 근데 인자 아들이 배를 타고 나갔어예. 배 타고 나가고 나서, 아이고 모르겠다 싶어서러, 만날 고기 사다 뭐 사다고, 해줄 거는 없고. 돈이 없어 해줄 거는 없고, 그래갖고 안자 지렁이, 흙을 파가 지렁이를 잡았답니다.

지렁이를 잡아갖고, 이 장, 옛날에는 삽자리(돗자리) 아입니까. 삽자리 밑에다가 착착 전부 다 여놔(넣어놔). 고기 빼짝 말라 실라베키매키(실 다발처럼) 이래 되는데, 그거를 인자 고와 갖고 맨날 그거를 인자 쪽 믹있어예.

그래 믹이고 나니까, 저 인자 신랑이 배를 타고 오니까, 그래 그 할매가 그걸 고와가 묵고 그 껀디기(건더기)를 또 삽자리 밑에다 자기가 숨카놨는(숨겨두었는) 기라. 그래 숨카놨는데, 그래,

"여보 당신 어머니를 어떻게 관리를 했걸(했기에) 어머니가 저래 좋고 좋노."

인자 그러 카고, 방에 드가서,

"어머니 뭘로 잡솼건데(잡수셨는데) 어머니가 제가 볼 때카마(때보다) 이래 더 좋습니까?" 카니까, 그래,

"야야 저 뭐로 이런 거로 주는데, 내가 국물만 묵고 껀디기를 내가 다 여어 숨카 놨다 봐라."

허이, 그래 삽자리를 들시갖고 내주는데, 전부 지렁이로 말라 난, 말란 기더란다. 그래갖고,

"니가 어머니를 이런 거로 해가 드리가 되겠나?"

하민서로, 그래 마누라캉 거해갖고, 마누라랑 이혼을 했다 하데예.

[조사자: 아하, 이혼을 했는가?] 예. [청중1: 그게 아니지.] 아니 그 그런, 나는 그렇게 들었다. [청중2(이강수): 엄마 앞에서 "이거 지렁이다. 지렁이를 엄마를 과줬다." 카니까, 엄마가 지렁이란 소리에 놀래가지고 눈을 떴다 카잖아.] [청중 박수] [조사자: 그래 맞아. 맞아.]

[중구 설화 91]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이순옥(여, 1942년생) 구술
2019년 1월 30일 채록
[영주1동 영주1동원로의집]

아니 애기가 울어싸서러 아무리 달개도(달래도) 안 되고, 뭐 온다 뭐 온다 캐도 안 되고 했다 나중에,

"아이고 꽂감(곶감) 주까?"

호랑이가 인자 딱 배껕에(밖에) 와서 앉아가 있는데, 그래갖고 달개다 달개다,

"호랑이가 온다."

캐도 안 되고, 뭐 온다 캐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라몬 꽂감 주까?"

이래 캐나인께네, 아가 떨꺽(덜컥) 근치뿠어(그쳐버렸어). 그라고 호랑이가, '아이고 내카마(나보다) 더 무섭운 기 있는 갑다.' 싶어가 호랑이가 도망가더라 안 캅디까.

[조사자: 그래 꽂감이 지보다 더 무서운가.] 무서워. 무섭다고 인자 꽂감 주까 카이, 아가 그래 울다가, 호랑이 온다 캐도 안 되고, 뭐 온다 카도 안 되고, 내- 울다가 꽂감, 꽂감 주까 캐나나이께네(해놓으니까) 그래 아가 떨꺽 그치인께네,

"내카마 더 무섭운 사람이 있는 갑, 무섭운 기 있는 갑다."

카면서 그래 도망거더라 하데예.

[중구 설화 92]

고려장 풍속

구OO[190](여, 1949년생) 구술
2019년 1월 30일 채록
[영주1동 우남이채롬아파트노인정]

고래장(고려장)을 하러 갔는데, 옛날에는 자기 나이 다 인자 먹었다고 인자 지게 지고 거 갖다 버리러, 고려장한다 간다고 갔다 아입니꺼.

그래갖고 인자 그 저거 어매를 언제 돌아, 그것도 옇어 놓고 인자 그거만큼 잡숫고 거서 돌아가시몬, 그 뽄(본)을 보고 자식들이 고래장한다고, 그 또 자석들 물려받고 그랬다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대예.

[중구 설화 93]

늑대를 쫓아낸 일

남OO[191](여, 1933년생) 구술
2019년 1월 30일 채록
[영주1동 우남이채롬아파트노인정]

우리 이북에서는 그거 사람들 전부 일본으로 다 남자들 다 인제 조회를 다 뻗어가고, 저녁에 경비 설 사람이 없어가지고, 동네 마을에 뭐가 들어온다, 무슨 짐승이 나타난다, 그런 거를 인제 막기 위해가지고, 인제 여자들은 한 일곱 명씩 이래가 인제 한 조를 짜가지고서는 인제,

"니는 어디 가서 그걸 보고 있거라. 니는 어디가 보고 있거라."

이래가 인제 한 댓군데씩(다섯 곳씩) 인제 이렇게 마을이 크나노으께(크기 때문에) 이렇게 모다 놓고서는 보러 가거든. 그라면은 그거 저기 저 그 호랑이 말고 뭐고? [조사자: 여우? 늑대?] 야. [조사자: 야시, 여우, 매구.] 그 똑 개 모양 생깄는 거. [조사자: 늑대.] [청중: 그게 늑대 아인교.] 그게 내려와예. 밤중 되며는. 밤중 되며는 그런 짐승이 내려와여. 우린 첨에 그게 갠 줄 알고.

"이게 뭐고 개야. 가 가라. 가라!"

190) 제보자가 성만 알려주고 이름을 알려주지 않음.
191) 제보자가 성만 알려주고 이름을 알려주지 않음.

하고 우리 쭉 눕어가지고,

"이거 말라고(뭐 하려고) 왔노? 누(누구) 개고? 누 개고?"

그래 하니께 [청중: 그게 사람을 자아묵는다고(잡아먹는다고).] 가지도 안 하고 고대로 놈이 뚱- 이래 서가지고 보는데, 눈에서 불이 펀쩍 나는 거라. 펀쩍 나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거를 못 느끼지. 젊어가지고. 아들(애들)이니께 못 느끼는데. 거기 인제 어른들이 몇키(몇이) 있어 놨는데, '아이고 이게 개가 아이고 짐승이구나.' 싶어가지고, 짐승이구나 싶어가지고서는, 그래가,

"아무개야!"

하고 감(고함)을 지르고 마 우리를 마 막카(모두) 땡기고서는 막 걸어서 이라고 마,

"우리는 나이 먹어서 죽어도 되지만 아들은(아이들은) 죽으몬 안 된다."

고 막 자꾸 빼서 이렇게 뒤로 돌리고서는,

"안 가느냐?"

고서는, 그래도 안 가겠다고 떡- 이래가 서서 바라다보고 있어요. 바라다보고 있어가지고서는 그래가 막,

"짝뚜기(작대기) 가(가져) 오라고. 짝뚜기 가 오가 저거 죽여야 된다고."

그래 하는데, 슬금슬금 가고 그러는데, 그래 우리는 마 다른 기 아이고, 그게 저녁이 되몬 그게 종종 내려와요.

[중구 설화 94]

바다에 인신을 제물로 바쳐서 하는 굿

남OO(여, 1933년생) 구술
2019년 1월 30일 채록
[영주1동 우남이채롬아파트노인정]

옛날에는 인제 또 배타는 사람은 인제 해마당(해마다) 그 바다 배 고기 잡는 사람들은 날을 받아가지고, 그 해마당 하는 인제, 우리 인제 정월보름날 되며는 인제 보름달 보듯이, 그 바다에 고기 잡는 사람들이 인제 그 하는 말이 있어예.

[조사자: 그렇지, 그렇지. 행사 지내는 날.] 예. 무당 데려다가서는 인제 바다에 갈 때마다 엄청 해다 놓고, 그래 할 적에 인제 애기를 하나씩 갖다 바닷물에 옇으면은 인자 고기가 잘 잡힌다고 그란다고서는 인제 그런 말은 내가 들었어예. 그래 해가지고 인제 해마당 그래가 인제 인부 하낱썩(하나씩) 인제 갖다 바치고 인제 그래 하고. 거 인제 그래 한다는 소리는 내

가 들었어예.

그래 하고, 옛날 어른들은 그런 미신이 많이 있었어예. 어디는 하면은 또 동네서 뭐 하면은 또 큰 인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인제 네발 가진 짐승, 돼지나 소나 그런 걸 잡아서 인제 모셔놓고 그래하고 인제 또 빌고, 잘 되고로 해달라고 빌고, 인제 그래 했다 합디다.

[중구 설화 95]

개로 환생한 어머니를 세상구경 시킨 아들

강옥자(여, 1940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영주2동 동아9블럭원로의집]

우찌 된고 하면, 집에 일밖에 모르고, 삽짝 밖으로도 안 나가고, 일만 내- 하다가 돌아가싰다 하대.

그래가이고 죽어서 개가 돼갖고, 그 집에 개가 태어나 왔는데, 그래 저 누가 어데 물으이까네, 그래,

"엄마 집에 그 개가 엄마라고."

그 거서 개를 덕고(데리고) 그래 엄마는 평상(평생) 일만 하고 죽었이까네, 온 데를 그래 온 사방 구경시키고 그래, 그래 했단 말이 있습디다.

[중구 설화 96]

미나리만 먹다 거머리가 옮은 며느리

강옥자(여, 1940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영주2동 동아9블럭원로의집]

시집을 갔는데예, 그 옛날에 촌에 있다가 도시로 시집을 왔는데, 이 저 어른들 밥상은 전다(전부) 어른들만 갖다 주고 자기는 풀로 해서 먹었어요. 근데 인자 미나리가, 앞에 미나리가 많이 있었어요. 미나리를 막 따, 캐다가 미나리를 자꾸 먹다보니까, 거기가 그거 벌레 있잖아요? [조사자: 거머리.] 거머리. 그게 막 들어가갖고요, 그게 마 온 사방 머리, 머리카락 하나마다 다 올라왔는 거라예. 그래 저거 시어머니가,

"아이고 야야, 니가 왜 그래 저 말랐노? 여(여기) 와 봐라."
이라니까네,
"어머니 내 고, 친정 좀 보내주이소."
이라더라네. 그래 햇빛에 이래 보니까 마 거머리가 꼬물꼬물꼬물 전신에 나와 있더래요. 그 거머리가 그래 독하다 하대예. 그래 그렇게 들었어. [조사자: 몸속에 들어가서 다니던가?] 예. 그래가 울로 솟아올랐는 거라예. 그래 몰라, 우리는 그렇게 들었어예.

[중구 설화 97]

제삿밥을 못 먹은 혼령의 심술

강옥자(여, 1940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영주2동 동아9블럭원로의집]

그 얘기가 우리 아저씨가 합천 삼가[192]거든예. 그래갖고 인자 우리 시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가 많이 해줬어예. 그런데 인자 제사를 모시러 부산으로 왔는, 오는데, 인자 오다가 보니까 묘가 있어요. 묘가 있으니까, 그 묘에서 인자 친구가 죽어서 매장을 했는갑지예. 그러니까,
"아무것이야 내캉(나하고) 같이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하더라네예. 그라니까네,
"어이! 같이 가자."
하면서 묏속에서(묘 속에서) 하얀 두루마기 둘이서 입고, 인자 왔어. 안자 부산으로 제사 모시러 왔더마는예, 왜냐 하면은, 그거 저게 뭐꼬, 메누리(며느리)가 막 성질을 내가지고 막 밥 뜨고 국 뜨면서 아기 궁덩이(궁둥이)를 막 찰싹찰싹 때리는 거라예. 그러니까 밥도 몬(못) 먹고 밥은 밥이라고 지어갖고 떠놨는데(떠놓았는데) 보니까 머리카락이 있더래요. [조사자: 그 구렁이로 보인다던데.] 예.

그래가 해니까, 인자 그 저 시어른이 밥 못 먹고 가니까네 자기가 포시를(표시를) 하나 남군다고(남긴다고), 궁댕이 아를 막 때리니까 아가 막 울거든예, 그래가지고 발을 그 뜨신 국에다 담방 담가뿌리더라. 예 담가뿠는 거라예. 그래 담가가지고 그래 뭐라 하는 기 아이라, 이웃집에 가서,
"밥에는 구렁이가 들어가 있고, 아는 막 울고 궁댕이 때리고 그래서 밥도 못 먹고 막 성이

192)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을 말함.

나 간다고.”

그래 했다 하대예. 그래 해가지고 안자 아침에 그 집에 갔어예. 가니까 막 아가 다리가 디갖고(데어서) 막 난리를 직이더라네예.

[중구 설화 98]

저승 갔다 살아난 사람

강옥자(여, 1940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영주2동 동아9블럭원로의집]

우리 옛날에 저 밑에 쌍굴 나서(나와서) 그쪽에 영주터널 앞에 살았거든예. 근데 아침으로 보몬, 주전자에 이런 큰 주전자에다가 콩국을 끓여갖고 이고 들고, 그래 콩국 팔러 가거든예.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었, 자기는 죽었다고 했는데. 그 뭐 무슨 거기도 가면 경찰서, 우리 지금 여기로 말하면은 경찰서라. 그 입구가. 그래 가니까,

“이름이 뭐냐?”

하니까,

“아무것이라.”

하니까, 이름을 착착착 이렇게 걷어 보더래요. 가보더마는,

“당신은 남의 빚 갚을 때 옛날에.”

이라더라네. 염라대왕에서,

“그 빚이 넘의 것, 빚을 얻어가 묵고 갚으고 들어오라.”

하더래요. 인자 돈 안 갚으몬 그것도 죽어서라도 갚아야 된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그래 하얀 개를 하나 주면서,

“이거를.”

다리, 강으로 다리를 커다랗게 놔갖고 그 다리를 막 그래 쫓아서 개를 아듬고(보듬고) 쫓아가다가 물에다 퐁당 빠져뻐렸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염도 못하고 일어난, 그래가 일어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 갔다 와갖고, 그래 빚을 그것도 콩국 짜서 다 갚았대요. 그 사람이.

[중구 설화 99]

호랑이가 무서워 울음을 그친 아이

강옥자(여, 1940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영주2동 동아9블럭원로의집]

아가 자꾸 우니깐,

"저게 저 밖에 호랑이가 있다. 호랑이가 온다."

하니깐 아가 울다가 딸깍 그쳤다던데. [조사자: 호랑이가 온다 카이 무서워서?] 예. 딸깍 그쳤다. [조사자: 꽂감(곶감)은?] 꽂감은 인자 거짓말로 인자 저 꽂감, 꽂감이 아니죠. 그 저게 애기가, 애기가 막 밤에 막 우니까네, 꽂감 돌라고 울었던가 봐요. 그라니까,

"야! 저게 호랑이가 저 대문 앞에 왔대. 왔다."

하니까, 그 길로 인자 딸깍 끊쳤대요. 그런 말을 들어봤다.

[중구 설화 100]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전영조(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영주2동 동아9블럭원로의집]

아니 지게를 또 아버지를 그래, 자기 아버지를 저 산에다 갖다 버리고 오더라고. 그래 저 죽지, 죽지도 안 했는데, 그래 산에다 갖다 버리고 오더라고.

그래 아서(와서) 떡 아들이 가마 보이까네, 할배를 갖다 내삐리고 지게로 가이고(가지고) 들와서, 그리 아버지 지게 뿌사(부숴서) 내삐리 없앨라 하이께네,

"아부지요. 그거 놔두라고. 그거 와 없앨라 카느냐고? 놔두라."

칸께,

"뭐 할라고 놔둘 끼고?"

하이께,

"아이 후제(후에) 나도 아부지, 그거 지게로가 아부지 갖다 버리야지요."

전에 이카던(이렇게 하던) 소리는 있대. 그런 소리는 있어.

[중구 설화 101]

도깨비불

전영조(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영주2동 동아9블럭원로의집]

그런 거는 밤에 보몬(보면), 비 오는데 깜깜한데 이래 내다보몬, 이런 불떵거리가 시퍼런 불떵거리가 올라갔다 내리갔다 착- 갔다 내리옸다(내려왔다) 이라거든.

"그거는 와 그러노?"

물으이, 그 전에 나만(나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 저 피 겉은 거. 빗자리 씰고(쓸고) 피 같은 거, 이 피가 묻으몬 기리(그렇게) 갔다 옸다(왔다) 한다 그래 말하더라. [청중: 도깨비, 도깨비불이지.] 어, 예.

[중구 설화 102]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전영조(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영주2동 동아9블럭원로의집]

옛날에 저 그래 시집 와가지고 얼굴이 철부러지고 노래서러,

"메늘아가, 그래 우째서 그래 얼굴이 노랗노?"

한께네, 그래 자기가,

"방구(방귀)로 몬(못) 끼서러(뀌어서) 얼굴이 노랗다."

하더란다.

"그래 방구 그거로 몬 끼가 되나. 그래 끼라."

카이께네,

"저 앞에 가서 그 지동(기둥)을 잡으라."

카더란다. [웃으며] 지랄하고, 그래 뭐 거짓말하는 기 이야기 아이가 그래. 방구로 끼이까네 그래 집이 한 쪽 찌부따이 넘어갔다고.

"아이구 고만 하라고. 집 넘어간다."

고, 그런 말이 있대.

[중구 설화 103]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며느리 버릇 고친 남편

전영조(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영주2동 동아9블럭원로의집]

그 나만(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애기 했어.

[조사자: 그래 우짜든공?] 그래 저저 저 무울(먹을) 기 없어갖고, 저저 할매가 장에 뭐 팔러 간다 카든가 이라이께네, 그래 저 지렁이를 삶아가이고 그래 주니까네, 삶아 가이고 건강하게 해갖고 인자 살찌아가 덕고(데리고) 간다고 그래 하니까네, 살 찌고 통통하니 좋은께, 아도 잘 보고 집안도 돌봐주고 하인까네, 마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해가 안 덕고 갔다고 그런 말이 있대예.

[중구 설화 104]

죽은 정승의 혼

전영조(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영주2동 동아9블럭원로의집]

어는(어느) 정승의 집에서러 그따사(그때는) 살만치(살만큼) 사는데, 누가 이래 배껕에(밖에) 나가서 강가에 보이깐데, 달덩거리 겉은 커다란 해가, 불덩어리 이래 그 집에서 이래 쑥 빠져가져 하나 올라가더랍니더. 불덩어리 올라가더랍니더.

"아이구 저 집에 불났나? 우쨌노?"

하이께네, 막 쑥 빠져가 저리 가더랍니더. 그도 아기네게(?)[193] 멀겋던(말갛던) 사람이 생때겉은(생 대같은)[194] 사람이 그래 정승이 죽었다고 그라더라 하대 그때. 사람 혼도 모이(모여서)

193)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으나, '아직은"의 뜻으로 말한 듯하다.
194) 생 대. 즉,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있는 대나무.

나가는 갑다고 그래 말하더라.

[중구 설화 105]

제삿날 가는 귀신을 태워준 택시기사

전영조(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영주2동 동아9블럭원로의집]

저 차가, 차가 가이께네 손을 들어. 저 알로 보하이 입고 젊은 사람이 이거, 그거 중간 된 아주머이가 옷을 소복을 싹 갈아입고 손을 들더라 카대. 차 있는 거. [조사자: 택시를 탔는가?] 택시를 태아줄라고(태워달라고).

그래 택시를 떡 탔는데, 촌구석으로 덱고(데리고) 막 절로(저리로) 가주라 카대. 가가이고 그 집 삽작에 와 썩 내리더마는, 그래 차비를 다 주더랍니더. 주고 인자 그래 고맙다 카매 차비를 주고 솔 드갔더랍니더. 썩 드갔는데, 그래 기사도 그것도 멋(멋있는) 기사라. 그 떡 가가,

"아지매, 집에 딸인교? 눈교(누구인교)? 형제가 누가 았는(왔는)갑대요."

카이께네,

"엊저녁에 우리 아무거이 지사(제사)라."

고 이카더란다. 밤에. 그래 지사 하러 드갔는갑다고 그래 말하더라. [조사자: 혼신이 들어갔네.] 거 갔는 겉다고. [웃음]

[중구 설화 106]

개를 물고 간 호랑이

전영조(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영주2동 동아9블럭원로의집]

우리 저저 친할매가 젊을 때, 갯가가 되논께 고기 팔러 먼데 가는갑대예. 장마당 겉은 데 그런데 가서러 팔고 저녁에 열한 시에, 거리가 멀어나이 오몬 열한 시나 이래 답 된답니더. 캄캄한데 어둡은(어두운) 동네 소리질(소리길)로 오몬, 무엇이 돌로 자꾸 막 그거 이런 데다가

떤진답니더(던진답니다). 그래 '호랭이(호랑이) 새낀갑다' 싶어서러,

"그래 니는 새끼가 없나? 내가 아가 젖이 불어가이고 알라가 울어쌀 긴데, 내가 빨리 가서 젖을 줄 긴데, 아무리 짐승이라도 니는 사람이 없나, [말을 바꾸어] 저저 새끼가 없나?"

이러 카고, 이라몬 좀 숙주마이(?)[195] 있답니더. 또 다오가면(다와 가면) 또 돌로 떤진다 카는 기라. 마 흙을 떤진다 카는 기라.

그래가이고 또 그런데 안자 만대이(꼭대기)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촌동네 된까네, 평지 사는 사람도 있고. 만대이 사는 집에서 할매가 들어온까네 개가 멍멍 짖고 나오더라 카는 기라. 그러니만 애미(어미)를 물고 차고 가뿠어. 개가 개새끼를 여덟 마리를 나놨어. 애만 나놓고 차고 가뻐니께, 아직에(아침에) 그래 날이 새가 개가 없고 한께네,

"그래 어지(어제) 이 동네 누 집 사람이 괴기(고기) 팔러 갔느냐고? 누가 없느냐고?"

조사를 한께, 우리 할매가 그래 고기 팔고 늦가(늦게) 온께네, 치매(치마)에다 앞치마에다 개로 소중이 싸다가 키아줄라고 왔더래. 밥 숭녕은 누런밥을 우라가 밥 숭녕 한 분(번) 믹이도(먹여도) 안 되고, ○○를 해다 믹이도. 그때는 우유가 있나? 뭐 암죽을 낋이가(끓여서) 믹이도 안 되고 다 죽어뿌더란다.

그래 그 새끼 다 물어내라고 해가이고 그래 물었다 카대. 그래 그런까네 그 집에서 안 되더란다. 그 사람이 중하나, 그 개가 중하나? 이래갖고 그래 구석에 안 되더라고 그람서러 할매가 그래 말로 하대.

"내가 그리 욕을 안 봤니더."

[중구 설화 107]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최명덕(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영주2동 동아11블럭원로의집]

나만(나이 많은) 사람들 그래하대예. 저 할매가 죽었은께네 저거 아부지(아버지)가 지게를 져다가, 지게를 져다가 갖다 내삐리이, 갖다 내삐리고 오이꺼네,

"아부지 와 지게를 와 안 가져 가요?"

카이꺼네,

"저 그 내삐리는 거다."

195) '조용하게'의 뜻으로 말한 듯하다.

카이까,

"나도 아부지도 장례 치몬 내가 저 지고 갖다 내삐리야 되는데, 가 갑시더."

그러캐서러, 할매 다부(도로) 업고, 지고 다부 집에 왔다 카대예. 그 소리 들었습니다.

[중구 설화 108]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최명덕(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영주2동 동아11블럭원로의집]

그래가 실컨(실컷) 거해 저저저 지둥(기둥)을 잡고 흔드이,

"이놈아. 이놈아."

카고 싸우고 나이께네, 난중에는 [웃으며] 하이구 저 전봇대를 잡고 싸우, 씨름을 했더라 카고, 그 소리만 들어봤지.

[중구 설화 109]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최명덕(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영주2동 동아11블럭원로의집]

또 뭐 옛날에는 저 거할 때 떡장시(떡장수)가 막 이래 반티('함지박'의 방언)다 이고 도구 터마다 팔러 댕깄다 아입니까.

이래 댕기는데, 그래 저 떡 사러 가 떡 팔러 간다고 끌끌 가이께네, 옛날엔 촌에 뭐 산길이고 막 이런데 가이꺼네, 가이꺼네, 어느 산골을 가이까 호랭이가 한 마리 떡 나와가 앉아가 있어서, 그래,

"비키라."

카이께,

"니 떡 날 좀 주몬 안 잡아 묵~지."

[웃으며] 떡 들어서 떡을 떤지주이께 비키주더라 카고, 그 소리는 들었지 뭐.

[중구 설화 110]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최명덕(여, 1931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영주2동 동아11블럭원로의집]

시어마시가 눈이 어둡어서 몬(못) 보고 있으이까네, 옛날에 하도 안타깝아갖고 뭐 해줄 거, 옛날에 촌에는 뭐 해줄 것도 없고 가서 거(그곳에) 가 지렁이를 파가 았어(왔어). 땅을 파서 싸가 그놈을 자꾸 고아가 믹있더마는(먹였더니만) 난중에(나중에) 눈을 떴더라고.

"그래 야야, 니는 날로 뭘로 해서 믹있노?"

그카더라고. 그 소리는 뒷집 할매 하는 그 소리빽에 안 들어봤습니다. 그래갖고 시어마이 눈을 곤치더라고(고치더라고) 그런 소리 듣고.

[조사자: 그래 그 앞을 못 보니까네 안자 무슨 국을 끓여줬는지 안자.] 그걸 모르이까네예. 그래갖고,

"야야 이거 무슨 국이고? 무슨 국이고?"

카이까,

"어매, 거 마 좋은 겁니더. 잡수소."

카고, 자꾸 그래 하도 잘 잡수이까 자꾸 그래 지렁이를 해주고 난중에는 눈을 뜨더라고.

[중구 설화 111]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인자(여, 1941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영주2동 영주금호타운원로의집]

[조사자: 그래 고래장(고려장)이 어째 없어졌는공?] 아니 그래 효자 아들 때문에 없어졌다 그리 들었거든요. 예.

[조사자: 그래 효자가 어째, 어째 했는고?] 아니 인자 옛날에 고래장에 그 할 때 다 연세가 들면은 그 뭐 파가지고 밥을 한 넣고, 한 발 옇고(넣고) 마 다 해서 그렇게 해서 해놓고, 그기 다 떨어지몬 돌아가신다 하대요.

그래 인자 딴 사람들은 그래 하는데, 효자 아들이 어머니 자기 어머니는 그럴 수가 없어서 인자 마루 밑에다가, [조사자: 아, 굴을 파가.] 마루 밑에다 안자 뭐 인자, 거 인자 어떻게 해 갖고 어머니를 그따(그곳에) 모시놓고 고래장을 차마 못 시깄어.

그래 놓고 인자 있었는가 보더라고. 아니 듣는 기 그래요. 그래서 인자 인자 어느 때 뭐 나랏님이 뭐 무슨 사람들을 불러갖고 뭘 했다 카더라? [조사자: 어디 중국에서 어디 무슨 퀴즈를.] 예. 뭐 아마 숙젠가 뭘 냈나 봐. 그러니까 그 인자 아들이 가서 듣고는, 그 뭐를 저저 뭐꼬, 실에다가 뭐를 뀌갖고, 저저 뭐꼬, 그거 한다는 그런 식으로 인자 했나 봐요.

그래논께 이 아들이 듣고 와서는 그래 엄마한테 가가, 이리이리 해서 꿀을, 아 그래갖고 이리 한다 하던데 나랏님이 이라더라니까, 그 마루 밑에 어머니가 개민가? 뭐에다 그 꿀을 묻히갖고 그기 거 구슬 거거다가 해놔 놓으몬, 구슬에 귀, 인자 거 개미가 다니까, 예, 예. 고거 인자 꿀 그거 그걸 해서 졸졸졸 해갖고 [조사자: 아, 꿰지는가?] 예, 예. 구슬에 뭐 얼마, 그거는 오래 돼서 모르겠고. 그걸 그리 그래갖고 알아맞차가 (알아맞혀서) 그래 인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뭐가 소원이냐?"

이래 물었던갑대요. 그러니까 그래,

"고래장을 나이 드셔도, 고래장을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갖고, 그래서 말이 그 질로 [조사자: 없어졌다.] 예. 고래장을 없앴다. [일동 박수]

[중구 설화 112]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김인자(여, 1941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영주2동 영주금호타운원로의집]

거기 뭐고 저녁에 술을 마시고, 옛날에는 불 들이난 기 도깨비라 하대.

그래갖고 오는데, 거 막 누가 그걸 해서, 씨름을 하고, 막 실컷 씨름으로 하고, 그것을 모두 나무에다 오다가 언자 묶어 놓고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몽다리 빗자리더란다고. 에

그래 그런 말은 우리도 그 정도 말은 들었지.

[중구 설화 113]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김인자(여, 1941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영주2동 영주금호타운원로의집]

그 아들이 돈 벌로 가면서 그 봉사 어머니를 메느리한테 어 생활비를 주서 맽겨놓고,

"어머니 좀 잘 그거하라고."

부택(부탁)해놓고 갔던가 보대예.

그러니까 메느리가 안자 거 지렁이를 잡아서, 어 그래 싹 요리를 해가지고, 그기 그리 맛있다, 맛있다 한다 하대. 그래 인자 주서 그래 어머니를 만날, 돈은 안자 자기가 씨고(쓰고), 그래 했다 이래 그리해가 인자, 엄마가 그래 해줐는데, 그 아들이 와서, 아 저 엄마가 '뭐 해주길래 이래 맛있는고' 싶어갖고 잡술 때마당 그 하나씩 이 거 [조사자: 자리 밑에.] 자리 밑에 넣다 하대.

예. 넣가지고 그래 하는데, 인자 아들 와서 보니 어머니 얼굴이 너무 막 인자 잘해서 너무 좋아졌더라 하네. 그래 인자 아들이 와서 이리,

"어머님 참 거하다."

하면서 하니까,

"그래 메느리가 뭐를, 무슨 고기를 해줐는지 너무너무 맛있어서 니 오몬 보이줄라고 그 밑에다가 넣어놨다."

그러면서 이리 보이주는데, 그래 인자 지렁이를 보여주니까 인자 이리 놀래서 이래 하니까, 말이 그래 놀래가지고 눈을 떴다. [조사자: 아들이, "어머니 이거 지렁인대요." 카이.] 예. 예.

"아이구 이거 지렁이. 이 지렁이다."

고 하니까, 그양 그 다음에는 그건지 모르고 맛있게 잡솼는데, 지렁이라 하니 놀래가 눈을 떴다.

[중구 설화 114]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이춘엽(여, 1934년생) 구술
2019년 2월 1일 채록
[영주2동 영주금호타운원로의집]

옛날에 메느리(며느리)가 방구(방귀)를 못 끼가 그랬는데, 모리고(모르고) 있는데, 얼굴이 노래진께 식구들이, 이래

"와 이거 와 이래가 되겠나?"

한께,

"그러모 아버님, 저 지둥(기둥) 잡으이소."

마 방구를 자꾸 뀌인께, 지둥 히딱 넘어가고, 이짝(이쪽) 가서 [웃으며] 잡으몬 이짝으로 넘어가고, 그래갖고 방구를 뀌고난께 그마 얼굴이 좋아지더랍니더.

[중구 설화 115]

개똥을 씻어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김순덕(여,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31일 채록
[영주2동 은하아파트원로의집]

그래 또 어떤 사람은 또 사실이 그렇다 카대. 그거 너무 무울(먹을) 게 없는데, 또 거 그놈의 과거 보러 간다고 다 공부하러 가버리고. 무울 기 없어서, 그래 인자 넘의 방아를 찧이주고 그래 쪼깨(조금) 얻아가 오고 그래. 그날 일이 없으몬 그냥 공치고 온다 카데예.

그래서 이리 오는데 ,고양이가 얼마나 보리를 보리밥을 보리를 마이(많이) 뭈든지(먹었든지), 고양이가 아이라 개가 그랬겠지. [조사자: 아, 개가.] 음. 개가 보리를 얼마나 보리를 생보리를 마이 뭈든지 소복 소복하이 보리똥을 노놨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걷아가(걷어서) 와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래 저저 죽을 낋이갖고 시어머이도 주고 그리. 글(그럴) 적에는 '죄가 맞을까' 싶어 똥이 있기 때문에. 죄가 맞을까 싶어서 끓이가 자기가 하문(한 번) 먼저 묵고, 그래 준다 카대예.

그래 그런 사람들도, 다 옛날이야기 좋은 말씀이지 뭐.

[중구 설화 116]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김순덕(여,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31일 채록
[영주2동 은하아파트원로의집]

[조사자의 이야기 요청에] 그 알지 갱피 훑는 거.

그거는 또 그거는 저 남편이 공부만 하고 책만 보고 들앉아가 있어. 얼마나 여자는 오만 일을 다 하고, 참 별별 일을 다 해고 그래도, 비가 와서 바에(방에), [말을 바꾸어] 마당에 나락이 떠내려가도 그거 하나 안 치우고 책만 보고 있어서, 그래 인자 알미워서 못 사는 기라.

그 여자가 갔는데, 가고 나서 남자가 서울에 인자 과거 보러 갔는데, 과거를 보고 본께나 고거 붙어가지고, 암행어사 어사화를 꽂고 말을 타고 인자 막 내려오는데, 그 여자는 도망가도 안 되는 기라. 그 넘어(남의) 논에서 갱피(강피) 훑고 있었다 카대예.

근께나 내러오다 보몬 저거 옛날 마누란 줄 알지. 그래 저 뭐라 카더라? [조사자: 저기 저 마누라 훑던 갱피 다시 훑네.] 갱피 훑는 저 여자야 뭐 뭣이라 카대. 그 모르겠어 인자. [조사자: 고 다음에 그럼 같이 살고, 살라고 안 하는가?] 그 뭐 같이 살겠노? 몰르지. 모르지.

[중구 설화 117]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1)

김순덕(여,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31일 채록
[영주2동 은하아파트원로의집]

저가 알기는 저게 중국 대사관, 중국에 사신이 인자 [청중: 지게 졌다 카데.] 나무로 갖고 와가지고, 나무토막을 갖고 와가지고,

"그래 이거로 어데가 운(위)고, 어데가 뿌리인고, 어데가 우쪽(위쪽)이고 그걸 알아가 오라."

했는데, 그럼 지금 그때, 그 지금은 장관 깜(감)이지. 그 당시에는 [조사자: 대신이겠네.] 네. 그 저거 알아오라 캤는데, 그래 몬(못) 알아가지고, 이 한국 사람이, [말을 바꾸어] 아, 중국 사람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인자 놀리는 거라. 말하자만 이것들이 바보겉이 해가 모를 거라고 그래 했는데. 제가 알기는, 듣기로는 그래예.

그래갖고 그 사신이, 저저 중국 사신이 와서 그랬는데 아무도 그거로 모르는 거라. 그런데

우리 그 인자 저 뭣입니까 좀 높은 사람? [조사자: 어, 그 대신이.] 대신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 집에 와서.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칠십 살 무몬(먹으면) 고래장(고려장)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산에 갖다 굴로 파고 그래가 고래장을 하고 이랬는데, 이 대신은 우리하고 그거 우리 한국 사람은 그 뭣이라 쿠노? 다 까무우가지고(까먹어가지고) 그 인자 자기 부모를 어머니를 못 그라고, 그 부잣집인데 그 집 뒤에다가 산 밑에다가 이래 파가지고 거다가 인자 모싰다 하대.

그래가 아침저녁으로 지가, 자기가 퇴근하몬 와가지고 인자 밥을 갖다 드리고 했는데. 그래 알몬 목아지 날라 간다 아입니까? 나라 법을 어겼은께나. 그래서 그 디다보고 인자 어머이한테 갖고 들어갔는데, 아들로 보고,

"이 사람아, 자네가 무슨 고민이 있는가?"

그래 물어봤어.

"그 사실은 중국 사신이 이런 이런 거 갖고 와서 그래 하는데, 그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란께, 그래,

"이 사람아, 그기 물에다 띄아 보몬 뿌리 쪽은 요래 가라앉고, 대가리 쪽은 조금 뜨는 기 그게 우고, 가라앉는 쪽이 뿌리다.."

고 그러캤어.

아, 그래갖고 인자 그 뒷날 안자 그 들어 가가지고 그런 말을 했어. 그란께 그 중국 사신이,

"아-! 그 한국에도, 조선에도 이래 아는 사람이 있네."

그라고 인자 또 인자 한 가지 또 갖고 왔는 거라. 그래갖고 이리 또 갖고 온 기 뭔가 하몬,

"새끼를 불에 탁 태았는데, 태아가지고 하나도 뿌스럭지(부스러기) 안나겠끔 딱 갖고 오라."

그거 인자 또 숙제로 내줐는 거라. 그란께, 그것도 모른다 아입니까. 그래서 또 인자 저거 엄마한테 와서 고민을 하는데, 그래 그런 게 또 그리 말을 했다고 그란께나,

"아 이 사람아 그거는 들기름에다가 하루 종일 담가 놨다가 불을 딱 태아면(태우면)."

재 한 개도 토막이 안 나고 고대로 있답니다 그게. 그 새끼 꼰 고대로. 그서 그랬다고 그란께나, 그래 그 중국 사신이,

"아이구 이거 조선을 그래 멸시 볼 게 아이다고. 이런 것도 다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 마 무릎을 치고 탄복식을 했다 카더라고. 그란께는 임금이 신하를 보고,

"이 어떻게 이렇게 알았냐?"

칸께나, 그때는 인자 그 살, 저저 우리 그 [조사자: 대신이.] 대신이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을 직이 돌라."
고 그래 했는 거라.
"그래 왜 그라느냐?"
고 그래.
"나는 나라 법을 어기고 우리 엄마를 산에다가 그래 안하고 집 뒤에다가 굴로 파놓고 그래 아무도 몰래 아침저녁으로 밥을 갖다 드맀다."
고 그라거든.
"아-, 연세가 들몬 또 더 지혜롭고, 젊은 사람은 모르는 거를 알고 있는 기 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그기 없어졌다 카던데.

[중구 설화 118]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2)

김순덕(여,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31일 채록
[영주2동 은하아파트원로의집]

아들이 언자 어머이를 업고 산에 올라갔는데, 앞에 지게 지고 올라가면서 가만 보니까 자꾸 이 나무를 소나무를 뜯어다가 뿌질러갖고(부러뜨려가지고) 놓고 놓고 그래서,
"그라몬 뭐 하십니까?"
그란께나,
"그래 사실은 이걸 뜯어다가, 이래야 자네가 내려올 때 질(길)을 안 잊아뿌고 내러오지. 그래 했다. 그래서 이걸 길을 안 잊아뿌게 하기 위해서 내 이래 한다."
고, 인자 그래 말했다 하대.

[중구 설화 119]

착한 과부와 못된 과부

김순덕(여,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31일 채록
[영주2동 은하아파트원로의집]

그 옛날에, 이거 우리 엄마가 그 이야기 하던데. 우리 엄마가 칠남매, 육남매를 낳아가지고서른 몇 살에 혼자 돼가 우리로 키았거던예. 그쪽에 우리 집에 마 과부 집이 돼논께, 사람들이 마이(많이) 놀러 왔어. 아지매들이. 그거 참 우리 엄마가 안자 우리를 잡고 언자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

그래갖고 동네에, 동네 보몬 그 돌을 해갖고 그 산 입구에 요래 말하자몬 부처님매이로 있다 아입니까. 그 뭐 뭣이더라 돌부처도 아이고. 산에 그 산신님을 그 뜻으로 해가지고 [조사자: 제단? 돌무더기로 이래 탑 쌓아놘 거?] 아니 돌로 깎아갖고 요렇게 맨들어 논 게 있다 하더라고. 그기에 그 산 거여(거기에) 인자 그 동네에 과부가 아로(아기를) 뭐 다서(다섯)인가 뭐 여서(여섯)인가 낳아갖고 이래 키우는데, 너-무 가난했는 거라. 너무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루 품팔이 해가지고 인자 아들 믹이고, 또 하루 품팔이 해가지고 아들 믹이고 이러는데.

그거를 누가 지키냐 하면 그 돌부처가 지키보고 있었는 기라. 그 사람 사는 거로. 그래갖고 하도 안타깝고 너무 이뻐서, 저 뭡니까, 그거 대사로 인자 근께 스님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 집에 들옸는 거라. 그래갖고,

"내가 질(길)을 지내가다가 배가 고프고 추워서 좀 자리에 왔다고. 여게 좀 재아(재워)달라."

고 그라거든. 그란께,

"우리 집에는 잘 데가 없고 방 한 칸이고 부엌뿐이고 문도 없이 이래가 사는데, 대사님을 재아줄 수가 없다."

고 그러거든. 그래서,

"아 그라몬 내가 정지(부엌)에 여게 자리를 하나 깔아주몬 여서 잘 수 있다."

카거든.

"그렇지만은 우리가 자면서 대사님을 밖에서 재울 수가 없고, 꼭 그렇다 카몬 우리 방에 들어가자."

캐갖고 인자 아랫목을 내주고, 아 서이를, 아 그 과부가 그 아 그거를 안고 마 이렇게 혹시나 대사도 남자다 본께 지한테 어떻게 하까 싶어가지고 마 끌어안고 인자 누워잤는 거라. 자고 일나이께네, 대사님이 없는 거라 안자.

"아이고 이 빈 속에 물이라도 묵고 갈 낀데 갔다고."

인자 그람서는 아들 물이라도 찬물이라도 낋이 믹일라고 솥뚜껑을 딱 여는데, 쌀이 한거(가득) 들어있더랍니더. 그래갖고 이놈의 쌀을 퍼무도(퍼먹어도) 퍼무도 끝이 없는 거라. 맨날 퍼묵고 마 아들 배불리 묵고, 어른도 배불리 먹고 그래도 쌀이 자꾸 나오니까. 그래갖고 그 옆에 또 과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 부자라. 부잔데,

"저기 니는 어떻게 그래 없는 살림에 밥을, 쌀밥을 해묵고 그래 하느냐?"

고 그라거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말 안 하다가 자꾸 물어싼께,

"사실은 그래 대사님이 한 밤 자고 가더마는 그래 내가 이래 쌀이 자꾸 생긴다."
고 인자 그랬는 거라. 그러면은,
"아이구 그런 대사가 와 우리 집에는 안 오느냐?"
고 막 그래 쌌는 기라, 여자가. 오두방정을 직이고. 그래 싼게나, 한 날은 내나 그 대사님이 또 그 집에 갔어. [조사자: 아 동냥한다고.] 응. 그 집에서 갔어. 저 동냥은 안하고 재아달라고.
"지나가다가 인제 잘 데가 없다고. 그래 재아달라고."
갔는데, 그 대사님이.
"아! 그렇느냐."
면서 안자 그 방에다가 마 자리를 깔고 마 억수로 좋게 해줬는 거라. 좋게 해주면서 그 옆에서 누우자면서 마 계-속 건디맀어(건드렸어). 대사님을 잠을 몬 자거로. 그 이거는 여자가 잘 몬 생각한 기, '그 대사하고, 대사하고 둘이 정을 통해가지고 이래 됐는 갑다' 싶어갖고 고마 이상한 짓을 마이 했는 거라. 그래갖고 아 자고 일나서,
"아이고 대사도 없고 인자 가고, 우리 집에도 인자 쌀이 한거 있는가 가보자."
카며 솥뚜껑을 딱 여는데, 꼬치,[196] 남자 꼬치가 한거 들어있더랍니더. 솥에. [일동 웃음] 한거 들어있더랍니다. 그래가,
"이년아. 니는 좆에 포온진(포부가 진) 년이라서 이걸 두고 간다."
함서, 그래갖고 아이고 이걸 밥을 해무야 되는데, 퍼다 내삐야(내버려야) 되는데, 말짱 퍼다가 그 옛날 촌에 담보랑 그래 안 있습니까? 담보랑도 아이고 뭐, 뭐 이 저저 대나무 갖고 요래 요래갖고 해놨는 데 거게. 온데 갖다 부이 아침마장(아침마다) 나오니까 마 한거 갖다 부우놓은께 마, 나무가 해가지고 밤낮 주야로 그래 열어가지고 그 몬 살고 죽더랍니다. [일동 웃음] 그런 말도 있대예.

[중구 설화 120]

그림을 그려 서로 편지한 쌍둥이 자매

김순덕(여,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31일 채록
[영주2동 은하아파트원로의집]

우리 아는 사람 누나가, 우리 동네 사는 우리 저저 우리 또래 되는 아(아이) 저거 누나가

196) 남자 성기.

인자 시집을 갔는데, 하나는 진주 저-짝(저쪽)으로 갔고, 또 하나는 진주가 진양군이 너르다 아입니까. 하나는 저리 시집갔고, 하나는 저쪽으로 시집갔고. 쌍둥인데, 글로 하낱도 모르는 거라.

그서 인자 농번기가 이래 되면은 이래 술로 해야 되는데, 그래 주소는 넘한테 쓰는데, 안에 내용을 쓸 수가 없어서, 이 누룩을 딱 그리놓고, 하얀 백지에다 누룩을 딱 그리가 봉투 안에 딱 옇어가 보냈는 거라.

그모(그러면) 있으몬 있다 쿠는데, 없을 때는 짜구를 딱 해가 없다고. 그거는, 이거는 진짜예. 그래 예. 이래 누룩이 있으몬 있다 카고, 있으몬 있는 또 포시로(표시를) 하고, 없는 거는 또 없다고 가위포를 하고. 그래갖고 보내갖고 서로 연락을 하고 살았다 카대예.

[조사자: 그림을 그리자기고.] 예. [조사자: 그때 누룩은 뭔고? 그냥.] 누룩, 누룩. 술 하는 누룩. [조사자: 아 그걸 안자 누룩이 있다 없다.] 있으몬 좀 돌라고 안자 그라는데, 없다고 누룩 없단 말은 가위로로 하고. [웃음] 누룩 있으면은 똥그래미(동그라미)로 옆에 한 개 더 쳐놓고 그랬다 카대.

[중구 설화 121]

여우가 되어 집안 망친 딸

김순덕(여,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31일 채록
[영주2동 은하아파트원로의집]

그 이야기는 그 인자 아를 하나 낳안(놓은) 기, 매구(매귀, 埋鬼)[197]를 낳아가지고 하룻밤 자고 일나몬 소가 한 바리(마리) 없고, 또 하룻밤 자고 일나몬 또 말이 한 바리 없고. 그래갖고 인자 에미 애비 다 자아묵고(잡아먹고). 아 그래갖고 에미가, 엄마가 밤에 마 봤다 카대 몰래.

근게 한밤중에 나가가지고 그 짐승 똥꾸멍에다 손을 딱 옇어가지고 그 내장을 다 꺼내뭈다 카대 그게. 그래갖고 다 자아묵고, 저거 엄마 저거 아빠 다 자아묵고, 거 인자 오빠 하나 있는 기, 그것도 그 오빠도 한양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 기다린다고 저 밖에 서가지고,

"와 이리 안 오느냐?"

고, 인자 그 잡아무야 인자 끝을 낼 긴데, 그 안, 못 잡아 무우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 뒤끝이 어째 됐는고 잘 몰라도 그런 말은 하대예.

197) 여우가 천 년을 먹어 된다는 짐승.

[조사자: 오빠가 과거 보러 가다가 도사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병을 세 개 줬습니다.] 아, 예. [조사자: 그래 기억나지예? 그 빨간병, 노란병, 파란병 이래.] 불이 붙어가, 말 타고 도망가면서 한 개 떤지모, 어 맞다.

[조사자: 그래 그걸 기억을 해보소. 오빠가 그래 과거 보러 가가지고.] 과거 보러 갔는데, 왜 이래 안 오는고 싸면서 기다리고 길목에 서가 있는데 떡 왔는 거라. 오는데, 참 저거 집에 와도, 와봤는데 집은 완저히 폐허가 돼가 있고, 가시나 밖에 서가 기다리고 있고 그라던. 저거 뭐 하도 오래돼논께나, 그래 뭐 오빠를 잡아무우(잡아먹으려고) 꼬시가지고, 참말로 겸허하게 꼬시던거마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래 잡아물라 카는데, 뭐 오빠가 도망가면서 병을 한 개 떤지모 불이 붙으고, 하나는 또 까시가 되고, 하나는 물이 되고 뭐뭐 그래 쌌대. 그래갖고 그 오빠는 몬(못) 잡아먹었지.

[중구 설화 122]

아들 셋 버리고 개가한 어머니

김순덕(여,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31일 채록
[영주2동 은하아파트원로의집]

부잣집인데, 부잣집인데 논밭도 많고 부잔데, 고마 아버지가 죽었어. 그래가 머스마만 서인데. 그 부자 저 죽었는데,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래 엄마가 자꾸 살러갈라고. 큰아들은 하이튼 여덟 살 정도가 된 거라. 그래서 쪼금 똑똑하지 여덟 살이모.

그래가 자꾸 인자 시집을 갈라고 그래싸이, 중매가 들고 사람들이 그래 싼께나, 그래 큰아들이,

"엄마 엄마, 우리는 아부지가 없지만은 재산이 있인께 우리하고 몬면 안 되나?"

인자 글캤는 거라 아들이. 그란께나 엄마라 쿠는 사람이,

"야 이놈의 자석아, 이 살림살이가 재산이 니 애비 좇이가?"

그래 쿠더랍니다. [일동 웃음] 그래 쿠고는 이 여자가 살러를 가버렸어.

살러로 가가지고, 그 이거는 실제로 그렇다 카대예. 그래 저 저기 고성인가 어딘가 마 거서. 살러를 갔는데, 안자 잘 살았겠지 젊어서는. 그래 인자 남자가 죽고, 중간에 마 아무것도 없이 할마이 지 혼차 남아가 있은께 인자, 꼬부랑하이 해가지고 아들 서이 있는 집이라고 찾아왔는 거라.

찾아온께나 큰아들 집에 와서 인자 문을 뚜드리께나, 그래 인자 문도 여러 개인 기라. 아

들이 열심히 해갖고 얼마나 잘 사는지. 그 문도 여러 갠데 하인이 나와가지고,

"거 누구냐?"

고 그런께나,

"이 집이 내 큰아들 집인데, 문 좀 열어 달라."

카이, 그 하인이,

"그런 부모 없다꼬. 문 열어주지 마라 쿤다."

카는 기라. 거서 그 인자 돌아나와가지고 두 번채 아들 집에 갔는 기라 인자. 가서 또 그란께나, 그 집에서도 큰아들 집매이로(집처럼) 또,

"우리는 그런 부모 없다."

캐갖고 인자 가고. 근데 그 큰아들이 얼마나 야무치게 했던지 전부 앞뒷집 이래 짝- 해가지고 잘 살아예. 서이서.

그랬는데 안자 큰아, 두째도 쫓기났고, 세 번채 막내이 집에 갔는 거라. 막내이 집에 가서 뚜드린게, 그서 열어줬답니다. 막내이 집에서는. 근께, 그 사실을 모르니까 아가. 너무 어려서 몰랐어. 모르니까 열어줐고, 두째하고 큰아들하고는 고거로 안자 아니까 안 열어줐다 카대예.

근께나 사람이 갔이몬 끝내 안 와야지. 그렇다고 자식이라고 찾아오느냐? 그 지가 잘못한 거지. 그런께, 예 그런께, 사람이 살면은 정갈하게 살아야 되지. 그런 식으로 살몬 안 된다고. 그리 이야기를 해쌌대예.

[조사자: 그렇지. 자식 버리고.] 예, 근께 아들이 그라몬 엄마, 내가 우리 엄마 이야기할 적에 내가,

"그라몬 그 아들은 뭘 묵고 살았느냐고?"

그래. 처음에는 밥을 한거 해갖고 우목(윗목)에 퍼놓고 간답니다. 뭐 방에 한거 퍼놓고. 고구마 탁 삶아놓고, 그럼 그 어린 아들 나중에 그거 다 묵고 나몬, 그때는 친척들이 와서 해주고 얻어 묵고 그래 큰다 카대예. 그래 고생을 해놔논께, 아들이 문을 안 열어줐는 거라.

[중구 설화 123]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김순덕(여,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31일 채록
[영주2동 은하아파트원로의집]

갱주(경주)에 에밀레종 있지예? [조사자: 그렇지.] 그래갖고 스님이 인자 탁발을 하러 왔는

데, 그런께 사람은 말을 함부도로 하몬 안 돼는 기. 그래 인자 종을, 종을 만들몬 깨지고 장 안 됐다 카데. 그 실패를 하고. 그 종을 만들라고 그리 탁발하러 댕기는데, 걷아가지고 그거 동냥하러 왔는데, 그 탁발하러 왔는데, 줄 게 없은께나 줄 것이 없다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뭐로 주꼬?"

그 아 이름 뭐꼬? [조사자: 봉덕이, 봉덕이.]

"뭐로 주꼬. 봉덕이를 주까?"

근께는, 그기 그런게 말하자몬 부처님을 놀린 거지. 그래 그 벌을 받아가지고 그 종을 만들몬 깨지고 깨지고 그래가, 그 봉덕이가 그 쇠 고을 때 같이 고와서 그란께는 안 깨졌다 카고 그 말은 들었다 아입니꺼.

[중구 설화 124]

높임말만 쓰는 며느리

김순덕(여,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31일 채록
[영주2동 은하아파트원로의집]

개가 막 짖어쌌거든(짖어대거던). 그란께 안에서 시어머이가,

"야야, 이 개가 와 이리 짖어쌌노?"

그란께나,

"저 송치씨가 [웃으며] 껕치씨를 뜨신께요,. 개씨가 보시고 짖으시네요."

이러 쿤다. [일동 웃음] 그 마이(많이) 쓰니까. 아이구 그 말에, '송아지가 꺼적대기(거적대기)를 뜯은께나(뜯으니까) 개가 보고, 그걸 보고 짖는다' 이 말이라. 인자 알아들었제?

[중구 설화 125]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김순덕(여,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31일 채록
[영주2동 은하아파트원로의집]

아들이, 그 저 아들이 공부하러 그 벼슬을 거 할라고. [조사자: 과거 보러 갔네.] 과거 보러 갔는데, 과거 보러 가몬, 한문(한 번) 떨어지몬 또 거 어데서 뭐 일하이, 일해 가면서 또 얻어 무가면서(먹어가면서) 거 공부하고, 다음 파스도 또 하고 오는 갑대. 그래가 따가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하데.

그래갖고 너무 무울(먹을) 게 없어서, 봉산데, 너무 무울 기 없어서 이 밭을 매는데, 이 미, 그 뭐꼬 지렁이가 나와서 그래 그거를 말짱 잡아다가 씻어서 폭 삶아갖고 할매를 죘더마는, 할배가, [말을 바꾸어] 할매가 몸도 좋아지고 억수로 건강해졌는 거라.

그래서 아들이 인자 그거 해가, 과거로 인자 그 공부 끝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저거 엄마로 본께나 너무너무 얼굴이 신수가 훤하이 좋고 그래서,

"그래 어무이, 우째 그리 얼굴도 좋고 그래 잘 계시느냐고?"

그란께나 자리 밑에 줄 때마다 한 개썩 건지가 자리 밑에다 딱 놔놨는 거라.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서. 그래가 아들로 이래 딱 뵈어줬디,

"이 사람아, 메느리가 이래 해줘서 내가 이거 묵고 마이 이렇기 건강해졌다."

고 그런께,

"어머니 이거 지렁이 아닙니꺼?"

그란께, 그 소리에 놀래가 눈이 퍼쩍 떠짔다 하더마.

[중구 설화 126]

혀 짧은 사람의 보리타작 소리

김순덕(여, 1939년생) 구술
2019년 1월 31일 채록
[영주2동 은하아파트원로의집]

근께네 인자 내나 행수도 행님이 없고, 그래갖고,

[혀 짧은 소리를 흉내내며]
앞집에 제쭈씨(제수씨)도
내좇만[198] 바라보고
뒷집에 행추씨(형수씨도)도

198) "내 손만"을 혀 짧은 소리로 한 것이다.

내좇만 바라보고

지(자기) 손만 바라보고 산다고. 이거 치아라 저거 치아라 싼게.

[중구 설화 127]

도깨비에게 홀린 사람

김상목(남,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31일 채록
[영주2동 충효원로의집]

토깨비(도깨비)가 아침에 논매러 간다고 나갔는데, 사람이 논매러 안 오고 없어졌뿐 기라. 그래가 어데 가 있노? 전부 다 여자가 불러도 안 낳아줘(놓아줘). 남자가 부르면 낳아 줘요. 그래가 내- 그 산 몬댕이(꼭대기)다가 까시(가시) 구덕이 쳐박아 놓고 전부 험하게 전부 머리가 말큼(모두) 뜯기가 엉망이라. 그래가 집에 오서 약 사 믹이가 겨우 깨워놔가, 그래 아침에 논매러 못 가는 기라. 사람 잡아 난린 기라. 바로 우리 집 옆에 그랬어. 우리 집 옆에.

우리 촌에 있을 때. 내 쪼매날(조그만 할) 때 그때 기경(구경)하러 갔어요. 그 집에. 그란께 죽었다고 난리 났는데, 그래가 인자 살아오긴 살아 왔어. 하다 그 해필(하필) 그 집에 넘의집(남의집)을 사는데, 면장 집에 넘의집을 살아요. 그것도 그 동네에 면장이라. 그래 면장 집에 여름에 논매러 가는데, 논매러 간 사람이 없는 거라. 안간 기라. 그래가이고는 마 이름이 장은도였는데, 장은도고. 이름이 장은도라.

그래 불러싼께네 마 결국은 인제 산에 가가지고 전부 동네 사람이 싹 다 일났지(일어났지). 동네 산에 가서 다 일난 기라. 그래가 가본께 까시밭 구덕이 처박아놓고 있는 기라. 그래가 인자 가서 델고(데리고) 올 때 볼때기 세리주더라고(때려주더라고). 그 남자가, 이거 찾으러 간 사람이.

"정신 채려라 인마."

와 그 사람 뚜드리 패이(두들겨 패니), 그래가 덱고 내려오이 전신에 엉망이라. 막 머리 다 뜯기고 마. 그래가이고 그 사람을 살맀다고. 그것뿐이라.

나 알아. 그거 봤어. 동네서 그랬거든. 토깨비가 그래, 거기 왜 그렇노 하몬, 토깨비도 아이라 캐. 그기 왜 그렇노 카몬, 원 등네이는[199] [조사자에게] 빗자리 안 있어? 빗자리 쓰는 거. 그거로 못 깔고 앉는, 그거 하는 기라. 집에서는. 그기 왜 그렇냐 하몬, 여자들이 월경 겉은

199) "원래 듣기에는"의 뜻으로 말한 듯함.

(같은) 거, 경도 겉은 거 흐르면 그기 묻으몬, 그기 토깨비가 되가 나가는 기라. 그래가이고 그기 토깨비가 되는. 그래 그러고는, 그래가 볼끈 매놓고 난께 빗자리 몽댕이(몽둥이)가 달랑 달려 있다 안 그랬나. 그기 토깨비가 되는 기라. 사람 피가 묻으몬 토깨비가 되는 기라.

[중구 설화 128]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김상목(남,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31일 채록
[영주2동 충효원로의집]

촌에 있을 때, 옛날에 도리깨, 보리타작 할 때 도리깨 있다고. 그거 뚜드리고 그기 또 토깨비가 되고. 억시리(억수로, 엄청) 키가 크단 말이야 그게.

그라몬 그기 토깨비가 돼가이고, 씨름하자 하는 기라. 씨름하몬 졌부몬(져버리면), 지몬(지면) 안 돼. 다리를 딱 감아가 넘가뜨려놓고, 그것도 매놓고 하몬, 도리깨 그 작대기, 작대기라. 작대기에 딱 사람 대롱대롱 달리가 있는 거라. 그 간도 없이몬 홀기몬(홀리면) 사람 가뻐리요(가버려요).[200] 담가 먹는[201] 사람은 호까(홀쳐서) 매놓고 오는데, 씨름해가 졌비면 안 된다고. 그게 토깨비가 되는 기야, 그래가지고.

[중구 설화 129]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남순희(여, 1941년생) 구술
2019년 1월 31일 채록
[영주2동 충효원로의집]

아부지가 지고 갔는데, 안자 손자가 따라갔어. 손자가 따라가 인자 그 지게하고 할배하고 묻어놓고 니러올라 카이께네, 손자가,

"아부지, 이 지게를 가져 가야 됩니더."

200) '가버린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임.
201) "담력이 있는"의 뜻으로 말한 듯함.

카이,

"왜 가져 가야?"

"아부지, 나도 아부지 나가, 연세가 많으면은 지다가(져다가) 또 내비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카면서는, 그래 다부(도로) 지게로 할애비를 지고 아들이 지고 니러옸더라. 그래가 됐다 카더라. 몰라 그 이야기만 들어봤어. 그런 이야기.

[중구 설화 130]

저승 갔다 살아난 사람

남순희(여, 1941년생) 구술
2019년 1월 31일 채록
[영주2동 충효원로의집]

인자 곽(관)을 이 지 뭐꼬 그걸 해놨는데, 곽이 자꾸 이래 흔들리, 뒤에 그 풍팽(병풍)을 아니 치놨습니까? 팽풍(병풍)이 자꾸 흔들리, 흔들리더랍니다.

그러이 삼일만에 '이상하다' 싶어 그래 곽을 꺼내보니까, 그 할매가 살았어요. 그 살어 나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가이께네, 어더 어더로 가이께네, 어떤 저 할매가,

"니는 올 때 안 됐다."

카면시는 마 등을 치면서,

"빨리 가라."

카민서 마 등을 치면서는 옇어더라(넣더라) 카대예. 그래가지고서 할매가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꼼보(곰보)라 그 할매가. 그래 꼼보가 됐더라 고거.

[중구 설화 131]

시신이 바뀐 것을 알게 한 영정사진

이판돌(여,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31일 채록
[영주2동 충효원로의집]

우리 조카딸이 저거 딸이 화토로(화투를) 잘 쳐. 그래 죽었는데, 죽어가지고 인자 곽(관)에 넣어가지고, 저 보관해놨다가 내가 초상 친다 아입니까? 초상 칠라고 내놨는데 그 곽 우에다가 사진을 이래 얹어놨다 하대. 인자 초상 칠라고. 그는 현실이라예.

사진을 얹어놨는데, 이 사진이 딱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라더라네. 세아면은(세우면) 넘어가고, 세아면 넘어가고. '이상하다' 싶어가 그 우리 조카가 울산인데, 그래가지고,

"이 사진이 자꾸 와 넘어가노?"

이래가지고는,

"이상하다. 이 곽을 하문(한 번) 열어보몬 좋겠다."

곽을 열어보니, 옆에 할매하고 시체가 바뀠더란다. 그래가지고 저거 딸을 시체를 옆에 있고, 딴 할매를 우에 갖다가 놔노이 사진이 자꼬(자꾸) 엎어지더란다.

우리 조카, 그러이 가(그 아이가) 우리 손자 되지. [청중: 그거는 실화야.] 그려. 그거 실화라. 실화라.

[중구 설화 132]

도깨비에게 홀린 사람

이판돌(여,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31일 채록
[영주2동 충효원로의집]

아이구 도깨비가예 그건 내가 봤어. 내가 처녀 때 봤는데, 처녀 때에 여름에 꼬랑(도랑), 그 돌맹이 이래 재놨는, 마이 재놨는 데다가 앉아 놀고 있는데, 이우지(이웃에) 인자 엄마가 옛날에 비네(비녀) 꼽아난께네 머리가 질다(길다) 아입니까, 막- 머리를 풀고 마 이 깨똑(개울둑)으로 마 막- 뛰가는 기라. 그래 아이구 덕이, 아들 이름 덕인데,

"덕이 엄마! 덕이 엄마! 어디 가는데?"

하니까는 말도 안 하고 막 뛰가는 기라예. 그래 저거 집에 가보이 사람이 없어. 그래 따라가 보니까네 까시덤불 안에 콱 처박아 놓고, 거 처박아 누우가(누워서) 있더랍니더. 그래갖고 그 자기 아들이 가가 덱고(데리고) 왔어예.

그거는 내가 봤어. 머리를 막 이래 풀어갖고. [조사자: 그 홀린 이야기.]

[중구 설화 133]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조현순(여,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31일 채록
[영주2동 충효원로의집]

이 사람이 인자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 급제를 해가지고 어데로 인자 출장을 가이께네, 밭에서러 피로 뜯고 있는데. 자기 가난을 보고는 벗어나덜 몬(못)하고, 자기가 벌어도 선비라고 만날 공부만 하고 있이까네, 마다(마당에) 널어놨다 허기 하거든. 마 그것도 안 치우고 공부만 해서 다 떠내갔부고(떠내려 가버리고) 더 죽을 지경 아이가.

그이깐데 이 여자가 인자 남편이 괘씸해갖고 딴 데 인자 배불리 묵고 살라고 갔는데, 그 집에 가도 또 가난이 돼가지고, 봄이나 됐든가 또 피로 뜯고 있더라 그기라. 또 그걸 본남편이 봤는 기라.

"지 가난을 벗어나질 못하고 니 복은 고것뿐이다. 나는 인자 맞다 출세를 했는데 니 복 고뿐이다."

인자 그런 뜻은 이야기가 있었어예.

[중구 설화 134]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조현순(여,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31일 채록
[영주2동 충효원로의집]

그것도 인자 아들이 자기 아부지 갖다 인자 [청중: 손자지.] 고제 다 모두 봤어요. 우리 밭뚝에. 그러이 구멍 요거마이 해놨대. 돌로다이(돌로써). 일주일 밥을 옇어주는(넣어주는) 기라. 일주일 이상 안 옇어줘.

그래 인자 고래장(고려장) 아들로 갖다, 아들인께 저거 아부지로 갖다가. 할배지 인자. 할배. 손자 안 따라가고. 아들이 여어 또 지게로 인자 그 인자 고래장했부고 지게로 가, 제게 내삐리고 가는 거라. 아들도. 손자도 있고 하이께네.

"그래 와 시게 지게 두고 내뚜노?"

손자가 하는 말이. 인자 죽은 사람인테 손자고, 거 인자 지게 지고 가는 아부지 아이가.

"아부지, 이 지게를 집에 갖다 놔야 내가 또 써먹을 때가 있다."

"와?"
하이까네,
"아부지도 칠순 때 내가 요 갖다 고래장 만들어야겠다. 그거 버리면 안 된다."
하이까네, 아버지가 날름 나가더란다. 자기부터 안 됐거든. 자기 아들도 담가이까네. 그래 손자가 그래 말을 ㅎ이꺼네. 아부지가 글(그럴) 때도, '아아!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고래장 없어졌는 거라.

[중구 설화 135]

팥죽을 뿌려 도깨비를 쫓은 사람

조현순(여,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31일 채록
[영주2동 충효원로의집]

옛날에 도째비(도깨비)가 막 부자 될려고 논을 자꾸 갖다 쌓아 줬대. [조사자: 으응, 그 이야기를 우리 어머이가.] 그기 인자 팥죽을 끓이면은 집에 뿌리고, 논에 갖다 뿌리고. 또째비(도깨비) 몬(못) 떼(떼어) 가라고. 집에 팥죽 끓인 것도 도째비 오가지고 나쁜 짓 못하라고. 밭에 논에 가 팥죽 끓인 것도 논 몬 떼가라고 팥죽을 끓이는 기라.
[조사자: 무슨 이야기가 있는교?] 그래 그 토째비가 부자 될라고, 토째비 방맹이 토째비 방맹이 그긴데, 어는 가난한 사람이 어는 착실한 일을 했든가 이런가. 토째비하꺼만 자꾸만 논을 사다 마 만들어 줬는데, 나주(나중에) 그마 보이까 너무 부자 돼도 안 듣거던. 그이까는 인자 말 피가 인자 제일 무섭다 카는 그거를 알고 말 피가 어딨노(어디 있나)? 동지 때 되몬 인자 죽을 낋이가지고 집에 뿌리고 논에 갖다 뿌리면 토째비를 못 떼 가라고. 그래 이야기가 있었다. [조사자: 그래 사람만 부자가 됐네.]

[중구 설화 136]

소쩍새가 된 며느리

조현순(여,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31일 채록
[영주2동 충효원로의집]

시집살이 된 거는 소쩍새가. [조사자: 어어 소쩍새.] 그게 와 이름이 소쩍새, 솥자를 닮아가 소쩍새라 한다거든.

시집을 오이까네, 옛날 밥을 전부 쌀로 내줬어. 우리 클 때도 그라대예. 그 내주대예. 내주. 우리 엄마는 안 했는데, 우리 친척 할매가 똑 쌀로 내주더라. 그리까네 시아버지가 밥을 만날 옛날에 이거 옥(玉) 식기(食器), 놋그릇 옥 식기. 고게 하몬 밥 붙이놘 모르거든. 밥을 묵, 밥만 묵고 있으이까네, 고기다 쪼깨 붙이가 인자 묵어라고. 부엌에서라도 묵어라고 주는데, 고기 또 들켜버렸어.

들켜뿌이니까네, 옛날에 또 언자 그때 솥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 저런데, 또 시접(시집) 가 쪼깨는(조그만) 솥에다가 맞차가(맞추어서) 또 밥을 하이께네, 시아부지 밥도 마이(많이) 몬(못) 떠주는 거라. 마이 못 떠주고. 시아부지도 저거도 배가 고프이까 메느리 지가 줄 끼 안 되는 기라.

그래가 옛날에는 또 삼을 삶거든. 그래 인제 자기가 글을 쫌 배았든가(배웠든가) 그래가 마 죽어뻐렸어. 굶어 죽어뻐렸어. [조사자: 몬 묵어가지고.] 몬 무우가. 그래가 인자 삼 삶고 그 짜(그곳에) 편지도 옇어놨어(넣어놓았어). 거 옇어놨어.

나는 솥이 작아져가지고 밥 굶어 죽었다.

그기 인자 봄 되몬, 삼 그거로 인자 자세 해가지고 푸는데, 그 편지가 들어 있고, 또 죽고 난 데 사흘만에 새가 한 마리 들어가지고 그 혼이 솥 작사, 솥 작사 이카이. [조사자: 고기 소쩍새가 됐네.]

[중구 설화 137]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조현순(여,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31일 채록
[영주2동 충효원로의집]

[조사자: 옛날에 어째가이고.] 그래가 장님이 돼가지고 [조사자: 아, 시어머이가.] 있는데, 그 인자 아들 막 이런데, 요새는 말하자몬 옛날에는 과게(과거) 보러 갔든가 인자 가고 없는데, 시어무이 저 빨리 죽을라고 방에 있으까네 귀찮다 아이가. 오줌 똥 받아, 소변 받아내이까네.

'꺼시(지렁이) 저 자아 미몬(잡아 먹이면) 죽는가?' 싶어, 시집 옸는 메느리 그렇게 하다가, 돌담 밑에 가몬 그기 마이(많이) 있거던요. [조사자: 그렇지요.] 그거 우리도 봤어. 아들도(아이들도) 혈압이 떨어지까 그거 잡아 믹이더라고. 그걸 꼬아다가(고아서) 보하이 나도 봤어. 내

고향이 경준데. 그걸 자꾸 믹이놨더만 할매가 마 얼굴이 살이 쪄가 허여이 있더라거든(하얗게 있더라 하거든). 그래 아들이 인자 말하자만 과게를 보고 왔는가 어쨌든가 딱 어데 있다 오이까네,

"야야 야야, 아이구 저 애기가."

옛날에 애기라네.

"애기가 날로(나를) 얼마나 보신을 시키 놨는지 이적지(이때까지) 살이 쪘다. 몸도 몬(못) 이기."

그거 지는 인자 아들 구경 시킬라고 고 자리 밑에 멫(몇) 마리 옇어놨던 모양이라. 고기 말라가지고 있었어. 그래 아들로,

"야야 이거 뭐고? 함(한 번) 봐도. 이기 참 좋은 겉더라. 양제 맞춰봐라."

양제지 인자. 겉에 보제. 이래 보이 꺼시가(지렁이가) 말라가이고,

"아이구 엄마 그거 꺼시다."

하이까네, 할매가 깜짝 놀라가,

"내가 꺼시를 먹고 살았나."

카매 눈을 떠뿠어. [조사자: 아이고, 심봉사 눈 뜨듯이.] 야.

[중구 설화 138]

제삿날 현몽해서 대문 열어달라는 혼령

조현순(여,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31일 채록
[영주2동 충효원로의집]

[제사를 일찍 지내 밥을 못 먹은 혼령 이야기를 부탁하자, 제보자가 조사자에게] 그 동광동[202] 말 안 하더나? 그 꼬마 저 할아버지가 초저녁에 일찍이 잤어. 잤는데, 그래 대문 열라 카는 거는 구신(귀신)이 들오라고 대문 열라는 기라. 초저녁에 옆집에 잤는데, 분명히 저 집 할배는 죽었는데, 초저녁에 잠이 살풋 들었는데,

"하이구 내가."

와 할배 막 동네 집에 드가서 인자 이렇게 끝나갈 때 왔다. 초저녁인데.

"아이라. 우리 집에 드가이까네 문이 잠기가 몬(못) 드가서 여어 들왔다."

202) 동광동에 있는 경로당 노인들이.

이카더란다. 아이 깨이 꿈이라. 키도 쪼깬(조그만) 할배라 하대. 얼마 십년밖에 안 됐어. 그래 십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 그 집 거 인자 아줌마가 퍼뜩 깨가 전화를 했는 거라.

"너거 대문 열맀는가 닫깄는가 이래 봐라."

하이께네,

"대문 닫아 놨다."

"할배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몬 드갔다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해명하더라."

그래 얼마 요 십년밖에 안 됐어. 고 정도가. 그래 이름, 이름이 뭐 탁구가, 뭐 있더라 거.

[중구 설화 139]

제삿밥을 못 먹은 혼령

조현순(여, 1934년생) 구술
2019년 1월 31일 채록
[영주2동 충효원로의집]

그도 실지 또 우리 동생은 말하는데, 옆에 가게 집이 있는데, 분명히 자기도 그 사람하고 굿이나 눈이 맞았든가, 한 여덟시가 아홉시 됐는데, 죽은 할매, 할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돈을 천원짜리 가와(가져와) 가지고,

"우유 하나 도. 배 고프다."

하더란다. [청중: 선생님 오늘 돈 조야(주어야) 되겠다.][203]

"우유 하나 달라. 배 고프다."

이캐서 이 아줌마, 가게 아줌마가 한 열시 돼가지고 우유 하나 주고, 돈 천원 받았어. 돈은 받았는데, 아침을 문 열어보이까, 맨 우유가 고여(그곳에) 고짜(그 자리에) 있는 거라. 그래 그 집에 가 물었어.

"너거 어제 제사 몇 시에 지냈나?"

그래,

"열시에."

"너거 시어무이가 우리 집에 오가 배고프다고, 내가 분명히 우유 줬는데, 우유는 안 묵고 내 문 앞에 있더라."

"멪(몇) 시에 지냈노?"

203) 이야기를 들은 값을 치러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함.

카는데,
"열시 안 돼가 지냈다."
그러이까,
"헛제사 지냈다."

[중구 설화 140]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임순화(여, 1933년생) 구술
2019년 1월 31일 채록
[중앙동 중앙동원로의집]

[조사자: 호랑이가 내려와가지고 뭐.] 그렇지. 호랑이 내러오몬 엄마 찾으니깐, 엄마 찾아 우니까, 뭐 꽂감(곶감)을 준게 끄처서(그쳐서), 뭐 어짜고 해싸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

[청중: 꽂감을 주이까네 뚝 그치니까, 아가 그치이까, 호랑이가 '그 참 무습은 갑다' 싶어 꽂감이 뭔고 싶어 호랭이 도망갔다 안 카나.] 그래 맞아.

Ⅱ. 기존 현장조사 설화

— 박경수의 현장조사 설화

1. 동구 설화

[동구 설화 1]

아버지를 살린 어린 아들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3_PKS_GNH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5동 수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권남희, 여, 85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참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살린 이야기를 구술 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에 한 사람이 나랏돈을 쓰고 못 갚아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 어머니의 등에 업힌 일곱 살 난 아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글로 지어서 읊자, 원님이 감동하여 사형을 중지시켰다.

옛날 옛날에는, 나랏돈 쓰면 사형을 당했는갑대.

어떤 인제, 주민이 인자 나랏돈을 씨고, 그 뭐 구휼미라 카던가, 옛날에 그걸 몬 갚아가지고. 아부지가 사형을 당하게 생깄어. 돈을 몬 갚으니까네.

그래 인제 사형장에 끌리가는데, 마누래가 인자 애기를 업고 떡 가가지고 서가지고 눈물만 흘리고 있으이께네, 업힌 아가 나(나이)가 일곱 살이나 이래 되는데, 옛날은 그런 거 업고 댕깄는가 봐.

그래 인제, 애기를 인자 그래가 인제 마고 마지막에 아부지가 사형을 당하는데, 애기가 인자,

"할 말이 있나?"

이래 물으이까, 마누래 보고, 마누래 보고 인자,

"남편이 인자 저렇게 돈을 몬 갚아 죽게 되는데, 할 말이 없나?"

카이, 엄마는 말 안 하고, 아들이 척 나가가지고 업혀가 등더리에(등에서) 넘어다 보고(넘겨다 보고),

"난지난지 대전나요 난지난지 살인나요. 돈때문에 죽고 살인 난다. 내 일곱 살에 애비 잃어서 억울하고, 우리 어매 청춘에 과부되는 거 억울하다."

그러더란다. 그라이까네,

"난지난지 살인나요 난지난지 대전나요. 유머청춘에 과부라니, 동자신세에 부소목리."

이라거든. 와, 원님이 딱 듣고는,

"사형시키지 말라."

카더란다. 그놈 크면 큰놈 되겠다고.

[동구 설화 2]

산신령의 도움으로 부자 된 여인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3_PKS_GNH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5동 수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권남희, 여, 85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기억력과 입담이 좋은 편이어서 이야기를 재미있게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에 가난한 부부가 산속에서 살고 있었다. 부인이 아침마다 부엌에서 소변을 누는 바람에 냄새가 심하게 났다. 조왕신이 무척 화가 나서 산신령에게 그 부인을 잡아먹어 달라고 부탁을 했다. 산신령이 부인을 잡아먹으러 갔더니, 부인이 그날따라 부엌에서 오줌을 누지 않고 오히려 산신령을 걱정하는 말을 했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산신령은 오히려 부인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 후 부인은 요강을 사게 되었고, 부엌에서 오줌 누는 일도 하지 않았다.

옛날에 옛날에는 산중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어. 젊은 사람이 살았는데. 그래 옛날에는 마, 화장실에 변변찮고 마, 이 여자가 젊어논께네 마, 아침에 자르륵 나오몬 마, 부엌에 마, 거다 마 소변을 봐뿌는 기라.

그러이께네, 조왕신이 억수로 냄새가 나고 안 좋은 기라. 그래서 산신령님한테 가가 조왕신이,

"우리 안주인 저거 잡아 묵어뿌라. 아침마당 소변을 봐서 찌렁내 나서 몬 살겠다."

이라거든. 그런께네 산신령님이 떡 잡아무울라고 와가 문앞에 있으이께네, 그날 따라 눈이 많이 왔어. 오디만은 나와서 쪼르르 나오디만은 오줌도 안 누고, 요래 보디,

"하이구, 눈도 눈도 많이 왔다. 눈이 마이 왔는데, 산신령님 어디가 계시는고? 황새 덧신은 어데가 죽었는고?"

이라거든. 산신령이 가만히 생각하이꺼네, 자기를 그마이(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 사람 자아무가(잡아 먹어서) 안 되겠거든. '이 사람을 부자로 맹글어 줘야지. 자아무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왕신 보고,

"쫌 참아라, 쫌 참으면은 내 그 사람 부자로 맹글어 줘야 되겠다."

그래, 신랑 각시 일나가지고, 옛날에는 빨래방망이하고 지게 짚는 짝대기, 이래 봇짐 짝대기하고 해가지고 와서 장에 가이께네, 볼라카이 다 팔리거든. 금방 부자가 되는 기라.

그래 요강 사다가 오줌 누이께네 아무 뭐시기 없고, 그래 부자가 되더래.

[동구 설화 3]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3_PKS_GNH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5동 수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권남희, 여, 85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의 이야기를 듣던 중에 다음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지 이야기가 끝나자 바로 이어서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울산장에 간 삼촌이 돌아오지 않자, 시동생이 삼촌을 찾으러 갔다. 삼촌이 성냥갑을 물에 띄어놓고 "놔라, 내가 탈게."라며, 도깨비에게 홀려 엉뚱한 말을 하고 있었다.

시골 살 때, 시골 살 때 이웃에 살았는데, 장에 가가, 울산장에 거를 갔는데, 장에 가가 올 때 되도 안 오는 기라.

그래, 아무리 있어도, 올 때 되도 장에 갔다 올 때도 안 오는데, 외삼촌 시동생 하나, 이름이 광복인데,

"광복아, 광복아, 연동삼촌이 안중(아직) 안 왔다. 저 새미골 못 있는데 함 가봐라."

이라이께네, 못 있는데 그리 올라가이께네,

"놔라. 놔라. 놔라."

카는데 그래, 그래 그래, 그런 소리거든.

그래, 젙에 가이께네, 성냥 옛날에 성냥갑이 큰 게 있었잖아. 그래 사가지고, 물에다 이래 딱 띄아놓고, 못둑에 못 가세(가에) 거기 띄아놓고,

"놔라. 내가 탈게. 놔라."

그게 배라고.

"놔라, 내가 탈게. 내가 타게, 놔라. 내가 탈게."

그래 인제, 우리 시동상이 글적에(그럴 때에) 가는데, 나가 어리노이(어려서) 겁이 나가지고 쫓아 내려왔어. 와가지고,

"연동, 저저 연동 작은아부지가 저게 있는데, 뭐를 놔라, 놔라 카고 그래 카고 신간을(승강이를) 하더라."

카거든. 그래, 누가 쫓아 올라가니 광복이라고, 인제 형이 되는 사람이 쫓아 올라가이께네, 물 갓에서 백지(뜬금없이) 혼자서, 성냥통 밟으며,

"놔라, 놔라."

그라더라. 그래가지고 인제,

"삼촌요!"

카매 괌을(고함을) 지르이께네,

"응? 광복이가?"

이라더라 카대. 땀을 뻘뻘 흘리고 있더라 카대. 그 그 또째비가 있었는가 봐.

[동구 설화 4]

도깨비와 싸운 사람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3_PKS_GNH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5동 수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권남희, 여, 85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앞의 도깨비 이야기에 이어 또 다른 도깨비 이야기가 있는지 물었더니,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라면서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에 별관벼슬을 하는 어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다리를 건너려는데 도깨비를 만나서 싸움이 벌어졌다. 그 어른은 도깨비의 가슴에 칼을 찔렀다. 이튿날 가보니, 도깨비는 없고 방앗공이 복판에 칼이 꽂혀 있었다.

벼슬이 옛날에 뭐, 진사, 뭐 그거 아이고 마, 호평벼슬도 있고, 별관벼슬도 있었는갑대.

그런데 인제, 그 인제 별관벼슬 했는 어른이 어디 갔다 이래 밤에 오는데, 술로 한 잔 자시고 거나이(가득) 자시고, 옛날에는 노인네들도 이 장도칼 차고 댕깄는갑대. 칼을 차고 댕기는데, 그래 어데 거난하게 술을 자시고 오는데, 그래 저저, 이래 다리를 건널라 카이,

"별관어른, 어디갔다 오시는교?"

카맨 탁 인사를 하거든. 보이께네 키가 자기카마 훨씬 크고 (청중 : 치다 보면 더 커진다요.) 어. 이놈이 뭐구나 싶어가, 칼로 탁 내가,

"네 이놈!"

카면서 가슴을 콱 찌르이, 히떡 넘어 가더라 카네.

그래가 인제 집에 와가지고 말도 안 하고 자기만 알고 아침에 가이께네, 나가 보이께네, 옛날엔 촌에 방아 가래이(방앗공이) 오래 되면 다리 놓거든요. 방아 가래이 복판에 칼이 꽂혀 있더란다.

[동구 설화 5]

효부에게 밤길을 안내해 준 호랑이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3_PKS_GNH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5동 수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권남희, 여, 85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의 호랑이 이야기를 듣던 중 다음 이야기를 기억하여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에 한 아가씨가 중매로 모자가 사는 집으로 시집을 갔다. 결혼 후 1년만에 남편이 일찍 죽자, 친정어머니는 딸을 재혼 시키려고 했다. 오랫동안 딸이 친정에 오지 않자 거짓으로 아프다고 해서 딸을 친정으로 오게 했다. 그러나 딸은 눈이 먼 시어머니를 두고 재혼할 수가 없다고 했다. 친정어머니께 거짓말을 하고 어두운 산길을 홀로 걸어오는데 호랑이를 만났다. 호랑이는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가 기특하여 며느리가 놀라지 않게 개로 변신하여 시댁까지 밤길을 안내하며 지켜 주었다.

모자가 사는 기라. 모자가 사는데, 인자 누가 중신을 해가지고, 열 일곱 살 묵은 아가씨가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가지고, 그래 뭐, 시어마이가 또 그 전에 눈이 어둡어서 앞을 못 보는 기라. 그래 한 일 년 살다 애도 하나 없는데, 양반이 죽어뿠는 기라.

죽었는데, 친정 엄마는 그 딸을 데리다 재혼 시킬라고 그래 애를 써도 그 딸이,

“여자가 한 번 출가를 했으몬 그 집 귀신인데, 더구나 아무 형제도 없고 나(나이) 많은 시어머이를 놔두고 어디로 가겠노 못 간다.”

이라거든. 그래 하도 아무리 아무리 해도 딸이 안 오이께네, 거짓말로 ‘자기가 아파 죽게 생겼다’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래 참 친정을 갔어.

가이께네. 자기 엄마는 멀쩡하고, 시어머니한테는 어디 이우지(이웃집) 구경하러 간다 카고 갔는데 멀쩡하고. 그래가 인제 아이고 시어마이 생각 나가지고, 친정 엄마가 어데 재혼하라 카이께네, 그 말 귀에 듣도 안 하고 음석을 해 주는 거 쫌 싸가지고,

“내 숙모집에 오래 안 왔으니, 숙모집에 내 갔다 오겠다.”

카고, ‘숙모집에 간다’ 카고 마 나섰어. 집을 나서가 오이께네 산길로 오는데, 해가 졌는데, 짐승소리도 나고, 하도 거 해서, 겁이 나가지고 돌아설까 하다가, ‘아이고, 우리 어무이가 날 얼마나 기다리겠노?’ 앞 못 보는 시어마시가 보고 싶어가지고, 산길을 들어섰는데 자기 집에 키우는 개가 떡 젙에 있더란다.

“아이고, 누렁아, 누렁아. 니가 여 날 찾아 어째 왔노? 아이고 고마워라.”

카민서 등을 씨다듬으면서, 그 개가 설렁설렁 개 따라 갔는 기라. (청중 : 그기 개가 아니다.) 개 따라 가가지고, 집에 가이께네, 시어마시가,

“와 인제 왔노?”

카대.

“어무이, 마 쫌 놀다보이 그렀임더.”

카고 들어갔는데, 그래 떡 문 앞에 호랑이가 날이 새도록 눕어가 있었는가 봐.
그 여자가 하도 부모한테 효성 하이께네, 호랑이가 개로 눈에 비이가지고(보여서).

[동구 설화 6]

도깨비로 변하는 빗자루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3_PKS_KOR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5동 수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옥련, 여, 80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가 도깨비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께 들었던 이야기라며 다음 도깨비 이야기를 짧게 구연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에 여성의 생리 혈이 빗자루에 묻으면, 빗자루가 도깨비로 변해서 싸움을 하게 된다.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라더라고.
그 여자들 달달이 생리 있는 거, 그거로 갓게로 깔고 앉으면, 깔고 앉고 빗자리 깔고 앉으이까네, 그래가 마 내삐맀더마는, 밤 새도록 붙잡케가지고 싸움한다고 뒹굴었더만은, 자고나이깐 빗자루더라 안 카나.

[동구 설화 7]

도깨비에게 홀린 사람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3_PKS_KOR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5동 수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옥련, 여,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의 도깨비 이야기에 이어서 다음 이야기가 생각났다며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에 한 사람이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불빛을 보았다. 불빛을 따라 갔더니 도깨비에게 홀려서 몇 시간 동안 도깨비와 씨름을 하게 되었다. 정신을 차려 보니 혼이 다 빠져서 물에 빠진 사람처럼 온 몸이 젖어 있었다.

자에(장에) 갔다가 오다가, 저(저기) 불이 뻔뜩뻔뜩 하더란다. 거 친구 있는가 싶어서 갔더란다. 가이까네,

"하 담배 피고 놀다 가라."

카더란다. 그거 보이까네, 헛개, 홑개비인테 홀렸어. 밤새도록 그거를 아무것도 없는데,

"놔라, 간다. 놔라, 간다."

카고, 이래 씨름을 하고, 멫 시간을 하고 나가, 사람이 혼이 다 빠질라 카더란다.

그래 정신이 쫌 돌아와가, 담배를 퓼고. 그래 집에 오니까네, 사람이 물에 빠진 거매로(것처럼) 불 건져 놓은 거 같더라 안 카나. 그래, 십 리로 걸어 왔는 기라, 그래가지고.

[동구 설화 8]

할아버지를 집까지 바래다 준 산짐승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3_PKS_KJ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5동 수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종순, 여, 81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다른 제보자들이 하는 호랑이 이야기를 듣고는 아는 것이 있다며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에 한 할아버지가 고개를 넘어서 장을 가는데, 밤중에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했다. 그런데 항상 큰 짐승이 나타나서 할아버지를 동네마을까지 데려다 주었다. 고마운 마음에 할아버지가 큰 짐승에게 동네 개를 마음대로 잡아먹으라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아먹지 않고 산으로 그냥 갔다.

옛날에는 이 등짐에다 지고, 촌 장을 갈라몬 산골 가는 데도 재를 넘어가는 데도 있거든.

이 그전에 장을 갈 줄 모르고, 그넘어(그놈에) 고기라 카는 고기, 마른 고기 그런 거를 짊어지고 파는데, 그 할배가 먼데 장을 갈라몬, 참 그 골도 짚으고, 고개도 높은 골로 지내가야 되는데, 그 새복에 가고 밤중에 오는데, 그래 갔다 오몬 항상 동네 못 내려와서 한참 고게 넘어오몬 큰짐승이 나타나. 큰 짐승이 나타나면,

"어이, 짐승아. 또 마중 나왔나? 아이고 고맙구로."

앞으로 슬금슬금 자꾸 따라 와, 할아버지 따라만 오는 기라. 그래 따라 오몬, 이 여기 우리 동네마을에 이래 내리오몬, 거서도 한참 내리와야 동네 집을 드갈 수 있고, 보면 마, 불을 쪼작쪼작 써 놓고 이래 됐으니, 개 짖는 소리가 마,

"아이고, 짐승, 이 짐승아! 니 날 데리다 주고 욕 봤는데, 저 삐내키(빠르게) 댕겨 가서 니 맘대로 배를 채아 가라."

하는 기라, 짐승을 보고. 그래 뭐꼬 인자, 그래했어 비켜서는 거라, 그 짐승이. 동네마다 다 와 가가는 그래 비켜서고, 이튿날 아침에 자고나몬 아무것도 개도 한 마리 가(가져) 간 것도 없어. 그래 그 할아버지가 항상 그래, 짐승이 바래주고 모시다주고 그랬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

[동구 설화 9]

이상하게 생긴 입을 보고 도망간 호랑이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3_PKS_KJT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4동 호천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종태, 남, 74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조사자의 유도에 따라, 다른 제보자의 이야기를 듣고 구술을 시작하였다.
줄 거 리 : 옛날에 산 골짜기에 고사리를 캐러 간 할머니가 호랑이를 만났다. 너무 놀란 탓에 고사리 바구니를 두고 도망을 갔는데, 호랑이가 고사리 바구니를 가져갔다. 할머니가 고사리 바구니를 달라고 했더니 잡아먹으려고 해서, 할머니가 산 위쪽으로 거꾸로 도망을 쳤다. 호랑이가 도망을 가는 할머니의 밑을 보니 이상하게 생긴 입이 보였다. 그것을 처음 본 호랑이가 무서워서 가버리는 바람에 할머니는 무사히 마을로 올 수 있었다.

우리 마을에 그 배안골이라 카는, 골이 참 질어요(길어요). 하도 질기 때문에 배안골이라고 지있는데, 그 골짜기가 인자 꼬사리가(고사리가) 마이 나거든.

그래, 나만(나이 많은) 할마이가 이제 꼬사리 꺾으러 가가지고 꼬사리를 마이 꺾어놓고, 있는 대로 올라고, 해가 어설풋한데, 까재가 거, 뭐 뭐 자고 나서 짜다라(매우 많이) 불불불 기어나와 쌌커든.

그래, 그런 거로 살살 주워 담고 내려온께, 해도 얼추 빠지고 하는데, 이놈의 호랭이로 만난 기라. 고래가 그것 보따리로, 고사리 보따리로 거 놔놓고 까자(과자) 주러 갔는데, 이 꼬사리 보따리 놔뚜놔논께네 할마이가 난리거든 마. 그 어쩌다가 호랑이가 물고 가더라 이거라. 그래,

"내 고사리 뽀따리 내놔라."

이랬는데, 지랄을, 할마이를 자아무울라고(잡아먹으려고) 뒤돌아서 사람 잡도록 오는 기라. 그래가지고 이 할매가 놀래가지고 산으로 마 꺼꾸로 기(기어) 올라간다.

산으로 있으니 기 올라가이께네, 옛날에 그 처녀들 좀 얄구진 거 속곳 안 있소? 그 단속곳이라 카나, 뭐라 카노? 그 우찌 쳐다 본께네 마, 참 얄구진 뭣이 비이거든. 아이고 우스워라.

[웃음] 딴 거는 입이 가로 째져 있는데, 이거는 십 째져 있다고 이런 말이 있거든. 거 놀래가 지고 호랭이가 못 남고 살아 내리 왔다 이런 말이 있어.

[동구 설화 10]

도깨비에게 홀린 사람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3_PKS_PGH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5동 수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금화, 여, 76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이야기 해보겠다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에 시숙이 시장을 갔다가 새벽이 되어서 집으로 왔다. 아침에 일어나서 술을 담아 온 주전자를 달라고 했다. 어머니가 도깨비가 많이 나오는 곳에 가보라고 해서 갔더니 주전자가 있었다. 주전자 안에는 술은 없고 눈이 가득 담겨 있었다.

우리 시숙님이 어찌 술로 좋아하셨는지 시장 갔다가 하도 안 오시는데, 한 새복이나 되가 오셨더라구예.

그런께 인자, 우리 아버님 드릴려고 탁주를 한 빙(병) 주전자 들고 오시다가, 형님 카이 생각이 나네. 도깨비하고 얼마나 싸움을 했는데, 집에 와야 주전자 내놓으라고 자꼬 아침에 날이 새이. 우리 어무이가,

"야야, 집에 주전자를 언제 가지고 왔노?"

카니깐,

"엊저녁에 내 분명히 아부지 드린다고 술 사가 오다가, 저저 주전자 여어갖고(넣어서) 왔는데, 왜 없느냐고?"

그라니까네, 우리 어무이 하시는 말씀이, 자는 설악산 밑 저저, 무신 산이고 거기, (조사자 : 지리산?) 아이라. 뭐 거, 쪼매난(작은) 동네에 그 산이 이름이 있어.

"그 밑에 가야 도깨비한테 잘 홀키더라, 야야, 거 가봐라."

이래요. 그래, 거 가이께네, 주전자에 눈만 한거(가득) 댕기갖고(담겨서) 그래 있더랍니더.

[동구 설화 11]

부인보다 친구가 낫다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3_PKS_PNS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5동 수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노순, 여, 79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가 하는 부부 이야기를 듣고,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다며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에 담장을 쌓다가 담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아이가 담장에 깔려 죽고 말았다. 아이의 시신을 남들 모르게 묻었는데, 부부싸움 끝에 부인이 관청에 이 사실을 말하며 남편을 고소했다. 남편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친구는 아이 뼈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개 뼈를 묻으라고 했다. 친구가 시키는 대로 하였더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옛날에, 저 신랑각시 담이 무너진데, 담장을 이래 싸니깐, 아가 요래 하나 지내가는데, 고마 고기 담이 탁 넘어서 아가 죽어삤거든. (청중 : 아이구 어짜꼬?)

죽었뿠는데, 고마 아무도 모르게 고마 어따 파가 묻어뿠는 기라. 그 사람이 아로. 묻었는데, 고마 부부끼리 싸움이 났는 기라.

싸움이 난께레, 각시가 가서 고발을 해뿠어. 원한테 가서. 고발을 해삤는데, 그래 그 남자가 지거 친구한테 가서,

"사실은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고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노?"

친구가 개로 한 바리 때려 쥑이갖고 아 묻어놘 데 거 가서 파고 묻고, 아 빼가지고 고마 없애삤거든.

그래 인자 고을 원이 인자 불러가서 그 땅을 판께네, 사람 뼈가 아이고 개 뼈가지더란다. 그래논게, 그 봉변을 피했는 기라.

그, 그래 그 인자 부부라고 친하다고 안 되고 친구가 낫다.

[동구 설화 12]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3_PKS_PNS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5동 수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노순, 여, 79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도깨비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중에 자신도 아는 이야기가 있다며 구술해 주었다. 청중들은 귀를 귀울이며 이야기를 경청하였다.
줄 거 리 : 이모부가 처갓집에 갔다가 오는 길에 도깨비를 만났다. 추운 겨울에 웅덩이에 들어가서 도깨비와 씨름을 했다. 바지저고리가 꽁꽁 얼어서 집으로 왔는데, 이튿날 웅덩이에 가보니 빗자루 몽둥이가 묶여 있었다.

저저, 평구 그 삼베, 뭇골이라 커는데 거 우리 이모부가, 명지 바지저고리 입고 이래가, 처갓집에 갔다 걸어온께, 얼매나 쓰다라시, 토깨비하고 물에 드가서 씨름을 했는고, 명지 바지저고리가 껑껑거리고 왔더래요. (청중 : 그래 왔으이 다행이다.)

그래, 씨름을 해서 그렇다 카더래요. 누가 희딱 잡바졌부리더래요.(잡아서 넘어뜨리더래요.) 집에 와서 담이 억시로 쌔다 캐. 그래, (청중 : 넘어진 사람이 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 웅둥(웅덩이) 가본께네, 참 빗자루 몽둥이가 그리 당그리(단단하게) 매놓고 왔더라 카더란다. 그래서 간께 당그리 매놨더란다.

[동구 설화 13]

도깨비에게 홀린 사람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3_PKS_PP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5동 수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필선, 여, 90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들의 도깨비 이야기를 듣고 아는 도깨비 이야기가 있다며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아버지가 장터에서 소를 팔고 기분 좋게 술을 한 잔 마시고 밤중에 산을 넘어오고 있었다. 도깨비가 자기 이름을 부르며 함께 가자고 했다. 집에 거의 도착하여 무서운 마음에 꼬챙이로 도깨비를 찔렀다. 다음 날에 보니 꼬챙이만 거름더미에 꽂혀 있고 아무 것도 없었다.

소로 팔아가주고 인자, 장에 가가 소를 팔아가지고 술로 한 잔 잡숫고 저 산을 넘어오시는데, 도깨비를 도동갰어(‘마주쳤다’는 뜻).

도깨비 이놈이, 울 아부지 자(字)가 ‘사숙’이거든.

“박사숙이. 박사숙이.”

이래 부르거든.

“누고?”

이카이,

"이 사람아. 낼세(나일세)."

"와?"

"같이 가세."

이라거든. 그래가 붙들리가 도깨비하고 산에서 얼매나 신강했는지 모르는 기라.

놀러가자고 자꾸 잡고, 지는 인자 소 팔고 돈은 꽉 있제. 정신은 멀쩡하제. 그런데 도둑놈인 줄 알고, 돈을 단디 단속을 했는데, 그래, '아 이놈을 낫을 가지고 기리뿌야 되겠구나' 싶어. 낫을 손에 딱 해가, 소나무 가재이를 뿔라가 딱 쥐고 보이깐 아무것도 없더래.

아무 것도 없는데, 또 그놈아가,

"사숙이."

또 부르더란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참 간담이 세고, 진언도 잘 치고 이라거든. 마, 진언을 치고 있으이,

"하, 사숙이."

말끼하고는 뒤에 또 따라오거든. 그래서러 도깨빈 줄 알고, 집, 얼쭈 동네 얼쭈 다 와가지고, 자죽 소리가 나가지고 인자, 큰소리로 치고,

"뭣이야"

고 이래 괌을 지르이까네, 자꾸 뒤에 마, 머리 끄티 잡는 것처럼 무섭더라요.

그래 집에, 촌에 삽짝도 없고 그냥 확 드갔는데, 거름모지기(거름더미) 거 우에다가 자기 가지고 온 나무 꼬쟁이를 탁 꼽아났디만은, 아무것도 없고 꼬쟁개이 그놈만 딱 꽂히가 있더란다.

[동구 설화 14]

도깨비와 싸운 사람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3_PKS_YYH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4동 호천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윤영호, 남, 77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의 도깨비 이야기를 듣고, 도깨비 이야기를 하겠다며 구술하였다.
줄 거 리 : 어떤 노인이 장에 갔다 술에 취해 공동묘지를 지나서 집으로 오고 있었다. 공동묘지 쪽에서 도깨비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로 가자고 노인을 계속 꾀었다. 그 일로 도깨비와 싸웠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빗자루만 있었다.

그 이쭉 동네 살고, 여는(여기는) 강이고, 강 건너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게(그곳에) 구름만 끼고 비만 올라 카먼, 불이 마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기라.

'거기 저게 무슨 불이고?' 이렇게 말이여,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 인자 그 어떤 노인이 장에 갔다 오다가, 그래서는 그 공동묘지 앞으로 나오이 불 뻔득 댕기다고 보이까네, 자꾸 말이여, 어 그 무슨 술이 취핸 사람을 보고 말이여 자꾸,

"어디로 가자. 어디로 가자."

고 자꾸 꼬아거든. 꼬아가지고, 그 꼬아니깐,

"나는 안 간다."

간다 이래 싸움하고 하다가, 마 우에다가 말이여 날이 새뿌가지고 말이여, 아침에 술이 깨가 가보이카네, 그 뭐 빗자루로, 빗자루 안고 말이여 그래 내(계속) 밤새도록 싸웠다.

[동구 설화 15]

도깨비와 싸운 사람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3_PKS_PP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4동 호천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이환옥, 남, 75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도깨비 이야기를 유도하자, 제보자가 웃으면서 도깨비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줄 거 리 : 도깨비에게 홀려서 나락 논에서 도깨비하고 싸웠다. 나락 논에서 얼마나 싸웠는지 나락 논이 어지럽혀져 있었다.

도깨비한테 홀키가, 우리 집안 행님이 술 잘 묵고 참 왠만한 사람은 붙어가 마 안 되는데.

그, 그, 뭐 나락논에 가서 얼매나 토캐비하고 싸웠던고 마, 나락태기로 지고 박치고 마 얼매나 했는지 마, 그런 일이 있어.

그래가 그 어른이 오래 있다가 저 저 뱅(병)이 나서 세상 베맀지.

[동구 설화 16]

개를 물고 간 호랑이

자료코드 : 04_21_MPN_20100203_PKS_KOR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5동 수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옥련, 여,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의 호랑이 이야기를 듣던 중 생각이 났는지 이어서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동네에서 제일 큰 부잣집의 개가 갑자기 벌벌 떨고 있었었다. 주인집 아저씨는 개가 병에 걸린 것 같다며 밖으로 내쫓았다. 그때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호랑이가 개를 낚아채어 물고 가버렸다.

기왓집에 거 옛날에, 나지막한 기왓집이 거 이 동네에서 제일로 큰 기왓집, 부자였거든. 그어데 누가 살았노 하만, 지금 대동댁이 조칸갑다(조칸가 보다). 경남여고 음악선생 했거든.

경남여고에 음악선생이 요 살았다고. 살았는데, 그전에는 개 우리 모두 똥개 믹이지, 세파트 없었거든. 그 집에는 부자라 놓은니께네 세파트가 크단한 기 있는데, 한번은 지녁을(저녁을) 먹고 나이께네, 세파트 거기 벌벌벌 떨더라 카대. 떨어서, 그 밥 해묵는 아가 넓적한 기 하나 있었거든.

"근데, 그래 개가 와 저카는고? 지녁을 먹고 나이 저 벌벌 떤다."

이라거든. 그런께네, 그 아줌마가 나오민서 개를 이래 현관문을 열고,

"현관 문을 들놔라."

카이께네 개가 마 오줌을 벌벌벌벌 싸면서 떨거든. 그래이께네 아저씨가,

"무슨 병 걸맀는갑다. 내 놓으라."

카거든.

"개가 갑자기 무슨 병 걸맀는갑다. 오줌을 주렁주렁 싸모, 내 놔라."

카이께네, 말하자면 이래 문을 열고 개를 밀어 내뿌고 나이께네, 무슨 그렁지매로(거지처럼) 싹 갔부더란다, 개가.

[동구 설화 17]

솔방울을 줍다가 만난 호랑이

자료코드 : 04_21_MPN_20100203_PKS_PGH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5동 수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금화, 여, 76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들과 호랑이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실제 있었던 일이라면서 호랑이를 만난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29살 때 부산 수정동에서 전세를 사는데, 주인집 할머니가 산에 솔방울을 줃으러 가자고 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솔방울을 줍고 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솔방울을 두고 내려가자고 했다. 호랑이가 나타나서 솔방울 주운 것을 모두 버리고 아이들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다.

스물 아홉에 내려왔거든. 그, 그 집세, 전세를 얻어가 왔는데, 큰방 할무니가 솔방울 주우러 가자 카더라구예.

“그 솔방울을 뭐하는교?”

카이,

“부엌에 불을 땐다.”

카이,

“할매, 부산에도 불 때는 데가 있는교?”

카고 보이, 큰방에 불 때는 데가 있대. 그래 우리 지금, 오십 네 살 묵은 고기, 저저, 여덟 살인가 아홉 살인가 하이튼 요랬어. 요래서 고거를 딕꼬(데리고) 또 고 밑에 그 연년상인데 둘로 데꼬(데리고), 그 집 할매 손자도 둘로 데꼬, 너이가 아(아이) 너이하고(네 명하고) 어른 둘하고 갔는데, 솔방울만 자루에 추무이(처음에) 좄는데(주웠는데), 우리는 촌에 살아도 그런 거는 안 봤거든예.

뭣이 구름이 콱 찌었는기, 우덕수리(어두워지려) 할라 카는데, 나는 그거를 몬 봤는데, 우리 주인 할매는 봤다 캐.

“상운네야, 집에 가자. 솔방울 내삐리고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자꾸 이래. 우리 큰아 이름이 상운인데.

“할무이, 와 그라는데요?”

카이,

“아이 마, 암 말도 하지 말고, 내삐리고 가자, 가자.”

캐. 나는 안 봐놔 놔논께네, 이때까지 조운(주운) 기 저기 아깝아서 그냥 오도 못하겠대. 그래서 질질 끌고 내려오이께네, 손을 탁 때리매,

“그거 잡지 말고 아들 잡으라.”

이래. 딱 둘로 잡고 내리오이, 중간쯤 다와 갔다가 요 수정산 만댕이(꼭대기) 저서(저 곳에서) 그랬어. 수정3동 만댕이에서. 이래 딱 잡고 중간쯤 내리오이께네, (청중 : 맞다. 그때 갈가지가 있었어.) (조사자 : 갈가지?)

“아이구, 이 사람아, 거 호랑이가 있어서 내가 안 그랬네.”

“예? 여도 부산에도 호랑이가 있습니꺼?”

“호랑이가 있다.”

내 눈에는, 나는 보지는 못했어요.

“내 눈에는 안 비이던데예?”

카이,

“쉭, 그래 지나가더라.”

카데예. '쉭' 지나가는데, 고 할매 말씀이 그래. 그래가 아 잡으라 캐. 이래가 아 둘로 잡고 내리 왔어요.

그래가 중간쯤 내리오디만은,

"아 때문에 내가 겁이 나 그렇지, 늙은 내는 안 잡아가는데, 아 때문에 가자 캤다."

이카더라고요. 그래 내 한 분 당해봔 일 있어예. 난 보지는 않애.

[동구 설화 18]

돌을 던지는 갈가지

자료코드 : 04_21_MPN_20100203_PKS_PGH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5동 수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금화, 여, 76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언니들과 함께 산길을 가고 있는데 갈가지가 나타나서 돌을 마구 던졌다. 담뱃불을 켜니 갈가지가 사라져 버렸다.

촌에서 요 부산에 이사를 떡 올라고, 우리 영감은 직장이 요 놓고, 나는 촌에 있었는데, 부산 온다고 보이께네, 그때 범일동 수덴 그릇, 니무 양쟁이 그거 만드는 공장이 어디 있다 카더라고예. 예 우리 오빠가. 그래, 그 떡 띠러 가이께네, 공장 오지 말고 범일동 시장을 가라 카대.

그 범일동 시장에 가서 항거(가득) 띠가 이고, 우리 언니가, 우리 언니가 중간 중간에 유천도 있고, 동뱅이도 있고, 또 청도도 있고 이렇거든. 올라가매, 처음에 인자 언니집에 떡 가이(가니깐),

"야야, 니 이 무겁아."

그때 내가 우리 사십 멫 살 묵은 딸 조기 알라(아기) 때라. 업고 떡 가이, 서이가 인자 올라가서 가분데 언니는, 큰언니는 제일 앞서고, 나는 중간에 서라 캐. 또 제일 뒤에는 두채 언니가 서고 이런데.

올라가이, 거기 갈가지라 카는 긴가(것인가) 봐. 그 뒤너덩이라 카는 재가 하나 있어예. 친정에 가는 재가. 이놈의 모래를 떠가 떤지는데 마,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다시 눈을 못 떠. 거기, 나는 당해 봤어예.

그래가 이래 떤지는데, 저쪽의 끝티 도랑이 한참 밑에 있는데, 이 도라(도랑) 돌 떨어지는 소리가 쫘락쫘락 나더라구요. 그래가 그 놈을 이고, 그릇을 이고 가는데 도저히 자죽이(발자

국이) 안 떨어져.

우리 백숙이가 앞에서 가미,

“야야, 이거는 잡아묵는 짐승은 아이다. 가자. 가자.”

카미서, 자꾸 땡기고, 우리 언니, 중간에 언니는 또,

“다부(다시) 가까? 다부 가까?”

이카니께네(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큰언니가,

“다부 가몬 안 된다. 진다. 그냥 가야 된다.”

이래. 그래, 중간에 드가다 그때도 담배를 퓼어요 내가. 담배를 푸이께네, 우리 백숙이가 하는 말이,

“야, 참 인자 생각난다. 니 성냥 있거든 내 봐라.”

이카대. 성냥을 내가 불로 캐이께네, 흔적도 없어졌부대. 성냥을 내가 불을 캐는데, 그렇게 돌을 떤지던 기 흔적도 없더라구예. (청중 : 돌 구루몬 겁나거든.)

그래가 가가지고 얼매나 모래를 덮어썼는지 가도 못하겠는 기라. 집에 가이 털어보이 한 개도 없대, 모래가. 머리에 그렇게 덮어썼는데, 우리 친정에 가 털어보이께, 한 개도 없더랍니더. (청중 : 어째서 그렇노?)

[동구 설화 19]

귀신에게 홀려 겨우 살아난 아들

자료코드 : 04_21_MPN_20100203_PKS_PN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5동 수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노순, 여, 79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들이 귀신에게 홀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며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학교를 간 중학생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학교 다녀오는 길에 귀신에게 홀려 산골 위로 올라갔다. 다행히 동네 어른이 실성한 아이의 뺨을 쳐서 정신을 차리게 하자, 집으로 돌아 올 수 있었다.

중학교 댕길 때거든. 중학교 한 십오 리는 된다. 학교 갔다 오다가 아가 안 와. 온 동네 아가 다 왔는데.

“아이고! 아가 안 올시고.”

인제 찾아대이께, 왔는데, 학교 갔다 오니깐, 책보는 저 꿍치 보은대라 카는 거따(그곳에)

놔뚜고, 저 산골꺼지,

"그래, 와 산골에 거(거기) 갔노?"

카니깐,

"엄마, 소풍간다고 막 선생님하고 마 가자."

카더란다.

그래가 큰 산골에 잎사리를, 그 잎사리라 카는데 올라간께, 첩첩산골짝인데 그 기왓집에서,

"이리 오이라, 이리 오이라."

쌌더라네(하더라네). 그래서 어찌 생각한께, '어데고?' 싶어 눈이 번뜩 뜨디, 훤하게 하늘이 그래 비고, 그때는 아무것도 안 빗던(보이던) 모냥이지.

위에 이래도 아이구 거 올라사도 거 가가, 안 된다고 쫓아 내리온께, 잎사리라 카는 동네, 그 동네 어른들이 빰을 쌔리 주더라네. 아가 좀 이상하건데 쌔리 좄지.

그래가 인자, 참 지 책보 놔둔 데 그리로 내리와갖고 마 패지(펴서) 누웠은께, 우리 동네 이장이 인자 밤늦게 온께네, 아가 그 패져 누웠더란다. 그래서 참 그때는 사이다를 한 병 사 믹이가지고 밤중에 아를 덱고(데리고) 왔어. 그래 시방도,

"엄마, 내가 혼이 빼서 내가 머리가 좀 이상한가?"

이러쿤다.

[동구 설화 20]

산으로 쫓아 보낸 여우

자료코드 : 04_21_MPN_20100203_PKS_PP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5동 수동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필선, 여, 90세
구연상황 : 호랑이와 도깨비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있었던 일이라며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산에서 여우가 밥을 먹으러 내려왔다. 처음엔 개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산짐승이라며 쫓아 보냈다. 여우는 세 번 캥캥거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래, 이사를 왔는데, 각시가 서이가 왔는데, 아 하나썩 또 왔거든. 왔는데, 세 집이 졸 목욕탕, 고게 질가에 졸 서이 셋 집 사는데, 범은 안 오고 야시가 밥 먹으러 오더라고, 야시가.

야시가 우찌 생겼는지 그때 봤거든. 개매치로 요래 노란 기가 조디로 요래 끄고 졸쭘하고(길쭉하고), 꽁디로 좔좔좔좔 끄여요, '캥캥' 싸민서러, 날 새도 안 가고 있더라고. 방문앞에

(방문 앞에) 있는데, 우린 갠 줄 알고, 갠 줄 알고 내가,

"아이고, 저이야! 이사 오매 따라 왔는가베. 저기 초량갠데."

이캤거든. 야시라 기기(그것이). 그리 우리 신랑이 한단 말이,

"기기 짐승인데, 저 쫓가 보내야 된다."

이러카매, 우리 신랑이 나가대. 우리 신랑이 나가면서러 기침을 하고,

"요 오면 안 된다. 가거라, 가거라, 가거라."

이라이께네, 안 가고 해딱 돌아이 올라가매 '캥', 올라가몬 '캥', (청중 : 그 소리 캐이께네 여운 줄 안다.) 올라가몬 '캥', 세 번 그러고 가더라고.

그래, 우리 신랑이 쫓아 보냈어, 그거로.

그라고 나서 무숩으몬 또 몬 살아서 또 앵길라 시작을 보니, 이 이상 더 앵기몬 더 무섭어 몬 살겠어. 그래 마 그 자리 살았어.

* 이상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2(부산광역시③-중부산권)』, 한국학중앙연구원·역락, 2015, 273~297쪽.

2. 영도구 설화

[영도구 설화 1]

거제 옥좌수와 인연이 되지 않은 처자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8_PKS_KMI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동 청노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 보 자 : 김명임, 여, 78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느냐고 물어보자, 제보자가 바로 다음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다고 한 다음 이야기를 시작했다.
줄 거 리 : 거제도가 고향인 옥좌수가 과거에 합격하여 평양감사로 가게 되었다. 그 곳에서 고을 원님의 딸과 눈이 맞아 같이 도망을 가기로 했다. 둘이 동대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옥좌수가 착각하여 남대문에 가 있었다. 그 처자는 옥좌수를 만나지 못하고 집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옥좌수도 거제도 고향으로 돌아갔다. 처자는 속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중이 되어 몸에 칼을 품고 옥좌수를 찾아 거제도까지 왔다. 처자는 옥좌수를 죽이기 위해 들어갔으나, 옥좌수가 자기를 위해 축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처자는 칼을 버리고 절에 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옥좌수라 쿠는 사람이, 저 전에는 평양이 서울이야, 그래 평양감사가 이 저 두고 일러서 경상남도 이 장항겉이 그런 기라.

거제 옥좌수라 이름이. 거제도 사람인데, 서울에 가서 그 그석에 베실에(벼슬에) 시험이 되가지고, 평양감사가 되가 갔는데, 그 그 나라에 원님 딸하고 눈이 맞았는 기라.

눈이 맞아갖고 그서는(그곳에서는) 이기 혼인은 몬하는 기고,

“니는 동대문에 가 섰거라. 동대문에 가 몇 월 몇 시에 만나자.”

그러캤는데, 이는 울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가 되서 참 옛날이야기야.

그래 동대문에 가서 서있으라 캤는데, 거제 옥좌수가 남대문에 가 서가 있어. 그래가 처녀가 저그 집에 있는 금덩거리로 많이 뚱치가(훔쳐서) 나왔는데, 옥좌수를 몬 만낸께 몬 들어가는 기야. 그러몬 목을 치가 죽이는 그런 법이 있었어. 그래갖고 또 어디 섬에 귀향을 보내삐고 죽었다고 가짜 초상을 치는 그런 법도 있을 때라.

그래갖고 인자 저 거제 옥좌수가 오도 몬 하고 가도 몬 하고 자기 집에 거제도로 왔는 기라. 자기 고향으로. 온께노 이 처이가 머리로 싹 깎고, 이 중이 되가지고, 스님이 되가지고 조선 팔도로 댕이는 기라. 그런 때에는 조선땅이 강원도부터서가 아이고, 저 함경북도 부령 청진 저까징 다 조선이거든. 그래가 인자 차차 차차 더터(더듬어서) 오는데, 거제에 가서 옥좌수를 만났는 거야.

목을 쳐 죽일라고 검을 갖고 칼로 이만침 질구로(길게) 해가지고 품에, 가슴에다 품었어. 품어갖고 오니까, 거제 옥좌수가 저그 집이다 이래 선발 질러놓고 촛불로 켜 놓고, 물도 떠놓고, '살았걸랑 돌아오고 죽었걸랑 좋은 극락세계로 가라'고 축언을(축원을) 하고 앉았는 기라.

그래서 그 여자가 한문 공부로 마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철학을 하는 기라. 철학을 하니까는, 어딘간고 모르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어느 절에 들어가니까 절에 가서 인자 하룻밤을 묵고, 그 인자 주지님한테 물으니까, 옥좌수로 모리는 거야. 모리는데, 어느 집에 간께논 이렇게 신 모시듯이 모시놓고 촛불 두 개로, 요새는 초도 쌧지만(흔했지만) 그때는 초도 없다. 촛불로 써놓고 이렇게 종바리다 냉수로 떠다놓고 축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칼로 거다 버리고 죽었어.

(조사자 : 아 처이가?) 응.

[영도구 설화 2]

못갈 장가 이야기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8_PKS_KMI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동 청노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 보 자 : 김명임, 여, 78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이런 노래도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노래의 줄거리를 대충 말하자, 그것은 노래가 아니고 이야기라면서 다음과 같이 구술했다.
줄 거 리 : 옛날에 한 사람이 토종비결에도 가지 말라는 장가를 고집을 부려서 갔다. 한 모퉁이를 돌아가니 까막까치가 소리를 하고, 두 모퉁이를 지나가니 곡소리가 들렸다. 세 모퉁이를 돌아가니 상여가 나가는 것을 보았다.

사주에도 못갈 장개, 책력에도 못갈 장개, 옛날에는 토종비결로 책력이라 캤다. 책력. 근데 토종비결 책 이걸로, 이 뭐시 선생(이지함 선생을 말한다.)이 그걸로 만들았는데, 죽는 시간까장 다 그기 맞는 기라.

그래갖고 [조사자 일행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며] 눈이 때끈해가(눈에 생기가 없이) 우리 애들겉다 야.

그래논께는 사람들이 내가 언제 죽을 끼라고 전부 방랑생활을 하고, 먹고 조지고 때리 뿌수고 막 몬 사는 기라. 그래서 그 책을 풀어가 살짝 섞어삤어. 살짝 석어삐논게 그래도 토종비결이 좀 맞는 기라.

궁합에도 못갈 장개, 옛날엔 궁합을 보잖아. 토종비결 그걸 책력에도 못갈 장개. 내가 시아

서(고집해서) 가는 장개. 그래 장개로 가니까 중간을 모르것네.

그래가 내가 시아 가는 장개, 한 모랭이(모퉁이) 돌아간께 까막까치가 울고 가고, 두 모랭이 돌아간께 난디없는(난데없는) 곡소리가 나는구나.

그거는 이야기야, 노래가 아이고. 그래 세 모랭이 돌아간께 생이가(상여가) 나오는 기라. 그 끝으는 모르겄는데.

[영도구 설화 3]

메밀밭에 죽은 여인과 메밀꽃 냄새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8_PKS_KMI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동 청노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 보 자 : 김명임, 여, 78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이야기 유도에 따라 제보자가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줄 거 리 : 옛날에 공부만 하는 이도령과 부인이 살고 있었다. 흉년이 들어 부인이 피를 뽑아 말리고 있는데, 소나기가 왔다. 남편은 비가 와도 공부만 하고 있어 피가 모두 떠내려갔다. 부인이 같이 살 수 없다고 다른 곳에 살러 갔다. 세월이 지나 이도령이 과거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왔다.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어 그 곳을 지나가는데, 부인은 여전히 강피를 훑고 있었다. 부인이 옛날 남편을 보고 말 물종이라도 하겠다고 하면서 따라가다가 메밀밭에 쓰러져 죽었다. 메밀꽃이 필 때 냄새가 나는 까닭은 그 부인이 죽어서 나는 냄새이다.

저 이도롱이(이도령이) 공부를 얼매나 집중을 해서 하는지, 숭년(흉년)이 지모(지면) 나락은 말라 죽어도 피는 안 말라 죽거든.

마누래가 피로 훑어가 와서 덕석에다, 망석에다 널어놓고 피로 훑고 온께노 소내기가 와서 피 덕석이 떠내려 갔는 기라. 그래도 그 남편이 그 피 덕석을 안 걷았는(거두었는) 기라.

그래서 고마 내비리고 살로로(살러) 갔어. 살로로 갔는데 그 남자가 어사급제가 돼갖고, 암행어사커모 요새는 마 그거는 자기 구역도 없어, 천하로 흔드는 사램이야.

그래가 암행어사가 되가, [노래하듯이] 하늘겉은 말로 타고, 구름겉은 갓을 쓰고, 진개맹개 너른(넓은) 들에 피로 훑고 있으니까, 저 진개맹개가 전라남도 어디야, 전라평야 어디로 말하는 기라. [노래하듯이] 진개맹개 너른 들에 갱피 훑는 저 마느래, 간 디(가는 데) 쪽족 팔자 좋아 간디 쪽쪽 갱피 훑네.

그러 캐갖고,

"그래, 나는 따라 갈라요."

그러콤서는 그 갱피로 내삐리고 와서,
“나는 말 물종도, 말 물종이라도 할라요.”
말 죽 낋이주는 건데.
“나는 말 물종도 있소.”
그러 코고(하고),
“시 물종도 할란다.”
쿤께,
“나는 시 물종도 있소.”
그래 캐갖고, 자기가 그 저저 메물밭에 가몬 메물꽃이 필 때 냄새가 난다고. 메물꽃 앞에 거서 엎어져 죽었잖아. 그래가 그 냄새다.
(조사자 : 아 그 엎어져 죽은.) 응, [노래하듯이] 진개맹개 너른들에 갱피훑는 저마누래 간디쪽쪽 팔자좋아 간디쪽쪽 갱피훑네. (조사자 : 그래서 메밀꽃 필 때 냄새가 난다고.) 응. (조사자 : 그 냄새는 그 이제 마누라가 죽어갖고,) 마누라 썩는 냄새라고. (조사자 : 마누라 썩는 냄새다.)

[영도구 설화 4]

호랑이 담뱃불 이야기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8_PKS_KMI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동 청노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 보 자 : 김명임, 여, 78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아이들이 옛날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도 해준다고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짧게 했다.
줄 거 리 :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담뱃대를 돌에다 털다가 그만 산에 불이 났다. 그래서 토끼랑 노루랑 전부 쫓겨 갔다.

담배로 피았는데, 호랭이가 담밧대로 이렇게 돌에다 털었는데 불이 났어.
아이구, 산에 불이 났어. 그래서 토끼랑 노루랑 전부 다 쫓기 갔어.
그러코마 그기 끝이야. 우리 아들이.

[영도구 설화 5]

호랑이보다 무서운 곶감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8_PKS_KMI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동 청노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 보 자 : 김명임, 여, 78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앞서 호랑이 담뱃불 이야기를 하고 난 후, 호랑이 곶감 이야기도 있다며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시작했다.
줄 거 리 : 옛날 어떤 아이가 고집을 부리며 울었다. 마침 호랑이가 그 아이 집 앞에서 그 아이를 물어가려고 있었다. 아이는 호랑이가 와서 물어간다고 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런데 곶감을 준다고 하니까 울음을 그쳤다. 그래서 호랑이보다 곶감이 더 무서운 것이라고 한다.

꽂감이는(곶감은), 옛날에 아가 억지를 내는데, 고집을 지기는데(부리는데),
"호랭이 온다."
캐도 안 그치고, 그 꽂감 이야긴데. 오맨 걸 다 갖다 꼬와도 말을 안 듣더만은,
"꽂감 주까?"
그러쿤게, 호랭이가 아를 물러 문밖에 왔는데, 그 옛날에 우리 국어책에 보몬 안에서 사램이 알랑알랑 하고, 마루도 없는 집이야.
여 축담이 그인데, 저저 그 호랭이가 와서 있다가, 그래가 인자,
"꽂감 주께."
그러쿤게 아가 그칬는 기라. 그래서 꽂감이 호랭이보다 무섭다.

[영도구 설화 6]

며느리의 입방정으로 승천 못한 시아버지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8_PKS_KMI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동 청노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 보 자 : 김명임, 여, 78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다음 이야기를 갑자기 시작했다. 그래서 앞부분 이야기를 제대로 녹음하지 못했다. 이야기를 마친 후에 다시 앞부분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조사자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결국 앞부분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줄 거 리 : 옛날에 시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샘에 시신을 넣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 시

아버지의 유언대로 시신을 샘에 넣었는데, 며느리가 그만 동네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말았다. 동네 사람들이 샘에서 물을 퍼내니 시아버지가 용마를 타고 승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며느리가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시아버지는 승천해서 용이 되었을 텐데, 며느리의 입방정 때문에 승천하지 못했다.

"내가 죽걸랑 저기 샘이에다 묻어라."

그러 캤는데, 시아부지가 죽고 나서 샘이에 시신이 들어가몬 샘이 물이 말라삐러, 맹 그 안에는.

근데 메누리가,

"우리 시아부지로 여다 옇었다."

고 그러 캤는 기라. 그래가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물로 퍼고 샘이로 쳐보니까, 시아버지가 용마를 타고 올라갈라고, 용마가 무릎을 딱 꾸리고(꿇고) 있더란다.

그런 땜에 여자는 방정시럽어서(방정스러워서), 남자들이 아랫방아서 이 풍수 인자 모시놓고, 일로 여자한테는 안 알으킨다고(알려준다고). 여자 그마이(그만큼) 방정시럽아.

(조사자 : 말 안하면 용 돼서 승천하는데.) 그래.

[영도구 설화 7]

여자들의 입방정 때문에 멈춘 띠섬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8_PKS_KMI_0007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동 청노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 보 자 : 김명임, 여, 78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앞에서 한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바로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 거 리 : 옛날에 강에 섬이 떠내려 오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여자들이 섬이 떠내려 온다고 말하니, 그만 섬이 그 자리에 멈추고 말았다. 그것이 현재 경남 사천 강 위에 있는 조그만 띠섬이다.

그러니 우리 동네는 요런 섬이 있는데, 띠섬이라 쿠거든. 사천 강에 요만한 섬이 있는데, 그 섬이 온께는 떠서 이리 오는데, 그 떠서 왔겄나 거짓말이지.

떠서오는데 방정시러운 가시나들이,

"아이구, 저 섬이 떠온다."

싼께, 그 자리에 고마 딱 서삐맀더라.

(조사자 : 아, 그게 사천 옆에 뭐 띠섬?) 띠섬.

[영도구 설화 8]

금강산으로 가다 멈춘 울산바위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8_PKS_KMI_0008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동 청노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 보 자 : 김명임, 여, 78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앞에서 한 이야기와 또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더 이상 해 줄 이야기가 없다고 했다. 조사자가 고마운 마음을 전한 후 조사를 끝냈다.
줄 거 리 : 옛날에 금강산에서 조선의 명산들에게 모두 올라오라고 명령을 했다. 모든 산이 가는데, 울산산이 가장 늦게 갔다. 울산산이 가고 있는데, 누군가 산이 간다는 말을 해서 그 자리에 멈추어 서고 말았다. 울산에 있는 산도 아닌데, 그 산의 바위를 울산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

저 가몬 울산, 울산바위라 커는 바윗돌이 있거든. 울산산이 있거든.

근데 거게 가몬, 그 금강산에서 조선에 산, 맹산(명산) 다 올라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인자 니 산 네 산 전부 다 가는데, 울산산이 맨 늦게 갔어. 가다가,

"아이고, 저 산이 간다."

고 그러 캤도만 그 자리에 딱 섰어. 울산바위라고 저 감서 보몬 있어. 근디 울산이라 써 붙인 것도 아이고, 울산바위 울산바위.

[영도구 설화 9]

욕심 많은 봉래산 할머니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8_PKS_PJM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3동 영노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8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 보 자 : 박종묵, 남, 83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산재당에 모시는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고 하며 물어보자, 제보자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 중간에 청중이 자신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줄 거 리 : 영도에 사는 사람들은 봉래산 할머니에게 갈 때나 올 때 인사를 해야 한다. 봉래산 할머니가 질투가 심하기 때문에 영도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질투를 한다. 그래서 영도를 떠날 때 인사를 하고 가면 괜찮은데, 만일 인사를 하고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망한다. 그리

고 영도를 떠날 때 영도가 보이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살면 망하고, 영도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살아야 된다는 말도 있다.

영도에 살몬, 와도 내가 왔다 카고 인사를 한다 카고.

(청중 : 신고하네. [웃음])

인사를 하고 그래 하몬 좋다 카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

(청중 : 나 얘기 들었는데, 영도에 살다가 저 건네 비는데, 영도 비는데 살면 안 되고, 갈라면 저 영도 여 안 비는데 가 살면 괜않고, 보는데 살면 안 된다고.) (조사자 : 그게 왜 그런지?) (청중 : 절대 잘된 사람이 없다.) 여기 봉래산 할무니가 욕심이 많애가지고, 여게 재물을 절대 난 안 뺏기겠다 카는 그런 전설이 있어.

(조사자 : 그래서 할머니 바위라 하는 게… …) 아, 그 요 우에 가면 있어. 그 할무니 바위에다가 와도, "내가 여 왔습니다." 커고 잘 봐줄라 카고, 갈 때도 "나는 갑니다 그 잘 쉬십시오." 고래 하면 괜않고, 암말도 안 하고 그래 가뻐리모 그 살림이 얼매 안 있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그런 말이 있어.

[영도구 설화 10]

매미가 된 강피 훑던 부인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7_PKS_SSN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중리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 보 자 : 손순남, 여, 80세
구연상황 : 조사자들이 제보자들을 상대로 제보자 카드 작성하고 있었다.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옛날 이야기가 있으면 하나 해달라고 하자, 제보자가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다고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 거 리 : 옛날에 한 부인이 선비 낭군과 결혼하여 살았다. 집이 가난하여 부인이 강피를 훑어서 집 마당에 널어놓았다. 다시 강피를 훑으러 갔는데, 비가 와서 집으로 돌아오니 선비는 공부만 하고 있고 강피가 모두 떠내려 갔다. 부인은 선비 낭군을 만나 이렇게 고생하며 산다고 하며 집을 나갔다. 부인이 새로 농부 낭군을 만나서 사는데, 다시 강피를 훑으러 갔다. 선비가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오는데 여전히 옛날 부인이 강피를 훑고 있었다. 옛날 부인이 말죽이라도 끓여주겠다고 하며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져서 죽고 말았다. 죽은 부인의 혼이 매미가 되어 "정사감사 내나 가자. 매옹매옹"하며 울게 되었다.

저 마당에다가 훑, 산에 가가 인자 훑어 와가이고, 마당에다가 큰 멫 덕석을 놀어놓고 인자 갔어.

쟁피(강피) 훑으러 또 갔는데, 그래 가가이고 쟁피를 훑은 기 마 비가 억수로 오는 기라. 그래가이고 비가 와가지고 인자 산에서 내려온께, 그 쟁피가 떠내려 가는데, 신랑어는 그거로 안 걷고, 떠내려 가든가 말든가 공부만 하고, 책상에서 공부만 하고 있는 기라. 그래갖고,

"아이고 이 농부 낭군을 만냈이몬 이놈만케(이만큼) 잘 살낀데, 선부(선비) 가장을 만내가지고 이놈만키 몬 산다."

컴서 이 여자가 부왜가(부화가) 나가지고 마 저리 인자 마 이리 가삤거든.

가가이고 인자 본께, 농부 낭군이 하나 있어가지고 만나가이고 사는데, 농부 낭군 또 만냈는데 또 쟁피 훑으러 가게가 됐어

그래갖고, 그 쟁피로, 인자 그 선비 가장은 공부로 마이(많이) 해가이고, 과게를(과거를) 해가이고, 좋은 막 마누래도, 선부 인자 마누래로 만나가이고 마, 인자 마느래는 쌍가매로 타고 앞에 가고, 이 신랑어는(신랑은) 말로 타고 뒤에 감서(가면서) 이래 처다본다고 처다본께, 옛날 마누래가 이래 쟁피를 훑고 있거든.

"저 저게 있는 저 마느래, 훑던 쟁피 다시 훑네."

이람서로(이렇게 하면서) 쳐다본게, 그래 인자,

"말죽이나 낋이주고, 소죽이나 낋이주고 나도 같이 가자."

컴서(하면서) 내려오다가 마 가랭이가 인자 마 몬 따라가고, 가 인자 내려오다가 따라간다고 가다가 마 몬 따라가고 가래이가 째저가지고(찢어져서) 죽었는데 매미가 됐다 안 합디꺼.

그래서 '정사감사 내나 가자. 매옹매옹', 인자 매미가 울몬, '정사감사 내나 가자' 이람서로 매미가 안 울던가베.

[영도구 설화 11]

노고할머니가 밀어서 생긴 아치섬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7_PKS_JYJ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2동 하리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 박경수, 박양리, 정혜란, 정다혜
제 보 자 : 장용자, 여, 81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영도에 섬에 관한 이야기가 없냐고 물어보자 청중이 이야기를 잠시 했다. 그러자 이 제보자가 이야기를 왜 그렇게 하냐고 타박한 후 다시 이 이야기를 했다.
줄 거 리 : 옛날에 영도의 큰섬과 아치섬은 붙어 있었다. 영도의 노고할머니가 빨래를 하는데 아치섬이 받치고 걸렸다. 노고할머니가 손으로 아치섬을 밀었더니 큰섬과 조금 간격을 두고 떨어지게 되었다.

아치섬하고 큰섬하고 요래 요래 붙었거든. (청중 : 요래 붙었는데.) 할매, 노구할매가(노고할

머니가) 빨래를 씻는데, 탁탁 뚜드리더래. 요놈의 섬이 받치거든.

"에라이 요놈우 섬아!"

카며 디밀었뿌논(들이밀어 놓으니) 저마이(저만큼) 갔단다

* 이상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2(부산광역시③-중부산권)』, 한국학중앙연구원·역락, 2015, 674~686쪽.

3. 중구 설화

[중구 설화 1]

도깨비불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4_PKS_KJ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1동 보수1동경노회관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강정, 여, 91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호랑이 이야기, 여우 이야기, 도깨비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자. 어릴 적 보았다는 도깨비불에 대한 이야기를 구연해 주었다. 강정 할머니가 주로 구연했지만 김단점 할머니가 이야기를 보충해 주었다.
줄 거 리 : 도깨비불이 반짝반짝 해서 가서 보면 부지깽이나 빗자루밖에 없다. 도깨비불은 논둑을 옮겨 다니는데, 가까이 가면 없어진다.

비리가 올라가면 이렇게 딱 섰으면 저런 개천에서 불이 번쩍번쩍 별말로[204] 나요.

그럼 저걸 보고 도깨비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럼 도깨비 잡으로 간다고 그걸 쫓아가다 보면 부지땅거리밖에 없어.

빗지랑, 씰고 다 짤라진 거. 부지땅가리.

(청중 : 하모. 빗자리, 빗자리 몽댕이 사람이 손때 묻은 거게가 불이 캐져가지고 도채비가.)

그 ○○ 불을 부쳐가지고 이 논두룩(논두렁) 저 논두룩 푹푹 붙이러 댕기거던, 도깨비가. 우리 눈에 보이기로 그렇게 바. 도깨비불을 저거 사방에 썼으면 인자 이 논두룩 저 논두룩 불 써가고 휘휘 그러거덩.

(청중 : 그리 잡아다 노모. 나중에 보면 빗자리 몽댕이 갖다 나 놓고 있어.) 쫓아가몬 없어. 불이 있어서 보몬 쫓아가몬 없어. 쫓아가몬 없고. 술이 정신 없으모 인자 그런 것이 비는가.

(조사자 : 아 기운이 빠지고 그럴 때.)

그릴 때 비는가 바요. 그런기 반짝반짝 여 갔다 이 갔다 오갔다 열 개 됐다 두 개 됐다 하나 됐다 그래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도 거 있던 거 가서 보면 부짓땅가리 빗자락 다 쓸면 빗자리 몽댕이.

[중구 설화 2]

204) '별처럼'의 의미인 듯.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4_PKS_KJ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1동 보수1동경노회관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보자 1 : 강정, 여, 91세
제보자 2 : 김단점, 여, 90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도깨비불 이야기를 마치고 난 후, 조사자가 호랑이 이야기 아는 것이 없느냐고 하자 이 이야기를 구연해 주었다. 제보자가 이야기를 구연하는 중간에 구청에서 자원 봉사자가 방문하여 주위가 산만했다. 제보자 1(강정 제보자)이 곶감을 소재로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를 하자 옆에 있던 제보자 2(김단점 제보자)가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이야기를 다시 해 주었다.
줄 거 리 : 아이가 울 때 호랑이가 왔다고 해도 그치지 않자 곶감 준다고 하니 울음을 그쳤다. 호랑이는 자기보다 더 무서운 동물이 있다고 생각해서 도망을 갔다.

[제보자 1] 노는데 인제 저녁에 엄마가 없잖아요. 남아 있을 적에. 호랭이가 와서 인자,
"어흥 어흥."
하니까,
"곶감 주면 안 잡아먹제."
그랬어.
"곶감 주면 안 잡아먹제."
그런게, 대체 곶감을 문서 땡기준게 호랭이가 그냥 갔다 했어. 글너게 가서 호랭이가,
"어흥, 곶감 주면 너 안 잡아먹제."
그러고서, 옛날 그러고서 근게 그 소리가 진짜인지 아인지 몰라. 얘기만 그런게 들었은게. (조사자 : 아 그렇게 들었으니까.) 어 들었은게 진짠지 아닌지는 몰라. 그렇게 엄마가 배미를 갔다 오며는 아가가 울고 있어서 호랭이가 왔다 가서 나 잡아묵을라고 했다 그러고 얘기 했다 그 소리야.
(조사자 : 아 그래서 곶감 주면 안 잡아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 그 애기기여. 곶감.
[제보자 2] 아가 울어서 안만 달개도 안 울어서 인제 호랭이 와갖고 물을라고 하니까, 오만 것 다 해도 안 달개지서 곶감 준다 칸게 아가 달래지거든. 호랭이는 밲에(밖에) 있는데 아휴 호랭이가 들은께네, 지보다 무서운 짐승이 있는갑다 싶어서 호랭이가 도망가삐맀어.
그리 살맀어 아가 살았어. (조사자 : 아 그래서 아가 살았어예.) 호랭이가 아가 오만 짓을 해도, 아가 인자 호랑이가 잡으러 안온게네. 아가 안 달개고 울어싼게, 아 소리 듣고 호랭이가 물어 갈라고 백에서. 그러면 곶감 줄까 아가 그치거든.
호랭이가 그 소리 듣고. '내보다 더 무서운 짐승이 있는갑다' 싶어 호랑이가 도망가뿠어. 그래가 아가 살았어.

[중구 설화 3]

은혜 갚은 까치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4_PKS_KDJ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1동 보수1동경노회관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김단점, 여, 90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옛날이야기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없느냐고 하자 제보자가 어릴 적 어른들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를 해 주었다.
줄 거 리 : 활 쏘는 사람이 산길을 가는데 뱀이 까치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는 까치를 구해 주었다. 날이 저물어 산 속의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는데, 예쁜 색시가 절에서 종소리가 세 번 나면 살려 준다고 한다. 그 사람은 도저히 살 길이 없다고 여기고 있는데 종소리가 세 번 울렸다. 아침에 절에 가보니 까치가 세 마리 죽어 있었다.

활 싸로 댕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있어가. 활로 싸고 댕기는데 저 활로 싸고 갔다고 오다가 간다고 가니.

저 ○○께 높은 남기에(나무에) 큰 - 배미(뱀이)가 깐챙이가(까치가) 새끼를 놓고 있는데 인자 배미가 잡아 먹을라고 올라간단 말이여.

그 활 싸는 사람이 저리 보고 활로 싸삐맀어요 그 배미로. 구리로(구렁이는) 싸삐리 구리가 떨어져 죽어삐고 깐챙이는 살았지예.

그래가 인자 활을 싸는 분이 인자 갔다가, 오다가 길이 저물어서, 도저히 옛날이 되논께는 이 산길로 그런게 길은 저물고 집이 없다 말이.

그래서 보니께 집에 불이 빤해서요, 불이 빤해서 들어갔어. 가서,

"올 저녁에 길이 저문게네 좀 하룻밤 유고(묵고) 갑시다."

한게, 아주 예쁜 새댁이 앉아 있더래요.

그래 유고 가라 카는데, 그래 머 가데 자기 소원을 들어주라 카거든. 그래 어떻게 들어먼, 그러몬 저게 절이 있는데,

"절에 가서 종을 세 번 뚜디리는 소리를 내라."

카거던.

"종을 세 번 뚜디리는 소리를 땡땡 소리가 나면 살려준다."

이 사람이 도저히 그 할 수가 없는 기라. 그래 가서 '지는 마 영원히 죽는갑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 시간은 가고 이라는데, 종이 땅땅 세 번 울리거든.

그래가 아침에 그 사람이 살았어. 그리고 그 각시는 어디로 가삐리고 그 사람은 거 있는데. 아침에 나가 보니 깐챙이가 와서 종을 세 번을 때리고 지는 죽어서 떨어져 있더래요. 거기 옛

날에 활 쏘는….
(조사자 : 어제 그러니까 살려준 까치네요.)
살려 주었어요. 깐챙이가…….
(조사자 : 그 까치가 그래 은혜를 갚은 거네요.)
은혜를 갚죠. 그래요. 짐승이 은혜를 갚더래요.

[중구 설화 4]

주인집 아이의 생명을 구해준 충견(忠犬)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4_PKS_KDJ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1동 보수1동경노회관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김단점, 여, 90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호랑이 이야기나 도깨비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자 개 이야기를 해 주었다. 구연 중에 청중들의 이동이 있어서 다소 소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었지만 제보자는 이야기를 잘 구연해 주었다.
줄 거 리 : 주인집 남자가 배 타러 떠난 후, 주인집 여자가 아기를 임신하고 동시에 키우던 개도 새끼를 임신하게 되었다. 사람과 개가 동시에 아기를 낳으면 안 된다고 해서 개를 집 밖으로 쫓았다. 주인집 여자가 아기를 낳자 작은 여자가 아기를 버렸는데 키우던 그 개가 아기를 키웠다. 주인집 남자가 돌아오자 그 개가 남자를 끌고 가서 아기를 보여주었다. 작은 여자는 쫓겨나고 아기는 개 때문에 살았다.

남자가 배 타로 갔는데, 배 타로 갔는데, 인자, 여자가 아를 못 나서 못 놓는데. 그래 인자 남자가 배 타러 감서러 큰 부인이 아로 갖고 있었어요. 알라로 갖고 있었는데.

그리 자기가 배 타러 감서로 사람을 하나 데리놓고 한데. 여자로 인자 아 놀라코 작은 여자를 하나 데맀는데. 인자 배가 불러갖고 있는 걸 보고 남자는 인자 남자는 배 타로 가고.

그런데 개가 강아지, 개가 새끼로 갖고 있는 기라. 근데 우리 옛날에 조선, 우리 클 때는 보몬 개가 키우면 개가 새끼를 갖고 있으모 개도 그 집안에 새끼를 노모 안 되요. 노모 안 되는 기라. 근데 인자 밥을 줌시로

“아무개야, 북실아 북실아. 내가 아 놓긴게(놓을 것이니까) 너는 나가서 어린애 나라(놓아라). 저 둑에 보릿대 같은데 거게 가서 새끼로 나라.”

이러는데, 인자 그러는데 배가 부르는 것을 보고 갔는데, 참 남자는 일본 배 타로 옛날에 가고 이랬는데 부인이 아로 낳어요. 여자가 아로 낳는데, 아들로 낳어. 그만만 낳는데. 작은

여자가, 인자 남자 있는데, 아로 그 아로 고마 보따리 싸가지고 저 가 묻었삤어. 그 둑에다가 둑에다가.

개가 와가지고 아 인자, 지는 새끼를 먼저 가 놓고. 거 거 틈 저 그 비늘 지와(지어) 논 데 촌에 등비늘 지안(지은) 안에 아 새끼를 나놓고. 그래 인자 개가 주인집에 와서 아로 순산하는가 개가 알고 있는 기라.

이런데 그리 인자 여자가 아로 싸가지고 그 인자 파고 묻었는 여내 여자가 묻어 놓고 온데 개가 파가지고 묻은 아로 물고 가서 저 뎃고 가 끗고 가 거서 젖을 먹이고 개젖, 지가 젖 먹이고 키았어.

그리 남자가 인자 배 타로 갔다 왔는데, 그리 아가 논께네 죽었삤다 이리 해서, 그리 인자 그리 해고 남자가 인자 생각하고 있는데, 저 여자는 마마 아 놓고 마마 정신을 잃으마 자물시 삐고(까무러쳐 버리고, 기절해 버리고) 이래논게 살았는가 죽었는가 모리고.

그래 개가 와가지고 그래 남자로 중우 가래이를 물고 끗고(끌고) 마 간다고 어데로 간다고 끗고 가더래요. 그래 간께네 그래 개가 하도 그래싸이 이상해서 끗기가다가(끌려가다가) 간께네. 비느리 속에 지 새끼 두 바리 있고 아로 지 젖을 먹고 아를 키아가 머시마 아가 살아서 ○○○○ 하더래요.

그리. 그린 적이 있어갖고. 그 여자를 쫓.. 그때 코를 끼갖고 여자로 그랬다고 안 하요. 그리 아를 살맀다. 예, 개가.

(조사자 : 개 때문에.)

예. 개 때문에.

* 이상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2(부산광역시③-중부산권)』, 한국학중앙연구원·역락, 2015, 734~740쪽.

Ⅲ. 문헌 소재 설화

1. 동구 설화
2. 서구 설화
3. 영도구 설화
4. 중구 설화

1. 동구 설화

[동구 설화 1]

대홍수와 인류 1 (大洪水と人類 その一)

옛날 어느 곳에 커다란 계수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 밑에는 항상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선녀는 수정(樹精)으로 임신을 하여 한 아이를 낳게 되었다. 그 아이가 7살이나 8살이 되었을 무렵 선녀는 아이를 나무의 곁에 놓아두고 하늘로 승천하고 말았다.

어느 날, 폭풍우가 갑자기 불어왔다. 비는 몇 개월 동안 계속 내리고 지상은 모두 거친 바다가 되고 말았다. 홍수는 마침내 계수나무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그 때 계수나무는 아이를 향해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도 지금은 폭풍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이 되었는데, 만일 내가 넘어지거든 너는 재빨리 내 등에 올라타라.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테니까." 하고 말했다. 이윽고 폭풍과 함께 거친 파도가 닥쳐와 계수나무가 넘어졌다. 아이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큰 나무에 올라탔다. 넘어진 큰 나무는 몇 날이나 몇 날이나 파도에 밀려 떠내려가고 있었다.

어느 날, 많은 개미가 떠내려 오면서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므로 목도령(木道令 : 나무의 아들이란 뜻)은 불쌍히 여겨 아버지인 큰 나무에게 향해 "아버지, 저 개미 떼를 도와주어도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아버지는 "응" 하고 대꾸를 했으므로 목도령은 "나무에 올라타라!" 고 외쳤다. 개미들은 기쁘게 계수나무의 줄기나 잎사귀에 기어올랐다. 얼마쯤 떠내려가는데 이번에는 많은 모기들이 날라 와서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외쳤다. 목도령은 또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저 모기들도 도와주어도 될까요?" 아버지는 이번에도 "응" 하고 대꾸했다. 목도령은 "나무에 올라타라." 하고 외쳤다. 모기들은 기뻐하며 계수나무의 가지나 잎사귀 위에 올라탔다. 또 얼마쯤 떠내려가니까 이번에는 한 소년이 -마치 목도령과 같은 나이의 남자 아이가- 떠내려 오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는 것이었다. 목도령은 또 아버지에게 "저 불쌍한 아이들 도와줄까요." 하고 물었다. 그런데 아버지인 계수나무는 의외에도 "안 된다." 고 대답했다. 나무는 그저 떠내려간다. 그 아이도 뒤에서 떠내려 온다. 목도령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아이를 도와줍시다." 하고 간청했다. 아버지는 역시 "안 돼!" 하고 거절했다. 나무는 그대로 떠내려가고 그 아이도 뒤에서 떠내려 온다. 또 "도와주세요." 하고 호소했다. 목도령은 불쌍해서 견딜 수 없어서 세 번째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아이를 도와줍시다." 하고 간청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대꾸는 "그렇다면 네 뜻대로 해라."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목도령은 크게 기뻐하며 "나무 위에 타거라!" 하고 떠내려가는 아이를 향해 말했다. 그러자 그 아이는 몇 번이나 빌면서 나무 위에 기어올랐다.

두 소년과 개미와 모기를 태운 계수나무는 자꾸만 떠내려가 한 섬에 닿았다. 그것은 백두산처럼 제일 높은 봉우리였다. 개미와 모기는 목도령에게 향해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말하고는 어디론지 사라졌다. 두 소년은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어 인가를 찾아 헤매는 동안 어둠속에 높은 봉우리를 보니 그곳에는 희미하게 등불이 비치고 하나의 막사가 있었다. 소년들이 그 집을 찾아갔을 때 집 안에서 한 할머니가 나와 그들을 맞이해 주었다. 그리고 둘이는 할머니의 머슴이 되어 열심히 일을 하였다. 할머니에게는 두 처녀가 있었는데 하나는 친딸이고 또 한 처녀는 양녀(혹은 하녀라고도 한다.)였다.

비가 그치고 홍수도 그쳤다.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았다. 대홍수 때문에 모두 없어지고 말았다. 남은 인간이라고는 두 소년과 두 처녀와 할머니뿐이었다. 저른은 밭을 경작하여 삶을 영위했다.

소년 소녀가 거의 상당한 나이가 되었으므로 할머니는 저들을 둘씩 짝을 지어주기로 했다. 그리고 착한 젊은이에게는 친딸을 주기로 하고 다른 젊은이에게는 양녀를 짝지어 주려고 했다. 그것을 알아챈 목도령이 아닌 다른 젊은이는 할머니에게 향하여 "저 목도령에게는 이상한 재능이 있습니다. 한 섬의 조를 모래에다 섞어놓으면 반나절도 되기 전에 조를 원래대로 한 섬을 채울 것입니다. 아마도 모래는 하나도 섞이지 않게 조를 골라 자루에 넣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술법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고 거짓말을 했다. 할머니는 그러한 일을 목도령에게 시켰다. 목도령은 익숙지 않은 일이기에 거듭 거절했지만 할머니는 크게 노해 "너는 나를 모욕하고 있다. 내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친딸을 네게 시집보낼 수가 없다." 라고 했다. 목도령은 할 수 없이 할머니가 모래에다 뿌려놓른 조를 바라볼 뿐이었다. 한 알 한 알 주워 보았지만 반나절은커녕 반년이 가도 자루를 채울 수는 없을 성 싶다. 목도령은 그저 머리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자 바로 이때 목도령의 복사뼈를 살짝 찌르는 놈이 있었다. 내려다보니까 그것은 커다란 한 마리 개미였다. "뭔가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나는 이전에 당신의 도움을 받은 개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할 테니 제발 말씀하세요." 하고 개미는 말했다. 젊은이는 걱정하고 있던 일을 개미에게 말했다. "그런 정도라면 문제 없습니다." 하고 말을 남긴 채 개미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윽고 헤일 수 없이 많른 개미가 오더니 한 마리가 한 알씩 조를 입에 물고 자루에 넣기 시작하자 이내 조가 가득 찼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는 개미 떼들은 또 어디론지 사라지고 말았다. 얼마있다 나와 본 할머니는 기뻤지만 다른 젊은이는 놀랐다. 그는 목도령을 곤란하게 만들어 할머니를 화나게 한 후 할머니의 친딸을 자기가 취하려고 했지만 사태가 그대로는 되지 않았다. 그는 그래도 친딸을 탐내어 인정하려하지 않았다. 그러자 할머니는 말했다. "너희들은 어느 쪽이나 내게는 귀엽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친딸을 주고 누구에게 양딸을 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 좋은 방법이 있다. 오늘은 마침 달이 없는 그믐날 밤이다. 오늘밤 내가 두 딸은 동쪽과 서쪽 방에 각각 넣어 둘 테다. 어느 쪽에 어느 딸을 넣을 것인지 내 맘대로다. 그 동안 너희는 밖에 나가 있거라. 그리고 내가 부르면 들어와 각자가 맘 내키는 방으로 들어가거라. 그래서 만나면 운명이다. 불평은 없겠지."

두 젊은이는 저녁을 먹은 뒤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바야흐로 여름이었다. 목도령이 “자아 어느 방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한 마리의 커다란 모기가 목도령의 귀 가까이에 나르면서 “목도령이여 동쪽의 방이에요. 붕붕”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들은 목도령은 동쪽 방으로 들어가 예쁜 친딸과 결혼하기로 했다.

이들 두 부부의 의해 인간은 운 좋게 이어져 왔던 것이다. 그들이 오늘날 인류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다.

-1923년 11월 8일, 부산부 좌천동, 김승태 군 담

나의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야기 속에 구렁이나 제비 등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잊었습니다만 (마산부 명주영 군 담)

* 손진태 지음, 최인학 역편, 『조선설화집』, 민속원, 2009, 33쪽. 39-42쪽.

[동구 설화 2]

대홍수와 인류 2 (大洪水と人類 その二)

옛날, 대홍수가 일어난 일이 있었다. 오랫동안 장마와 해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모두 바다가 되어 생물은 물론 인간이란 인간은 모두가 전멸하고 말았다. 그런 가운데 두 남매만이 살아남아 높은 산봉우리에 표착했다. 큰 나무를 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홍수가 끝나고 세상은 원래대로 됐지만 인간은 한사람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매가 결혼하지 않으면 인간을 번식시킬 수 없었다. 그렇지만 남매가 결혼할 수 없었기에 둘이는 마침내 늙어 머리카락이 희기 시작했다. 그때 한 마리 호랑이가 어디에서인가 남자를 한 사람 데리고 왔기 때문에 누이는 그 사내와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아 마침내 오늘날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고 한다.

-1923년 11월 8일, 부산부 좌천동, 김승태 군 담

* 손진태 지음, 최인학 역편, 『조선설화집』, 민속원, 2009, 33쪽. 43쪽.

[동구 설화 3]

벼락과 번개 (雷と電)

옛날, 조선에는 벼락이 대단히 많았다. 그 때문에 사람이나 가축의 사상(死傷)들은 물론 농작물에도 피해가 많았다. 고려시대의 대장이었던 강감찬은 그것을 퇴치하려고 어느 날 높은 굽의 나막신을 신고 길가의 변소에서 (혹은 우물 안에서) 용변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벼락이 맹렬한 기세로 치자 붉은 불꽃이 되어 그의 앞을 스쳤다. 그는 재빨리 그의 앞을 스치는 벼락을 손으로 잡고 한가운데 꺾어버렸다. 그것에 놀란 벼락은 그 후 횟수가 줄어들고 번개도 지상까지는 내려오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1924년 7월, 부산시 좌천동, 김승태 군 담

* 손진태 지음, 최인학 역편, 『조선설화집』, 민속원, 2009, 33쪽.

[동구 설화 4]

이정헌 공의 혼령

-공 인정받지 못한 젊은 장수의 애통함

-장소 : 부산시 동구 좌천동

왜군의 침입 조짐이 점점 높아가던 어느 날, 부산진첨사 정발(鄭撥) 장군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왔다. 그는 무과에 급제하여 일하던 중 조방장(助防將)으로 임명받았으나 말이 병이 들어 목적지에 늦게 도착한 이유로 파면을 당했다고 아뢰면서 왜군의 침략이 눈앞에 닥쳤는데 어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정발은 그 젊은이의 기개를 높이 사 자신을 옆에서 보좌토록 했다. 마침내 왜군이 침입하자 그 젊은이는 부산진성 전투에 임하며 “부산진은 우리나라의 관문인데, 부산진이 없으면 영남이 없고 영남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외치며 정발 장군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했다. 그 젊은이가 바로 이정헌(李庭憲 · 1559~1592)이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부산에 첨사가 부임만 하면 어쩐 일인지 며칠 지나지 않아 급사하는 변이 잇따랐다. 조정에서는 재차 사람을 뽑아 부산진첨사로 내려보냈으나 부임한 지 며칠 만에 급사하고 말았다. 이러한 일이 수차례 반복되자 관리들이 후임 부산진첨사 되기를 꺼리는 형편이라 조정에서도 하는 수 없어 옛 성(城)을 정성(整城)하여 자성대(子城臺)로 본성(本城)을 옮기게 하고 옛 성지(城地)를 팠는데 동문못(東門池) 속에서 수많은 해골이 나왔다.

마을사람들이 이 해골들을 모아 자성대 밑에다 묻었더니 이 마을 한 노인의 꿈에 갑옷을 입은 한 장수가 무서운 형상으로 나타나서 “나는 영천(永川) 조방장 이정헌이다. 임진왜란 때 부산진성에서 정공과 같이 부산진을 지키다가 전사하였으나 조정에서는 나의 공로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어 섭섭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이 서러운 사정을 호소하려고 역대 부산진첨사

의 꿈에 나타났더니 하나같이 모두가 소인이라 미처 말도 하기 전에 죽어버리기에 애통함을 참지 못하는 바다"라 하고 사라져 버렸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 그 고을에 갑자기 병이 유행하여 급사자가 하루에 40여 명이나 생겼다. 이에 꿈을 꾼 노인이 이상하게 여겨 동래부사를 찾아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시 동래부사 홍명한(재임 : 1759~1761)은 즉시 이정헌의 공로를 자세히 조사하여 조정에 아뢰었다. 이 보고를 받은 임금은 이정헌을 기특하게 여겨 대신들에게 의논케 했다. 대신들은 이정헌이 국토를 지킬 직책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힘을 다하다 순절하였으므로 증직(贈職)하였다. 그의 집 대문과 마을 입구에 의롭고 충성스러운 행동을 표시하며 마을사람들의 본보기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정했다.

이정헌에게 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 겸 경연참찬관을 증직하고 그의 순절을 표창하니, 죽은 지 160여 년이 지나 비로소 그의 행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홍명한 부사는 몸소 이곳에 와서 기치(旗幟)를 갖추고 군고(軍鼓)를 울리고 제사를 크게 지내며 혼령을 위로했더니 그 후로부터는 모든 것이 무사해졌다고 한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 왜적을 맞아 항전하다 순절하였지만, 이름과 행적을 알 수 없어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애통한 마음을 전해주려는 그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79~81쪽.

[동구 설화 5]

명약

옛날 가난하게 살던 어떤 이의 아들에게 병이 생겼다. 유명한 의원 화타는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리 해도 병이 낫지 않자, 사람 고기를 달여 먹여야 한다는 빈 말을 하고 도망갔다. 그 말에 며느리가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아들에게 달여 먹였는데, 거짓말처럼 아들의 병이 다 나았다는 이야기이다.

옛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그의 아들에게 병이 났다. 아버지는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온갖 약을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때 화타라는 유명한 의원이 여행을 하다가 이 집에 와서 자게 되었다. 화타가 자려고 누워있는데 방 천장에 화타라고 써 놓은 조그만 봉지가 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봉지에 무엇을 넣었으며, 왜 자신의 이름이 그 봉지에 써져 있는지 궁금했던 화타는 주인에게 그 연유를 물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은

"자식이 병이 들어서 온갖 약을 다 써 봤지만 낫지 않아 천하의 명의인 화타라면 아들의 병을 낫게 해주지 않을까 싶어, 만 가지 약초를 넣고 화타의 이름을 써서 천장에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라고 했다.

화타는 그 말을 듣고 그와 같이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했다. 그가 가난해서 의원을 불러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 자신이 화타임을 밝혔다.

화타는 아들의 병을 진맥해 보더니 한 달 만에 낫게 해 주겠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꼭 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일 못 낫게 하면 내 칼에 죽을 줄 아십시오."

라고 했다.

그런 뒤 며느리는 방문 앞에 앉아서 잠도 안 자고 지켰다. 화타는 여러 가지 약을 써서 아들의 병을 고치려 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아들의 병이 낫지 않자 자기 의술로는 도저히 치료하기 어려울 것 같으므로 도망이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며느리가 잠든 틈을 타서 화타가 도망쳤다. 잠이 깬 며느리는 화타가 도망간 것을 알고 칼을 들고 뒤쫓아 갔다. 며느리에게 잡힌 화타는 급한 마음에 그 병은 사람 고기를 달여 먹이는 수밖에 없다고 하고 달아났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서 아들에게 달여 먹였다. 그랬더니 정말 병이 다 나았다.

그 뒤로 몇 해가 지나고, 화타는 그 환자가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그 집을 찾아갔다. 그랬더니 그 집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당신 덕분에 아들 병이 다 나았다고 하면서 허벅지 살을 베어 낸 상처에는 무슨 약이 좋은지 물었다. 화타는 소고기를 붙이면 낫는다고 했다. 며느리가 살을 베어 낸 허벅지에 소고기를 붙였더니 금방 다 나았다.

화타는 용한 의원이었지만 사람 고기로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배우지 못했다. 다만 며느리가 죽이겠다고 쫓아오자 급해서 사람 고기를 달여서 먹이면 된다고 빈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 빈말이 결국 명약이 되었다고 한다.

*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73~74쪽.

2. 서구 설화

[서구 설화 1]

거북섬에서 만난 어부와 용녀

송도해수욕장에 자리 잡은 거북섬은 섬 모양이 거북과 닮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다. 이곳에는 어부와 용왕의 딸의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가 전해진다. 끝내 이루지 못한 이들의 사랑을 기리며 용왕이 어부를 거북바위로 만들었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송도해수욕장(부산시 서구 암남동)에는 '거북섬'이라고 불리는 작은 바위섬이 있다. 거북섬은 송도해수욕장 동쪽 앞바다에 자리하고 있는데 섬 모양이 거북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면적은 3,129㎡로 북쪽으로는 소나무로 뒤덮인 송림공원과 마주하고 있다.

옛날 송도에 효성이 지극한 어부가 살았는데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다가 큰 파도를 만났다. 그래서 용굴로 피하는데 그때 괴물과 싸우다가 상처를 입은 용왕의 딸을 만나게 된다. 어부는 약초를 구해 그 여인을 정성껏 치료해준다. 감동한 여인은 어부와 결혼하지만, 용왕의 노여움을 산다. 하지만 어부의 정성을 알게 된 용왕은 딸에게 결혼을 허락하고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 방법은 달의 영험을 받아 천일을 기도하면서 햇빛을 보지 않는 것이었다. 그녀는 용굴에서 정성스레 기도하지만 999일째 되는 날 갑자기 나타난 바다 괴물에 쫓겨 그만 햇빛을 보고 만다. 그래서 그녀는 반은 용이고 반은 사람인 인룡으로 변해버렸다. 뒤늦게 나타난 어부는 괴물의 가슴에 칼을 꽂았으나 괴물과 함께 죽고 말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용왕은 어부를 거북바위로 만들어 영생하게 하고 이들의 사랑을 기리며, 거북섬을 찾는 사람에게 재복과 장수를 주는 현장이 되게 했다.

사람들은 거북섬 주변 축대 벽에 전설 이야기를 새긴 타일 그림판을 붙이고 거북섬에는 어부와 용왕의 딸 조각상을 조성하였다.

1964년에는 거북섬에서 해수욕장 위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420m)와 송림공원에서 거북섬으로 건너가는 구름다리(150m)가 설치되어 송도의 명물이 되었으며, 연인과 신혼부부들이 즐겨찾는 전국적인 관광지가 되었다.

송도케이블카는 1988년에 운행이 중단된 후 제반시설들이 방치되었다가 2002년 철거되었으며 이듬해 구름다리도 철거되었다. 현재, 콘크리트로 부설된 연륙교를 만들어 왕래하고 있으며, 바다 밑을 조망할 수 있도록 스카이워크를 조성하여 개방하고 있다.

*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pp.83~85.

3. 영도구 설화

[영도구 설화 1]

생섬(鉎盆島)

影島의 절경인 太宗臺 앞바다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바위섬(岩島)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다. 이 크고 작은 돌섬 가운데 유독 섬 하나가 주전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흔히 사람들은 鉎盆島 또는 주전자섬이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이 주전자섬에 대해 갖가지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 그 중 몇 가지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옛날부터 주전자섬에는 用便과 불(火)의 취급을 절대 금하고 있다고 한다. 또 男女가 情을 일으키면 急殺 맞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靑春男女들이 이곳으로 데이트를 가지 않는다고 한다. 이 주전자섬에서 用便을 보거나 火氣를 취급하면 큰 재난을 당한다는 전설이 내려오기 때문이다.

그 옛날 影島구 東三동에 사는 한 어부가 주전자섬에서 고기를 잡다가 갑자기 用便이 마려워 魚具를 바다에 설치해 놓은 채 用便을 보게 됐다. 그랬더니 그 날은 하루 종일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고 나중에는 魚具까지 전부 잃고 말았다. 이 어부는 그 이튿날도 다음날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겨우 장만한 魚具를 계속 잃게 되자 화병으로 자리에 누웠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고 한다.

또 같은 마을에 사는 일단의 어부들이 주전자섬에서 고기를 잡다가 매서운 추위를 이기지 못하여 불을 놓았다. 이때 뒤늦게 온 늙은 한 어부가 이들을 크게 책망하여 당장에 불을 끄도록 명령했다. 그러면서 늙은 어부는 「이 섬엔 옛날부터 불을 놓으면 큰 재난을 당한다」고 말하고 「불길한 일이 생길지 모르니 조심하라」고 타이르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나 일단의 어부들은 이 늙은 어부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계속 불을 지피고는 「미신같은 소리를 한다」며 예사롭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부들은 모닥불을 가운데 두고 빙 둘러 앉았다가는 다시 고기잡이를 했으나 이상하게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어부들은 땅거미가 질 무렵 魚具를 챙기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어부들은 이때까지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었으니 이날은 괴이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어부들은 갖가지 공상을 하며 늙은 어부의 말을 생각하다가 겨우 잠이 들었다. 그날 밤 꿈속에서 어부들은 주전자섬이 불덩어리로 변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후부터 이들이 하는 일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끝내는 원인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모두 죽고 말았다.

또 이곳 주전자섬에서 男女가 情을 일으키면 雲雨의 벼락을 맞아 急殺되거나 큰 병을 얻

어 자리에 눕게 된다는 전설 때문에 지금까지 이곳을 찾는 젊은 男女가 없다고 한다.

* 절영지발간추진위원회, 『절영지』, 소문출판인쇄사, 1983, 241~243쪽.

[영도구 설화 2]

태종대 앞 주전자섬

부산에서 손꼽히는 절경에는 태종대가 으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종대 앞바다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 바위섬이 하나 있는데, 이 바위섬을 유분도(鍮盆島) 또는 주전자섬이라고 부릅니다. 이 섬에 얽혀 전해지는 이야기 한토막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의 동삼동(東三洞) 어딘가에서 살던 한 어부가 매섭게 추운 겨울날 고기잡이를 하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바위섬에 올라 솔가지를 모아 불을 놓았습니다. 이때 함께 고기잡이를 나갔던 다른 어부는 걱정스런 얼굴이 되어 책망하듯 말했습니다.

"옛날부턴 이 섬엔 불을 놓지 못한다고 하는데, 오늘 자네가 기어이 불을 놓고 말았으니 우리들에게 혹 불길한 일이 생길지도 알 수 없으니 부디 조심하게."

하지만 불을 놓은 어부는 그까짓 미신이라고 하면서 전려 개의치 않고 낚싯대를 드리우고 고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온종일 한 마리의 잡어(雜魚)도 잡히질 않았고, 결국 해가 저물어서 그는 빈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어부는 꿈속에서 주전자섬 전체가 불덩어리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 이후 어부는 뜻하는 일마다 모두 실패만 거듭하다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 곽정식, 『이야기에 비친 선인(先人)들의 삶 - 우리 고장 부산의 전래 설화』,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0, 187~188쪽.)

[영도구 설화 3]

주전자 섬의 삼기(三忌)

-주전자 섬의 금기 사항은 대변, 불, 남녀 사랑

-장소: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영도 태종대 앞바다에 바위로 된 무인도가 있다. 이 작은 바위섬을 유분도(鍮盆島)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주전자 섬이라고도 부른다. 이 섬에는 옛날부터 엄격한 금기 사항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전해오고 있다.

즉, 금기 사항이란 이 섬에서 고기를 낚다가 대변을 보면 그날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어구를 전부 잃어버린다는 것과 이 섬에서 불을 놓으면 큰 액운이 따른다는 것, 만일 남녀가 이 섬에서 운우지정을 맺으면 며칠 동안 큰 병을 앓게 된다는 것이다.

옛날 동삼동 하리마을에 사는 한 어부가 이 섬에서 고기를 잡다가 갑자기 용변이 보고싶어 어찌할 수 없이 용변을 보았다. 그 날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파도에 어구까지 전부 잃고 말았다. 그 뒤 이 어부는 다른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아도 잡지 못하는 날이 많고 장만한 어구까지 계속 잃게 되자 화병이 나 죽고 말았다.

또 같은 마을에 살던 한 어부가 추운 겨울에 이 섬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추위에 이기지 못해 불을 놓았다. 이 때 동행한 어부가 책망하기를 “이 섬엔 옛날부터 불길한 일이 생길지 모르니 조심하게.”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어부는 그것은 한갓 미신이라 말하고 고기를 낚으려 했으나, 이상하게도 하루 종일 한 마리의 잡어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그 어부는 꿈속에서 유분도의 전체가 불덩이로 변하고 한 마리의 흰 꿩이 날아 어부의 배 위를 배회하다가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이 어부는 그 뒤부터 뜻하는 일마다 모두 실패하매 부득이 이 섬에 사과의 제사를 올렸으나 3년 뒤에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사망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또한 주전자섬에서 남녀가 정을 일으키면 운우(雲雨)의 벼락을 맞아 급살되거나 병을 얻어 죽게 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젊은 남녀가 없다고 한다.

*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pp.247~248.

[영도구 설화 4]

장사(壯士)바위

-9거척인 마을 주민들에게 죽음으로 보은

봉래산(蓬萊山)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면 장사(壯士)바위가 있다.

옛날 키가 9척이요, 힘이 천하장사인 거인이 영도(影島)의 깊은 산속에 살고 있었다. 이 거인은 매일 마을로 내려와 밥을 얻어먹었는데 한 끼에 쌀 한 말을 거뜬히 먹어 치웠다. 마을

에서 염치없이 밥을 얻어먹던 거인은 주민들에게 보답을 못해 송구스러워 했다.

어느 날 거인이 마을서 저녁밥을 얻어먹을 즈음 형체는 없고 커다란 그림자뿐인 괴물이 나타나 마을 처녀를 잡아가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후 이런 일이 자주 발생,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으나 거인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고심하던 거인은 마침내 앞바다서 괴상한 그림자를 발견, 격투 끝에 그림자를 껴안고 죽었다. 이 그림자는 이무기였다.

주민들은 거인의 시체를 거둬 봉래산(蓬萊山) 밑 양지 바른 곳에 묻었다. 그 후 거인의 무덤이 큰 바위로 변했는데 바위모양이 마치 장사의 신발 같아 오늘날 이것이 장사(壯士) 바위로 불린다.

* 절영지발간추진위원회, 『절영지』, 소문출판인쇄사, 1983, 243~244쪽.

[영도구 설화 5]

일산배기마을의 장사바위

-처녀 잡아가는 괴물과 사투 벌인 거인

-장소 : 부산시 영도구 청학2동

일산배기는 뒷산이 편평하고 아트막한 등성이를 말한다. 장사바위는 영도 봉래산(394.6m)의 서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성채와 같은 너럭바위로서, 아리랑고개를 넘어가는 곳(영도구 청학2동)에 위치해 있다. 이 바위는 바위 위에 마치 거인의 신발과 같은 모양의 돌이 얹혀있는 데서 장사바위로 명명됐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옛날 영도 봉래산의 일산봉(日傘峰 ·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 아래에 키가 9척이나 되고 힘이 천하장사인 거인이 살고 있었다.

이 거인은 매일 아랫마을로 내려와 밥을 얻어먹고 갔다. 이 거인이 산을 오르내릴 때의 발자국 소리는 얼마나 컸던지 아이들이 경기(驚氣)를 할 정도였고, 한 끼의 식량이 쌀 한 말이 될 정도로 대식가였지만 마을사람들은 그가 사나운 산짐승의 피해를 막아주니 귀찮은 내색도 없이 기꺼이 밥을 해 주었다.

어느 날 그가 마을로 내려와 저녁밥을 얻어먹고 있을 때 별안간 저 멀리서 '으르르르 으흐흥 쉿쉿'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구, 사람 살려"라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급히 비명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처녀의 어미가 "형체가 보이지 않고 커다란 그림자만 보이는 괴물이 내 딸을 채어갔다"고 말하며 망연자실했다.

그로부터 이 마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에게 처녀가 잡혀가는 사건이 종종 일어났

다. 해서, 마을사람들은 밤이 되기를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처녀가 있는 집에서는 해가 지면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공포로 밤을 지새웠다.

어느 날 거인이 바다에 있는 무인도 쪽을 바라보니 시커먼 그림자가 영도의 반대쪽에서 뻗치더니 한 줄기의 연기가 영도로 올라왔다. 그러자 괴이한 바람소리와 더불어 바다의 물결이 높아지더니 처녀 하나가 잡혀갔다.

산봉우리로 돌아온 거인은 그날부터 목욕재계하고 천신에게 기도하며 무인도의 그림자가 일산배기마을이 있는 영도에 닿기를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괴상한 그림자가 영도 쪽을 향하고 있었다. 바닷가로 뛰어내린 거인은 온 힘을 다해 그 커다란 그림자를 끌어안고 사투를 벌였다. 그러자 바다의 물결은 노도와 같았고 천둥과 번개 속에 폭우가 쏟아졌다. 얼마 후 성난 파도가 잔잔해지고 먹장구름도 깨끗이 사라지자 고요함이 다시 찾아왔다.

마을사람들이 바다를 보니 바다에는 거인과 이무기의 시체가 떠 있었다. 촌장은 마을사람들을 모아놓고 “거인은 지금까지 자기를 보살펴 준 마을 사람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이무기와 싸우다 죽었소. 후하게 장례를 치러줍시다”고 말했다. 이에 동의한 마을사람들은 영도의 양지바른 곳에 거인의 시신을 묻어주었다.

이후 거인의 무덤이 큰 바위로 변했다. 마을사람들은 바위의 모양이 마치 거인의 신발과 흡사해 이 바위를 그때부터 장사바위라고 불렀다.

*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pp.103~105.

[영도구 설화 6]

아리랑고개의 애환(哀歡)

일제 말 봉래동(蓬萊洞)~태종대(太宗臺)간 간선도로가 생기고 지난 1959년 신선동(新仙洞)~청학동(靑鶴洞)을 잇는 산복도로가 뚫려 영도(影島)의 교통은 편리해졌지만 1930년대만 해도 아리랑고개가 동삼동(東三洞)~신선동(新仙洞)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목이었다.

지금도 봉래산(蓬萊山) 중허리에 오솔길이 남아있는 이 고개는 당시 산림이 울창하고 험한데다 길마저 구불구불하여 울면서 넘어가 아리랑고개라 했다.

당시 동삼동(東三洞) 앞바다서 엄청나게 잡힌 생선꾸러미를 머리에 인 부녀자들이 도둑이 들끓었던 아리랑고개를 넘어 부산장(현 釜山鎭市場)까지 걸어가 팔았다. 50여 년 전 생활고에 지친 동삼동(東三洞) 생선장수들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울면서 넘나들었던 애환의 아리랑고개는 찾는 사람이 없어 잡초만 무성하다.

지금은 봉래동(蓬萊洞) 금화사(金和寺)를 지나 청학동(靑鶴洞)으로 가는 큰 길을 아리랑 고개라 하는데 이곳 탱자나무골도 주택이 들어서 흔적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옛 아리랑고개 주변 청학2동 고지대에는 아직도 곳곳에 판잣집이 있어 6.25동란의 비극을 일깨워 준다.

* 절영지발간추진위원회, 『절영지』, 소문출판인쇄사, 1983, 244~245쪽.

[영도구 설화 7]

효자 현창비(孝子顯彰碑)

주두원(朱斗元), 주두홍(朱斗洪) 양씨의 선친(先親)인 고 봉우공(奉祐公)은 한림학사(翰林學士) 문절공(文節公)의 후예로서 어려서부터 고향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자라면서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셨다.

부모에 대한 효도(孝道)는 인도(人道)의 근본이요 인지상정(人之常情)이나 효자(孝子)로 현창(顯彰) 받기까지의 효행은 어려운 일이다.

고 봉우공(奉祐公)의 효행을 들추어 보면 어려서부터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극히 두터워 주위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한데다 엄친(嚴親) 병환 시에 온갖 약을 구하여 간호하였으나 별 차도가 안보이자 매일 설사로 신음함을 안타까이 여겨 그 변(糞)을 혀로 핥아 병환의 차도를 식별하면서 약을 조제, 간호하였으나, 별 효과 없이 돌아가시자 묘 옆에 움막을 짓고 시묘(侍墓)중 병을 얻어 1년 반만에 중단 가례(家禮)에 준하여 3년상을 치르셨다.

그 후 편모(偏母)에 대한 효심 또한 지극하여 엄친 못지않게 시봉(侍奉)하였으나, 수년 후 병석에 눕게 되자, 밤낮 옆에서 떠나지 않고 간호에 온갖 정성을 쏟았으며, 밤중에는 북두칠성을 향하여 노천기도를 올리며, 밤을 지센 일도 몇 번 겪었으나, 별 효력이 없자 자기의 효성이 부족한 바라고 하늘을 우러러 보며 한탄하면서 울었다.

이러던 중 어느 날 밤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해삼 4~5마리만 복용하면 병이 나으리라는 현몽을 하였다.

그 후 매일 바닷가를 헤매면서 해삼을 구하려 하였으나 엄동 겨울에 해삼 구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지친 나머지 주저앉아 자기도 모르게 통곡하고 있으려니 어디서 갈매기 떼들이 아래위로 날고 있어 그 곳을 가보니 바닷가에 해삼이 있어 이것을 잡아 복용케 하니 자당(慈堂)의 병이 씻은 듯이 완쾌하여 이 사실이 온 마을에 퍼져 「효의 지성은 하늘로 통한다」는 말이 허언이 아니라고 칭찬이 자자하여 완도군 향당 유림(莞島郡 鄕黨 儒林)에서 효인 봉우공(奉祐公)의 효문을 현창(顯彰)하였고, 곧 이어 효자 현창비(孝子 顯彰碑)도 건립하려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오다가 지난 1968년 5월 영식(令息), 두원(斗元), 두홍(斗洪) 양씨가 선친의 효행에 대한 향당유림(鄕黨儒林)들의 유지(遺志)를 봉행코저 이곳 동삼동(東三洞) 뒷 기슭 선인(先人) 선산에 이 효자비(孝子碑)를 세웠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진실로 착하고 아름답고 엄숙한 일이라 어찌 주씨 가문의 영예에만 한하리라. 우리 고장에 이 효행비가 건립됨은 만인의 사표(師表)가 될 것이요, 귀감이 될 것이다.

* 절영지발간추진위원회, 『절영지』, 소문출판인쇄사, 1983, 247~249쪽.

[영도구 설화 8]

무덤이 없는 아치섬

아치섬은 1876년 부산항이 국제 무역항으로 개방됐던 당시만 하더라도 인가(人家)가 예닐곱 채쯤 있었다고 한다. 그 무렵에 있던 일이었다. 어느 처녀가 부모 몰래 누구와 사랑을 나누던 끝에 아이를 배고 낳자 뒷산에 암장(暗葬)해 버렸다. 그런 일이 있고부터 며칠이나 쉬지 않고 풍랑이 거세게 일어 잘 줄을 몰랐다.

그 바람에 마을 사람들은 내내 섬에 갇혔고, 마침내는 양식이 떨어지는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루하루를 고기잡이로 겨우 살아가던 섬사람들은 큰 섬 곧 절영도로 건너가서 그 날치 아니면 맞아야 겨우 며칠치 양식을 고기와 맞바꾸어 구해 먹었던 것이다.

섬사람들은 필시 무슨 까닭이 있어 풍랑이 자지 않는 것이라며 그 까닭을 캐고 들었다. 그리고 섬마을 처녀가 아이를 낳아 암매장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밖엔 동티가 날 짓을 아무도 저지른 일이 없다는 사실도 아울러 알아냈다. 아치섬 사람들은 날씨가 개자 그 아기 무덤을 비롯한 모든 무덤을 뭍으로 옮겨 묻었다. 그 뒤로 아치섬 사람들은 섬 안에 무덤을 쓰지 않게 됐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나서 과연 아치섬에 아무 탈도 없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다.

* 고신대학교 영도발전연구소, 『영도향토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2003, 471쪽.

[영도구 설화 9]

영도의 아씨당

-최영의 '여인' 제사 모시니 군마가 튼실

-장소 : 부산시 영도구 신선동

영도의 옛 이름인 절영도는 고려 말부터 군마 양육의 임시 보관지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다. 당시 나라 땅 최고의 군마 양육지는 제주도였다. 제주에서 양육된 군마는 배에 실려 절영도에 내려진 후 이곳에서 일정 기간 동안 몸 상태를 제 궤도에 올린 뒤 전국으로 옮겨졌다.

제주에서 실려 온 군마는 반드시 절영도 군마사육장의 남문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나갈 땐 서문으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인가부터 남문으로 들어온 건강한 군마가 서문으로 나갈 때쯤 거의가 병이 들어 죽거나 죽기 직전의 상태로 변하기 시작했다. 해서, 군마 책임자인 부산진참사는 말못할 고민에 잠겨 급기야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수심이 깊어갔다.

사정이 이쯤 되자 절영도에는 '선녀가 늙은 하인 두 사람을 데리고 섬에 들어오는 것을 본 사람은 있으나 나가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도 이 같은 군마의 병사(病死)가 끊이질 않자 섬에서는 '혹 그 선녀와 하인들의 소행이 아닐까?'하는 여론이 팽배해졌다.

그로부터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 정발 장군이 부산진첨사로 재직할 때였다. 어느 날 밤 장군의 꿈속에 한 선녀가 나타나 장탄식을 하며 이렇게 읍소했다.

"이 몸은 칠원성군(七元星君)으로 옥황상제로부터 벌을 받아 천상에 있지 못하고 축출 당해 탐라국 여왕이 되었사옵니다. 이후 저는 탱자나무를 심어 인력으로는 도저히 함락시키지 못할 백년대계의 견고한 성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고려국 최영 장군이 탐라국을 자기들의 군마 양육지로 조성하기 위해 성 주변에다 갈대를 심어 수년 동안 키운 후 불을 질러 성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역부족이라 여긴 저는 굴욕적인 화천에 응하는 동시에 최영 장군의 연인이 되었습니다. 성은 이후 군마의 양육지로 변해버렸지요. 큰일을 하시는 최영 장군은 저의 일편단심을 이해하지 못해 이 몸은 여러 해 동안 독수공방 신세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군이 신돈의 음해로 좌천, 유배되어 절영도에서 귀양살이를 한다는 풍문을 듣고 천신만고 끝에 절영도를 찾았으나 장군은 이곳에 유배된 적이 없다고 주민들이 말을 하더군요. 어느 누구한테도 의지할 데 없던 이 몸은 적막한 이곳에서 한 많은 고독한 영신(靈神)이 되었습니다. 원컨대 사당을 지어 나를 모시면 절영도의 군마도 무병 충실할 것이며, 장차 이 지역에 살게 될 주민 중 나를 모시는 자는 소원을 성취하게 될 것이옵니다."

꿈이라 하지만 내용이 너무 구구절절해 정발 장군은 간밤에 본 선녀의 꿈 이야기를 조정에 상소했다. 조정에선 즉시 동래부사 송상현에게 하명하여 아씨당(阿氏堂)이라는 제당을 짓고 1년에 두 번씩 제사를 지내라 명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고부터는 절영도의 군마가 무병

충실해졌다고 한다. 이는 절영도 군마 목장지와 아씨당에 얽힌 전설이다.

아씨당의 내력은 '시약산산제당약사'에 잘 기록돼 있다. 이에 따르면 최제우의 여동생이 동학란 때 지금은 부산기상레이더관측소가 위치한 시약산(부산 서구)으로 피란와 이곳에 당집을 짓고 살았다. 이후 최제우의 조카뻘 되는 최 씨와 그 부인인 진양 하씨가 이곳에 와서 최제우의 여동생 최씨녀를 시봉하다가 하 씨는 19세기 말엽 영도 봉래산 중턱으로 옮겨 제당을 짓고 살다가 죽었다. 이에 주민들이 그 당을 '하씨신당'이라 칭하였다.

이후 하씨신당(할매당)은 1941년에 영도공립보통학교(지금의 영도초등학교)를 세우면서 산제당을 영도구 신선동 계곡(신선동 2가 24)으로 옮겼고, 그 옆에 고씨신당(할배당)을 세웠다. 이후 고씨신당 뒤 바위 가운데 천왕장군신상(산신당)을 세웠다고 한다.

아씨당은 지금까지 영도 주민들의 태평성대와 만사형통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성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마도 부산에선 최고의 마을 신앙으로 손꼽힐 듯싶다.

*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pp.150~153.

[영도구 설화 10]

절영도의 팔준마

절영도(絶影島) 명마골(名馬谷)에는 아주 빠르게 달리는 팔준마(八駿馬)가 있었다. 후삼국 때 엄훤(嚴萱)은 이 말로 왜구의 노략질을 무찔렀는데, 이 말이 매우 빨라 '팔준마의 그림자'가 끊어져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남겼다. 그때 사람들이 절영도라 명명했다.

부산항 부두에 가로놓인 섬을 절영도(絶影島)라고 한다. 절영도 유래의 전설에 의하면 이 섬의 남단에 위치한 영도등대 입구 가운데를 명마골(名馬谷)이라고 한다. 이 골짜기는 산이 높지도 않고 골도 그리 깊지는 않으나 골짜기 가운데 작은 계곡에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가 사시사철 끊어지지 않아 겨울에도 계곡물이 얼지 않은 곳이었다.

이 골짜기에는 아주 빠르게 달리는 말 한 필이 숨어 살고 있었다. 이를 흔히 일러 팔준마(八駿馬)라 하였다 후삼국 때 엄훤(嚴萱)은 이 말을 얻어 왜구의 노략질을 무찌르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발휘하였는데, 이 말이 매우 빨라 팔준지영(八駿之影 : 팔준마의 그림자)이 끊어져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남겼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절영도라 명명했다.

《고려사》 권1을 보면, 절영도는 동평현(지금 당감동 일대) 관하에 행정기관을 둔 섬으로 말의 명산지(名産地 : 좋은 산물로 이름난 지방)이자 말을 먹이는 목마장(牧馬場)이었다.

924년(태조 7) 고려 때 견훤(後百濟)이 사자(使者 : 명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를 시켜 절영도의 명마 한 필을 왕건에게 헌납하였는데, 뒤에 절영도 명마가 들어오면 후백제가 망한

다는 참소를 듣고 후회하여, 926년경 사람을 시켜 그 말을 돌려보내달라고 청하였다. 이에 고려 태조(왕건)는 웃으면서 돌려주도록 허락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절영도는 명마의 목마장이었고 말의 빠르기가 그림자가 없을 만큼 빠르다고 하여, 절영같은 명마를 배출하는 섬이라는 뜻으로 이 목마장이 있는 섬을 절영도라 일컬었다.

절영도는 중죄인의 유배지가 되기도 하였으나, 그보다는 전국적으로도 명마의 산지로 이름이 높았다. 신라에서 조선시대까지 이곳 목마장에서 말을 기르는 데 힘써왔다. 이곳에서는 국마를 검사하는 검사장이 있었는데, 고리장(둥글게 고리 모양으로 말목을 쳐서 그 안에 말을 가두어 검사할 수 있게 한 장소, 봉래동 로타리 일대)이라 불리었던 곳이다.

1859년(철종 10) 영국 해군 군함이 부산포에 들어와 항내를 측량하고 부산포 항박도(港泊圖 : 정박지, 해협 등이 자세히 그려진 해도)를 작성했는데, 여기에 절영도는 '사슴섬(Deer Island)'으로 기록되어 유럽에 알려졌다.

그 당시 봉래산에 뛰어 놀고 있는 '노루'를 사슴으로 착각하고 '사슴섬'이라 작명하게 되었다. 이 '사슴섬'은 외국 해도(海圖)에서 계속 사용되다가 1876년 부산포가 개항됨에 따라 일본은 절영도를 '마키노시마(목도)'라고 불렀고, 광복(1945년) 이후 행정구역이 정비되면서 '절영도'를 줄여 '영도'라고 불렀다.

1881년(고종 18) 절영도진(중리 진내마을, 부산체육고 일대)이 설치되어 첨사(僉使 : 각 진영에서 수군을 거느리던 군직)가 부임할 때 두 번 울게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절영도 첨사가 부임해 섬에 들어오면 온 산에 삼림이 울창하여 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데다가, 출렁이는 파도소리가 향수에 젖게 하여 죄 없이 귀양 온 신세에 눈물을 흘렸다. 첨사가 재임을 마치고 돌아갈 때, 그 많은 수입지(收入地)를 두고 떠나는 것을 섭섭히 생각하여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다.

절영도의 어장에서 받는 어기세(漁基稅)는 첨사의 수입이 되어 본인의 집에 건어물을 보낼 수 있으며, 산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막대하였다. 어장 도리목 한 개에 1량, 건축재는 2칸 집에 5량, 3칸 집에 7량으로, 이를 바치지 않으면 볼기를 치는 형벌을 받고 그 배액을 징수하였으니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다.

*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75~77쪽.

4. 중구 설화

[중구 설화 1]

용두산의 호랑이

-겨울철 호환(虎患) 공포가 일상이던 倭 무역전초기지

-장소 : 부산시 중구 광복 · 동광 · 대청동

산의 모습이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용의 머리 부분에 해당한다 하여 명명된 용두산(龍頭山、49m)은 조선시대 땐 소나무가 울창해 송현산(松峴山)이라 불렸다. 동래부에서 소나무를 기르는 특별한 봉산(封山)이기도 했다.

1678년(숙종 4)에는 이 산을 중심으로 초량왜관이 조성돼 대일무역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곳에는 용두산의 호랑이가 수시로 나타나 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당시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보고 문서를 통해 살펴본다.

1771년(영조 47) 호랑이가 왜관의 다을 넘어 쳐들어오자 왜관 도자기 가마 위쪽에서 "호랑이가 나왔다!"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린다. 왜관에 있던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소리 나는 쪽으로 뛰어갔다. 대대적인 포획극이 연출된 것이다.

서관 쪽에 있던 무사가 호랑이와 맞닥뜨렸다. 창으로 찌르려 하자 호랑이가 피해 달아났다. 맞은편에 서 있던 수문장이 총을 한 발 쏘았다. 총을 맞은 호랑이가 순간 비틀거리더니 수문장 쪽으로 달려들 태세였다.

이때 한 무사가 뛰어들어 창으로 호랑이를 여러 차례 찔러 숨통을 끊었다. 그 무사는 이후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안개를 내뿜듯 워낙 커 오장육부에 그 기가 통하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잠시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재판가(裁判家、외교 교섭 업무) 위쪽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또 모습을 드러냈다. 무사가 총을 쏴 어깨 쪽에 명중시켰다. 그러자 호랑이는 수풀 쪽으로 도망쳤다. 기세를 울린 그 무사는 재빨리 따라가 호랑이를 발견하고 허리 쪽에 다시 한 발을 더 쏘았다. 탄환은 허리를 관통했다. 그래도 호랑이는 통사가(通事家、통역 업무) 방향으로 달아나 산 쪽으로 숨었다.

무사는 포기하지 않고 호랑이를 뒤쫓았다. 때마침 나무 이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 "호랑이가 저기 있다"고 소리를 질렀다. 무사가 호랑이를 겨누기 위해 나무 위에 오르는 순간 호랑이가 달려들어 무사의 발을 물고 늘어졌다. 무사의 비명을 들은 왜인들이 우르르 몰려가 호랑이의 콧방울에서 눈 아래쪽 부분을 칼로 찔렀는데도 호랑이는 무사의 발을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이후 머리 다리 등 몸 전체를 한꺼번에 찔리고 나서야 물고 있던 무사를 놓아 주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왜인들에게 달려들 태세였다. 이 중 체구가 육중한 가마꾼 왜인이 앞으로 나가 손도끼로 호랑이 머리를 내리쳐 넘어뜨렸다. 그제야 주위 사람들이 달려들어 호랑이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데 성공했다. 맨 처음 잡힌 호랑이는 내장을 끄집어낸 후 전신을 소금에 절였고 나머지 한 마리는 손상이 심해 가죽을 벗겨낸 다음 머리는 호두골(虎頭骨、호랑이 얼굴)로 만들었다.

왜관의 관리들은 이를 호랑이 포획상황을 상세히 적어 보고서와 함께 대마도로 보냈다. 나머지 살은 관수가(館守家、관수 숙소 겸 집무소) 뜰에서 구워 먹었다. 당시 그날은 개시(사무역 장소)가 열리던 날이었다. 해서, 조선의 관리와 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펼쳐진 대대적인 포획이어서 입에서 입을 통해 널리 퍼졌다. 특히 눈앞에서 본 사람들은 "살아 있는 호랑이를 붙잡는 장면을 처음으로 구경했다"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대마도에 전달된 보고서는 역관을 통해 동래부사에게도 전달됐다. 다음 날 동래부사는 이를 치하하는 의미로 백미 두 가마를 왜관으로 보냈다. 부상을 입은 무사에게는 '묘약'이라 하여 닭 4마리를 하사했다.

용두산의 호랑이 이야기는 '초량화집'에도 언급돼 있다. 이에 따르면 겨울철 먹이가 귀해지면 용두산 호랑이는 초량항을 건너 절영도로 이동해 목마장의 말을 잡아먹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목마장의 사동(使童)은 해안 경계를 철저하게 했지만 호랑이들은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 머리에 해조류를 모자처럼 얹고 상륙했기 때문에 호랑이를 놓친 적이 많다고 한다. 해서, 목마자장의 감목관(監牧官)은 포수를 동원해 호랑이를 잡는 것이 연례행사였다고 한다.

이와는 별도로 이런 얘기도 전해온다. 1633년 선위사(宣慰使) 이민구는 일본사신 접대를 위해 절영도 수렵에 동행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숲을 수색하며 나아가자 호랑이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울부짖으며 벼랑에서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한다.

*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169~171쪽.

[중구 설화 2]

6·25전쟁이 남긴 꿀꿀이죽

6·25 전쟁 시기, 미군들이 식사하고 버린 잔반을 모아 콩나물과 김치, 고추장 등을 넣고 다시 조리한 '꿀꿀이죽(유엔탕)'은 인기가 많았다. 꿀꿀이죽은 피난민과 부두노동자, 지게꾼들에게 최고의 영양식이었다. 꿀꿀이죽이 발전된 것이 부대찌개다.

꿀꿀이는 돼지의 애칭이고, 꿀꿀이죽은 돼지에게 먹이는 사료다. 그래서 6·25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사람이 꿀꿀이죽을 먹었다고 하면 지금 사람들은 납득을 잘 하지 못할 것이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을 비롯한 UN군은 한국에 군대를 파견하여 곳곳에 미군부대 주둔지를 조성하였다.

부산 캠프에는 연지동, 범전동 일대의 하야리아부대를 비롯하여 해운대, 수영비행장, 부산부두에 주둔한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물자들로 생존의 기반을 삼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국제시장이나 깡통시장(부평동)에는 미군 물자를 암거래하는 사람이 많았다.

특히 미군들이 식사하고 버린 잔반이 흘러나와 반출되었다. 이 잔반에서 이물질을 골라낸 후 우리 입맛에 맞게 콩나물과 김치, 고추장에 국물을 넣어 다시 조리한 음식이 '꿀꿀이죽(유엔탕)'이었다.

'꿀꿀이죽'은 저렴한 영양식으로 피난민, 부두노동자, 지게꾼에게 인기 있는 음식이었다. 도떼기시장(국제시장)을 비롯해 중앙동, 서면, 해운대 등지에 포장마차와 유사하게 솥을 걸고 '꿀꿀이죽'을 끓이는 곳이 생겨났다. 특히 피난민들이 많이 모이는 중앙동 뒷골목은 때가 되면 이 '꿀꿀이죽'을 사 먹기 위하여 포장마차 앞에 줄을 설 정도였다.

구는 사무소들 당시 중앙동에는 부산항의 하역 인부를 주·야간반 조로 편성하여 투입시키는 사무소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많이 모여들었다.

'꿀꿀이죽'도 나오는 양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늦게 오면 끼니를 굶게 되는 경우가 있어 줄을 서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꿀꿀이죽' 한 그릇 가격은 10원이었다.

꿀꿀이죽은 그 당시 최고의 영양식이었는데, 영도에 사는 한 사람이

"영양실조로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자식한테 중앙동에서 사온 꿀꿀이죽을 4-5일 동안 계속 먹였다. 꿀꿀이죽 자체가 워낙 고단백 식품이라서 그 죽을 먹고 나서부터 얼굴에 핏기도 돌고 힘을 받아 영양실조에서 벗어나 건강해졌다."

고 꿀꿀이죽 위력에 대한 경험담을 말하기도 했다.

6·25전쟁으로 인한 절박한 삶의 현장에서 탄생한 이 '꿀꿀이죽'은 한(恨) 많은 음식으로 전쟁 이후에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사람들의 외식거리가 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미군부대가 철수하여 식자재가 없어지자 '꿀꿀이죽'은 국수와 소시지, 햄, 계란, 야채 등을 섞어 물로 간을 맞추어 새롭게 탄생되었는데 이것이 '부대찌개'의 기원이다.

꿀꿀이죽은 지난날의 배고픈 시절을 달래주던 음식이자 6.25전쟁이라는 가슴 아픈 상흔이 담긴 음식문화의 역사다.

*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81~82쪽.

참 고 문 헌

고신대학교 영도발전연구소, 『영도향토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2003.

곽정식, 『이야기에 비친 선인(先人)들의 삶 - 우리 고장 부산의 전래 설화』,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0.

김의환, 『부산 지방의 지명의 유래』, 태화출판사, 1970.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2(부산광역시③ -중부산권)』, 한국학중앙연구원, 역락, 2015.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의 부산, 동구 이야기』, 부산광역시 동구청, 2016.

부산광역시 동구, 『살아있는 동구 이야기』, 부산동구청, 2016.

부산광역시 서구, 『삶과 낭만이 머무는 곳 내 사랑 서구를 되새기며』, 부산광역시 서구청, 201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부산의 역사와 문화』, 부산대학교출판부, 1998.

손진태 지음, 최인학 편역, 『조선설화집』, 민속원, 2009.

이양훈, 『숨겨진 이야기 부산』, 다인커뮤니케이션즈, 2006.

절영지발간추진위원회, 『절영지(絶影誌)』, 소문출판인쇄사, 1983.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최해군, 『부산이야기 62마당』, 도서출판 태성, 2009.

제보자 색인

ㄱ

강명순 521
강복명 256, 257, 258
강숙자 617, 618, 620, 621, 622
강옥수 642, 644, 645, 647, 648, 649
강옥자(여, 1937년생) 366, 367
강옥자(여, 1940년생) 678, 679, 680, 681
강정 742, 743
강한순 531
고순덕 591
고필전 557, 558
공길삼 255
공창해 17, 20, 21
곽효이 157
구○○ 676
권경순 532
권남희 713, 714, 715, 716, 717
권연출 92, 93, 94, 95, 96, 97, 98, 99, 100
김경자 203
김관수 176, 177
김귀엽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김금돌 158, 159
김금자(여, 1952년생) 493
김금자(여, 1935년생) 612
김기성 592, 593, 594, 595, 596, 597
김기호 598, 599
김단점 743, 744, 745
김덕득 293, 294, 295, 296, 297
김덕란 191
김두성 559, 560, 561
김락힘 367, 369, 370, 371
김막달 191, 192
김만순 348, 349
김말숙 240, 241
김명임 732, 733, 734, 735, 736, 737, 738
김무연 539
김미금 273, 274, 275
김부연 402
김삼순 241, 242
김상목 701, 702
김상윤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김성이 316
김성호 403, 404, 405, 406
김송여 3, 4, 5, 6, 7
김수미 522
김순녀 427, 428
김순덕 690, 691, 693, 695, 696, 697, 698, 699, 700
김순이 133
김순자(여, 1942년생) 222, 223, 224, 225, 226
김순자(여, 1937년생) 297, 302, 303, 304
김순자(여, 1936년생) 522, 523, 524
김순희 283
김애신 202
김애자 623, 624, 625
김양자 109, 110
김영자 202, 204, 205, 206, 207, 208

김옥년 112
김옥련(여, 1947년생) 30, 31
김옥련(여, 80세) 718
김우열 268, 269
김원순 349, 350
김월숙 32, 33, 34, 35, 36, 37, 38
김은순 631
김인자 687, 688, 689
김임덕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김정년 113, 114, 115, 116, 117
김정선 533, 534
김정임 499
김정자(여, 1941년생) 276
김정자(여, 1939년생) 454
김정자(여, 1940년생) 650, 651, 652, 653, 654, 655,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김종순 719
김종실 641
김종태 720
김창자 534, 535, 536, 537, 538, 539
김춘자(여, 1936년생) 159
김춘자(여, 1940년생) 520
김태옥 39, 40
김필안 313, 314
김필지 524, 525
김하선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김하자 385
김한기 261, 262, 263, 264, 265
김현덕 237, 238
김현악 499
김흥순 214, 215, 217, 220

ㄴ

남○○ 676, 677
남복두이 119, 120
남성연 126
남순희 703
남옥순 428, 429, 432
남임순 209, 210, 211, 212

ㅁ

문말순 529, 530
문태순 255
미상 72, 243

ㅂ

박갑선 600
박금화 721, 726, 728
박노순 722, 729
박덕선 518
박말연 430, 431
박명석 317, 318
박부자 562
박상원 442, 443
박서분 60, 61, 62, 63
박수철 468
박수화 7, 8, 9
박순화 481, 482, 483, 485, 486
박씨 423
박옥연 393, 394, 395
박윤금 387, 388
박은순 213, 214, 216, 219

박일순 407
박임화 632
박정순 146
박정옥 463, 464, 465, 466, 467
박종묵 738
박진숙 169, 170
박춘자 147
박필선 723, 730
배순선 337
배용남 469, 470, 471, 472, 473, 475, 476, 478, 479
배종순 454, 455, 456, 457
배태순 580, 581, 582, 583, 584, 589
백금열 436, 437
백종교 43, 44, 45, 46, 47, 48, 49

ㅅ

서경자 670
서순분 72, 73, 74, 75, 76
서정수 290, 291, 292
서춘화 487, 488
설금자 601, 602, 603
손순남 739
손재옥 545, 546, 547
송봉선 265, 266
송태원 270, 271
송필순 318, 319, 320, 321, 322
송호범 527, 528
송화자 626, 627, 628, 629, 630
신경애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신무정 489, 490, 491, 492
신문임 519
신소숙 642
신영순 283, 284, 285, 286, 287

ㅇ

안말란 338
안임선 345, 347, 348
안정순 548, 549, 550
안태임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3, 144, 145
안현수 10
연무웅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6, 187, 188, 189, 190
염화자 258, 259
오숙자 396, 397
원야자 64, 66, 67
유경순 110, 111
유을순 68, 69, 70, 71
유충희 145
윤갑술 550, 551, 552, 553
윤명옥 247
윤복남 52, 53
윤봉림 425, 426, 427
윤상기 458, 459
윤성균 272, 273
윤순식 267
윤순옥 607, 608
윤영옥 724
윤옥춘 604, 605, 606
윤진연 227
윤희수 10
이강수 671
이공자 613, 614, 615
이규택 71

이기옥 91
이두녀 248, 249, 251, 252, 253
이문자 562, 563
이복이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이석영 123, 124, 125
이성도 239, 240
이소순 672, 673
이순선 218, 220, 222
이순심 500
이순옥 674, 675
이순이 125
이순희 77
이시우 381, 383, 384
이영자(여, 1938년생) 78, 79, 80, 81
이영자(여, 1954년생) 305, 306
이옥순 41, 42, 43
이용희 432, 433, 434, 435
이원규 493
이은자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이을순 564, 565, 566
이을출 287, 288
이인석 288
이점이 170, 171, 172, 173
이정기 423, 424, 425
이정복 324
이정숙 609
이정순 540, 541, 542, 543, 544
이정자 553, 554, 555
이종옥 23, 24, 25, 26, 27, 28
이종학 54, 55, 56, 57, 58, 59
이중선 215, 216, 219
이찬희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이춘엽 690
이충림 530
이쾌희 83, 84, 85, 86, 87, 88, 89, 90
이태숙 254
이판돌 703, 704
이필난 359, 360, 361
이화자 585, 586, 587, 588
이환옥 725
임경옥 398, 399, 400
임두순 93
임순화 710

ㅈ

장경렬 530
장광자 556
장두호 479, 480
장명순 256
장숙자 444,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장용자 740
장일애 157
장지자 306, 307, 309
장춘옥 265, 267, 268
전경묘 126, 127
전명옥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전삼순 245, 246
전영조 681, 682, 683, 684
정근순 400
정금지 436, 437, 438, 439, 440
정동민 615, 616
정수자 174, 175, 176

정완동 29
정점순 460, 461, 462
정정순 289
정정옥 5
정정자 292
정쾌필 111
조순희 82
조정임 362
조학임 665, 666, 667
조현순 705, 706, 707, 708, 709
주또연 338, 339, 340, 341, 342, 343
주순이 91
지복심 160
지분님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ㅊ

차순덕 11, 12, 13, 15
최계선 501,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4, 516, 517
최두남 588, 589, 590
최명덕 685, 686, 687
최명자 160, 161, 162
최복실 417, 419
최분자 234, 235, 236
최시호 29
최영자 362, 363, 364
최정남 388, 389, 390, 391
최정숙 277, 278, 279, 280, 281, 282
최정심 421
최화자 82
추수연 259, 260

ㅌ

탁경숙 120, 121, 122
탁덕례 417

ㅍ

표기학 479, 480
표말손 127, 128, 129, 130, 131, 132

ㅎ

한상경 617
한상아 494, 496, 497, 498
한숙자 579
한종수 200
허분이 344
허정숙 668, 669
현수만 421, 422
홍성욱 633
황봉심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황소임 365
황순란 609, 610, 611

설화 제목 색인

ㄱ

가난 12, 98, 248
가덕도 415
가묘(假墓) 303
가재 229
각시 416
갈가지 728
감 16, 161
강 266
강원도 261
강피 60, 72, 85, 90, 95, 103, 119, 136, 158, 171, 191, 202, 216, 236, 248, 267, 277, 283, 290, 313, 323, 352, 370, 387, 416, 432, 436, 463, 473, 492, 504, 540, 553, 572, 595, 634, 691, 705, 739
개 39, 64, 87, 97, 107, 120, 138, 192, 265, 321, 352, 516, 558, 591, 606, 612, 628, 633, 678, 684, 725
개가 697
개과천선 12
개구리 99
개똥 24, 72, 115, 135, 339, 481, 621, 664, 674, 690
개미 398
개장국 419
객귀 421, 550
거머리 678
거미줄 261
거북섬 416
거북이 416
거제 732
거짓말 111, 175, 261, 581
걱정 124, 184, 249, 259, 287, 604, 648
겁탈 364
게 153, 350, 411, 431, 574
견우 265
결혼 472, 595
경주 최씨 424
계룡산 177
고갈산 357, 427
고구마 383,490
고기 297,
고동 각시 661
고려장 3, 7,10, 23, 29, 43, 54, 60, 66, 73, 78, 83, 94, 100, 109, 112, 113, 127, 137, 147, 158, 160, 176, 184, 193, 202, 216, 223, 228, 237, 243, 249, 256, 259, 261, 268, 284, 287, 289, 291, 302, 314, 319, 340, 358, 371, 377, 397, 407, 426, 430, 432, 451, 463, 471, 479, 480, 481, 489, 501, 528, 532, 533, 535, 539, 545, 553, 561, 569, 580, 585, 598, 604, 608, 612, 617, 631, 663, 665, 671, 676, 681, 685, 687, 691, 693, 702, 705
고부 148
고성 573
고수레 27
고양이 157, 321, 579
고인 42

곡소리 282
공 176
공부 9
곶감 26, 41, 71, 76, 93, 110, 122, 123, 133, 146, 147, 172, 200, 209, 214, 235, 240, 241, 260, 271, 282, 317, 326, 361, 369, 388, 403, 431, 437, 454, 464, 488, 493, 509, 519, 524, 529, 544, 546, 556, 558, 559, 562, 593, 607, 616, 642, 652, 666,675, 710, 736, 743
과거 328
과부 238, 693
구덩이 628
구두쇠 316, 455, 605
구렁덩덩 444
구렁이 55, 68, 70, 131, 132, 150, 155, 171, 192, 214, 234, 249, 281, 293, 347, 360, 400, 536, 560, 581, 582, 625
구멍 6, 46, 93, 125, 197, 465, 470, 575, 628
구별 247
구비 562
구슬 411
구실 348
구천동 177
국 269
군인 306
굴 120
굿 417, 677
귀머거리 145
귀신 57, 63, 75, 126, 130, 143, 162, 189, 211, 225, 272, 288, 302, 324, 338, 344, 357, 376, 443, 514, 684, 729
그릇 14
그림 695
극락 37
글공부 258, 270
금강산 738
금도끼 637
기름종이 364
기분 306
길 170, 173, 199, 549
까닭 86, 98, 99, 183, 254, 379, 576
까마귀 128, 238, 641
까치 462, 641, 655, 744
깔따구 77
깡깡이마을 406
꼬마신랑 345
꼬부랑 124, 256, 494, 566
꿀꿀이죽 768
꿈 188, 318
꿩 168
꿩알 205

ㄴ

나무꾼 48, 58, 151, 164, 450, 453, 587, 595, 635
나병 660
나이 356
나팔수 431
난봉 467
날짐승 148
남 221, 296
남근 348, 356, 364
남동생 170, 568

남매 190, 579
남자 80, 364, 440
남편 76, 102, 171, 187, 258, 328, 539, 570, 615, 660, 683
남해 329
낭패 570
내력 3, 7, 10, 23, 29, 32, 43, 54, 60, 66, 73, 78, 83, 94, 100, 109, 113, 127, 137, 147, 158, 160, 176, 184, 193, 202, 216, 223, 228, 237, 243, 248, 255, 256, 261, 268, 284, 289, 291, 302, 314, 319, 335, 340, 358, 371, 377, 380, 397, 407, 426, 432, 451, 463, 471, 479, 480, 481, 489, 501, 528, 532, 533, 535, 539, 545, 553, 561, 569, 580, 585, 598, 608, 612, 617, 631, 663, 665, 671, 681, 685, 687, 691, 693, 702, 705
냄새 73, 734
넝마주이 600
노고단할매 464
노고할머니 740
노래 168, 437, 503, 573
노루 292
노름 13
노부부 649
논고동 47
놀부 640
높임말 4, 84, 114, 278, 504, 556, 590, 699
누나 568
누이 170
눈 230, 582
느티나무 627
늑대 676

ㄷ

다듬잇돌 261
다리 76, 190, 266
단칸방 74, 75, 149, 169, 173, 337, 354, 355, 356, 363, 508, 523, 531, 538, 609, 621, 622, 648
달 30, 117, 163, 194, 243
달래강 170, 220, 235, 589
담뱃대 166
담뱃불 735
당산 330
당산나무 260, 378
대 222, 442
대관령 562
대동강 180
대문 708
대바지 마을 68
대산면 592
대성사 330
대적 375
대접 64,424
대처법 521
대평동 405, 406
대홍수 479, 751
대화 155, 337
대화법 157, 219, 271
도깨비 4, 5, 35, 55, 61, 69, 71, 105, 126, 127, 133, 144, 149, 159, 160, 161, 165, 166, 174, 194, 209, 217, 227, 228, 241, 255, 257, 258, 262, 270, 273, 274, 294, 302, 322, 341, 344, 359, 360, 371, 375, 381, 393, 396, 400, 402, 423, 434, 459, 465,

467, 482, 489, 497, 499, 510, 511, 540, 546, 552, 554, 591, 603, 606, 619, 623, 629, 630, 668, 673, 686, 688, 701, 702, 704, 706, 716, 718, 719, 721, 722, 723, 724, 725
도깨비굴 494
도깨비배 403
도깨비불 62, 104, 166, 344, 400, 404, 423, 427, 456, 496, 562, 566, 588, 591, 603, 606, 618, 629, 630, 667, 682, 743
도둑 12, 175, 220, 570, 579, 662
도둑질 307, 575
도망 26, 41, 71, 76 82, 93, 107, 110, 122, 133, 146, 147, 166, 172, 200, 209, 240, 241, 260, 271, 282, 326, 361, 369, 388, 403, 431, 437, 454, 464, 488, 493, 509, 510, 519, 524, 529, 544, 546, 556, 557, 559, 562, 593, 607, 616, 642, 652, 666, 671, 675, 710, 720, 743
도움 714
독 33, 150
돈 581
돌 728
동냥 395, 567
동네 452
동래 정씨 182, 326
동래부사 106
동방삭 86, 183, 379, 576, 589
동자 411
동티 378
두꺼비 27, 150, 343, 475
뒷바라지 171
등 95
등천 187
따귀 150
딸 5, 17, 20, 69, 88, 111, 121, 140, 205, 232, 330, 334, 390, 476, 483, 527, 541, 573, 595, 653, 696
땅꾼 333
떡 159, 255, 276, 396, 519, 586, 607, 686
떡 장사 447, 460, 557, 607
띠섬 737

ㅁ

마음 170, 399, 596
말 31, 42, 73, 145, 175, 206, 207, 233, 320, 335, 353, 354, 377, 389, 439, 440, 503, 514, 581, 602
말 피 434
망부석 6
망신 169
매미 739
매장 385
머리 195
머리카락 37
머슴 14
메밀꽃 734
메밀밭 734
멥쌀 614
멥쌀밥 40
며느리 3, 4, 8, 11, 23, 24, 31, 32, 44, 45, 56, 59, 72, 81, 84, 91, 94, 101, 102, 109, 111, 113, 114, 115, 119, 123, 134, 161, 167,

168, 169, 195, 198, 204, 215, 226, 236. 240, 242, 246, 248, 254, 267, 268, 278, 281, 283, 286, 288, 289, 292, 295, 307, 308, 316, 317, 318, 320, 327, 329, 339, 345, 359, 366, 388, 391, 394, 395, 408, 427, 428, 430, 455, 461, 466, 468, 485, 486, 487, 493, 500, 504, 505, 520, 522, 529, 533, 534, 535, 541, 543, 544, 551, 554, 556, 566, 569, 575, 577, 580, 586, 590, 598, 599, 601, 602, 610, 616, 617, 621, 632, 634, 639, 641, 642, 650, 657, 664, 669, 670, 674, 678, 682, 683, 687, 689, 690, 699, 706, 707, 736
명당 21, 179, 238, 326
명당자리 29, 424
명약 753
목 594, 609
몸 187, 422
몸종 279
몽당빗자루 667
묏자리 20, 296, 373, 527
묘 58, 231, 254, 296, 374, 419, 424, 552
무당 517
무덤 27, 763
무학대사 179
문둥병 49
문둥이 36
문어 77
문칠네복 473
물 180
미꾸라지 175, 220
미나리 678
미륵불 525
밀가루 547, 672
밑 372

ㅂ

바꿔치기 17
바느질 602
바다 677
바람 588
바람기 434, 571
바리데기 56, 226, 448
바보 282
바위 34, 242, 247, 327, 415
박문수 514, 536
박제상 6
반성 9, 64
받침 156, 203, 369, 461
발 380, 507
밤 104
밤길 716
밥 343
방 79
방귀 24, 45, 56, 73, 92, 102, 109, 161, 167, 195, 204, 226, 267, 278, 359, 487, 500, 520, 522, 533, 534, 541, 544, 554, 566, 580, 599, 634, 641, 644, 650, 669, 682, 689
방귀소리 345
방아 668
배 111
배꼽 362
배웅 347

배필 165
백여우 476
뱀 37, 74, 139, 191, 192, 205, 225, 231, 333, 341, 351, 380, 537, 582, 601, 605
버드나무 96
버릇 13, 575, 683
버섯 128
번개 751
벌 285, 351, 558, 582
범인 157
법 165, 247
벙어리 113, 145, 157, 219, 271
벼락 751
변신 275
병 399, 452
보리 253
보리밭 36
보리암 329
보리타작 156, 437, 573, 700
보은 27
보호 275
복 38, 53, 57, 473, 534
복수 198
본처 73, 613
봄나물 337
봉래산 602, 738
봉변 418
봉사 145, 157, 219, 271, 434, 521
봉양 3, 8, 23, 24, 32, 44, 72, 81, 84, 91, 94, 101, 111, 115, 123, 134, 198, 215, 236, 240, 242, 254, 268, 281, 283, 286, 289, 292, 295, 318, 327, 339, 366, 388, 394, 408, 427, 428, 430, 451, 455, 466, 468, 486, 493, 505, 520, 529, 534, 535, 543, 569, 586, 598, 601, 610, 616, 617, 621, 632, 639, 642, 657, 664, 669, 674, 687, 689, 690, 699, 707
봉이 김선달 180
부모 182, 184, 232, 249, 259, 265, 287, 320, 339, 604, 659
부부 146, 155, 157, 196, 219, 271, 414, 570, 579
부엌 579
부인 60, 72, 76, 85, 90, 95, 102, 103, 119, 136, 158, 171, 187, 191, 202, 216, 236, 258, 267, 277, 283, 290, 313, 323, 328, 352, 367, 370, 387, 416, 432, 436, 442, 463, 467, 473, 492, 504, 539, 540, 553, 570, 572, 595, 615, 634, 660, 691, 705, 722, 739
부자 27, 115, 144, 161, 297, 343, 373, 443, 469, 511, 639, 714
부처님 334
불 57, 63, 75, 126, 130, 162, 211, 344, 648
비 55
비녀 594, 609
비밀 148
빈대 247
빗자루 4, 35, 55, 72, 105, 126, 127, 133, 149, 159, 160, 174, 194, 217, 227, 241, 255, 258, 262, 270, 302, 341, 371, 375, 402, 554, 603, 718
빚 521
뼈 660
뽕나무 429

ㅅ

사또 153
사람 4, 11, 25, 27, 33, 38, 46, 61, 69, 74, 105, 116, 128, 135, 144, 145, 156, 161, 165, 174, 179, 187, 188, 209, 213, 221, 228, 239, 244, 245, 252, 257, 266, 270, 272, 273, 274, 294, 302, 322, 340, 342, 343, 350, 351, 359, 360, 377, 379, 381, 389, 400, 411, 417, 419, 423, 424, 429, 456, 459, 465, 467, 473, 478, 481, 482, 489, 494, 497, 499, 503, 511, 517, 523, 525, 540, 546, 548, 552, 589, 591, 594, 597, 599, 603, 605, 606, 609, 611, 619, 623, 624, 625, 626, 627, 630, 638, 639, 648, 660, 673, 680, 686, 688, 700, 701, 703, 704, 706, 716, 717, 718, 721, 722, 723, 724, 725, 726
사랑 74, 75, 125, 149, 169, 173, 337, 354, 355, 356, 363, 508, 523, 531, 538, 609, 621, 622, 648, 649
사량도 330
사리암 120, 197
사카린 391
산 730
산비둘기 478
산삼 217
산삼동자 181, 319, 451, 658
산소 181
산신 602
산신령 275, 714
산제당 464, 478
산짐승 719
산초 328
삼기(三忌) 758
삼년상 37
삼천갑자 86, 183, 379, 576, 589
상객 200
상사바위 219, 249, 329
상사뱀 139, 388, 458, 574
상사병 139, 248, 389
새 329, 551
새끼 140, 172, 210, 247, 362, 372, 410, 425, 438, 462, 488, 613
생명 745
생부 599, 638
생산 490
생선 268
생섬(鍮盆島) 757
생일 195
서방 279
석굴암 6
선녀 48, 58, 150, 164, 450, 453, 587, 635
선비 9, 12, 258
성씨 579
성주신 335
세상 399, 551
세상구경 39, 64, 87, 97, 107, 138, 205, 214, 265, 321, 352, 516, 560, 606, 612, 633, 678
소 33, 247, 376
소 피 393
소금 575
소나무 183
소도둑 128
소리 128, 156, 238, 437, 478, 573, 647, 668, 700

소막걸 380
소박 102, 571
소쩍새 453, 706
손 262, 269
손님 139, 207, 234, 325, 413, 424, 576, 647, 651
손자 285, 548
손해 377
솔방울 726
솔섬 573
수수밥 414
수숫대 194, 559, 564, 594
수양대군 183
술 628
스님 229, 567, 568, 574
승천 577, 736
시골 17
시댁 168
시샘 440
시신 76, 259, 496, 703
시아버지 20, 102, 320, 395, 575, 577, 664, 736
시어머니 3, 8, 11, 23, 24, 32, 44, 55, 59, 68, 72, 81, 84, 91, 94, 101, 102, 111, 115, 123, 131, 134, 146, 192, 196, 198, 215, 236, 240, 242, 246, 254, 268, 269, 281, 283, 286, 288, 289, 292, 295, 316, 318, 327, 339, 366, 388, 391, 394, 408, 427, 428, 430, 451, 452, 455, 466, 468, 486, 493, 505, 520, 529, 534, 535, 539, 543, 551, 569, 586, 598, 601, 610, 616, 617, 621, 632, 639, 642, 657, 664, 669, 670, 674, 683, 687, 689, 690, 699, 707
시주 469
시집 111, 307, 308, 634
시집살이 145
식구 347, 442
신도 154
신랑 16, 17, 49, 282
신발 491
신부 49, 571, 644
신선부 444
신식 151, 570
신호 125
신혼부부 558
실뱀 455
실수 200
심봉사 636
심술 679
심청이 636
심판 80
쌀 6, 34, 46, 93, 120, 125, 129, 197, 232, 242, 247, 327, 415, 465, 470
쌀독 55, 68, 131
쌀바위 470
쌍둥이 695
쑥국 601
쑥즙 391
쓸모 650
씨름 145, 165, 274, 294, 359, 497, 499, 540, 673, 686, 688, 702, 716, 723

ㅇ

아기 305, 452

아기장수 224, 415
아내 434
아들 13, 17, 39, 64, 97, 87, 107, 138, 146, 150, 196, 205, 214, 225, 265, 285, 288, 321, 352, 385, 409, 440, 516, 560, 568, 606, 612, 613, 614, 635, 644, 662, 678, 697, 713, 729
아랑 457
아리랑고개 761
아미동 324, 330, 384
아버지 56, 64, 67, 69, 79, 121, 205, 262, 270, 280, 330, 448, 573, 611, 614, 654, 713
아사녀 449
아사달 449
아씨당 763
아이 7, 47, 59, 63, 70, 71, 76, 79, 82, 89, 104, 108, 117, 121, 135, 152, 162, 197, 199, 208, 212, 218, 222, 227, 231, 250, 263, 266, 275, 306, 319, 320, 341, 347, 366, 391, 397, 407, 421, 426, 450, 455, 457, 514, 518, 565, 582, 600, 605, 633, 636, 667, 681, 698, 745
아치섬 740, 763
안내 170, 173, 199, 549, 716
앉은뱅이 417
암자 6, 34, 46
앙숙 357
애기장 518
애장터 62, 306, 591, 603, 618
애환 761
약 56
양반 309
양밥 157, 175, 220, 579
양식 424
어머니 13, 30, 39, 41, 64, 87, 97, 107, 117, 124, 138, 205, 214, 276, 321, 352, 428, 516, 560, 581, 606, 607, 612, 633, 678, 697
어미 247
어부 443, 755
얼굴 109
엄마 657, 662
에밀레종 7, 47, 59, 70, 76, 79, 82, 89, 108, 117, 121, 135, 152, 162, 197, 208, 212, 221, 227, 250, 263, 266, 319, 347, 366, 391, 397, 407, 421, 426, 450, 455, 457, 565, 605, 633, 636, 667, 698
여동생 565, 596
여우 31, 35, 58, 88, 140, 239, 407, 411, 429, 483, 541, 696, 730
여인 47, 714, 734
여자 26, 80, 82, 96, 107, 145, 153, 218, 229, 253, 341, 350, 364, 372, 411, 431, 491, 510, 557, 567, 571, 574, 647, 671, 737
연인 574
영감 596
영도 152, 178, 383, 404, 425, 468, 480, 478, 480, 498, 602, 763
영도할매 350, 365, 383, 402, 404, 464, 468, 480, 492, 506, 527, 530, 555
영동제 588
영동할매 52, 132, 349, 350, 365, 435, 578, 588
영정사진 703

영험 52, 578
옆 181
옛날식 151
오가피나무 422
오남매 243
오누이 30, 117, 163, 194, 243
오리고기 583
오빠 565, 596
오인 489
오줌 605
오해 113, 119, 128, 367
옥녀바위 121
옥수수 222
옥좌수 732
완월동 380
왕 179
왕십리 186
외출 306
요석공주 448
욕 250, 320
욕심 348, 364, 382, 349, 399, 401, 434, 484, 505, 526, 529, 554, 738
욕쟁이 317
욕정 568
용녀 755
용두산 767
용심 132
우렁각시 47, 416, 446, 472, 637
우물 303
우암동 384
우애 143
우환 333, 525
운명 626
운문사 46, 197
울산바위 738
울음 681
원망 662
원수 192, 225, 231
원효대사 448
유분도(鍮盆島) 757
유래 68, 121, 177, 186, 204, 309, 349, 357, 384, 405, 422, 453, 478, 563, 573, 651, 652
유래담 579
유언 42
은도끼 637
은밀 148
은혜 99, 292, 462, 475, 655, 744
음부 26, 82, 107, 153, 229, 350, 362, 411, 431, 510, 574, 605, 671
의구총(義狗冢) 120
이몽룡 592
이사 178
이승 266, 385
이유 37, 95, 145, 152, 181, 194, 222, 230, 234, 269, 347, 414, 498, 559, 564, 583, 589, 594
이장 374
이전 231, 419
이정현공 752
익모초 119
인 423
인도 449
인류 749, 751
인색 395
인신 677
인연 414, 732
일 628, 634, 676
일기 308
일산배기마을 490, 760

일자 347
임신 583
입 574, 720
입방정 577, 736, 737
잉어 266
6·25전쟁 768

ㅈ

자기 140, 165, 172, 210, 262, 362, 372, 410, 425, 438, 452, 462, 488, 613
자리 21, 179, 238
자린고비 40, 53, 110, 287
자매 695
자살 644
자식 124, 182, 184, 249, 259, 287, 478, 604, 659
자신 391, 565
잔치 195
잘못 293, 373
장가 297, 733
장사 396, 491, 507
장사(壯士)바위 760
장사바위 491, 507, 592, 760
장자못 471
재앙 260
재치기 169
재판 37
저녁 297
저승 11, 25, 37, 46, 116, 213, 244, 266, 294, 343, 417, 456, 499, 523, 525, 548, 589, 615, 624, 638, 680, 703
저승사자 80
전처 478
절 154, 247
절영도 405, 422, 765
절터 247
정묘 182
정묘사 29, 326
정성 37, 115, 211, 260, 367, 433, 614
정승 17, 595, 683
정이품 183
제 303
제물 676
제사 37, 67, 115, 205, 211, 367
제사떡 548
제삿날 40, 129, 130, 143, 189, 225, 272, 288, 338, 357, 376, 614, 684, 708
제삿밥 28, 106, 115, 221, 251, 264, 304, 433, 536, 542, 547, 596, 599, 638, 679, 709
제상 419
제주도 537
제한 38
조내기고구마 490
조상 40, 115, 264, 419, 547
조상 묘 374, 419
조심 428
조치원 357
조카 394
존댓말 699
좀드리 232
주인 120, 192, 279, 293, 352, 591
주인집 745
주전자섬 758
죽 14, 253
죽음 128
중국 254

쥐 597
지네 537
지네장터 475
지렁이국 3, 8, 11, 23, 32, 44, 59, 81, 84, 91, 94, 101, 111, 123, 134, 198, 215, 236, 240, 242, 246, 254, 268, 281, 283, 286, 289, 292, 295, 318, 327, 339, 366, 388, 394, 408, 427, 428, 430, 451, 455, 466, 468, 486, 493, 505, 520, 529, 534, 535, 543, 569, 586, 598, 610, 616, 617, 632, 639, 642, 657, 669, 674, 687, 689, 699, 707
지명 405
지붕 364
지킴이 191, 230, 373
직녀 265
진사 17
진주 40, 110, 287, 469
진주낭군 467
질경이기름 57, 63, 75, 126, 130, 162, 211, 344
짐승 389
집 42, 115, 176, 192, 207, 221, 234, 331, 333, 343, 374, 413, 576, 595, 614, 647, 651, 719
집안 88, 139, 140, 148, 191, 231, 295, 325, 333, 696
집지킴이 70, 132, 133, 155, 171, 281, 293, 331, 347, 625
찔레꽃 654

ㅊ

착각 429
참기름 269
창원 592
처녀 217, 305, 407, 458, 536, 537
처녀바위 305
처자 732
천마산 349, 357
천벌 339
철 16, 41, 345
첩 73, 439, 442
첫날밤 571
청개구리 41, 99
청년 584
청도 46, 120
체 547
초장동 380
초하루 253
총각 139, 249, 297, 306, 472
춘향 592
충견(忠犬) 745
충청도 31, 42
치매 611
치성 494
친구 144, 161, 188, 511, 722
친정 527
친정아버지 20

ㅋ

칼바위 592
코끼리 398
콩나물죽 639

콩쥐 233, 640
큰물 455

ㅌ

태종대 758
택시기사 130, 143, 189, 225, 272, 288, 338, 357, 375, 684
터 29
턱 396

ㅍ

파괴 525
팔공산 34
팔자 14, 60, 72, 85, 90, 95, 96, 103, 119, 136, 158, 191, 202, 216, 236, 253, 267, 277, 283, 290, 313, 323, 352, 370, 387, 416, 432, 436, 463, 473, 492, 504, 540, 553, 572, 595, 634, 691, 705
팔준마 765
팥죽 706
팥쥐 233, 640
편지 156, 203, 369, 461, 695
페백 644
표식 614
풀국 478
풍속 585, 676
풍수 411
피난 347

ㅎ

하꼬방 364
하늘 429
하부자 469
학 595
한 동네 452
한밤 165
할매 357
할머니 95, 230, 259, 275, 297, 396, 447, 460, 510, 521, 557, 582, 586, 605, 625, 653, 738
할미꽃 453, 563, 652
할아버지 348, 521, 719
함안 조씨 309
합격 328
합방 146, 232
항문 647
해 30, 117, 163, 194, 243, 294
해몽 318, 645
행복 98
허심청 132
허황후 449
헛것 491
혀 156, 205, 206, 207, 233, 335, 353, 437, 439, 440, 503, 573, 700
현몽 42, 708
혈 177
협박 398
형수 67
형제 143
형체 402
호랑이 26, 41, 71, 76, 82, 93, 107, 110, 122, 123, 133, 140, 146, 147,

170, 172, 173, 176, 199, 200, 209, 210, 214, 230, 235, 240, 241, 243, 245, 260, 271, 275, 282, 317, 326, 341, 361, 362, 369, 372, 376, 388, 396, 403, 410, 425, 431, 437, 438, 447, 454, 460, 462, 464, 488, 493, 509, 510, 519, 524, 529, 544, 546, 549, 556, 557, 558, 559, 562, 593, 594, 607, 609, 613, 616, 642, 652, 657, 666, 671, 675, 681, 684, 710, 716, 720, 725, 726, 735, 736, 743, 767
호루라기 264, 647
호박 390
호식 30, 117, 163, 276, 584, 586
호환 77
혼 187, 597, 625, 683
혼령 28, 67, 251, 304, 536, 542, 547, 614, 672, 679, 708, 709, 752
혼불 128, 624
혼인 17, 49
홀대 196
홀어미 190
홍진 518
화 42, 340, 358
화장실 165
화장터 384
환생 39, 40, 55, 64, 68, 87, 97, 106, 107, 115, 129, 138, 192, 199, 205, 214, 234, 264, 265, 321, 352, 516, 547, 560, 606, 612, 614, 633, 672, 678
효부 77, 451, 452, 716
효자 182, 262, 320, 409, 428, 429, 659, 762
효자 현창비(孝子顯彰碑) 762
후처 613
후회 99
훼손 478
흉년 253
흘레질 558
흙 35
흥부 640
힘 24, 45, 56, 161, 167, 195, 204, 226, 267, 278, 359, 487, 500, 520, 522, 533, 541, 544, 554, 566, 580, 599, 634, 641, 644, 669, 682, 689

■ **편저자**(현장조사 책임 · 교열 · 주석) **소개**

• **박경수**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문학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문학박사)을 졸업했다. 현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교수, 한국문학회, 한국민요학회 회장 역임. 이주홍문학상(2005), 부산시문화상(2017) 수상.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 주요 저서로 『한국 근대문학의 정신사론』(1993), 『한국 근대 민요시 연구』(1998), 『한국 민요의 유형과 성격』(1998), 『한국 현대시의 정체성 탐구』(2000), 『아동문학의 도전과 지역 맥락』(2010), 『현대시의 고전텍스트 수용과 변용』(2011) 외 여럿, 편저로 『부산민요집성』(2002),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16~18 -경상남도 함양군 편』,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0~22 -부산광역시 편』,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4~26 -경상남도 남해군 편』,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7~28 -경상남도 산청군 편』(2014~19) 외 여럿.

• **황경숙**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산대학교 대학원(문학석사, 문학박사)을 졸업했다. 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 시사편찬위원. 플랜비 문화예술 협동조합 이사. 주요 저서로 『한국의 벽사의례와 연희문화』(2000), 『부산의 민속문화』(2003), 『낙동강 하구 재첩마을과 재첩잡이』(2020) 등 여럿. 편저로 『부산민요집성』(2002),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산성마을 사람들』(2014), 『6 · 25 피란민의 자전기록 -부산의 기억과 삶』(2016),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16~18 -경상남도 함양군 편』(2014) 외 여럿.

■ **조사보조원**(현장조사 보조 · 채록, 자료 타이핑 등, 2019~2020년)

• 2019년 : 김다련, 김대희, 김수비, 김재희, 김은진, 김태희(이상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재학)
• 2020년 : 김대희, 김재희, 노경림, 유주희(이상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재학)

■ **조사팀 별 조사지역**

• 조사1팀(박경수 팀)
- 동구(2020년 조사) : 범천1-2, 5동, 수정5동, 좌천동(5개 동)
- 서구(2020년 조사) : 동대신동1-3동, 부민동, 서대신동1, 3-4동(7개 동)
- 영도구(2019년 조사) : 봉래1-2동, 신선동, 영선1-2동(5개 동)

- 중구(2019년 조사) : 대청동, 동광동, 영주1-2동, 중앙동(5개 동)

• 조사2팀(황경숙 팀)

- 동구(2020년 조사) : 수정1-2, 4동, 초량1-3, 6동(7개 동)
- 서구(2020년 조사) : 남부민1-2동, 아미동, 암남동, 초장동, 충무동(6개 동)
- 영도구(2019년 조사) : 남항동, 동삼1-3동, 청학1-2동(6개 동)
- 중구(2019년 조사) : 광복동, 남포동, 보수동, 부평동(4개 동)

■ **시사편찬위원회(2018. 4. 3. ~ 2021. 4. 2.)**

위 원 장 : 강대민(경성대)
부위원장 : 김동철(부산대)
위원(가나다순)

권영오(대저중)	김강식(한국해양대)	김대래(신라대)	김인호(동의대)
박경수(부산외대)	박재욱(신라대)	박창희(스토리랩 수작)	박화진(부경대)
백승충(부산대)	손숙경(부산가톨릭대)	신지은(부산대)	양은경(부산대)
오인택(부산교대)	유영옥(동아대)	이정은(국립해양박물관)	이종봉(부산대)
최이숙(동아대)	황경숙(부경대)		

부산구술문화총서 11

중부산 문화권 설화(Ⅲ) 동구·서구·영도구·중구 편

발 행 부산광역시
발 행 처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051-888-5056~8
기획·편집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발 행 일 2020년 10월 31일
인 쇄 대원애드콤
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301-10
ISBN 979-11-85308-28-9
978-89-964675-9-5(세트)

(비매품)

자료검색
부산시 (www.busan.go.kr) 부산소개 〉 부산의 역사 〉 향토사도서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www.bssisa.com)

※ 표지 사진 제공 및 출처 : 서구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과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 이 책의 저작권과 판권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에 있습니다.